

역사를 전환시킨 해전과 해양개혁인물

역사를 전환시킨 해전과 해양개척인물

---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 · 김재철

지은이 · 박광용

발행일 · 2008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급처 · 청년정신

ISBN · 978-89-93648-06-5

---

비매품

# 역사를 전환시킨 해전과 해양개척인물

박광용 지음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발간사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처럼 바다는 세계로 향하는 길이었으며, 바다가 곧 세계 그 자체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의 역사는 바다와 함께 발전해 왔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바다를 두고 경쟁해야만 하는 투쟁의 역사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각국의 관할해역과 해군력은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전사와 해양개척에 관한 연구는 인류의 발전 양상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 연구와 서술은 대륙의 관점에서 정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해양 자체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 진화를 ‘해양 주도권의 향배와 개척’이라는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그동안 잊혔던 우리의 나머지 반쪽 역사인 해양사를 복원하고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책을 발간한다.

특히 이 책은 해양력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부터 인류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됐던 세기의 해전과 주요 해양 인물들의 업적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어 세계화와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 그리고 열린 사고를 통한 포용과 개방이라는 해양문화의 가치와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바다와 해양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해군 제독으로서의 자신의 오랜 경험과 풍부한 지식, 그리고 바다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심도 있는 고찰과 예리한 분석을 이끌어낸 저자 박광용 제독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8. 12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재 철

## 서 문(序文)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라고 한다. 2500여 년에 걸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해양은 자신을 이용할 줄 아는 자에게 부와 힘을 주었고 해양을 제패하는 나라가 당대의 종주국이었다. 그 일례로 15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비교적 고립되어 발전해왔던 각 문명권들은 15세기 이후 외부세계를 향해 활기찬 해상 팽창을 시도하였다.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장기간 치열한 투쟁을 벌이면서 신항로 개척(新航路開拓)과 신대륙 발견에 앞장섰다. 이들 국가들은 해양력을 바탕으로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이들 서유럽 국가들은 이후 4세기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사실상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이들 서유럽 국가들에 의해 식민지로서 고통을 겪었거나 포함외교(砲艦外交)에 굴복하여 불평등 조약을 감수하여 강제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 국가의 흥망과 역사의 진로를 전환시킨 해상영웅과 해전을 선별하여, 보다 흥미롭게 서술하는데 노력하였다. 아울러 해양과 해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시키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기술하였다. 그리고 해양을 개척하고 해양시대의 문을 연 해상영웅과 역사의 진로를 바꾼 해전에서 승리한 역사적 주인공들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위협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기술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제1부 ‘역사를 전환시킨 해전(海戰)’편은 시대별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지구 표면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의 중요성, 해양력과 해군력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해양력과 관련된 용어를 간략히 설명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 6장까지는 고대 노선(櫓船) 시대, 중세 범선(帆船) 시대, 근대 증기선(蒸氣船) 시대와 1·2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전쟁으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 국가의 흥망과 역사의 진로에 영향을 준 주요해전만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선별한 해전들은 해전의 배경과 양상, 해전 경과와 결과를 간략히 분석한 다음, 승패 요인과 해전이 역사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해전을 지휘한 지휘관들의 지휘결심과 지휘 방법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2부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개척인물’편에서는 해양개척의 선구자로서 해상왕 장보고, 무역항로의 개척자 정화, 신대륙 발견자 콜럼버스, 지구일주 항해를 한 마젤란을 해양개척인물로 선정하여 기술하였다. 각각 선별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상황, 무역 신항로 개척과 탐험활동 상황을 기술했고, 그들이 남긴 교훈과 역사에 미친 영향 등을 기술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전쟁 시 전쟁의 국면을 바꿔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준 인천상륙작전과 고대 삼국시대 수·당의 고구려 침공을 실패로 이끈 고구려의 해양력과 해양세력에 관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다.

세상에 내놓기 부끄러운 연구이지만, 이런 수준의 책을 쓰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연구는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다. 연구 내내 아낌없는 조언과 토의를 해준 장학근 박사, 백기인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 해군대학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도 감사를 드린다.

특히 전체의 구성에서 세세한 사실에 이르기까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재철 이사장님, 원고를 꼼꼼하게 읽고 함께 노력을 해주신 천인봉 사무처장님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그리고 한평생 군인의 아내로서 오늘에 내가 있기까지 항상 사랑으로 뒷바라지 한 나의 아내 貞子와 밤늦은 시간까지 원고를 교정해주고 인쇄를 맡아준 사랑하는 나의 막내딸 지희와 사위 영건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모든 이의 사랑과 관심 속에 이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서 정말 행복하고 고마울 뿐이다.

2008년 12월

박광용



## 차 례

### 제1부 역사를 전환시킨 해전海戰

- 제1장 해양력의 본질 ..... 11
- 제2장 고대 노선櫓船 시대 ..... 27
- 제3장 중세 범선帆船 시대 ..... 109
- 제4장 근대 증기선蒸氣船 시대 ..... 279
- 제5장 제1차 세계대전과 거함거포巨艦巨砲 시대 ..... 341
- 제6장 제2차 세계대전 ..... 383
- 제7장 현대 전쟁 ..... 427

### 제2부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개척인물

- 제1장 해양개척의 선구자, 해상왕 장보고 ..... 481
- 제2장 무역항로 개척자, 정화 ..... 509
- 제3장 신대륙 발견자, 콜럼버스 ..... 527
- 제4장 지구일주 항해, 마젤란 ..... 541

제1부  
역사를 전환시킨  
해전海戰

제1장  
해양력의 본질



## 1. 해양력과 해군력

인류의 역사를 민족의 흥망과 더불어 문명 교류의 역사로 본다면 그 촉매역할을 한 것은 바다였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통제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대륙 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인류문명의 고속도로 역할도 하였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도시 경제와 문명은 해운산업에 의존하였으며, 국가는 해운에 요구되는 기술과 재정은 물론 해양에서의 이익을 추구하고 옹호하는 해양력(sea power/maritime power)을 보유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중해 시대의 고대 그리스 문명과 고대 로마 문명 그리고 19세기 대서양 시대에 들어서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고대부터 인간은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여 대륙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국가들은 바다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교전을 벌여 왔다. 지중해 시대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해양력을 바탕으로 동부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독점하고 주변에 식민지를 경영하며 번영을 누렸다. 특히 그리스는 살라미스 해전(Battle of Salamis, B.C. 480)에서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 세력의 지중해 진출을 좌절시켰고 찬란한 그리스 문명 특히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꽃피웠다. 고대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세차레의 포에니 전쟁(Punic Wars, B.C. 264~B.C. 146)을 통해서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였으며, 지중해는 3대륙을 연결하는 로마의 내해로서 로마 제국이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었다.

또한 15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페르시아, 인도, 중국과 같은 세계의 다른 문명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이 신행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 이후에 해양력을 바탕으로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세계무역의 주도권

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이들 서유럽 국가들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4세기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적으로 세계 역사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 서유럽 국가들은 해양패권을 둘러싸고 장기간의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이 기나긴 투쟁과정에서 승리한 영국은, 강력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19세기에 영국 지배하의 평화(Pax Britannica)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찍이 해양력의 중요성을 깨우쳐, 먼저 해양으로 진출하여 이를 이용할 줄 아는 국가에게는 국력신장의 발판이 되는 부와 힘, 번영을 가져온 반면, 내륙지향적인 국가는 정체되거나 퇴보로 이어졌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해양력이란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양력이란 용어가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890년 마한(Alfred T. Mahan, 1840~1914)이 미 해군대학교에 재직 중 『역사에 미친 해양력의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sup>1)</sup>이라는 해양력 저서를 저술하면서 부터이다. 마한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해양력이 역사의 진로와 국가의 번영에 훌륭한 영향을 미쳤으며,<sup>2)</sup> 해양력의 역사는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서 국민을 위대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sup>3)</sup>’라고 주장함으로써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한은 해양력이란 용어를 바다 자체가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Maritime이라는 형용사 대신에 Sea Power라는 복합 명사를 용의주도하게 사용한다고 하였다.<sup>4)</sup>

---

1)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Sampson Low, Marston & Co. (U.K.), 1892. 최초의 판은 1890년에 미국에서 발간되었다.

2)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Sampson Low, Marston & Co. (U.K.), 1892. p.13

3)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Sampson Low, Marston & Co. (U.K.), 1892. p.1

그리하여 마한이 이 용어를 사용한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그가 Sea Power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사실 해양력, 제해권과 같은 해양전략에 관한 용어들은 만져 볼 수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 각각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용어들은 시간과 문화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달리 해석되고 있어 인식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저자가 같은 용어를 상이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sup>5)</sup>

먼저 해양력의 조어자(造語者)인 마한은 ‘광의의 해양력이란 무력에 의하여 해양 또는 해양의 일부를 지배하는 해상군사력(Military Strength Afloat)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통상(Commerce)과 해운(Shipping)을 포함한다<sup>6)</sup>’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를 않았다. 한국의 국방대학교에서는 ‘해양력이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불가결하게 필요한 해양이용의 총역량을 말한다<sup>7)</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해군의 『해군 용어사전』에서는 ‘해양력이란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하며 동시에 적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는 국가의 능력이며 해군은 물론 상선대도 포함된다<sup>8)</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때로는 ‘해양력은

---

4) Mahan이 1897년 2월19일 영국의 출판사 Sampson Low, Marston & Co.사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Maritime이라는 형용사가 세인의 관심을 끌고 깊은 인상을 주기에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주의를 끌고(to compel attention) 널리 파급시키기 위하여(to receive currency)’ Sea Pow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뜻을 전함.

5)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11.

6)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Sampson Low, Marston & Co. (U.K.), 1892. p.25

7)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국방대학교, 2000년1월), p.138

8) John V. Noel AND Beach Edward L. (EDS) *Naval Terms Dictionar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8), p.247.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수단<sup>9)</sup> 또는 ‘해양력이란 해양을 사용하는 능력<sup>10)</sup>’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해양력이란 군사적 형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국력의 한 부분이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해양력의 일관된 개념이 해양의 사용(使用, use)과 통제(統制, control)라는 점이다. 따라서 해양의 사용과 통제 역시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 즉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그리고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력의 본질과 사용에 대해서 마한 제독의 주장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사실로서 ‘해양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속도로<sup>11)</sup>’라는 것이다. 즉, 해양력이 갖는 분명한 이점 중의 하나는 해양을 통제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바다는 고속도로가 되기도 하는 동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마한은 해양력이 갖는 분명한 이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다는 알게 모르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수상(水上)을 이용한 여행이나 교통 등은 지상(地上)을 이용하는 것보다 항상 쉽고 또 값이 저렴하다.”라고 했다.

1890년 마한 제독이 해양력에 대한 그의 저서를 남긴 이래로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비록 해양 관련 기술과 이에 필적하는 지상 및 항공기술 등도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해양력의 효율성이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인 진실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해양력에 대한 역사

---

9)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 *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LONDON; Macmillan Press, 1988), p.3

10) J. R. Hill, *Arms Control at Sea*(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9), p.15

11)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Sampson Low, Marston & Co. (U.K.), 1892. p.25.



적인 효용성을 주장하는 근본은 대략 다음의 3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는 해양의 개념을 하나의 거대한 고속도로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톤당 해양수송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이득이며, 셋째는 지구 표면의 70.8%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순수한 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양력은 한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통합은 물론, 국가 간 분쟁의 과정이나 그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늘 자리해 왔다. 또한 제해권과 해상교통선은 전쟁을 지배하는 생명선이었다는 것이 여러 전쟁과 해전을 통하여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 2. ‘해양력’의 용어 사용

해양은 이를 이용할 줄 아는 국가에게는 국력 신장의 기반이 되었지만 해양은 국가 간 분쟁의 장이 되기 때문에 자국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와 군사력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해양을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해양력이라고 한다. 해양력은 크게 보아 해양지리, 상선대(商船隊) 및 해군력으로 구성된다.<sup>12)</sup>

해군력은 해양력의 군사적 구성요소로 해양력의 보호수단이며, 전투수단이다. 무엇보다 해군력(naval power)은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control)하는 주체이므로 해양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가 해양이 개재된 전쟁을 수행하려면 필히 해양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해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으로부터 방해가 없어야 한다. 만약 전시에 국가가 해양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국가는

---

12) 해양력과 국가의 해양력 요소 및 해군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해군본부, 1994), pp.18~37

해양으로부터 적의 침공을 허용하고 통상해운이 파괴당해 전쟁 수행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시에 각국은 자국의 해양 사용을 보장하고 적국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되는데, 이 투쟁의 주체가 해군력<sup>13)</sup>이다.

고대 노선 시대부터 중세 범선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군력이 전쟁의 결과와 영향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러일전쟁의 사례에서 해군력이 전쟁에 기여한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 함대는 여순 항을 봉쇄하여 러시아 함대의 활동을 억제하고 제해권을 확보하여 지상군을 안전하게 한국과 만주에 수송하였다. 이리하여 조기에 남만주에 전개된 일본 지상군은 러시아군보다 유리하게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일본 지상군의 일부는 해군을 지원하여 여순 항을 함락하고 러시아 함대를 격멸하였다. 그리하여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된 일본 함대는 정비와 훈련을 통해서 전비태세를 유지한 다음 유럽에서 원정한 러시아 발트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러일전쟁을 종결시켰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일본의 해군력은 제해권을 확보하고 지상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일본의 전승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다.

### 3. 해양통제권

#### 해양통제권의 확보 및 유지

해양력과 해군력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해양의 사용과 통제에 관한 것이다. 즉, 자국의 해양 사용을 보장하고 적국의 해양 사용을 거부

---

13) 해군력은 우선적으로 전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되지만 평시에도 그 효용성을 발휘한다. 즉, 해군력은 평시에 세력 균형 및 전략적 억제, 위기관리를 포함한 군사외교적 역할 그리고 불법행위 방지 등 치안 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오늘날에는 해군력의 평시 역할이 전시 못지않게 중요시되고 있다.

한다는 이 개념은 제해권(Command of the Sea) 또는 해양통제권(Control of the Sea)이라는 용어로 집약된다. 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통상제해권과 해양통제권은 같은 개념(구태여 구분하자면 제해권은 해양통제권보다 강화된 의미)으로 사용된다.

해양통제권/제해권이란 국가가 자국의 경제 또는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해양 사용을 확보하고 또한 적국에 대하여는 그러한 해양 사용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한다. 교전 중인 한 국가가 해양 사용에 있어서 우세한 입장에 도달하였을 때, 특히 자국의 목적을 위하여 해양을 사용하고 적국의 해양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 때, 그 국가는 해양통제권을 획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통제권의 확보 및 유지는 이를 방해하는 적의 해군력을 격파하거나 무력화함으로써 달성된다. 전통적으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으로 결전(決戰, decisive battle), 현존함대전략(現存艦隊 戰略), 함대봉쇄(艦隊封鎖, fleet blockade)가 취해졌다.

결전이란 적의 함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위협이 다르므로 가용한 세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destroying)한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결전은 우세한 함대가 열세한 함대에 대하여 사용하는 직접적이며 신속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결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력의 집중과 뛰어난 전투기량 그리고 왕성한 공격정신 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전은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공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결전으로는 살라미스 해전(Battle of Salamis, B.C. 480), 레판토 해전(Battle of Lepanto, 1571), 한산도 해전(1592), 트라팔가르 해전(Battle of Trafalgar, 1805) 및 대마 해전(Battle of Tsushima, 190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해전들은 상대방의 함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決戰이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함대가 상투적으로 취해왔던 최선의 방법이 현존함대전략(現存艦隊戰略)이다. 현존함대(fleet in being)란 상대적으로 열세한 함대가 결전을 회피하고 세력을 보존함으로써 적의 전투 또는 공격의지를 발동할 수 없게 견제(diverting)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현존함대는 적의 통상(通商) 또는 연안을 공격하거나 적의 주력에서 이탈한 소부대를 공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적을 약화시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본질적으로 수세이나 전술적으로는 공세로 보고 있다.

현존함대전략의 대표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 해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영국 함대에 비하여 열세한 독일 함대는 현존함대전략을 채택하고 영국 해안에 대한 습격을 가하면서 영국 함대의 주력에서 분리된 소부대를 공격함으로써 영국 함대 세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기도하였다. 그러한 해전의 결과로 나타난 해전이 도거뱅크 해전(Battle of Dogger Bank, 1915. 1. 24.)과 유틀란트 해전(Battle of Jutland, 1916. 5. 31)이었다. 결국 독일 함대는 영국 함대를 견제하는 역할만 어느 정도 달성하였을 뿐 영국 함대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했던 원래의 기도를 달성하지 못했다.

함대봉쇄는 결전을 회피하고 현존함대전략을 채택하는 적의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항만을 봉쇄하는 전략이다. 적이 무력화된다면 봉쇄 측 해군은 봉쇄선 배후에서 해양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봉쇄에 참가하지 않는 세력은 해양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대봉쇄는 적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와 적 세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전략적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함대봉쇄는 봉쇄 측 함대의 과도한 노력의 소모와 적의 연안방어 세력에 의한 반격의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함대봉쇄는 전략적으로는 공세이나 전술적으로는 수세일 수 있다.

함대봉쇄의 예를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1738~1748)에서 영국 해군은 영국의 무역을 보

호하고 침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주요 항구를 봉쇄하였다. 프랑스 항구에 대한 영국 해군의 봉쇄작전은 7년 전쟁(1756~1763)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프랑스 함대의 해양진출이 차단되었고 프랑스의 무역이 침체에 빠졌던 것이다.

상대방의 함대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으로는 18~19세기에 서양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했던 요새함대(要塞艦隊, fortress fleet) 전략이 있다. 요새함대전략이란 러시아에서 발상된 요새지상주의의 대륙적 사상이다. 요새함대전략은 적의 해상공격으로부터 요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대가 해상결전을 회피하고 요새의 비호 아래 있다가 유리한 시기에 적의 함대를 격파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요새함대전략은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모두 수세이다.

전사를 통해서 볼 때, 요새함대전략은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청일 전쟁 시, 위해위(威海衛) 봉쇄전(1895. 2)에서는 청 함대가, 미국·스페인 전쟁 시 산티아고 해전(Battle of Santiago, 1898. 4~7)에서는 스페인 함대 그리고 러일 전쟁 시 여순 항(旅順港) 봉쇄전(1904. 2~12)에서는 러시아 함대가 요새함대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들 경우, 육상으로부터 배후공격이 요새함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즉 공세 측 함대는 요새의 비호 아래 있는 함대를 외해로 끌어내어 해상결전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요새 배후에 대한 지상공격 또는 상륙작전을 통한 합동작전을 감행하여 요새함대를 격파하였던 것이다.

#### 해양통제권의 행사

해양통제권의 행사는 해양의 사용 단계를 말하며 전승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양통제권의 행사에 앞서 이의 확보 및 유지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전사를 통해 볼 때, 해양통제권의 확보와 행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목표와 세력

의 분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미드웨이 해전(Battle of Midway, 1942. 6. 4)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해양통제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해군작전, 즉 군사력투사(軍事力投射, power projection), 침공(侵攻)에 대한 방어(防禦), 해상교통로(海上交通路)에 대한 공격(攻擊) 및 해상교통로의 방호(防護)를 위하여 행사된다. 다시 말하면 해양통제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상 네 가지 해군작전이 불가능하거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네 가지 해군작전은 실제로 자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적국에게 압력을 가하여 전승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작전들이다.

군사력투사는 적국의 영토에 대한 함포사격, 전술항공공격, 상륙작전 등 해양으로부터 가해지는 對 육상작전을 말한다. 걸프 전쟁(1991)에서 연합군 해군에 의하여 수행된 토마호크 미사일(TLAM) 공격, 항공모함의 전술 항공공격, 전함 수상전투단(SAG)의 함포사격 그리고 상륙작전 등은 전형적인 군사력투사였다.

침공에 대한 방어는 적의 군사력투사에 대한 자국의 연안방어를 의미한다. 해양통제권을 확보한 국가는 영토를 방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막강한 지상군을 가지고 영국을 침공하려고 기도하였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영국 함대가 영국 해협의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은 통상파괴(通商破壞)와 상업봉쇄(商業封鎖, commercial blockade)를 통하여 적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박탈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1, 2차 세계대전 시에 연합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독일의 U-보트의 공격과 태평양 전쟁 시에 일본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미국 해군의 공격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흔히 통상파괴전(通商破壞戰, guerre de course/commerce destroying)으로 표현되는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은 고대 시대부터의 해적

행위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해군전의 한 형태로서 또한 유용한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sup>14)</sup>의 하나로써 본격적으로 채택된 것은 중세 범선 시대(帆船時代)부터였다. 이 전략의 유용성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현대 전쟁에 이를수록 더욱 증대되었으며, 공격 수단도 수상함, 잠수함, 기뢰 및 항공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해상교통로에 대한 방호는 자국의 해운과 통상을 방호함으로써 전쟁 수행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통상과괴에 대한 대응작전인 해상교통로 방호는 중세 범선 시대의 사략선(私掠船, privateer)<sup>15)</sup>과 해적선에 대응하기 위한 상선대의 조직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무장상선 또는 선단 호송(船團護送, convoy escort) 등의 제반 수단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었다.

#### 해군전과 해전

여기서 우리는 이 연구의 주제인 해전(海戰, sea battle)과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양과 관련된 전쟁에서 교전 당사국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국의 해양 사용을 보장하고 적국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서로 투쟁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적대적인 양측의 해군력이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전투와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수단은 전투력을 지닌 해상 세력, 즉, 해군(Navy) 또는 해군력(Naval Power)에

---

14) 해양전략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시 및 전시에 국가의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해양력이란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해양전략의 목표는 국가의 해양 사용과 통제능력을 계속 보장하는 데 있다. 해양력과 국가의 해양력 요소 및 해군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김종기, 『해양전략개론』(해군본부, 1994), pp.38~42

15)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무장 약탈선

의해서 수행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해군과 해군력은 한 국가가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데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구(舊) 소련 해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고르슈코프(Sergei G. Gorshkov) 제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군은 영토가 해양과 대양에 접해있는 국가의 독립을 강화하고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함대의 전투력(Strength of the Fleet)은 국가가 강대국 대열에 들어가도록 조장하는 요소의 하나이며, 더욱이 역사는 해군부대(Naval Force)를 갖지 못한 국가가 오랫동안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sup>16)</sup>

이와 같이 해양력의 보호수단이며, 전투력 요소인 해군은 해양을 사용함에 있어 군사적 역할, 치안유지 역할 그리고 해외에서는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7)</sup> 해군이 바다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 살고 있는 육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주권보호, 질서유지 그리고 자원보호 임무를 수행한다.<sup>18)</sup> 특히, 해군은 군사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력 균형 및 군사력투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시의 세력 균형 기능에 있어서 해군은 억제와 방어를 제공하며,<sup>19)</sup> 전시의 군사력투사 기능에서 적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고 자국의 해양 사용을 목적으로 해양통제권/제해권(Command of the Sea)을 유지한다.<sup>20)</sup>

그러면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는 과정에서 해군력에

---

16) Sergei G. Gorshkov, *Sea Power of the State*(Oxford: Pergamon Press, 1979). p.59

17) K.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London: Croom Helm, 1977), p.16

18) James Cable, *Navies and Violent Peace*(London: Macmillan Press, 1978), pp.82~91

19) K.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London: Croom Helm, 1977), pp.22~23

20) K.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London: Croom Helm, 1977), pp.23~25



의하여 수행되는 해군전(海軍戰, naval warfare), 해군전역(海軍戰役, naval campaign), 해군작전(海軍作戰, naval operation) 그리고 해전(海戰, sea battle)의 개념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해군전<sup>21)</sup>이란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고 적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전투에서 모든 해군부대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군전은 함대 대 함대전투(艦隊對艦隊戰鬪, fleet against fleet)를 비롯하여 함대 대 상선전투(艦隊對商船戰鬪)와 함대 대 육지전투(艦隊對陸地戰鬪)를 망라하는 개념이며, 대함전(對艦戰), 대공전(對空戰), 대잠전(對潛戰), 상륙전(上陸戰), 기뢰전(機雷戰), 통상과괴전 및 선단 호송 등 전투와 관련된 해군부대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전역(戰役, campaign)이란 통상 주어진 공간 및 시간 내에서 공통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향된 일련의 관련된 군사작전을 말한다. 그러므로 해군전역이란 해양통제권을 확보, 확장 또는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수상, 수중, 공중 및 상륙부대를 포함한 해군부대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의 작전 또는 일련의 작전을 말한다. 해군전역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는 과달카날 전역(Guadalcanal Campaign, 1942. 8. 7~1943. 2. 7)을 들 수 있는데, 이 전역은 미군의 과달카날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육상과 주변해역에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일련의 공방전으로 전개되었다. 이 전역에서 미국과 일본 해군은 사보 섬 해전(Battle of Savo Island, 1942. 8. 9)부터 타사파롱가 해전(Battle of Tassafaronga, 1942. 11. 30)에 이르기까지 7차례나 해전이 전개되었다.

해군작전이란 전략, 전술, 군수 또는 훈련을 포함하는 해군의 행동(action) 또는 해군임무의 수행을 말한다. 즉, 어떤 전투나 전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해군전투의 수행과정, 지원과정 또는 훈련 과정을 의미한다. 해군작전은 강습작전, 대잠작전, 대공작전 또는 상

---

21) 해군전(naval warfare)은 지상전(land/ground warfare) 및 항공전(air warfare)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戰(warfare)이란 戰爭(war)의 특수한 형태이다.

륙작전과 같이 성분작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과달카날 전역의 워치타워 작전(Operation Watchtower)처럼 특수한 작전을 위한 명칭이 부여되기도 한다.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전투다. 전투(戰鬪, battle)란 전쟁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적대적인 지상군부대, 해군부대, 또는 항공부대 간의 살상력(殺傷力)을 교환하는 교전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해전이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기 위하여 적대적인 양측 함대 또는 해군부대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전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해전은 해군전에서 함대 대 함대전투의 개념이다.

역사와 전사에서 전투와 해전은 모두 battle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battle은 일정한 시간 그리고 공간에서 수행되는 교전행위(交戰行爲)를 말한다. 전투가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일련의 전투는 흔히 전역(戰役, campaign)으로 기록된다.

칸네 전투(Battle of Cannae, B.C. 216), 워털루 전투(Battle of Waterloo, 1815. 6. 18), 타넨베르크 전투(Battle of Tannenberg, 1914. 8. 26~31) 등은 지상전에서 나타났던 유명한 전투이다, 살라미스 해전(Battle of Salamis, B.C. 480), 칼레 해전(Battle of Calais, 1588. 8. 6), 트라팔가르 해전(Battle of Trafalgar, 1805),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Battle of Midway, 1942. 6. 4~6) 등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해전이다. 이들 해전은 해양전략과 해군전술 측면에서 극적으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로, 국가의 흥망 또는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해전들이었다.

그러면 다음 장부터는 본 연구의 주제인 역사의 진로와 국가의 흥망 또는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해전들을 선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제2장

### 고대 노선櫓船 시대



## 1. 지중해 시대의 해상 쟁패

### 지중해의 해양활동

고대 노선 시대의 해전은 일반적으로 살라미스 해전(Battle of Salamis, B.C. 480)부터 레판토 해전(Battle of Lepanto, A.D. 157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해전에 관한 역사기록을 보면 기원전 5세기보다 훨씬 이전에 동부 지중해 해역 에게 해(Aegean Sea)에서는 ‘바닷사람들’의 활발한 교역과 약탈, 해전, 그리고 파괴가 반복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원전 10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머(Homer)는 그가 저술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Odyssey)』에서 그가 살던 시대로부터 수백 년 전에 이미 지중해는 해상무역, 해적행위, 그리고 조직적인 해전이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다.<sup>22)</sup> 고대부터 지중해 연안의 민족들은 해양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부를 쌓고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그들의 문명을 타 지역에 전파하였다. 그들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연안으로 이어지는 해상무역을 주업으로 하였는데, 해상수송은 육로수송보다 용이하고 안전하며 값이 싼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해상무역에는 약탈행위와 주도권 쟁탈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들 가운데 에게 해 크레타 섬의 크레타인(Cretan)은 기원전 25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양문명의 영향을 받아 강력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크레타 문명의 중심지인 크레타 섬에서는 기원전 1600년경부터 올리브를 재배했고, 대형 선박을 건조한 크레타인은 활발한 교역을 통하여 번영을 누렸으며, 강력한 해양력을 행사하여 수도인 크노소스에 거대한 왕궁을 건설하는 등 강력한 도시국가로 성장하였다.<sup>23)</sup> 지리적으로 동부 지중해의 주요 해상교통로

---

22) W.O Stevences and Allan Westcott, *A History of Sea Power*(New York, Doubleday & Co. 1942), p.2

에 위치한 크레타는 자국의 무역활동에 유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군력으로 경쟁국을 공격하거나 경쟁국의 무역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나 크레타는 동부 지중해 세계가 대변혁을 겪는 가운데 새로운 이웃 ‘바다사람들’에게 계속 약탈을 당해 차츰 제해권을 상실하면서, 그들이 자랑하던 해군마저 붕괴되어 기원전 1200년경에 멸망하고 만다.

크레타인을 대신하여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한 지배자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지금의 시리아 북부에 국가를 건설한 페니키아인(Phoenician)이었다. 그들은 해안의 백색 규사를 원료로 한 유리와, 뮤렉스(murex)라는 소라 고동을 으깨어 만든 진홍색의 염료로 염색 등의 공업을 발달시켜 적극적으로 교역에 나섰다. 이 염료로 물들인 모직물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고가로 거래되면서 번영을 누렸다.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난 페니키아인은 레바논 삼(杉)이라는 양질의 목재로 배를 만들어 오리엔트와 지중해 여러 지역을 오가며 교역을 하였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선진 문명을 지중해 각지에 전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으며, 교역과 문명을 여러 민족에게 편리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궁리하여 22개의 자음으로 된 편리한 알파벳(시나이 문자)을 만들었다.<sup>23)</sup>

페니키아인은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인이 본격적으로 해양에 진출하기 전까지 동부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지배하고 해양패권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통상로의 거점을 마련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

---

23) 크노소스를 발굴한 고고학자 에번스의 추정에 따르면 크노소스는 약 8만 명이 살던 대도시로 작은 산의 정상에 깎아 중정(中庭)을 만들었으며, 주변에는 방이 1,500개나 되는 3~5층짜리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 대부분은 창고와 공방으로 이용되었다

24) 이후 페니키아 알파벳은 모음이 첨가되어 그리스 문자가 되었고, 로마로 전해져 서유럽의 여러 문자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스 문자도 동유럽에 전해져 슬라브 등 여러 문자의 근원이 되었다.

하여 지중해 연안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식민지가 지금의 튀니지(Tunisia)에 건설한 카르타고(Carthage)였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9세기경에 북아프리카,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시칠리아(Sicilia)<sup>25)</sup>의 일부와 스페인을 지배하는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서부 지중해의 통상을 지배하고, 해양패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페니키아는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에 의해서 동부 지중해에서 축출되고, 서부 지중해의 해양패권을 누렸던 페니키아의 식민지인 카르타고 역시 로마와의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포에니 전쟁(Punic War, B.C. 264~B.C. 146)에서 패함에 따라 멸망하게 된다.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중해 해상 패권을 장악한 도시국가, 로마가 그 후 무위도식의 생활에 빠지자, 검투사로 전락한 노예들의 반란이 잇달아 일어났다. 지중해 또한 해적의 창궐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자, 시저(카이사르) 등 3명의 실력자가 나서 ‘삼두정치’로 혼란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권력쟁탈전에서 승리한 시저가 반대파에게 암살당하자, 시저파의 3명의 수뇌가 제2차 삼두정치를 실시하여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윽고 같은 파인 안토니우스(시저의 유력한 장군)와 옥타비아누스(시저의 양자)는 지중해 세계를 양분해 다투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매혹되어 그녀와 함께 동방제국을 건설하여 로마로부터 분리할 것을 획책하게 된다. 그에 대항한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쳐부수고 이집트까지 무너뜨렸다.

지중해를 통일한지 불과 1년 만에 로마는 공화제에서 제정국가로 이행해 간다. 그 후 로마는 쇠퇴와 재건을 반복하면서도 지중해의 해양패권을 위해 해양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1453년 오토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

---

25) 이탈리아 남쪽의 섬으로 시실리(Sicily)라고도 불리며 시실리는 시칠리아의 영어식 이름이다.

락되고 동로마 제국(비잔틴 제국)은 멸망한다.

### 지중해 국가의 해양전략

B.C. 500년부터 A.D. 1500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 동안에 걸쳐 지중해라는 좁은 바다에서는 지중해의 연안 국가들이 해상패권을 두고 많은 해전을 치렀다. 이 시대 지중해를 둘러싸고 대륙주의 육상 강국들이 해양강국들에 대항하여 전통적으로 거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대륙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해양력의 전략적인 이용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발전 가능한 만큼의 강력한 해군력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 현명하게 사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대 지중해 국가들이 해양에서 벌린 전쟁의 중심적 사실은, 페르시아나 스파르타, 로마와 같은 강력한 대륙국가가 아테네, 카르타고와 같은 해양 국가를 지배했던 역사이기보다는, 대륙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해양 세력의 해양 국가들을 패퇴시키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세한 전력을 해양에서 창출하도록 요구받게 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양력을 건설하고 일류(first class) 해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이다.

광대한 대륙적 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는 에게 해 방향의 성가신 그리스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적 진압을 시도했으나 거의 재앙에 가까운 실패로 끝났다. B.C. 492년과 B.C. 490년, B.C. 480~B.C. 479년 등에 있었던 그러한 시도들은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했다. 기원전 492년에는 아토스 산(Mount Athos) 근처 해상에서 폭풍으로 함대가 난파되었으며, 그 다음의 시도에서는 작전 및 전술상의 커다란 실수로 인하여 패배를 자초하였다. 즉, 기원전 480년에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고 기원전 479년에는 플라테아(Plataea)와 마이칼(Mycale)의 지상전에서 그리스 동맹국들이 승리했던 것이다. 페르시



아가 그리스를 침략하고서도 아무런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결국은 B.C. 413~B.C. 412년 이후에 가서 아테네 제국과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우세권 확보를 위한 동족상잔의 투쟁을 통해 페르시아가 제3자로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6)</sup>. 즉 살라미스 해전에서 굴욕적인 패배의 수모를 당한 지 75년 뒤,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를 지원하여 기원전 405년 다다넬스 해협의 아에고스포타미(Aegospotami)에 있던 아테네 함대를 물리치고 스파르타 해군이 승리를 거두게 함으로써 복수를 할 수 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B.C. 431~B.C. 404)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과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한 후 승리의 주역인 아테네를 중심으로 200여 개의 폴리스(polis, 도시국가)가 모여 결성한 대(對)페르시아 해양 동맹, 즉 델로스 동맹(Delosian League)국과 아테네의 강성화를 겁낸 여러 다른 폴리스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아테네에 대항하여 결성한 펠로폰네소스 동맹(Peloponnesian League)국들 간에 그리스 지배권을 두고 벌인 전쟁이다.

개전 초기에는 델로스 동맹국들이 제해권을 장악하여,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국의 연안을 유린하고 스파르타에게 소모전을 강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륙주의 국가였던 스파르타는 전략적으로 명백한 약점을 찾기 어려웠던 아테네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지리 전략적인 문제들을 몇십 년 동안 안고 있었다. 즉, 전통적으로 대륙주의 전쟁 수행 방법을 택했던 스파르타는 상업중심의 해양제국인 아테네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가지지 못했다. 아테네 역시 막강한 스파르타군을 무찌를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다.

---

26) Adda B. Bozeman, *Politics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History*(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p.68~70

그 당시 아테네는 강력한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등장하여 반대 세력을 누르고 자립을 원칙으로 하는 폴리스 세계의 전통을 깨뜨리고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유용하여 찬란한 아테네의 문명을 재건하면서 페리클레스 시대(B.C. 443~B.C. 429)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 '제국'으로 변질하였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제국의 건설을 위해, 이집트 점령을 시도했고(B.C. 457~B.C. 446), 그 후에는 보에티아(Boetia)를 정복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팽창전략을 확장함으로써 재앙을 초래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원전 450년 페리클레스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시 성곽을 피레우스(Piraeus) 항구까지 연결시킨 긴 성벽을 쌓아 스파르타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즉 바다로 접근하는 핵심적인 길목(choke point)을 성벽으로 막았으며, 그것으로 아티카(Attica)의 농장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 도중에 스파르타에게 행운이 찾아들었다. 아테네에 역병(疫病, 페스트)의 유행으로 지도자 페리클레스의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아테네 지도층의 내분 등으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B.C. 415~B.C. 413년에 있었던 시칠리아 원정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병력 손실과 국력의 소모 등으로 말미암아 아테네가 고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을 때 또다시 다다넬즈 해협을 통제하기 위한 해군작전에서 경계 부주의로 인하여 커다란 실책을 저지르게 되었다.

사실 그 당시 스파르타는 전쟁에 지쳐 있었고 아테네 제국을 무너뜨리는 전망에 있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기원전 410년대에 있었던 아테네의 정치, 전략, 기술적인 주요 실책들이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스파르타의 전망을 변화시켰다. 스파르타는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테네를 그들 자신의 해군으로 해양에서 격퇴하는 길이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다음의 10년 동안

스파르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간의 숙적이었던 페르시아로부터 막대한 재정적인 보조금과 원조를 받아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고 해륙양면으로 아테네를 공격하였다.<sup>27)</sup> 페르시아는 해양에서 아테네에 도전할 있는 전투함대를 건설하고 또 견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스파르타에게 자금을 제공했다.

페르시아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 아래 해군을 건설한 스파르타는 아테네 제국의 전략적 중심인 크리미아로부터 해양을 통해 오는 가장 중요한 곡물 수송로인 다다넬즈 해협을 좁은 협곡에서 지속적으로 아테네 곡물수송에 대한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아테네를 계속 괴롭혔다. 결국 기원전 405년 아테네는 다다넬즈 해협의 아에고스포타미해전(Battle of Aegospotami, B.C. 405)에서 리산더(Lysander) 휘하의 스파르타 함대에 의해 아테네의 최후 함대가 기습을 받아 전멸하였다. 함대의 전멸로 더 이상 투쟁을 할 수 없게 된 아테네는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sup>28)</sup>

해양강국인 아테네의 항복은 육상 강국이었던 스파르타가 해군력을 건설하고 일류 해군을 확보하여 해양 세력인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보여 주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면 동일한 전략적 환경에 있었던 로마는 기원전 3세기경에 더욱 극적인 예를 보여준다.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지상전투에만 능했던 로마는 우세한 해양력을 보유한 카르타고를 해양(시칠리아)에서 격파하기 위하여 강력한 해군을 양성하고 비밀 무기를 탑재한 전투함선을 건조함으로써 카르타고보다 월등한

---

27) Barry S. Strauss and Josiah Ober, *The Anatomy of Error: Ancient Disasters and Their Lessons for Modern Strategist*(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28) 그 이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B.C. 334~B.C. 330년 철저히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써 그리스의 페르시아 문제는 1620년대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의 군사력을 지중해로부터 멀리 격리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페르시아는 지리 전략적으로 해군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해양력을 확보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지중해 시대의 해전양상

고대 노선 시대 해전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함정과 무기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대 지중해에서는 두 종류의 선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길이와 폭의 비가 큰 전투용 갤리선(galley)이었고, 다른 하나는 길이와 폭의 비율이 갤리선보다 작은 둥그스름한 일반 상선이었다.

전투용 갤리선은 하나나 두 개의 돛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경우 라틴 세일(lateen sail)<sup>29)</sup>을 사용했다. 고대 전투용 갤리선은 현 측에 설치된 노를 젓는 자리의 옆에 따라 1단 노선, 2단 노선, 3단 노선(trireme)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노선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아테네의 3단 노선이었다.

갤리선은 적선을 충돌하여 파괴할 수 있도록 돌출부인 선수에 견고한 충각(衝角, ramming)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선체는 가늘고 흘수는 낮았는데, 이는 보다 좋은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3단 노선은 9세기 말 중세의 표준형 갤리선이 출현할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16세기 초 레판토 해전 시에는 갤리선보다 더 중무장된 갈레아스(Galleass)선이 등장하였다. 대포를 장비한 이 갈레아스선이 레판토 해전에서 기독교 연합 함대가 터키 함대를 제압할 때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하여 상선은 당시 운송수요가 가장 많았던 곡물을 최대한 많이 적재하기 위하여, 선박의 길이가 폭의 2, 3배 정도밖에 안 되는 두루뭉술하고 흘수가 깊은 선체를 지니고 있었다.

이 두 종류의 선박이 고대 지중해에서 중세를 거쳐 근세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상하지 않다. 이 시대 해전이 치러진 해역은 대부분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좁은 바다나 해안 가까이에서 해

---

29) 돛의 일종으로 三角帆임

전이 치러졌다. 흔히 나타나는 해전의 양상을 보면, 어느 지상군이 적의 도시(대개 항구)를 포위공격 할 때 공격 측의 함대가 적의 항만을 봉쇄하여 적의 탈출이나 외부로부터 지원을 차단하였다. 이 경우에 봉쇄를 가한 함대와 봉쇄를 당한 함대가 전투를 벌이게 된다. 따라서 전투함선의 항정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해상상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내해나 다름없는 좁은 해역이나 연안에서 해전을 치렀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고대 노선 시대의 해전은 대부분 지상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고대 노선 시대 해상전투에서 사용된 무기는 일반적으로 지상전에서 사용한 활, 쇠뇌(catapult), 그리스 화약(Greek fire) 등이 사용되었으며, 백병전에서는 창과 칼, 방패 등이 사용되었다.

고대와 중세의 노선 시대 해상전투는 직진, 충격, 돌격이라는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오랫동안 걸쳐 정형화된 갈리선의 전투방법이다. 이 전투법은 본질적인 면에서 육상의 전투법을 그대로 해상으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았는바, 한마디로 해상에서의 백병전(boarding)이었다.

전투는 양군이 근접전투를 위하여 선박을 접근하면서 원거리에서 화살, 쇠뇌, 그리스 화약 등을 쏘아대어 적을 혼란시켜 제압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근접전투단계에 들어가면 적선을 격파하기 위하여 충각(衝角, ramming) 전술이 사용되었는데 이때 적선의 현 측을 정통으로 충각하면 적선이 침몰할 때 적선으로부터 충각장치가 미처 빠지지 않고 함께 침몰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적선을 비스듬히 충각하여 적선의 노를 부러뜨려 적선을 기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상투적인 전술이었다.

이처럼 서로 접근하여 난전(亂戰, Melee)에 돌입하면, 최후에 어느

쪽으로부터이든 병사들을 적선에 승선시켜 창과 칼 그리고 방패를 이용하여 백병전을 전개하여 승패를 가름하는 식의 해전이였다. 포에니 전쟁에서는 로마 함선이 ‘코르부스’(corvus 또는 raven, 回轉式 假橋)를 사용하여 육상전투에 능한 로마 병사들이 카르타고 함선으로 건너가 카르타고 함선을 제압하였던 것이다.<sup>30)</sup>

백병전이 전투의 주류를 이르는 경우의 해전에서 사용된 전투진형은, 충각장치가 있는 강한 선수를 적에게 향하도록 하고 취약한 현측을 아군 함선끼리 보호할 수 있는 단횡렬진(單橫列陣, single line abreast)이 보다 효과적이였다. 이는 지휘 하에 있는 선박을 옆으로 나란히 정렬시켜, 그대로 적진으로 돌진토록 하는 방법으로써, 중앙진(中央陣)을 형성하는 함대의 양익(兩翼)에다 좌익진(左翼陣)과 우익진(右翼陣)을 배치하여 이들을 적당히 움직임으로써,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것이였다. 그러나 피아(彼我)의 양쪽 함대가 충돌하여 충격을 마친 다음 돌격이 개시되면, 더 이상의 함대로서의 통일된 행동이 불가능해졌다. 다른 곳을 쳐다볼 틈 없이 눈앞의 적병과 몸으로 부딪쳐 상대를 압도하는 길만이 승리하고 살아남는 길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대의 해상전투는 대개 해안 가까이에서 육상전투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취약한 자신의 측방을 방호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포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형의 한쪽 끝을 해안 가까이 근접시키는 연안전투로 진행되였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 하에 본장에서는 고대 노선 시대 지중해의 제해권을 두고 쟁투를 벌린 주요 해전 중 인류 역사와 문명의 진로를 바꾼 사례 중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살라미스 해전(Battle of Salamis B.C.

---

30) Barry S. Strauss and Josiah Ober, *The Anatomy of Error: Ancient Disasters and Their Lessons for Modern Strategists*(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27

480),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Punic War) 시의 제(諸)해전, 비록 내부 권력 쟁탈전의 성격을 지녔지만 로마를 제정국가로 이행 시킨 악티움 해전, 그리고 1000여 년 지속된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터키 제국 간의 지중해 해상 쟁탈전인 레판토 해전을 선별하여 살펴 보기로 했다.

## 2. 그리스 도시연합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 지중해 제해권 경쟁

-살라미스 해전(The Battle of Salamis, B.C. 480)<sup>31)</sup>-

#### 개요

기원전 480년 에게 해와 흑해의 무역거점을 두고 벌인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제3차 전쟁에서 그리스가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전환점은 살라미스 해전이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은 해전의 승패는 전쟁의 향방은 물론 중동과 유럽문명의 진로를 결정지은 대표적인 해전이었다. 페르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그리스 전체를 구출했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테네의 해양력이었으며, 세계사 속에서 아마도 해양력의 전략적 영향력이 침공군의 운명을 좌우했던 사례는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원전 480년 봄에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Xerxes)는 18만 명의 지상군과 함께 수백 척의 수송선과 약 1,300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페르시아 함대를 동원한 그 당시 사상 최대의 그리스 제3차 원정을 감행하였다. 페르시아 지상군은 테르모필레(Thermopylae)에서 강

---

31) 아테네에 인접한 섬,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함락되기 전 아테네 시민을 살리기 위해 살라미스 섬으로 이주시킴.

력한 스파르타(Sparta) 지상군을 주축으로 한 그리스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곧이어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를 점령한 후, 그리스의 마지막 도시국가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진격을 서둘렀다. 그리스의 연합 함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페르시아와 결전을 벌인 최후의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이다.

살라미스 해전은 페르시아 함대의 대규모 수적 우세가 활용될 수 없는 매우 좁은 해역에서 치러졌으며, 300~400척의 그리스 함대가 700~1,400척(광범위하게 추정할 때)의 페르시아 함대를 격퇴시킴으로써, 크세르크세스는 대부분의 휘하 지상군과 함께 아시아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다음해인 기원전 479년에는 페르시아는 장수 말도니우스(Mardonius)를 앞장세워 그리스 본토를 재침공했으나 그리스의 우수한 전술로 인해 플라타이 지상전투에서 또 패배했다. 이로써 그리스군은 에게 해를 가로질러 페르시아 함대를 억류할 수 있는 직접적 효과를 가져왔던 지상전투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페르시아의 유럽 진출 야망을 좌절시켰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의 승리는 동방 세력의 지중해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의 독립을 보전하고 이후 서양문명의 기반을 이루는 그리스 문명 특히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민주주의 정치의 싹이 잘리지 않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주도권 경쟁

그리스인은 기원전 8세기경에 페니키아인 등 선주민의 영향을 받아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에게 해 일대에서 활발한 해양활동을 했으며, 발칸 반도와 소아시아 연안의 좁은 분지와 협소한 평야에 올리



브 재배를 확대하여 인구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소규모 폴리스(Polis, 도시국가)를 1,000여 개나 구축하였다. 그 당시 폴리스의 이상적인 시민의 수를 플라톤은 5,040명이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곳에 모아서 웅변가의 소리가 닿는’ 범위인 2,000명이라고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폴리스의 규모는 작았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교역의 중심이자 농민들의 공동방위의 거점이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주와 식민이 물밀듯이 이루어져 흑해, 에게 해, 동부 지중해 주변에 무역거점을 위한 많은 식민도시가 세워졌다. 현재의 이스탄불, 나폴리, 마르세유, 모나코 등은 원래 그리스의 식민도시였다.

기원전 6세기가 되자, 그리스에서는 흑해연안 지방으로부터 노예수입이 활발해지고 은화가 보급되면서 상업이 점점 활기를 띠었다. 수많은 폴리스 중에서 두드러지게 큰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는데 각각 상업형과 정복형의 전형적인 폴리스였다.

아테네는 올리브유, 도기(陶器), 무기장구(武器裝具)를 수출하고 대량의 곡물과 노예를 수입하는 무역국가로 급성장하면서 그리스 최대의 폴리스로 번영을 누렸다. 아테네는 기원전 6세기 초가 되자, 집정관 클레이스테네스가 형식적인 면에서 귀족과 평민의 차이를 없애고 시민이 권리와 의무로 직접 정치를 하는 민주정치(테모크라시)를 시작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었고, 그 당시 인구가 3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아테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흑해(Black Sea)의 크리미아로부터 헬레스폰트(Hellespont) 해협<sup>32)</sup>을 통하여 들어오는 곡물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해상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리스의 해양력을 잘 묘사한 호머의 서사시 『일리아드(Iliad.)』<sup>33)</sup>

32) 현재의 이스탄불과 터키 본토사이의 다다넬스(Dardanelles) 해협

33) N. K. Sanders, *The Sea Peoples*(London: Thames and Hudson, 1985), pp.186~191

의 주제인 트로이 전쟁(Trojan War)<sup>34</sup>은 헬레스폰트의 통제와 흑해의 무역을 둘러싼 상업전쟁이었다. 그리스는 기원전 5세기에 에게 해와 흑해에서 무역마찰과 약탈 행위를 해온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세력을 축출하고 해상보급로를 확보하면서 동부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독점하였다.

한편,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선주민인 아카이아인을 정복하여 넓은 농지를 얻었는데 선주민의 수가 시민의 10배를 넘었다. 스파르타가 선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했다. 기원전 4세기 전반에는 1,500~2,000명의 스파르타 시민이 2만 명의 페리오이코이(반자유인)와 5만 명의 헤일로타이(예속농민)를 지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스파르타에서는 사치를 배제하였고 시민의 아이들은 일곱 살이 되면 엄격한 집단교육(스파르타 교육)을 받으며 서른 살이 되어야 비로소 가정을 갖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 일상적으로도 15명의 식사단을 조직하여 생활했으며 전시에는 그것이 전투단위가 되었다. 유아기부터 혹독한 군사훈련 덕분에 스파르타는 폴리스 세계에서 최강의 육군력을 자랑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 본토는 서로가 다루기 어려운 독립된 도시국가, 특히 스파르타의 위협과 경쟁으로 인해 항상 불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B.C. 6세기 후반에 들어서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강력한 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변방 예속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에 에게 해와 흑해에서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세력을 축출하고 동부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독점하면서 국가의 부(富)를 축적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이미 정복한 소아시아(Asia Minor)<sup>35</sup> 연안, 트라키아(Thracia), 시칠리아와 남부 이

---

34) 트로이는 페니키아가 세운 도시국가로서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 목마'로 더 잘 알려져 많은 영화로 제작되고 있음.

탈리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무역거점을 확보하면서, 그리스의 최대 도시국가로서 번영을 누렸다. 이제 강력한 해양국가가 된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원조 없이도 스파르타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Susa)에서 페르시아의 대왕에게 사신을 통해 전통적인 항복의 상징물인 아테네의 흙과 물을 제출하는 것을 거절했다.

또한 역으로 아테네와 여타 그리스 본토의 도시국가들이 소아시아 연안에서 제국주의적인 선점과 반란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려 했던,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는 그들의 자매도시들에게 조심스런 해양원조를 실시하여 반란을 부추겼다.

####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경쟁

페르시아는 이미 기원전 550년경부터 이란 고원에 국가를 건설한 이후 메디아·리디아·바빌론을 점령(B.C. 538)하여 광대한 대륙적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 제국(아케메네스조)의 다리우스 1세는 소아시아 지방의 국가와 부족을 멸망시키고 오리엔트 현재의 중동 일대 전체를 통일하였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는 서쪽으로 에게 해 북부,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에 이르렀으며,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니키아 등을 포함한 광대한 대 제국을 형성하였다. 특히 해양 국가였던 페니키아가 페르시아에 합병됨으로써 페르시아는 해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원전 500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는 흑해 북쪽에 거주하는 스키타이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도시에 공납을 명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에게 해 연안의 소아시아 도시국

---

35) 현재 터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서아시아 반도의 약 500,000km<sup>2</sup>에 달하는 지역의 역사적 지명, 기원전 546년 사이프러스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333년 알렉산더, 그리고 14, 15세기에 오스만 터키에 예속됨.

가들이 계속 항거하자, 페르시아는 강력한 소요 진압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 일어나는 반란의 배후에 아테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테네의 이러한 행동은 페르시아 제국의 존엄성에 큰 상처와 모욕이었으며, 페르시아는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아테네와 기타 도시국가들을 정복하여 이 치욕적인 부채를 청산해야 했다.

광대한 대륙적 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의 군주 다리우스 1세는에게 해 방면의 성가신 그리스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적 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3번에 걸쳐 원정군을 파견함으로써,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됐다.

아테네가 민주정치의 기반을 구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자,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도시국가 전체가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도시국가가 갖고 있는 약점, 즉 정치적 유대를 형성하는 대신 반목과 대립이 형성되어 내분이 거듭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이다.

제1차 원정은 기원전 492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때 페르시아 원정군은 수륙 병진하면서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Macedonia) 일대를 평정하였으나, 지상군을 지원하던 페르시아 함대가에게 해 북부의 아토스 산(Mount Athos) 근처 해안에서 폭풍을 만나 함대가 크게 파손됨에 따라 철수하고 말았다.

제2차 원정은 기원전 490년에 시작되었다. 페르시아군은에게 해를 직접 횡단하여 아테네 북방 25마일 지점인 마라톤(Marathon) 부근에 상륙했다. 이것은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의 위기였다. 그러나 아테네와 적대관계에 있던 스파르타와 그에 동조한 일부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의 공격에 방관하자 아테네 홀로 페르시아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승산이 없을 것 같던 아테네는 밀티아데스(Miltiades) 장군의 지휘 하에 중장보병의 아테네 병사들은 페르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아테네의 승리는 밀집 대 전술의 덕분이

라고 후세 사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중장보병의 밀집 대 전술은 이미 기원전 7세기에 행해졌다. 6세기 후반 아테네에서는 무겁고 값비싼 청동제 흉갑 대신 마(麻)나 가죽, 또는 금속의 장점을 살린 가볍고 값싼 복합형 흉갑이 발명되고 작은 모자 비슷한 헬멧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농촌이나 도시의 중하층 시민도 자비부담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밀집대의 견고성에 기동성을 가미하여 마라톤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다.<sup>36)</sup> 이와 같이 에게 해를 횡단하여 직접 마라톤(Marathon) 부근에 상륙한 페르시아군의 제2차 원정은 작전 및 전술상의 커다란 실수로 인하여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자초함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 그 후 페르시아군이 곧 바로 아테네를 직접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아테네의 중장보병군은 서둘러 아테네로 돌아와 위기를 넘겼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되어, 한 사람의 전령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전했다는 이야기로 알려지고, 현재의 마라톤 경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아테네의 마라톤 전투 승리는 페르시아의 재침을 약 10년간 미뤄지게 만들었다. 이때 아테네에서는 이 기간을 이용하여 아테네에서는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여 페르시아군의 침략에 대항하자라는 그리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와 강력한 함대로도 페르시아의 막강한 지상군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아리스티데스(Aristides)가 정책대결을 벌였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일찍이 “해양을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한다(He who commands the seas has command of everything).”<sup>37)</sup>라고 설파하였으며, 아테네 시민에게 “함대가 목책 방책이다(Your ships are wooden wall).”<sup>38)</sup>라고 호소하였

36) Rodger William, *Greek and Roman Naval Warfare*, Annapolis, Naval Institute, 1994, p.15

37) Robert D. Heinl, *Dictionary of Military and Naval Quotation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1), p.78

다. 시민투표 결과 테미스토클레스가 승리하자 아테네는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의 건의에 따라 그 당시로는 새로운 함선이었던 3단 갤리(Galley)선 200여 척의 함선을 대대적으로 건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모든 도시국가에게 그리스의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 페르시아의 공격에 대항할 것을 호소했다.

제3차 원정은 기원전 480년에 단행되었다. 다리우스 1세를 계승한 크세르크세스(Xerxes)가 당시로는 사상 최대인 지상군 18만 명, 해군 17만 5천 명과 군선 1,300여 척을 동원하여 헬레스폰트 해협(Hellespont)을 건너 트라키아, 마케도니아를 거쳐 그리스를 침공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페르시아 원정군을 맞이하여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또 다시 혼란 속에서 결속하지 못하고 분열하였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일부 도시국가들은 결연한 항전을 주장하였으나, 많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대결을 회피하고 항복하였다.

한편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반도의 국가들은 북부의 도시국가들을 포기하고 육상방어가 유리한 코린트 협곡(Isthmus of Corinth)에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보다 북방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하였다. 스파르타도 아테네 함대의 능력을 믿고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략을 지지하였다. 위대한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연합 함대의 세력 중에서 아테네의 전선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합 함대의 지휘권을 스파르타의 에우리비아테스(Eurybiades)에게 맡겼다.

그러나 페르시아 원정군은 진격해 갈수록 인근 국가들의 항복과 지원을 받아 그 세력이 더욱 강대해졌다. 더욱이 페르시아 해군은 1,300

---

38) Robert D. Heinl, *Dictionary of Military and Naval Quotation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1), p.294

여 척의 3단 노선을 보유하면서 그 전선에는 17만 5천 명의 군인이 승선하고 있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상륙을 감행하여 진격 중에 있는 육군을 지원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작전을 전개하여 그리스 도시 국가를 차례로 점령하였다.

이에 반하여 분열된 그리스는 병력의 절대적인 열세로 인해 북부 도시국가들을 포기하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지상군으로 산악 통로인 테르모필레(Thermopylae)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아테네-스파르타 연합 함대가 그 우측 연안을 방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리스 연합 함대는 본토와 에우보이아(Euboea) 섬 동북쪽 해협에 있는 아르테미시움(Artemisium)에 집결하여 그리스의 지상군을 엄호하였다.

기원전 480년 8월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Leonidas)가 지휘하는 그리스의 방어군 6,000명이 난공불락의 테르모필레 통로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하여 선전 분투하였다. 그러나 페르시아와 내통하는 자들이 페르시아군에게 우회도로를 알려줌으로써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연합군의 배후를 포위했다. 그리스 연합군과 레오니다스 왕의 300명의 결사대는 병력의 절대적인 열세로 인하여 전멸하고 말았다.<sup>39)</sup> 스파르타군을 전멸시킨 페르시아군은 중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항복시키면서 노도와 같이 아티카(Attica) 평야로 내려왔다.

테르모필레 통로 협곡에서 치열한 지상전투가 있는 날, 인근 아르테미시움 해상에서는 그리스 연합 함대와 페르시아 해군 간 3일간의 치열한 해전이 있었으나, 결정적인 승패를 내지 못하고 양측이 철수했다. 이 3일간의 해전을 아르테미시움 해전<sup>40)</sup>이라고 부른다. 양측은 해전에서의 함선의 피해는 적었으나, 첫날밤에 폭풍우가 몰아쳐 페르

39) 최근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300>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영화화했다.

40) 기원전 483년 8월 30일 페르시아 함대가 그리스 함대를 기습 포위하자 그리스 함대는 돌진하여 충각전법으로 페르시아 함선의 노를 파괴하는 전술을 사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시아의 전선 200척이 좌초되거나 파괴되는 불운을 겪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 방어군이 전멸하자 지상전으로 페르시아군을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연합 함대를 아르테미시움에서 아테네에 인접한 살라미스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을 살라미스로 철수시키고 그곳에서 해전으로 승패를 결정짓기로 하였다.

### 살라미스의 해전

페르시아의 육군과 해군이 아티카(Attica) 반도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는 이미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를 무혈점령했다. 페르시아 함대도 지상군과 함께 9월 4일 아테네 외항인 팔레룸(Phalerum)에 도착했다. 팔레룸에 정박한 페르시아 함대는 아르테미시움 해전의 피해가 커서 함선 수리와 인원 및 무기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약 3주간 전투는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아테네가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살라미스에 있는 그리스 함대에 전해지자 펠로폰네소스의 해군 지휘관들은 코린트 해협으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그것은 아테네의 점령소식을 들은 그리스 장병들이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그 의견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후진 방어선 구축을 반대했다. 첫째, 아테네와 살라미스의 피난민을 포기할 수 없다. 둘째, 열세한 함대 세력으로 우세한 적 함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의 함행동이 부자유스러운 해협에서 차단전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코린트 해협으로 후퇴할 경우 각 도시국가에서 파견된 함선들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이 회의에서 코린트의 지휘관이 “조국을 잃은 자는 침묵을 지켜라.”라고 조롱하자, 테미스토클레스는 “200척의 아테네 전선이 도시이며, 이 전선에 가족을 승선시켜 이탈리아로 이



주할 수도 있다.”고 응수하였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을 옹호한 사람은 그리스 연합 함대 해군사령관이며 스파르타인인 에우리비아데스(Eurybiades)였다. 그는 아테네 함대 없이는 페르시아 함대에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이 단결하여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 함대와 결전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페르시아 지상군이 펠로폰네소스로 향해 진격을 개시하자, 그리스 함대에서는 펠로폰네소스로 이동하여 배수진을 치자는 논의가 또다시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전투가 지연될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비밀리에 첩자를 페르시아 진영으로 들여보내 “그리스군 내부에는 친 페르시아 세력과 반 페르시아 세력 간에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페르시아 함대가 공격하면 친 페르시아 세력이 페르시아 함대를 도와 그리스 연합 함대를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sup>41)</sup>

마침 그때 함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친히 해전을 지켜보기 위해 함대에 승선하고 있었던 크세르크세스 왕과 페르시아 함대 지휘관은 그리스 첩자의 거짓 정보를 믿고 은밀하게 전투준비를 끝내고 야간기동을 시작했다. 우선 그의 함대 가운데 이집트 함대로 하여금 살라미스 서쪽 수로를 봉쇄하게 하고, 주력부대인 500척 이상의 페르시아 함대는 전투진형을 갖추고 동쪽 수로로 진출케 하였다. 페르시아 함대는 3열 종렬진(縱列陣)으로 아티카 연안을 지나 새벽녘에 살라미스 협수로에 들어섰다.

이 시간 전술회의를 하고 있던 그리스 지휘부에 “이집트 함선들이 살라미스 해협 서부를 봉쇄하기 위해 항진하고 있다.”라는 급보가 전해졌다.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 그리스 지휘부는 세력을 동서로 분리하는 것보다 적의 주력함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

41) F. M. Cornford, *Greeks*, Cambridge Univ. Press, 1998, p.47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기원전 480년 9월 28일 살라미스 해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페르시아 함대는 에우보이아 섬 근해에서 당한 해난과 아르테미시움 해전에서 입은 손실 등으로 400척이 줄었으나 여전히 800척이 남아있고, 그리스 연합 함대도 약간의 손실로 인하여 약 300여 척이 남아있었다. 페르시아는 선두에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의 함대를, 중앙에는 이집트와 그리스 점령지의 함대를, 그리고 왼쪽에는 이오니아와 갈리아의 함대를 배치했다. 그리고 일부 이집트 함대가 서쪽 수로를 봉쇄하기 위하여 살라미스 섬 남쪽으로 이동했다.

살라미스 해전에 직접 참가한 양측 함대 중 페르시아 함대는 모두 750여 척으로 해협 입구에 있는 프시탈레이아(Psytalea) 섬을 중심으로 외곽에 반달모형으로 진형을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그리스 함대는 만 내부 살라미스 해협 입구에 3열 종대로 진형을 구성하였는데 왼쪽에 아테네, 중앙에는 스파르타, 오른쪽에는 코린트의 함대를 배치하였고, 함선은 모두 380척이었다.<sup>42)</sup>

9월 23일, 날이 쌀 무렵에 수로의 동쪽 입구에 있던 페르시아 함선이 먼저 살라미스 협수로에 들어서면서 그리스 함대를 식별하려 했다.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측의 전선들을 전투진형인 횡렬진(橫列陣)을 형성하고 속력을 내어 거리를 좁혀들어 갔다.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백병전이 전투의 주류를 이루는 이 시대의 해전에서 사용된 전투진형은, 충각장치가 있는 강한 선수를 적에게 향하도록 하고 취약한 현 측을 아군 함선끼리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단횡렬진(單橫列陣, single line abreast)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한편 그리스 함대는 페르시아의 탈영병으로부터 페르시아 함대의 작전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 페르시아 함대의 기본 전략과 전술

---

42) F. M. Cornford, *Greeks*, Cambridge Univ. Press, 1998, p.57

은 그들 대함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외해로 그리스 함대를 유인하여 넓은 바다에서 해전을 하려는 것이었다.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함대를 협수로 밖으로 유인해 해전을 할 경우 전투가 불리해진 그리스 연합군이 배를 버리고 상륙할 것에 대비하여 프시탈레이아(Psytalea) 섬에 지상군을 이미 상륙시켜 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는 그리스 연합 함대가 도주할 것에 대비, 페니키아 함대를 사로닉만 입구에서 아티카 지방과 게오르기오스 사이를 봉쇄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했다.

그러나 전술상의 이점은 그리스 연합 함대에 있었다. 그리스 함대는 페르시아의 유인 전술에 속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전투진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인 각오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페르시아 함대는 수로가 좁기 때문에 계획된 횡렬진으로 전투함선을 투입할 수가 없었고 수로 입구에 있는 프시탈레이아 섬으로 인하여 진형이 양분되거나 흩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그리스 함대가 기대했던 서풍이 불어와 수로에 파도를 일게 하자, 페르시아의 함선의 기동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해협의 폭은 좁은 곳이 1마일, 넓은 곳이라야 2마일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이 각각 겨우 100여 척으로 전투정면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전투가 시작되자, 그리스 함선 몇 척이 페르시아 함대를 유인하기 위해 정면으로 용감하게 기동했다. 그러자 페르시아 함선들은 해안 언덕에서 해전을 지켜보고 있는 페르시아군 사령관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자신들의 전공을 자랑하기 위해 앞 다퓌 그리스 함선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페르시아 함선들은 순식간에 전술진형이 흩어지게 되고 해전하기 좋은 위치를 잃게 되었다. 그때 대기하고 있던 아테네 함대와 아이기나(Aegina) 함대가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페르시아 함대를 가로질러 차단 공격하였다. 북쪽에서도 페니키아의

이오니아 함대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결전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는 데미스트클레스가 창안하여 만든 그 당시로서 최신 함선인 3단 노선으로 페르시아 함선을 향해 충각한 후 백병전을 벌여 승패를 결정지었다. 백병전에서도 그리스의 중무장한 해군장병은 갑옷을 입지 않은 페르시아군보다 전투에서 유리했다. 처음 잘 정렬되었던 페르시아 함대는 많은 함선이 일시에 협수로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기동이 어렵게 되어 서로 자기들끼리 충각에 부딪치고 침몰하는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sup>43)</sup>

그리스 함대는 페르시아 함선들이 협수로 밖으로 나오려 하면 기다렸다가 돌진하여 충각으로 부딪혀 격침시켰다. 혼란에 빠진 페르시아 함선들은 밀집된 함선들 때문에 선회를 할 수 없자 파손된 전선과 물에 빠진 병사들 사이로 후진하여 협수로를 빠져 나가려 했지만 역시 뒤에 있던 전투함과 연속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7시간 이상이나 계속된 이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는 그 세력 가운데 반 이상 격침되거나 나포되었으며 많은 지휘관을 잃고 대패하였다. 한편 프시탈레이아 섬에 상륙해 있던 페르시아 보병들도 그리스의 아리스테이데스 휘하의 창병(槍兵)에게 기습을 당해 전멸하였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약 200척의 페르시아 함선들이 침몰되고 4만여 명이 전사했다.<sup>44)</sup> 그 속에는 크세르크세스의 동생 아리아비그네스(Ariabignes)도 있었다. 침몰하지 않은 페르시아 함선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였다. 이에 반해 그리스군은 46척의 함선을 잃었을 뿐이었다. 해전은 그리스 해군의 완벽한 승리였다.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승리는 빠른 반응을 일으켰다. 해전의 결과에 낙담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원정을 중단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상군을 지원했던 함선들이 파괴되어 군수보급이 중

43) F. M. Cornford, *Greeks*, Cambridge Univ. Press, 1998, p.85

44) 김주식, 『세계사와 해양활동의 관계』, 해군사관학교, 1992, p.59

단되자 페르시아의 지상군들은 더 이상 아테네를 점령하고 있을 여력이 없었다. 철수하는 페르시아의 지상군들은 그리스 함대가 헬로스폰트의 부교를 파괴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철수를 재촉했다.

한편 해전이 끝난 후 그리스 함대는 그 해역에서 파손되어 표류하고 있는 선체를 살라미스로 끌고 간 다음에 새로운 해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해상부대가 이미 철수하였음을 알고 곧 추격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헬레스폰트로 직행하여 부교를 파괴하자고 제안했으나 스파르타의 에우리비아데스는 만약 부교를 파괴하면 진퇴양난에 빠진 크세르크세스 왕이 유럽에 머물러 결연한 행동을 취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페르시아군이 도주하게 놔두었다. 크세르크세스는 철수하면서 그리스 북부를 계속 통치하기 위해 그의 삼촌 마르도니오스(Mardonius) 휘하에 약 10만 명의 원정군을 잔류시켰다. 그러나 마르도니오스의 원정군도 그 다음해 여름 플라타이아이(Plataeae) 전투에서 그리스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환점은 살라미스 해전이였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페르시아는 감히 그리스를 다시 침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살라미스 해전은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의 운명을 구한 해전이었고 페르시아의 유럽 침공을 좌절시키고 유럽의 문명을 지킨 역사적 해전이였다.

살라미스 해전에 참가한 그리스 함대 가운데 압도적인 세력을 갖고 있던 아테네가 해양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다.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한 후 테미스토클레스의 제안에 따라 200여 개의 폴리스가 모여 대(對) 페르시아 해양 동맹인 델로스 동맹을 창설하였고 지중해의 해양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아테네는 해양력을 바탕으로 그 세력을 소아시아까지 떨쳤고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룩했던 것이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군사력의 부족과 내분을 겪고 있던 그리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의 뛰어난 지도력과 전략적 통찰력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페르시아의 침공에 앞서 해양력을 증강하지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과 육상항쟁을 주장한 아리스테이데스와의 정책대결에서 시민투표 결과 테미스토클레스가 승리했다. 그는 때마침 라우리움(Laurium) 수니온 산에 있던 아테네의 국영 은광이 매우 풍부한 생산을 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을 설득하여 생산된 은을 그 자신들 간(間)에 분배하기 보다는 해군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결과 아테네로 하여금 당시로서는 새로운 함선이었던 3단 깎리선 200여 척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건설할 수 있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마라톤 전투의 승리가 전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민과 집정관들과 달리 마라톤 전투는 대규모 전쟁의 서막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함선 개발을 늦추지 않았다. 새로 건조 중인 3단 노선의 갑판을 충각전술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보강하였다. 원래 충각전술은 적의 기동이 용이하지 못한 협수로에서 숙련된 운용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전술이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것을 예측하고 사전 훈련을 시켰다. 그 결과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선들 중 충각에 반혀 침몰된 수가 많았다.

그리고 그는 아테네 함선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함대 지휘권을 과감히 스파르타 장군에게 위임함으로써 그리스 함대를 단결시켰다. 물론 그리스 연합 함대 지휘부 간에는 해전이 발생하기 전에 전술상의 이견이 있긴 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굳은 신념과 아테네 함대의 관용으로 우익을 스파르타 함대에게 맡기는 양보와 설득을 통해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단결시켜 해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그리스 함대의 승인에는 몇 가지 요인이 더 있었다.

첫째, 지리적 이점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살라미스 협수로는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대규모 함대의 함 행동을 제한시키고 있었다. 그리스 함대는 이 지형과 해상 조건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최대로 활용하였다. 그리스 전선이 페르시아의 전선보다 견고하였기 때문에 충각 전술과 백병전에서 유리한 함대에 6,000명의 중무장한 지상군을 탑승시켜 백병전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그리고 좁은 해역에서 해상 전투 시 그리스 함대는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전투 진형을 유지함으로써 시종일관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처음부터 산만해진 전투진형을 유지한 페르시아 함대는 충각전술과 백병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질서정연한 전투진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고대 노선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범선 시대와 근대 증기선 시대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바람의 이점이 그리스 함대를 도왔다.

둘째, 첩보전의 효과적인 활용이다.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함대를 살라미스 협수로로 유인하는 것이 작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첩자를 적 진영으로 보내 “이미 그리스 군은 친 페르시아 세력과 반 페르시아 세력 간에 내분이 생겨 만일 해전이 발생하면 친 페르시아 세력이 페르시아 함대를 도울 것”이라는 정보를 누설케 했다. 크세르크세스는 있을 수 있는 첩보라고 단정하고 서둘러 함대를 살라미스로 이동시켰다. 페르시아 함대는 테미스토클레스의 거짓 정보를 믿고 그리스 함대를 경시하였으며, 우세한 세력을 가지고 좁은 해역에서 무리한 전투를 추구하였던 것이 패인이었다.

끝으로 강한 조국애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아테네 시민 중 전투가 가능한 시민은 전선에 났으며, 노인과 부녀자, 어린애들은 살라미스 섬에 피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군으로서는 더 이상 후퇴

할 곳도 없이 사생결단으로 살라미스 해협을 사수하려 했다. 이와 같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조국의 위기를 구하고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그리스 연합 함대의 정신적 결의가 해전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 3. 로마와 카르타고의 지중해 제해권 경쟁

농업국가 로마(Rome)의 성장

기원전 7세기경 지중해의 중앙부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sup>45)</sup>의 중앙부 티베르 강 유역에 ‘도시 로마’가 건설되었다. 로마 신화에 따르면, 로마의 건국 시조인 로물루스(Romulus)와 레무스(Remus) 쌍둥이 형제는 전쟁의 신인 마르스와 여 사제 레아 실비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원치 않은 아이란 이유로 티베르 강<sup>46)</sup>에 버려졌다. 강가에서 쌍둥이를 발견한 늑대가 이들을 동굴<sup>47)</sup>로 데려가 젖을 먹였고, 이 쌍둥이가 장성해 기원전 753년에 세운 나라가 로마라고 신화가 전하고 있다.

초기의 로마는 티베르 강여울 언덕에 있던 촌락이었다. 일찍부터 이탈리아 반도에서 활약하던 에투루리아(Etruria)의 왕들이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로마를 무역 중심지로 삼자 로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sup>48)</sup> 로마는 해양국가인 페니키아들과는 달리 농업 국가였다.

로마의 정치 제도는 왕정이 아닌 공화정이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대토지 소유자인 귀족과 중장보병으로 활약한 평민(중소농민 및

45) 그리스인이 남부 이탈리아를 ‘송아지가 있는 토지’라는 의미로 Viteliu라고 부른 것이 音韻化되었다.

46) 오늘날 테베레 강

47) 지금의 팔라티노 언덕 근처

48) 지동식, 『로마 공화정의 위기론』, 법문사, 1975, p.23



상인)의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져 기원전 3세기 초에 양자(兩者)는 법률상 평등하게 되었다. 로마인은 그러한 국가를 ‘res publica’<sup>49)</sup>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후에 ‘Republic(공화국)’의 어원이 되었다.

로마는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근 도시를 정복하여 그곳을 영토에 편입함으로써 이탈리아 반도의 패권국가로 성장했다. 로마의 반도 통일 작업의 마지막은 B.C. 281~B.C. 275년에 남부지방에서 행해진 피로스(Pyrrhus) 전쟁이었다. 이 지역에는 타렌툼(Tarentum) 부족이 그리스 용병을 이용하여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부족은 그리스인의 지원을 기대하며 로마에게 도전하였다. 로마의 소규모 함대가 루카니아에 대항하는 그리스의 친(親) 로마 폴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남부해안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타렌툼 사람들은 로마 함선의 항해를 제한하는 옛 조약을 들어 로마 함선 전부를 침몰시켰다. 그 후 그리스에서는 타렌툼을 돕기 위해 에피루스 왕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친척인 피로스(Pyrrhus)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탈리아로 왔다. 피로스의 기병과 코끼리부대는 기원전 280년에 헤라클레아 전투와 아스쿨룸 전투에서 승리의 기선을 잡았다. 그러나 로마가 피로스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의 적수는 없었다. 또한 남부에 있던 그리스인으로부터 함선과 해상병력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은 더욱 강력하게 되었다.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이용하여 기원전 265년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마무리했다.<sup>50)</sup>

#### 해양강국 카르타고의 도전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무렵, 동부 지중해에서는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3국이 계속되는 다툼으로 세력이 약화된 상태였

---

49) ‘공적인 일’이라는 의미

50) 지동식, 『로마 공화정의 위기론』, 법문사, 1975, p.93

으며, 서부 지중해에서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둘러싸고 이탈리아 반도 남부의 그리스 식민시들과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 인이 다투고 있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이 기원전 814년 북아프리카 튀니지아 만에 세운 도시였다. 이 지역은 지중해를 동서로 양분하는 요충지로서 상업을 하는 카르타고 사람들에게 대단히 적합할 뿐만 아니라 배후에 비옥한 농경지가 있어 번영할 수 있었다.

카르타고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점차 그 세력을 지중해로 확장해 나가기 전까지는 로마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두 국가 사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조약이 체결되었다. 기원전 508년의 조약은 카르타고의 해상무역 독점권에 대한 보호의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로마와 로마의 동맹국은 적이나 악천후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카르타고의 서쪽 일정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51)</sup>

또 기원전 384년의 조약에는 로마와 로마의 동맹국이 에스파냐와 사르디니아 및 아프리카의 모든 항구에 출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르타고 이외의 나라와 통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로마가 카르타고의 해상무역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카르타고는 이탈리아 반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우호적인 동맹약속이 두 국가 사이에 맺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에 연하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이처럼 오랫동안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던 로마와 카르타고는 피로스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아 길고도 지루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 포에니 전쟁

기원전 8세기 동부 지중해에 위치한 도시국가 페니키아가 아시리아

---

51) D. Dudgeley, *The Civilization of Rome*, Cambridge Univ. Press, 1970, p.50

(Assyria)의 침공을 받아 패망한 후, 지중해의 통상무역권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게 돌아갔다.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sup>52)</sup>는 항해술과 조선술이 발달하여 일찍부터 해상무역을 활발히 하였으며, 농업과 해상무역으로 북부 아프리카 해안, 시칠리아(Sicily) 서부, 코르시카, 사르디니아,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의 동부해안 지대를 수중에 넣어 서부 지중해의 통상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sup>53)</sup>

한편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에 여념이 없는 동안에는 카르타고와 대립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경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에 연하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나 발단은 사소한 것이었다.

시칠리아 섬의 그리스 식민지였던 메시나가 시라쿠사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용병들이 양파로 갈라져 각기 로마와 카르타고에 지원을 요청한 데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은 시칠리아 섬의 지배권 문제에서 발단되어, 이후 지중해의 제해권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3차에 걸쳐 약 120년 동안 진행된 포에니 전쟁(Battle of Punic War, B.C. 264~B.C. 146)이었다. 이 전쟁은 일개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지중해 전역에 걸친 대 제국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된 전쟁이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B.C. 264~B.C. 241)은 시칠리아 섬의 쟁탈을 위한 지상전투에서 비롯되었으나 전쟁의 결과는 해전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카르타고는 제1차 포에니 전쟁 도중에 있었던 밀레 해전(Battle of Mylae, B.C. 260)과 에크노무스 해전(Battle of Economus, B.C. 256) 등에서 패하자 이것이 화근이 되어 국력이 쇠진해지기 시작했다. 로마가 두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로마는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 세력을 축출하고 시칠리아 섬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로마는

---

52) 라틴어로 Punic

53) D. Dudgeley, *The Civilization of Rome*, Cambridge Univ. Press, 1970, p.102

시칠리아 섬을 확보함으로써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해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 함대를 건설하여 막강한 육군과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통합하는 대 제국으로 팽창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로마는 정복한 시칠리아 섬을 그들 영토로 편입하지 않고, 속주(屬州, 식민지)화하여 지배했다. 바로 이 점이 로마의 교묘한 통일법이며 지배정책이었다. 그 당시 로마의 속주(식민지)가 되면 토지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두세와 공납품 징수, 그리고 수도에 대한 곡물 공급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다. 그리고 로마는 정복한 여러 도시에 불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했으며, 스스로 맹주가 되어 도시동맹을 맺어 총독을 임명하고 각각 다른 자치권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할정치’라는 교묘한 지배정책을 폈다. 또한 이들 속주와 로마가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도시국가 로마는 거대한 제국으로 비약하는 기본 틀과 토대를 마련하였다.<sup>54)</sup>

제2차 포에니 전쟁(B.C. 219~B.C. 202)은 이전의 해양국가였던 카르타고가 새롭게 우세한 해양력으로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로마를 감히 해상으로 침공하지 못하고 육로 원정을 택하여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이다.

카르타고는 제1차 포에니 전쟁 시 로마에 의해 입었던 무역손실과 재산 피해를 급속하게 회복했으며, 기원전 230년대에는 스페인의 에브로(Ebro) 강 남쪽에 새로운 대륙 제국을 확보하여 국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상업도시로서의 번영을 위해 군사적 비용을 지출하는 데는 전혀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의 새로운 통치권은 모험정신을 발휘하고 자체 재정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양면적인 면을 취했다. 카르타고의 이러한 정책으로 기원전 221년,

---

54) 지동식, 『로마 공화정의 위기론』, 법문사, 1975, p.59

26세의 한니발(Hannibal)은 스페인에서 카르타고 제국을 거의 물려받았으며 그가 증오했던 로마에 대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끼리를 제공받았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양성된 군대와 훈련시킨 코끼리부대까지 동원한 대군을 거느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알프스 산을 넘어 로마를 침공하여, 로마군을 연속적으로 패퇴시키면서 기원전 203년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의 야전을 거의 평정하였다. 특히 칸네 전투(Battle of Cannae, B.C. 216)에서 로마는 전사자 25,000명, 포로 10,000명에 달하는 큰 손실을 입을 정도로 대패했다.

한니발은 B.C. 218~B.C. 216년 등에 있었던 로마의 연패가 이탈리아 내의 ‘동맹국’들의 이탈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였지만, 기대와 달리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 동맹국들은 동맹을 파기하여 한니발에게 합류하지 않았다. 로마는 홀륭하고 믿을 수 있는 우방이었던 동시에 기원전 211년 카푸아(Capua)를 이탈했던 시민들을 본보기로 처형했던 사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엄청나게 잔인한 적이었기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의 결속은 견고하였다.<sup>55)</sup> 이는 결과적으로 로마의 통치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로마 원로원은 아테네의 민주의회가 불가항력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의 책임을 추궁하여 6명의 장군을 처형한 것과는 달리, 칸네 전투의 패장들을 따듯이 맞이하였다. 그 결과 로마인의 애국심은 크게 양양되어 종군지원자(從軍支援者)가 속출하였다. 또한 부유한 시민들은 노예를 병사로 제공하였다. 그 결과 로마의 군사력은 급속히 강화되어 전쟁 전의 군사력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당시 한니발 군대를 반도 남쪽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한니발은 16년간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전투를 치르는 동안 휘하 지상군의 반을 잃고 있

---

55) 반역죄로 판정된 카푸아인들에 대한(그들도 로마의 시민들이었음) 체계적인 추방과 노예화, 처형 등을 통해 로마는 다른 동맹국들이 이탈하는 것을 단념시켰다.

었다.

한편 로마는 한니발과 16년간 지상전을 치르는 동안, 해양우세권과 함께 그들의 지상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수많은 전투와 작전들을 신뢰성 있게 승리로 이끌었던 지휘관이었던 ‘아프리카’ 출신의 스키피오(C. Cornelius Scipio)를 찾아낼 수 있었다.<sup>56)</sup>

기원전 203년 로마의 스키피오는 제해권을 바탕으로 오히려 시칠리아를 침략한 후, 한니발의 근거지인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평정하고(B.C. 206), 카르타고의 본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국을 구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로 급히 귀국한 한니발은 자마 전투(Battle of Zama, B.C. 202)에서 전세를 호전시키려 했지만 그의 의도 안보와 다르게 스키피오에게 패전함으로써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스페인을 비롯한 모든 해외 영토와 서부 지중해의 제해권을 로마에게 이양하게 되었다.<sup>57)</sup>

한니발은 칸네 전투를 비롯한 많은 지상전에서 로마군을 제압했으나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본국의 증원군과 군수품을 지원받지 못해 결국은 로마 정부의 꿈을 접어야 했다. 자마 전투에서 패전한 한니발은 그 후 시리아로 망명하여 헬레니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조국을 재건시키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병의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고 피신처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제3차 포에니 전쟁(B.C. 149~B.C. 146.)은 카르타고가 다시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국력이 강화되는 것을 목격한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킨 전쟁이다.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는 다른 나라와 전쟁이 금지되었으나 인접국 누미디아의 간섭을 견디다 못해 공격하게 되었고, 로마는 이를 구실로 카르타고를 공격하였다.

---

56) H. H. Scullard, *Scipio Africanus: Soldier and Politician*(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1970) 참조

57) Livius Titus, *The War With Hannibal*, New York, Penguin Book, 1972, p.58

카르타고는 결사적으로 항거하였지만 로마의 군사력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카르타고 시는 완전히 파괴되고 시민들은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카르타고 영토는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서부 지중해의 해양패권을 장악한 로마는 그 후 동부 지중해로도 세력을 확장하여 기원전 146년에 마케도니아를 기원전 64년에 시리아를, 그리고 기원전 30년에는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했다.

이로써 로마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여 지중해를 그들의 내해로 삼게 됐으며, 지중해 주변의 광대한 토지를 획득하여 제국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 밀레 해전(Battle of Mylae)

로마인은 원래가 뛰어난 해양인이 아니었다. 시칠리아 섬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시작한 제1차 전쟁에서 로마는 카르타고의 함선과 같이 기동력 있는 함선을 로마 자신과 동맹국이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과 선원도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로마는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우선 타렌툼, 나폴리, 베리아 등 그리스 식민지에서 함선을 차용했으나 그것은 일종의 상선이었기 때문에 로마군을 시칠리아 섬으로 수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수송 도중 카르타고 전투함선을 만났을 때 로마 함선은 항상 표적이 되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 함대의 정찰을 피해 북쪽으로 항해하다가 야간에 항로를 시칠리아 섬으로 바꾸기를 거듭했다. 당시 카르타고 함대가 벨로루에 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은 메시나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로마군은 상륙하자마자 메시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카르타고군을 유인하여 섬멸한 후 입성하였다.

로마군이 메시나에 입성함으로써 시칠리아 섬 전체를 정복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약 3만 5천 명의 로마군은 기원전 262년 마니우스 아우렐리우스(Manius Aurelius)와 마니우스 오티키리우스(Manius Oticirius)를 지휘관으로 삼아 시칠리아 섬 정복 원정길에 나섰다. 로마 군대의 시칠리아 원정 소식에 접한 카르타고는 한니발<sup>58)</sup>을 사령관으로 삼아 원정대를 출정시켰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그리스인과 시라쿠스의 히에로 2세가 로마에게 항복한 뒤였으므로 카르타고의 원정함대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시라쿠스에서 아그레겐툼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260년의 로마는 서부 지역을 제외한 시칠리아 섬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으나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해 시칠리아 섬의 항구적인 통치가 불가능했다.<sup>59)</sup> 로마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에 거주하는 그리스인의 힘을 빌려 함선과 선원을 준비하였다. 우선적으로 그리스인과 합세하여 라티움 해안에 난파되어 있는 카르타고의 함선 모형을 모델로 삼아 5단 깃대선 100척과 3단 깃대선 200척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함선을 건조하고 있는 동안 로마는 육상 훈련대에서 선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 젓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로마 해군 지휘부는 로마 함선의 선체가 무거워 기동성이 좋지 않다는 점과 해군들이 전투경험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뒤떨어진 해상전술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술의 변형을 모색하였다.

그중 하나로 자신의 병사들이 백병전에서는 카르타고의 병사나 선원들보다 우세하다고 확신했던 로마 해군은 해상에서 지상전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까마귀 부리’라는 뜻을 가진 코르부스(corvus 또는 raven)라고 명명된 일종의 회전식 선상부교를 개발하여 함선 선수에 설치했다. 이것은 길이 5.5m, 폭 1.2m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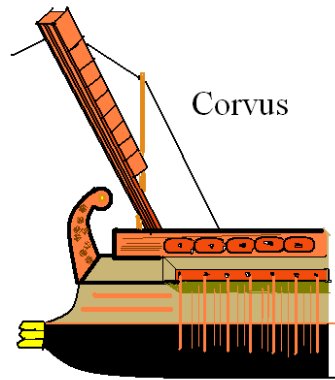
---

58) 후의 한니발과 동명이인

59) D. Dudley, *The Civilization of Rome*, Cambridge Univ. Press, 1965, p.107



도의 선상부교로서 그 끝 부분에 나무나 동으로 만든 뾰족한 갈고리를 달아 놓았다. 이 코르부스는 함선 선수 갑판 위에 세워 두었다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르래를 통해 줄로 매어져 있었다.



적함이 가까이 와서 충격작전을 전개하거나 옆으로 지나갈 때 줄을

놓아 코르부스가 떨어지면서 뾰족한 갈고리가 적함에 딱 박히게 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코르부스의 소리에 적군들이 놀라 다치지 않기 위해 우왕좌왕 할 때, 로마 해군들은 코르부스를 타고 적함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 로마 해군의 전술이었다.

또한 로마 함선은 선수와 선미에 일종의 포탑인 사대(射臺)를 설치하였다. 사대는 적선에 뛰어드는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나머지 병사들이 무기를 던지며 동시에 적군의 병사가 자기 함선에 뛰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비밀무기를 탑재하고 해상전투준비를 끝낸 로마는 집정관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Cornelius Scipio)를 사령관으로 삼아 함선 17척을 이끌고 카르타고의 요충지인 시칠리아 섬 북쪽에 있는 리파라 섬을 급습했다. 그러나 한니발(Hannibal)<sup>60)</sup>이 지휘하는 카르타고 함대에 의해 스키피오 함대는 포위되었다. 위기에 접한 로마 정부는 둘리우스 네포스(Dulius Nephos)에게 함선 140척을 인솔케 하여 스키피오 함대를 구출하도록 했다. 로마 지원함대가 시칠리아 북동해안에 있는 밀레(Mylae)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한니발의 카르타고 함선 125척이 대기하고 있었다.<sup>61)</sup> 드디어 로마 함대와 카르타고 함대가 밀

60) 제2차 포에니 전쟁 시 한니발 장군과는 同名異人

레 해상에서 해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기원전 260년에 시칠리아 북동해안에서 발생한 밀레 해전은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의 신생함대와 해상전에 뛰어난 카르타고 함대가 최초로 격돌한 해전이다.

로마의 집정관 돌리우스가 로마 함대를 지휘하였고, 한니발이 카르타고 함대를 지휘하였는데 양측의 함대는 각각 100척 정도로 구성되었다.

해전은 카르타고 함대의 선공으로 시작되었다. 카르타고 함대는 로마 함대를 과소평가하여 진형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돌진하였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선두함들은 전혀 예기치도 못한 ‘코르부스’라는 비밀 무기에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다. 카르타고의 함선들은 코르부스를 피해 현 측과 선미 쪽에서 충각하려고 노력했으나, 코르부스에 잡히지 않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백병전을 하기 위해 갑판에 대기해 있던 카르타고군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코르부스의 소리에 놀라고 다치지 않기 위해 우왕좌왕 할 때, 로마 해군들은 코르부스로 연결된 적함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전개했다. 전세가 불리해진 카르타고 함선들이 아무리 떨어지려 해도 굳게 갑판에 박힌 갈고리를 빼낼 수 없었다. 코르부스라는 신무기에 힘입어 밀레 해전에서 로마 함대는 카르타고의 함선 50여 척을 나포하거나 파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밀레 해전은 로마의 새로운 해상 전술이 처음으로 선보였던 해전이다. 이 해전의 결과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나, 다만 로마 함대에게 해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보다 결정적인 해전은 그 후에 있었던 에크노무스 해전이었다.

밀레 해전의 승리로 지중해의 제해권이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이동하게 되었다. 로마 정부는 이점을 인정하여 로마 함대의 사령관이었

---

61) 김주식, 『세계와 해양활동의 관계』, 해군사관학교, 1992, p.98

던 들리우스에게 평생 동안 연회를 마치고 귀가할 때마다 악사와 횃불을 앞세우는 특전을 부여했다. 또 밀레 해전에서 나포한 적함의 함수를 모형으로 한 기념탑을 공원 광장에 세워 승전을 축하했다.

밀레 해전에서 승리한 로마군은 B.C. 258년에서 B.C. 256년 사이에 코르시카 섬과 몰타를 점령하여 속주로 만들고 이곳에 새로운 군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르디니아 해안 지역을 공격하여 티레니아 바다를 세력권에 편입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파라, 메리타 등의 항구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 에크노무스 해전(Battle of Ecnomus)

기원전 256년에 시칠리아 남서 해안에서 발생한 에크노무스 해전은 포에니 전쟁 시에 있었던 여러 해전 가운데 양측의 주력이 격돌했던 최대의 해전이며 역사적으로 관심을 끄는 중요한 해전이다.

밀레 해전 이후 로마군은 코르시카와 사르디니아 두 섬을 침략하였지만 지중해에서 카르타고의 해상활동을 통제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로마는 지중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카르타고 본토를 공격하기로 하고 해군을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기원전 256년에 로마의 해군 증강계획이 완료되면서 로마는 총 330척의 5단 깃선으로 구성된 강력한 함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로마 원로원은 함선 250척과 수송선을 포함한 총 330척으로 카르타고를 정벌하기로 했다. 집정관 레굴루스(Marcus Atilius Regulus)를 총사령관에, 불소(Manlius Vulso)를 부사령관에 임명하여 함대를 지휘하게 했다.

로마 함대가 침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카르타고는 하밀카르(Hamilcar)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350척의 군함을 지휘하여 로마 함대를 방어하게 했다. 로마 함대가 시칠리아 섬에서 4만의 병력을 추가로 보충하여 로마 함대에는 약 15만 명의 선원과 병사가 탑승하였

다. 카르타고 함대도 급히 헤라클레아로 가서 로마군과 비슷한 병력을 보충했다.

두 함대는 시칠리아 섬 남쪽 에크노무스(Ecnomus) 곶 근해에서 조우하면서 격돌하였기 때문에 이 해전을 에크노무스 해전이라고 한다.<sup>62)</sup>

양국 함대가 에크노무스 앞 해상에서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진형을 이루고 있었다. 로마 함대는 돌진하기 쉽고 방어하기 유리한 삼각모양(△)의 썰기진(Wedge formation)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두 사령관은 6단 갈리선에 승선하였다. 그 이유는 카르타고의 함선은 선체가 작아 속도가 빠른 데 비해 로마 함선은 선체가 커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었다.

로마 함대는 4개 전대로 편성되었다. 1전대는 레굴루스가, 2전대는 불소가 지휘하였으며, 두 전대는 썰기의 양변에 위치했다. 3전대는 썰기의 밑변에 위치하였으며, 수송선대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4전대는 독립전대로서 유격임무를 수행했다. 330척이나 되는 많은 함선이 이러한 진형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밀레 해전 이후 로마는 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진형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한편 카르타고도 4개 전대로 편성되었지만 수행임무는 로마 함대와 큰 차이가 있었다. 카르타고의 사령관 하밀카르는 로마 함대의 1·2전대와 3·4전대를 분리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카르타고의 함대를 4개 전대로 편성하되 3개 전대를 횡렬진으로 하고, 4전대를 단종렬진으로 배치하였다. 1·2전대는 하밀카르 자신이 지휘하고 3전대는 한노(Hanno)가 지휘하게 했다. 하밀카르가 이러한 진형을 구상한 것은 로마 함대의 충각작전을 피하고 적진의 중앙이나 후방에 충격을 주며, 적 함선이 아군 중앙을 공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의로 중앙을

---

62)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해양전략연구부, 1998, p.38

약하게 하는 작전을 구상한 것이다.

하밀카르의 예상은 적중했다. 로마 함대가 하밀카르의 예상대로 움직여 카르타고 함대는 승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로마의 2전대를 맞아 싸워야할 한노가 자신이 지휘하는 3전대를 멀리 우회시킴으로써 로마의 2전대가 아닌 후방의 4전대와 교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로마의 1·2전대가 카르타고의 중앙진을 공격할 때 하밀카르와 한노가 로마의 공격전대를 포위 공격하면 4전대가 로마의 3·4전대를 맞아 공격하겠던 하밀카르의 작전은 실전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없었다. 하밀카르는 적의 주력인 1·2전대를 격파하게 되면 나머지 전대와 수송선단을 손쉽게 격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노의 과오로 전투가 세 곳에서 벌어졌다. 즉 양 함대의 1·2전대가 중앙에서 대결하고, 카르타고의 3전대가 로마의 4전대와 교전했으며, 카르타고의 3전대와 로마의 4전대가 교전하게 되었다.<sup>63)</sup>

불소가 이끄는 로마의 2전대는 허약한 카르타고의 중앙 2전대를 코르부스를 이용해 쉽게 격파할 수 있었다. 그런 후 옆에서 교전하는 로마의 2전대를 도와 카르타고의 1전대를 격파하였다. 반대로 한노가 이끄는 카르타고의 3전대는 교전과 수송선단 호송이라는 이중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로마의 4전대를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카르타고의 2전대를 격파한 로마의 4전대가 한노의 교전 지역에 합세함으로써 한노의 3전대도 전세가 급격히 불리해졌다. 한편 로마의 3전대는 카르타고의 4전대를 맞아 격전을 벌렸지만 수송선단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 쫓기고 있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주력전대를 제압한 불소의 함대가 지원에 나서자 카르타고의 함대는 전세가 불리해지게 되었다.

이 해전에서 로마 함대는 카르타고의 함선 30척을 격침시키고 64척을 나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로마 함선도 24척이나 격침되었지만 카르

63)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해양전략연구부, 1998, pp.37~39

타고 함대가 도주하였기 때문에 승리는 로마의 것이었다.

### 로마 함대의 재난

에크노무스 해전에서 패한 카르타고는 로마에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로마가 요구한 조건은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섬의 로마 편입 및 카르타고 함대의 항복과 무장해제였다. 강화조건이 가혹하다고 판단한 카르타고는 계속 항전의 길을 선택했다.

로마는 시칠리아에서 아프리카까지의 해양교통로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원전 256년 안전하게 카르타고를 침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군은 스파르타군의 귀재로서 카르타고군을 지휘했던 산티푸스(Xanthippus)에 의해 투네 전투(Battle of Tunes, B.C. 255)에서 크게 격퇴당했다. 로마의 지상군이 카르타고의 정벌에서 패하자 로마는 400척의 함선을 카르타고로 보내 지상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철수병력을 싣고 귀환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280여 척의 함선과 병력 10만 명을 잃는 참사를 당했다.

2년 후인 기원전 253년에 로마 함대는 티레니 해를 횡단하려다 또 다시 폭풍우를 만나 150여 척의 함선을 잃게 되었다. 해상강국 로마는 당분간 해전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다.<sup>64)</sup> 기원전 255년의 북아프리카 작전 실패에서 초래된 지상과 해양에서의 로마의 재난은 카르타고가 현저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수비대를 강화시켰고, 지상전에서의 복합적인 행운에 뒤이어, 드레파눔 해전(Battle of Drepanum, B.C. 249)에서도 로마 함대에게 완벽한 승리를 했다.

이 해전에서 로마 함대는 집정관 풀체르(P. Claudius Pulcher)가 지휘하였고, 카르타고 함대는 아드헤르발(Adherbal)이 지휘하였으며, 양측의 함대는 각각 200척 정도로 구성되었다. 교전 결과 로마 함대는 98척의

64) 김주식, 『세계와 해양활동의 관계』, 해군사관학교, 1992, p.107

함선이 침몰하고, 8천여 명이 전사했으며 20,000명이 포로가 되었다. 이에 반하여 카르타고는 단 1척의 손실도 없었다. 이 드레파눔 해전은 포에니 전쟁 기간 중 카르타고 함대가 승리했던 유일한 해전이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원전 249년 로마는 시칠리아 섬에 주둔해 있는 지상군의 군수지원을 위해 함선을 파견했다. 교대병력과 각종 군수품을 적재한 로마 함대가 시칠리아 섬으로 향하다가 또다시 폭풍을 만나 함선 700여 척과 병력 20만여 명이 난파당했다. 드레파눔 해전과 뒤이은 폭풍으로 인해 로마의 해양력은 네 번째로 괴멸되었다. 이로 인해 당분간 로마는 해상전을 포기하고 지상군으로 시칠리아 섬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승승장구하던 로마 함대가 드레파눔 해전과 폭풍우 등으로 연이은 치명적인 괴멸을 당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기원전 260년의 밀레 해전과 기원전 256년의 에크노무스 해전에서 로마가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코르부스라는 비밀병기였다. 코르부스에는 갈리선의 운용능력을 극도로 제한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로마의 해양력을 연구하는 원로 역사가들은 “전쟁과 폭풍우 등으로 인해 약 600척의 로마 전투함선과 1,000여 척의 수송선들이 침몰되었으며, 아마 이처럼 많은 침몰로 인한 손상을 입었던 일은 역사상 그 어떤 해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sup>65)</sup>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로마가 지중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코르부스는 도입된 지 10년도 못되어 선박의 항해 적합성에 과도한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로마의 해양력이 일시적으로 소멸되었던 B.C. 247~B.C. 242년 카르타고의 해밀카(Hamilcar)는 로마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 연안을 침공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65) Starr, *Influence of Sea Power on Ancient History*, p.57

## 로마의 함대재건과 카르타고의 몰락

로마의 상인과 시민들은 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통제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함선을 건조해야 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들은 함선 건조를 위한 기부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기부금으로 200척의 함선을 건조하였다.

드레파눔 해전에서 패한 지 7년이 지난 후, 로마는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여 복귀하였으며, 기원전 242년에 시칠리아 섬 서부(릴리배움과 드레파눔)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카르타고의 주요거점을 점령했으며, 시칠리아의 카르타고 기지를 봉쇄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카르타고 정부는 한노(Hanno)에게 200척의 전투함선을 급파하여 시칠리아 섬의 기지를 사수하도록 했다. 로마 함대 사령관 카툴루스(C. Lutatius Catulus)는 시칠리아 서해안의 아에가 테스 제도 근해에 머물고 있는 카르타고 함대와 우연하게 만나 교전을 벌였다.

이 해전에서 로마 함대의 우세한 전략과 강력한 전력, 확고한 의지 등을 경시했던 카르타고 함대는 함선 50여 척이 침몰되고 70여 척이 나포되었으며 나머지 함선은 아프리카로 도주하였다. 로마 함대는 단 일격으로 다시 제해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카르타고는 실패한 한노(Hanno)를 처형하고 로마의 평화안을 받아들여 적절한 재정적 배상과 아울러 최초의 해외 영토였던 서부 시칠리아를 양도했다. 시칠리아 섬을 상실한 카르타고는 이제 지중해의 통제권을 로마군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 해전의 의의 및 교훈

아에가 테스 해전을 끝으로 제1차 포에니 전쟁은 막을 내렸다. 로마는 이 마지막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카르타고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한편, 시칠리아 섬에서 카르타고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고 시칠리아를 속주로 만든 데 이어 사르디니아와 코르시카도 속주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 세력을 완전 축출함으로써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었다.

제2차,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 제해권을 확보한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지상전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 함대가 시칠리아 근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험난한 육로 원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지상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부터 병력 및 군수지원을 받지 못하고 끝내 고전하게 되었다. 오히려 카르타고의 본토가 로마군의 침공을 받고 패망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로마가 해양강국 카르타고 함대를 격파하고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창의적 재능과 강력한 군사적정책력 덕분이었다. 비록 로마인들은 지상 중심적인 심성(mind)을 가지고 있었지만, 훌륭하게도 해양력의 중요성을 빠르게 깨달았다.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려면 강력한 함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로마는 시민들을 설득하여 많은 함선을 건조하였고, 카르타고의 월등한 조함술에 대응하기 위해 코르부스와 사대를 만들어 카르타고의 충각전술을 무위로 만들었다. 지상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준 코르부스를 이용하여 육상전투에 능한 로마병사들이 카르타고 함선에 건너가 백병전으로 카르타고 해군을 무찌를 수 있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포에니 전쟁 동안 코르부수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 로마는 그들의 장점인 지상전술을 해상전술에 적용하여 밀레 해전과 에쿠노무스 해전에서 승리했다.

그 이후 로마는 다섯 번에 걸친 대규모의 자연재해와 드레파눔 해전에서 참패하여 대해군이 몰락되었으나, 국가와 시민이 신속하게 단결하여 함대를 재건하여 다시 일어섰고, 아에가 테스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반면 카르타고의 패배요인은 서부 지중해 거의 전 연안 해역을 포

합하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력이 크게 부족했던 점도 있었지만, 전쟁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던 정책과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대규모의 지원을 투입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사회 특성에 있었다. 한 예로 로마가 처음 시칠리아 섬에 상륙할 때, 로마 군을 실은 선박에는 호위함이 없었으나 카르타고 함대는 로마 함선을 공격하거나 로마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2차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이탈리아에 있는 한니발 작전에 전쟁의 초점을 두기로 결정했다라면, 그것은 승리를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한니발에게 대규모의 증원군을 보내는 데 실패했으며, 해양우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카르타고는 뛰어난면서도 고집이 세고 훌륭한 장군들과는 대조적으로 카르타고 정부는 사르디니아(Sardinia)와 시칠리아에서 잃었던 상업적 지배권을 다시 확보하고 스페인에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제한적인 전쟁만을 수행했다.<sup>66)</sup> 따라서 한니발에 대한 군수지원은 적극적이지 못했다. 또한 전투함선의 건조는 물론 기존함대의 정비도 게을리 하였다. 한마디로 로마에 대항해서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했다. 만약 제2차 전쟁에서 한니발에게 병력과 군수물자가 증강되었다라면 이탈리아의 지상전에서 전쟁을 종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중해와 유럽은 카르타고의 지배에 들어갔을 것이다.

로마가 카르타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로마군의 애국심이 카르타고군보다 월등했다는 데 있다. 로마군은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반면 카르타고는 용병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국민으로 구성된 로마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외국인 용병

66) Caven. *Punic Wars*. p.292참조. 또는 Harris, *War and Imperialism in Republican Rome, 327~70 B.C.* pp.107~117

인 카르타고군은 남의 나라를 위해 귀중한 목숨을 바쳐가며 싸울 필요가 없었다.

카르타고는 위대한 해양 전통과 16년간 야전에서 무적의 명성을 휘날린 장군에 의해 지휘되는 세계최강의 야전군이 있었음에도 로마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으며 그 이유는 로마의 해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국가정책면에서, 카르타고는 로마에 비해 해양력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로 인해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지중해 연안의 전 지역을 지배하는 강대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로마는 지중해를 가운데 둔 도넛과 같은 형태가 되었으며,<sup>67)</sup> 방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지중해는 로마 군단(Legion)을 이동시키거나 생산품을 수송하는 사통팔달의 내해 구실을 하였다. 그러므로 로마의 지중해 패권 장악은 로마 제국의 세력 확장과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악티움 해전(Battle of Actium, B.C. 31)

##### 시대 배경

카르타고와의 기나긴 전쟁(포에니 전쟁, Punic War, B.C. 264~B.C. 146)에서 승리한 로마는 마침내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고 서부 지중해의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였다. 그 후 로마는 동부 지중해로도 세력을 확장하여 기원전 146년에 마케도니아를, 기원전 64년에 시리아를, 그

---

67) James A. Field, "The Origins of Maritime Strategy" B. M. Simpson III, *War, Strategy and Maritime Power*(New Brunswick,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1977), p.78

리고 기원전 30년에는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했다. 이로써 로마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주변의 광대한 토지를 획득해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다.

지중해를 제압한 로마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정복한 토지를 모두 속주(屬州, 식민지)화했다. 속주에는 토지수입의 10분의 1인 인두세(人頭稅)와 공납품, 수도에 대한 곡물공급 등이 의무로 부과되었고, 총독에 따라서 가혹한 지배가 행해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기원전 42년 속주 아시아의 총독이 된 브루투스<sup>68)</sup>는 속주민에게 10년 치의 세금을 미리 낼 것을 요구했는데 다음해 부임한 총독 안토니우스 또한 9년 치의 세금을 미리 낼 것을 요구했다. 속주민들은 2년 동안에 19년 치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다.

한편 중장보병으로 일하던 중소농민들은 몰락하여 자산을 잃고 무산시민이 되었다. 권력자와 유력자들은 이런 시민을 ‘빵과 서커스’로 흡수했다.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기장에서 죽음의 시합을 강요당하던 노예 검투사들이 스파르타쿠스를 지도자로 하는 반란(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일으키는 등 노예반란이 잇달아 일어났다. 또한 로마는 해양의 치안유지를 게을리 함에 따라 기원전 80년에는 해적들이 창궐하였다. 이 해적들은 로마에 대한 보급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로부터 반입되는 곡물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로마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카이사르(Julius Caesar)<sup>69)</sup>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해적 소탕에 혁혁한 전과를 세운 폼페이우스(Cneius Pompeius)와 당대 최고의 갑부였던 크랏수스(Marcus Licinius)와 연대해 정권을 장악하고 ‘삼두정치(三頭政治)’라는 새로운 공동통치체제로 로마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

68) 후에 카이사르를 암살한 인물.

69) 시저라고도 함.

정권을 장악한 다음, 카이사르는 갈리아<sup>70)</sup>를 정복하여 로마화하고 브리타니아(현재의 영국), 게르마니아를 차례로 격파해 유럽을 로마화하는 기초를 다졌다. 기원전 48년 카이사르의 권력 확대에 불만을 느낀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짜고 카이사르를 로마로 불러들였다. 세력 상실을 두려워한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군대를 이끌고 건너는 것이 금지된 이탈리아 북부의 루비콘 강<sup>71)</sup>을 건너 로마로 진입하여 폼페이우스를 패배시켰다. 패배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고, 카이사르가 이집트까지 추격하자, 이집트는 원하지 않은 로마의 정쟁에 휘말리게 된다.

기원전 47년은 클레오파트라(Cleopatra)가 이집트 여왕으로 즉위한 지 5년째로, 강대해진 로마의 침략 위협을 받던 때였다. 반감을 품은 이집트인이 도망쳐 온 폼페이우스를 살해해 추격해 온 카이사르에게 그 목을 바쳤다.<sup>72)</sup>

그러나 카이사르는 폭도로 변한 민중들의 습격을 받아 간신히 이집트 왕궁으로 피신했다. 그때 22세의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를 통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젊음을 무기 삼아 시저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녀는 나체가 된 자신을 선물로 포장하게 하고 심복에게 야음을 틈타 카이사르의 방으로 가져가게 했다. 53세의 카이사르는 22세의 클레오파트라의 젊음과 세련된 매너에 사랑의 포로가 되어 아이를 출산하고 카이사르는 로마로 개선하였다.<sup>73)</sup>

개선한 카이사르는 원로원으로부터 영광의 임파라토르(최고 군사령

70) 현재의 프랑스.

71) 현재는 불명임.

72) 패퇴하는 폼페이우스를 이집트까지 추격했으나, 막상 이집트인들이 그의 목을 바쳤을 때는 카이사르는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후에 로마로 개선한 카이사르는 숙적이었지만 그의 동상을 로마에 세웠다.

73) 그 후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아이를 손님 자격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아내와 살게 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로마에 쫓아온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네가 낳은 내 아들에게 ‘카이사리온’(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다.”라고 허용했으나, 열정에 휘둘러 그의 야망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관)라는 종신 독재 권력자의 칭호와 함께, 갖가지 특권을 부여받고 권력을 완전 장악했다. 영광의 절정기에 원로원이 그에게 바친 특권 중에서 카이사르가 가장 흡족하게 생각한 것은 ‘보통 때도 황금 월계관을 쓰고 다닐 수 있는 권리’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동상 앞에서 원로원과 브루투스 등의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했다.<sup>74)</sup>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 로마는 카이사르파(派) 3명의 수뇌인 안토니우스(Marcus Anthonius)<sup>75)</sup>와 옥타비아누스(Julius Octavianus)<sup>76)</sup>, 레피두스(Marcus Lepidus)가 연대하여 실권을 잡아 제2차 삼두정치가 시작되었다. 안토니우스가 동부 로마, 옥타비아누스가 서부 로마 그리고 레피두스가 아프리카를 통치하였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경쟁자였던 폼페이우스의 아들 섹스투스 폼페이우스(Sextus Pompeius)가 함대 사령관이 되어, 보급을 장악하게 되자, 로마의 운명이 그의 손에 들어간 결과가 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로부터 제해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함대를 건설하였으나 쿠마에 해전(Battle of Cumae, B.C. 37)에서 폼페이우스 함대에 패전했다.

옥타비아누스의 오랜 친구인 마르쿠스 아그립파(Marcus Agrippa)

---

74)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폼페이우스 극장에서 만 55세의 절대 권력자 카이사르가 단검을 빼든 원로원 60명에게 에워싸였다. 암살 명분은 ‘공화정 수호’였다. 암살자들은 살아 있는 인간이면서도 신(神)에 육박한 권능을 획득한 카이사르를 살해함으로써 로마가 제국(帝國)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들은 저마다 필기용 철필 통에 숨겨온 단검을 꺼내 카이사르를 마구 찔렀다. 독재자는 끝까지 저항했다. 청년 장군 마르쿠스 브루투스가 자신의 사타구니를 찔렀을 때 불현듯 저항을 멈추고 부르짖었다. “아들아, 너마저?”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오랫동안 사랑한 세르빌리아의 아들이었다. 카이사르는 토가로 머리를 감쌌고, 일찍이 자신이 패퇴시킨 숙적 폼페이우스의 동상아래 굴러 떨어져 숨을 거뒀다.”-Adrian Goldsworthy, *Julius Caesar*, Oxford University, (백석운 옮김, 루비박스, p.864)

75) 카이사르가 총애한 부하

76) 카이사르의 양자

가 옥타비아누스의 새 함대를 건설하였고, 안토니우스도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하였다.<sup>77)</sup> 아그립파는 포에니 전쟁 당시보다 크고 견고한 전선을 건조하였는데 이 전선들은 쇠뇌(鎗, catapult)<sup>78)</sup>를 장치하고 적의 충각전술로부터 선체를 방호하기 위하여 흘수선 부근을 가로 들보(beam)로 보강하였다.

기원전 36년 아그립파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본토사이의 나울로추스(Naulochus)에서 폼페이우스 함대를 격파하였다. 이 나울로추우스 해전은 양측이 각각 300척의 전선을 동원하였는데, 아그립파 함대는 크고 견고한 반면에 폼페이우스 함대는 속력과 기동 면에서 우세하였다. 이 해전에서 충각 전술과 쇠뇌를 이용한 불화살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아그립파는 갈고리 발사기(harpago)<sup>79)</sup>를 현 측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레피두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함에 따라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지중해 세계를 양분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원전 32년에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동생인 옥타비아(Octavia)와 이혼하기 전에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자, 로마의 두 지배자 사이에 잘 유지되어오던 공존관계는 깨지고 긴장이 조성되었다.

안토니우스는 교양과 야심에 찬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매혹되어, 그녀와 함께 동방제국을 건설하여 로마로부터 분리할 것을 계획했다. 마침내 기원전 32년에 서부 로마를 지배하는 옥타비우스와 동부 로마를 지배하는 안토니우스 사이에 권력투쟁의 내전이 벌어졌

---

77) 마르쿠스 아그립파는 옥타비아누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믿을만한 협력자가 된 것은 카이사르와 관련이 있다.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에게 군사적 재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방면의 재능이 뛰어난 아그립파를 옥타비아누스의 협력자로 발탁 한 것이다.

78) 일종의 투석기

79) 코르부스(corvus)보다 개량된 무기로서 발사된 갈고리가 적선에 걸리면 끌어당겨 병사들이 적선에 뛰어올라 백병전을 벌인다.

다. 이 내전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악티움 해전(Battle of Actium, B.C. 31)이었다.

#### 해전의 경과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전비를 지원받은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32년 가을에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이동하였다. 안토니우스는 30개 군단 15만 명과 함선 500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함대에는 아그립파가 사용했던 전선과 같은 강력한 전선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충성심과 전투의지가 부족했다.

안토니우스는 코린트 만(Gulf of Corinth) 입구의 파트라스(Patras)에 사령부를 두고 암브라키아(Gulf of Ambracia)에 함대를 정박시켰다. 한편,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전쟁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안토니우스는 그리스에서 클레오파트라와 향락에 빠져 반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냈으며, 이때 그의 행동에 실망한 나머지 많은 부하들이 그의 진영을 떠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나울로쿠스 해전에서 승리했던 함대가 행방불명이 되어, 다시 그와 같은 대형 전선을 건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어려웠던 아그립파는 갑판이 낮고 소형이지만 기동성이 뛰어난 리부리안선(liburian)을 건조하거나, 굵어모아 약 260척의 함대를 재건할 수 있었다.

기원전 31년 봄에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준비를 마치고 이탈리아 남부의 부룬디시움(Brundisium)과 타렌툼(Tarentum)에 군대를 집결시켜 공세작전을 개시하였다. 아그립파는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악티움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코르키라(Corcyra, 현재의 Cofu 섬)를 점령하고 아드리아 해협을 먼저 확보하였다. 그리고 파트라스에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우스 부대가 해상보급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립파는 해상봉쇄부터 시작하였다. 속력이 빠른 아그립파의 전선



이 수송선을 나포하자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보급의 부족을 겪기 시작하였다.

한편,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함대가 있는 악티움에 지상군을 전진배치하고, 자신의 우수한 지휘역량을 발휘하여 지상전투에서 승부를 결정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전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육지에서 안토니우스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아그립파 함대는 코린트, 파드라스와 레우카스를 점령하여 안토니우스를 포위하였다. 이제 악티움에 주둔한 안토니우스 군대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병사들의 탈출로 인하여 세력이 너무나 약화되어 지상전을 전개할 입장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안토니우스 진영에서는 로마군을 중심으로 한 주전파(主戰派)와 이집트군이 중심이 되어 이집트로 탈출하자는 비주전파(非主戰派)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그립파는 암브라키아 만(灣)의 안토니우스 함대의 탈출을 봉쇄하기 위하여 1개 전대를 배치하였다. 이제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희망은 함대를 이끌고 탈출하여 이집트에서 전쟁준비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클레오파트라도 지지하였으며, 이집트 함선 66척이 안토니우스 함대에 가세하였다. 안토니우스는 약 300척의 함선에 2만 명의 병력을 탑재하고 승조원이 없는 전선을 불태워버렸다. 한편 옥타비우스 함대는 약 250척의 함선에 3만 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있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오전에 안토니우스는 그의 함대를 3개 전대로 편성하여 각각 횡렬진의 전투진형을 갖추었다. 우익전대는 겔리우스(Gellius) 지휘 아래 북쪽 해안 근처에 위치하였고, 주스티우스(Justus)가 중앙전대를 지휘하였으며, 코엘리우스(Coelius)가 남쪽 해안 쪽의 좌익전대를 지휘하였다. 이와 대결하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에서는 아그립파(Agrippa)가 중앙전대, 루리우스(Lurius)가 남쪽의 우익전대 그리고 아룬티우스(Arruntius)가 북쪽의 좌익전대를 지휘하

였다. 아그립파는 그의 중앙전대의 전진을 보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보다 대형인 안토니우스의 전선들이 밀집대형을 이루고 측방 해안의 보호를 받고 있어 그들을 포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정오경에 북동풍이 불자 안토니우스는 이를 이용하여 포위망의 돌파를 시도하였다. 통상 전투 시에는 돛대와 돛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날 안토니우스는 전투보다는 탈출하기 위하여 돛대와 돛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안토니우스의 양측 전대가 중앙전대보다 더 빨리 전진하였는데, 이때 아그립파는 함대가 외해 쪽으로 나가면 포위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후퇴하였다. 외해로 나오자, 안토니우스의 전선 1척에 대하여 아그립파의 전선들이 3~4척씩 무리지어 공격하였다. 이날 충각전술이 사용되지 못했는데, 안토니우스가 상대방을 충각하기에는 속력이 느리고 둔했으며, 아그립파의 전선은 소형 전투함으로 대형함을 충각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진퇴를 조종하여 적선을 포위하고 불화살 등을 사용하여 공격하였다. 아그립파의 지휘로 많은 안토니우스의 전선들이 불화살에 맞아 불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세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오후 1시경에 클레오파트라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전장을 탈출하였다. 안토니우스도 몇 척의 깃선과 함께 가까스로 클레오파트라를 뒤따라 탈출하였다. 이때부터 안토니우스의 잔여 함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패퇴하기 시작하였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안토니우스 함대의 일부가 악티움으로 도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불타거나 나포되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부 지중해의 여러 지방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하였다. 그 다음해 7월에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추격하여 이집트에 상륙하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자살하였다. 이집트 왕국을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카이사르에게 몸을 바쳤던 클레오파트라가 이번에는 새로운 실력자가 된 안토니우스를 유혹하여 그와 함께

동부 지중해를 제패하려 했지만,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자 실의에 빠진 그녀는 독사로 하여금 가슴을 물게 해 39세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악티움 해전의 의의 및 승패 요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 함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아그립파의 뛰어난 전략과 지휘 덕분이다. 그는 옥타비아누스를 위하여 함대를 재건하였고, 악티움 해전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전투준비를 마친 그는 처음부터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안토니우스 함대를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안토니우스 진영의 전투의지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다. 또한 악티움 해전에서는 자신의 전선이 소형이지만 속력과 기동성이 좋은 점을 충분히 살려 여기에 맞는 무기 체계와 전술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승리했던 것이다.

반면, 안토니우스 함대의 패배는 전적으로 안토니우스의 우유부단한 지휘에 기인하였다. 우선 그는 우세한 지상군과 견고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와의 사련(邪戀)으로 시간을 헛되이 소비해 옥타비아누스에게 전쟁준비를 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아그립파가 군수 수송선을 나포하고 해상 봉쇄를 가하자, 군수보급이 끊어진 안토니우스 진영은 기아와 질병으로 사기가 떨어진데다, 급기야 병사들이 탈출로 이어져 전투력이 크게 악화 되었다. 이로 인하여 500척의 함선 가운데 300척에만 승조원과 병력을 승선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막상 전투를 앞두고 안토니우스 진영에서는 주전파(主戰派)와 비주전파(非主戰派)로 내분이 발생하였다. 전투를 목전에 두고 싸울 것이냐, 탈출할 것이냐로 우왕좌왕한데다, 가능한 싸움을 피하고 탈출만을 하자고 함으로써 싸우기도 전에 군대전체의 전의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악티움 해전에서, 물론 탈출이 목적이었지만, 치열한 전투 중에 지휘관이 탈출함으로써 함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해전 자체를 패전으로 유인하고 말았다. 한때 로마를 호령 하던 안토니우스는 우유부단한 지휘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클레오파트라와의 사련 때문에 패전과 자결이라는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 함대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 함대를 패배시키고, 이집트까지 무너뜨리자 로마의 권력은 34세의 옥타비아누스에게 돌아갔다. 로마로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에 삼두정치를 폐지하고 군사와 내정과 외치 등 모든 권력을 원로원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옥타비아누스의 이러한 선언은 원로원과 로마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호의 소용돌이에 밀려들게 하였다.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Augustus)<sup>80)</sup>’라는 칭호와 함께 임페라토르(군 최고 사령관) 및 사제장 등의 지위를 부여했다. 옥타비아누스는 독재 지배를 싫어하는 로마의 전통을 존중하여, 원로원이 부여한 ‘프린캡스(Princaps)<sup>81)</sup>’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론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로마 황제가 되어 1인 독재 정치(제정)를 시작했다.

그러므로 악티움 해전은 로마가 공화제에서 제정국가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던 역사적인 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마 제국은 오늘날 유럽 역사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 5. 레판토 해전 (Battle of Lepanto)

로마 제국의 해양력 성쇠(盛衰)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초대황제인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가 되어 로마를 통합한 후 그 후 장기간에 걸

---

80) 위엄 또는 존엄자라는 의미

81) 제1시민, 제1인자의 의미, 후에 프린스의 어원

친 로마 제국은 일반적으로 육지 쪽에 중점을 두고, 유명한 도로를 건설하는 등 대륙적인 존재였다.<sup>8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중심적 민족이었던 이들 로마인들은 해양력에 대한 정책 및 관리상태를 고대 최고의 세련된 수준으로 발전시켰다.<sup>83)</sup> 지중해는 로마 제국의 내해였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제국의 안보와 효율적인 번영을 위해 핵심적이었다.

사실 로마 제국은 5세기에 이르기까지 바다로부터 적을 멀리 격리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지중해(또는 흑해)에서의 해군위협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었다. 또한 지중해와 라인 강, 다뉴브 강 등을 이용하여 위협받는 국경 지역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전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중해와 라인 강, 다뉴브 강이 제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은 영국에서 독일의 국경 지역 강들과 발칸 반도 및 카스피 해 연안, 중부 유럽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주변과 이를 가로지르는 해양교통로를 효율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전달될 수 있는 전략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전성기가 지나고<sup>84)</sup> 세력이 점차 약화되자 3세기를 전후하여 북방 이민족의 침입과 해적의 출몰이 빈번해지고 로마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다 퇴역군인이 지방도시에 정착하면서 수도 로마의 특권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93년에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도나우 강 연안의 군단장이었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로마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다. 이후로 속주의 군대가

82) 로마 제국은 각지에 군대(전성기에는 40~50만)를 배치하여 식민시를 건설했으며, 각각의 도시를 총길이 약 8만5,000km에 이르는 두께 2m의 견고한 도로로 연결했다. 로마는 라틴어, 로마법, 로마풍의 생활양식, 제국의 화폐, 도량형을 보급하였다. 파리, 런던, 빈 등의 도시도 이 시기에 건설되었다. 또한 로마는 필요한 식량 전부를 속주에 의존했으며, 속주와 로마 간에 도로를 건설하고 가혹하게 지배했다.

83) Chester G. Starr, Jr., *The Roman Imperial Navy*, 31 B.C.~A.D. 324(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5: first pub. 1941), p.167

84) 96년부터 180년까지 5인의 황제가 지배한 약 100년간

하급병사 출신의 힘 있는 지도자를 서로 추대하여 격렬하게 다투는 ‘군인 황제 시대’(235~284)가 되었다. 이 시대에 26명의 군인(병사) 출신의 황제가 잇따라 즉위했는데 그중 천수를 누린 황제는 단 1명 뿐이었다. 이렇게 되자 로마 제국은 혼란해지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혼란을 재통일한 것이 3세기 말의 군인 황제 중 한 명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다. 그는 군대의 규모를 2배로 늘렸으며 2인의 정제(正帝)와 2인의 부제(副帝)에 의한 통치 제도를 도입하고 세계개혁으로 국고수입을 확보했으며 중앙집권적인 관료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국을 재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뒤를 이어서 혼란을 극복하고 단독 지배자가 된 콘스탄틴 황제(Constantine the Great)는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는데, 그리스도교는 민족을 초월한 보편성을 갖는 종교라 하여, 그리스도교를 제국 통치에 이용하고 안정을 구축했다.

#### 콘스탄틴 대제의 동방정책

서기 328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를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sup>85</sup>로 옮겼다. 콘스탄틴 황제가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비잔틴에 세운 콘스탄티노플은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유럽 연안 한 돌출부(岬)에 위치하여, 지중해와 흑해 사이의 통행과 소아시아와 발칸 반도 사이의 동·서간 교통을 보호하고, 도시 주변이 강한 조류와 사주(砂洲)로 둘러싸여 방호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어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다.

그러나 4세기 말이 되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혼자서 광대한 로마 제국 영토를 통치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395년 세상을 뜨기 직전에 로마 제국을 이분했다. 이리하여 로마 제국은 동쪽의 그리

---

85) 현재의 이스탄불(Istanbul)

스적인 로마(동로마 또는 비잔틴 제국)와 서쪽의 라틴적인 로마(서로마 제국)로 분리되었다. 서로마 제국은 북방의 게르만 민족, 훈족 등의 대이동으로 인해 곧 소국으로 분열된 뒤 476년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하여 두 살배기 황제 로물루스가 폐위됨으로써 멸망된다.

반면, 보스포러스(Bosporus) 해협에 위치한 요새화된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기반을 둔 동로마 제국(비잔틴 제국, 이후 ‘비잔틴 제국’으로 사용)은 흑해 북쪽의 곡창 지대와 이어져 있어 재정과 군사 면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동쪽으로부터 이슬람 세력의 침략에 대항해서 1000년 동안에 걸쳐 기독교적 유럽을 지키는 주요 방과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할 면에서 비잔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계승한 것이었다.

비잔틴 제국은 수많은 적들과 대결하면서 아테네가 깨닫게 되었던 사실과 마찬가지로 일류의 해군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전략적으로 침략자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서기 648~678년과 717~718년 동안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벌인 필사적인 항쟁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던 호전적인 아랍인의 도전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잔틴 해군이였다. 비잔틴 해군이 적의 해군을 패퇴시킴으로써 대규모의 아랍 포위공격으로부터 비잔틴 제국을 생존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86)</sup>

아랍과 터키인 등 침략자들은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요새화된 제국의 수도를 포위 공격하거나 또는 점령해야만 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수도와는 달리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은 침략자가 해양우세권을 확보하고, 포위공격을 감행하는 데 적합한 무장을 갖추지 않는 한, 공격에 저항하고 방어하기에 아주 훌륭한

---

86) Peter Brown, *The World of Late Antiquity*(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200 참조.

곳이었다.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은 해양력과 지상력을 겸비한 주요 세력의 연합노력에 의해서만 점령할 수 있었다. 1000년 동안 아바인과 아랍인, 터키인 등<sup>87)</sup> 모두가 해양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구원과 재보급을 봉쇄하기 위해 그들의 대륙적인 지상전력 우세에 해군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잔틴 인들 역시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필요한 경우, 해군을 건설했고 또 재건하거나 복원했다.<sup>88)</sup> 6세기 초 그들은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을 건설했다. 7세기와 8세기에는 아바와 페르시아, 아랍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군을 재건했으며, 9세기와 10세기에는 기독교도들의 해양통상을 (사이프러스, 크레테, 시칠리아 등) 보호하거나 또는 공격하기 위해 기지를 제공했던 도서들을 재확보할 목적으로, 그리고 지상에서 제국의 부활을 지원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해군을 복원했다. 11세기와 12세기에 간헐적으로 복구되었던 비잔틴 해군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로부터 약탈에 굶주린 노르만족과 대항했으며, 또한 동부 지중해 지역으로 밀려들어왔던 십자군들을 압박하는 데 협력하고 지원했다.

그러나 11세기 후반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쥔 유목민 터키의 셀주크조는 영지를 찾아 비잔틴 제국의 소아시아에 빈번히 침입하였다. 비잔틴 제국은 1071년 만지커트(Manikert)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하여 아나톨리아의 대부분을 잃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결코 회복 될 수 없을 정도로 제국의 영토가 축소되었다.

소아시아 일대를 빼앗긴 비잔틴 제국은 해양통상과 세입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

---

87) Speros Vryonis, jr., "The Byzantine Legacy and Ottoman Forms," in *Dumbarton Oaks Papers*, Nos. 23 and 24(Washing D.C, Dumbarton Oaks Center for Byzantine Studies, 1969~1970), p.275 참조.

88) Archibald R. Lewis, *Naval Power and Trade in the Mediterranean, A.D. 500~1100*(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1).



고 아드리아 해와 그리스에서 노르만족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잔틴 제국은 상업 및 해군관계에 있어서 때때로 유익한 동반자였으며 1071년 비잔틴이 만지커트와 바리에서의 재난<sup>89)</sup>을 당한 이후 주요한 외부 후원자였던 베네치아(Venezia)<sup>90)</sup>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베네치아는 비잔틴 제국이 742년부터 베네치아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베네티오 지역이 명의상 비잔틴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다.<sup>91)</sup> 1082년 비잔틴이 제국의 해상무역에 대한 (혹해를 제외하고) 베네치아의 독점적인 지위를 허용하고, 영토 내에서 특수한 상업적 이득을 양보했던 골든 불 조약(Golden Bull)<sup>92)</sup>은 베네치아로 하여금 해양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내부정치에 대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도 되었다. 베네치아는 비잔틴 제국의 해상수송을 전담함으로써, 많은 이익과 부를 획득하였으며, 해상무역이 확장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골든 불 조약을 이용하여 비잔틴의 해군력을 재건하겠다는 제국의 노력은 노르만 제국주의에 대한 베네치아의 양면적 입장<sup>93)</sup>으로 결국 무위로 끝나게 되었다. 오히려 비잔틴 제국은 위협할 정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명적일 만큼 해양안보를 베네치아에 의존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해양무역에 대한 통제권도 함께 상실했다.<sup>94)</sup> 왕국의 열쇠인 해상무역 독점권 상실과 해군력 재건에 실패했다는 비잔틴의 인식은 베네치아의 힘을 또 다른 해양 도시국가였던 제노아의 힘으

---

89) 비잔틴인들이 노르만족에 의해 추방됨.

90) 영문이름 베니스(Venice)임.

91) R. Cassi, "Venice to the Eve of the Fourth Crusade," in Hussey, ed.,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 4. pt. pp.288~289 참조.

92) 황금의 황소

93) 노르만과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전략적인 필요성과 그들의 상업적 이익 확보가 우선이나 하는 입장.

94) Michael Angold, *The Byzantine Empire, 1025~1204: A political History* (London: Longmans, 1984).

로 상쇄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외교적인 정책과 노력을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러자 베네치아는 동부 지중해에서 베네치아의 통상을 위한 진정한 안보는, 실질적인 제국의 점령으로만 기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잔틴과 맺은 무역이권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후에 베네치아는 제국 내에서 그때까지 가장 우월했던 무역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1204년에 비잔틴 제국을 직접 공격하여 약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한편 아니톨리아를 완전히 수중에 넣은 셀주크조 터키는 계속해서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로부터 시리아를 빼앗고 이어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도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 영토인 소아시아에 빈번히 침입하자, 이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던 비잔틴 황제는 종교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로마 교황에 지원을 요청했다. 비잔틴 제국의 지원 요청을 받은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동서교회의 통일과 서유럽 세계의 교황권 강화를 목적으로 남프랑스에서 공의회를 열고 성전이라는 이름하에 원정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파견된 것이 십자군이다.

십자군 원정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7차에 걸쳐 파견되었으나,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특히 프랑스인과 플랑드르(Flandre)인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십자군이 1099년 6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7월 제노아 해군의 원조를 받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으나, 도저히 성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살<sup>95)</sup>과 약탈을 자행했다. 그 후 이집트의 지배자 살라딘이 118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독일 황제, 프랑스 왕, 영국 왕들이 최대 규모의 제3차 십자군을 이끌고 성지로 향했으나 소아시아에서 독일 황제가 익사하고 프랑스 왕도 도중에 철수해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 그 후 계속 십자군을 파견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고 1291년에 십자군 마지막 거점이었던 아콘이 함락되어 200년

---

95) 이슬람교도인 주민 5만 명 중 4만 명을 살해했다고 한다.

에 걸친 십자군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서유럽을 열광시킨 십자군 원정은 유럽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로마 교황은 일시적으로 강대해지긴 했으나 결국 성지 탈환에 실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권위가 실추되었고, 무리한 원정을 강행한 제후들과 기사들이 몰락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어 국왕에 의한 통일국가 형성이 진행되었다.

십자군 원정 이후 유럽은 바깥쪽으로 넓어지기 시작 했다. 특히 제 4차 십자군 원정 이후 이탈리아 상인들은 동부 지중해와 흑해의 교역권을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빼앗아 베네치아와 제노아 등의 도시가 급속히 발달하였다. 이탈리아 상인의 주요 거래 상대는 이슬람 상인으로, 남부 독일에서 산출되는 은으로 동방물자를 구입했다. 특히 후추는 육류의 보존과 조리에 필수적이라 매우 중요했다. 모직물과 금용으로 변영한 피렌체와 함께 베네치아 등의 항구도시는 도시 공화국으로 성장했다.

또 십자군 원정으로 대륙 내부에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상업이 발달했다. 상업의 발전은 내륙부와 연안부 각지에 ‘도시’를 탄생시켰다. 이탈리아 상인이 유라시아로 진출하면서 상인들이 교역거점으로 도시를 건설하였다. 주변 농촌 지역과 성벽으로 구분되는 공간이 도시였는데 주로 상인이나 직공이 살았으며 독자적인 도시법에 따라 통치되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성벽(Burg) 속의 사람(Burger)’에서 생긴 단어인 ‘부르주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 거대한 유라시아 네트워크가 완성되자 유럽의 상업은 남(지중해~흑해)과 북(발트 해~볼가 강 등 러시아의 하천)으로 대규모 무역이 가능해져 더욱 발전하였다. 북쪽에서는 12세기 중엽에 독일 북부의 여러 도시가 정치적 및 상업적 동맹인 한자 동맹(Hanseatic League)을 결성하였다. 전성기 때는 100개 이상의 도시가 이 동맹에 가입할 정도로 대단했다. 한자 동맹은 노브

로고로드, 런던, 브뤼주, 베를린 등에 지부를 두었고 우랄 산맥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상업을 독점하였다.<sup>96)</sup> 이 동맹은 15세기에 쇠퇴할 때까지 약 300년간 북해에서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무역을 통제함으로써 독점적 무역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한자 동맹의 몰락과 더불어 네덜란드와 영국의 해양력이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 십자군 원정으로 몰락한 콘스탄티노플

한편 베네치아와 십자군의 지원으로 터키의 침략을 막아, 제국에 남아 있는 것들을 유지하려 했던 비잔틴 제국은, 오히려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후에 서유럽 세력의 압력과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 더욱이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 시 그동안 전통적으로 비잔틴을 지지하고 지원해 오던 베네치아가 십자군과 합세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라틴 제국을 건설한 후 57년간(1204~1261) 비잔틴 제국에 대한 탄압과 파괴를 일삼았다.

쇠퇴하면서도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침략자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천 년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어처구니없게도 십자군과 합세한 베네치아에게 점령당한 것은 이 도시 방어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네치아 해군들이 십자군을 함선에 태우고, 골든 호른(golden horn 灣)을 직접 가로질러 침략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11세기 후반부터는 이탈리아 해양국가들(특히, 베네치아, 제노아, 피사 등)의 상업적 제국주의가 비잔틴 제국의 구원에 매우 중요하게 기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잔틴 제국의 안보를 기생적으로 약화시켰다.<sup>97)</sup>

---

96) Michael Angold, *The Byzantine Empire, 1025~1204: A political History* (London: Longmans, 1984.), p.105

97) Donald M. Nicol, *Byzantium and Venice: A study in Diplomatic and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Gerald W. Day, 및 *Genoa's Response to Byzantium, 1155~1204: Commercial Expansion*

십자군 원정과 반세기에 걸친 라틴인의 비잔틴 정복과 통치 및 1204년 콘스탄티노플의 몰락 이후,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동부 지중해와 흑해의 교역권을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빼앗아 동부 지중해 해양경제 패권을 장악했고, 십자군의 병사 수송과 동방무역(독일에서 산출되는 은광으로 후추 등 동방물자를 구입하는 무역 등)으로 많은 이익을 획득하여 급속히 발달했다.

특히 베네치아는 1204년 비잔틴에 대한 라틴 십자군의 정복으로 ‘해군기지의 제국’이라는 지위를 확보했다.<sup>98)</sup> 상업적인 이유로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베네치아는 비잔틴 제국을 포위 공격했던 제4차 십자군의 도움으로 비잔틴 내부와 연안 지역에서 식민지를 확보했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새로운 라틴 제국의 무역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그리고 아드리아 해의 달마티아(Dalmatia) 연안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 확보 등이 조화되어 지위가 월등하게 향상되었다. 그리하여 13세기 초 베네치아는 동부 지중해의 해양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261년 베네치아의 협조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불안하게 출발했던 라틴 제국이 멸망하자, 그 해 제노아는 베네치아에 대항하여 비잔틴 제국 황제 팔라에올로구스와 동맹을 체결하였다.<sup>99)</sup> 라틴 제국의 멸망으로 베네치아는 무역과 해군력에서 새로이 강화된 제노아(Genoa)의 도약에 직면하게 된다.

그 후 200여 년에 걸쳐 베네치아는 1204년에 확보했던 만큼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무역우세권을 놓고 제노아와 1253~138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아드리아 해의 다다넬즈, 크림미아와 돈(Don) 강 입구

---

*and Factionalism in a Medieval City*(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98) D. M. Nicol, “the Fourth Crusade and the Greek and Latine Empires, 1204~1261” In Hussey, ed., *Cambridge Medieval History*, vol. 4.pt. 1, pp.288~289

99) 김주식, 『세계사와 해양활동의 관계』, 해사박물관, 1992, p.238

등 전반적인 해상에 걸쳐 해전을 치렀다. 약 200년간에 걸친 제노아와의 경쟁에서 베네치아는 일시적으로 그들의 내해나 다름없는 아드리아 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과멸당할 수도 있었지만 국내정치 질서의 안정과 통상, 안보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일관성 그리고 적대국들 간의 상호대립 그리고 불안정 덕분에 안정된 상태로 다시 일어났고, 다음 세기인 15세기에는 상업과 군사적 성공이 절정에 도달했다. 반면 비잔틴 제국은 발칸 반도의 극히 일부분만을 지배하는 처지가 되었다.

#### 오토만 터키의 부흥과 비잔틴 제국의 멸망

한편 11세기 세계사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여 ‘터키인의 시대’와 십자군의 전쟁을 일으킨 셀주크조 터키는 그 전성기가 길지 않아, 11세기 말이 되자 셀주크조는 분열하고 세력이 약해져 12세기 중엽에 멸망했다. 그러나 오토만 터키 제국의 출현으로 유럽은 다시 한 번 이슬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오토만 터키 제국은 13세기 말 몽골인의 지배를 피해 소아시아로 이주한 터키인들이 세운 나라이다. 한때 동쪽에서 발흥한 티무르 제국에게 참패를 당한 뒤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티무르 제국의 쇠퇴로 세력을 다시 회복했다.

오토만 제국은 소아시아 지역과 동부 지중해 연안을 수중에 넣은 다음,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국가들의 뛰어난 포위공격자들이 실패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해군력 건설했다. 약관 21세의 나이로 오토만 제국의 술탄<sup>100)</sup>이 된 메메트 2세는 1453년 실질적인 방위병력이 8,000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되었음에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상과 해양의 합동작전이 필수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해양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을 구원하려는 어

---

100) 권위라는 뜻, 세속적인 군주

떠난 노력에 대해서도 해상봉쇄를 실시해야만 하였다.<sup>101)</sup>

드디어 1453년 5월 28~30일 메메트 2세는 육군 20만, 군함 400척과 그리고 헝가리 기술자 올반이 만든 ‘괴물(몬스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대포<sup>102)</sup>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포위 공격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을 지키는 세 겹의 성벽은 강력한 터키의 화력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했다. 공격하다 지친 메메트 2세는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끝난 혼 만(Golden Horn, 金閣灣)에 이르는 수십 킬로미터 산길에 은밀히 나무로 길을 만들게 하고, 야음을 틈타 72척의 군함을 옮긴 뒤 쇠시슬을 이용해 폐쇄되어있던 골든 혼 만에 띄우는 기상천외하고 대담한 전술을 구사했다.<sup>103)</sup>

비잔틴 제국은 안타깝게도 이들 포위공격자들을 격퇴시킬 수 있는 해군을 보유하지 못했기에, 골든 혼 만에 들어온 터키 해군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원인은 어이없게도 성문 중의 하나를 잠그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을 터키군은 일제히 쳐들어갔고 330년부터 1100년간 이어온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함락되고 말았다.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플을 구원하기 위해 때늦은 노력을 했지만 터키 제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의해 구원에 실패했다.

이렇게 하여 한때는 로마 제국을 재건할 정도의 기세를 떨쳤지만 발칸 반도와 흑해 북쪽에서 새롭게 일어났던 슬라브 제국의 세력(특히 러시아와 불가리아)들과 탐욕스러운 서구 라틴족<sup>104)</sup>의 이해관계에 의한 지속된 동·서의 협공, 이슬람 제국의 건설자들 그리고 내부의

---

101) Romilly Jenkins, *Byzantium: The Imperial Centuries, A.D. 610~1071*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7), p.312 참조.

102) 길이가 26피트 8인치, 포탄무게 1,344파운드로 60마리의 소와 200명의 병사가 끌었다 함.

103) 이 유명한 이야기는 ‘투르크 함대 산을 넘다’라는 말로 전해져 오고 있다.

104) 육지의 점령에 굶주린 시칠리아의 노르만족, 부를 추구하는 해양적 도시국가들, 정치·종교적인 ‘로마’의 권위에 대한 독일의 도전.

쇠약함이 혼합되어 1000년 동안 지속된 비잔틴 제국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메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후 이스탄불(Istanbul)로 개칭하여 오토만 터키 제국의 수도로 삼았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명이 상호 공존되는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오토만 제국은 비잔틴 제국에 대한 승리의 여세를 몰아 그리스 세계의 연안 자산들을 기반으로 1460년대에는 뛰어난 지상 세력 위에 대규모의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하게 되었다.<sup>105)</sup> 그 영향으로 베네치아는 1400년대 말 대규모의 오토만 제국 해군력에 의해 해외 통상 안보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년대의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경쟁국에 의한 총체적인 재난과 잦은 충돌로부터 일어섰고, 1500년대에는 더욱더 강력해진 오토만 제국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해외의 통상경쟁국들과 지상의 모든 이탈리아 경쟁국들을 무너뜨렸으며, 오토만 터키 제국의 해양력이 지중해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실 베네치아는 해외무역을 통한 상업적인 번창과 통상 안보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 했다. 베네치아는 해외무역 제국을 방어하기 위해 바다와 지상에서 점점 더 커지는 터키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최 우선순위로 삼도록 강요받아 3세기 동안에 걸쳐 터키와 11번의 전쟁을 수행했다. 베네치아는 1463~1479년까지 16년 동안, 그리고 다시 1499년부터 1503년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전쟁을 수행했다. 그 후에도 오토만의 통상 안보 위협에 대항해서 1537~1540년, 1569~1570년, 1645~1668년, 1684~1699년, 그리고 1714~1718년 등 여러 차례 전쟁을 수행했다. 16세기에 들어서 베네치아는 오토만과의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

105) Prior, *Geography, Technology and War*, ch. 7 참조.



오토만 터키 제국의 전성기인 제10대 술레이만 1세<sup>106)</sup> 시대에 와서 오토만 터키 제국은 헝가리를 정복하고 그 당시 이탈리아를 놓고 신성 로마 제국<sup>107)</sup>과 싸우고 있던 프랑스 왕과 손을 잡고 스페인, 몰타, 이탈리아 북부를 아우르는 대 제국인 합스부르크 가(家)의 수도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포위하여 위기에 빠뜨렸을 정도로 대 제국을 건설하였다.

터키는 합스부르크 가의 필립 2세를 공격하기 전에 몰타(Malta) 섬을 수중에 넣으려 했다. 그것은 지중해 주변 국가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지중해 상의 보급기지를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몰타 섬은 합스부르크 가의 칼 5세가 그리스도교 국가의 생명선인 시칠리아 섬을 보존하기 위하여 로레스 섬에서 축출당한 성 존(St. John) 기사단에게 주었던 섬이다. 성 존 기사단은 몰타 섬을 요새화하는 데 전념하였다. 1565년 오토만 터키 제국은 몰타 섬을 공격했으나 성 존 기사단에 의해 패배하게 된다.

터키의 찰립 2세가 황제가 되자 그는 키프로스(Cyprus)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키프로스는 원래 베네치아의 소유였으며 베네치아는 이 섬을 보유한다는 명목으로 터키에 세금을 내고 있었다. 그러한 키프로스를 터키 황제가 소유하길 원했고 그의 신하들도 1565년 몰타 섬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도 키프로스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08)</sup>

그 무렵 키프로스에 있던 베네치아 화약 공장 폭발사건이 발생했다. 폭발사건으로 섬에 정박해 있던 베네치아 함선이 모두 침몰되었다. 터키의 찰립 2세는 이 기회가 키프로스를 공격할 호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1570년 4월 베네치아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키프로스 섬이

---

106) 국내에서는 ‘입법자’ 유럽에서는 ‘장엄한 왕’이라 불렀던 유럽 최대의 군주.

107) 현 독일

108) Romilly Jenkins, *Byzantium: The Imperial Centuries, A.D. 610~1071*(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7), p.337

원래 이슬람 왕국에 속했었던 사실을 들어 영토권을 주장했다. 베네치아가 터키의 요구를 거절하자 터키는 대규모 원정대를 키프로스 보내 키프로스의 니코시아와 파마구스타라는 도시를 점령했다. 전투는 55일간이나 계속되었다. 이 전투에서 터키군 5만이 전사하였다. 터키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포로들을 살해하고 키프로스의 베네치아 사령관 브라가디노(Bragadino)를 고문하였다.

베네치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리스도교 국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베네치아는 공화정의 정치체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로부터 기피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베네치아의 도움에 응하는 나라가 없었다. 다만 이교도에 대한 성전을 구상하고 있던 교황 피우스(Pius) 5세만이 관심을 보였다. 교황은 정력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설득하여 로마 교황과 스페인·오스트리아로 구성된 반(反) 터키 신성동맹이 결정되었다.<sup>109)</sup> 이 동맹국들의 합선은 1570년 늦여름에 크레타 섬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성동맹의 연합 함대는 단일 지휘 체계로 함대가 운영되지 않고 동맹국이 각자 자국함대를 지휘하게 됨으로써 소아시아의 연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작전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경우처럼 베네치아를 위해 자국 함대와 병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단점이 많았다. 연합 함대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사령관을 임명하여 일원적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연합국들이 동의했다. 그 결과 24세의 오스트리아 청년 돈 존((Don John)이 연합군사령관에 임명되었다.<sup>110)</sup> 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家)의 속국인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이복동생으로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무어(Moore)인의 반란 때 스페인 함대 사령관으로 실전을 쌓은 경험이 있었다.

---

109) 김주식, 『세계사와 해양활동의 관계』, 해사박물관, 1992, p.239

110)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1998, p.50

1571년 10월 7일 그리스의 코린토 만 입구에서 양측의 대규모 함대가 격돌하였는데 이를 레판토 해전이라고 한다.

이 해전은 고대 노선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역사적인 대 해전이였다. 기독교 연합 함대의 승리로 오토만 터키의 지중해 진출을 좌절시켜, 이제 한창 꽃을 피우게 된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가 더욱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또한 레판토 해전에서는 비록 다수의 노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함포와 대형 범선을 장비한 갈레아스 선박(Galleas, 船塩)<sup>111</sup>의 큰 활약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의 해전양상은 완전한 대형 전투범선이 출현하여, 이 해전을 끝으로 고대 노선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 레판토 해상에 십자가와 코란의 깃발이

기독교연맹(Holy League)의 후원 아래 교황, 스페인, 베네치아, 사보이, 제노아, 몰타, 나폴리, 그리고 이탈리아 귀족들이 각각 함선과 인원을 제공했다. 스페인 왕 필립 2세(Philp II)의 이복형제인 돈 존(Don John of Austria)이 지휘하는 기독교 연합 함대는 1570년 8월 25일 시칠리아 섬 메시나 항구에 집결했다. 집결된 군사력은 갤리선 209척, 갈레아스 6척, 갈레온 26척, 브라간틴과 프리기트 76척 등 총 316척이었으며, 보병 2만 8,000명, 선원 1만 2,900명, 노수 4만 3,500명, 그리고 대포 1,815문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항하는 터키 함대는 갤리선 229척, 소형 함선 60척이 알리 파샤(Ali Pasha)의 지휘아래 집결하였다. 터키 함대의 군사력은 병사 3만 4,000명, 선원 1만 3,000명 및 노수 4만 1,000명으로 기독교 측보다 약간 우세하였으나 대포는 758문에 불과하였다.<sup>112</sup>

111) 50문의 포를 가졌으며, 노와 돛을 사용하는 대형 갤리선.

112) Romilly Jenkins, *Byzantium: The Imperial Centuries, A.D. 610~1071*(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7), p.197

기독교 연합 함대 사령관 돈 존은 9월 15일 터키 함대와 결전을 하  
기위하여 그의 함대를 3개 전대로 편성하여, 메시나를 출항하였다.  
돈 존은 주간 항해 시 각 전대 간의 거리는 20마일, 야간에는 8마일  
로 정하여 적을 탐색하면서, 그리스 서해안을 따라 코루프를 향해  
남하하였다. 터키 함대 역시 기독교 함대와 일전을 치르기 위하여  
10월 6일 전투태세를 갖추고 코린트만의 안전한 기지를 떠나 서진하  
였다. 터키 함대는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33년 전에 프레베  
자 해전(Battle of Prevasa, 1538)에서 기독교 함대를 격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10월 17일 새벽 연합 함대와 터키 함대는 일명 ‘피의 해안’으로 불  
리는 쉬로파 콧(Cape Scropha) 부근의 레판토(Lepanto) 만 입구에서  
만났다. 연합 함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려진 백색기를 휘날  
리며 터키 함대 쪽으로 기동하자, 코란의 문 귀를 금박한 백색기를  
휘날리며 터키 함대가 연합 함대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런 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함대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보다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연합 함대 사령관인 돈 존은 부하들에게 “비겁한 자가 들어갈  
천당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손에 십자가를 든 채 지휘함으로써 신앙  
심에 호소하고 있었다. 한편 터키 사령관 알리 파샤는 “적을 보면 격  
퇴시켜라.”는 술탄의 명령을 상기시켜 부하를 독려했다.<sup>113)</sup> 그리하여  
역사적인 레판토 해전이 시작되었다.

돈 존은 함대의 주력을 횡렬진(橫列陣)으로 전개하고 깃발의 색에  
따라 지정된 3개 전대를 편성하였다. 중앙전대에는 61척의 깡리선으  
로 구성된 청색전대(靑色戰隊)가 배치되었으며, 여기에는 돈 존 자신  
의 기함을 비롯하여, 콜로나(M. Antonio Colonna)가 지휘하는 깡리선

---

113) Casson lionel, *Ships and Seamanhip in the ancient World*, Baltimore Univ.  
Press, 1995, p.62

12척과 프리깃 6척으로 구성된 로마 교황 함대와, 사보이, 베네치아 및 제노아의 기함이 배치되었다. 그 우측에는 제노아의 도리아(Giann Andrea Doria)가 지휘하는 스페인 함대로 갤리선 90척, 갈레온을 포함한 대형 범선 24척 프리간틴과 프리깃 50척으로 구성된 녹색전대(綠色戰隊)가 전개되었다. 좌측에는 베네치아인 베니에로(Sebastian Venierro)의 지휘 하에 바바리고(Agostino Barbarigo)가 선도하는 황색전대(黃色戰隊)가 전개되었는데, 이 전대는 갤리선 106척과 갈레아스 6척 그리고 갈레온 2척, 프리깃 20척으로 구성된 베네치아 함대가 주력을 이루었다.

각 전대의 갤리선은 간신히 노를 저을 정도로 아주 밀집된 진형을 유지하였다. 또한 두우도(Francesco Duodo) 지휘 아래 6척의 갈레아스 선이 2척씩 3개 전대의 전위(前衛)를 형성하였다. 다시 1마일 후방에 스페인의 산타크루즈(Marquis of Santa Cruz) 지휘 아래 30척의 갤리선으로 구성된 예비전대(豫備戰隊)를 후위(後衛)에 배치하였다.

터키 함대도 역시 3개 전대와 1개 예비대로 편성되었다. 총사령관인 알리 파샤(Ali Pasha)가 지휘하는 중앙전대는 94척의 갤리선이 배치되었다. 시로코(Mahomet Sirocco)가 지휘하는 우익전대에는 60척의 갤리선으로 구성되었다. 좌익전대는 알제리의 왕 알리(Uluch Ali)의 지휘 아래 65척의 갤리선이 배치되었다. 알리 파샤의 중앙전대의 후방에 배치된 예비대는 드라구트(Amurat Dragut)의 지휘 아래 10척의 갤리선과 60척의 소형 함선으로 구성되었다.

10월 7일 오전 전투준비를 갖춘 양측 함대는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진형을 갖추었는데, 기독교 함대는 서쪽, 터키 함대는 동쪽에 위치하여 대치하였다. 기독교 함대는 적이 포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좌익을 연안 가까이에 배치해 두었다.

10시 반경 전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터키 함대에 유리한 남동풍이

불었다. 수적으로 우세하여 승리를 확신한 알리 파샤는 기독교 함대의 중앙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동시에 시로코 전대의 일부로 기독교 중앙전대의 좌익을 포위하고자 하였다. 터키 함대의 깰리선들은 전부 돛을 이용하여 기독교 함대를 향해 전진하였다. 기독교 측 함선들도 노를 저어 서서히 접근하였다.

갑자기 남동풍이 멈추자 돛으로 더 이상 바람을 이용할 수 없게 된 터키 함선들은 속력이 느려졌고 방향을 잃어 정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정오에 가까워 오자 기독교 함대에게 유리한 서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열을 확인한 돈 존은 병사들을 격려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기독교 연합 함대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청색전대가 완벽하게 전개를 완료하였고 좌측의 황색전대도 전개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우측에 위치한 녹색전대의 깰리선들이 다른 전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기동하였는데, 이는 마치 녹색전대를 지휘하는 도리아가 현장을 탈출하려고 기도한 것처럼 보였다.

본격적인 전투는 정오경부터 시작되었다. 연합 함대의 우익전대가 전투위치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자 좌익의 바바리고 전대가 터키의 우익전대인 시로코 함대를 먼저 공격했다. 시로코 함대는 연합 함대의 선제공격으로 깰리선 4척이 피격을 당했다. 그러나 연합 함대의 중무장 함선인 대형 범선들의 선체가 무거워 터키 함대 쪽으로 기동이 느렸다. 이 기회를 이용해 터키 함선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노를 저어 바바리고의 연합 함대를 포위하려고 기도했다. 시로코 전대가 자신을 포위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간파한 바바리고는 오히려 예하 깰리선을 대동하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다. 비록 기동성이 느렸지만 바바리고 함대는 전투진형을 유지한 채 약 1시간 격렬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바바리고의 공격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터키 함선들은 육지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시로코는 난전에 가담하지 않았던 38척의 갤리선과 함께 바바리고의 기함을 나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두 번 다 격퇴당하고 말았다. 제3차 공격 때 바바리고는 터키 병사가 쏜 화살에 눈을 맞아 함상에서 쓰러졌다. 바바리고의 조카가 함대를 지휘했으나 그마저 터키군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되었다. 지휘관의 치명상으로 기함의 병사들이 구심점을 잃었으나, 다른 베네치아의 동료 갤리선들이 전력을 기울여 터키의 시로코 함대를 해안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 와중에서 시로코도 중상을 입었다. 지휘관을 잃은 시로코 전대는 지리멸렬하여 모두 격침되었다.<sup>114)</sup>

양국 중앙전대의 해전은 우익전대들의 전투보다 30분 늦게 시작되었다. 알리 파샤가 원거리에서 돈 존의 기함을 향해 포격을 개시하면서 먼저 공격을 하였다. 돈 존도 즉시 응전하여 터키의 기함을 향해 선수포를 발사하였다. 이때 대치하고 있던 각 전대는 서로를 향해 접근하였다. 이제 돛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터키 함선들이 빠르게 노를 저어 접근하였는데, 터키 함선들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우도’의 거대하고 강력한 갈레아스 선(船)을 보고 진형을 변경하여 갈레아스 선과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키 함선은 갈레아스 선으로부터 가공할 포격을 받아 고전했지만, 곧 기도 교도 측 함선들과 충돌하였다. 알리 파샤도 용감하게 돈 존이 타고 있는 기함 레알(Reale) 호로 접근하였으며, 알리 파샤가 타고 있는 터키 함대의 기함이 레알 호의 현 측에 충각을 가한 뒤 접근하였다.

이제 전술적 기동이 소용없게 되었으며, 해상전투는 지상전투를 방불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전투는 갤리선 현 측 판자(舷緣板, gunwale)에 뚫어 놓은 총구멍과 선수발사대 그리고 통로를 따라 발사되는 화살, 회승총, 칼 등의 무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전투방식은 고대 노선 시대와 중세 범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114) 김주식, 『세계사와 해양활동의 관계』, 해사박물관, 1992, p.234

안 전형화된 전투방식으로 직진, 충격, 돌격의 패턴으로 이어진 다음 백병전으로 승리를 가름하는 전투방식이었다.

알리 파샤의 기함인 돈 존의 기함과 접전하기 시작하자, 기독교 함대와 터키 함대의 여러 깰리선이 그들의 主將을 응원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였다. 연합 함대의 기함 레알 호가 알리 함에게 나포되려는 찰라 옆에서 전투 중이던 콜로나의 함선이 알리의 함선 쪽으로 선수를 돌리면서 소충을 난사하였다. 한편, 베니에로(Sebastian Venierro)의 함선도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며 설상가상으로 70세의 고령인 베니에로도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지만 다행히 동료 함선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연합 함대는 이처럼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자 진형을 정비하여 터키의 지휘함인 알리의 함선을 집중 공격하여 나포하였다. 그 결과 알리 파샤가 총에 맞아 전사하고 지휘관을 잃은 터키의 중앙전대는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많은 피해를 입고 도주하였다.<sup>115)</sup>

우익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이 기독교 함대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외해 쪽의 우익 전투는 연합 함대의 도리아 전대와 터키 측의 울루치 알리 전대 간의 해전이었다. 우익인 도리아 전대는 이상한 기동<sup>116)</sup>을 전개한 결과로 연합 함대의 좌익전대와 중앙전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터키의 울루치 알리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 도리아 전대의 주력인 몰타 기사단의 함선과 10여 척의 베네치아 깰리선을 향해 돌진하였다. 몰타 기사단의 기함은 울루치의 깰리선 7척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아 3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전사했다. 또 기독교 중앙전대를 협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후위의 예비대를 이끌고 있던 산타크루즈가 개입하여 중앙전대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산타크루즈 예비함대의 함세와 돈 존의 지원이 시작되자 수세에

---

115)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1998, p.58

116) 도리아는 알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큰 반원을 그리면서 우회하였다 함.



몰린 울루치 알리 전대는 노획한 몰타 기사단의 기함 함재기를 갖고 프레베자로 후퇴하였다. 우익전대의 전투에서 기독교 측은 1천명의 인원과 12척의 갤리선을 잃었으나, 25척의 터키 갤리선에게 심한 손상을 주고 이들을 나포하였다.<sup>117)</sup>

저녁까지 계속된 레판토 해전은 기독교 함대의 완승으로 끝났다. 레판토 해전에서 연합 함대의 피해는 총병력 8만 4천 명 중 용맹한 지휘관인 바바리고를 포함하여 7,656명이 전사하고 7,784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12척의 갤리선을 잃고 1척의 갤리선이 터키에 나포되었다. 한편 터키군의 피해는 병력 8만 8천 명 중 울루치 알리를 제외하고 알리 파샤를 비롯한 모든 터키 지휘관들이 병사와 선원 약 3만여 명과 함께 전사 또는 익사했으며, 포로가 된 병사도 8천 명이나 되었다. 또한 터키 함선에서 노군으로 근무하던 1만 5천의 그리스도교 노예들은 해방되었다. 알리 파샤의 갤리선 229척 가운데 8척이 소실 또는 침몰하였고 117척이 나포되었다. 또 60척의 소형 함선 가운데 27척이 침몰하였고 13척이 나포되었다. 레판토 해전은 그리스도교가 연합 함대의 승리로 끝났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황의 일관된 열의다. 본래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대부분 해양국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단결하면 질적 양적으로 터키 함대보다 우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국가들 간에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베네치아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베네치아가 중심이 된 연합 함대의 일원적 지

---

117) Romilly Jenkins, *Byzantium: The Imperial Centuries, A.D. 610~1071*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7), p.421

회가 어려웠다. 이 어려움을 교황의 열의와 설득으로 극복하였다. 교황이 사망한 후 터키의 셀림 2세가 150척의 갤리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건설했을 때,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1573년 터키 함대에 대항할 연합 함대를 구성하려 했지만 베네치아가 비밀리에 터키와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연합 함대 구성이 결성되지 못한 사실을 상기하면 교황의 열의와 노력은 연합 함대 승리의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합 함대 총사령관인 돈 존의 지휘능력이다. 레판토 해전에서 연합 함대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6척의 갈레아스 선은 원래 베네치아 함대의 소유였다. 돈 존은 갈레아스 선을 각 전대의 3, 4마일 앞에 각각 2척씩 배치하고 각국의 갤리선을 섞어 전투편성을 했다. 그것은 반목하기 쉬운 각국 병사들을 전대별로 혼합하여 전투편성을 함으로써 출신국 별(別)이 아닌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단합과 협조를 발휘하게 했다.

셋째, 예비전대를 적절히 활용했다. 원래 예비전대는 필요에 따라 3개 전대를 증원할 목적으로 편성했다. 예비전대를 지휘하고 있던 산타크루즈는 도리아의 우익전대가 우측으로 이동하자 중앙전대와 우측전대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 이때 산타크루즈는 휘하 예비전대를 기동시켜 중앙전대의 우익을 보강시켰다. 이 기동은 중앙전대의 함대 세력 우세를 유지하게 되어 돈 존의 중앙전대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우익의 도리아 전대를 지원하여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터키 함대의 패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합 함대의 갈레아스 선의 포격에 압당함으로써 전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혼란에 빠져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둘째, 지휘관이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터키 함대는 지휘관이 전사하자 함대가 혼란에 빠졌다. 전투 중 지휘관 부재 시 부 지휘관제가 사전에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다. 셋째, 울루지 알리가 연합 함대의 도리

아 함 행동에 속아 중앙전대와 거리가 너무 멀리 벌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중앙전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할 수 없었다.

레판토 해전은 전투의 주체가 갈리선이었고, 적 진형에 대한 갈리선의 충격전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고대 살라미스 해전이나 에크노무스 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전의 내용을 보면 첫째 함포가 실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둘째, 함포 사용 전에 갈레아스 선이 출현했으며, 셋째, 양측 함대의 최고 지휘관은 물론 차 하급 지휘관들도 모두 전술적 안목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넷째, 양 함대의 병력과 참전 함선들이 대규모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미 범선이 대형화하고 함포가 발달하여 범선의 중요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해전사적 측면에서 중세 해전에서 근대 해전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에 있던 해전이 바로 레판토 해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판토 해전은 터키 세력의 지중해 진출을 좌절시켰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해전 이후 곧 기독교 연맹이 와해됨으로써 제해권을 확장하거나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으로는 전략적 효과를 갖지 못했다.

오히려 터키는 그들 제국의 팽창기 절정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동부 지중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집산 창고와 무역기지들 그리고 달마티아와 알바니아 연안의 교역국들 및 그리스 연안들에 이르기까지 베네치아의 통상 안보를 위협했다. 베네치아는 그들의 통상 안보를 위해 레판토 해전 이후에도 터키와 세 차례(1645~1669, 1684~1699, 그리고 1714~1718)에 걸쳐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렀다. 베네치아가 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베네치아 세력의 약화를 희망했던 국가 중에서 (특히 밀라노, 나폴리, 플로렌스 등) 전략적인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기독교 동맹국들을 터키가 확보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는 1,669년에 터키에게 크레테(Crete)를 잃게 됨에 따라, 아드리아 해 세력으로 위축되었으며, 18세기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의 예속관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1797년 나폴레옹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베네치아는 동부 지중해의 해상안보를 굳건히 지켰으며, 오토만 터키 제국의 지중해 해상 진출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토만 터키 제국도 17세기가 되면서 유럽의 발흥, 제국 내 궁정의 내분과 정치 혼란 등으로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 제3장

### 중세 범선帆船 시대



## 1. ‘대항해 시대’와 신항로 개척

### 시대 상황

15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서유럽 국가들은 페르시아, 인도, 중국과 같은 세계의 다른 위대한 문명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서유럽 국가들이 접촉한 유일한 비기독교 문명은 이슬람 문명이었으며, 향료, 비단 등의 동방물품을 획득하는 것도 이슬람 상인이나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상인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강력한 오토만 터키 제국의 대두로 그때까지 이용하던 교역로도 어려워지게 되자, 이탈리아 상인들은 대서양 연안 여러 지역과의 교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했다.

신항로의 개척과 이 과정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서유럽 국가들은 그 후 채 150년이 지나기 전에 그들이 발견한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동양의 여러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등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근대 400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군사적 우월권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세계사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서유럽 세력의 확대는 신항로의 개척과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서양 신항로의 개척과 이 과정에서 신대륙의 발견은 새로운 동양항로를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이룩한 것인데, 이는 서유럽인들의 진취적이며 탐구적인 개척정신이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지리상의 발견을 가져온 현실적인 동기는 동양의 산물을 이슬람 상인이나 이탈리아 상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획득하려는 경제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리상의 발견이 이룩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항해술의 발전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 시대에 대형이고 견고하며 내해성이 강한 선박이 건조됨으로써 대양항해가 가능해졌으며, 선박의 추진력도 노(櫓)에서 돛(帆)으로 바뀐에 따라 장기간의 항해가 가능해

졌다.

이와 함께 나침반과 해도의 이용 등 항해술의 발전이 대양항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대포를 장비한 선박은 적대 세력이나 당시에 발호하던 해적을 격퇴하고 교역항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대서양 신항로를 개척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은 소국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일어났다. 특히, ‘항해 왕자’로 잘 알려진 포르투갈의 엔리케(Henry) 왕자는 모로코의 이슬람교도와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아프리카 내륙부에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기독교국인 ‘성 요하네의 나라’(프레스터 존의 나라)와 제휴하기 위해, 그리고 아프리카 서부 수단(Sudan)과 황금을 거래하기 위해 아프리카 서안 탐험을 추진했다. 그는 항해사 양성학교와 조선소 등을 만들고 이탈리아인 등 우수한 뱃사람을 초빙하여 항해기술을 열심히 도입했다.

이제 소위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sup>118)</sup> 용감한 뱃사람들의 탐험으로 아프리카 서안을 따라 신항로가 개척되었다. 1488년 바르톨뮤 디아즈(Bartolomeu Diaz)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에 도달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바스코 다가마의 함대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이르렀다. 왕복에 2년이 넘게 걸렸고 약 170명의 승무원 중 살아서 돌아온 자는 불과 60여 명뿐인 어려운 항해였으나 함대가 가져온 인도산 후추는 항해 비용의 60배를 포르투갈 왕실에 가져다주었다. 육식의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후추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도와의 무역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었다. 바스코 다가마와 포르투갈인들은 그 후에도 계속 인도항로를 항해하며 인도양에서 아랍 상인들을 물

---

118) ‘대항해 시대’란 13세기 이후의 항해기술의 발달과 지중해와 대서양 상거래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이 행해진 시대를 말한다. 대항해 시대의 주역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이었다.



리쳤으며, 중국의 마카오(Macao)에 거점을 확보하고 동아프리카에서 일본에 이르는 동방무역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제노아 출신의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는 피렌체의 의사 토스카넬리가 주장한 지구 구체설(地球 球體說)을 믿고 서쪽으로 돌아가면 동쪽으로 돌아가는 것의 반 정도의 지점에서 아시아에 다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마르코 폴로가 전한 ‘황금의 섬’ 지팡구의 막대한 부를 독점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항해가가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위기감을 느끼고 1492년 스페인 왕을 찾아가 지원을 부탁했다.

간신히 스페인의 이사벨(Isabel I)<sup>119)</sup> 여왕의 후원을 얻어낸 콜럼버스는 산타 마리아호를 기함으로 한 3척의 함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출항하였다. 70여 일의 혹독한 항해 끝에 카리브 해 근처에 있는 바하마 제도의 다하나하니 섬에 이르러 그 섬을 ‘산살바도르’<sup>120)</sup>라 명명했다. 그 후 콜럼버스는 현재 아이티라는 국가가 있는 히스파니올라 섬을 지팡구라고 단정했다. 그곳이 신대륙이라는 사실은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었고, 신대륙은 그의 이름에 따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불리게 되었다.<sup>121)</sup>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인들의 모험심과 정복욕을 불려일으켰다. 먼저 스페인이 신대륙의 아즈텍(Aztec)과 잉카(Inca) 제국을 멸망시키고 많은 금은보화(金銀寶貨)를 탈취하였으며, 중남미 일대에 광활한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같은 무렵에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탐험활동과

---

119) 카스티야의 여왕(재위 1474~1504).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와 결혼하여 공동 통치하여 에스파냐를 통일하였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원조한 일로 유명하다.

120) 성스러운 구제자

121) R. B. Wernham, : “Elizabethan War Aimes and Strategy.” in S. T. Bindoff, J. Hurstfield, and C. H. Williams, eds, (London: Athlone Press, 1961), p.88

식민지 개척에 가담하였다.

또 신항로의 개척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서유럽 상공업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세계무역의 무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이동하게 되고 유럽 경제의 중심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로부터 대서양 연안의 민족국가로 옮기게 되었다. 대서양 국가들에 의하여 개척된 넓은 해외시장은 값싼 원료의 공급지가 되었고, 동시에 생산품의 판매시장이 되었다. 각국은 해상무역을 통하여 부를 획득하고 동시에 국내공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보호주의정책을 취했으며, 값싼 원료를 획득하고 생산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식민지의 개척에 열을 올렸다.

해상무역이 성행하고 신대륙으로부터 금은보화가 반입됨에 따라 사략선(私掠船, Privateer)과 해적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약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선대를 조직하여 상선을 집단으로 운항하였다. 이러한 상선대는 후일에 해운건설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해상무역의 발달로 유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영향이 나타났다. 첫째, 해양지배 사상이 발생하였다. 각국은 해상약탈로부터 선박과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해양지배 없이는 국가이익의 보장이 불가하다는 사상을 갖게 되었다. 둘째, 해외기지의 획득과 보호에 관한 문제였다. 대양항해라는 장거리 항해를 위해서는 중간에 기착지가 필요하였고, 동시에 획득된 기지는 방호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수비대의 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셋째, 해외 식민지 개척 경쟁이 야기되었다. 해외 식민지는 원자재의 획득과 상품의 판로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지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양력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중세 범선 시대의 해양력과 해전양상

영국과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던 1560년대부터 영국·프랑스(英·佛) 간의 기나긴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1815년까지 약 250년 동안에 걸쳐 해양력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전환되었다.

신항로의 개척과 신대륙의 발견, 식민지 개척의, 중세 범선 시대의 해양력은 연안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진실로 대양에서 활동하는 것이 되었고, 지중해의 해상무역권의 확보와 대서양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해군’이라는 공적이면서 전문적이고 영속적인 국가조직이 창설되어,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도구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 해군과 해운업에 있어서 함정 승조원들의 보다 투철한 직업정신과 표준화된 설계에 의하여 상선과 군함이 뚜렷이 구분되었고, 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훈련과 교육은 해군력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전략적 효과가 발휘되도록 계속 축적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1560년대부터 1810년대에 이르는 약 200년의 해양사는 영국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해양력(sea power)을 제압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세계의 바다를 제패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600년대 초기까지 강대한 스페인과 프랑스에 비해 보잘것없는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던 영국이, 이들과 기나긴 투쟁을 거쳐,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륙의 해안강국을 차례로 쇠퇴시키고 결국 패배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해양력의 효능과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즉 그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해군이라는 조직을 정비하여, 이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전략적 도구와 수단으로 부상시킴으로써 해양력을 전략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기간 유럽에서는 대륙국가와 대륙국가간의 연합에 대항하여 해양 세력이 중심이 된 국가연합이 싸우는 지정학적 형태의 분쟁

이 지속되었다. 16세기 말에 있었던 유럽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된 국가 간의 투쟁은 합스부르크 가의 스페인 제국과 작은 섬나라였던 영국 사이의 투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스페인과 프랑스 간의 투쟁이었다.<sup>122)</sup> 프랑스와 스페인의 싸움에서 영국의 가장 큰 관심은 그 어느 측도 대륙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영국은 유럽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나긴 무력투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위력적인 무기로 해양력을 이용했다. 웬햄(R. B. Wernham)은 이 점에 대해서 “영국은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잘 살아왔고 또 살 수 있지만 오직 하나 만 있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sup>123)</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16세기 전 기간을 통해 영국의 세력 균형정책은 프랑스로부터 예상되거나 실제적인 위협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헨리 8세 재임 기간(1509~1547)중 영국의 주적은 스페인이 아니라 프랑스였다. 메리 튜더(헨리 8세 딸, 1553~1581)가 스페인의 필립 2세에게 시집감으로써 합스부르크 가와 영국이 깊은 관계를 맺게 되자, 영국과 스페인은 종교 및 상업적인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리 전략적으로 프랑스에 대항하는 자연스런 동맹국이 되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1558~1603) 시대에 들어와서 프랑스가 40년 동안 국내의 종교 전쟁으로 대륙의 지배를 도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자체 분열되었다. 프랑스 내분이 너무 심각하여, 영국이 프랑스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은 친(親) 스페인(합스부르크) 가톨릭 세력의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를 막

122) M. S. Anderson, “*Eighteenth-Century Theories of the Balance of Power.*” in Ragnhild Hstton and M. S. Anderson, eds, *Studies in Diplomatic History; Essays in Memory of David Bayne Horn*(London: Longman, 1970). p.196

123) R. B. Wernham : “*Elizabethan War Aimes and Strategy.*” in S. T. Bindoff, J. Hurstfield, and C. H. Williams, eds, (London: Athlone Press, 1961), p.345

아 영국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될 정도였다.

결국 영국의 해양력이 스페인의 막강한 합스부르크 제국을 좌절시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이유는 영국의 세력 균형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영국은 영국식 전쟁방식으로 스페인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와 합세하여 그 당시 가장 막강했던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제국의 무적함대를 칼레 해전(1588)에서 무찌르고 난 후, 동맹국이었던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며, 그 후 안정을 되찾은 프랑스와 대서양의 해상제패를 두고 120여 년 동안에 걸쳐 기나긴 투쟁에 들어갔다.

이 기나긴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성적인 전쟁상태 중에 영국 해군은 프랑스 해군을 압도하였다. 물론 국지적인 해전에서 패한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대국적인 승리는 항상 영국 것이었다. 약 120년간의 이 같은 전쟁에서 프랑스는 개척했던 식민지의 태반을 상실하였다. 1800년대에 이르러서 영국 해군은 프랑스 해군과 스페인 연합 함대를 트라팔가르 해전(1805)에서 결정적으로 패퇴시켰고, 그 이후 프랑스 해군은 더욱 약화되어 전투를 피해 움츠리면서 세계 각지에서 영국 해군에게 봉쇄당했다. 세계의 바다는 온통 영국 것으로 되어갔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완전히 패배한 나폴레옹은 영국 침략을 포기하였고, 결국 워털루 지상전투에서 영국, 러시아 등 반 나폴레옹 연합 세력에게 패배하게 된다. 유럽을 완전 통일하고 대서양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바다를 제패하려는 나폴레옹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승리한 영국은 대서양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 영국이 기나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해양력 유지정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전투용 전용 군함의 건조

16세기에 들어와서 완전 범선인 대형 전투함선인 갈레온(galleon) 선을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고대 노선 시대 깰리선의 전투방식인 직진, 충격, 돌격이라는 패턴의 전투방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적에 접근한 경우에, 조금이라도 행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갈레온 선 현 측에 많은 노와 노수를 배치하는 갈레아스형의 전투선박도 생겨났다. 영국 해군을 창설한 헨리 8세(재위 1509~1547) 시절에 영국과 프랑스 간의 해전에서는 이 갈레아스 선이 유효하게 활용되었다. 그 후 상선으로 사용한 코그(cog) 선을 전투용으로 전용하여, 선수(이물)와 선미(고물)에 전투용 다락(樓)과 포를 장비하여 전투함선으로 사용했다. 이 코그 전투함선은 영국과 프랑스의 해전에서 백수십 년에 걸쳐 주역으로 사용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상선용 캐러벨(caravel)과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가마가 신대륙 및 신향로 개척에 사용한 캐라크(carack) 선을 상선과 전투용 겸용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그러나 명백하게 완전 군함으로만 만들어진 전투용 선박은 세계 최초로 해군을 창설한 영국 왕 헨리 8세에 의해 만들어졌다. 1514년 헨리 8세는 '앙리 그라세 디우(Henry Grace a Dieu)'라는 전투용 함선을 만들게 했다. 이 선박은 대형 3층 선루 중 2층을 포 갑판(砲甲板)으로 하고, 톤수가 1,000톤에 달했으며, 네 개의 돛대를 지닌 캐라크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명백히 군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즉 이 선박이 상선으로부터 군함이 분화된 최초의 선박이다.<sup>124)</sup>

군함의 전후부에 설치된 높은 선루는 차츰 변형되어 선체의 구조물 속으로 통합되었으며,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수루가 조금씩 작아져서 큰 규모의 선미루만 남게 만든 전열함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18세

---

124) Potter, E. B. (ed); *Sea Power-A Naval History* Prentice-Hall(U.S.A.), 1960. pp.71~74

기에 들어서면서 아주 높은 선미루도 없어진 전열함이 등장했다. 1765년에 진수한 넬슨의 기함으로 활약한 빅토리아 호는 3층 포 갑판을 지닌 전열함(포 100문)으로, 배수 톤수 약 3,500톤, 포 갑판의 길이 56.7미터, 최대 폭 15.8미터, 흘수 깊이 6.6미터로 범주(帆柱) 군함으로는 목재로 된 완전 범주(帆柱)의 최대급의 군함이었다.

선박으로서 군함의 탄생은 당연히 이를 운용할 조직이나 승조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존재 양식도 달라지면서, 국가조직의 중요한 도구로서 정규 해군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해군은 물론 국가의 한 도구였지만 제독들이나 사람, 계약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였다.

18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영국 해군은 바로 1세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중세 범선 시대에 영국 해군의 중요한 문제는, 나무벌레가 선체를 갉아 먹음으로서 배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먹지 못해 괴혈병으로 많은 선원들이 선상에서 죽어 가는 것과, 그리고 견고하게 건조된 적함에 대해서 매우 제한된 파괴력을 갖춘 함포 등이었다. 만약 나무벌레가 선체를 갉아 먹고 괴혈병으로 선원이 죽어 가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전략이라도 급속도로 무의미하거나 더 나쁜 상태가 되는 것은 분명하였다.

영국은 1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1700~1799) 중세 범선 시대의 기초적인 과학·기술적 불변성에도 불구하고 대영 제국 해군이라는 연중 지속적으로 운용 가능한 범세계적 군사도구를 획득하였다. 그중 3가지 분야에서의 혁신이 눈에 띄는데, 1778년까지 모든 해군 함정을 구리로 외장한 점, 레몬주스를 보급하여 1790년대 중반까지 괴혈병을 일소시킨 일, 그리고 산업 혁명에 있어서 금속 공학적인 진보로 말미암아 1779년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캐론 아이언 워크스(Carron Iron Works) 사에서 만든 캐리네이드(Carronade) 포를 해군함정에서 사용한 것이다.<sup>125)</sup>

## 대포의 등장과 해전술의 발달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 시대에 이르러 캐논(cannon), 컬버린(culverin) 포 등 보다 큰 위력을 지닌 대포가 많이 등장하였다. 이들 포는 청동이나 황동을 소재로 한 주조포(鑄造砲, cast gun)로 포구로 화약과 탄약을 장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주조포는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조립포(組立砲)에 비하여 보다 큰 탄환을 보다 멀리까지 날아가게 하는 성능을 가졌으며, 발사횟수도 많았고 수명도 길었다. 이 중에서 선박 탑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포는 컬버린 포로,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맞아 싸운 영국 함대의 탑재포의 95%가 컬버린 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6)</sup>

그 후 1759년에 발명되고 1778년 스코틀랜드의 캐런사에서 제작된 캐러네이드 포가 등장했는데 이포는 사정거리는 짧았지만, 근접전에서 적함의 선체에 큰 파괴력을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포였기에 이를 선수 갑판과 선미 갑판에 탑재하는 함정이 많아졌다.<sup>127)</sup> 캐러네이드 포의 등장은 범선 군함의 전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 주조포는 그 후 250년간 크게 개량되지 않은 채 함포로 사용되어, 19세기 초까지 해군 병기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대포의 등장으로 다량의 함포를 선상에 설치하면서, 영국은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갤리선의 전투방식과 전술로부터, 새로운 범선의 전투방식이 나오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전투방식을 처음 자기 것으로 한 사람은 드레이크(Sir Francis Drake)<sup>128)</sup>나 호킨스(Sir Richard Hawkins) 등으로 대표되는 영국 사략선(私掠船)의 선장이었다.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를 요격함에 있어서 영국 함대가 채택하였

125) Brian Lavery, 1650~1850(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83), pp.116~117

126) Lewis, M. : *The Navy of Britain-A Historical Portrait*; George Allen & Unwin(U.K.), 1963, p.426

127) Hogg, I & Batchelor, J. *Naval Gun*; Blandford Press(U.K.), 1978, pp.20~21

128) 1543?~1596



던 전투양식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다. 영국 측에서는 모든 함대에 게 적함에 충각, 현 측에 계류(繫留)하여 돌격전을 감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적함에 대한 접근은 대포의 유효 사거리 안에 들도록 하는 데에만 그치게 하고, 승패는 어디까지나 대포의 사격전으로 결정짓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항상 바람을 등지는 쪽에 위치를 잡도록 노력하여, 자선(子船)<sup>129)</sup>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려 하였다. 또한 적 함대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사령관이 승선하고 있는 함을 선두로 한 느슨한 일렬종대(一列縱隊)를 만들어서 모든 함대가 조금씩, 가능한 한 선두함과 후미함 사이에 시간차가 너무 나지 않도록, 적을 향하여 현 측을 보이면서 진격해 나가도록 했다.<sup>130)</sup>

이 전투방법은 대포의 사정거리에서 약간 앞서 있던 영국 측의 유리한 점을 최대한 살린 것으로서, 영국 함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

범선 군함이 대포를 주 무기로 하여 함대를 편성하고 전투하는 전법이 확립된 것은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에서부터였다. 17세기 영국 해군은 당시 공해에서의 제해권을 영국에게 양보할 수 없는 네덜란드와 함대결전을 수행하면서 적절한 전술 전투체계를 채택하였다. 네덜란드는 당시 해상교역으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패배하든지 아니면 중무장된 세력이 호송하여 해상교역상 통항의 자유를 위해 싸우든지 하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국과 네덜란드 해전에서 양국 함대는 한 사람의 사령관이 의도하는 대로 함대를 움직이고, 포격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투진형을 종렬진(縱列陣)으로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법임을

---

129) 모선(母船)에 딸린 배

130) Lewis, M. : *The Navy of Britain-A Historical Portrait*; George Allen & Unwin(U.K.),1963, p.441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였다.

제1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중이었던 1653년 3월에 조지 몽크(George Monk) 장군에 의해 발간 공포된 ‘전투지침(Fighting Instruction)’은 지난 75년 동안의 경험을 반영하였는데<sup>131)</sup> 이는 해전에서 영국의 전술형태인 원격 포병전(遠隔 砲兵戰)과 1652년과 1653년의 무질서하고 군기가 헤이해진 혼란에 대하여 블레이크(Robert Blake), 딘(Richard Deane) 장군과 그 장병들의 대응방안 및 그들의 최초 해상전투경험을 반영한 것이었다.<sup>132)</sup> 이 전투지침의 요점은 전투에서 운용할 종렬진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지침은 다음 세기에도 제독들마다 또 전투마다 세부 내용만 조금씩 변했을 따름이었다.

종렬진의 유지는 전투 중의 포연 및 혼란 속에서도 지휘 중인 제독이 함대에 대하여 실질적인 전술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이 종렬진은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포격으로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려면 단위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탄환을 퍼부어대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포를 적함으로 향하게 해야 했는바, 현 측을 적함으로 향하게 하고 전투해야 했다. 그러므로 하나의 함대가 한 사람의 사령관이 의도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횡렬진보다는 종렬진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차츰 다른 사령관들도 이 전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673년에 영국의 제독 요크 공(York 公)에 의하여 표준화되고 정형화되었으며, 1691년 루크 경에 의하여 재개정되어 완전히 정형화되었다. 영국 해군은 각 함장에게 이 전투지침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는 항구적(permanent) 전투교리로 정했고, 이후 약 90년에 걸쳐 영국 함

---

131) Julian S. Corbett. *Fighting Instruction. 1530~1816*(London: Navy Records Society, 1905). pp.99~104 “Commonwealth Order, 1653”

132) Julian S. Corbett. *England in the Mediterranean: A Study of the Rise and Influence of British Power within the Straits, 1603~1713*. 2d. ed.(London: Longmans. Green. 1917; first pub. 1903), 2; pp.569~580

대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교범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투법이라도,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서 형식화되어 버리면 이전보다 폐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전투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므로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아군의 행동도 바뀔 수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전투교리를 너무 고지식하게 지켜서,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종진만 고집하는 경우, 전투기회를 상실할 염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적 함대의 일부가 대 손해를 입고 열 밖으로 빠지는 경우에도 이를 추적하면 안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종렬진의 열에 그대로 머물면서 적 함대의 앞뒤를 공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함이 아무리 심한 손상을 받아도 단호하게 종렬진에 남아서 계속 공격을 하도록 했다. 즉, 종렬진을 짜고 있는 함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투진형의 열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사령관의 명령대로 행동해야 하며, 자기가 임의대로 열을 이탈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사실 단종렬진을 형성한 3개의 함대가 지근거리(至近距離)에서 몇 시간 이상 서로 상대하여 포격전을 벌인다는 것은, 양군의 함장이나, 사령관의 처지에서 보면 서로 간의 인내력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명중률이 낮고, 위력이 작은 당시의 대포였지만, 쏘면 반드시 맞을 만한 지근거리에서 장시간 포격을 계속할 경우 함상은 글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한다. 상부 갑판은 말할 것도 없고 포탑과 포 갑판에서 조차 승무원의 사상자는 막대해진다. 이 점에서는 사령관이나 함장이 처하는 위험도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국 해군은 각 함장에게 전투교리를 끝까지 엄수하도록 함으로써, 최후까지 전투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 개시될 때까지 이 영원한 전술지침은 실전에 임하고 있는 지휘관의 집약된 지혜나 경험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예를 들어 종렬진을 형성하여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상대 함대도 단 종렬진으로 승부를 걸어 올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반대로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다양하게 공격해 오는 경우에는 단종렬진이라는 한 가지 패턴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 당시와 같은 신호기 방식의 명령전달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함대에 사령관의 의도를 알리는 데에 시간이 걸려서 승기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전투교리의 대원칙은, 종렬진으로 전투를 전개한다는 것과 전투에 일단 돌입되고 나면 절대로 이 전열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한마디로 종렬진은 법에 의해 제시된 아주 지울 수 없는, 그야말로 신성불가침한 선이 되어버린 것이다.<sup>133)</sup>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령관이 너무 전투교리에만 매달리다가 적 함대를 격멸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사령관이 상황에 변화에 따라서는 전투교리를 일부 무시하고 독자적인 전법을 구사하였는데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지휘관이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중인 1744년 툴롱 해전에서 영국 함대를 지휘하였던 매튜스(Thomas Mathews) 제독이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가 직접 이끄는 중앙전대만으로 도주하는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를 공격하여 2척을 격파 내지는 포획했으나, 다른 대부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때 후위전대를 이끈 레스톡(Richard Lestock) 중장이 바로 참전하지 않은 것이 매튜스가 승리를 놓친 최대 원인이었다. 매튜스, 레스톡, 그리고 그 밖의 몇몇 함장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으나 레스톡은 전투교리에 의해 행동했음을 주장하여 무죄가 되었고, 오히려 매튜스만이 사령관 직에서 해임되었다.<sup>134)</sup>

133) Michael Lewis. *The Navy of Britain: A historical Portrait*(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8). p.481

134) Michael Lewis. *The Navy of Britain: A historical Portrait*(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8), pp.496~501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각 사령관과 함장에게 전투지침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와서, 전투에서 승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전투지침만은 지켜야 한다는 전법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단종렬진과 절대적인 전투지침의 결점은 다음 아니라 1692년 바플뢰어(Battle of Barfleur) 해전에서 1782년 생트 군도(Saintes 群島) 해전까지 90년 동안 이 신성한 진형을 철저히 유지한 영국 해군이 어떠한 적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승리를 단 한 번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이다.<sup>135)</sup>

이러한 형식적인 전투지침은 벨슨 시대에 와서야 과기되었다. 벨슨 제독은 융통성이 없는 편협 된 형식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전투전술을 과감히 적용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다.

#### 신호 시스템의 개선과 새로운 전법

영국 해군이 전투교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또 프랑스 해군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해군들이 단종렬진에 의한 전투진형을 강하게 고집했던 이유는, 모든 함대가 한 사람의 사령관의 의사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면서 전투토록 하여 각 함장이 제멋대로 독자적인 전법을 구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종렬진만을 너무 고집하다보니 적 함대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경직화된 단종렬진의 전법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전술신호의 개량이었다.

그 당시 사령관의 전투지휘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신호에 있었다. 당시의 명령은 오로지 신호기의 게양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1653년 몇 개의 서로 다른 신호기를 결합시키거나 게양할 듯대

---

135) Michael Lewis. *The Navy of Britain: A historical Portrait*(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8 참조.

나 그 위치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의미를 달리하는 방식의 신호방식이 늘어났다.

그러나 전투교리가 조금씩 개정 보완되면서 신호기의 종류도 늘어났고, 그 방법도 복잡해지게 되었으므로 사령관이 의도하는 바를 휘하의 각함에 자유롭게 전달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17세기 말 32개의 신호문이었던 것이 1780년에는 57개의 서로 다른 신호로 늘어났다.<sup>136)</sup> 1782년에 아홉 종류의 기 3장을 결합시켜 729개의 신호문을 고안하였으나 이 정도로는 신호기에 의한 ‘자유로운 대화’는 불가능했다.<sup>137)</sup>

자유로운 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1803년 프랑스 해군의 포프햄 경(Sir Home Popham)이었다. 그는 A에서 Z까지에 대응하는 1번부터 25번까지의 신호기를 정하여 이를 결합시킴으로서 영어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것만으로는 너무 많은 기를 게양해야 했으므로 더 나아가 단어 1,000개를 선정하여 이를 3종류의 기를 결합하여 표현토록 함으로써, 사령관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sup>138)</sup>

신호의 개량으로 경직화된 단종렬진의 전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방법은 기회를 포착하여 적의 함대진형의 틈으로 돌입하여 반대측으로 나아가거나 적 함대 열의 특정 부분에 아군의 포화를 집중적으로 퍼부어서 그곳을 압도하는 방법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전법을 사용하여 최초로 얻은 승리가 1782년 영국 함대가 프랑스 함대를 격파한 세인트 해전이었다.

---

136) Michael Lewis. The Navy of Britain: A historical Portrait(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8, pp.536~538

137) Michael Lewis. The Navy of Britain: A historical Portrait(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8, pp.539~540

138) Michael Lewis. The Navy of Britain: A historical Portrait(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8, pp.541~542

이 이후 적극적으로 과감한 해군 제독에 의해 통솔된 영국 함대는 이 전법을 채용하여 프랑스 함대로부터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다. 1787년 세인트 빈센트 곶 해전, 캠퍼타운 해전,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 등 후세에 잘 알려진 해전에서 프랑스 해군은 종전과는 달리 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모두가 개량된 신호와 그것을 이용한 새로운 전법에 의한 것이었다.

16세기 후반 이후의 중세 범선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전략이 사략선(私掠船)을 이용한 통상파괴전이었다. 소수의 전투선을 적 상선이 빈번하게 다니는 해상교통로에 배치하여 적국의 상선을 격멸하거나, 교통로를 지키고 있는 적 해군의 주력을 봉쇄하거나 격멸하는 통상파괴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생존여건을 마비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법이다. 16세기에 시작된 통상파괴전은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해양국가가 참전하게 된 어떠한 전쟁에도 항상 있었으며, 양적으로 보면 어떠한 전쟁이나 해상전투의 주축을 이루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사략(私掠, privateering)이란 정부의 공인된 면허장(Letter of Marque)을 받아 민간 자본으로 선박과 승무원을 모아서 공해상에서 적의 선박을 포획하거나 선적된 화물을 약탈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종사하는 선박을 사략선(私掠船, privateer)이라고 불렀다. 16세기 후반 이후의 중세 범선 시대에 통상파괴전의 주력은 바로 이들 사략선들이었다.

영국과 스페인 전쟁의 원인이기도 한 영국의 사략선 활약은 매우 컸다. 드레이크 등 유명한 영국의 사략선 선장은 평시에는 스페인의 해상교통로에 위치하여 스페인 상선을 약탈하여 수입의 일정 액수를 정부와 출자자에게 배당해 주었다. 또 사략선은 전쟁이 일어나면 정규 해군 못지않게 크게 활약했다. 드레이크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맞아, 영국 함대의 부사령관으로서 무적함대를 격파하였으나, 그는 결코 ‘여왕의 해군’의 정식 사관이 아니었다.

정부가 사략선에게 발행하는 면장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행된 것은 1293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화된 것은 16세기 말부터였다. 1589년 영국 정부는 사략선 수입의 10%를 국고에 귀속토록 정하였는데, 다른 유럽 제국도 이와 비슷한 사략선 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sup>139)</sup>

그러나 전시라 할지라도 면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공해에서 약탈 행위를 하는 선박은 해적(pirate)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해적선이 적의 군함에 잡히는 경우에, 승무원들은 공개된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에 비해 사략선이 잡히는 경우 승무원들은 전시의 포로로 대우받아 생명만은 보전할 수 있었다.

프랑스 해군이 약화되고 각지에서 프랑스 해군에게 봉쇄당하자, 프랑스 측 해상활동의 중심이 된 것은 프랑스의 사략선이었다. 해상에서 일자리를 잃은 프랑스 어선이나 상선의 많은 선원들이 사략선을 타고 프랑스 해군의 봉쇄를 돌파하여 대서양으로 진출하여 통상과괴전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이 적국의 통상과괴전에 대하여 각국은 선단(convoy)을 조직하고, 군함에 의하여 일정 구역부터 호송(escort)하여 대항하였다. 상선의 집단항행은 아주 옛날부터 해적에 대항하는 자위 수단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근세 이후에 사략선 등에 대항하는 대책으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17세기 중엽의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에서 해외로부터 귀항하는 네덜란드 상선은 선단을 조직하여 영국 해협을 통과하였으며, 네덜란드 함대가 중앙부까지 직접 나가서 이를 호위해 줌으로써 영국 함정의 공격으로부터 상선단을 보호하였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치러진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에서는, 파리떼 같이 귀찮게 덤벼드는 프랑스의 사략선으로부터 영국의 상선을 보호

---

139) Kemp, P. (ed) : The Oxford Companion to Ships & the Sea; Oxford Univ. Press (U.K.), 1976, p.670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단의 조직화를 권장하고, 이를 소수의 군함이 호위함으로써 피해를 극소화하였다.

이와 같이 중세 범선 시대에 들어와서 영국에서는 국왕 직속으로 해군조직이 국가 제도적으로 창립되었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범주 전용의 전투군함과 대형 함포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전투양상이 발전되었으며, 전술기동의 확립, 신호체계 발달로 해전의 양상이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다. 해전의 양상을 변화시킨 전략과 전술은 계속 발전되어 현대 해군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략선 제도를 대신하여 생긴 특설 군함 제도는 상선이나 어선을 해군 함정으로 편입시켜 전투에 종사토록 하는 제도로 오늘날에도 한국 해군은 물론 전 세계 해군이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통상과괴전과 호송 선단조직과 호송 제도는 포클랜드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중세 범선 시대 가장 중요한 점은 영국이 해양력을 부흥하고 가장 먼저 국가적 도구로 정립하여 250년간에 걸쳐 강대국과의 기나긴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과 무역이 발달하여 ‘해가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 부강한 국력이 영국의 탁월한 공업력과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식민지에서 비롯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그 번영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강력한 해양력에 의하여 가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동아시아의 해양력과 해전

15세기는 범선에 의해 대양 항해 시대(大洋 航海時代)가 시작되면서, 유럽에서는 지중해,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서인도 제도 등에서 안전한 해상무역과 해외 식민지를 쟁탈을 위한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가 치열한 경쟁과 기나긴 전쟁

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같은 시기, 동양에서는 한국(조선)과 중국(명), 일본(왜국)이 치른 국제전 성격의 임진왜란이 있었다. 15~16세기 일본을 통일시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중국 대륙의 명을 원정함에 있어서 조선의 협력을 얻자는 명목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16세기 동아시아, 즉 조선, 왜 및 명 사이에 일어난 대 전란이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약 17만 명의 병력과 함선 약 700척을 나고야에 집결시켜 조선을 원정케 하였다. 그 당시 조선은 중국 명나라의 해금조치(海禁措置), 수군 천시풍조와 유교 사상 등에 의해 초기의 강력한 수군력(해군력) 및 해양 전통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삼포왜란 등 잦은 왜란이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 왜의 침략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태평에 젖은 양반들이 안일 속에서 당리와 당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결국에 수십만의 왜군이 침략하여, 임진왜란이 발생하였다. 왜군의 공격에 육지 전에서는 연전연패(連戰連敗)하여 단 20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고, 왕은 의주로 피신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상에서는 왜의 침략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던 이순신 제독(李舜臣 提督)과 그 휘하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해전에서는 연전연승하며 적의 기세를 꺾고 전세를 반전시키는 틀을 만들어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국가와 민족을 구해냈다. 이는 국가의 운명이 극히 위태할 때 국가와 민족을 구제하는 큰 공훈이 아닐 수 없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수군 강화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함선을 건조하고 병사들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이순신이 지휘하여 만든 ‘거북선’은 철갑을 씌우고 포를 설치하여 적선을 자유로이 공격할 수 있도록 건조되었는데 당

시로는 획기적인 전선이었다. 또 대형 돛과 개량된 대포를 함선에 설치하고, 신기전 등 여러 무기를 개발하여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이순신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학익진, 팔진도, 유인전 등 전술을 개발 적용하였으며, 연과 신호기를 제작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부하 장병과 혼연일치가 되어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렇듯 전비를 갖춘 이순신은 1592년 4월 중순 왜의 함대가 침략해 온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하여 연전연패하던 지상군과는 달리, 도처에서 적선을 격파하였다. 첫 해전인 옥포 해전에서 적선 26척을 격침시킨 후 이어 당포에서 20척, 당항포에서 30척, 그리고 한산도 해전에서 적선 73척 가운데 도망친 14척을 제외한 59척 모두를 격침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산도 해전은 임진왜란 해전 중 가장 뛰어난 해전이자, 조선의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4대 해전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복잡다단한 해전이다. 이순신은 이 해전에서 거북선과 대포, 그리고 학익진을 사용하여 적을 완전 격멸했다. 이순신은 나아가 적의 수군 본거지였던 부산을 공격하여 약 130척의 적선을 격침시키는 등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17개의 크고 작은 해전에서 연전연승하였다. 이순신은 이러한 눈부신 활약으로 남서해의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으로 북진하여 육군과 합세, 조기에 전쟁을 마무리하려던 왜군의 기도를 분쇄하였다. 1592년 5월 7일 첫 출전에서 7월 초 한산도 해전까지 조선의 함선이 한 척도 격침되지 않고 적선 300여 척을 격침한 사실은 세계 해전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1593년부터는 삼군 수군통제사가 되어 수군을 지휘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왜의 간계와 당쟁 모략으로 이순신은 1597년 2월 삼군 수군통제사의 직을 파면당하고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다행히 충신들의 간언으로 사형을 면하였지만 백의종군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백의종군 도중, 원군이 대신 이끌던 조선 수군이 1597년 칠천량 해전

에서 전멸 당하자, 이순신 제독은 다시 삼군 수군통제사에 임명되었으나, 당시 상황은 수군을 폐지하라는 조정의 지시가 있을 정도로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였다. 이순신 제독은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습니다.”라고 수군 폐지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조선의 해군을 재정비하고 전쟁에 대비하였다. 1597년 9월 남아 있는 전선 12척을 완전 격멸시키고, 서해로 진출하기 위하여, 133척의 대함대로 공격해 오는 왜군에 맞서 이순신 제독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必死即生 必生即死).”는 비장한 각오로 전투에 임해, 명량 해전에서 대파시키고 전세를 반전시켰다. 이로부터 조선 수군은 다시 제해권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경상도와 전라도로 몰린 왜군은 봉쇄되고 말았다. 이러한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왜군은 철수를 서둘렀다.

1598년 11월 19일 철수하는 왜선 500여 척을 완전 격파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던 이순신은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인 노량 해전에서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전투를 독려하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게 되었다. 그는 죽음에 임해서도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해전사 연구가이기도 한 영국의 빌라드(G. A. Billade) 제독은 “영국인의 입장으로서는 넬슨 제독과 견줄 만한 인물이 역사상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 있다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전투 중에 장렬히 전사한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인 이순신 제독뿐이다.”라고 하여 세계 해전사상 불멸의 영웅으로 칭송하였다.

해상전투는 승리로 끝났지만 7년간의 임진왜란의 여파로 중국의 명(明)은 망하고 여진족 청(淸)이 중국의 주인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탄생하였다. 반면 조선은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등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시기는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1588), 세계의 해양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다. 중요한 점은 해양지배를 국가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한 영국은 그의 해양력(특히 해군)으로 네덜란드, 프랑스와 피나는 전쟁을 통하여 지중해와 대서양은 물론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막강한 부국이 되었으며, 한때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에 국위를 떨쳤던 것이다.

반면, 이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도 이순신과 그리고 그의 예하에 우수한 수군이 있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해양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민족은 보다 일찍이 개화되고, 해양개척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세력의 외침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했다고 할 이 시기에 조정과 양반들은 해양력의 중요성보다는 입과 붓으로만 대의를 부르짖고 국방을 외치는 안일무사의 병폐에 젖어 들면서 결국 조선은 후기에 와서 외침과 시달림으로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1560년대부터 1815년까지 약 250년 동안에 걸쳐 중세 범선 시대에 동·서양에서는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바다의 제해권을 두고 많은 국가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투쟁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있었던 동·서양의 여러 해전 중에서, 국가의 흥망과 역사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준 해전 중 몇 개를 사례로 선정하여 이들 해전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 보기로 했다.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한국의 조선(朝鮮), 중국의 명(明), 일본의 왜(倭)나라가 국제전 성격을 두고 벌인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 4. 15~1598. 11. 17)과 서양에서 대서양과 지중해, 그리고 신대륙과 식

민지의 해상 통상권과 해양지배를 두고 투쟁했던, 영국과 스페인 전쟁(Anglo-Spanish War, 1567~1604),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Anglo-Dutch War, 1652~1674), 영국과 프랑스 전쟁(Anglo-French War, 1689~1815)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 2. 임진왜란 : 조선(朝鮮)·명(明)·왜(倭)의 국제전쟁

### 개요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왜(倭)에게 전면적 공격을 받아 전국이 초토화된 전쟁이다. 임진왜란은 불시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 전란이 발생하기 5년 전부터 왜 사신의 발언과 납치에서 풀려난 어민의 말을 통해서 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가 조정에 전해졌다. 그러나 조정은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다. 4색 당파 간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정치운영, 국가경제의 위축, 신분제의 동요, 진관체제의 붕괴, 보법의 모순 등 총체적 사회모순은 예상되는 전쟁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 전쟁 대비체제를 갖추지 못한 조선은 명나라와 맺어온 사대관계를 이용하여 왜가 침략하면 명이 군사를 보내 왜를 물리쳐 줄 것으로 믿었다. 또한 군사력이 부족한 조정은 “왜는 섬나라 이므로 수전에는 강하지만 육전에는 약하다. 반면 조선은 육지의 나라 이므로 육전은 강하고 수전은 약하다.”라는 관념적 판단에 따라 수전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왜군을 방어하는 수세 전략을 하달했다.

그 결과 바다에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왜군은 초전에 부산 지역을 점령한 후 경부 축선 세 길로 나누어 북상했다. 조선의 지상군은 변변한 저항 한 번 못한 채 서울을 점령당하고, 국왕인 선조는 의주로 피신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순신이 주축이 된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하고, 각처에서 의병들이 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자 왜군의 북진

은 평양에서 멈추게 되었다.

조선이 고대하던 명군이 조선에 출병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 발발 8개월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명군은 조선의 기대와 달리 군사력으로 왜군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고 강화회담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려 했다. 명군의 참전이 늦고, 명나라가 결전(決戰)보다 강화회담을 선호하게 된 것은 조선이 왜의 침략정보를 신속하게 명나라에 알리지 않아 명나라의 신의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나라가 추진한 왜와의 강화회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은 명나라의 사대상국(事大上國) 입장과 왜의 대명 대등관계(對明 對等關係) 입장이 합일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된 것이다. 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은 다시 침략했다. 왜군이 전라도를 공략한 후 서울을 향해 진격하려 하자 명나라는 강화회담 재개를 포기하고 북상하는 왜군을 군사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왜군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명나라 내륙이 전쟁에 휩싸이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명 연합군이 왜군에 대한 총반격을 가할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실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은밀하게 왜군 철수를 지시했다. 조·명 연합 함대의 봉쇄권 밖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군이나 시마즈 요시히로군은 철수가 용이했지만 순천 왜교성(城)에 주둔한 고니시 유키나가군은 조·명 연합군의 해상봉쇄로 철수가 어려웠다. 퇴로를 차단당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나라 수군장 진린(陳隣)을 매수하여 소우 요시토모와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구원을 청했다. 이를 간파한 이순신은 왜의 지원함대를 먼저 격멸한 다음 고니시 유키나가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순신은 함대를 노랑 해협으로 옮겨 왜의 지원함대와 해전을 벌였다. 이순신이 승세를 잡았을 때 왜군이 쏜 탄환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다.

한편, 노랑 해협에서 2백여 척의 전선을 상실한 왜의 지원함대는 이순신의 전사로 전투가 일시 소강상태가 되자 부산 해역으로 퇴주

했다. 또한 왜교성에 고립되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군은 해상봉쇄가 풀린 기회를 이용해 남해 섬 남단을 돌아 부산 해상에 집결한 후 왜로 도주했다. 이로써 7년간의 지루한 전쟁은 끝을 맺게 되었다.

#### 왜(倭)와 외교를 단절하다

조선이 주변국의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공식외교 통로는 사대(事大)와 교린(交隣)이다. 사대는 명나라와의 관계였고, 교린은 왜·여진·유구와의 관계였다. 명과의 사대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명의 정치적 소요와 해금정책(海禁政策)으로 조선의 대명무역과 선진문물의 수입이 크게 둔화되었다.

왜와의 교린정책은 왜구(倭寇)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졌던 것으로, 그 방법은 회유(懷柔)와 견제(牽制)였다. 조선의 대일 교린정책은 왜를 경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래서 왜가 먼저 교섭해 오지 않는 한 조선은 왜와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했고, 왜의 동향(動向)을 알고고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왜와의 교린은 외교사절이 왕래하는 직접외교가 아니라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양국을 중계하는 간접외교였다. 조선이 대마도주에게 각종 특혜를 주면서 간접외교를 진행하자 대마도주는 왜와 조선을 중계하는 역할을 이용하여 조선에서 더 많은 특혜를 얻어 내려 했다.

조정은 1443년(세종 25) 대마도주와 계해조약(癸亥條約)을 체결하여 제포(진해 웅천)·부산포·염포(울산) 등을 개항하고 그곳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대마도주가 파견하는 세견선을 50척으로 제한하면서 통행증을 소지한 왜인들만 3포를 왕래·체류하게 했다. 그것은 대마도주에게 외교통상의 권한을 준 대가로 왜구를 대마도주가 통제하게 하려는 조치였다.<sup>140)</sup>

대마도주를 중계로 한 교린외교는 1510년(중종 5) 3포 왜란이 발생

140) 최영희, 『왜란 전 정세』, 『한국사』29(국사편찬위원회, 1995), p.14



하면서 파탄에 직면했다. 3포 왜란이란 3포에 살고 있던 왜인들이 조선 정부의 규제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다. 반란 기간에 왜구들은 부산 첨사 이우증(李友曾)을 살해하고, 제포첨사 김세균(金世鈞) 납치하였으며, 웅천성을 포위, 민간인을 살해하고 민가를 약탈하였다. 이때 대마도주가 3포와 거제 등지에 병선 수백 척을 보내 반란 왜인들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정은 3포를 폐쇄하고 대마도주와의 관계도 단절하는 강경정책을 취했다.

조선의 규제정책으로 생필품의 부족을 느낀 대마도주는 왜의 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에게 조선과 관계 회복을 요청했다. 무로마치 바쿠후는 2차에 걸쳐 사신을 조선에 파견하여 교린재개를 요청했다. 조선은 1512년(중종 7) 3포 왜란의 주모자 처단과 사죄, 조선 포로의 송환 등을 교린조건으로 요구했다. 왜가 그 요구에 응하자 임신조약(壬申條約)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종전의 세전선 50척을 25척으로, 세사미 200석을 100석으로 반감하고, 조약과 별도로 무역하던 특송선 제도를 폐지하고 항구도 제포 1개항만 개항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3포 왜란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많은 제약과 구속을 가한 것이었으므로 교린재개는 명목만 유지할 뿐 실상은 없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다 1537년(중종 36) 제포에 와 있던 대마도 왜인과 조선 관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자, 조선은 제포에 거주하는 왜인 전부를 방출하고 왜관을 부산포로 옮기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무로마치 바쿠후는 다시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 복원을 요청했으나 조정은 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왜는 무로마치 바쿠후가 붕괴되고 각지의 봉건영주가 활거하는 전국 시대(내전 시대)로 돌입했다. 이제 왜에서는 조선과 관계개선을 주도할 주체가 없게 되었다.<sup>141)</sup> 그 결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왜를 통일할 때까지 약 30년간 조선은 왜의 변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되었다.

141) 최영희, 『왜란 전 정세』, 『한국사』29(국사편찬위원회, 1995), p.16

## 왜(倭)의 침략준비

조선은 1540년(중종 36) 제포의 왜구와 조선 사람 간의 충돌을 이유로 외교관계를 단절한 이후 왜의 정세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조선이 왜의 정세변화를 외면하고 있을 때 왜는 군국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종래 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의 관료였던 슈고 다이묘(守護大名)의 세력이 약화되고 지방 세력에 불과했던 호족들이 센코꾸 다이묘(戰國大名)라 칭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센코꾸 다이묘들은 내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속 영지 경영에 힘쓰는 한편, 영지 내의 가신(家臣)과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여 그들을 군대로 전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sup>142)</sup>

이 시기에 포르투갈·스페인 상인들이 왜를 왕래하여 센코꾸 다이묘들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었다. 센코꾸 다이묘들은 그들과 접촉하면서 서양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했다. 센코꾸 다이묘들이 서양의 문물 중 수입에 적극적인 물품은 조총<sup>143)</sup>이다. 내전상태의 센코꾸 다이묘들은 신예 무기인 조총을 구입하여 전과를 올리게 되자 조총의 수요는 급증하였고, 신속하게 전국에 보급되었다. 센코꾸 다이묘들은 조총 수입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조총의 보급은 왜의 전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1575년 유력한 센코꾸 다이묘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장조(長條)의 전투’<sup>144)</sup>에서 조총을 휴대한 보병으로 기병이 주력인 상대방을 제압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왜군의 전술 체계는 기병체제에서 보병체제로 전환했으며, 축성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 왜의 축성은 험준한 지형을 이용했었으나, 조총이 보급되자 보병부대의 전투에 유리하도록 평야 언덕에 성

142) 민두기, 『일본의 역사』(지식산업사, 1976), p.115

143) 일본에서는 철포(鐵砲)라고 함.

144) 노부나가가 157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연합하여 다케다(武田)의 군대를 三河에 있는 나가시모(長條)에서 대파한 전투.

을 축성하는 평산성(平山城)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성은 조총의 위력을 막기 위해 성벽을 이중으로 하는 복잡한 내부구조를 갖추었다. 센쵸꾸 다이묘의 가신들은 명령에 따라 전투배치가 가능하도록 성 주변에 거주하였다.<sup>145)</sup>

서양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상업도 발전했다. 즉 센쵸꾸 다이묘들은 영지 안에 도시인 ‘조오까마찌(城下町)’를 만들고 그곳을 정치·상업·군사의 중심지로 삼았다. 전국 시대에는 여러 형태의 도시가 생겼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카이(堺)라는 항구였다. 사카이는 항구 도시이면서 자치·자유도시로서 국내 상업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스페인 상인을 상대로 남방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번영하였다. 1568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각 영지 내의 도시(城下町)와 항구를 접수하여 상업을 진흥시켰다.

1582년 노부나가가 살해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실권을 장악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가다(博多)·나가사키(長崎) 등지의 무역항을 자신의 직할지로 삼아 풍족한 군사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대대적인 토지사업인 검지사업(檢地事業)과 인구조사사업인 가정인수사업(家丁人數事業)을 벌였다. 이것은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조선 침략을 앞두고 군인·인부·군량 등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하는 정책이기도 했다.<sup>146)</sup>

### 흥미한 명나라 정정

명 황제는 이갑제(里甲制)<sup>147)</sup>를 이용하여 중앙과 지방 관청을 황제

145) 최영희, 『왜란 전 정세』, 『한국사』29(국사편찬위원회, 1995), p.123

146) 최영희, 『왜란 전 정세』, 『한국사』29(국사편찬위원회, 1995), pp.123~124

147) 명나라 초기 촌락조직. 부역 의무가 있는 110호를 1리(里)로 정하고 그 중 부강한 10호를 갑수호로 임명하여 1 갑수호가 10호를 담당하여 조세와 관청의 잡비 그리고 각종 부역 등을 배정하는 제도.

의 직속으로 만들어 내적으로는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주변국에게는 화이관(華夷觀)을 강조하여 주변국을 통제하려 했다.<sup>148)</sup> 명나라의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나타내게 되었다. 황제의 개인 지문 기관이었던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가 권력기관으로 변화되고, 임시직으로 지방에 파견되던 총독(總督)·순무(巡撫)가 각성의 지방관을 지휘하는 상급기관으로 변화되었다. 또 황제의 일반생활을 보필하던 환관(宦官)들이 황권을 병자하여 관리들을 통제 감독하는 실권자로 부상했다. 이것은 모두 황제의 독재를 강화하는 방편이었지만, 기존 관료제를 혼란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농촌경제는 발전했다. 그것은 은(銀)본위 화폐가 농촌 수공업의 생산을 촉진시켜 농촌 소농경영의 자립화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sup>149)</sup> 부를 축적한 농민들은 촌락 공동체를 결성하여 수탈을 일삼는 지주(地主)와 총독·순무·지방관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농민 저항 운동을 조직화하고 강화시킨 것은 향신(鄉紳)들이다. 향신이란 지방의 중소지주의 자제로 퇴직관료와 임관하지 못한 과거 급제자들이다. 그들은 농촌경제의 발전으로 축적한 부를 고수하려는 촌락공동체에 참여하여 지방과 중앙의 수탈정책에 반대하는 이념을 제시하여 농촌의 지도자가 되었다. 농민의 저항은 환관 정치와 해금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투쟁이다. 환관정치의 반대 운동은 권신들의 전횡, 매관매직을 반대하는 정풍 운동(整風運動)이며, 해금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은 수출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농민이 참여하였다.

명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북방의 달단(韃靼)은 내몽골 일대를 지배하면서 그 여력으로 1550년에는 북경을 침략해 수일 동안 북경을 포위할 정도로 명나라에 위협적 존재였다. 또한 동남아 연안에

148) 최영희, 『왜란 전 정세』, 『한국사』29(국사편찬위원회, 1995), p.263

149) 최영희, 『왜란 전 정세』, 『한국사』29(국사편찬위원회, 1995), p.264

는 무역과 약탈을 겸행하는 왜구들이 발호하여 명나라의 대외무역과 연해민의 생활을 위협하였다. 왜구들이 명의 반국가적 밀무역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자 명나라 조정은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의 해외무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해금정책을 강화하였다. 해외무역을 금지되자 활발해진 농촌경제가 파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농민들은 대대적인 해금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혼란은 명나라의 군사력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 조선이 왜란을 대비하지 못한 이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5년 전부터 왜 사신들의 발언과 납치에서 풀려 돌아온 어민의 말을 통해 왜가 조선을 침략하려 한다는 정보가 조정에 전해졌다. 따라서 임진왜란은 예견된 전쟁이었다.<sup>150)</sup> 그러나 조선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론정치(公論政治)의 폐해다. 4차에 걸친 사회(士禍)를 겪으면서 지배층으로 등장한 사림 세력은 기존의 통치조직인 육조(六曹)에 의해 정치 현안을 발의·논의·결정·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삼사(三司, 사헌부·사간원·홍문관)로 하여금 공개적 토론과 검토를 거치게 했다.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자는 공론정치(公論政治)의 시행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공론정치의 의도와 달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공론화한다는 자체가 의견일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설령 공론화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제 조정하는 의정부보다 논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士林)의 의견을 중시함으로써 시급한 정치현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심각한 의견대립만 가져왔다. 양보 없는 의견대립은 급기야 4색 당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당파 간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정치양

150) 장학근, 『왜군항도론에 대한 명·일의 압력과 조선의 대응』, 『임란수군활동사 연구논총』(해군군사연구실, 1993), p.46

상으로 발전하였다.<sup>151)</sup> 또한 그 영향이 지방으로 미쳐 지역적으로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인물들이 향교와 향약을 중심으로 세력화되자, 기존의 지방행정 및 군사조직은 무력해졌다. 중앙과 지방의 관료체제 붕괴와 제도권 밖의 간섭과 통제는 예견된 전쟁마저 대비할 수 없게 하였다.

둘째는 국가경제의 위축이다. 조정은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농업에서 조달하였다. 국가재정이 튼튼하려면 자영 농업이 보장되어야 했다. 건국 이래 수많은 공신에게 지급된 공신전과 별사전이 대부분 세습되고, 양반관료들에 의한 토지 겸병은 더욱 확대되었다.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집중된 토지는 모두 면세전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수입은 줄고 농민생활은 날로 궁핍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지주들에게 소작을 얻어 농사를 짓고 소출의 절반을 전세로 지불했지만 그 전세를 지주가 착복함으로써 국가재정은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재정이 궁핍해진 국가는 소작농민에게 각종 명목의 세금을 징수하고, 무보수로 부역 동원을 했다. 매년 계속되는 가뭄과 홍수, 흉년, 병해충, 전염병의 발생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sup>152)</sup>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부여된 균역은 애초부터 그 충실도를 믿을 수 없었다.

셋째는 신분제의 동요였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를 고수했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현상은 양반·양인·천인으로 구분된 사회신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했다. 불행하게도 조선의 지배층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외면하고 엄격한 신분제를 고수하려고 했다. 그 결과 선조 16년(1583) 옥비(玉非)의 난과, 선조 22년(1589)에 발생한 정여립(鄭汝立) 난의 여파가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미쳐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옥비의 난의 발단은 조선 초 6진 개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6진을 개척할 때 자원입대한 사람을

---

151) 최영희, 『왜란전 정세』, 『한국사』29(국사편찬위원회, 1995), p.23

152) 김진봉, 『공납제의 해이』, 『한국사』12(구가편찬위원회, 1977), pp.15~72

포상하기 위해 천인을 양인으로 속량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 관청과 지방의 천인들이 도망하여 양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살게 되었다. 1583년 조정은 쇄환령을 발표하여 신분을 바꾼 사람들을 색출해 내는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도망자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전국적으로 분산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이 소란스럽게 되었다. 그 예로 함경도 경원의 관비 출신인 옥비가 영남으로 달아나 숨어 살다 양가의 첩이 되었다. 그녀가 사망한 지 80년이 지났으며 그녀의 후손들 중에는 양반과 결혼한 자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비색출령이 집행되자 양반의 부녀자 중에는 자결하는 자가 있었으며, 하루아침에 양반에서 천인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사건이 속출했다. 이러한 사태는 옥비의 후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됨으로써 그들은 모두 조정의 조치를 비난하게 되었다. 정여립(鄭汝立)의 난이란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한 후, 정감록을 이용하여 “이씨의 나라가 망하고 정씨의 나라가 흥한다.”라고 백성을 선동한 모반사건을 말한다. 황해감사의 밀고로 관련자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이 당쟁과 연계되자 화가 양반에서부터 백성들에게 미쳤다. 또한 무고한 사람들이 모반죄로 처형되었다. 옥비의 난과 정여립의 모반사건은 모두 사회 변화에 맞는 탄력정책을 실현하지 않고 엄격한 신분 제도를 고수하려 한 정책적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파장은 임진년까지 계속되어 병력동원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조선의 국방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전쟁을 예방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방체제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의 국방체제는 붕괴되고 있었다. 조선군은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중앙군의 임무는 수도방위였지만 국가를 방위하는 군인의 성격보다 국왕을 호위하는 금군(禁

軍)의 성격이 강했다. 국방을 담당하는 실직적인 군인은 지방군이였다. 지방군은 각도를 단위로 육군은 병마절도사(병사)가 수군은 수군 첨절제사(수사)가 지휘하였다. 각도에는 군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주진(主鎭, 병사)이 있고 그 아래 첨절제사(목사 혹은 부윤, 첨사)가 거진(巨鎭)을 단위로 군사권을 장악했으며, 그 예하에 제진(諸鎭)이라는 말단 군사조직을 육군의 경우 동첨절제사가 수군의 경우 만호가 지휘했다. 이와 같은 방어체제를 진관체제(鎭管體制)라고 하였다. 진관체제는 전국을 방어체제로 만든 것이었지만 군사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진관체제는 도 단위 책임 방어체제였다. 이 제도는 국가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여진족과 왜구와 같은 소규모 전투와 단기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방위체제였다. 따라서 외적이 침입하면 제진에서 방어하고, 제진이 방어하지 못할 경우 거진의 첨사가 휘하 제진의 군사를 지휘하여 방어하고, 그것도 진압하지 못할 경우 병사나 수사가 한 도(道)의 군사를 지휘하여 방어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 단위 이상의 방어체제나 군 지휘체제는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오히려 전투 인접 지역의 병사나 수사가 임의로 타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불필적타진지조법(不必籍他鎭之助法)<sup>153)</sup>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전에 준하는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어책이 없었다.

둘째, 야전 지휘관의 전술능력 발휘가 제한되었다. 한 도 이상의 군사력 동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역 병사나 수사는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고 조정은 상황을 검토한 후 경장(京將)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전투지역과 인접지역의 군을 지휘해 사태를 진압하도록 했지만,<sup>154)</sup> 현지 사정을 모르는 경장이 원만하게 군을 지휘할 수 없었다.

153) 『성종실록』 성종 19년 5월 계축(癸丑)

154) 『조선경국전』상, 치전, 군관



셋째, 진관체제는 행정단위와 유사하게 군진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수륙군을 막론하고 병력이 분산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외적이 집중 침략할 경우 방어병력이 부족하여 패전하기 쉬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초전의 전세가 불리해진 접전 지역으로 분산된 병력을 집결 시켜야 했다. 그러나 병력이 집결되는 과정에서 적은 이미 교두보를 확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약점을 지닌 제도가 바로 진관체제였다.

방어체제뿐만 아니라 모병에도 모순이 나타났다. 조선 조정이 병력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제도는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였다. 조선의 양인(농민) 남자들은 16세부터 60세까지 군역(軍役)의 의무가 부가되었다. 병농일치의 군역 제도는 농민의 토지 소유를 바탕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은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을 뿐 정작 토지를 경작해야 할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지 못했다. 조정은 농민들의 열악한 생활을 감안하여 현역복무자인 정병(正兵)에게 보인(保人)을 배정하여 정병이 현역복무를 하는 동안의 비용과 가족의 생활을 돌보게 하는 보법을 마련했다. 그런데 정병과 보인을 막론하고 모두 경제적 기반이 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군역을 피해 도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군사 동원 계획은 번번이 차질을 빚게 되었고, 입역 의무가 없는 가난한 농민이 도망자의 군역의무까지 떠맡게 됨으로써 군사력은 약화되고 농민생활은 더욱 곤궁해졌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망상 : 대아시아 건설

100여 년에 걸친 전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일본 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의 상권과 인력동원 능력까지 장악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는 대아시아 건설이라는 망상을 실현하려 했다. 그가 망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요인 때문이

다. 첫째, 오랜 내란의 와중에서 세력을 상실한 센코꾸 다이묘(戰國大名)에게 해외전쟁에서 획득한 토지를 지교오(知行, 收租地)로 분할해 주겠다고 설득하여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둘째, 이제까지 왜의 대륙교역에 제약 일변도의 태도를 보였던 명나라와 조선에 보복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왜의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다. 대륙 침략의 명분을 마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1년 1월 연안의 제후들에게 침략군의 호송에 필요한 선박 및 수군의 준비를 명령했다. 이어서 3월에는 병력 동원령을 내리고, 대륙 침략을 의미하는 ‘대당입(大唐入)’을 선언했다. 그런 후 큐슈의 촌락인 나고야(名護屋)에 성을 쌓아 침략군 본부를 설치하였다. 1592년 정월 조선 침략군 규모를 15만여 명, 본토 방어군으로 12만여 명을 배정하고,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군 18,700여 명을 1군, 가토 기요사마(加藤清正)군 22,800여 명을 2군, 구키 요시다카(黑田長政)군 52,500여 명을 3군으로 정했다. 이제 왜의 조선 침략은 초입기에 들어갔다.

#### 틈이 생긴 조·명 연합 방위체제

조선은 건국하면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명나라와 사대관계를 맺었다. 조선이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김으로써 명나라 중심의 질서에 편입한 것이다. 조선이 국가의 위상을 스스로 낮추면서까지 대명 사대관계를 구축하려 했던 것은 명의 선진 물질문명을 수입하여 국가를 부흥시키고 명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외침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조선은 명나라와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1419년(세종 원년) 대마도 정벌을 단행해 왜구가 명나라 연안을 침탈하지 못하게 하였으며,<sup>155)</sup> 1467년(세조 13)과 1479년(성종 10) 2차에 걸쳐 압록강을 건너 여진족을 공격함으로써<sup>156)</sup> 조선이 명나라의 든독한 연합국이라는 사

155) 장학근, 『한국 해양활동사』(해군사관학교, 1994), pp.141~148

156) 서인환, 『한민족 역대과병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117~176

실을 입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발발 5년 전인 1587년 9월 왜의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橘康廣)가 조선에 와서 단절된 교린 관계 복원을 간청하였는데 조선이 응하지 않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의 국내 환란을 두려워하여 중국을 침략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다.”<sup>157)</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왜와의 관계개선을 하지 않으면 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암시이며 위협이었지만 당시 조선의 관료들은 “왕위를 침탈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감히 상국인 명나라 침략을 운운한다.”라고 분개하면서 왜와 국교 재개를 단호히 거절했다. 또 1590년(선조 23) 조선통신사가 왜로 건너갔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서신 중에 “왜가 명나라를 침략하려 하는 데 조선이 안내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자 “왜가 명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글을 고치지 않으면 국서로 접수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했다.<sup>158)</sup> 이와 같이 조선의 안보보다 명나라의 안위를 더 걱정하던 조선 관료들의 언행은 모두 조선이 초기의 이념적 탄력성을 상실하고 문화적 모화사상에 함몰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주적 안보체제를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왜가 침략하면 사대의 상국인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안보의 의존성이 외교현실에서 표면화한 것이었다.

왜의 실권자가 조선 사신에게 조선을 경유하여 명을 공격하겠다고 한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그러나 조선통신사 일행은 왜가 곧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가 중국을 침략한다는 말을 고치지 않으면 국서를 접수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sup>159)</sup>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보다 명나라를 침략할 것을 염려하여 국서 수정을 요구한 조선통신사 일행의 태도는 조선의 안보보

157) 『선조실록』 선조 20년 9월 정해(丁亥)

158) 『선조실록』 선조 23년 3월 임인(壬寅)

159) 『선조실록』 선조 23년 3월 임인(壬寅)

다 명나라의 안보에 우선순위를 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인식은 조선 위정자들의 일반적 사고형태였다. 조선이 조선의 안위보다 명나라의 안위를 더 걱정했던 그 심정은 자위력을 갖추지 못한 조선이 국가 위기 때 명의 군사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대명 사대관계는 조선의 필요에 따라 조·명 연합 방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의무규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의 국가이익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의례적인 외교관행이라는 점을 조선의 위정자들은 알지 못했다. 조선이 자국의 안보보다 명나라의 안보를 더 중요시하면서까지 대명 사대 유지에 고심했지만, 오히려 명의 신뢰를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것은 왜정통보(倭情通報) 때문이다. 왜정통보란 왜가 조선을 경유하여 명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외교문제를 말한다. 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은 임진왜란 발발 5년 전에 왜의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橋康廣)에 의해 처음 조정에 전해졌다. 이후 매년 왜의 사신들은 거의 같은 내용을 조선에 알려 전쟁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은 전쟁 발발 1년 전인 1591년(선조 24) 윤3월 1일 왜의 사신 다이라 히라노부(平調信)와 겐소(玄蘇)였다.

“명나라가 오랫동안 왜의 조공을 거절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것을 분하게 여겨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만일 조선이 명나라에 건의하여 왜에게 조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조선은 무사할 것이고 왜의 백성들도 전쟁의 노고를 덜게 될 것이다.”<sup>160)</sup>

왜가 조선을 경유하여 명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은 명나라가 왜의 조공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며, 조선이 명나라에 간청하여 왜의 대명 조공 길을 열어주면 조선은 왜의 침략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대화가 계속되자 왜의 사신은 조공과 관계없이 왜

160) 『선조실록』 선조 24년 윤 3월 병인(丙寅)

는 조선을 침략할 것이 분명하다는 말을 실토하였다.

“옛날 고려가 원나라 군사를 인도하여 왜를 침략했다. 왜는 그 원한을 조선에 갚고자 한다.”<sup>161)</sup>

고려 말 여몽 연합군이 왜를 공격한 것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왜가 조선을 침략하려 한다는 것은, 왜가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강한 암시이며, 고려가 몽골군을 안내하였듯이, 이번에는 조선이 왜군을 안내하여 명을 침략하지는 왜군향도역(倭軍嚮導役)을 강요한 것이다.

1591년(선조 24) 5월 1일 어전회의가 개최되었다. 논의의 주제는 왜의 침략정보를 명에 알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논의는 찬반으로 나뉘었다. 반대는 왜가 명나라를 침략한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침략설을 알리면 명 조정이 놀라게 되고, 왜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왜와 맺은 교린(交隣)이 탄로나 명의 문책을 받게 될 것이므로 왜의 침략정보를 명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찬성은 명나라가 왜의 침략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침략을 받게 되면 반드시 명의 문책이 있을 것이니, 왜에 잡혀갔다 돌아 온 사람이 ‘왜가 명을 침략하려 한다고 했다’는 식으로 왜의 침략설을 명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신들이 왜정통보(倭情通報)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자 선조는 “왜가 명나라를 침략하면 문책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여 명나라에 왜정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은 명나라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문안작성에 신중을 기했으며, 하절사(賀節使) 김응남(金應南)에게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 관료들이 왜의 침략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포로 송환자 중에 ‘왜가 중국을 침략할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는 정도로 알리되, 왜의 사신이 알려준 정보라는 사실은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에 들어간 김응남은 인편으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소

---

161) 『선조실록』 선조 24년 윤 3월 병인(丙寅)

식을 전했다. “명나라 조정은 왜의 명나라 침략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왜군을 안내하여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것이다.<sup>162)</sup> 명나라 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조선이 왜정통보를 하기 전에 왜가 명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첫째, 왜의 사쯔마슈(薩摩州)로 잡혀가 있던 중국인 허의후(許儀後)가 왜가 중국을 침략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비밀리에 중국의 변방 장수에게 편지를 보냈다.<sup>163)</sup>

둘째, 유구국(琉球國)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을 침략하는 데 유구에게 안내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sup>164)</sup>

셋째, 왜를 내왕하면서 무역을 하던 중국 상인 진갑(陳甲)이 귀국하여 왜가 조선의 안내를 받아 중국을 침략하려 한다고 보고했다.<sup>165)</sup>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왜의 중국 침략정보를 입수한 명나라는 사대의 신국(臣國)인 조선이 신속한 보고를 하지 않은 점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의구심은 조선이 왜를 안내하여 중국을 침범하려 한다는 조선의 왜군향도역에 심증을 두게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게 된 조선은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의 왜군향도역 자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였지만 명나라는 의구심을 풀지 않고 “왜가 조선을 침략하면 조선·섬라(暹羅, 태국)·유구(琉球, 오키나와)가 연합하여 왜를 공격하라.”라고 말하면서 조선과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sup>166)</sup>

---

162)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을축(乙丑)

163)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을축(乙丑)

164)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을축(乙丑)

165)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을축(乙丑)

166) 『선조실록』 선조 25년 6월 갑인(甲寅)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방어하라

전쟁 발발 조짐이 점차 가시화되자 조선 조정의 야전군 지휘관에게 하달한 방위전략은 지상전 위주의 수세전략이다. 지상전 위주의 수세 전략이란 “왜는 섬나라이므로 수전에는 강하고 육전에는 약하지만 조선은 육지의 나라이므로 육전은 강하고 수전은 약하다. 따라서 왜가 침략해 올 경우 조선은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왜군을 제압해야 한다.”<sup>167)</sup>는 것이다. 지상전 위주의 수세전략은 수군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조는 전쟁 발발 13일 전에 각도 수군 병사들에게 육지로 올라와 방어에 임하라고 명령했다. 조선이 지상전 위주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왜의 침략이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왜구의 침략경험으로 보아 왜의 침략군의 규모는 많아야 1만 명 정도이며, 침략지역은 왜구의 침략이 가장 많았던 전라도가 될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전쟁 기간은 삼포왜란(1510)과 을묘왜변(1555)이 15일 만에 진압되었음으로 조선의 수륙군을 집결시켜 방어하면 길어야 한 달 내에 왜군을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sup>168)</sup>

1592년 4월 1일 하달된 명령에 따라 수군은 해상방어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단지 전라좌수사 이순신만 “육지와 바다의 전투가 다르고 육지와 바다를 수비하는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없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청하여 해상방어를 계속하였다.<sup>169)</sup> 당시 조선의 전투인력을 정확히 밝힐만한 자료는 없다. 『경국대전』에 기재된 전국 유방군(留防軍)<sup>170)</sup>은 충청도 1,125명, 경상도 3,000명, 전라도 1,625명, 황해도 1,000명과 각도의 수군 수천 명에 불과했다.<sup>171)</sup>

167) 『중종실록』 중종 5년 10월 경자(庚子)

장학근, 『한국해양활동사』(해군사관학교, 1994), p.180.

168) 장학근, 『임란기 조선조정의 수군에 대한 기대와 운용책』, 『임란수군활동사연구논총』(해군군사연구실, 1993), p.66.

169)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4월 경인(庚寅)

170) 평시 군진에서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군인

왜군이 빠르게 북상하다

교토(京都)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결한 장수에게 내린 작전명령은 다음과 같다.

### (1) 작전방침

9개부대로 나뉜 왜의 침략군은 순서에 따라 조선에 상륙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한성을 향해 진격하되, 한강 이남의 조선군 주력을 섬멸하고 그 다음 전국을 점령 확보한다.

### (2) 작전편제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참모장: 마시다 나가모리(増田長盛)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수군장: 구키 요시다가(九鬼嘉隆),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 (3) 공격로

중로: 부산-대구-조령-충주-용인-한성

동로: 울산-경주-죽령-원주-여주-한성

서로: 김해-성주-김천-추풍령-청주-한성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에 따라 왜군은 대마도로 이동한 후, 약 1개월간 전투편성과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휘하는 19,700여 명이 7백여 척의 전선에 분승하여 오후 5시경 부산 앞바다에 도착해 상륙지점을 물색하고 14일 새벽부터 부산으로 상륙을 감행하였다.

전원이 감돌던 비상시기에 해양방위를 전담해야 할 수군사령관이 육지에 있다가 적선이 나타나자 군선과 군기를 바다에 버리고 도망

---

171) 『경국대전』 병전 유행(留防)



쳤으며, 지상군 지휘관들도 성을 버리고 피신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한 도의 군사를 지휘해야 할 감사는 당황하여 조처할 바를 몰라 최초 접전 지역인 부산 일대가 삼시간에 왜군에게 제압당했다.

그 결과 왜군 제1진 18,700여 명이 상륙에 성공하여 부산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자, 19일에는 제2진 22,800여 명이 상륙하여 경주와 영천을 거쳐 신영 방면으로 향했고, 같은 날 제3진 11,700여 명이 김해에 상륙한 후 성주 개령을 거쳐 추풍령 방면으로 향했다. 이후 왜군의 후속부대가 속속 상륙하여 북진하기 시작했다. 왜군은 해상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상륙에 성공하여 파죽지세로 북상하게 되었다.

조선 조정이 전쟁 발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592년 4월 17일 아침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이 올린 장계에 의해서였다. 이때 조정이 인식한 왜군의 침략은 ‘왜가 명나라와 외교관계가 단절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분풀이를 조선에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부산 지역에서 능히 왜군을 격퇴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경상감사 김수의 장계를 비롯하여 부산과 동래의 실함을 알리는 변장들의 절박한 장계가 계속되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첫째, 이일(李鎰)을 순변사, 조경(趙敬)을 우방어사, 유극량(劉克良)과 변기(邊璣)를 조방장으로 삼아 적의 북상로인 중로·동로·서로를 차단하라.<sup>172)</sup>

둘째, 수군은 바다로 나가 적 선단을 공격하여 북상하는 왜군병력이 후방으로 분산되도록 하라.<sup>173)</sup>

셋째, 국가 위기에 임금을 호위하는 것[勤王]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전라도 변장들은 휘하 군대를 이끌고 달려와 국왕을 호위하고 경

172) 『연려실기술』 권15 「임진왜란 대경서수(壬辰倭亂 大驚西守)」

173)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수 「명종수로격습적선(命從水路激襲賊船)」

성(京城)을 구원하라.174)

명령이 하달된 이후 조선군의 행동 추이는 다음과 같다.

### 지상군 상황

1592년 4월 19일 순변사 이일은 중로로 북상하는 왜군을 저지하기 위해 도성을 출발하여 4월 23일 상주에 도착했다. 이일이 급히 상주로 간 것은 당시 경상도 지역의 장수들이 제승방략의 전술에 따라 휘하 병력을 상주 지역으로 이동시켜 놓았다는 정보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일이 상주에 도착하였을 때는 상주 목사 김해(金海)를 비롯한 현지 지휘관들이 모두 도주하고 관관 권길(權吉)만이 성을 지키고 있었다.

순변사 이일은 상주 부근의 농민 8백여 명을 모아 북천변(北川邊)에서 훈련을 시켜 왜군에 대항하려 했다. 그때 왜군 제1진의 선두부대가 선산에서 상주로 진출하여 조선군을 급습했다. 군사훈련과 전투편성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이일군은 왜군에 변변한 대항조치 못하고 궤멸했다. 이일은 탈출하여 패전 보고를 올린 후, 조방장 변경이 있는 조령으로 갔다가 삼도순변사 신립이 충주에 주둔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휘하에서 머물렀다. 4월 25일 상주를 점령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군은 문경을 거쳐 조령으로 진출했다.

한편 동로인 죽령으로 진출하려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제2군은 안동-영주-죽령-단양-충주로 북상하는 것보다 군위-조령-충주로 북상하는 것이 한성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보고 고니시 유키나가군보다 먼저 한성에 입상하기 위해 북진속도를 배가하였다. 그러나 가토 기요마사는 고니시 유키나가보다 하루 늦게 조령을 통과했다.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의 제3군은 창녕에서 부대를 좌우로 나누어 좌군은 초계-합천-거창-김천으로 북상하고, 우군은 무계-고령-성주로 북상하여 김천에서 좌우군이 다시 합쳐 추풍령을 넘기로 하였다. 서로인 추풍령으로 북상하는 왜군을 저지할 임무는 경상우방어사 조경(趙敬)에게 부여되었다. 그는 조방장 양사준(梁思俊)과 돌격장 정기

---

174)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임신(壬申)

룡(鄭起龍)에게 각각 4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거창으로 남하하게 했다. 구로다 나가마사의 좌군 선견부대가 4월 23일 신창으로 진입하자 돌격장 정기룡이 선두에서 공격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김천을 거쳐 추풍령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4월 28일 구로다 나가마사의 좌군이 추풍령으로 진출하자, 방어사 조경이 적진으로 돌격하다가 적에게 체포되었다. 정기룡은 단기로 조경을 구출한 후 황간으로 이동했다. 조경군이 서로(추풍령) 방면에서 북상하는 왜군을 차단하면서 지연전을 전개했지만 조경이 신병으로 산사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조경군은 더 이상 왜군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군의 저항이 멈추자 구로다 나가마사의 우군은 성주를 유린하고 약속대로 김천에서 좌군과 합세하여 추풍령을 통과했다. 이후 구로다 나가마사의 3군은 조선군의 저항 없이 청주를 점령하고 곧이어 한성을 향해 북상하였다.

조선이 북상하는 왜군을 저지할 수 있는 요새지 조령·죽령·추풍령으로 적들이 차례로 통과한다는 소식을 접한 조정은 신립(申聃)을 삼도순변사로 임명하고 그를 도와줄 종사관에 김여물(金汝物)을 선임했다. 조정은 그에게 한성에서 징집한 병사 8,000여 명을 인솔해 북상하는 왜군을 저지하도록 했다. 김여물은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조령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신립은 적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니 계곡전투보다 평야전투가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단월역에 방어선을 구축했다.<sup>175)</sup> 그것은 기병전으로 여진족을 제압한 경험을 갖고 있는 신립이 왜군과 전투에서도 기병전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왜군은 보병이긴 했으나 그들은 모두 원거리에서 아군을 살상할 수 있는 조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4월 28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소 요시토시(宗義智)·마쓰우라 시스노부(松浦鎮信)의 왜군이 신립군을 포위 접근하기 시작했다. 신립은 4차례나 기병을 이용하여 왜군의 포위망을 벗어나려 했으나 사상자만 증가하고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자 남한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지상전은 부산 지역, 삼로의 방

175) 『연려실기술』 권15 「임진왜란 대경서수(壬辰倭亂 大驚西守)」 4월 27일

어, 충주 등지에서 연패함으로써 복상하는 왜군을 저지하라는 조정의 명령은 허사가 되었다.

### 수군 상황

조정이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내린 명령은 ‘경상수사 원균과 합세해 적의 병참 선단을 공격해 복상하는 왜의 지상군의 병력이 분산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왜군의 북진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되자 수군이 해상에서 적의 병참 선단을 차단 공격하면 복상하는 적이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북진하던 병력의 일부를 후방으로 돌리게 되어 수도의 방위가 그만큼 용이할 것이라는 전술 판단에 의한 것이다.

전쟁국면을 전환시킨 옥포 해전(1592. 5. 4~5. 9)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집결하여 상륙준비를 마친 왜군이 14일 새벽을 기해 상륙을 개시했다. 이때 바다를 지켜야 할 경상좌도수사 박홍은 임금을 호위해야 한다는 구실로 평양으로 도망치고,<sup>176)</sup> 경상우수사 원균은 병선과 군사를 전투지역에 버려두고 그의 관할지역 끝인 남해섬으로 도망쳐 이순신에게 지원군을 파견해 줄 것을 간청했다.<sup>177)</sup> 원균의 지원요청은 빈번했으며 간절했지만 이순신은 즉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군사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 때문이었다. 고대하던 출전 명령이 이순신에게 내려진 것은 4월 말이 되어서였다.

1592년 5월 4일 이순신은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을 이끌고 여수항을 떠나 왜군이 있다는 부산을 향해 출항했다. 이순신이 지휘하는 군선은 모두 85척이나 되었지만 실제 전투능력이 있는 군선은 판옥선뿐이었다. 협선은 소형 군선으로 척후와 왜선을 쫓아가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형 경쾌선이었으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

176) 『연려실기술』 권15, 선조고사본말 임진 13일

177) 『연려실기술』 권15, 선조고사본말 임진 13일

는 포작선은 조그마한 어선을 개조하여 수송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배였다. 이순신은 중부장 어영담(魚泳潭)을 바닷길 안내자로 삼아 최선봉에 서게 하고 좌척후장 김인영(金仁榮)과 우척후장 김완(金浣)에게 군선을 이끌고 멀리 보내 왜의 수군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항해를 하는 도중 이순신은 “적을 격멸하려면 적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라고 병사들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남해섬 남단 미조항에 이르렀을 때 이순신은 초요기를 올리게 하여 모든 군선을 한곳으로 집결시킨 후 다음과 같은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동쪽으로 기동하도록 지시했다.

“우척후장, 우부장, 중부장 및 후부장은 오른쪽으로 개이도<sup>178</sup>)를 돌며 왜선을 찾아내라.”

“다른 군선들은 왼쪽으로 평산포, 곡포, 상주포 및 미조항을 수색하도록 하라.”

이순신의 지시에 따라 선단은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에 있는 소비포를 거쳐 5월 5일 통영군 산양면 삼덕리에 있는 당포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곳은 경상우수사 원균을 만나기로 한 장소였다. 그러나 원균은 그곳에 없었다. 원균은 다음 날 아침, 즉 6일 오전 8시에 한산도 방면에서 판옥선 1척을 타고 나타났다. 원균이 도착하자 남해 현령 기효근이 장수들과 함께 판옥선 3척과 협선 2척을 인솔하고 나타났다. 이순신은 원균에게 비교적 정확한 상황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원균 함대의 안내를 받아가며 거제도 북단 송진포에 이르러 밤을 보냈다. 다음 날(5월 7일) 새벽 이순신과 원균의 함대가 일제히 송진포를 출발하여 왜군이 머물고 있다는 가덕도의 천성포를 향해 출항했다. 이순신은 기동 선단에 앞서 척후선을 보내 거제도 오른쪽 해안도 수색하도록 했다. 주력 선단이 거제도 북단에서 가덕도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우척후장과 좌척후장 김인영

---

178) 현재 추도

이 거제도 옥포에 왜선이 있다는 신호로 신기전을 쏘아 올렸다. 신기전은 화살 끝에 불 주머니를 매달아 쏘는 화살로 적이 있다는 신호였다. 이순신은 전투태세를 갖추게 한 후 “명령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태산과 같이 냉정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勿令妄動 靜重如山)179)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옥포 선창에는 왜선 50여 척이 흩어져 정박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가 거느린 병선들이었다. 포구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 왜놈들이 벌써 상륙하여 마을을 분탕질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순신은 독전기를 들어 올려 공격을 명령했다. 병사들은 북과 나발을 불어 명령에 응답하자 이순신 휘하의 함정들은 일제히 포고로 돌진해 들어갔다. 포와 화살이 적선을 향해 날아갔다. 적의 선봉 선단 6척이 격침되었다. 조선군의 기습을 반자 일부의 왜선들이 포구를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미처 승선하지 못한 왜군들은 산을 기어오르기도 하였다. 우리 병사들은 적선을 향해 총통과 불화살을 쉬지 않고 날렸다. 화살에 맞아 거꾸러진 왜병들은 셀 수 없을 지경이었으며 우리 군사들이 격파를 확인한 왜군의 주력 병선만도 26척이나 되었다. 나머지 왜선들도 치명적 타격을 입어 항해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울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것은 산으로 도망친 왜놈들을 추격하여 모두 섬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제도의 산세가 험하고 수목이 무성하여 상륙작전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선 내에 사부(射夫)가 없으면 왜놈들의 반격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날이 저물자 전투를 중지하고 군선을 이끌고 거제도 장목면의 영등포 앞바다로 이동하였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안전한 휴식을 위해 척후선을 멀리 보내 왜군의 동태를 파악하게 한 후 병사들을 하선시켜 밥을 지어 식사를 하게 했다. 병사들은 영등포 앞바다에서 밤을 보낸 후 새벽 4시에 다시 출항

---

179) 『이충무공전서』 장계(狀啓) 제1차 옥포승전을 알리는 계본

할 준비를 했다. 그때 척후선으로부터 “멀지 않은 해상에 왜 대선 5척이 지나간다.”라는 급보가 들어왔다. 이순신은 휘하 군선에게 추격을 명령했다. 웅천의 합포까지 추격하자 궁지에 몰린 왜놈들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사도 첨사 김완이 왜 대선 1척을 불살라 격침시킨 것을 비롯해서 그곳에 정박해 있던 왜소선을 포함해 모두 왜선 6척을 격침시켰다. 그 날은 야간 항해를 계속해 창원의 남포에 이르러 해상에 진형을 형성하고 밤을 지냈다. 5월 8일 이순신은 진해(현재 진동)의 고리랑에 ‘왜선이 정박해 있다’는 척후선의 보고를 받고 주변 섬을 수색하며 항해 할 것을 지시했다. 선단이 고성 의 적진포에 이르자 왜의 대선과 중선 13척이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이순신이 주위를 살펴보자 왜놈들이 여염집을 분탕질하고 있었다. 분탕질 하던 왜놈들이 선단을 발견하고 놀라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분개한 이순신이 공격을 명하자 군선들이 공격하여 왜놈들이 마을에서 약탈한 곡식과 왜군의 무기(軍器) 등을 우리 배로 옮긴 후 왜선 13척을 모두 격침시켰다. 이순신이 첫 출전에서 이룩한 대표적 전과는 왜선 51척을 격침시키고 왜놈들이 약탈한 곡식을 회수하고 각종 왜군에게 포로 되었던 3명의 조선인을 구출한 것이었다. 이순신이 첫 출전하여 옥포, 합포, 적진포에서 해전한 것을 총칭하여 옥포 해전이라 부른다. 이순신은 옥포 해전을 마친 후 적의 소굴인 부산포를 공격하려 했으나 전라우도 함대가 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순신 함대만으로 부산포를 공격하기에는 군사력이 크게 부족하였다. 이순신은 전열을 정비한 후 여수로 회항할 것을 명령했다. 그때 임금이 의주로 피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수 전라좌수영에 도착한 이순신은 옥포 해전에서 이룩한 전과를 중심으로 승전 보고를 했다. 그리고 말미에 다음과 같은 건의의 글을 기록하였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우리가 왜적을 막는 방책에 있어서 수군이 해상작전을 하지 않고 오직 육지에서 성을 지키는 방비에만 주력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수백 년 기업이 하루아침에 적의 소굴로 변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이 만일 바다로 전라좌도를 침범해 온다면 신이 바다에서 결사적으로 막겠으나, 육지로 침범해 온다면 신의 관할지 장수들에게는 육전을 할 수 있는 전마(戰馬) 한 필도 없으니 대응할 방도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순천 돌산도와 홍양의 목장에는 쓸 만한 말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이고 훈련시키면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신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전라감사 이광에게 각 목장의 말을 징발하여 각 포구에 나누어 훈련시키도록 하여 주십시오.”<sup>180)</sup>

위와 같은 이순신의 건의는 조정의 지상전 위주 전략의 잘못된 점과 해양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왜군이 호남 지역으로 침략해 오면 전라좌도 수군만이라도 육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마를 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다. 그것은 이순신이 해전에서 패한 왜군이 육지로 달아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한다.

이순신이 옥포 해전에서 이룩한 전과의 규모는 큰 것이 아니었지만 승승장구하던 왜군에게 패배를 안겨준 전투였다. 첫 출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전투경험이 없던 조선 수군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지상전의 연이은 패전으로 실의에 차 있던 조정에게 전열을 정비하여 왜군을 격퇴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전투였다.

---

180) 『이충무공전서』 장계(狀啓) 제1차 옥포승전을 알리는 계본



이순신은 천부적 천재였는가, 아니면 노력하는 보통사람이었는가?

조선 시대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장교의 정상적 임용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무과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무과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무과(式年武科, 정기시험)와 국가에 경사가 있을 경우 실시되는 별시무과(別試武科, 특별시험)가 있다. 정시무과와 별시무과의 합격자에 진급의 차별성은 없었다. 선발인원은 식년무과의 경우 28명이며, 별시무과는 28명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까지 선발하기도 했다. 둘째, 군부대마다 필요에 따라 관무재(觀武才), 도시(都試), 시재(試才), 시사(試射) 등과 같이 간단한 임용고시를 통해 장교를 임용했다. 셋째, 조상들의 공적을 인정하여 그 자손들을 관료로 등용하는 음서(蔭紱) 제도가 있다.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된 사람은 요직이나 고급관직에 등용되기 쉽지 않았으므로 음직으로 들어온 후 과거시험을 보는 경향이 많았다.

무과는 3단계로 실시되었다 각도에서 주재하는 ‘향시’와 서울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원시’를 합쳐 초시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1단계 시험이다. 초시는 전국의 인재 중 190명을 선발(원시, 70명, 향시 120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단계는 복시라고 한다. 복시의 목적은 190명의 초시 합격자 중 27명에서 29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무과의 3단계는 전시라고 한다. 국왕이 시험장에 친임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전시는 복시 합격자의 서열을 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불참하지 않는 한 탈락자는 없다. 무과 합격 서열은 초임 품계와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임관할 때 무과의 1등에게 종6품, 2등과 3등에게는 정7품, 4등에서 8등까지 정8품, 나머지 전원에게 종9품이 주어졌다. 종9품으로 임관한 자가 종6품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예상하면 무과 합격 서열은 보직 및 승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언제, 어떤 시험에 몇 등으로 합격했을까? 이순

신이 문과 응시의 꿈을 접고 무과 시험준비를 시작한 것은 결혼 후 5개월이 지난 1566년부터였다.<sup>181)</sup> 그리고 처음으로 훈련원 원시(訓練院 院試)에 응시한 것은 그가 무예를 연마한 지 6년 만인 1572년이였다. 그러나 낙마(落馬)함으로써 실격하게 되었다. 그가 낙마했다는 사실은 아직 무과에 합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이순신은 3년간 무예를 더 연마하여 향시를 거친 다음해(1576) 병자 식년무과(정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실로 그가 무과를 준비한 지 10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합격자는 법정인원보다 1명이 많은 29명이였다. 이순신은 29명 중 12등을 차지했다.<sup>182)</sup> 이순신의 나이는 32세였다. 당시 이순신과 함께 합격한 사람의 평균나이는 34세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순신이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지닌 노력형 인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거북선이 처음 참전한 당포 해전(1592. 5. 29~6. 10)

여수로 돌아온 이순신 함대는 전선과 무기를 정비하면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시 출동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순신은 수도방위나 임금을 호위하는 근왕군보다 바다로 나가 왜군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여 왜의 지상군의 병력 증강과 군수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왜군을 격퇴할 수 있는 근본 전략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순신이 재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경상우수사 원군으로부터 부산의 왜군이 거제도 서쪽을 침범하여 연해에서 분탕질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왜군의 거제도 점령과 서쪽 바다로의 진출은 조선 수군의 해상 통제를 위축시키고 그들의 수륙병진정책을 원활하게 하려는 계략이었다. 왜의 수군의 계략을 간파한 이순신은 즉시 출전하려 했지

181) 장학근, 『무과합격·군관생활·전술능력에 나타난 이순신의 무학연구』(군사 제 49호, 2003. 8), p.158

182) 병자무과방목(丙子武科榜目)

만 합세하기로 한 전라우수군(全羅右水軍)이 도착하려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런 때에 경상우수사 원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찰이 도착했다.

“왜적선 10여 척이 이미 사천과 곤양(사천시 곤양면) 등지를 침범 하였으므로 저는 남해의 노량으로 피신하였소.”<sup>183)</sup>

수사가 피신하고 왜의 수군 선단 10여 척이 사천 해상을 횡행하는 상황이라면 머지않아 전라도 해상으로 왜의 군선이 몰아닥칠 것이다. 이순신은 그렇게 되기 전에 출전하여 먼저 왜의 수군을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2차 출전의 전투력은 1차 출동 때와 대동소이하지만 전주 출장을 마치고 귀대한 순천부사 권준이 합세하고, 1차 출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거북선을 참여케 한 것이 달라진 것이었다.

2차 출전 때 이순신은 협선과 포작선을 참전시키지 않는 대신 거북선을 처음 참전시켰다. 그것은 1차 출전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판옥선은 선체가 커 전투원과 대포를 많이 실어 전투력이 우수한 반면 속도가 느리다는 전술적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순신 함대의 2차 출전은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이다. 5월 29일 출항할 때 이순신의 함대 세력은 거북선을 포함한 군선 23척이었다. 함대는 순천 앞바다를 경유하여 노량 해상에 이르렀을 때 원균이 하동 선창에서 3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왔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왜선 한 척이 곤양에서 사천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왜선은 첩보선인 듯했다. 이순신은 왜선을 추격하라고 명령했다. 남해 현령 기효근이 왜선을 추격하자 전세가 불리해진 왜선은 배를 버리고 육상으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빈 배만 격침시키고 본대로 돌아왔다. 이순신 함대는 속력을 올려 왜의 군선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천으로 향했다. 예상은 적중

183) 『이충무공전서』 장계(狀啓) 제2차 당포·당항포 등 네 곳의 승첩을 아뢰는 계본

했다. 이순신이 먼 해상에서 사천항을 바라보았을 때 왜의 군사 400여 명이 산 능선을 따라 줄지어 서서 무엇인가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으며, 산 정상에는 무수한 깃발이 날리고 그 옆에 장막이 쳐진 것으로 볼 때 지휘 본부인 듯했다. 그리고 산 아래 해안에는 12척의 누각대선이 줄지어있었다. 이순신 함대가 포구로 접근하자 산등성이에 모여 있던 왜놈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고 칼을 뽑아 허공에 휘젓기도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함대에게 공격을 명할 수 없었다. 썰물이라 판옥선과 같은 대형 군선이 포구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장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저 왜놈들이 저토록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물러가는 것같이 하면 왜놈들이 반드시 배를 타고 나와 우리와 싸우려 할 것이다. 우리는 저놈들을 바다로 끌어내어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184)</sup>

이순신 함대가 전술적 후퇴를 하자 왜군들은 기세를 올려 배를 타고 이순신 함대를 쫓아오고 있었다. 때마침 조수가 밀려들어 판옥선 같은 대선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순신은 “뱃머리를 돌려라.” 하고 명령했다. 판옥선들이 선회하기 시작하고 거북선은 날렵하게 적진 속으로 들어가 천·지·현·황자 등 각종 총통을 발사하여 적의 전술진형을 흐트러자 화력이 우수한 판옥선이 각종총통과 불화살을 발사했다. 이순신 함대는 왜선 12척을 모두 불태워 격침시켰다. 이 해전에서 이순신도 왼쪽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으며, 군관 나대용과 사부(射夫)<sup>185)</sup>와 격군<sup>186)</sup> 다수가 부상했다. 6월 1일 함대는 고성 의 사랑도 뒤편에서 진을 치고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8시경 왜의 군선이 당포 선창에 정박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함대는 곧바로 당포로

184) 『이충무공전서』 장계(狀啓) 제2차 당포·당항포 등 네 곳의 승첩을 아뢰는 계본

185) 활 쏘는 사람

186) 노 젓는 사람

향했다. 당포에 도착하자 약 300여 명의 왜군이 절반은 민가에서 약탈과 방화를 하고 있었으며 절반은 험한 지형을 이용해 함대로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포구에는 왜의 크고 작은 군선 21척이 있었는데 그중 큰 배 한척은 높이가 6~7m나 되는 층루(層樓)선으로 붉은 휘장을 하고 있었고 그 속에 왜의 장수가 승선해 있었다.

이순신은 먼저 거북선을 층루선 쪽으로 돌진시켜 각종 총통과 대장군전을 쏘아 그 배를 깨트렸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중위장(中衛將) 권준이 활로 왜의 장수를 맞히어 쓰러트리자 우리 군사들이 적선으로 뛰어들어 왜군 장수의 머리를 베었다. 지휘관을 잃은 왜군은 대항하지 못하고 뿔뿔이 도망치려 했다. 이순신 함대는 적선을 추격하여 21척의 왜선을 모두 격침시켰다.

6월 4일 이순신 함대에 사기를 높일 일이 있었다. 그동안 해전에 동참하지 못했던 전라우도 함대(수사 이억기)가 이순신 함대와 합류한 것이다. 이억기 함대는 판옥선 25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억기 함대의 합류로 연합 함대는 전선이 51척(이순신 23척, 이억기 25척, 원균 3척)이나 되었다. 이순신·이억기·원균 등 3수사는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때 왜에서 귀화하여 해안가에 살고 있던 김모(金毛) 등이 '당포에서 쫓긴 왜의 군선이 고성의 당항포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 주었다. 조선 연합 함대는 즉시 당항포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왜의 군선 26척이 정박해 있었다. 포구가 협소하여 본격적인 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순신은 적선과 적군을 모두 격침 사살하기 위해서는 왜의 군선을 바다로 유인해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순신은 포구 봉쇄를 풀고 후퇴를 가장하여 바다로 나오자 왜의 함대도 그들의 대장선을 옹위하면서 모든 배들이 바다로 나왔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북선이 왜의 지휘선으로 돌진하여 대장군전으로 배를 깨트려 항해를 어렵게 만들자 주변의 판옥선들이 집중 포화를 가해 그 배를 격침시켰다. 지휘선을 잃은 왜의 군선들은 우왕

좌왕했다 그때를 이용하여 우리 군선들이 포위 섬멸전으로 적선 한 척만 고의로 살려 보내고 나머지 적선 모두를 격침시켰다. 그리고 살려 보낸 적선 한 척이 포구 내에 남아 있던 왜군을 싣고 다시 포구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6일 새벽 예상한 대로 100여 명의 왜군을 태운 왜선 한 척이 새벽을 이용하여 포구를 나오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선은 기습전을 감행하여 적선과 적군을 격침 사살했다. 이후 연합 함대는 6월 7일 거제도 울포에서 적선 7척을 격파하였다. 이후 연합 함대는 물운대까지 진출하여 적정을 살핀 후 6월 10일 남해 미조항에 도착하여 연합 함대를 파하고 각각의 본영으로 귀항했다.

이순신 함대가 주축이 된 연합 함대는 2차 출전에서 사천에서 13척, 당포에서 21척, 당황포에서 30척, 울포에서 7척 등 총 71척의 왜군선을 격침시켰다. 이순신 함대가 2차 출전에서 적선 71척을 격침시키고 적병 88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이룩했다. 2차출전의 승리 요인은 이순신이 거북선을 돌격선으로 운영하여 적의 전열을 혼란시킨 후 화력이 우세한 판옥선으로 적의 지휘선을 격침시킴으로써 적의 지휘통신을 차단한 데 있었다.

#### 제해권을 장악한 한산 대첩(1592. 7. 6~7. 12)

왜의 수군이 이순신 함대에겐 연패하자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왜의 지상군은 인원과 무기 그리고 군량 등 군수품의 부족을 겪게 되었다. 해상을 통해 병력·무기·군량 등을 공급받던 왜의 지상군이 해상교통로를 차단당하자 군수품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군사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왜의 지상군은 평양에서 북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전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육전에 참가하고 있던 수군 장수들에게 해전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그 명령에 따라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쿠키 요시타카(九鬼嘉隆)·가토 요시아끼(加藤嘉明)가 수군에 복귀하여 웅천과 부산에

서 함대를 지휘했다. 경상도 해상에 왜의 함선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자 이순신은 3도 합동 함대를 구성하여 3차 출전하기로 결심했다. 조선 함대의 3차 해상작전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다. 이순신 함대 전선 23척, 이억기 함대 전선 24척, 원균 함대 전선 7척으로 구성된 합동 함대는 7월 동풍이 심하게 불어 파도가 높은 바닷물을 헤치며 저녁 무렵 고성의 당항포에 도착했다. 그때 목동 김천손(金千孫)이 '왜군선 70여 척이 오늘 오후 2시쯤 거제도 북쪽 영등포 앞바다를 지나 고성과 거제도 경계인 견내량(見乃梁)<sup>187</sup>에 머물고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순신은 7월 8일 아침 일찍 왜의 함대가 있다는 곳으로 함대를 출전시켰다. 견내량 근처 바다에 도착했을 때 왜의 척후선으로 보이는 대선 1척과 중선 1척이 우리 함대를 발견하고 그들의 본대가 있는 포구로 급히 되돌아갔다. 연합 함대는 그들을 추격하여 포구 입구에 도착하자 첩보 내용대로 왜군선 73척이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견내량 해역을 수심이 얇고 암초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수로의 폭이 최소 180m, 최소 수심이 2.8m, 수로의 길이가 4km에 이르고 있어 판옥선과 같은 대형 군선이 기동하기 불편한 곳이었다. 이순신은 이곳이 판옥선과 같은 대선으로 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육지가 가까워 왜군이 전세가 불리해지면 육지로 도망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순신은 왜군선을 대양으로 유인하여 격파하기로 결심했다. 이순신은 먼저 판옥선 5·6척을 적진으로 들여보내 왜의 함대의 선봉부대와 해전을 벌리다가 패하는 채 물러나고 왜의 본대가 추격에 나서면 그들을 넓은 바다에서 격침하기로 했다. 이순신의 구상대로 판옥선 5·6척이 거짓으로 패해 한산도 앞의 넓은 바다로 나오자 왜의 주력 부대가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왜의 함대가 모두 한산도 넓은 바다로 나온 것을 확인한 이순신은 학익진(鶴翼陣)을 형성하면서 일제

---

187) 거제도와 고성 사이의 협수로

히 왜의 함대를 향해 돌격·공격하기 시작했다. 거북선이 적진으로 돌입하여 적의 지휘선을 집중공격하자 적진이 흩어졌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판옥선이 총통과 불화살을 발사했다. 이 해전에서 조선 연합 함대는 왜의 대선 35척, 중선17척, 소선 7척 등 59척을 격파했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왜의 군선 중 14척이 응천 쪽으로 후퇴하여 도망쳤다. 그중에는 왜 함대의 지휘관인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도 포함되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장과 장수들은 전사하거나 자결했다. 또한 왜의 병사 2,000여 명이 한산도 해전에서 전사했다.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한 조선 연합 함대는 견내량 안쪽 바다에서 진을 치고 하루 밤을 보내고 7월 9일 응천의 안골포에 외선 40여 척이 머물고 있다는 탐담선(첩보선)의 첩보가 있자 즉시 출항하려 했지만 파도가 높아 출항하지 못하고 거제도 온천도에서 다시 하룻밤을 보냈다. 7월 10일 새벽 연합 함대는 안골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왜의 대소군선 42척이 정박해 있었다.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가 단독으로 군선을 이끌고 한산도로 출전하자 그를 지원하기 위해 왜의 수군 장수 쿠키 요시타카(九鬼嘉隆)와 가토 요시아끼(加藤嘉明)가 휘하 군선을 김해에서 안골포로 이동시킨 것이었다.

안골포는 포구의 지세가 좁고 수심이 얕아 판옥선이 전투하기에 매우 불편한 곳이었다. 이순신은 적선을 유인해 내려 했으나 한산도에서 왜의 수군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왜의 함대는 해전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순신은 판옥선 5·6척을 편대로 구성하여 교대로 포구를 출입하면서 적선을 공격하는 전법을 구사했다. 전투가 하루 종일 계속되자 왜의 군선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잔존병력은 육지로 올라갔다. 연합 함대는 주변 산골로 피신한 우리 백성들이 왜군에게 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여 공격을 멈추고 물리나와 안골포 근처 해상에서 밤을 보냈다. 연합 함대의 계속되는 공격에 군선 20여 척을 잃게 된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쿠키 요시타카(九鬼嘉隆)



·가토 요시아끼(加藤嘉明) 등 세 장수들은 항해가 가능한 군선을 타고 야간을 이용해 안골포를 탈출해 부산으로 도주했다.

11일 새벽 연합 함대가 안골포를 포위하고 포구 내를 수색했지만 왜군과 군선은 보이지 않고 전날 전투를 벌인 흔적만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이순신은 함대를 이끌고 김해 일대까지 추격했지만 왜의 군선은 발견하지 못했다. 연합 함대는 김해에서 가덕도로 회항하면서 군함시위를 벌여 왜의 군선의 서진 위세를 크게 위축시킨 후 7월 13일 연합 함대는 각기 그들의 부대로 돌아갔다. 제3차 출전에서 이순신은 한산도 앞바다와 안골포의 해전에서 승리를 이룩했다. 우리는 이순신의 3차 출전, 즉 한산도와 안골포의 해전을 합쳐 한산 대첩이라고 한다. 3차 출전에서 두 차례 해전을 치른 전과는 왜군선 79척을 격침시킨 이외에도 참획한 수급 340급과 사살 2,000여 명이었으며 아군 측 피해는 전사 19명, 부상자 116명으로 지금까지 해전에서 입은 피해 중 가장 많았다. 이는 한산도 해전이 그만큼 치열했음을 의미한다.

한산도 해전의 의의는 첫째, 유인작전의 구사, 학익진으로 적 선단 포위 전술 구사, 압도적 화력으로 적 선단 전술능력 제압 등 해전사적 의의가 매우 큰 것이다. 둘째, 전쟁 전체에 미친 영향이다. 유성룡이 “이순신이 한산대첩을 거두어 왜의 수륙병진(水陸竝進) 전략을 분쇄하였고, 더 나아가 전라도와 충청도를 보전해 그곳을 바탕으로 조선이 중흥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듯이 이순신의 한산 대첩은 지상의 왜군이 북진을 포기하고 강화회담에 응하도록 했으며 또 지상군을 남해안으로 후퇴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전화를 입지 않은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군의 병참기지를 습격하고 와해된 조선의 지상군병력이 그곳의 백성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왜군의 병참기지를 공격한 부산포 해전(1592. 8. 24~9. 2)

한산 해전 이후 왜군은 후방 병참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북상하던 왜의 지상군의 병력을 후방으로 돌려야 했고, 부족한 군수품과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그들의 병참선단을 남서해로 우회시켜해야하는 전술적 고충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군의 이러한 동태를 파악한 경상우도 순찰사 김수(金睟)는 이순신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북쪽으로 올라갔던 왜군이 양산과 김해 등지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왜로 도망치려는 것 같습니다.”<sup>188)</sup>

이순신은 김수의 공문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왜의 지상군이 남쪽으로 후퇴한 후 왜로 도망칠지 모른다고 판단했다. 또한 첩보원으로부터 ‘부산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왜선 470여 척이 무리지어 정박해 있었다’라는 첩보도 입수되었다. 전라좌우도 연합 함대는 8월 24일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했다. 연합 함대의 항적을 보면 첫째 날 남해 관음포에 도착하여 잠시 머문 후 자정 무렵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사천의 모자랑포에 정박하였다. 그곳에서 밤을 보낸 후 25일 약속한 대로 사랑도에서 원군 함대와 합세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연합 함대가 다시 결성된 것이다. 조선 함대 세력은 전선 74척, 협선 92척 포작선 166척이었다. 26일은 비바람으로 항해하지 못하다가 날이 저물면서 비바람이 그치자 거제도 근처로 이동했다. 27일에는 웅천의 완포로 이동했으며 28일 새벽부터 수색선단을 편성하여 김해와 양산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연합 함대는 출전 이후 5일 동안 왜의 함선을 목격하지 못했다. 29일 연합 함대는 낙동강 하구를 거쳐 동래의 장림포까지 진출했다. 그곳에서 적선 6척을 만나 모두 격침시켰다. 9월 1일 새벽에 출발한 연합 함대는 오전 8시경 몰운대를 지나 동쪽으로 화촌구미까지 진출했다. 그곳에서 연합 함대는 적의 대선 5척, 다대포에서 대선 8척, 서평포에서 대선 9척, 그리고 절영도 앞바다에서 대선 2척

188) 『임진장초(壬辰壯草)』 1592년 17일자

을 만나 모두 격침시켰다.

이순신은 협선을 부산포로 보내 정탐해 오도록 했다. 그 결과 부산포에는 왜의 대소군선 470여 척이 정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연합 함대가 부산포에 이르러 포구 내의 적 세력을 확인한 결과 포구 내의 왜군선은 470여 척이 군데군데 집결해 있었다. 그리고 지상에는 요새화 된 진지가 있어서 화력으로 해안에 정박해 있는 그들의 선박을 보호할 수 있었다. 적세를 확인한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경상우수사 원균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첫째, 부산포의 적 세력은 연합 함대보다 우세하고 지상의 진지도 요새화 하여 우리가 해상공격을 하기에 불리하지만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회군하면 적의 사기를 높여주는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공격해야 한다.

둘째, 연합 함대는 장사진(長蛇陣)을 형성하여 일제히 포구 내로 진입, 적 선단을 공격한다.

연합 함대의 기습 공격을 받은 왜군선은 출전을 포기하고 요새화된 진지로 병력을 이동시켜 지상에서 포와 조총, 그리고 불화살로 연합 함대의 접근을 저지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연합 함대는 천자포, 지자포로 장군전·피령전·장편전·철환 등을 적진을 향해 발사하는 한편 해안에 열 지어 정박해 있는 적선을 각종 화포로 분쇄하기 시작했다. 첫날 연합 함대는 적선 100여 척을 격침시켰다. 전투는 이튿날인 9월 2일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왜군은 해전을 포기하고 모두 지상으로 올라갔으며 수심이 얕아 우리 군선이 더 이상 해안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이순신의 전투 전 목표는 왜군과 왜군선을 모두 사살하고 격침시키는 것이었지만 왜군이 전을 포기하고 육지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해상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왜군이 주변 양민에게 끼칠 만행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포구가 협소하고 일기가 악화되어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아군 전선끼리

부딪쳐 군선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군량도 부족해졌다. 이순신은 지상의 육군이 하루빨리 재건되어 수륙합동으로 부산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본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비록 부산의 왜군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지만 연합 함대를 지휘했던 이순신은 “조선 수군이 4번 출전하여 10회의 해전을 모두 승리하였지만 그 전과를 논한다면 부산포 해전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sup>189)</sup> 이순신 스스로 부산포 해전에 이와 같은 의의를 두게 된 것은 전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군의 본거지를 두려움 없이 공격하여 적선 130여 척을 격파하고 왜군의 갑옷과 총통, 그리고 군선의 각종 기구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우리 측의 피해는 전사자 6명과 부상자 25명 그리고 수척의 군선이 부딪쳐 손상을 입은 것뿐이었다.

이순신 함대가 주력이 된 조선의 연합 함대의 활동으로 조선 측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로 인해 왜의 수륙병진 전략은 좌절되었다. 이로 인해 왜군은 육전과 해전을 거의 포기하고 남해안으로 후퇴하여 그곳에 성을 쌓고 조선 수군의 공격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 근왕군 상황

선조가 도성을 떠나 개성에 이르렀을 때, 왜군이 도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선조는 가용병력을 임진강 방어에 투입하는 한편, 심대(沈垲)를 충청·전라·경상도로 보내 도성의 수복과 국왕을 호위할 근왕군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5월 중순 충청도에 도착한 심대는 충청감사 윤선각과 전라감사 이광을 만나 급히 근왕군을 조직하라고 촉구했다.

전라감사 이광은 전주·나주·광주 지역에서 군사 4만여 명을 모집했고, 충청감사 윤선각은 8천여 명을 모았다. 그들이 조직한 근왕군 4만 8천여 명은 서둘러 도성(한성)을 향해 북상했다. 근왕군은 북상하

---

189) 『이충무공전신』 장계 <부산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

던 중 수원에서 인근에 왜군이 있다는 첩보를 접하게 되었다. 근왕군은 왜군을 제압한 후 한성으로 북상하기로 했다. 근왕군은 왜군이 진치고 있다는 용인으로 진출했다. 당시 용인의 왜군은 조선군병력이 북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성에 있는 병력을 지원받아 조선군과 격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왕군은 급조한 오합지졸인데다 먼 거리 행군으로 지쳐 있었다. 근왕군은 용인 문소산 기슭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했다. 그때 왜군이 조총을 발사하면서 기슭 공격을 해왔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조선군은 곧바로 전열이 붕괴되었다. 놀란 진라감사 이광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군졸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도망쳤다. 지휘관이 없는 군사는 삽시간에 흩어졌다. 남도 근왕군 4만 8천여 명이 왜군 2천여 명에게 참패를 당하고 분산됨으로써, 조정은 한성 이남 지역에서 더 이상의 관군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조선이 배제된 강화회담

충주의 제3방어선이 붕괴되고 근왕군이 패산했다는 소식을 접한 선조는 파천(播遷)을 결행하였다. 국왕이 도성을 버리고 파천을 단행하는 급박한 시기에도 조정은 명나라에 군사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단지 왜군이 침략했다는 사실만 명나라 예부(외교부)에 통보했다. 그것도 전쟁이 발발한 지 28일이 지나서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당시 전황이 너무 급박하여 지원군을 요청할 경황이 없었다. 둘째는 조선이 원군을 요청하면 명나라는 요동병이나 광동병을 파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들은 모두 난폭한 호달(胡韃)족으로 그들이 온다면 패강(청천강) 서쪽 고을이 황폐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sup>190)</sup>

한편, 명나라는 왜의 조선 침략계획부터 전쟁경과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으나 지원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의 미숙

190)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무자(戊子)

한 외교로 명나라가 조선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나라는 전쟁 전부터 ‘조선이 왜의 향도’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명나라의 의구심은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19일 만에 한성이 실패되고 국왕이 서둘러 파천을 단행한 것을 ‘조선이 왜와 공모해 명을 침략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게 했으며, ‘조선의 왕은 가짜 왕일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가지게 하였다.<sup>191)</sup>

조선이 공식으로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한 것은 1592년 6월 1일이다. 당시 왜군이 평양 가까이 진군하자 불안을 느낀 선조는 평안도 속천(肅川)으로 이동하였다. 진황이 계속 불리해지자 대사헌 이덕형(李德馨)이 청원사(請援使)<sup>192)</sup>를 자칭해 요동으로 가 요동도사<sup>193)</sup>에게 눈물로 지원군을 요청한 것이다.<sup>194)</sup>

그때까지 명나라는 조선을 충실한 사대의 신하나라로 보지 않았다. 당시 친 조선파였던 행인사행 설번(薛藩)마저도 “신이 걱정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조선의 패배로 명의 내륙이 진동할 것이 두렵다.”라고 발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명나라 관리들은 사대의리로 조선을 돕는 것보다 내륙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북진하는 왜군이 단지 대동강만 넘지 않는다면 명나라 본토는 안전함으로 조선에 지원군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 관료들의 일반적 견해였다.

불행하게도 조선 지상군의 대동강 방어선이 붕괴되자 의주에 머물고 있던 선조가 요동망명을 요청했다. 그래서야 명나라는 전장(戰場)을 조선 영토 내로 한정시키기 위해 조승훈(祖承訓)의 요동수비대 3,500명을 파견하여(1592년 7월 10일) 대동강에서 왜군의 북상을 저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최세신(崔世臣)과 임세록(林世祿)을 비밀리에 조선으로 보내 “조선이 왜와 동맹을 맺고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

191) 송정현, 『임진왜란 발발과 경과』, 『한국사』29(국사편찬위원회 1995), p.72.

192) 원군을 요청하는 사신

193) 명의 요동 방어책임자

194) 『선조실록』 선조 25년 6월 기축(己丑)

또한 조선 왕은 북도로 피신하고 가짜 왕이 왜군의 향도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도록 했다.<sup>195)</sup>

궁지에 몰린 조선 조정은 왜의 국사(倭國使)가 조선에 전달한 국서(國書) 중에 “왜는 조선과 원한이 없다. 단지 중국을 침범하려는 것뿐이다.”라는 기록과 조선의 회답서 중 “왜가 중국을 침략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 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여 조선이 명의 충실한 사대신국(事大臣國)이라는 점을 강조했다.<sup>196)</sup> 조선의 해명으로 명의 의심이 어느 정도 풀릴 즈음 ‘조선이 왜의 향도’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명나라 조승훈 군이 7월 17일 평양성 공격에서 심한 타격을 입고 퇴각하자, 명 조정은 왜군이 곧 압록강을 넘어 중국 내륙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명은 대대적 군사력을 조선에 파견하여 왜군을 격퇴시키려 했다. 명은 왜군을 격퇴시킬 수 있는 병력을 10만으로 파악했다. 그것은 조선에 체류 중인 왜군병력을 10만 정도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명나라는 10만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기로 하고 군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번(薛藩)을 파견했다. 설번은 선조를 배알한 자리에서 명나라 지원군의 수와 군량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명나라 군 10만 정도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 리 먼 길로 군량을 운반할 수 없으니 은을 갖고 와 조선에서 쌀과 교환하면 어떻겠습니까?”<sup>197)</sup>

이때 선조는 그가 원하는 지원군 수를 말하지 않고 “조선은 가난한 나라여서 은을 갖고 와도 쌀과 교환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후 명의 지원군 5만을 요구했다.<sup>198)</sup>

---

195)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무자(戊子)

196) 『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기미(己未)

197) 『선조실록』 선조 25년 7월 병술(兵戌)

198) 『선조실록』 선조 28년 7월 신유(辛酉)

명나라는 본토의 안전방어선을 조선의 대동강으로 한정했으나 곧 대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왜군이 명나라의 국경을 넘어 올지 모른다는 위기위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명 조정은 이 위기를 극복할 병력을 최소 10만으로 보았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삼경(三京)<sup>199</sup>이 함락된 절박한 상황에서 명에게 10만 이상의 병력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조가 명나라가 지원하겠다는 수의 절반을 요구한 것은 명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명 조정은 조선을 다음과 같이 힐책하고 나섰다.

“그대 나라가 위급하다고 하면서 요청한 군사가 어찌 그리 적은가? 만일 군량 지원이 어렵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실어갈 것이고 우리 군사가 귀찮게 하는 것이 두렵다면 명군의 군율을 엄하게 할 것이다.”<sup>200</sup>

명의 힐책이 있자 조선은 지원군 반감 요청에 대하여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왜가 명나라를 침략하려 했을 때 조선이 왜를 책망하자 왜가 분노하여 조선을 침략했다.”라는 사대의리론(事大義理論)만을 강조하여 지원군 파견을 요청했다.<sup>201</sup> 그러자 명은 “왜가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다면 가까운 절강(浙江)이나 영파(寧波)로 공격하지 않고 조선을 경유해서 명나라를 치려고 했겠느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과 명나라가 지원군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때, 대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 명은 조승훈(祖承訓)이 지휘하는 요동수비대를 보내 평양을 시수하게 했지만 그들마저 평양에서 대패했다. 명 조정은 1592년 12월 명군 43,500명을 파견했다.<sup>202</sup> 명은 조선이 요청한 대로 5만 미만의 병력을 조선에 보내 평양을 시수하도록 했다.

명군은 왜군 15,000여 명이 주둔해 있는 평양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199) 한성·개경·평양

200) 『선조실록』 선조 26년 1월 신유(辛酉)

201) 『선조실록』 선조 26년 1월 신유(辛酉)

202) 『선조실록』 선조 26년 1월 병인(丙寅)



다. 이때 도원수 김명원이 지휘하는 조선군 8,000여 명이 명군과 협력하여 평양성 탈환전을 전개했다. 전투는 3일간 계속되었으며, 명군은 화공전(火攻戰)으로 성내를 초토화 시킨 후 병력을 성내로 진입시켜 대승을 거두었다. 평양성이 수복되자 명군은 개성으로 진출하였다. 명군의 신속한 군사행동으로 평안도·황해도·경기도·강원도의 4도가 회복되는 듯했다. 명군이 평양성의 왜군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왜군이 보유하지 못한 화포를 이용하여 적진을 무력화 시켰기 때문이다. 평양성을 탈환한 명군 대장 이여송(李如松)은 첨병부대가 벽제관에서 왜군 80여 명을 참획했다는 보고를 받자, 1593년 1월 27일 남군의 포병을 대동하지 않고 북군의 기병만 이끌고 벽제관으로 진출했다. 명군이 여석령을 지나 진흙 벌로 들어섰을 때 왜군이 기습했다. 명군의 병기란 단검과 기마뿐이었다. 그러나 진흙에 빠진 말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단검은 왜군의 조총과 장검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백제관 전투에서 패한 명군은 피주로 퇴각했다.

왜군도 평양을 점령한 후 더 이상 북상하지 못했다. 무리한 북진으로 전선이 길어져 도처에서 조선의 의병에게 후방이 교란되었으며, 해전에서 조선 수군에게 연패하자 군수품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다. 동절기 의복을 갖추지 못한 왜군은 한파가 몰아치자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전열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 왜군은 명군에게 강화의사를 타진하면서 경상도 지역으로 후퇴했다.

왜군이 한성에서 퇴각하자, 조선은 명군에게 후퇴하는 왜군을 군사력으로 섬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이 명군에게 왜군을 섬멸해 줄 것을 요청한 논리는 ‘조선은 명나라의 사대 적자(嫡子)<sup>203)</sup>이고, 왜는 명나라의 패륜아(悖倫兒)이므로 명은 조선을 도와 왜군을 응징해야 한다’라는 것이다.<sup>204)</sup> .

---

203) 정실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

그러나 명나라 경략 송응창(宋應昌)은 “왜군이 중국 국경을 넘지 않았으니 역적으로 몰아 토벌할 수 없다.”라고 조선의 요구를 거절했다. 강화회담의 실무자로 파견된 왕통판(王通判)이 “명나라는 조선과 왜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으니 조선은 왜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sup>205)</sup> 이렇게 명은 군사력으로 왜군을 섬멸해 달라는 조선의 요청을 거부하고, 강화회담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려 했다. 당시 조선이 명에게 결전(決戰)을 요구하면서 왜와 화해를 거부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였다.<sup>206)</sup>

첫째,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 조선의 길을 빌려 달라’(假道入明)라는 왜의 요구를 거절해, 조선이 명나라가 받을 왜의 침략을 대신 받은 것이다.

둘째,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 선대왕의 능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조선의 철천지원수는 왜다.

조선이 위와 같은 논리로 강화를 반대하면서 군사력으로 왜군을 섬멸해 줄 것을 요구하자, 명은 조선에 파견한 명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sup>207)</sup> 이제 조선은 더 이상 결전(決戰)을 명나라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명·일 간의 강화회담 추이를 관망하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1593년 3월 명 조정은 심유경(沈惟敬)과 주홍모(周弘謨)를 왜 군영에 보내 다음과 같은 강화조건을 왜군 측에 요구했다.<sup>208)</sup>

- (1) 조선의 영토를 모두 반환할 것.
- (2)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들을 모두 송환할 것.

204) 『선조실록』 선조 26년 4월 정해(丁亥)

205) 『선조실록』 선조 26년 4월 정해(丁亥)

206) 『선조실록』 선조 26년 4월 기유(己酉)

207) 『선조실록』 선조 26년 5월 계해(癸亥)

208) 이형석, 『임진전란사』중,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pp.845~846

- (3)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 황제에게 사죄의 글을 바치면 명 황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왜의 국왕으로 책봉할 것임.

명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화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단지 동아의 패권국이라는 관념에서 왜를 조공국(朝貢國)에 편입시켜 상국(上國)의 지위를 고수하려 했을 뿐이다. 이러한 명의 입장은 종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왜의 군부는 불리해진 전세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화조건을 명군 측에 제시했다.<sup>209)</sup>

- (1) 명은 왜에 강화사(講和使)를 파견할 것.
- (2) 명군은 조속히 요동으로 철수할 것.
- (3) 왜군은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한다.
- (4) 왜군도 4월 8일부터 한성에서 철수한다.

왜의 강화안을 보고받은 명의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은 명 조정의 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왜에 위장 강화사를 파견하여 강화교섭을 계속한다는 독단적 결정을 하였다. 그는 부장 사용재(謝用梓)와 서일관(徐一貫)을 강화사로 위장시켜 심유경(沈惟敬)과 함께 왜군 진영에 보내 왜군의 철군을 촉구한 후, 왜로 건너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항복문서를 받아오게 했다.

1593년 4월 18일 왜군이 한성에서 철수하여 서생포에서 순천에 이르는 남해안에 성을 쌓고 주둔하기 시작했다. 당시 왜군의 남하는 강화교섭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해전에서 연패하여 군량과 군수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왜군이 한성에서 철수하자 사용재와 서일관은 심유경을 부산에 머

---

209) 이형석, 『임진전란사』중,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pp.845~846

물게 한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 참모인 3봉행<sup>210</sup>과 고니시 유키나가를 따라 바다를 건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 나고야에 도착했다. 그러나 사(査)·서(徐) 두 사람은 정식 강화사가 아니었으므로 종전문제를 언급하지 못하고 강화회담의 분위기만 조성하고 귀국했다. 그들이 귀국길에 오를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7개 항의 강화조건을 제시했다.<sup>211</sup>

- (1) 대명황제의 공주를 왜의 후비로 삼을 것.
- (2) 명·일 간의 무역을 재개하여 왜의 관선(官船)과 사선(私船)을 왕래하도록 할 것.
- (3) 명·일 양국의 대신이 왕래할 것을 서약 문서를 교환할 것.
- (4) 조선의 4도를 왜에 할양할 것.
- (5)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볼모로 보낼 것.
- (6) 왜는 포로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한다.
- (7) 조선의 충신이 왜에게 영원한 행복을 서약할 것.

이와 같은 왜의 요구조건은 명나라가 사대관계를 이용하여 왜의 상국이 되려는 것에 대해, 명황제의 딸과 혼인, 조선의 분할지배, 조선의 행복서약 등을 강화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조선 전쟁의 승전국 입장에서 명과 평등관계(平等關係)를 주장한 것이다.

나고야 회담내용이 명 조정에 알려지자 봉공(封貢)은 황제의 재가 없이 결정될 수 없는 것인데 송응창이 함부로 결정하여 국가의 대사를 그르쳤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결국 1593년 12월 송응창은 파직되고 후임에 병부좌시랑 고양겸(顧養謙)이 경략으로 임명되었다. 신임 경략 고양겸은 왜란을 종식시키고 강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명·

210) 石田三成:이시다 미쓰나리·增田長盛:마스다 나가모리·大谷吉繼:오다니 요시쓰구

211) 이형석, 『임진전란사』 중,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pp.845~846.

일 양국군의 동시철수를 제안했다.

“조선에 파병된 명군을 모두 철수시키되, 왜의 봉공 요구를 수락하여 관백(도요토미 히데요시)을 왜의 왕으로 봉하고, 입공(入貢) 통로를 영파(寧波)로 정한다. 조선에 주둔한 왜군을 철수시키기로 한다.”<sup>212)</sup>

명의 제안으로 왜군 2만이 조선 남해안에 잔류하고 주력군은 왜로 철수하였다. 명군도 유정(劉縱)군 1만을 조선에 잔류시키고 주력군은 명나라로 철수시켰다.<sup>213)</sup> 잔류해 있던 유정군마저 1594년 9월 본국으로 돌아가 조선에는 왜에 대항할 군사력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로써 전쟁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조선이 배제된 채 명·일 간의 지루한 강화회담만 계속되었다. 명나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봉왕(封王, 제후)을 허락하되, 왜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왜의 사신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명 조정은 1594년 12월 30일, 이종성(李宗城)과 양방형(楊方亨)을 책봉사로 임명하여 왜로 보내려 했다.

왜군 측에서도 고니시 유키나가가가 왜로 건너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명의 책봉사가 이미 요양을 출발했음을 보고한 후, 조선의 응천으로 복귀했다. 명의 책봉사가 오사카에 도착한 것은 1595년 9월 2일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 사신의 접견을 마치자마자 외교고문인 승려 쇼다이(承兌)에게 명 황제의 칙서 내용을 검토하게 했다. 그 결과 ‘그대를 왜의 국왕으로 봉한다’라는 내용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강화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명 황실과 혼인, 조선 4도의 할양, 조선 왕자와 대신의 인질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명 황제의 칙서에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고 단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왜의 왕으로 봉한다는 내용만 있자,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다시 조선을 침략하라고 군부에 지시했다.

212) 『선조실록』 선조 27년 5월 무자(戊子) 「고양겸의 서신」

213) 『동국전란사』 외란편 제3장 조선 시대, 임진왜란 참조

## 원군 함대의 패전

1597년 2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재침을 시작한 왜의 병력은 육군 115,000여 명과 수군 7,000여 명 그리고 조선에 잔류해 있던 2만여 명을 포함해 모두 142,000여 명이나 되었다. 왜군은 1597년 1월 14일 가토 기요마사군 1만여 명을 시작으로 2월 중순 경 조선에 상륙했다. 침략군의 상륙을 확인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지침을 하달했다.<sup>214)</sup>

- (1) 전라도를 철저히 공격하라. 그런 다음 충청도와 기타 지역을 공격하라.
- (2) 전라도 공격에 성공하면 계획에 따라 그곳에 성주를 임명하고 성곽을 보수하여 주둔하고, 부상자를 선별하여 귀환시키도록 하라.
- (3) 명나라군이 한성에서 5~6일 정도 거리로 접근하면 즉시 보고하라. 내가 바다를 건너가 명군을 섬멸한 후 명나라로 진격할 것이다.

왜군은 임진왜란 때와 달리 전라도를 먼저 공격하려 했다. 그 이유는 임진년(1592)에 왜군이 경부축선을 따라 성급히 진격하자 공격받지 않은 전라도 지역에서 의병과 수군이 일어나 도처에서 왜군을 공격했고, 그 결과 왜군은 병력과 군수품 부족에 시달리다 후퇴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왜군은 다음과 같은 전술방침을 세웠다.

“임진년 우리가 조선 8도를 모두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전력이 수로(水路)를 통해 서로(西路)<sup>215)</sup>에 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군대를 수륙으로 나누어 조선의 해상과 육지를 차단할 것이다.”<sup>216)</sup>

이 방침에 따라 조선을 다시 침략한 왜군은 1597년 4월, 다대포·

---

214) 모리수원기(毛利秀元記) 권3

215) 황해

216) 『난중잡록』3, 정유 8월 20일

부산포·서생포에 교두보를 확보한 후, 거제·안골포·가덕도 등지를 장악하고, 김해·창원·함안·진주·고성·사천 등지를 왕래하면서 작전지역을 확대하였다. 경상도 연안을 장악한 왜군은 7월이 되자 수륙합동으로 한산도의 조선 수군을 와해시킬 계획에 착수했다. 그것은 조선 내 유일한 항전 세력(抗戰勢力)인 조선 수군을 괴멸시켜 그들의 수륙병진 전술(水陸竝進 戰術)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미 조선의 명장 이순신을 파직 투옥시키는 데 성공한<sup>217)</sup> 왜의 군부는 요시라(要時羅)로 하여금 ‘왜의 후속 선단이 부산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고의로 누설하여 조선 수군을 부산 앞바다로 유인하려 했다. 왜의 흥계를 모르고 있던 도원수 권율은 원군에게 모든 전선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나가 왜군 선단이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원군은 군사력이 열세한 입장에서 넓은 해역을 방어하는 것보다 견내량 해협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건의를 했다. 그러나 도원수 권율이 원군의 건의를 이해하지 못하자 격분한 원군은 모든 전선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출전했다. 1597년 7월 14일 조선 함대가 절영도로 진출했으나 남해안 일대에 배치된 왜의 수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전세가 불리해진 원군은 휘하 함대를 거제도 북단 칠천도로 후퇴시켜 휴식을 취하던 중 왜 함대의 기습을 받아 전 함대가 괴멸되었다. 단지 전투지역을 이탈한 경상우수사 배설의 전선 12척만이 호남해역으로 분산 도주하였을 뿐이다. 조선 함대가 와해되자 왜의 지상군은 좌·우군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북상을 시도했다.

1597년 8월 3일 왜의 좌군(49,600명)은 남해안을 따라 고성-사천-하동으로 서진해 남원을 공략한 후 전주로 향했다. 우군(64,300명)은 낙동강을 건너 거창-안위를 지나 전라도로 진입한 후 진안-전주로

217) 장학근, 『충무공 이순신의 짧은 생애, 빛나는 삶』(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pp.1~25

직행했다. 왜의 수군(7,200명)은 좌군의 공격속도에 따라 해상으로 진출해 하동에서 하선하여 섬진강을 거슬러 구례에서 좌군에 합류하여 지상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왜군이 재침하여 전라도로 향하자, 조정은 예조판서 권협(權俠)을 고급사(告急使)<sup>218</sup>로 임명하여 명나라 조정에 원군을 요청했다.<sup>219</sup> 명 조정은 경락 형개(邢玠), 경리 양호(楊鎬), 제독 마귀(麻貴)를 임명하는 등 원군의 지휘 체계를 편성했다.<sup>220</sup> 그런 후 1597년 5월 8일 부총병 양원(楊元)이 요동 기병 2천 명, 6월 14일 부총병 오유충(吳惟忠)이 남병 4천 명, 제독 마귀(麻貴)가 1만 7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속속 조선에 도착했다. 조선에 도착한 명군은 다음과 같이 배치되었다.

부총병 양원(楊元)군 3,000 - 남원  
유격장 진우충(陳愚衷)군 2,000 - 전주  
부총병 오유충(吳惟忠)군 4,000 - 충주  
유격장 모국기(茅國器)군 3,000 - 청주

이후 9월 19일 부총병 이여매(李如梅) 군 15,000명 등이 도착됨으로써 조선에 파병된 명군은 6만여 명에 이르렀다. 명나라 경락 형개가 각처 명장에게 하달한 작전지침은 다음과 같다.

“한성을 지키려면 동쪽은 조령(鳥嶺)<sup>221</sup>을 지켜야 하고, 서쪽은 남원과 전주를 지켜야 한다. 남원을 지키지 못하면 동서를 모두 왜군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명군은 한성으로 후퇴하여 한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222</sup>

---

218) 급한 일을 알리는 사신

219) 『선조실록』 선조 30년 4월 을해(乙亥)

220) 『연려실기술』 권17 「명병재원(明兵再援)」

221) 충주를 말함

222) 『난중잡록』3 정유(丁酉) 「비변사계사」



전선 12척으로 왜의 수군을 막아 낼 수 있다.

왜군이 전라도를 공략한 후 서울을 향해 진격하려 하자 명나라군의 부사령관 양호(楊鎬)는 상관인 사령관 형개(邢玠)의 강화교섭 재개 주장을 뿌리치고 조선군과 연합하여 북상하는 왜군을 방어할 결의를 굳건히 하였다. 그것은 북상하는 왜군을 군사력으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 내륙까지 전쟁에 휩싸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양호는 적의 주력 15,000여 명이 천안을 거쳐 직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천안 지역으로 정예병을 급파하고 그 후방에 8,000여 명의 명군을 배치하였다. 명군은 직산 소사평에서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왜군을 패퇴시켰다. 직산 전투는 왜군의 북진을 멈추게 한 전투였다.

1597년 8월 3일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되었다. 선조는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에 다시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였다.

“이순신을 전라좌수 겸 충청·전라·경상도의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니, 그대가 부임하면 먼저 부하들을 불러 어루만지고 흩어져 도망친 사람들을 찾아다가 단결시켜 수군의 진형을 만들고, 나아가 요해지를 지켜 수군의 위세를 다시 한 번 떨치게 하면 이미 흩어진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적들도 우리가 군사력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알면 감히 두 번이나 북진하지 못할 것이다.”<sup>223)</sup>

통제사에 임명된 이순신이 그날(8월 3일) 하동을 출발하여 구례와 곡성을 거쳐 보성에 도착한 것은 1597년 8월 9일이었다. 보성은 그의 장인 방진이 군수로서 관직을 마친 곳이기도 하다. 이순신이 서둘러 보성으로 간 것은 칠천량 해전 때 경상우수사 배설이 예하 군선을 이끌고 도망친 곳이라 그곳에 가면 패전선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

---

223) 『이충무공전서』 卷首 <상중에 다시 삼도통제사를 임명하는 교서>

는 판단에서였다. 8월 19일 인근 포구인 회령포에서 배설로부터 10여 척의 군선을 회수하고 흩어진 수군 병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부서진 전선을 수리하고 흩어진 병사를 다시 모아 훈련을 시작했다. 이때 선조로부터 “수군력이 약하니 해상방위를 포기하고 육지로 올라가 방어하라.”라는 서신이 도착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해상방어의 중요성과 자신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임진년부터 5·6년 동안 왜군이 감히 충청도와 전라도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에게 전선 12척이 남아 있사오니 죽을힘을 다해 싸운다면 왜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sup>224)</sup>

이순신은 패전선 12척을 어렵게 수습하여 수군력 재건에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왜의 수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왜의 함대가 전라도를 유린한 왜의 지상군에게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남해를 돌아 서해로 북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열세한 군사력으로 우세한 왜의 함대를 제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명량수라고 생각했다.

#### 맹물 한 잔의 결의

이순신은 해전을 포기할 수 없으며 12척의 전선으로 왜의 함대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그는 회령포에서 배설이 지휘하던 8척의 병선을 인수한 후 어란과 이진 등지에서 피신해 있던 병선을 수습하여 명량 해전 직전 전선 13척과 초탐선 32척을 확보했다. 이순신이 8월 중순 조정에 보고한 순군의 군사력은 전선 12척 뿐이었으나, 8월 30일 경에 이르러서 전선 13척과 초탐선 32척으로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초탐선은 첩보선으로 활용할 수는 있었으나 승선 인원이 적고 대포를 실을 수 없어 실제 해전은 수행할 수 없는 군선

224)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행록>

이었다. 이제 이순신은 13척의 전선만으로 남해바다를 사수할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부족한 전선도 문제였지만 칠천량 패전 이후 병사들이 왜군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공포심을 없애고 전투에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 엄격한 군법을 적용하고, 적이 출몰하면 즉시 적을 추격하는 엄격성과 기민성을 보였다.

1597년 8월 25일 당포의 보자기<sup>225)</sup>가 남의 소를 훔치다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적이 왔다는 소문을 퍼트렸다. 이순신은 보자기와 헛소문을 퍼트리는 데 동조한 두 사람을 잡아다 처형하였다. 또 9월 7일 탐방군<sup>226)</sup>으로부터 왜군 함대가 어란포 앞 바다까지 출몰한다는 보고를 받고 12척의 군선을 동원해 벽과진 앞바다로 추격작전을 펼치고 돌아왔으며, 적의 야간 기습에 대비하는 경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동시에 장수들을 소집하여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죽을 각오로 싸우면 승리하고, 살려고 전쟁을 회피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훈시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한 노인이 이순신에 다가와 “장군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왜놈들이 무서워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해 온 연해 사람입니다. 장군님이 오신 이후 왜놈들의 노략질이 없어지고 있으니 저희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희들이 난리 통에 겨우 술 한 통 장만해 왔으니 저희들의 작은 성의로 여기시고 받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노인의 예상치 못한 출연으로 이순신의 훈시는 중단되었다. 병사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군의 침략이 분명한 시점에서 병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으나 이순신은 훈시를 중단하고 “오늘은 술 마시는 날이다. 모두 술잔을 들고 다시 모여라!”하고 외쳤다. 병사들은 순식간에 흠어져

---

225) 보조 어부

226) 정탐군

술잔을 들고 모여들었다. 열외자는 한 명도 없었다. 모두 술잔을 들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들을 강가로 데려갔다. 그리고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술통의 술을 강물에 부어버렸다. 병사들은 그 귀한 술이 강에 버려지는 것을 보고 못내 아쉬워했다.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순신은 먼저 술잔에 강물을 채운 후 잔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술잔에 강물을 채워라. 이 물은 맹물이 아니라 노인이 우리를 믿고 승리를 당부하는 술이다. 자, 모두 술을 마시자!”

병사들은 모두 강물을 술잔에 채웠다. 누가 먼저 외쳤는지 맹물 잔을 쳐든 병사들은 모두 “승리, 승리!”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 광경을 본 노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보잘 것 없는 촌로의 마음을 따뜻이 받아 준 이순신의 넓은 도량에 감사하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이순신이 노인의 손을 감싸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장군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놈들과 전투는 제가 할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저희들이 왜놈과 싸울 때 피난선을 모아 저 멀리서 왔다갔다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sup>227)</sup>

다음 날인 1597년 9월 16일 이른 아침에 셀 수 없이 많은 왜의 군선이 명량 해협으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선의 보고가 전해지면서 명량 해전은 시작되었다. 이때 공격해 온 왜의 군선은 133척이었는데, 피난민들이 산봉우리에서 헤아린 수자는 300척 이상이었다. 그중 133척이 먼저 명량 해협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왜군선이 통과하려고 접근한 해협은 진도와 해남군 화원반도 사이에 있는 수로로서 길이가 2km 내외이고, 가장 좁은 곳의 폭은 300m 정도로 이곳의 최저 수심은 1.9km이며, 조류의 속도는 11.5 노트로 매우 빨랐다. 이곳은 물 흐

---

227) 장학근, 『충무공 이순신의 짧은 생애, 빛나는 삶』(해양전략연구소 2002), pp. 141~144

름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와 같다하여 울돌목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한자로 명량(鳴梁)이라고 했다.

전투는 왜의 군선들이 이순신이 승선한 전선을 포위하면서 초기 전세는 조선 측이 불리했다. 조선 측 군선들은 왜군선의 척수와 기세에 놀려 전투를 회피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두려워하는 기함(旗艦)<sup>228</sup>의 장병들에게 “왜놈의 배 천 척이라도 우리 전선 한 척을 당해내지 못한다!”고 하며 전의를 고양시켰다. 이순신이 승선해 있는 전선이 적선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전투를 회피하는 주변 군선들에게 기류 신호로 불러 적선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마침 거제현령 안위와 중군선 김응함이 왜의 함대로 돌진하자 나머지 군선들도 왜의 군선과 접전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해전이 벌어지는 순간 울돌목의 바닷물이 만조가 되어 조류가 잠시 멈추었다가 조선 함대에 유리하게 남동류로 바뀌었다. 순조류를 타고 안위의 전선을 선두로 조선 군선 전체가 왜의 함대를 향해 돌진하였다. 그러나 군선 수에 있어서 왜의 군선 보다 10배나 부족했기 때문에 먼저 달려간 인위의 전선이 왜의 군선에게 포위되었다.

이순신은 전 병력을 동원해 안위의 전선을 구출하고 순식간에 적선 31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 함대는 일본 해적 출신으로 선두에 섰던 구로시마 마찌후사(來島通總)를 사살하고 그의 머리를 돛대에 걸어 적의 기세를 꺾었다. 이순신 함대의 강력한 반격으로 적의 선봉 선단 31척이 격파되었다. 선봉 선단이 와해되자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왜의 선단 100척이 명량 해협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왜군선이 명량 해협을 지나게 되면 군사력이 우세한 왜의 함대에게 역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런데 명량 해협으로 접근하던 왜의 함대가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왜의 함대는 전투를 회피하고 퇴각했을까? 그것은

---

228) 지휘관이 승선해 있는 군선

왜의 함대가 명량 해협 저 멀리 무수한 조선의 군선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완전히 괴멸시켰다고 판단하고 의기양양하게 명량 해협으로 접근하다 저 멀리 가물가물 조선의 군선들이 다가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 수많은 군선들을 이순신이 지휘하고 있다면 그들과 전투를 벌여봐야 승산이 없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이순신은 명량 해전의 승리를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것은 왜의 함대가 조선의 함대라고 판단하고 도주하게 만든 선단의 무리는 바로 피란 선단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순신이 촌로가 감사의 표시로 선물한 술 한 통을 고맙게 받아준 대가였으며 맹물 한 잔의 승리이기도 하다.

왜의 함대가 후퇴함으로써 왜의 수륙병진 전술은 좌절되었다. 명군이 직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조선 수군이 명량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성 재점령을 목표로 북상하던 왜군은 다시 남쪽 해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후퇴한 왜군은 동쪽으로 울산과 기장에서 서쪽으로 남해와 순천에 이르는 연안 요충지에 성을 쌓고 방어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 노량 해전이 남긴 유훈

왜군이 수세에 몰리자 명 조정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총공세를 가하기로 했다. 1598년 7월 하순, 66,000여 명의 병력을 동로에 25,000명, 중로에 13,000명, 서로에 8,000명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12,000명을 추가로 동로와 중로에 배치했다. 이때 계금(季金)이 지휘하는 명 수군 3천여 명과 진린(陳璘)의 명이 수군 5천여 명 이순신 함대와 연합 세력을 형성했다.

조·명 연합군의 총공세는 1598년 8월 실시되었다. 그러나 동로군은 울산의 도산성에서 패했고, 중로군은 사천에서 패했고 서로군은 왜교성에서 패했다. 단지 조·명 연합수군만이 왜교성을 해상봉쇄하

는 데 성공했다.

조선 침략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8월 19일 사망했다. 실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조선에 파견된 왜의 장수들에게 은밀한 철수를 지시했다. 조·명 연합 함대의 봉쇄권 밖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 군과 시마즈 요시히로군은 철수가 용이했지만 왜교성의 고니시 유키나가군은 이순신 함대에게 봉쇄되어 철수가 어려웠다. 위기에 봉착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의 지상군 장수 유정(劉綎)을 회유하여 안전한 철수를 보장 받으려 했다. 두 사람은 인질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성립하고, 11월 10일 고니시 유키나가는 확보한 물자와 장비를 유정에게 인계하자 유정은 고니시 유키나가군의 철수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때 지휘권 문제로 유정과 이견을 보이던 수군 장수 진린이 이순신과 연합하여 해상봉쇄를 강화했다. 퇴로를 차단당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뇌물로 진린을 매수하여 은밀히 그의 연락선을 남해 북단 창선도로 보내 그곳에 집결해 있던 소우 요시토모(宗義智)와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순신은 왜교성만 봉쇄하고 있다가 왜의 지원 선단에게 협공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순신은 여러 장수를 불러 “곧 왜의 선단이 고니시를 구원하기 위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뒤로부터 협공을 받는 처지가 된다. 우리는 왜교성 공격에 앞서 왜의 지원군을 먼저 격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전선을 노량 해협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하자 예하 군관들은 모두 이순신의 제안에 동조했다. 그런 후 진린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남해와 거제도의 왜군이 군선을 이끌고 왜교성으로 온다는 첩보가 있어 내가 노량 해협으로 출진하여 왜의 함대를 섬멸하고 돌아올 테니, 장군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왜교성의 왜군이 바다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해상을 봉쇄해 주시오. 그런 다음 우리 함께 고니시를 사로잡읍시다.”하고

부탁했다.<sup>229)</sup> 조용하지만 강한 이순신의 어조에 진린은 숙인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다.

11월 18일 밤 자정 이순신은 선상에 올라가 뱃머리에서 무릎을 꿇은 다음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했다. “원수를 없앨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이순신은 큰 소리로 “출항하라. 전선은 모두 노랑으로 이동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조선 함대는 순천의 유도로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노랑해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조선 함대가 출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진린은 왜교성 해상을 봉쇄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조선 선단을 뒤따라 노랑해협 좌측에 있는 곤양의 죽도로 이동하였다. 이순신은 노랑해협 우측 남해의 관음포 앞에 선단을 포진시켜 왜적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해전은 1598년 11월 19일 새벽 2시경 왜의 함대가 노랑해협 입구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풍상에 위치한 조선 함대는 왜의 함대를 제압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 이순신의 화공전법으로 적 선단은 순식간 불길에 휩싸였다. 왜군은 바닷물을 퍼 올려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세가 불리해진 왜의 선단은 남해 섬 연안을 따라 관음포 안쪽으로 들어섰다. 해로를 착각한 왜군이 포구 안으로 몰려든 것이다. 19일 아침이 밝자 왜군들은 그들이 포구에 갇힌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사력을 다해 포구를 탈출하려 했다. 전투가 혼전일 때 노랑해협 좌측에 있던 명나라 수군이 조선군을 돕겠다고 관음포 쪽으로 이동하다 왜군 후미 선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명나라 군선은 사선(沙船)과 호선(唬船)이었다. 사선은 길이가 50척(약 15m)에서 70척(약 21m) 정도였는데 명나라 수군의 주력 전선이었다. 호선은 이보다 적은 40척(약 12m) 정도의 소형선이었다. 노랑해전에 참전했던 명나라 군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군선인 판옥선(25m

---

229) 『선조실록』 선조 31년 11월 27일 사론



에서 30m)과 달리 방패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선체도 낮았다. 왜군은 진린이 탄 배를 포위하고 백병전에 능숙한 왜군이 칼을 들고 선체가 낮은 진린의 배로 뛰어들어 진린을 칼로 베려 하자, 진린의 아들 진구경(陳九經)이 몸을 날려 부상을 입으면서 왜군을 바다로 밀쳐냈다. 또한 부장 등자룡의 배는 왜군이 던진 불덩이에 불이 붙었다. 병졸들이 불길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쏟는 사이 왜의 병사가 뛰어들어 등자룡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순신은 손수 북을 치며 전투를 독려하다 왜군사들이 진린의 군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전선을 몰아 진린의 배로 접근했다. 왜의 수군의 군선은 층각으로 된 아다캐(安宅船)이었는데 그 배에는 세 명의 군관이 진린의 군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활로 왜군 장수 한 명을 맞추자 그놈은 소리를 지르며 바닷물로 떨어졌다. 비명에 놀란 왜군들이 포위를 풀고 자기들의 장수를 구출하려고 달려들었다. 그 기회를 이용해 진린이 왜군의 포위망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조·명 연합군은 총통과 활을 쏘며 관음포 해역에 출몰해 있던 적선을 거의 격침시켰다.

조·명 연합군이 관음포 해역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고니시 유키나가군은 왜교성을 버리고 바다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고니시 유키나가군이 남해섬 쪽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도망치는 고니시 유키나가 선단을 추격할 결심을 했다. 그는 한 놈의 왜군도 살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관옥전선 갑판 위에서 북을 쳐 예하 군선의 추격을 독려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도망치며 쏜 적의 탄환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이순신을 부축하여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순신은 감았던 눈을 뜨며 “싸움이 급박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출전하기 직전 무릎 꿇고 하늘에 기도하던 말, 즉 “원수를 없앨 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

다.”라는 기도가 유언이 된 듯하였다. 이순신은 56세의 짧은 생애를 전쟁터에서 마감했다. 이순신이 순국한 후 좌의정 이덕형이 현지 조사를 통해 이순신의 전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했다.

“이순신은 전선 80여 척을 지휘하여 왜 전선 200여 척을 격침시켰고 왜군 사상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sup>230)</sup>

또한 명나라 군부에서 전황을 조사하여 우리 조정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순신이 왜의 전선 100여 척을 포획하고 200여 척을 불태웠으며 왜군 500여 명을 참수했으며 물에 빠져죽은 왜군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sup>231)</sup>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온몸을 바쳐 이룩한 이순신의 해전 승리로 말미암아 7년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영국 육군의 원수이자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버나드로 몽고메리 원수는 그의 저서 『전쟁의 역사』에서 이순신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은 중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1592년 그는 한반도를 침략한 것으로 계획을 시작했다. 왜군은 지상전에서는 성공했지만 바다에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조선 사람은 항해술에 능했으며 이순신이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다. 이순신은 탁월한 지휘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 제작에도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아시아의 해군전술은 화살공격을 가하고 배를 들이받은 후 적선에 기어오르는 전투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함포는 적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때 이순신 장군은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함선을 고안해 냈다. 그 함선은 빠른 속도를 내면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갑

---

230) 『선조실록』 선조 31년 11월 27일(무신)

231) 『선조실록』 선조 31년 12월 4일(을사)

관 위를 거북등처럼 철갑을 씌워 불화살, 탄환 등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었다. 철갑 위에 큰 못을 박아 적군이 함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다. 뱃머리는 공격적으로 적선을 들이 받도록 강하게 했으며 함선 둘레에 포문을 설치했다.

왜의 수군도 열심이 싸웠지만 이순신의 전함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조선군이 해전에서 승리하자 왜의 지상군의 전투력은 마비되고 말았다. 히데요시는 1592년과 1597년 2차에 걸쳐 조선을 침략했지만 모든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패배했다. 한반도를 무모하게 침략했다가 해전에서 패하자 그의 꿈도 망상으로 끝났고 그 또한 1598년에 사망했다.”<sup>232)</sup>

이순신의 출전이 늦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592년 4월 14일 부산포 상륙에 성공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5월 3일 한양에 도달했다. 이토록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된 것은 부산 지역 해상방위를 담당했던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이 수영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경상우수사 원균이 패전하여 남해로 도망쳤기 때문이다. 해상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상륙한 왜군은 곧바로 전열을 정비해 북상할 수 있었다.

김해 앞바다에서 패전한 원균은 그의 관할 해역의 한계인 남해에서 울포 만호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그때 이순신은 “돕고 싶지만 각기 분담된 관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남의 경계를 넘어 지원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순신이 전투해역으로 출전한 것은 5월 4일이다. 전쟁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나서였다. 한양이 왜군에게 점령되고 선조는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채 피난길에 올랐다. 이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순신은 왜 함선을 이끌고 출전하여 위기에 처한 원균을 돕지 않았는가? 왜군이 두려워서였는가? 군사력이 부족해서였는가?

---

232) Bernard Law Montgomery 『A history of Warfare』(the world publishing co. 1968), pp.661~663

이순신이 급보를 받고도 출전하지 못한 것은 전투상황이 아무리 위급하더라도 ‘병사나 수사가 임의로 타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법(不  
必籍他助之法) 때문이었다.<sup>233)</sup> 원균의 애절한 구원요청을 받았을 때 이순신이 “각기 분담한 경계가 있으니 조정의 명령 없이 어찌 마음대로 경계를 넘으랴!”라고 탄식했던 것은 바로 이 법 규정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다로 나가 적선을 요격하라.”라는 조정의 출전명령이 내려진 것은 4월 26일이다. 전쟁이 발발한지 12일이 지나서였다. 출전명령을 받자 이순신은 포구에 흩어진 병력과 전함을 수영으로 집결시켜 기동 선단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진관체제에 따라 여러 포구에 흩어져 있는 병선과 병졸을 좌수영으로 불러 모으는 데 약 10여 일이 소비된 것이다. 이순신 함대가 전투체제를 갖추고 원균의 관할 해역인 경상우도 해역으로 출전한 것은 5월 4일이다.

조선이 이와 같은 방위체제를 유지한 것은 왜구와 여진족과 같은 비정규전과 문반 우위론에 맞춘 방위체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즉 왜구와 여진족과 같은 소규모 산발적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분산시켜 방위하게 한 것이 바로 진관체제였다.

또한 고려 말 야전 지휘관이 군공을 이용하여 중앙관료가 된 경험을 바탕으로 무관의 중앙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야전 지휘관 임의로 타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불필적타조지법(不  
必籍他助之法)이다.

게릴라전에 필요한 진관체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곳으로 많은 병력이 침략해 왔을 때 소수의 병력으로 방어할 수 없었으며, 이미 초기 전투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중앙관리가 전투지역에 도착해도 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술적 단점이 있었다.

이순신이 원균의 지원요청에 곧바로 함대를 출전시키지 못한 것은

233) 『성종실록』 성종 19년 5월 계축(癸丑)

이런 방위 제도와 법 제도 때문이었다.

#### 임진왜란의 개괄과 우리에게 준 교훈

1592년에 왜군이 침입하여 1598년 철수할 때까지 7년 동안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졌다. 그 결과 전국은 황폐화되었고 백성들은 삶의 의지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은 왜의 사신의 빈번한 침략발언으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 사전 대비태세만 갖추어도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령 전쟁이 발발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다. 전쟁이 7년간이나 계속된 것은 조정이 무능과 부패로 군사력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미숙한 외교정책으로 명의 불신까지 받아 명나라가 전투보다 강화회담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주변국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외교 통로는 사대와 교린이었다. 그러나 명나라와 관계인 대명사대는 중요시 한 반면 왜와의 교린관계는 종종 때 단절된 이후 복원되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은 왜의 정세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5년 전부터 왜는 매년 사신을 파견하여 교린재개를 요청했다. 조선이 계속 교린재개를 거부하자, 왜의 사신은 ‘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조선은 ‘왜가 명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라는 말을 트집 잡아 국서도 접수하지 않았다. 조선은 조선의 안보보다 명나라의 안보를 더 염려하면서도 정작 ‘왜가 조선을 경유하여 명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를 명 조정에게 알리기를 꺼려했다.

명나라는 여러 경로로 왜의 침략정보를 알고 있었다. 사대의 신하 국인 조선이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자 명나라는 조선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명나라는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곧바로 군사력을 파견하여 조선을 지원하지 않았다. 왜군이 서울로 진군하자 선조는 파천을 강행했다.

전쟁 발발 전에 조선 조정이 마련한 방위전략은 해전을 포기하고 지상에서 왜군을 방어하겠다는 수세 전략이었다. 그 결과 왜군은 해상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상륙하여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뒤늦게 원군을 파견한 명나라는 조선을 배제한 채 왜와 강화회담을 진행했다. 명나라는 왜를 사대관계에 편입시켜 상국의 지위를 확보하려 했다. 왜는 조선에서 확보한 전과를 바탕으로 명나라와 대등관계를 고집했다. 강화회담은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회담이 결렬되자 왜는 다시 조선을 침략했다.

전쟁의 장기화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 명나라는 총력전을 전개했다. 명의 총력전은 수군작전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했다. 다행히 왜군은 직산 전투 이후 수세에 몰렸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은밀한 철수작전을 전개했다. 그 기미를 알아챈 이순신은 고니시 유키나가군의 해상퇴로를 차단했다. 위기를 느낀 고니시가 주변 왜의 수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지원 선단이 노량 해협을 경유하여 왜고성으로 이동하였다. 이순신 함대는 노량으로 이동하여 왜의 함대를 공격했다. 이순신이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했을 때 왜군이 쏜 탄환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다. 해전이 소강상태가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왜의 지원함대가 후퇴하고, 고니시 유키나가군이 남해를 돌아 부산을 경유 왜로 도주함으로써 전쟁은 종결되었다.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적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관의 전술운용 능력이다. 조선은 자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왜의 침략을 받아 지상군이 괴멸상태에 빠졌다. 지상전과 달리 이순신의 수군만은 해전에서 연전연승했다. 이순신은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전에 전투태세를 갖추고, 학익진 전술, 적군 분산전술, 집중공격 전법 등을 구사하여 해전에서 승리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지휘관의 전략운영 능력에 달렸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적 교훈이다.

둘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관계를 유지다.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 발발 5년 전부터 왜가 조선을 경유하여 명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명나라에 통보하지 않았다. 건국 초기부터 사대정책을 취했으면서도 적기에 명나라의 군사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전쟁은 7년간이나 계속되었으며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다.

셋째, 자위력의 확보이다. 왜의 침략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조선은 자위력을 갖추지 않았다. 뒤늦게 명군이 참전하게 되자 조선은 명군에 의존하여 전쟁을 수행하려 했다. 그 결과 조선의 작전지휘권이 명나라로 이관되었다. 작전지휘권을 가진 명나라는 인명피해가 많은 군사력 보다 피해가 적은 강화회담으로 전쟁을 종결하려 했다.

넷째, 전쟁 양상의 다양성이다. 조선 조정은 지상전 위주의 전략사고에 젖어 전쟁 전에 해전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전술개발이나 무기개발은 등한하여 전쟁 7년 동안 지상전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순신만은 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선을 개량하고 육전에서 사용치 않는 총통을 함선에 적재했다. 그리고 학익진, 장사진, 첨자진 등을 운용하여 해전에서 승리했다.

훗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발트 함대를 격파한 도고 제독은 자신에 대한 영웅적 평가가 있을 때마다 이순신 제독을 거론하며 겸손해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 해군의 넬슨 제독에 버금가는 군신이라는 말을 듣고 “영국의 넬슨은 군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못된다. 해군 역사상 군신이라고 할 제독이 있다면, 오직 이순신 제독뿐이다. 나와 넬슨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결전에 임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홀로 고독하게 싸운 분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 3. 영국과 스페인의 해상패권 경쟁(1567~1604)

#### 스페인의 식민지 건설

대항해 시대에 유럽인의 선두에 서서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 경영에 힘을 쏟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많은 부를 획득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 특히 스페인의 필립 2세(Philip II)<sup>234</sup>시대는 ‘황금 시대’를 구가하였다. 필립 2세는 합스부르크 왕가인 칼(Karl) 5세의 장남으로서, 칼 5세가 사망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황제 자리를 동생인 페르디난트(Ferdinand)에게, 스페인과 네덜란드, 나폴리와 밀라노, 시칠리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을 아들 필립 2세에게 각각 물려주었다. 필립 2세는 이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가톨릭에 입각한 종교적 전제정(專制政)으로 잡다한 민족들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 중세적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외국에 살고 있는 가톨릭교도들을 지원했으며 해외 식민지 확장에 주력했다. 국왕은 유럽에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육군과 대궐리선 함대를 보유하고, 본국 외에도 네덜란드, 시칠리아, 사르데냐, 밀라노, 나폴리, 발레아레스 제도(諸島) 등을 영유하고 신대륙에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아시아에서는 1541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제도의 정복을 촉진시켜 1571년에 마닐라시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스페인은 1571년 그리스도교국 동맹 함대의 주축으로 참전한 레판토 해전에서 터키 함대를 격파하였다. 또한 필립 2세는 1580년 포르투갈의 왕위 계승 전쟁에 개입하여 포르투갈을 합병함으로써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였다. 필립 2세는 새로운 대륙의 식민지에서 나오는 중요 산물인 금과 은을 이용해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자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최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

234) 펠리페 2세(Felipe II)라고도 불림. 재위 1556~1598.



그러나 스페인이 유럽의 최강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식민지인 멕시코, 볼리비아 등 신대륙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은을 안전하게 본국으로 수송하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신대륙에서 수송되는 은이 스페인의 거대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은의 운반선에는 설탕에 파리 떼가 모여드는 것처럼 사략선(私掠船)이나 해적선(海賊船)이 항상 달라붙었다. 이들은 주로 영국, 네덜란드 및 프랑스 등의 유럽 제국과 북아프리카 이슬람교국 소속이었다.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대체로 70%가 스페인 근해(近海), 30%가 카리브 해였다.<sup>235)</sup>

16세기 전반까지 스페인의 수송선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방어해야 했다. 그러나 사략선과 해적의 활동이 너무 심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스페인과 아조레스 제도 간에서 수색과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568년부터 스페인은 해외 식민지를 유지하고 금과 은을 수송하는 상선을 보호하며 지중해에서 터키와 경쟁하기 위하여 아르마다 리알(Armada Real), 다시 말해서 ‘국왕의 함대’라는 선단 호위 전문의 왕실 직속함대, 그 유명한 스페인 무적함대(無敵艦隊, the Spanish Armada)를 건설하였다.<sup>236)</sup> 최초의 무적함대는 12척의 갈레온 선으로 구성 되었는데, 초기에는 해적의 방어작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10내지 12척의 갈레온 선으로는 아무리 동분 서주해도 사망에서 덤벼드는 영국 등의 사략선이나 해적을 완전히 소탕할 수 없어, 무적함대 수는 계속 증강되었다.

## 영국의 도전

1066년 노르만 정복까지 영국에서 대륙으로 진출은 없고 대륙에서

235) Potter, E. B. (ed); Sea Power- A Naval History Prentice- Hall(U.S.A.), 1960. pp.69~74.

236) 원래 무적함대(Invincible armada)라는 명칭은 스페인 함대를 두려워한 영국인들이 붙여준 이름이며, 정식 명칭은 “축복받은 함대”(Felicima Armada)였다.

영국으로의 진입만 있었다. 주민들도 중세 말까지 목축과 농업을 위주로 할 뿐 연안 어업을 제외하고는 바다로 진출하지 않았다. 영국이 변화한 것은 헨리 7세가 절대왕정을 실시하면서 부터이다. 영국의 양털을 이용한 모직산업은 국가산업이 되어 모직물 수출은 국가번영의 관건이 되었다. 영국의 모직물 판매상인 중 유력자들이 모여 ‘모험상인 조합’을 만들었다. 그들은 스페인 령(領) 네덜란드의 안트베르펜(Antwerpen)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sup>237)</sup>

16세기 중엽 모직물 수출이 한계에 도달했고 레판토 지역과 무역도 해적의 방해로 받았으며, 스페인이 영국 모직물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영국 경제는 갑자기 침체되었다. 결국 영국의 모험상인들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장개척에도 방해물이 있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토르데시아스(Tordesillas) 조약에 위반되는 해적질과 밀무역, 이교도의 침입을 무력으로 배척하려고 하였다. 토르데시아스 협약은 신대륙에서 발견한 땅을 두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자, 1493년 스페인 출신 로마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중재로 나서 잉테르코에트라 칙서(勅書, bula Intercoeterd)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칙서의 내용에 불만을 가진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거둬진 협상 끝에 1494년 체결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아조레스 해역 근해에 위치한 베르데 곶(cavo Verde)을 기점으로 서쪽 370 레구아를 통과하는 지점에 가상 자오선을 긋고, 이 자오선을 두 나라의 경계선으로 정하여 서쪽에서 발견되는 땅은 스페인이, 동쪽은 포르투갈의 소유권으로 인정한다는 그들만의 세계 분할 협약이었다.<sup>238)</sup> 따라서 영국의 입장에

237)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 1989, p.47

238) 레구아 또는 레고아라는 길이 단위는 양국이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스페인에서는 1 레구아가 6,600m, 포르투갈에서는 5,572m이다. 1493년 로마 교황에 따르면 베르데 곶 만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100 레구아 떨어진 지점에 가상 자오

서 보면 스페인이 서쪽 항로를, 포르투갈이 동쪽 항로를 발견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북쪽 항로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마찬가지였다.

영국이 신대륙 탐험에 최초로 나선 것은 1496년으로, 절대군주였던 헨리 7세가 베네치아인 카보트(Giovanni Cabotto, John Cabot)를 지원하여 현 캐나다 동쪽 뉴펀들랜드와 노바스코샤 쪽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프랑스의 경우에도 1504년 브르타뉴 지방의 어민이 뉴펀들랜드 어장에 도착하였으며, 1524년에는 국왕 프랑수와 1세의 지원을 받은 칠렌체인 베라지오가, 1535년에는 카르티에가 세인트로렌스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날의 몬트리올에 도착하였다.<sup>239)</sup>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한 발견은 곧바로 식민지로 연결되었으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탐험은 글자 그대로 탐험수준에 머물렀다. 영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스페인에 의하여 개척된 서인도 제도와 무역에 관심을 가졌는바 주로 스페인 관헌의 눈을 피해 밀무역에 종사하였다. 영국은 뉴펀들랜드와 노바스코샤를 성공적으로 탐험하고 귀국한 존 카보트를 대표로 하여 정계, 세계의 유력자들로 구성된 ‘미지의 지역을 발견하기 위한 모험상인 조합’을 만들어 국민적인 환영을 받았다.<sup>240)</sup>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영국은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장미 전쟁이 종료되자 영국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변모시킨 헨리 7세는 내란 때 사용했던 무장상선을 정규 왕실해군으로 발전시켰다. 뒤이어 즉위한 헨리 8세는 세계 최초로 영구 조직인 정

---

선을 설정, 지구를 둘로 나누어, 서쪽에서 발견되는 땅은 스페인이, 동쪽에서 발견하는 땅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기로 했다.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100 레구아에서 370 레구아로 변경되었다. 만약 토르데시야스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가 될 수 없었다. 로마 교황 칙서에 따르면 전 아메리카 대륙이 스페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239) Lloyd, C.; Atlas of Maritime History; Hamlyn Publishing Gr.(U.K.), 1975. p.26

240) J. B. Black, *The Reign of Elizabeth 1558~1603*, Oxford Univ. Press, 1970, p.62.

규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관리감독, 운영하는 해군청을 신설하여 강력한 해군력 증강정책을 폈다. 그는 상선과 군함을 완전히 분화시켜, 전투 위주의 완전한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그는 스페인과 프랑스 보다 우수한 함선과 함포, 그리고 조선 시설을 갖추기 위해 외국 조선기술자를 초빙하여 즉위 후 24척 이상의 군함을 구입하거나 건조하였는바,<sup>241)</sup> 이는 그가 해외무역과 해양진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국 상선대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군함을 상시 보유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또한 그는 특정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전시(戰時) 때마다 임시로 조직을 만들고, 다수의 민간선박을 징발하여 군함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해군청이라는 영구 조직을 신설하여, 평시에는 국왕의 소유선과 그 승무원을 관리 운용하고, 전시에는 민간으로부터 징발한 선박을 포함한 전 선박을 지휘, 관리, 운영하는 임무를 주었으며, 나아가 전 해군의 재무와 선박의 건조, 보수 등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는 강력한 해군력 강화정책을 폈다.

해군력이 강화되자, 영국에서는 교황의 권위로 체결된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당시의 영국은 주로 북해나 발트 해 연안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었지만, 모험적인 상인들 중에서는 아메리카나 동인도 무역에 눈을 돌린 사람들도 많았다. 헨리 8세 영국 국왕은 이들에게 사략면장(私掠免狀)을 부여하여 스페인의 해상교통로를 공격하게 하였다. 특히 1545년 3월 사우샘프턴의 리네거(Robert Reneger) 선장이 지휘하는 사략선이 빈센트 곶 앞 해상에서 스페인의 보물선 산 세바스찬(San Sebastian)을 나포했다. 이 사건으로 사략선(私掠船)의 묘미가 영국인에게 널리 알

---

241) Marcus, G. J.; A Naval History of England, vol. 1; Longmans, Green (U.K.), 1961, pp.30~31

려지게 됨으로써, 이후 각 항만도시의 상인들이 앞 다투어 사략선에 출자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42)</sup>

#### 영국의 종교 개혁과 스페인의 간섭

헨리 8세의 강력한 해양정책은 스페인과의 경쟁을 불러 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양국 간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스페인과의 관계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서서히 적대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가 독일 황제인 칼 5세의 백모이자 연상의 왕비인 카타리나(Catalina)<sup>243)</sup>과 이혼하고 궁녀인 앤 불린(Anne Boleyn)과 결혼하려 하자, 교황은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화가 난 헨리 8세는 교황청과 분립을 선언 했다. 왕비 카타리나와의 이혼 문제로 로마 교황과 대립한 후,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으며, 영국만의 국교(성공회)를 만들자, 열광적인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과 적대관계를 갖게 되었다.

헨리 8세를 이은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도 부왕의 유지를 그대로 받들어 종교 개혁과 사략선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가 죽자, 재위에 오른 메리 튜더(Mary Tudor)는 모친인 카타리나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그러자 즉위한 지 1년 후에 스페인은 영국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립 2세가 메리 튜더에게 청혼을 하였다. 메리 튜더는 즉위한 지 1년 후, 1554년 1월에 필립 2세와 결혼하여 가톨릭 복교 운동을 펼치면서 영국의 신교도를 박해하다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채 42세에 사망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 튜더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자, 스페인 필립 2세는 그녀에게 청혼하여 양국 우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 필립 2세

---

242) Marcus, G. J.; A Naval History of England, vol. 1; Longmans, K.), 1961, pp. 42~43

243) 캐더린이라고도 불림.

는 엘리자베스 1세와 결혼하여 영국을 그의 영향력으로 끌어들이는 그의 세계정책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필립 2세와 결혼이 영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스페인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역시 국익에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나는 이미 국가와 결혼하였다.”라고 하여 우회적으로 필립 2세의 청혼을 거절하면서 스페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sup>244)</sup>

1586년 영국에서는 메리 스튜어트<sup>245)</sup>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세력이 엘리자베스 1세를 폐위시키려는 음모사건이 발각되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 스튜어트를 사형시키고, 가톨릭을 탄압하면서 프로테스탄트 부흥에 노력했다. 필립 2세는 영국이 가톨릭 신도들을 배려하고 있어 무력 사용을 주저하고 있던 차에, 엘리자베스 1세가 자신아 수립한 대영(對英)정책의 중심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를 처형하고, 가톨릭을 배척하고 프로테스탄트를 부흥시키려 하자, 스페인은 영국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영국의 사략선(私掠船)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들어와서, 영국은 해외무역에 대한 열망이 급격히 높아졌다. 영국에서는 런던을 중심으로 한 각지 상인의 출자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회사가 조직되어, 영국 선박의 행동반경이 대서양 전역과 지중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영국이 바다로 정책적 시야를 돌렸을 그 당시는 이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세계는 양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국 선박의 동쪽 항해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모험상인과 선원들은 ‘바다가 만인의 공해이

---

244) J. B. Black, *The Reign of Elizabeth 1558~1603*, Oxford Univ. Press, 1970, p.107.

245) 스코틀랜드의 여왕이고 프랑스의 왕비로 엘리자베스 1세와는 사촌지간임.

며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함을 계속 역설하였다. 모험심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영국인들은 스페인이 그들의 식민지에서 보석과 재화를 모국으로 수송하자 해상에서 스페인 선박을 강탈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대서양 전역과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이들 모험적인 상인들에게 자금을 출자하거나 선박을 적극적으로 대여해 주면서, 스페인의 해상활동과 해상 세력 확대정책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사략선에게 사략면장을 발행하여 공식적인 약탈행위로 인정하고 지원했으며, 약탈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액수를 정부에 헌납하도록 하였다. 또 활약이 많은 사략선 선장에게는 기사 작위를 주어 귀족이 되게 하는 등 열성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플리머스 상인 호킨스(John Hawkins)는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으로, 1562년 포르투갈의 독점 지역에 몰래 들어가 흑인을 사냥하여 포르투갈 상인보다 싼 가격으로 스페인에 팔아 거액을 벌어들였다.

이런 요인은 스페인의 재정과 대외정책을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스페인의 가혹한 식민지 탄압정책으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인력이 감소되어 광활한 식민지 경영과 광산채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스페인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잡아다 노동력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노예무역이 활발해졌다. 노예의 주요 공급원인 아프리카 기니아 지방은 포르투갈령이었기 때문에 노예 값이 대단히 높았다.

호킨스가 '노예 밀무역'으로 스페인의 재정과 대외정책을 어렵게 만들자, 스페인은 영국 정부에 이들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영국 정부는 오히려 이들이 영국의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단속보다는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대서양의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상인의 이러한 '상업활동'을 '밀무역'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시작하자, 영국 상인과 스페인 정부 간에는 항상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1568년에 호킨스가 왕실 소유의 함선 지저스(Jesus of Lubeck) 호와 미니온 호를 포함한 6척의 함선을 이끌고 세 번째 밀무역을 마치고 귀국하던 도중 폭풍우를 만나 멕시코의 산 주앙올루아 만(灣)에 입항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그곳에서 호킨스가 함선을 수리하기 위해 함선의 포를 육지로 옮겨 놓았을 때 스페인의 신임 총독이 지휘하는 15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스페인 함대의 기습을 받았다. 함선 6척 중 2척만이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군함 ‘지저스 오브 루벡’(Jesus of Lubeck) 호 등 나머지 4척은 스페인군에게 나포되었다.

이에 엘리자베스 1세는 분노하여 영국 내의 스페인 재산을 몰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은 각지에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포획하고 포획 당하는 보복행위를 계속 하였으며, 양국관계는 국교를 단절할 위기에 이르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사략면장(私掠免狀)을 연속해서 발행하여 스페인의 해상 교통로를 게릴라 전법으로 공격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 선박에 대한 공식적인 약탈행위를 인정하여, 그 이익금의 일부를 왕실에 헌납하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엘리자베스 1세는 호킨스를 영국 해군청의 재무관으로 임명하여, 이후 약 10년간 군함 건조와 해군 개편작업에 몰두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부왕(父王)인 헨리 8세와 같이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통치시기에 호킨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함포와 함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호킨스는 스페인의 식민지로부터 반입되는 금과 은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체가 낮지만, 기동성과 속력이 뛰어나고 현 측에 다량의 중(重)함포를 설치하여 사정거리를 대폭 증대시킨 중간 규모의 전투함의 건조를 적극 추진하였다. 함포를 다량 설치한 함정의 출현으로 인해 고대 노선 시대 해전의 전투방식인 백병전(白兵戰)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파격적인 행동으로 화제를 모은 것이 ‘호킨스’보다



나이가 어렸던 드레이크(Francis Drake)였다. 1577년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드레이크는 왕실 내의 호전파와 엘리자베스 1세의 지원을 얻어 펠리칸(Pelican) 호<sup>246</sup> 등 5척의 사략선을 이끌고, 마젤란 이후 외국인의 항해를 허용하지 않았던 남아메리카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를 약탈하기 위해 플리머스(Plymouth) 항을 출항하였다.

드레이크는 1577년 8월 17일 파타고니아-마젤란 해협을 거쳐 9월 6일 태평양에 들어섰다. 해난사고로 3척의 함선을 잃었지만, 드레이크는 2척의 함선만으로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계속 북상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스페인 상선들을 공격하여 상선에 실려 있는 각종 물품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1579년 4월 16일 페루 앞바다에 있던 스페인 갈레온 한 척을 나포하여 은 25톤, 약 50만 파운드에 상당하는 보석을 약탈한 후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항해한 드레이크는 다시 남하하여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여 귀국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악명이 스페인에게 알려지게 되어 스페인 함대가 마젤란 해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레이크는 마젤란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마젤란이 개척해 놓은 항로를 따라 태평양과 인도양을 횡단하여 세계를 일주한 뒤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되었거나 드레이크는 1577~1580년에 마젤란에 뒤이어 두 번째, 영국인으로는 첫 번째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

드레이크는 이 항해에서 거액의 이익금을 올려 그에게 출자했던 엘리자베스 1세와 사람들에게 47배의 이익을 되돌려 줌으로써 영국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드레이크는 영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더불어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서쪽으로!(Westward ho!)”라는 구호 하에 바다로 진출하는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다.<sup>247</sup>

---

246) 그 후에 Golden Hind로 항해 중 개명.

247) J. B. Black, *The Reign of Elizabeth 1558~1603*, Oxford Univ. Press, 1970,

엘리자베스 1세는 귀국한 드레이크를 데브드퍼트까지 마중 나가, 친히 기사(騎士)의 작위(爵位)를 수여하는 열성을 보였다. 이러한 영국의 정책은 자부심 강한 스페인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일 뿐 아니라 스페인이 지니고 있는 해양 주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였다.

영국의 드레이크는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자, 엘리자베스 1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1585년 29척의 함선을 이끌고 카리브 해 주변의 해상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를 약탈했으며, 1587년 스페인 함대의 집결을 방해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함선을 이끌고 해상시위를 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 드레이크는 스페인 본국의 카디즈 항(港)을 기습 공격하여 스페인 선박 24척 이상을 방화하거나 침몰시키는 대담성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에 격분한 스페인의 왕 필립 2세는 보복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영국의 네덜란드 독립 운동 지원

당시 스페인의 통치아래 있었던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왕 필립 2세의 종교적 및 경제적 탄압에 항거하여 1566년부터 독립 운동을 벌였다.

이에 스페인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의 속국인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네덜란드 반란군에게 노골적으로 정치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네덜란드는 원래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원으로 상공업이 발전하였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근면하고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남부 지방에는 가톨릭이고 북부 지방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일파인 칼빈파가 득세했다. 1556년 스페인 영토로 복속되어 필립 2세가 자치권을 뺏고 프로테스탄트를 금지하자 필립 2세의

전제통치에 대항하여 프로테스탄트 신자인 윌리엄 공을 중심으로 신앙의 자유와 자치권 회복을 내세워 독립 운동을 시작했다.

필립 2세는 네덜란드 총독인 알베르토(Alberto)에게 군대를 지원해 네덜란드의 독립 운동을 탄압하게 했다. 총독 알베르토는 9년간 약 8만 명을 처형했다. 스페인은 많은 사람을 처형한 알베르토를 해임하고 레판토 해전의 영웅 돈 존을 총독으로 임명했다. 새 총독이 된 돈 존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네덜란드의 독립 운동에 자금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필립 2세에게 영국 정벌을 건의했다. 필립 2세는 황실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군사 정벌 대신 외교적 회유정책을 펼치기로 하고 1572년 이후 폐쇄되었던 런던 주재 스페인 대사관을 부활시켰다<sup>248)</sup>.

돈 존이 사망하자 새 총독으로 부임한 파르마(Parma) 공작은 네덜란드 남부 지방에 한해 정치적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네덜란드 독립 운동가들을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분열정책은 북부 지방 주민의 결속을 더 강화시키게 되어 1581년 북부의 7주가 독립을 선포하고 네덜란드란 국명을 제정했다. 네덜란드의 독립 운동이 가열되자 스페인은 네덜란드 독립 운동의 핵심 인물인 윌리엄을 살해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공포했다. 이 공포는 실효를 거두어 1584년 7월 프랑스인이 윌리엄을 살해했다.

윌리엄이 살해된 이후, 그동안 스페인과 냉전관계에 있던 엘리자베스 1세는 해상과 지상에 네덜란드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1585년에 엘리자베스 1세는 군자금 뿐 아니라, 7천 명의 지상군을 네덜란드에 파견하였다. 영국군의 네덜란드 파병은 전략적 성과가 있었는데, 영국군은 네덜란드군과 함께 네덜란드 연안의 수심이 깊은 항구를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반란군을 지원하는 데 요긴했을 뿐만 아니라

---

248) J. B. Black, *The Reign of Elizabeth 1558~1603*, Oxford Univ. Press, 1970, p.162

이후 무적함대의 영국 침공이 실패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정치·종교적 이유로 스페인과 적대관계에 있었다. 그러한 영국이 1585년에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자, 이에 격분한 스페인의 왕 필립 2세는 영국에게 일격을 가함으로써, 네덜란드에 대한 지속적인 통치를 유지하고 영국과의 정치·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스페인 황제 필립 2세는 ‘영국이 네덜란드를 계속 무력지원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후 더 이상 영국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 4개의 무적함대를 만들어 그중 3개 함대를 출동시키기로 결심하였다.

#### 스페인 무적함대가 패하다

스페인 황제 필립 2세는 레판토 해전의 영웅 산타크루즈(Marquís of Santa Cruz)에게 영국 정벌 함대 편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했다. 1586년 3월 산타크루즈 제독은 영국 침공을 위한 세력의 견적을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그가 입안한 영국 정벌함대의 규모는, 최소한 50척의 대형 갤리온 선(Galleon, 帆船), 100척의 무장상선, 40척의 대형 수송선, 연안작전에 사용될 320척의 소형 보조선 등 함선 총 510척과 25,000명의 선원 60,000명의 병력 등 총 병력 9만 4천의 대규모 계획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해군전의 경력을 가진 산타크루즈의 견적은 영국의 지리적 환경과 영국의 저항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소요였으나, 이는 스페인 자원 동원 능력을 증가하는 것이었다.

필립 2세는 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켰다. 첫째, 영국 침공군을 포르투갈에서 보내는 대신 네덜란드에 주둔 중인 파르마 공(Duke of Parma) 부대의 병력으로 충당한다. 둘째, 사령관 산타크루즈의 임무는 해협<sup>249)</sup>의 제해권 장악으로 한정한다. 셋째, 제해권이

---

249) 영불 해협이라고 함.

확보된 후 무적함대가 플랑드르(Flanders) 근해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파르마 공작이 지휘하는 병력 3~4만 명을 수송하는 바지(barge) 함대를 상봉 이 바지 함대를 상륙 장소인 템즈 강 입구로 호송하여, 영국을 상륙하여 정벌한다.<sup>250)</sup>

필립 2세가 영국 정벌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던 파르마 공작은 영국 침공계획이 무모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영국과 평화관계를 맺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스페인과 영국 간에 평화관계의 중재자로 여길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던 메리 스튜어트가 처형된 이후, 그의 화평론은 설 자리가 없었다. 필립 2세는 파르마 공작의 화평론을 무시하고 산타크루즈 제독을 정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리스본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무적함대의 편성과 작전을 철저히 준비하게 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추진되었지만 대단히 큰 규모의 함대 편성이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 폐위사건 발각 이후 연안 각처에 배치된 함정들의 정보 수집으로 영국은 스페인의 해군력 강화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sup>251)</sup>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에게 스페인 함정의 집결과 보급을 방해하여 영국을 위기에서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호전적인 드레이크는 엘리자베스 1세의 이 명령이 취소되기 전에 23척의 함선을 이끌고 출항하여 카디스와 리스본 등 항구에서 스페인 선박 37척을 방화하거나 나포했다. 그 다음에 드레이크는 수주일 동안 이베리아 반도 남서 해역에서 다수의 소형 선박을 나포하고 식료와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나무통을 제작하는 재료와 전쟁 준비용 화물을 불 태워버린 후 귀항했다.

이러한 드레이크의 민첩한 행동으로 스페인 함대의 출항은 이듬해인 1588년 2월로 연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의 유능한 해군 전

---

250)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 1989, p.63

251)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 1989, p.206

락가인 산타크루즈는 출항을 앞두고 사망했다.

필립 2세는 산타크루즈 후임으로 메디나 시도니아(Medina Sidonia) 공작을 임명했다. 그는 충성심이 강하고 신망도 있었지만 육해군의 전투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자신도 해군사령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면서 사직을 원했지만, 필립 2세는 임명을 취소하는 대신, 해전의 경험이 많은 돈 디에고(Don Diego)와 발데스(Flores de Valdes)를 파견해 사령관인 메디나 시도니아 공작을 돕도록 했다. 또한 시도니아 함대가 도버 해협을 통과한 다음 파르마 공작과 합류하게 되면 총사령관을 파르마 공작으로 바꾼다고 하여 사령관 시도니아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1588년 5월 24일 130척의 시도니아 함대가 리스본(Lisbon)을 출항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함대는 대서양에 들어서면서 폭풍을 만나 라 코르나(Corunna)로 피항(避港)했지만 30여 척의 함선이 행방 불명되고 많은 함선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식량과 식수에 해수가 침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시도니아는 원정을 다음 해로 연기할 것을 건의했지만 필립 2세는 그 건의를 묵살하고 함선을 긴급 수리하여 식량과 식수의 적재를 마치자마자 출항할 것을 명령했다.

7월 11일 출항한 시도니아 함대는 7월 19일 함대 전체를 영국 최남단 라자드(Lazard) 곶 앞바다로 집결시킨 후 도버 해협으로 진입하였다. 당시 스페인 함대는 갈레온 30척, 무장상선 44척, 대형 보급선인 우르카 23척, 두 돛대가 있는 소형함 13척, 갈레아스 4척, 갤리 4척, 기타 22척으로 총 130척이었다. 이 중 전투함이 70여 척으로 총 57,868톤이었으며, 2,431문의 포를 적재하고 있었다. 병력은 지상군 18,073명, 해군 약 3만 명이었다.<sup>252)</sup>

이 함대는 사령관 시도니아 휘하에 부사령관과 고문단 및 10개 전

---

252)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 1989, p.213

대의 사령관에 의해 지휘되었는데, 플랑드르 지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파르마 휘하의 지상군 17,000명과 합류하여 영국 본토에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었다. 스페인 함대는 넓게 산개된 반월진(半月陣)을 형성하였다. 중앙에는 주력군이 위치하고 그 앞뒤로 호위함들이 배치되었으며 양익 전대들이 조금 전진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 전술진형을 일명 ‘독수리진형’이라고도 불렀다.

한편 스페인의 공격을 두려워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산타크루즈의 사망 소식과 파르마의 평화제안 때문에 스페인 함대가 출항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지만 영국의 해군 제독들은 스페인 함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공격적인 자세로 스페인 연안으로 함대를 출전시켜 적 함대를 맞아 싸우길 원했다. 특히 드레이크 제독은 플리마우스(Plymouth) 항구에서 적 함대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다 마침내 1588년 3월 30일 왕실 자문위원 앞으로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발송했다.

“위원 여러분, 저는 50척의 함선만을 인솔하여 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스페인을 더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4월 13일에는 “모든 군사행동은 유리한 장소와 시기를 얻으면 절반의 승리를 하는 것이지만 장소와 시기를 잃으면 전세 전반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서신을 엘리자베스 1세에게 보냈다.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하워드(Charles Howard)도 드레이크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바다는 광대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함대가 스페인 연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스페인의 막강한 함대는 우리 함대를 등 뒤에 두고 출항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sup>253)</sup>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 함대가 스페인 연안으로 출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단지 스페인 함대가 출항할 것 같다는 정

---

253)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 1989, p.103

보를 받고서 해군 총장 하워드에게 스페인과 영국 양국의 중립적 장소에서 스페인 함대를 초계 감시하라는 명령만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해군 총장 하워드는 함대의 대부분 세력을 플리마우스로 이동하는 대신 1개 전대를 선발하여 도버 해협을 감시하게 했다.

그런 후 6월 17일 왕실 자문회의에서 해군 총장 하워드에게 작전권을 부여하는 한편 드레이크를 부사령관에 임명하고 존 호킨스와 프 로비셔를 해군 소장으로 승진시켜 하워드를 돕게 했다. 이들은 노예 무역, 해외 식민지 건설, 해양탐험, 새 항로 개척, 상선단 기습과 해적 활동, 원양어업 등 모든 해양활동 분야에서 스페인을 괴롭히고 스페인 해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이 영국 함대의 지휘관, 참모, 함장 등에 임명된 것이다.

스페인 함대에 맞서는 영국 함대의 함선은 왕실 함대 34척, 런던 전대 30척, 드레이크 전대 34척, 호워드 전대 76척, 세무어 전대 23척으로 총 197척이었다. 당시 스페인 함정은 선수와 선미가 높아 외관이 크고 웅장해 보였다. 반면 영국인들은 현 측에 다량의 포를 설치했기에 함수와 함미의 누각을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영국 함정들은 함수가 낮고 긴 용골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영국 함선들은 대양 항해에 적합했으며, 전투 시 기동이 편리하였고 함포의 명중률이 높았다.<sup>254)</sup>

<표 1> 영국·스페인의 함포 비교

국 명	함정척수	Canon 포	Calverin 포	Perier 포	계
영 국	172	55	1,874	43	1,972
스페인	124	163	635	326	1,124

254)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 1989, p.18



영국 함대는 장거리포에 중점을 두었다면 스페인 함대는 근거리 및 중거리 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영국 함대가 적함을 함포사격으로 침몰시키거나 아니면 항복받는 전술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스페인 함대는 적함을 함포사격으로 무력화 시킨 후 나포하는 전술을 계획하고 있었다. 즉, 영국 함대는 적선에 접근하지 말고 오로지 함포로 승리를 결정짓도록 한 반면, 스페인 함대는 적선의 현 측에 접근하여 백병전을 수행한다는 레판토 해전 시 사용했던 전술을 사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전투진형도 영국은 단종렬진을 스페인은 횡렬진을 사용했다. 그런데 영국의 컬버린 포는 비록 장거리 사격용이긴 하였으나 명중률이 낮고 포탄의 위력도 함선을 침몰시킬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 근거리 사격에 의존한 스페인 함대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었다.<sup>255)</sup>

이 점을 알고 있던 스페인 황제 필립 2세는 함대가 출항하기 전 시도니아에게 “적함이 원거리 교전을 목표로 하더라도 귀관은 적함에 접근하여 함포로 공격하는 전법을 구사하라.”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 함대의 교전이 시작되자 필립 2세의 지시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영국 함대의 포수들은 장기간의 포술훈련으로 정예화 되어 있었으며 양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포좌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 해군은 적선에 접근하여 적함으로 뛰어들어 백병전을 하던 고대 해군전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영국 해협에서 해전

양국의 교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영국 해협에서의 해전단계이다. 스페인 함대는 7월 19일 리자드 곶 앞바다에 집결하여 해협으로 진입했다. 스페인 함대가 진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

255) R. B. Wernham : “Elizabethan War Aimes and Strategy.” (London: Athlone Press, 1961), p.168

영국 함대는 플리마우스 항을 출항하려고 하였다. 마침 바다에서 항구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영국 함대는 질서정연한 항해를 할 수 없었다. 스페인 함대의 선견 전대를 담당한 시도니아 전대장은 이때를 이용하여 영국 함대를 공격해야 한다는 건의를 묵살하고 파르마 함대와 합류할 때까지 선제공격을 자제하라고 명령했다.

위기를 벗어난 영국 함대는 21일 오전 1시경 스페인 함대를 발견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항해하였다. 날이 밝아오자 영국 함대는 스페인 함대 후미를 지나가면서 함포사격을 가했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스페인 함선들은 시도니아 전대 쪽으로 몰려들었다. 스페인 함대가 한 곳으로 집결하는 것을 감지한 영국의 드레이크, 호킨스, 프로비셔는 휘하 함정에게 함포발사를 명령했다. 한곳으로 집결한 스페인 함대는 탄착점이 좋지 못한 영국 함포의 목표물이 되었다.

1차 전투에서 승세를 잡은 영국 함대는 21일 밤 기함 아크 로얄(Ark Royal) 호의 함상에서 작전회의를 개최했다. 작전회의에서 다음 사항이 결정되었다.

- (1) 스페인 함대가 화이트(Wight) 섬을 정복하지 못하게 교란작전을 계속한다.
- (2) 영국 함대는 스페인 함대가 화이트 섬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추격작전을 계속하며, 드레이크가 승선한 리벤지 호에 함미 등을 쬐서 함대를 선도한다.

작전은 야간에 실시되었다. 영국 함선은 기동성이 좋아 풍하에서 풍상 쪽으로 기동함으로써 스페인 함대의 근접을 피할 수 있었다. 스페인 쪽에서 함포 한 발을 발사할 때 포신이 크고 사정거리가 긴 포를 훈련이 잘 된 영국의 승조원들이 3발을 쏘았다. 열세에 몰린 스페인 함대는 파르마 함대와 합류를 시도하였다. 시도니아는 함선 40여

척을 후위에 배치하여 영국 함대의 추격에 대비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향해하였다. 반면 영국 함대는 기동력이 뛰어났어도 진형을 흐트리지 않고 항진하는 스페인 함대 쪽으로 무모하게 접근할 수 없었고, 원거리 사격만으로 스페인 함대에게 치명적 손실을 입힐 수도 없었다. 영국 함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기동진형에서 이탈한 적함을 찾아 타격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전술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함대는 4개 전대를 구성하여 하워드, 드레이크, 호킨스, 프로비셔로 하여금 휘하 전대의 함정을 지휘하게 했다. 각 전대는 사령관이 승합한 기함을 선두로 단종렬진을 형성했다. 특히 하워드는 스페인 함대를 추격하면서 한쪽 끝부터 공격하는 전술을 세운 뒤 공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각 전대에서 차출된 무장 상선 6척으로 스페인 함대를 감시하게 했다.

25일 영국 함대는 스페인의 산타아나호가 포격을 당해 전투대형에서 벗어난 것을 발견했다. 하워드 사령관은 호킨스에게 산타아나호를 나포하라고 명령했다. 영국이 산타아나호를 나포하려 하자, 스페인 함대 측에서 갈레아스 3척을 보내 영국의 나포전술을 제지하려 했다. 영국도 아크 로얄 호와 골든 라이온 호를 보냈다. 양측에서 격렬한 포격전이 전개 되었으며, 영국은 산타아나호를 나포하지 못했다. 스페인의 항전이 격렬했기 때문이다. 이날 스페인 함대 사령관 시도니아는 연락선을 파르마에게 보내 무기와 탄약을 싣고 즉시 출항할 것을 명령했다. 스페인 함대의 무기와 탄약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빈번한 함포공격으로 인해 스페인 함대와 영국 함대 모두 탄약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영국 함대는 가까운 본토에서 탄약과 무기를 보충할 수 있었으나 중심 기지가 먼 스페인 함대는 탄약을 지원받지 못했으며 지원을 요청 받은 파르마 함대도 무기와 탄약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 화선(火船) 공격

해전의 2단계는 칼레(Calais) 앞바다 해전이다. 스페인 함대는 27일 밤 칼레 앞바다에서 정박하며 파르마 함대와 합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탄약과 식수를 공급받은 후 파르마 휘하의 35,000명의 상륙군을 템즈 강 하구에 상륙시켜 전세를 역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파르마 함대는 시도니아 사령관의 기대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았다. 파르마는 영국과 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안트베르펜/안트워프(Antwerpen/Antwerp) 주변에 운하를 파고, 70여 척의 상륙용 주정과 200여 척의 평조선(바지)을 건조했다. 또 뉝케르크(Dunkerque, dunkirk)에 함선 28척을 집결시키고, 함부르크와 브레멘, 엠덴 등에서 선원을 모집하고 그라브리느(Gravelines)에서 약 2만 개의 식수통을 개조하였다.

이와 같이 파르마는 사전 전투준비를 하였지만 도버 해협에서 영국의 헨리 세이머 함대가 해상초개를 하면서 파르마 함대의 행동을 주시했으며, 네덜란드의 2개 전대가 뉝케르크를 비롯한 네덜란드 앞바다를 순항하면서 파르마 함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시도니아의 연락선으로부터 무기와 탄약 지원요청을 받고도 출항할 수 없었다. 영국의 헨리 세이머 함대와 2개의 네덜란드 함대의 해상봉쇄로 인해 파르마 함대는 출항이 통제되어 있었다.<sup>256)</sup>

1588년 7월 28일 영국의 기함 아크 로얄 호 선상에서 영국 함대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영국의 화공선 공격(火攻船 攻撃)이 결정되었다. 이때 영국은 심리전을 이용하였는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기술자 지암벨리(Giambelli)<sup>257)</sup>를 고용하였다고 오래전부터 선전함으로써 스페인군을 불안케 하였다. 스페인 함대 사령관 시도니

---

256) J. B. Black, *The Reign of Elizabeth 1558~1603*, Oxford Univ. Press, 1970, pl23

257) 그는 앤트워프의 지옥 화염으로 유명한 화선을 설계하여 스페인군의 서늘케 했던 인물이었다.

아도 영국 함대가 풍상 쪽에 있었기 때문에 화공선 공격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형 선박과 보트를 함대 전면에 배치하여 영국이 화공전법을 시행할 경우 외곽의 소형선이 충돌하여 화공전술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전세가 불리할 경우 닻을 버리고 탈출할 수 있는 비상대책도 세워놓았다.

야간이 되자 영국 함대가 투묘 중인 무적함대에 대하여 8척의 화선(火船, fire ship)을 출격시켜 공격을 감행했다. 영국의 화공전법은 스페인 지휘부가 생각한 것과 같이 소형선 위주의 화공전법이 아니었다. 화공선 전대라고 부를 정도로 연료를 가득 실은 큰 선박들이 바람을 타고 거센 불길을 내며 스페인 함대로 접근하고 있었다. 화선이 접근하자 공포감에 사로잡힌 무적함대의 많은 함장들이 급히 닻줄을 자르고 불길을 피하려고 도피함에 따라 일대혼란이 일어났다. 스페인 함대 사령관 시도니아가 산개된 함정을 재집결시켜 영국 함대를 공격하려 했지만 닻이 없는 스페인 함정들, 특히 선체가 큰 함정들은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 그라브리느(Gravelines) 해전

이러한 상황에서 아침이 되자 영국 함대가 공격을 가해 왔다. 29일 스페인 함대는 전투진형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8시간이나 계속된 전투에서 함포능력이 우수한 스페인 갈레아스 한 척이 그라브리느 해안에 좌초되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하워드는 스페인 함대를 전멸시킬 호기로 판단하고 나팔 신호로 일제 공격명령을 내렸다. 영국 함대는 해안에 좌초된 스페인 전투함 갈레아스를 나포하였으며, 스페인의 최강 갈레아스인 산 로렌조(Saint Lorenzo) 호를 공격하자 산 로렌조 호는 방향타와 범주가 부서져 영국 함대에 나포되었다. 승세를 잡은 영국 함대는 스페인 함대를 풍하 쪽 사주(沙柱)로 밀어 붙이면서 케논 포를 발사하였다. 스페인 함대는 3척의 함선이 침몰되고 2

척이 행방불명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돌풍이 불자 스페인 함선 1척이 침몰되고 3척이 좌초되었다. 스페인 함대 사령관 시도니아는 전투를 포기하고 침로를 북쪽으로 돌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한척의 함선도 잃지 않은 영국 함대는 북위 56도까지 스페인 함대를 추격했다. 그러나 스페인 함대가 상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영국 함대는 퍼스오브포스 만으로 철수했다. 비록 영국 함대의 추격은 모면했지만 스페인 함대는 불량한 나무통으로 식량이 상하고 식수마저 고갈된 상태에서 아일랜드에서 다시 폭풍을 만나 약 8천 명의 병사를 잃고, 괴혈병과 티프스 등 질병으로 약 1만 명의 병사를 더 잃었다.

무적함대가 스페인 북부 비스케 만 산타데르(Santader)와 코르나로 돌아 왔을 때는 함선은 66척에 불과했다. 그동안 50여 척을 잃은 것이다. 전투함은 64척 가운데 44척이 귀항하였지만 대부분 임무수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손실은 수천 명의 승조원과 유능한 보병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그 해에 영국은 반신불수가 된 채 항구에 방치되어 있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완전히 격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589년에 드레이크의 지휘아래 83척의 전투함, 60척의 수송선 그리고 19,000명의 병력이 출항했다. 그런데 스페인의 잔존 함대를 격파하겠다는 이 출동의 원래의 목적이 스페인으로부터 포르투갈을 분리시키기 위한 리스본 원정으로 확대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 늦었고 리스본 탈취계획도 실패로 끝나고 잔존 무적함대를 완전히 격파할 호기마저 놓쳤다.

이후 수리를 마치고 재기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하여 1596년과 1597년에 두 번 더 출동하였는데, 이 두 번의 원정은 폭풍으로 다시 실패로 끝났다. 1604년 영국과 스페인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609년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휴전에 합의한 후 1648

년에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을 통해 네덜란드가 완전히 독립하였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장기간 지속된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유럽과 세계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영국 함대의 승리와 스페인 함대의 붕괴는 역사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양제국의 기치는 무적함대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스페인은 레판토 해전의 승리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광대한 해외 식민지를 획득했었다. 식민지에서 얻은 재화를 이용해 스페인은 빠른 기간 내에 국력을 신장시켜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한 스페인이 프랑스 해군에게 패하자 영국은 해외에서 스페인 세력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를 차지했다. 또한 영국의 동맹국인 네덜란드도 영국과 함께 해외로 눈을 돌렸다. 제해권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스페인의 쇠약은 가톨릭의 약화와 프로테스탄트의 흥기를 가져왔다. 프랑스에서는 스페인과 결탁했던 귀족 공작이 살해되고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부르봉 왕조의 필립 4세가 즉위했다. 이후 스페인과 프랑스의 관계는 역전되어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스페인을 완전 압도하였다. 그 결과 유럽의 패권에서 스페인은 완전 탈락하고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

전쟁과정에서 계속된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맹관계는 해양력을 이용하여 네덜란드를 통치하려던 스페인의 노력을 좌절시켰고 영국을 정벌하려던 무적함대는 섬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해전에서 승리한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군력을 이용하여 경제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으로부터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해전에서 패한 스페인은 전쟁으로 인한 국력소모를 만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럽의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네덜란드의 국운을 탈바꿈시켰다. 스페인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있었던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패전을 이용하여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해군력을 강화하여 스페인 해안을 침략하고 상선을 나포했으며 심지어 스페인 함선까지 공격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새로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승패의 요인은 무엇이였을까? 첫째, 전략의 문제이다. 스페인 함대가 결정적 타격을 받은 것은 칼레 해전에서 영국 함대가 사용한 화공전법에 의해서였다. 이 공격을 받은 스페인 함대는 곧바로 전술진형이 와해되고 함선들의 도주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후 그라블린 해전에서도 스페인 함대는 영국 함대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했다. 이러한 전투의지의 박약은 전략적 오류에 그 요인이 있었다. 스페인은 함선을 이용하여 도버 해협을 건너 약 3만 명의 지상군을 영국 본토에 상륙시키려고 하였다. 그때 영국 함대는 스페인 함대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상봉쇄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스페인 함대는 해전을 통해 영국의 해상봉쇄를 제거하고 제해권을 확보한 후 상륙작전을 결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스페인 함대는 제해권 확보를 하지 못한 채 상륙군 수송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영국의 화공전술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 함선과 무기 성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페인 함정은 선체가 큰 반면 포는 중 단거리 포를 장착하고 있었다. 스페인 함대는 적 함정으로 뛰어들어 백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병사들이 많은 장점만을 고려하여 백병전을 감행하는 전술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대응하는 영국 함대는 함선 운용술에 능통했으며 장거리 함포 사격 능력이 우세하였다. 영국 함대는 민첩한 기동성을 살려 스페인 함대의 양익을 급습하면서 함포사격을 가해 스페인 함대의 전술진형을 와해시키고 대열에서 낙오한 함정을 찾아 함포로 격파하는 전술을 택했다. 이로 인해 스페인 함대는 전투 중에 포탄 부족이 초래되



자 병사들의 사기는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다.

셋째, 작전해역이 영국군에 유리했다. 해전이 전개된 지역은 영국본토가 가까운 곳이었다. 또한 영국해안에는 훌륭한 조건을 갖춘 항구와 함대의 기지가 많았다. 그 결과 영국 함대는 필요한 때 군수품을 쉽게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리가 먼 스페인 함대는 적기에 군수품을 보급 받지 못했다.

넷째, 지휘관의 자질문제이다. 스페인 함대 사령관이었던 메디나 시도니아는 해군과 육군의 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단지 그는 황제에게 충성하며 부하들의 건의에 경청하는 덕망을 갖추었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함대 사령관이 된 인물이다. 군 경험이 없는 그에게 함대전략이나 해전의 전술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 결과 스페인의 영국 침공계획에 대하여 함대 사령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으며 영국 함대와 결전하면서 요충지를 선점하는 적극적 작전도 전개하지 못했다. 더구나 출항 후 함대에 대한 군수보급체제를 강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적함대가 영국군에 패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헨리 8세가 범선 전투함대를 건설하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범선 전투함대를 발전시키면서, 영국은 통일된 지휘 체계 하에서 범선 전투함대에 맞는 함포를 개발, 설치하고, 전투진형과 전술신희를 개발하여 이를 꾸준히 적용한 것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영국과 스페인의 해전은 새로운 해군전술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충격전이나 백병전을 피하고, 함포전으로 승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새로운 전술형태가 부상된 것이다. 또한 함포가 전술상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비록 영국 함대의 컬버린 포가 원거리 사격에서 우수하되 파괴력이 적고 정확성이 낮았으며 스페인의 캐논 포가 근거리 사격에서 우수하였음에도 포 요원의 훈련미숙으로 위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지만 말

이다. 그러나 이후 해전에서 함포는 주요 병기로 등장했으며 함포가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이 되었다.

#### 4. 영국 · 네덜란드 전쟁

##### 전쟁의 배경

스페인의 번영을 계승한 국가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한 영국이 아니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독립을 쟁취하였을 때 이미 무역을 전 세계에 확장하고 있었으며, 암스테르담(Amsterdam)이 전 유럽의 경제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네덜란드는 1602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仲介貿易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1세기 전에 포르투갈이 장악했던 東方貿易의 패권을 네덜란드가 장악하게 되었다.

17세기 전반에 네덜란드가 세계무역과 경제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동맹국이었던 영국이 제임스 1세의 평화조약이나 크롬웰의 혁명 등으로 해양을 등한히 하고 있던 틈을 타서 해양력 강화를 이룩했기 때문이었다.<sup>258)</sup>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자, 먼 친척인 스코틀랜드 국왕을 영국 왕으로 영입하여 제임스 1세라고 명명하였다. 제임스 1세는 국제정치에 관하여는 평화주의자로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스페인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사략면장의 발행을 정지하고 영국인에 의한 스페인 선박 습격과 약탈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또 국왕 소유의 군함을 퇴역시켜 템즈 강 하구에 계류시켜 놓고 해군에게는 보수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한 예로 1608년 페르시아

---

258) J. B. Black, *The Reign of Elizabeth 1558~1603*, Oxford Univ. Press, 1970, p.46

대사가 귀국할 때, 영국 군함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해군이 “수병들은 고국을 멀리 떠나면 필연적으로 해적으로 되고 만다.”라는 이유로 군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당시 프랑스 해군의 사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국왕의 선박이 항구에 계류되어 썩어가고, 사략선이 자취를 감자, 영국 근해는 외국인 해적이나 사략선의 안마당이 되어 버렸다. 터키나 알제리, 모로코 등 이슬람교도의 해적과 프랑스인 해적의 활동이 영국 주변 해역 전체에 세력을 뻗쳐서 영국 해협이나 아이리시(아일랜드) 해 에 있는 항구조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프랑스 해군과 상선활동의 위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이 네덜란드였는데, 1620~1630년경에는 실질적인 대서양의 해양력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1625년,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는 영국 주변 해역의 해양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다. 국왕의 뜻을 받든 영국 총 해군사령관 버밍엄 공작 빌리어스는 함대를 정비하여 스페인과 프랑스와 일전을 해서라도 해양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빌리어스는 소수의 국왕 소유선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많은 상선을 징발하여 충당하여 함대를 편성하였다.

그 당시 프랑스 해군은 오랜 기간 동안 우수한 해상 지휘관을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령관은 해상작전에 완전 무지하였으며, 하층민을 강제로 모집하여 승조원으로 충당한 병사들도 교육훈련이나 전문지식에 숙련되어 있지 못했다. 따라서 사령관의 통솔과 지휘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으며,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병사들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결국, 찰스 1세가 등극한 해에 이루어진 카디스 항 원정은 실패로 끝났고 동시에 라로셀에서 프랑스의 부르봉(Bourbon) 왕조에 반대하여 봉기한 위그노파에 대한 지원작전도 참패로 끝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628년과 그 다음해 사

령관의 한 사람이었던 머빈(Sir John Mervyn) 경은 보고서에서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sup>259)</sup>

“선내에 해막(hammock)<sup>260)</sup>조차 없어 승조원들의 갑판 위에서 그대로 자야 하는 바, 그 상태는 달리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그들은 나체로 근무하고 있어서 발이나 손가락 등은 동상으로 별절게 부어 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 나체와 공복으로 시달리며, 국왕을 위해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갤리선의 노예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모두가 불평하고 있다…”

장비가 없는 해군을 재건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찰스 1세는 해안도시와 상성에 건함세(建艦稅)인 ‘십 머니(ship money)’를 부과하였다. 의회를 무시한 건함세의 일방적인 시행으로 악화된 의회와 국왕의 대립은 내전으로 치달았고 끝내 국왕이 포박당해 사형에 처해졌다.<sup>261)</sup>

1642년에 혁명이 시작되자 해군의 대부분이 의회파(議會派)에 속해서 왕당파(王黨派)를 견제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혁명 중에 영국 해군은 해적의 제압이나 프랑스로부터의 왕당파의 지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는 등 실전(實戰)을 경험하면서 해전의 숙련도를 높여 나갔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함대의 주력이 의회가 반대한 건함세에 의하여 건조된 군함들이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의회파가 승리함으로써 해군이 의회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사고를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649년에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을 리더로 하는 의

---

259) Marcus, G. J.; A Naval History of England, vol. 1; Longmans, Green(U.K.), 1961, pp.128~129

260) 매달아맨 병사들의 간이 그물 침대

261) Lewis, M.; The Navy of Britain-A Historical Portrait; George Allen&Unwin (U.K.), 1948, pp.47~49.

Marcus, G. J.; A Naval History of England, vol. 1; Longmans, Green(U.K.), 1961 pp.129~131

회파가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하고, 'Commonwealth'라는 공화제를 실시하였다. 크롬웰이 정권을 장악하자, 육군 장군 출신인 브레이크(Robert Brake, 1599~1657), 딘(Richard Dean) 등 3명을 해군위원으로 임명하여 'General at Sea'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함대 지휘를 위임하는 동시에 강력한 해군의 건설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들은 비록 해상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영국 해군을 재건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왕당파와 내전을 치러 승리를 거둔 크롬웰 정부는 39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심을 이룬 것이 찰스 1세가 건함세로 건조한 것들이었다. 크롬웰의 재임(1653~1658) 중에 200척 이상의 군함이 건조되었는데, 이는 크롬웰이 얼마나 영국의 해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크롬웰은 군함을 건조하는 데에도 열심이었지만 승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정비에도 힘을 썼다. 이는 당시 모든 것이 영국보다 강력한 해군력을 지닌 네덜란드의 해양력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호국경(護國卿) 크롬웰(Oliver Cromwell)은 바야흐로 강력해진 영국 해군의 힘을 배경으로 1651년에 그 유명한 항해조례(航海條例, Navigation Act)를 선포하였다. 이 조례의 내용은 영국과 그 식민지로부터 반입되는 상품은 영국 선박 또는 생산품 산지의 선박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유럽의 제품이라도 대영무역 시에는 반드시 영국선이나 그 상품 생산국의 선박으로 운송되도록 의무화한 것이었다. 이 조례는 바로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지대 국가(低地帶 國家)인 네덜란드는 자원이 빈약한 국가로서 국민의 생계를 해양에 의존하고 있었고 상선대(商船隊)가 국가적 동맥(動脈)이었다. 항해조례로 인하여 일대 타격을 받게 된 네덜란드는 전반적으로 전쟁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해군을 믿고 영국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네덜란드 전쟁(Anglo-Dutch War, 1652~1674)은 근본적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의 무역전쟁(貿易戰爭)이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은 1차(1652~1654), 2차(1665~1667), 3차(1672~1674) 등 세 차례나 일어났는데, 1차는 크롬웰 시대에 2, 3차는 왕정복고(王政復古) 후의 찰스 2세(재위 1660~1685)의 치세 중에 일어났다.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은 모두 해상에서 해군전(海軍戰)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동인도로부터 유럽에 도착하는 네덜란드 선박들이 영국 해협 서부에서 선단을 편성하여 호송차 나온 네덜란드 함대의 호위하에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영국 함대가 공격하는 형식으로 전쟁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로서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는 영국 해협을 통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코틀랜드 북단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두 항로는 영국 해군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국가의 사활(死活)이 걸린 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선단 호송함대(船團護送艦隊)를 조직하였는데, 주로 이 선단이 전투의 중심이 되었다.

이 전쟁에서 치러진 일련의 해전은 범선의 함대 운용과 포의 숙련된 조작을 사용한 고도의 해군전술이 처음으로 등장한 전쟁이었다. 양국 모두 매우 우수한 해군 제독을 다수 배출하였는데, 그들은 해전에서 그들 나름의 전술로 승패를 가름하였다. 영국 측의 블레이크, 몽크(George Monck), 요크 공(Duke of York)<sup>262</sup>, 네덜란드의 트롬프(Maarten Harpertzoon Tromp, 1597~1653), 루이터(Michael de Ruyter, 1607~1676) 등이 그들 중에서 해군전술에 특히 뛰어난 해군 제독으로 알려져 있다.

양측의 함대는 해상에서 조우하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해전을 전개하였는데, 많은 해전 가운데 포틀랜드 해전(Battle of Portland, 1653. 2. 28~3. 2), 로스토르트 해전(Battle of Lowestoft,

---

262) 후일의 제임스 2세

1665. 6. 13), 4일 해전(The Four-days Fight, 1666. 6. 11~14) 및 텍셀 해전(Battle of Texel 1673. 8. 11) 등은 격렬했던 해전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 연안에는 천수로(淺水路)와 사주(砂洲)가 많기 때문에, 네덜란드 함선은 흘수가 얇은 평저선(平底船)으로 건조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영국 함선보다 크기가 작았고 견고하지 못했다. 트롬프(Martine Tromp) 제독과 루이터(Michael A. De Ruyter) 제독이 지휘한 네덜란드 해군은 그들의 상선대를 방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영국 해군과 많은 해전을 치르면서 대체적으로 호각지세(互角之勢)를 유지하며 선전 분투하였다.

#### 제1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제1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652~1654)에서는 블레이크와 몽크가 지휘하는 영국 함대가 네덜란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고자 끊임없이 호송 선단을 습격하였으며, 네덜란드 함대는 트롬프 사령관이 상선대를 방호하면서 영국 함대와 해상전투를 수행하였다.

전쟁의 첫 번째 해인 1652년의 해전은 주로 영국 해협에서 전개되었으며, 전쟁의 전반에는 영국 해협을 통과하는 네덜란드의 호송 선단을 영국 함대가 공격하는 도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측의 방어가 만만치 않아 1652년의 경우 양측 함대는 많은 전투를 수행하였지만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면서 대부분의 네덜란드 선단은 무사히 영국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다.

2년째에 들어서면서 크롬웰의 해군 강화정책으로 영국 함대가 질과 양 양면에서 크게 강화되면서 지금까지 영국 해협에서의 네덜란드의 우위가 깨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653년 2월에 있었던 포틀랜드 해전(3일간 해전)에서 역전의 용사였던 트롬프도 압도당하는 등 네덜란드 함대가 패전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네덜란드 함대는 영국 함대

에게 압도당하여 큰 손해가 되풀이 되었다, 여기서 1차 전쟁 시 중요한 해전인 포틀랜드 해전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포틀랜드 해전(Battle of Portland, 1653. 2. 28~3. 2)

제1차 영국·네덜란드 전쟁 시에 발생한 포틀랜드 해전(Battle of Portland)은 1653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 동안 영국 해협에서 진행되었다. 이 해전은 네덜란드의 트롬프 제독이 약 70척의 전투함을 지휘하여 약 150척의 상선대를 호송하고 동쪽으로 항해할 때, 영국 해협에서 초계하던 영국의 블레이크(Robert Blake) 제독이 동수(同數)의 전투함을 지휘하여 네덜란드 상선대를 포획하고자 진로를 차단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양측 함대는 각각 3개 전대로 나누어 집단전투를 벌였다. 이 당시의 전술은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상대방의 과오를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트롬프는 즉각 블레이크 전대를 공격하였고, 루이터도 역시 블레이크 전대의 측면을 공격하여 트롬프를 지원하였다. 트롬프와 루이터가 블레이크를 협공할 때 영국의 펜(William Penn) 전대가 트롬프 전대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한편 네덜란드의 에베르센(Evertsen) 전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의 몽크(George Monk) 전대를 공격하였다. 이처럼 이 해전은 일정한 전투진형을 형성하지 않은 채 전대의 기함을 중심으로 집단전투 즉 난전(亂戰, melee)으로 진행되었다.

2월 28일에 라호그 갑(岬, Cape La Hogue) 근해에서 시작된 전투는 해협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결정적인 승패 없이 3월 2일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이때 네덜란드에는 내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함대 내부에까지 미쳐, 일부 함대가 트롬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트롬프 제독은 선단을 본국으로 향하도록 조치하고, 자기의 지휘에 충실히 따르는 함대만을 이끌



고, 선단과 영국 함대 사이에 위치하였다. 3월 2일 트롬프는 탄환과 화약이 고갈된 상태에서 30분가량의 탄약만 남은 정도로 악전고투하면서 격전을 치렀다. 결국 탄약마저 고갈된 상태에서 전투는 종료되었고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는 패전하였다.

이 해전에서 네덜란드 함대는 전투함 12척과 상선 43척 그리고 5,500명의 인원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트롬프는 선단의 대부분을 생존시킴으로써 그의 임무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영국 함대는 전투함 1척과 1,200명에 달하는 인명 상실했으며, 블레이크 자신도 중상을 입었다. 이 해전의 결과 영국 해군은 네덜란드 해군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네덜란드 측은 영국 해협에 대한 해양력을 상실하였고, 영국 해군은 그 여력으로 북방항로까지 공격할 수 있었다.

특히, 포틀랜드 해전을 치른 후 영국의 블레이크, 몽크 등은 질서 있는 전투진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해 3월에 전투지침서(戰鬪指針書, Fighting Instructions)를 작성하여 함대에 배포하였다. 이 전투지침서의 요지는 각 전대의 모든 전투함은 종렬진을 유지하고 전투하라는 것과 풍상을 점유해서 전투하라는 것이었다. 그 후 이 전투지침서는 아주 엄격하게 준수되었다.

### 그 밖의 해전

포틀랜드 해전 이후 1653년 3월 4일에 지중해의 레그혼(Leghorn)에서 양 함대가 다시 맞붙었고, 6월 2일에는 가빠드 해전(Battle of Gabbard)이 있었다. 이 해전에서 네덜란드가 영국 함대를 먼저 공격했으나, 영국 측의 피해는 전무한 반면, 네덜란드는 17~18척을 상실하고 대패하였다. 이는 네덜란드의 함대가 소형이었고, 또 트롬프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함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네덜란드의 연안이 2개월이나 봉쇄되었는데 이로 인한 네덜란드의 경제적 손실

은 막대하였다.

이 봉쇄를 뚫기 위하여 1653년 8월에는 트롬프가 지휘하는 네덜란드 함대가 재차 출격하여 몽크가 지휘하는 영국 함대와 셰브닝겐(Scheveningen) 해전에서 격렬한 전투를 치렀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 되면서, 트롬프 사령관이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함으로써 네덜란드 함대는 완전히 붕괴되면서 크게 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 함대는 11척의 군함과 4,000명의 병력 손실이 생겼으며, 영국 함대도 군함 1척이 침몰하고 병력 1,000명을 잃었으며, 많은 함정이 손상을 입어 주력을 귀항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로는 악천후가 계속되어 영국 함대도 봉쇄임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

트롬프 사후, 네덜란드는 드 위드(Witte Corneliszoon de With)의 지휘 하에 들어갔는데 그는 호송임무에 주력함으로써 북방향로 상선의 대부분이 네덜란드 항만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다.<sup>263)</sup>

셰브닝겐 해전에서 패배한 네덜란드는 전쟁의 장기화를 염려하여 영국과 평화교섭에 나섰다. 전쟁 도중 영국 함대에 나포된 네덜란드 상선이 170여 척에 이르렀다. 한편 크롬웰도 국내의 가톨릭교도에 압력을 가하는 방편으로 신교도국인 네덜란드의 공화파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네덜란드를 봉쇄할 힘이 없어 네덜란드의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제1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에서는 양측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리하여 전쟁에 지친 양국은 1654년 4월 15일 1차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네덜란드는 1)영국의 항해조례를 인정하고, 2)영국 함선에 예의를 표하며, 3)동양의 식민지, 특히 암본(Ambon)의 학살사건<sup>264)</sup>에 대해 영국에게 배상

---

263) Boxer, C. R.; the Anglo-Dutch Wars of the 17th Century 1652~1674; HMSO <National Maritime Museum>(U.K.), 1974, pp.10~16

264) 1623년 동인도 암본에 설치된 영국 상무관 직원이 그곳의 네덜란드 요새를 습격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하여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영국의 상무관원과 거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 제2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제1차 전쟁 후 양국이 맺은 평화조약은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였다. 곧 제2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665~1667)이 발발하였는데, 전쟁의 원인은 역시 무역을 둘러싼 해양패권 경쟁이었다.

제1차 전쟁 후 영국이 스페인 전쟁, 왕정복고 등으로 혼란에 빠져 무역과 해운활동에 소홀했던 틈을 타서 네덜란드는 경제를 부흥하고 무역량을 크게 신장시켰다. 또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1658년 실론 섬과 마라발 해안을 포르투갈로부터 탈취하였다. 일단 쳐부수었다고 생각한 네덜란드가 다시 국력을 급신장시키자, 영국으로서는 질투심과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때 서아프리카와 미주에 있는 양국 현지기관 간에 충돌이 일어나, 이것이 그대로 제2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제2차 전쟁에서 영국은 몽크와 요크 공, 네덜란드에서는 루이터가 각각 함대를 지휘하여 싸웠다. 함대를 재건하고 전투에 임하여 적극적으로 영국 함대의 주력을 찾아 공격함으로써, 루이터 제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함대가 대체적으로 해전에서 우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2차전에서는 양군 모두 적 함대의 격멸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것이 부분적으로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적국의 해안 지역을 침공하여, 그곳에 있는 함선이나 창고 등을 불태웠다. 또 종전에 함정간 일대일 전투에 불과하였던 해전의 형태가, 한 사람의 사령관에 지휘 하에 움직이는 전투진형이 개발됨으로써 함대 간의 전투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더불어 양군의 지휘관들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을 발달시켰는데 이들의 해전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전술서가 저술되었다. 영국에서는 단종렬진을 기본으로 하는 전투진형이 정

---

기에 고용되어 있던 일본인, 포르투갈인 등 함께 21명을 학살한 사건임.

형화되었다.

그러면 2차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2개의 해전, 로스토프트 해전과 4일 해전, 그리고 4일 해전 이후의 전투에 관하여 살펴보자.

#### 로스토프트 해전(Battle of Lowestoft)<sup>265)</sup>

제2차 전쟁 기간인 1665년 6월 13일 영국 남동 해안에서 발생한 로스토프트 해전(Battle of Lowestoft)은 영국·네덜란드 전쟁 시에 제해권 경쟁을 위한 가장 치열한 해전 가운데 하나였으며, 전투 중에 종렬진을 유지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병항전(並航戰)을 전개한 해전의 하나였다.

전투에 참가한 양측 함대는 각각 100척 이상의 함선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화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영국왕 찰스 2세의 친동생인 요크 대공(大公, Duke of York)<sup>266)</sup>이 영국 함대를 지휘하였다. 3개 전대로 편성된 영국 함대는 전투함 53척, 무장상선 21척, 화선 21척을 포함하여 총 109척으로 구성되었으며, 4200문의 포를 장비하였다.

기병장교(騎兵將校) 출신인 오프담(Wassnaer van Opdam) 장군이 지휘하는 네덜란드 함대는 전투함과 무장상선 103척, 화선 11척과 소형선 7척으로 구성되었으며, 4900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7개 전대로 편성된 네덜란드 함대는 영국 함대에 비하여 수적으로 약간 우세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투함의 크기와 포의 구경이 작았다. 반 오프담은 내각으로부터 즉각 전투를 하라는 불가피한 명령을 받고 있었다.

양측은 서로 풍상의 위치를 점유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결국 풍상의 위치를 선점한 요크 대공이 그의 유리한 위치를 끝까지 유지하였다.

---

265) 1665. 6. 13

266) 요크 대공은 영국·네덜란드 전쟁 시에 함대 사령관으로 영국 함대를 훌륭하게 지휘하고 전투지침서와 信號體系를 개선하는 등 해군전술의 발전에 기여한 바 컸다. 그러나 그는 찰스 2세의 뒤를 이어 제임스 2세(James II)로 왕위에 올랐지만 실정하여 축출되었다(영국왕위 계승전쟁).

영국 함대는 네덜란드 함대의 종렬진에 대하여 평행이 되는 종렬진을 전개하였으며, 요크 대공은 두 번에 걸친 2회의 90° 회전(1회는 접근하기 위한 것이고 1회는 종렬진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을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 네덜란드 함대를 압박하였다.

오프담은 풍상의 위치를 점유하려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영국 함대 사령관을 나포하기 위하여 재빨리 자함을 영국 함대에 접근시켜 공격하였다. 오프담 예하의 함선 4척이 영국 기함에 공격을 가하기 위하여 오프담의 기동을 따랐다. 그 순간부터 양측은 평행으로 항해하면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그때 네덜란드 함대의 차석 지휘관인 코르테나(Cortenaar) 제독이 전사하였다. 그러자 코르테나가 탑승했던 기함의 승조원들이 낙담한 나머지 전열의 유지를 포기하고 자함을 전열에서 이탈시키고 말았다. 이렇듯 네덜란드 함대의 전열에 돌파구가 생기자, 영국 함대의 차석 지휘관인 샌드위치 경(卿, Earl of Sandwich)이 이곳을 돌파하여 네덜란드 진형을 분리시켜 혼란을 가중시켰다.

잠시 후, 오프담 기함에서 탄약고가 폭발하여 화염에 휩싸였고 오프담이 사망하였다. 둘로 분리된 네덜란드의 함선군은 영국 화선의 공격을 받아 다시 몇 척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일대 타격을 받았다. 저녁 무렵에 에베르센과 트롬프(Cornelius Tromp) 제독<sup>267</sup>이 패전한 네덜란드 함선을 수습하여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였다.

이 해전에서 네덜란드 함대는 함선 17척을 상실하였고 제독 3명을 포함하여 승조원 4,000명을 잃었다. 영국 함대는 함선 2척을 상실하고 제독 2명과 승조원 800명을 잃었다.

#### 4일 해전(The Four-Days Fight)

1666년 6월 1~4일 영국과 네덜란드 함대는 제해권을 경쟁하기 위

---

267) 유명한 Martin Tromp의 아들

하여 영국 해협에서 4일 해전을 벌였다. 6월 1일 드 루이터 제독이 지휘하는 네덜란드 함대가 영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뉝케르크를 출항하여 템즈 강 하구에 침투하였다. 전투함 85척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함대는 포 4600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조원은 22,000명이었다. 루이터가 중위를 지휘하였고, 에베르센이 전위 그리고 트롬프가 후위를 맡았다.

몽크 제독과 루퍼트 왕자(Prince Rupert)가 공동으로 지휘한 영국 함대는 전투함 84척, 포 4,500문 그리고 승조원이 21,000명 이었다. 아이스큐(George Ayscue)가 전위, 알린(Thomas Allin)이 후위를 맡았다. 그러나 루퍼트는 24척을 이끌고 프랑스 함대를 감시하기 위하여 영국 해협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함대는 몽크가 지휘하는 60척만으로 네덜란드와 싸워야 했다.

1일 정오경에 영국 함대는 바람을 등진 위치를 차지하여, 먼저 몽크가 밀집된 종렬진으로 트롬프 전대의 선두에 위치한 부대를 공격하였다. 이때 투묘를 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함대는 급히 뺏줄을 끊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응전하였지만 고전하였다. 16:00경에 드 루이터와 에베르센이 합류함에 따라 네덜란드 함대가 우세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오후 전투에서 영국 함대는 네덜란드 전 함대와 접전을 벌였는데, 피해가 속출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2일과 3일에도 전투가 계속 되었는데 양군 모두가 밤중에 손상된 함대를 수리하여 다음날 다시 싸우는 등 사기가 충천하였다. 6월 2일 몽크가 나란히 향해하고 있는 네덜란드 함대를 다시 공격하였다. 이때 영국 함대가 47척, 네덜란드 함대가 77척 이었다. 6월 3일 이제 30척밖에 남지 않은 몽크는 템즈 강으로 후퇴한 다음, 그날 오후에 루퍼트와 합류하였다.

6월 4일 양측 함대는 다시 최후의 결전을 시도하며 서쪽으로 향진하였는데, 네덜란드 함대가 풍상에 위치하였다. 영국 함대의 전위와

중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자 드 브리스가 지휘하는 네덜란드의 전위가 이 공백을 돌파하였다. 곧 이어 트롬프가 후위를 이끌고 풍하 쪽으로 접근하여 영국 함대의 중위와 후위를 협공하였다. 이때 드 루이터가 또 영국의 중위를 돌파하였다. 이제 둘로 분리된 영국 함대는 심한 타격을 받고 마침내 전투를 포기하였다. 네덜란드 함대 역시 탄약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투장소를 이탈하여 귀항하였다.

이 4일 해전에서 영국 함대는 함선 17척을 상실하고 5,000명이 전사하였으며, 3,000명이 포로가 되었다. 네덜란드 함대는 함선 6척을 상실하고 2,000명이 전사하는 데 그쳤다. 이 해전에서 드 루이터는 확실하게 승리하였지만, 영국 함대를 완전히 격파하지는 못했다. 영국 해군은 열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람을 등진 위치를 잃지 않으면서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 무장하여 함대를 움직이고 한때나마 전투에 임함으로써 마침내 전투장소를 이탈해 간 것은 네덜란드 함대였다.<sup>268)</sup> 그래도 드 루이터는 영국 해협을 다시 통제하고 템즈 강 하구를 봉쇄하여 영국 해군에게 치욕을 안겨 주었다.

#### 4일 해전 후의 해전

1666년 8월 4일 양군은 템즈 강 하구에서 다시 만났다. 이 전투를 ‘세인트 제임스의 날 해전(St. James’s Day Battle)’ 또는 해안의 지명을 따서 ‘오퍼드네스(Orfordness) 해전’이라고 한다. 이 해전은 루이터가 지휘하는 88척의 네덜란드 함대와 루퍼트와 몽크가 지휘하는 89척의 영국 함대가 맞선 전투였다. 양군은 전위와 중위 모두 긴 단종렬진으로 대전하였고, 후위는 본대와 떨어져서 접전하였다. 거의 같은 세력으로 대결한 이 해전에서 대형함이었고 척당 대포의 수가 많았던 영국 함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는데, 26일 아침까지의 추격전

---

268) Sanderson, M. : Sea Battles-A Reference Guide; David & Charles(U.K.), 1975, pp.77~78

끝에, 네덜란드 함대는 간신히 수심이 낮은 본국의 근해로 도망하여 겨우 전멸을 면했다.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 함대는 함정 20척과 전위 부대의 사령관인 에버트센(Johan Evertsen)을 포함한 4,000명의 전사자, 부상자 3,000명의 손실을 입었으나, 영국 측의 손실은 불과 1척에 그쳤다.<sup>269)</sup>

이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네덜란드는 일시적이기는 하였지만, 도버 해협 부근의 해양력(sea power)을 상실하였고 동년 8월 8일에 홈스(Sir Robert Holmes)가 인솔하는 영국 함대가 네덜란드의 해안을 봉쇄하고 왓텐해에 침입하여 160척 이상의 상선을 포획하는 ‘홈스의 화톳불(Holmes’ Bonfire)’이라는 네덜란드로서는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인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복수를 다짐한 루이터는 함대를 정비하여 1667년 6월, 군함 88척을 이끌고 템즈 강 하구를 다시 공격해 왔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영국은 전년의 대승리에 자만하여,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해군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많은 군함을 퇴역시키고 승무원을 해고시켰다. 이러한 때에 루이터가 템즈 강까지 침입하여 화공선을 보내어 육상시설과 계류 중인 군함을 불태웠다. 런던 시민들 중에는 서둘러 피난 가는 사람들조차 나타났다. 네덜란드 함대는 영국의 기함 로얄 찰스(Royal Charles) 호 외에 1척의 군함을 포획하고 의기양양하게 본국으로 돌아갔다.<sup>270)</sup>

그러나 국력을 소모한 네덜란드가 휴전을 희망하여 1667년 8월에 부레다(Breda) 평화 회복조약이 네덜란드에게 유리하게 타결되었는데, 그것은 템즈 강 습격에 따른 성과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네덜란드는 북미주의 주요거점인 뉴 암스테르담(New Amsterdam,

---

269) Sanderson, M. : Sea Battles-A Reference Guide; David & Charles(U.K.), 1975, pp.136-138

270) Sanderson, M. : Sea Battles-A Reference Guide; David & Charles(U.K.), 1975, p.179



현재의 New York)을 포기하고 미국 동부 해협의 통제권을 영국에 양도하였다.

제2차 전쟁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일진일퇴함으로써 양국의 국력을 크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영국은 1666년 9월에 런던 대화재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가 공통으로 빠진 고민은 전 세계 식민지와 무역을 위해 나가 있던 강력한 함대를 본국의 해역으로 집결시켜 대치하는 바람에 대서양이나 지중해 등 주요 해역에 군함을 배치하지 못하여 해적이나 사략선의 활동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프랑스와 스페인이었다. 이들 국가는 대양에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해양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식민지 확충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중간 중간에 양국 모두는 세계 각지에 함대를 파견하여 해외에서의 쇠약해진 해양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특히 영국은 1차 전쟁 후 에 윈정군을 태우고 노바스코샤(현 캐나다 동부)와 자메이카 섬을 탈취하는 등 가는 곳마다 스페인 선박을 습격하여 엘리자베스 1세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 제3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

그러나 영국이 영국 해협에 대한 영국의 지배권을 주장하고 항해조례의 강행을 주장하는 한, 두 나라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1672년 동인도 식민지에서 양국이 충돌한 것을 계기로 제 3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672~1674)이 시작되었다.

영국의 찰스 2세(Charles II)<sup>271)</sup>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루이 14세(Louis XIV)<sup>272)</sup>와 동맹을 맺어 함께 네덜란드를 공격하였다. 두

---

271) 在位 1660~1685

272) 在位 1643~1715

적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국인 네덜란드는 육상에서는 막강한 프랑스 지상군의 공격을 받고 해상에서는 강력한 프랑스 해군과 전쟁을 수행하느라 위기를 맞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브레다 평화조약 후 해군을 증강하지 아니한 반면, 영국은 해군력을 크게 증강하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루이터는 열세한 함대를 이끌고 전투에 임해야만 했다. 그러나 루이터의 탁월한 지휘로 네덜란드 함대는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어 나갔다. 네덜란드 함대는 인도나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차례차례 공략하면서, 통상과외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네덜란드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하고 영국과 강화를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은 현명하게도 제3차 전쟁 도중에 강화를 요청했고, 네덜란드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1, 2차 전쟁 후 국력약화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 여기서는 3차에 걸친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에서 양국 함대가 마지막 해전을 치른 텍셀 해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 텍셀 해전(Battle of Texel)<sup>273)</sup>

제3차 영국·네덜란드 전쟁 중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네덜란드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네덜란드의 함대사령과 드 루이터는 이제 영국 함대와 신생 프랑스 함대를 동시에 대적해야만 되었다. 그래서 드 루이터는 함대를 수심이 얇은 곳에 정박시켜 두었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즉시 출격하여 공격을 감행하곤 하였다.

1672년 6월 7일 솔베이 해전(Battle of Sole Bay)에서 드 루이터는 네덜란드 침공을 준비하던 영국 프랑스 연합 함대를 공격하여 그들의 상륙작전을 좌절 시켰다. 1673년 6월 7일 제1차 스킨벨트 해전(Battle of Schooneveldt)에서 드 루이터는 연합 함대의 침공계획을

---

273) 1673. 6. 7

무산시켰으며, 6월 14일 제2차 순네벨트 해전에서도 드 루이터는 영국·프랑스 연합 함대를 다시 격퇴하여 연합군의 네덜란드 침공계획을 분쇄하고 네덜란드의 선단을 안전하게 귀항시켰다. 슬베이 해전과 두 차례의 순네벨트 해전은 드 루이터의 전략·전술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1673년 8월 21일 네덜란드 연안에서 벌어진 텍셀 해전(Battle of Texel)은 영국·네덜란드 전쟁의 마지막 해전이었다. 8월 21일 루퍼트 왕자가 지휘하는 영국·프랑스 연합 함대가 상륙작전을 엄호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연안의 텍셀 섬으로 향하였다. 연합 함대는 전열함(戰列艦)과 프리깃 함 90척, 화선 30척으로, 네덜란드 함대는 전열함과 프리깃 함 75척, 화선 30척으로 구성되었다. 연합 함대에서는 루퍼트 왕자가 중위, 프랑스의 데스트레(d' Estrées) 제독이 전위 그리고 영국의 스프라지(Spragge) 제독이 후위를, 네덜란드 함대에서는 드 루이터가 중위, 뱅케르트(Banckert)가 전위 그리고 트롬프가 후위를 각각 지휘하였다.

해안과 연합 함대 사이에 위치하는 데 성공한 드 루이터가 먼저 공격하였다. 풍상에 위치한 네덜란드 함대는 횡렬진으로 전투를 개시하였고, 연합 함대는 종렬진으로 대응하였다. 양측 함대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뱅케르트는 데스트레, 드 루이터는 루퍼트 그리고 트롬프는 스프라지와 각각 교전하였다. 트롬프는 전투가 시작되자 즉각 횡렬진으로 스프라지 전대를 향해 돌격을 감행하였다. 전위전대인 뱅케르트는 4일 해전의 제 4일째 전투에서 드 브리스가 한 것처럼 영국의 중위전대와 프랑스의 전위전대의 간격을 돌파하여 데스트레 전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예하의 일부를 중위전대에 증원하도록 지원하였다. 뱅케르트의 공격을 받아 뒤로 물러난 프랑스 전대는 그 이후 해전이 끝날 때까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양측의 주력인 중위전대는 병항전(並航戰)으로 교전하였는데, 네덜란드의 중위가 전위에

서 파견된 증원에 힘입어 우세를 유지하였다.

양측은 해가 질 때까지 교전하였는데, 프랑스 함대가 철수하고 영국 함대도 귀항하였다. 이리하여 네덜란드 함대가 이 해전에서 승리하고 다시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무산시켰다. 이 해전에서 양측 함대는 침몰한 함선은 없었으나, 많은 함선이 심한 손상을 입었다. 연합 함대는 거의 2,000명의 인명을, 네덜란드 함대는 그 절반 정도의 인명을 잃었다.<sup>274)</sup>

네덜란드는 이제 해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동인도 선단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육상에서는 프랑스 군이 유트레히트를 포함한 48개의 도시를 점령하였다. 홀란드와 젤란드주 만이 제방을 끊어 국토를 물바다로 만들면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자 프랑스의 세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던 차에, 텍셀 해전에서 보여준 프랑스 함대의 행위에 격분한 영국은 네덜란드에게 단독 강화조약을 요청하였다. 네덜란드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하고 있는데다,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까지도 적으로 두고 있는 마당에 영국과 강화를 결국 인정하였다. 1674년 네덜란드와 영국은 웨스트민스트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해양에서 위협이 사라지자 네덜란드는 프랑스와의 전쟁에 전력을 경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전쟁은 1678년까지 진행되었다. 1675년에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네덜란드 함대의 일부가 지중해에서 스페인 함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함대는 대서양에서 프랑스의 연안을 봉쇄하였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해양패권을 둘러싼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은 대략 다음과 같은 양상

---

274) Sanderson, M. : Sea Battles-A Reference Guide; David & Charles(U.K.), 1975, p.203

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전쟁은 주로 네덜란드 선단에 대한 공격과 방호를 위한 전투로 이어졌고, 제2차 전쟁은 제해권 경쟁을 위한 전투함대 사이의 전투로 진행되었으며, 제3차 전쟁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상륙작전 기도에 대한 네덜란드 함대의 반격전으로 특징지어졌다.

제1차 영국·네덜란드 전쟁 포틀랜드 해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 해전에서는 종렬진 전투가 확립되었다. 현 측에 배치된 전 포를 활용하여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든 함선이 적의 종렬진에 대하여 평행이 되는 종렬진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투는 나란히 향해하면서 싸우는 병항전으로 전개되었으며, 각 함은 일대일전투를 수행하였다. 만약 백병전이 필요하다면 적선에 돌진하여 자함(自艦)의 이물(船首)에 나와 있는 굵은 통나무(bowsprit)를 적함의 색구(索具)에 걸어 백병전을 수행하였다.

100척에 달하는 함선을 지휘하여 질서정연한 종렬진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함대는 향해할 때나 전투할 때 전술적으로 전위, 중위/주력부대(center/main body) 및 후위(rear)로 구성된 3개 전대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함대를 분할하는 목적은 전투 시에 보다 융통성과 적응성을 부여하고 신속한 신호전달을 하기 위해서였다. 해군전술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전투함대에서 무장상선이 점차 제외되고 표준화된 전열함(戰列艦, ships of the line)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함대를 구성했던 함선의 수도 점차 감소하였다.

영국·네덜란드 전쟁 시의 여러 해전에서 양측 함대가 화선을 사용하였다. 발화성 혼합물을 적재한 이 화선은 적선의 현 측에 접근시켜 발화물질로 불을 지르기 위하여 승선한 몇 명의 용감한 인원에 의하여 조종되었다. 화선의 사용은 공격자 측이 풍상에 있을 때로 국한되었으며, 적의 함대가 향해할 때보다 정박했을 때 효과적이었다. 이들 화선은 함대가 향해하는 동안에 자력으로 함대를 따라 향해하거나

다른 함선에 의하여 예인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어뢰정이 현 대화된 화선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다.

3차에 걸친 영국·네덜란드 전쟁 중에 수없이 많이 전개된 해전에서 네덜란드 해군이 대체적으로 우세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투기량이 뛰어난 네덜란드 해군과 이들을 지휘했던 트롬프 부자, 데 루이터 등 훌륭한 제독들이 선전분투 하였기 때문이다.<sup>275)</sup> 그러나 영국(그리고 프랑스)에 비하여 소국인 네덜란드는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의 지나친 소모로 말미암아 결국 영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에서 패배하였다.

영국·네덜란드 전쟁에서 네덜란드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네덜란드는 국가의 생존을 절대적으로 해양에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네덜란드는 해양국경(sea frontier)과 함께 육상국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축성(축성)과 지상군의 유지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네덜란드 함선은 수적으로 우세하였지만 천수로인 그들의 항구에 출입하기 위하여 크기가 작았고 조종하기 힘든 평저선(平底船)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불리하였다.

반면에 영국은 네덜란드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리하였다. 첫째, 영국은 해양패권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크롬웰의 항해조례나 “네덜란드가 너무나 많은 무역의 이익을 누리고 있어, 영국은 그 이익을 탈취하려고 결심하였다.”<sup>276)</sup>라고 한 몽크의 언급에서 보듯이, 영국은 네덜란드의 무역을 탈취하기 위해 국가적 집념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였고, 급기야는 오랜 숙적이며 위험한 프랑스와도 동맹을 맺었다. 둘째, 지

---

275) 마틴 트롬프 제독은 1653년 8월 10일 세베니겐 해전(Battle of Scheveningen)에서 영국 함대와의 격렬한 전투 중에 전사하였으며, 데 루이터 제독은 1676년 4월 22일 지중해에서 프랑스 함대와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전사하였다.

276) S. W. Roskill, *The Strategy of Sea Power* (London : Collins, 1962), p.33

리적으로 유리한 영국이 네덜란드 연안의 접근로인 해양을 통제할 수 있었다. 셋째, 대체적으로 영국 해군이 네덜란드 해군에 비하여 해양전술의 개발에 한 발 앞서 나갔다.

전시에 주요 해협을 통제는 전쟁의 조건을 지배할 수 있다. 영국·네덜란드 전쟁에서 전쟁의 목적은 무역이고 전쟁의 성격은 해군전이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영국 해협의 통제는 전쟁의 전반적인 조건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쟁에서 네덜란드의 해상교통로와 본토를 위협하는 영국 해협에 대한 제해권이 초점이 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공세적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영국이 유리했던 반면에, 네덜란드는 시종 불리했다고 볼 수 있다.

해전에서 자연적 조건의 효과적인 이용은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제3차 영국·네덜란드 전쟁 시에 네덜란드의 드 루이터 제독은 영국 프랑스 연합 함대를 대적함에 있어서 적의 함대가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사주(沙柱)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였으며, 바람이 불리할 때(서풍이 불 때)에는 대피하였다가 유리해지면(동풍이 불 때) 출격하여 적을 공격하였다. 이처럼 자연적 조건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전투에서 전략적 및 전술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해전에서 질서정연한 함대기동은 승리의 기초가 된다. 로스토포트 해전에서 요크 대공은 두 번에 걸친 2회의 90도 회전을 정확하게 집행하였는데, 이는 요크 대공과 예하 함장들의 기동술이 우수하였다는 것과 그들의 원만한 협조 그리고 신호 전달의 신속성을 과시한 것이었다. 반면에 네덜란드 함대에서는 비록 내분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일부 함선이 전열을 이탈함으로써 혼란을 야기 시켰고, 결국 이것이 로스토포트 해전에서 패전의 원인이 되었다.

네덜란드가 영국과 강화를 체결하고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동안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해상무역은 점진적으로 영국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더욱이 영국·네덜란드 전쟁이 끝나고 15년 후에 네덜란드의 왕

자 오렌지 공 윌리엄(William of Orange)이 영국 왕(William III)을 겸하게 됨에 따라 네덜란드 해군은 영국 해군과 병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의 해양력은 영국과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과 동맹하였기 때문에 쇠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 5.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1688~1815)

### 개요

17세기말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약 120년간은 네덜란드로부터 제해권을 획득한 영국이 식민제국으로 크게 발전한 기간이었다. 영국의 식민지는 세계 곳곳에 있었으나, 이 시기에 특히 중요했던 지역은 서인도 제도를 포함한 북미주와 인도로 영국 본토와 연계하여 번영을 계속하였다.

네덜란드가 세 차례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 결과, 바다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내놓게 된 이래 영국의 적대국이 된 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 또한 북미와 인도의 식민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는 곳마다 영국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 시기 프랑스에는 앙리 4세, 루이 13세 시대를 거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고, 루이 14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절대왕정의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루이 14세 시대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와 같은 걸출한 재상이 출현하여 전형적인 중상주의를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는 프랑스의 국내공업을 육성 보호하고, 수출 증대를 꾀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획득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는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괄목할 만한 해양정책을 취했다. 그는 해군력을 증강하고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를 재건하여 식민지를 개척하고, 프랑스가 영국과 네덜란드에 필적할 만한 해양국가가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프랑스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해양력을 위협할 수 있는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프랑스가 루이 14세 이후 세력 확장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의 구태의연한 적대관계가 다시 부상하였다. 당시 유럽 제국에서는 왕위 계승 등을 둘러싸고 연속적인 전쟁상태가 계속 되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들 전쟁에서 항상 적대적 처지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 해외 식민지와 그곳으로 통하는 해상교통로를 두고, 양국의 해양력(sea power)이 격돌하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해전은 127년간에 걸치는 기나긴 전쟁으로, 그 기간 중 영국과 프랑스는 7번의 큰 전쟁(Seven Anglo-French Wars)을 치렀으며 적어도 62년간 항시 전쟁상태에 있었다. 더구나 서인도 제도 및 북미에서 영국 식민지와 프랑스 식민지 그리고 이들이 속한 인디언 연합군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은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7번의 큰 전쟁은 다음과 같다.

- 영국 왕위계승 전쟁(1688~1697)
-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1701~1714)
-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1740~1748)
- 7년 전쟁(1756~1763)
- 미국 독립 전쟁(1775~1783)
- 프랑스 혁명 전쟁(1793~1802)
- 나폴레옹 전쟁(1803~1814, 1815)

이들 일련의 전쟁은 모두 당시 규모로는 세계적인 전쟁이었는데, 영국 왕위계승 전쟁,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프랑스 혁명 전쟁은 유럽에서 프랑스의 패권을 예방하고 프랑스의 국력과 세력 확장을 제

한하기 위해 대륙에서 싸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sup>277)</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 미국 독립 전쟁(1775~1783)은 모두 성격상 해전이었고 그 동기는 상업 및 식민지와 관련된 전쟁들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처지에서 본다면 주전장(主戰場)은 항상 해상으로, 육상에서의 전쟁은 보조적인 성격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양국의 본토가 전장으로 된 일도 거의 없었다. 그것은 영국의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영국은 프랑스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유럽 제국과 동맹을 맺어 프랑스와 투쟁하였는데, 전쟁의 원인과 배경이 어찌 되었든 영국은 주로 유럽 대륙에서 투쟁하는 동맹국들에게 군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자신은 식민지와 해상교통로를 놓고 프랑스와 그 동맹국과 해외 주로 바다에서 전쟁을 벌였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양상은 주로 해양에서의 주쟁으로 이어졌다. 전장이 된 해역도 최초의 ‘영국 왕위계승 전쟁’ 때에는 영국 해협이었으나, 다음의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의 경우에는 서인도 제도의 해역이나 지중해로 확대되었고, 7년 전쟁에는 이것이 인도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27년 동안 7번의 큰 전쟁에서 영국은 세 번이 무승부(1688~1697, 1740~1748, 1778~1783), 한 번은 거의 패배(1793~1802), 또 세 번은 승리(1702~1713, 1756~1763, 1803~1815)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왕위계승 전쟁으로부터 ‘나폴레옹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전쟁 기간 중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참가하였던 주요 해전을 정리해 보면, 총 59회에 걸쳐 영국 근해, 스페인 근해, 지중해와 서인도 제도, 그리고 인도 근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해전이 치러졌다.

이들 전쟁에서 영국 함대가 항상 우세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패한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영국 해군이 약간 우세했다.

---

277) Correlli Barnett, Britain and Her Army, 1509~1970: A Military, Political and Social Survey(London: Penguin. 1970). pp.187~188

그 결과, 약 120년이 지난 뒤 서인도 제도나 인도의 극히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식민지 태반이 영국에게 탈취 당했다. 특히, 영국은 1704년, 지브롤터(Gibraltar)와 1708년에 미노르카(Minocar)를 점령함으로써 지중해 입구를 장악하고 지중해에서 원활한 해군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 중 영국 함대는 조직상으로는, 함대의 세력 면에서 크게 약진하였다. 또한 이들 여러 해전을 통해 루크(George Rooke), 앤슨(George Anson), 호크(Edward Hawke), 보스카웬, 넬슨(Nelson) 등 우수한 해군의 제독(육군의 장군)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실전을 통하여 실력을 향상시켜 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영국은 해군이 육군보다 우세한 흔치 않은 국가<sup>278)</sup>였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국가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두고 육군과 해군 간에 어떤 형태로 든 예산 쟁탈전이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대부분 국가들에서 어떤 이유로는 육군 위주로 예산이 편중되기가 쉽다. 그러나 영국에서만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국방상 해군의 우월성이 인정되었다. 아마도 그것은 강력한 대륙 국가인 프랑스가 바로 이웃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영국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루이 14세나 나폴레옹, 2차 대전 시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듯이, 핑계만 있으면, 영국을 침공하여, 정복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못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위협이 불과 20마일의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음으로써 프랑스의 영국 침공 가능성은 영국방위를 담당하는 부서에겐 항상 따라다니는 강박관념의 하나였으며 국방전략의 중요한 요소였다.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국방전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해군이었다.

사실 영국 해군은 약 120년에 이르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항상 대서양, 지중해, 및 인도양 등에서 격렬한 전투를 치러야만 했으나, 육

---

278) 아마 유일한 국가

군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베리아 반도나 플랑드르 지방에서 전투한 것을 예외로 한다면, 식민지에서 국지전을 치른 것 외에는 전투다운 전투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유럽 제국과 같이 해군의 증강이 육군 때문에 제약을 받거나, 국왕이나 내각의 개편에 의해 해군에 대한 평가가 소홀해진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루이 14세나 나폴레옹의 영국 정복 야망을 분쇄하여 영국의 대전략이 달성되도록 만든 가장 주된 도구는, 바로 영국의 해양력과 해군이었던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약 120년간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해군 간에 있었던 59차례의 해상전투 중에서, 여기에서는 해군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해전이나 식민지 확장 상 커다란 관심사가 되는 사건 몇 가지만을 추려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그러나 120년간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대미를 장식한 트라팔가르를 해전은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별도로 상세히 분석하기로 했다.

### 영국 왕위계승 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장기전의 발단이 된 것은 1688년 영국의 명예 혁명이었다. 국왕 제임스 2세<sup>279)</sup>의 가톨릭정책을 싫어한 영국의회가, 그의 딸인 메리 2세(재위 1689~1694)와 메리의 남편이며 신교도인 네덜란드 왕자이자 총독인 오렌지 공 윌리엄(William of Orange)<sup>280)</sup>을 공동 왕으로 영입하자,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 치하였는데, 그는 핑계만 있으면 유럽 각지에 프랑스 세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핑계 삼아 바로 제임스 2세의 왕위 부활을 지원하여 영국과의 왕위계승 전쟁에 돌입하였다. 1690년 아일랜드에 상륙한 제임스는 네덜란드 해군

---

279) 재위 1685~1688

280) 영국 왕으로서 William III 재위 1689~1702

의 지원을 받은 윌리엄 3세에 의해 ‘보인’ 전투에서 패하여 프랑스로 달아났으나, 해전에서는 영국 함대는 비치헤드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에게 여지없이 패하였다.

영국 왕위계승 전쟁 당시에 프랑스는 콜베르의 정책에 따라 강력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도버 해협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서양과 지중해 함대를 브레스트(Brest)에 집결시켜, 전열함 70척을 3개 전대로 편성하여 뚜르빌(Tourville) 제독이 지휘토록 하였다.

한편 영국은 허버트(Arthur Herbert, 나중에 Torrington) 제독을 총지휘관으로 하여, 영국·네덜란드 연합 함대의 전열함 57척(네덜란드 전열함 21척)으로 3개 전대를 편성하여 전투에 참가하였다.

1690년 7월 10일 영국 남동 해안의 비치헤드(Beachy Head) 근해에서 프랑스 함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합 함대는 종렬진으로 풍상에서 접근하여 프랑스 함대와 평행을 이루었다. 네덜란드의 에베르센(C. Evertsen) 제독이 지휘하는 전위전대가 먼저 근거리에서 포격을 개시하며 전투에 들어갔고 후위인 영국 전대도 전투에 들어갔으나, 허버트가 지휘하는 중위전대(본대)가 전투거리를 벌려 전투를 회피하였다.

뚜르빌은 자신의 중위전대를 전진시켜 네덜란드 전대를 양쪽에서 협공하여, 네덜란드 전열함 10척을 격침시켰다. 연합 함대는 전투를 중단하고 도주하였는데, 이때 프랑스 함대는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았다. 만약 뚜르빌이 전력을 다해 추격했다면 네덜란드 전대를 전멸시키고 전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때의 패전 책임으로 재판에 회부된 허버트 제독은 전투에서 패하였으나, 전투를 기피함으로써 휘하의 함대는 격멸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Fleet in Being)하였기에, 프랑스의 영국 침공기도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변명함으로써 무죄가 되었다. 허버트의 이 말은 후세에 유

명하게 되어 회자되는 말이 ‘現存艦隊(Fleet-in-Being)’라는 말이었다. 그 이후 현존 함대전략은 열세한 함대가 취하는 상투적인 전략으로 일반화되었다.<sup>281)</sup>

#### 바플레어 해전과 라호그 해전(Battle of Barfleure and La Hogue)

1692년에 루이 14세는 영국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제임스 2세를 왕위에 복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뚜르빌 제독은 도버 해협을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열함 45척, 프리깃 함 및 화선 13척으로 함대를 구성하였다.<sup>282)</sup> 한편, 영국·네덜란드 연합 함대는 허버트의 뒤를 이은 러셀(Edward Russell) 제독의 지휘 아래 전열함 88척(네덜란드 26척), 프리깃 함 및 화선 37척으로 함대를 구성하여 이에 맞섰다.

5월 29일 10시경 두 함대는 노르망디(Normandy) 반도의 라호그 갑(岬) 근해 바플레어에서 조우하였다. 풍상 쪽에 위치한 뚜르빌은 두 배나 많은 영국 함대에게 포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대 간의 간격을 넓혀 가면서, 함 대 함 전투로 공격을 하였다. 15:00경에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전투는 소강상태가 되었다.

그 다음 날 오전에 뚜르빌은 35척의 전열함을 집결시키고 나머지는 브레스트에 입항시켰다. 러셀이 프랑스 함대를 발견하고 추격하였다. 그날 밤 프랑스의 전열함 20척이 좁은 수로를 통하여 무사히 도주하였으나 31일 새벽에 프랑스의 기함과 다른 전열함 2척이 셸브르(Cherbourg) 해안에 좌초하였다. 기함을 옮긴 뚜르빌은 전열함 12척을 라호그 해안에 바짝 접근시켰다. 좌초된 3척의 함선은 영국 화선의 공격을 받아 격파되었다.

281) 현존 함대전략의 유래에 대해서는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pp.104~105 참조.

282) 지중해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해전이 시작되어 대서양 함대만으로 함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6월 2일 오후에 해안에서 프랑스 육군과 제임스 2세가 지켜보는 앞에서 영국 함대는 소형 주정으로 라호그에 있는 프랑스 함선을 공격하여 이들을 나포하거나 불태워버렸다. 결국 프랑스 함대는 전열함 15척을 상실하였는데, 이 라호그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가 받은 정신적 타격은 매우 커 그 이후 해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즉, 이 해전 이후 프랑스 해군은 프랑스 해군과의 제해권 경쟁보다는 영국에 대한 통상파괴전에 주력하게 되었다.

#### 툴롱 해전(Battle of Toulon)

툴롱 해전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기간인 1746년 2월 22일에 프랑스 남부 툴롱 근해에서 영국 함대와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 사이에 발생한 해전이다. 매튜스(Thomas Mathews)가 지휘하는 영국 함대는 전열함 28척으로 구성되었다.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는 드 크루(De Court) 제독이 지휘하는 전열함 27척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스페인 함선 12척은 나바로(Don Hose Navarro)의 지휘 아래 후위로서 행동하였다.

해전 직전, 풍상에 위치한 영국 함대는 전열이 미처 정비되지 못했는데, 레스톡 제독이 지휘하는 후위전대가 중위전대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국 함대를 지휘하였던 매튜스는 정상적인 종렬진이 형성하기 전에 적 함대의 도주를 우려하여 돛을 증가시켜 속력을 올렸다. 매튜스는 전쟁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가 직접 인솔하는 중앙전대만으로 연합 함대의 후위전대를 공격하여, 2척을 격파 내지는 포획하였으나, 다른 함선은 놓쳐 버리고 말았다. 이때 후위전대를 이끌었던 레스톡 제독이 바로 참전을 했더라면, 연합 함대의 후위전대를 격멸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해전이 끝난 후 매튜스, 레스톡, 그리고 몇몇 함장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으나, 레스톡은 교전에 앞서 전투진형이 형성되기 전에 전열을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규정을 명시한 전투지침에 의거 행동하였음을 주장하여 무죄가 되었고, 오히려 메튜스만은 사령관 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해전에서 승리의 기회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전투지침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영국 함대의 신성 불가침한 선이 되어 버린 것이다.

미노르카 해전(Battle of Minorca, 1756. 5. 20)

지중해의 발레아레스 제도의 한 섬인 미노르카 섬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중인 1709년에 영국에 점령되어 영국령이 되어 왔으나, 1756년 프랑스는 이 섬에 수송선 150척에 육군 1만 5천 명을 태워 갈리소니에르(La Galissonniere) 제독이 지휘하는 전열함 12척으로 구성된 함대가 호위하도록 하여 상륙 시켰다. 이에 영국도 빙(Sir John Byng) 제독이 이끄는 전열함 13척을 미노르카 섬 해역으로 보내 프랑스 함대와 대전토록 하였다.

13시에 양 함대는 종렬진을 형성하고 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접근하였는데, 풍상 쪽에 위치한 영국 함대가 프랑스 함대와 나란히 가기 위해 일제히 좌측으로 거의 180도에 가까운 회전을 한 다음 예각<sup>283)</sup>을 이루는 방향으로 프랑스 함대에 대해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위의 6척으로 형성된 웨스트(Temple West) 제독의 전대가 먼저 전투위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빙 제독이 이끄는 본대의 6척은 포격 거리 안에 드는 것이 늦었고, 게다가 전위전대의 기함인 인트리피드(Intrepid)가 포격을 받아 톱 마스트가 부러져서 행동의 자유를 상실함으로써 오히려 본대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본대의 전열이 혼란에 빠져 전위전대만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시점에서 빙 제독은 전열을 고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접근하도록 각함에 명령해야 했다. 그러나 빙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

---

283) 약 30~40도의 교각



쟁인 1744년 툴롱 해전에서 영국 지휘관 메투스 제독이 전열을 이탈하여 직접 인솔하는 본대만으로 전투에 돌입하여 전투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실을 상기하고, 전투중지를 명한 후 전함대를 이끌고 지브롤터로 귀항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지원 세력을 상실하고 미노르카 섬의 마온 수비대는 한 달 가량을 버티다가 힘이 다하여 항복하고 말았으며, 프랑스군이 이 섬을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 함대는 승리보다는 함대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프랑스 함대가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추격하지 않음으로써 해전의 승패는 무승부로 끝났다.

빙은 영국으로 소환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1757년 3월 14일 그가 지휘하던 기함 모나크 함상에서 총살되었다. 빙의 총살은 그에게 패전의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음이 틀림없으나, 그가 행동을 잘못하도록 한 원인은, 알고 보면 전투지침의 무조건적인 엄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영국 해군의 전투지침이 함대 사령관의 행동반경을 얼마나 크게 제약하는 요소였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사례였다.<sup>284)</sup>

7년 전쟁에서 빙의 총살과 같은 해군의 비극도 있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 얻은 해외 식민지와 해양지배권은 영국에게 커다란 성공을 안겨주었다. 영국이 세계의 해양을 지배하고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라 불리는 새로운 세계체제를 구축한 기반이 바로 이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 미국 독립 전쟁과 2차 체사피크 해전

1781년 9월의 제2차 체사피크 해전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요크타운에 대한 해상보급로를 놓고 드 그라스(Francois- Joseph Paul de

---

284) Lewis, M. : Spithead-An Informal History; George Allen &Unwin(U.K.), 1972, pp.501~505

Grasse)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전열함 24척)와 그레이브스(Thomas Graves)가 지휘하는 영국 함대(전열함 19척)가 체사피크 만에서 대전(對戰)한 해전이다.

이 해전에서도 영국 함대는 전투지침을 맹종하고 정공법으로 공격하였기 때문에, 전력이 우세한 프랑스 측이 이를 여유 있게 맞받음으로써 영국 함대는 힘에 밀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체사피크 해역이 프랑스 함대의 지배하에 들어가, 만내로 깊숙이 들어간 요크타운 요새에서 고립되어 독립군과 전투 중이던 콘월리스(Charles Cornwallis, 1738~1805) 휘하의 영국 육군은 해상보급로가 끊겨 고전하다가, 다음 달 독립군에 항복하고 말았다.

이는 미국의 독립을 군사적인 면에서 성공시킨 대 사건이었는바, 그레이브스의 결전 회피와 퇴각이 그 원인이었다. 그레이브스 제독의 실패는 전투지침만을 맹종하여, 진형을 유지하기 위해 서전에서 너무 천천히 접근하여 공격하였다는 점과, 막상 교전이 한창일 때도 전투지침만을 너무 맹종하여 임기응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린 결과에 기인했으며, 프랑스 해군으로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 해군은 결정적인 시기에 미국 연안의 해안에 대한 지배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미국을 독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쉬프랑 제독의 인도양 해전

1782년 2월부터 1783년 6월까지 인도양에서는 프랑스 함대 사령관 쉬프랑(PierreAndre de Suffren) 제독의 전대와 휴지스(Edward Huges) 제독이 지휘하는 영국 전대가 인도양 제해권을 둘러싸고, 다섯 차례에 걸쳐 실론 섬을 중심으로 한 인도양 전역에서 해전을 벌였다.

이 시기 인도에서는 영국의 세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쉬프랑 제독은

증원부대로 전열함 5척을 이끌고 인도양으로 항진하였는데, 전임 인도양 함대 사령관이 사망하자 쉬프랑이 인도양의 프랑스 함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쉬프랑이 인도 연안에 도착할 무렵에는, 영국의 세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인도양에는 프랑스의 항구나 정박지 그리고 보급이나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쉬프랑은 적을 격파하고 확고한 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쉬프랑과 휴지스의 첫 해전인 마드라스 해전(Battle of Madras, 1782.)과 2차 실론 해전(Battle of Ceylon)에서 쉬프랑의 전투계획은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후위를 협공하는 것이었다. 이 해전에서 영국 함대는 바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종렬진을 구성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쉬프랑은 진형을 갖추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영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후위를 집중 공격하였는데, 작전은 명중했으나 해전의 결과는 예하 함장들의 전투의지 또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만족스럽게 나타났다. 프랑스 해군은 이 두 해전에서 전술적으로 보았을 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야 했는데 모두 뚜렷한 전과가 없는 전투로 끝나고 말았다. 프랑스 전대는 2척의 영국 함선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손상을 입힌 것을 제외하고는 한 척도 나포하지 못했고 격침시키지도 못했다. 다만 영국 함대가 도주하자 쉬프랑은 영국 해군을 격퇴한 것으로 만족하고 철수하였다.

쉬프랑은 2차 해전이 끝난 후 모리시어스로 철수하여 함선을 수리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의 전대가 철수하면, 인도에서 프랑스의 입지가 붕괴되고 만다는 이유, 즉 오늘날의 개념인 해군현시(海軍顯示, Naval Presence)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령에 불복하고 계속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옳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쉬프랑은 제3차 네가파탐 해전(Battle of Negapatam)에서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지만 긴급히 수리한 후, 제4차 트링코말리 해전(Battle of Trincomalee)에서 실론의 중요 항구인 트링코말리를 공격 점령하여 기지를 확보하였다. 트링코말리 점령은 원주민 지배자들에게 미치는 정치적 효과가 매우 컸다.

1783년 6월 20일 제5차 쿠달로르 해전(Battle of Cuddalore)에서 쉬프랑은 전술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15척의 전열함으로 쿠달로르를 봉쇄하고 있는 휴지스 전대의 전열함 18척을 공격하여 휴지스로 하여금 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듦으로써 해·육상으로 포위된 쿠달로르의 위기를 구원하였다.

제5차 해전이 있던 후 유럽에서 전쟁이 종결되었다. 쉬프랑 제독은 약 1년 반 동안 적절한 기지도 없이 치열한 해전을 치르고, 또한 훌륭하게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는 귀국하는 도중에 여러 영국 기지에 회항 할 때마다 영국 해군으로부터 극진한 존경을 받았으며, 프랑스에 귀국해서는 국왕과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존경을 받았다.

#### 도미니카 또는 세인테스 해전(Battle of Dominica/Les Saintes)

미국 독립 전쟁 시 서인도 제도에서는 도서와 기지의 쟁탈을 두고 영국 함대와 프랑스 함대 사이에 마르티니크(Martinique), 세인트 킷트(St. Kitts), 도미니카/세인테스 해전 등 대규모 해전이 일곱 차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도미니카/세인테스 해전<sup>285)</sup>이 전술적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해전이다. 그 이유는 전투교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오랜 기간 동안 결정적인 승리를 한 번도 거두지 못했던 영국 해군이, 퇴보적이고 틀에 박힌 전투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전투 양상으로 대망의 승리를 기록한 해전이 1782년 4월 12일의 도미니카/세인테스 해전이었기 때문이다.

---

285) 프랑스는 도미니카 해전이라고 함.

이 해전은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인트 군도 중 자메이카 섬을 점령할 목적으로 드 그라스(Comte de Grasse) 해군 제독이 지휘하는 프랑스 함대(戰列艦 33척)와 로드니(Sir George Rodney)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전열함 36척)가 도미니카 외해 세인트스 근해 해역에서 싸운 해전이다.

양측 함대는 오전 7시경부터 종렬진을 형성하고 서로 풍상의 위치를 점유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프랑스 함대가 풍상의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양측은 반대 방향으로 항진하며 전투를 개시했다. 양측 함대는 저속으로 항진하며 포격전을 벌였다. 그런데 오전 9시경에 갑자기 풍향이 바뀌고 풍속도 약해져 프랑스 함대가 불리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함대의 전열에서 각 함선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곳이 생겼다. 그때 로드니가 드 그라스의 기함으로부터 4번째 후속함 위치에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 함대의 전열에 생긴 간격을 향해 돌진하였다.

로드니의 적진 돌파는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미리 전술적으로 고려한 결과는 아니었다.<sup>286)</sup> 그러자 그의 후속함 5척이 그 뒤를 따랐다. 영국 함대의 중위 후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 전열의 간격을 돌파하였고, 후위를 지휘하던 참모장 후드(Sir Samuel Hood) 제독도 프랑스 전열의 틈을 차단하고 이들을 분단시켰다. 이리하여 프랑스 함대는 중위와 후위 두 곳이 절단되고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풍향이 불리했기 때문에 프랑스 함대는 풍하로 변침하였는데, 이 때문에 포격에서도 불리하게 되었다. 오히려 근접전에서는 영국의 캐러네이드 포가 큰 위력을 발휘 하였다.

오후 2시경 드 그라스는 함대를 재배열하는데 실패하자, 퇴각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함대가 혼란에 빠져 전열을 잃고, 서쪽으로 도망가자, 영국 함대는 추격하여 드 그라스의 기함 ‘빌 드 파리(Ville de

---

286) 실제로 프랑스 전투진이 흩뜨러지고 바람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에게 다른 선택 방법이 없었다.

Paris, 110문합)’를 포함하여 프랑스 함선 5척을 나포하였다. 프랑스 함대에서는 함장 8명이 전사하였으며, 2,000명의 사상자와 드 그라스를 포함한 다수의 포로가 발생하였다. 영국 함대의 임명 손실은 1,000여 명 정도였다. 영국 함대는 그동안 승패를 가지지 못한 여러 차례의 해전 끝에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세인트스 해전에서 로드니 제독에 의해 달성된 승리에 대해 ‘이 전투는 해전에서 새로운 양상이 도입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287)</sup> 영국 함대의 중위와 후위가 우연하게 프랑스 함대의 전열을 돌파한 것이 전술상의 일대 진보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후일의 프랑스 혁명 전쟁이나 나폴레옹 전쟁에서도 이 돌파전술전법으로 많은 승리를 올릴 수 있었다. 특히 트리팔가르 해전에서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 6. 나폴레옹 전쟁(1799~1815)

### 전쟁 배경

프랑스는 여러 전쟁의 결과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국정이 혼란해졌으며, 그 여파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였다. 1789년 프랑스에서는 시민계급의 주도로 절대주의 구제도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이 발생하였는데, 프랑스 혁명의 근본 원인은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지만, 오랜 전쟁으로 인한 재정 결핍과 미국 독립이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패권전쟁은 미국 독립 전쟁에 이어 1792~

---

287) Helmut Pemsel, A History of War at Sea: An Atlas and Chronology of Conflict at Sea from Earliest Times to the Present(Annapolis, Md. : Naval Institute Press. nd; first pub. 1975), p.73

1799년 프랑스 혁명 전쟁과 1799~1815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계속 이어졌으며,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의 해양 전쟁도 지속되었다.

프랑스 혁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혁명을 유럽에 전파하려는 프랑스 측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 전쟁이 발생하였다. 유럽 제국과 프랑스 간에 일어난 첫 전쟁은, 프랑스 혁명을 억압하려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Preusen)군의 침입에 대하여 프랑스가 1792년 2월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일어났다. 프랑스군은 침략군을 격퇴하고 오히려 반격에 나서, 같은 해 12월 라인 강 이서(以西) 지역과 오스트리아 령 네덜란드<sup>288)</sup>를 점령하였다. 이른바 혁명의 수출이었다.

프랑스 국민의회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1793년 2월이었는데, 사실은 그 전 해부터 프랑스 군의 안트워프 점령으로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다. 이 전쟁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관계로만 국한해서 보면, 도중에 1802~1803년 아미앵 평화조약 기간과 1814~1815년의 짧은 기간에만 중단되었을 뿐, 1793년부터 1815년까지 22년에 걸쳐 계속되었는데, 그 전투 지역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 기간을 다음과 같은 여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sup>289)</sup>

1793~1797, 제1차 대 프랑스 동맹 시대

1797~1802, 제2차 대 프랑스 동맹 시대

1802~1803, 아미앵(Amiens) 조약에 의한 평화회복

1803~1807, 제3차 대 프랑스 동맹 시대

1807~1812, 나폴레옹 대륙제패 시대

1812~1815, 제4차 대 프랑스 동맹과 나폴레옹 몰락 시대

---

288) 지금의 벨기에

289) Potter, E. B. (ed) : Sea Power- A Naval History; Prentice-Hall(U. S. A.), pp.108~186

프랑스 혁명이 최고조에 달하여, 루이 16세(재위, 1774~1792)가 처형되고 혁명이 급진화되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이 혁명의 파급을 우려하여 1793년 2월에 제1차 대 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프랑스를 공격하였다.

이 기간 육상전은 군사적인 천재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의하여 프랑스의 우세로 지속되었으나, 해전에서 프랑스의 주요 군항인 브레스트와 툴롱이 영국 함대에게 철저히 함대봉쇄를 당하여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1792년 혁명의 와중에 왕당파에 속하는 툴롱 함대 사령관과 지중해 함대가 혁명정부에 반기를 들고 1년여 동안 항쟁을 계속하자, 다음해 12월에 나폴레옹의 가차 없는 맹공격에 의하여 괴멸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중해 함대도 괴멸되었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 해군의 질서와 조직도 일시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귀족 출신의 사관은 추방되거나 스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평민 출신의 하급 사관이나 하사관이 승진하여 귀족사관의 업무를 승계하였으나, 고급 지휘관으로서의 훈련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또 하사관이나 병의 불복종으로 함대전력도 크게 약화 되었다. 1794년 6월 1일 프랑스 브레스트 대서양 함대와 영국 함대가 맞붙은 윗산 해전<sup>290)</sup>에서 영국 함대에게 대 손해를 입은 후 영국의 엄격한 봉쇄작전 때문에 브레스트 함대는 거의 항내에 갇혀 있어, 훈련시킬 기회는 물론 자체 보급도 어려웠다. 당시 윗산 해전을 지휘했던 프랑스 대서양 사령관인 쥘와스(Villaret de Joyuse) 제독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해군 소위에 불과 했던 사람이었다. 그 휘하에 있던 영관급 26명 중에는 혁명전에 상선 사관이었던 자 9명, 부사관(하사관)이었던 1명, 상선 갑판장이었던 자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sup>291)</sup>

---

290) 영국은 영광의 6월 해전 Glorious First of June

291) Jenkins, E. H. :A History of the French Navy- from its Beginning to the



영국의 해양력(Sea Power)에 대한 프랑스의 도전은, 상선이나 어선이 사략선이 되어 영국의 봉쇄를 뚫고 나가 대서양이나 영국 해협에서 통상과괴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796년에 스페인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영국 해군에 대항하였다.

반면 육상에선,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이 지휘하는 프랑스 육군이 이탈리아를 평정하고, 1797년에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켰다. 그리하여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붕괴되고 영국만이 적대국으로 남았다. 파리에 개선한 나폴레옹이 총재정부(總裁政府, Diretory)에 진언하여 이집트 원정을 감행했다. 이집트 원정은 영국과 인도의 교통선을 단절시켜 영국의 인도 지배를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798년 5월 19일에 나폴레옹은 약 40,000명의 군대와 2,000문의 포를 탑재한 400척의 수송함대, 전열함 13척, 프리깃 함 4척을 이끌고 몰타(Malta)를 경유하여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상륙하여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가 나일 강 해전(Battle of Nile)에서 넬슨의 영국 함대에게 패전하자, 나폴레옹은 프리깃 함 1척으로 간신히 이집트를 탈출하여 귀국한 다음 총재정부를 타도하고 스스로 제1통령이 되었다.

나일 강 해전에서 승리한 프랑스 해군은 이집트의 프랑스군을 본국으로부터 완전 고립시키고 다시 지중해를 지배하게 되었다. 1797년 영국은 다시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제국과 제2차 대 프랑스 동맹을 조직하고 프랑스를 공격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나폴레옹은 인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쉴 사이 없는 정복이 필요했다. 1800년 나폴레옹이 뛰어난 통솔력과 진세를 통찰하는 판단력 등으로 이탈리아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나폴레옹은 1802년 종신통령이 되고, 다시 국민투표에 의하여 불과 37세의 젊은 나이로 1804년에 황제가 되었다.

---

Present Day; Macdonald & Jane's(U.K.), 1973, p.207

나폴레옹의 대륙정책의 목표는 영국의 세계제패를 탈취하는 데 있었으며, 영국 또한 나폴레옹의 대륙제패를 묵과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영국 본토에 직접 상륙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 해협의 제해권 확보 없이는 영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해군이 증강되기 전까지 영국과 평화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침 영국에서도 주전파 피트(Pitt) 내각이 물러나고 평화론자인 애딩톤(H. Addington) 내각이 들어섰다. 이것을 계기로 1802년 프랑스와 영국 간에 아미앵(Amiens) 조약이 체결되어 영국·프랑스·스페인 사이에 잠시나마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 평화기간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북부를 프랑스의 식민지로 만들고 영국 상품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나폴레옹의 정치에 불만을 갖게 된 영국 국민들은 다시 내각을 주전파인 피트에게 맡겼다. 영국은 1803년 5월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때 영국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등을 부추겨 등 제3차 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프랑스에 대응했다.

1803년 나폴레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도버 해협 건너의 영국뿐이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정복할 대대적인 계획에 착수했다.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도버 해협의 제해권을 장악해야만했다. 그의 계획에 가장 큰 장애는 영국 함대였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동원해 영국 함대를 격멸시키고자 했다. 그 방법은 영국 함대를 유인하여 도버 해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상륙군을 영국에 상륙시키려는 구상을 하였다. 나폴레옹은 “우리는 영국으로 건너가는 해협을 6시간 동안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만 달성하면 우리는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여 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292)</sup>

영국과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가 결전한 곳은 스페인 남단 트라

---

292)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 1989, p.232.

팔가르(Trafalgar) 해상이었다. 1805년 10월 21일 넬슨(H. Nelson) 제독이 지휘한 영국 함대와 빌레뇌브(P. Villeneuve) 제독이 거느린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가 결전을 벌렸다. 해전 결과 영국 함대는 프랑스·스페인의 전열함 23척을 격파 또는 나포했으며, 5,900명을 사상케 했다. 반면 영국군은 넬슨 제독을 포함 1,700여 명이 전사하였다. 유럽 천하를 휩쓴 나폴레옹이었지만 트라팔가르 해전 결과 영국 침공계획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트라팔가르 해전은 나폴레옹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였다. 나폴레옹의 영국 본토 침공계획을 완전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 갇혀 버린 나폴레옹 제국의 자멸을 초래하는 전략적 여건을 조성한 전투였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참패를 당했지만 프랑스가 1805년 12월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아우스테르리츠(Battle of Austerlitz)에서 대패시키자, 제3차 대 프랑스 동맹이 와해되었다. 그러나 해양력을 바탕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영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나폴레옹은 경제봉쇄로 영국에 타격을 주고자 1806년 11월에 소위 베를린 칙령(Berlin Decree)으로 대륙체제(Continental System)를 선포하여 대륙제국이 영국과 통상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대륙체제로 인하여 영국의 타격도 컸지만, 유럽 제국도 큰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급기야 러시아가 대륙체제를 위반하고 영국과 통상을 재개하였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하여 1812년에 대규모 원정을 감행하였으나 오히려 대패하였다.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러시아 원정 실패와 민족주의 저항이었다. 먼저 스페인에서 민족주의 저항이 일어났는데, 나폴레옹이 ‘스페인의 궤양(潰瘍, Spanish Ulcer)’이라고 불렀던 이베리아 반도 전쟁(Peninsular War, 1809~1814)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스페인에서 나폴레옹의 통치에 반항하는 스페인 국민의 게릴라전이 전개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동맹군이 이 게릴라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 반도 전쟁

에서 프랑스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군사 자원만을 소모하였다. 이 반도 전쟁을 통하여 해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는데 영국은 제해권을 바탕으로 웨링톤(Duke of Wellington) 장군이 지휘하는 원정군을 상륙시켜 반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1813년에 영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제4차 대 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나폴레옹을 공격하였다. 동맹군은 1814년 봄에 파리를 점령하고 나폴레옹을 엘바(Elba) 섬에 유배시켰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1815년 2월에 엘바 섬을 탈출하여 다시 황제에 복귀하였다. 이에 다시 동맹군이 프랑스에 침투하였으며, 나폴레옹은 처음에 선전분투 하였으나, 결국 1815년 6월에 워털루 戰鬪(Battle of Waterloo)에서 패전하여 대서양의 고도인 세인트 헬레나(St. Helena) 섬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 해서 장장 126년간의 영국·프랑스 전쟁이 종결되었다. 이로써 유럽 전 영토와 전 세계 해양에서 되풀이되던 기나긴 대 전쟁이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유럽은 평화가 회복되었다. 이후 영국 해군은 약 100년간 해양력을 두고 다른 유럽 제국의 전쟁 없이, 팍스 브리태니카의 길을 걸으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맞이하였다.

#### 트라팔가르 해전(Battle of Trafalgar, 1803. 10. 19~20)

1803년 5월 영국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자, 나폴레옹은 영국 본토 침공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대형 함선 10척으로 돌풍 함대를 편성한 뒤, 기회를 포착하여 함대를 출항시키되, 영국 함대가 프랑스 함대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동쪽으로 항해하다 변침하여 지브롤터로 향하도록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그런 다음 카디즈(Cadiz)나 리스본(Lisbon)에서 다른 함선을 합류시켜 함대를 16척으로 증강시킨 뒤 불로뉴(Boulogne) 항에 대기 중인 13만의 상륙병력을 실은

수송 선단 2,000척을 호위하여 영국의 둔제네스(Dungeness) 지역에 상륙해 영국을 침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병행하여 브레스트(Brest) 함대에게 2만의 지상군을 호송케 하여 아일랜드에 상륙시키고, 브레스트 항을 해상봉쇄하고 있는 영국 함대와 해전을 벌여 영국 함대로 하여금 불로뉴 해상방면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할 심산이었다. 나폴레옹이 생각하고 있던 영국 침공작전의 기본 축은 툴롱 함대였다. 나폴레옹은 그 중요도를 생각하여 당시 프랑스 해군 제독 중 해전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여 명성이 알려진 라뚜쉬 트레뷰(Comte de Latouche Treville) 백작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계획에는 툴롱 함대의 출항일자가 1804년 1월이었지만 함선의 수리와 소형 주정의 건조가 지연되어 1804년 여름으로 연기되었다. 소형 주정은 승조원이 60명에서 100명 정도이며 노를 저어 추진되는 경쾌선을 의미하며, 소형 주정은 자체 방어를 위해 2내지 4문의 포를 보유하고서 어느 해안이나 상륙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나폴레옹은 이 소형 주정 1천여 척을 극비리에 건조하여 4개 지역에 분산하였다가 결정적 시기에 도버 해협을 건너가게 할 심산이었다. 나폴레옹은 1804년 여름 작전계획에 따라 라뚜쉬 트레뷰에게 툴롱 함대를 출항시키라고 명령하였지만 불행하게도 라뚜쉬 트레뷰가 8월 18일 급사함으로써 작전계획은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계획이 연기되면서 원래계획을 수정하여 브레스트 함대가 주공이 되고 툴롱 함대는 견제작전을 하도록 하였다.

#### 넬슨과 빌뇌브의 해상작전

1805년 1월 11일 미씨에씨(Edmond Missiessy)가 지휘하는 프랑스의 로쉬포르 함대 함선 5척이 영국의 해상봉쇄를 뚫고 은밀히 기동하여 2월 20일 서인도 군도의 마르띠니끄(Martinique) 섬에 도착하여

그곳에 정박해 있던 영국 상선들을 나포한 후 툴롱 함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 사실을 안 것은 2월 29일 지중해의 몰타 섬에서였다. 툴롱 함대의 신임사령관은 빌뇌브(Villeneuve)였다. 그는 15세에 해군에 입대하여 1782년부터 1783년까지 쉬프랑 제독 휘하에서 마다라스와 실론 해역의 영국 함대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바 있는 역전의 용사였다.<sup>293)</sup>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 빌뇌브의 툴롱 함대 20척의 함선은 1월 18일 출항하여 서인도로 향하던 중 폭풍을 만나 함선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해 다시 툴롱 항으로 귀항했다. 1805년 초 프랑스의 함대는 툴롱 항에 20척, 브레스트 항에 20척, 마르티니끄 항에 5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 동맹국인 스페인은 15척의 함선을 카디스와 페롤 항에 분산 배치하고 있었다.

한편 영국 함대는 케이드(W. Keith) 제독 휘하에 전열함 11척, 간디움 제독이 지휘하는 21척, 콘윌리스 제독 휘하에 25척, 넬슨 제독 휘하에 13척, 칼더 제독 휘하에 10척의 전열함이 프랑스 함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넬슨(Nelson)은 1803년 5월 지중해 함대 사령관이 된 후 사르디니아의 막달레나 군도를 기지로 삼아 툴롱 함대를 감시하고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넬슨은 1758년에 태어나 13세에 해군에 입대했다. 1793년 코르시카 섬 점령에 공을 세우면서 오른쪽 눈을 잃었다. 또한 1797년 카나리아 군도의 산타크루즈 섬 전투에서 오른 팔을 잃었다. 그러나 나일 강 아부키르에서 나폴레옹 함대의 전열함을 격파한 공로로 남작이 되었으며 1801년 발트 해의 코펜하겐 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자작이 되었다. 그는 1803년 이후 지중해 함대 사령관이 되어 프랑스 함대의 지중해 진입을 봉쇄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

293)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llege, 1989, p.68

1805년 3월 나폴레옹은 영국 침공계획을 서둘렀다. 그것과 병행하여 프랑스 함대 움직임이 분주해 졌다. 프랑스 함대 주력을 지휘할 대임이 빌뇌브에게 내려졌다. 그는 3월 30일 휘하 전열함 12척을 이끌고 벨슨 함대 감시를 피해 툴롱 항을 빠져나갔다. 함대는 카디스에서 잠시 군수품을 적재한 후 함대 세력을 14척으로 증강하고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로 향했다. 그곳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을 편입시켜 함대는 20척이나 되었다.

빌뇌브 함대가 툴롱 항을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넬슨은 휘하 13척 전열함 중 10척을 선발하여 서인도 제도로 향했다. 빌뇌브 함대를 추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인도 제도에서 프랑스 함대가 지중해로 향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넬슨은 다시 지브롤터로 함수를 돌렸다. 넬슨 함대의 추격을 피해 지중해로 함수를 돌린 빌뇌브의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는 이베리아 반도 서북단 비고(Vigo) 항에 있었다. 그곳에서 빌뇌브는 나폴레옹의 전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비고 항을 출항해 페롤과 브레스트 해역을 거쳐 불노뉴로 전진하라.”라는 것이었다.<sup>294)</sup> 그것은 빌뇌브에게 수세적 방어작전을 공세적 공격작전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였다.

빌뇌브는 비고 항을 떠나 인근 페롤 항에 입항했다. 8월 13일 빌뇌브는 페롤 항을 떠나 북서쪽으로 향진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내려가 카디즈 항에 입항했다. 빌뇌브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영국의 외교전술 때문이었다. 영국은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3국 동맹을 결성했다. 빌뇌브는 그들의 후방을 공격하려는 영국과 러시아 육군의 합류를 차단하기 위해 지중해로 진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월 14일 빌뇌브가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 카타나에 잔류해 있는 스페인 함대와 합류한 후 나폴리로 향하기로 했던 의도는 몰타에 주둔해 있는 영국 함대와 흑해에서 오는 러시아함대의 합류점

294) 이정수, 『대해전』, 정음사, 1986, p.98

을 차단하기 위해 함대를 나폴리에 대기시키려는 것이었다.<sup>295)</sup>

그러나 나폴레옹은 빌뇌브의 전술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것은 공세적 작전지침을 빌뇌브가 제대로 수행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폴리 작전을 끝내면 함대 사령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자로 로실리 메스로(F. Rosily Mesros)를 임명하여 마드리드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빌뇌브는 공세적인 함행동을 하기 위해 연합 함대의 스페인 지휘관 그라비나(F. de Gravina) 제독과 협의했다. 협의 결과 카디즈를 봉쇄하고 있는 영국 함대가 군수품 적재관계로 현장에서 멀리 이탈한 시기를 이용해 출항하기로 했다. 또한 33척으로 증강된 전열함 각 6척씩을 전방으로 내세워 스페인 사령관 그라비나가 지휘하고 빌뇌브는 본대 21척을 지휘하여 뒤따르기로 했다.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는 황천(荒天)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서둘렀다.

프랑스 함대가 카디즈 항을 떠났다는 소식은 영국 감시선을 통해 넬슨에게 전해졌다. 넬슨은 함대를 이끌고 트라팔가르 해협을 향해 전속으로 향했다. 10월 21일 오전에 양측 함대는 모두 트라팔가르 갭 근해에 위치해 있었다. 넬슨은 프랑스 함대 전열함 33척이 진형을 갖추고 향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넬슨이 지휘하는 27척은 속도를 증가시켜 프랑스 함대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한편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는 전방부대 12척을 2열 종진으로 본대 21척은 3열 종진을 형성하고 향진하였다. 영국 함대가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령관 빌뇌브는 만일 넬슨이 그의 진형 후미쪽을 집중공격한다면 어떠한 공격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 그리고 함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적은 우리와 평형하게 진형을 형성하면서 함포사격으로 전투를 끝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넬슨은 우리 후미를 포위하고, 우리의 전열을 돌파하여 우리

---

295)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llege, 1989, p.96



함대를 양분시킨 후 그들의 함대 세력을 집중해 분리된 우리 함정들을 공격할 것이다.”<sup>296)</sup>

빌뇌브의 지시는 적 함대의 행동을 예측하긴 했지만 대항책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빌뇌브는 영국 함대가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돌연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에게 지중해 진입을 포기하고 카디즈 항으로 입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풍량이 심해 전투진형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항로를 카디즈 항으로 변칙한 빌뇌브는 ‘만일 교전이 불리하게 끝난다면 적어도 함대의 일부 함정 몇 척만이라도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기를 희망한다. 미숙한 병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바람을 등지고 항해하는 것보다 맞바람을 받으며 항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sup>297)</sup>고 생각하고 180도 변칙을 명령했다.

적 함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많은 함정이 180도 변칙을 한 후 새 진형을 형성하려 했지만 전열은 흐트러지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함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넬슨의 영국 함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넬슨은 영국 함대를 2개 전대로 나누어 2열 종렬진으로 연합 함대를 향해 변칙하였다. 풍상 쪽에 위치한 제1분대 전열함 12척은 넬슨이 직접 지휘하고, 제2분대 15척은 콜링우드가 지휘했다. 두 종렬진의 간격은 약 1마일이었다. 넬슨의 기함 빅토리아 호는 100문의 화포를 갖추고 진형의 선두에 위치했으며, 그 뒤를 대형 전열함 테메레르(Temraire) 호와 넵툰(Neptune) 호 등이 따랐다. 그리고 콜링우드의 기함 로열 세브린(Royal Sovereign) 호 또한 전대의 선두에 위치했는데 화포 100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둘 함정은 중요 부분을 동판으로 감싸 방어력을 보강한 전열함이었다.

---

296)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llege, 1989, p.101

297)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llege, 1989, p.102

한편 빌뇌브는 4층 갑판에 136문의 화포를 적재한 대형 전열함 산타지마트리니다드(Santasima Trinidad) 호를 진형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뒤에 사령관의 기함 부켄타우르(Bucentaure) 호를 따르게 했다. 그리고 그라비나가 지휘하는 스페인 함대 12척은 독립작전을 펼치도록 했다.

오전 11:35에 넬슨은 휘하 함정에게 ‘장병 각자는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영국정부는 기대한다’<sup>298)</sup>라는 유명한 신호와 함께 ‘더욱 접근해서 적과 교전하라’는 신호를 게양한 후, 그의 비망록에서 강조했던 구상에 따라 자신이 승합하고 있는 빅토리아 호를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의 최선봉을 향해 추격하는 척하다 갑자기 선회시켜 본대 중앙의 산타지마 트리니다드 호를 향해 돌진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영국의 2전대 사령관 콜링우드가 승합하고 있던 로열 썬브린 호도 스페인 함대 사령관인 그라비나가 타고 있는 산타아나 호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다. 그 목적은 적의 최정예 함정과 지휘함정을 공격하여 침몰시켜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휘 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전술이었다.

영국 함정에서 선제 포격을 가하자 연합 함대 측에서도 응사를 시작했다. 치열한 함포공격을 하면서 선수를 남동쪽으로 돌린 빅토리아 호(넬슨 승함)는 빌뇌브의 기함 부켄타우르(Bucentaure)를 공격해 들어갔다. 빅토리아 호는 부켄타우르의 선미를 살짝 스치듯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살인적인 현 측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빅토리아 호의 맹공격을 받은 부켄타우르 호는 병사 200여 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고, 빅토리아도 적 진형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적 함정의 집중공격을 받아 병사 50여 명이 전사했다.

한편 콜링우드는 연합 함대 후위의 선두, 즉 스페인의 그라비나 제독의 차석 지휘관인 알라바(Alava) 제독의 기함을 향해 돌진해 들어

---

298)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U.S.A. Naval War College, 1989, p.109

갔다. 넬슨을 뒤따르던 함선들은 연합 함대 전열 중위에 있는 다른 함선들을 공격하였고 콜링우드 예하의 함선들도 산개하여 연합 함대의 전열 후위에 대하여 일제히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영국 함대의 전함선이 연합 함대 일부분에 대하여 공격을 집중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연합 함대 전위부대는 빌뇌브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전투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오후 1시 30분경에 넬슨 제독은 부켄타우르를 뒤따르고 있던 리도 오우터블(Redoubtable)에서 발사한 저격병의 총탄에 맞아 명예롭게 전사하였다. 그러나 전투는 맹위를 떨치면서 17:30분까지 계속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합 함대 측에서 전투를 회피하는 함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타지마 드리니다드 호와 같이 진형의 대열에서 이탈한 함정은 영국 함대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마침내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빌뇌브는 항복의 표시인 백기를 게양했다.

전위부대 지휘관이 영국군에 투항하는 것을 목격한 스페인 함대 사령관 그라비나는 모나르카 호를 제외한 11척의 함정을 이끌고 카디스로 도주하였다. 날이 저물 때까지 트라팔가 해상의 전투는 쫓는 함정과 쫓기는 함정의 난타전이었다. 넬슨이 승함했던 기함 빅토리아 호의 항해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새벽 4시 30분까지 함포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승리의 기쁜 소식이 넬슨 경에게 보고되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다.”<sup>299)</sup>

프랑스 함대는 트라팔가르 해전의 패배로 재기 불능이 되었다. 연합 함대의 전열함 19척이 격침되고 2,60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으며 빌뇌브를 포함, 7,000명이 포로가 되었다. 반면 영국 함대는 격침된 함선은 없으나 전열함 절반이 심한 손상을 입었다. 그리고 1,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트라팔가르 해전의 패배로 영국을 침공하려던 나폴레옹의 기도

---

299) 이정수, 『대해전』, 정음사, 1986, p.107

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반면에 승리한 영국은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퇴하면서 장기간 추구하던 해양패권(Maritime hegemony)을 완전히 획득하였다. 제해권을 확보한 영국은 프랑스에 대한 해양봉쇄를 더욱 강화하여 대륙정책을 추구하는 나폴레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러시아처럼 나폴레옹에 항거하여 영국과 통상을 재개하거나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함으로써 나폴레옹 체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트라팔가르 해전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해전이 향후 국제정세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군사적 천재라고 일컬어져 온 나폴레옹은 프랑스 전체 국민의 여망에 따라 영국을 제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영국 본토 침공계획을 수립했지만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하자 영국 침공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물론 이 해전은 나폴레옹이 영국 침공을 단념한 이후에 일어났지만, 만일 프랑스 함대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국제정세와 프랑스 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프랑스는 다시 영국 침공계획을 현실화 시키려 했을 것이다.

다행히 영국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나폴레옹은 영국 침공계획을 완전히 포기했으며 나폴레옹의 대륙정책마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나폴레옹은 트라팔가르 해전 패배, 제해권의 완전 상실, 대륙 봉쇄령, 스페인 전쟁, 러시아 원정 실패, 해방전쟁, 나폴레옹 전쟁의 패배라는 단계를 차례로 겪게 되었다.

둘째, 이 해전은 육군의 전략과 해군의 전략이 갖는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작전은 지상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도버 해협이라는 지극히 부분적인 해역에 대해 단지 몇 시간만 제해권을 장악하는 전략, 즉 지상전에서의 요충지 점

령 전략과 유사한 함대 운용전략 개념을 갖고 있었다.

반면 프랑스 해군은 해양전략 개념에서 함대를 운영하였다. 바다란 일부 해역만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넓은 해역이 다 연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해역만을 이용하여 육군을 수송하면 충분하다는 나폴레옹의 생각은 해군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치명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륙적 해양전략 개념은 루이 14세와 펠리페 2세의 영국 침공계획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륙적 해양전략은 한결같이 실패하였다.

셋째, 넬슨의 탁월한 전술이다. 넬슨은 전투교리의 속박에서 벗어나 승리의 기회가 오면 주저 없이 적함의 전열에 돌입하여 승리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한 섬멸전을 행하였다. 해전에서 섬멸전술은 넬슨이 많은 해전에서 경험하고 숙고한 결과물이었다. 그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섬멸전을 사용한 것은 중세 범선 시대에 영국 해군의 전술을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넬슨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전술결심이다. 프랑스의 툴롱 함대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넬슨은 정보를 분석하여 신속한 전술판단을 했다. 그는 대서양과 서인도 군도로 신속하게 향진했으며, 서인도 군도에 이르자 툴롱 함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럽으로 함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신속한 판단과 결심, 강한 책임감, 철저한 임무수행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트라팔가르 해전의 승리로 유럽 주변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영국 본토의 안보를 튼튼히 하였고, 재정적으로 지원중인 대륙 연합국이 군사적 재앙에 빠져 있을 때에도 투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영국은 해양력을 근거로 프랑스를 비롯한 스페인 등 적대관계에 있었던 국가들의 식민지를 뿌리부터 점령해 들어갔다. 서인도 제도, 남아프리카, 인도, 실론, 동인도 제도 등

을 거의 모두 영국이 점령하게 되었고, 특히 트라팔가르 해전 후로는 발트 해로 진출하고, 영국의 지상군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작전하는 등 제해권을 확보한 영국은 해상교통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작전으로, 육전의 천재인 나폴레옹으로 하여금 러시아 원정, 이베리아 반도 전쟁 개입과 같은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를 범하도록 하였고, 영국 육군을 포함한 우군의 지상군에게 지상에서의 현대전 양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넬슨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에 대하여 거둔 대승의 진짜 의미이다. 분명 트라팔가르 海戰은 나폴레옹 전쟁의 대미를 장식한 결정적인 전투였으며, 육지에 갇혀버린 나폴레옹 제국의 자멸을 극대화 시킨 전략적 여건을 조성한 전투였다.

1815년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몰락함으로써 장기간의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영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로 성장해 있었다. 영국의 식민지는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칭할 정도로 넓은 식민제국을 형성하였다. 세계의 해양은 영국의 식민지와 본국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국 해군은 그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다.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 등 세계 해양력 쟁탈전에 가담하였던 나라들도 이 시점에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 특히 해군력으로 영국과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었고 국제정치나 경제는 영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다.

영국은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 즉 강력한 영국의 주도에 의하여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영국의 시대를 만들었다.

## 제4장

### 근대 증기선蒸氣船 시대





## 1. 해군·해양력·기술의 변혁

### 개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부터 1898년에 이르는 19세기에 해군력은 국제관계에서 항상 중요한 요소였지만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군사, 특히 해군의 기술적인 측면(증기, 포, 무장, 연료)에 있어서 세기적인 변혁이 있었으며, 상충하는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시기였다. 즉 1854~1856년의 크림리아 전쟁, 1861~1865년의 미국 남북 전쟁, 1870년 12월~1871년 1월 독일 통일 전쟁과 프랑스 나폴레옹3세와의 대결, 1894~1895년 청일 전쟁,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1904~1905년의 러일 전쟁이 그것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한 전쟁이나 발칸 반도에서 터키 세력을 축출했던 전쟁은 주로 육상에서 수행되었고, 다른 전쟁도 모두 해전이 있었으나, 영국 해군과는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이 시기 프랑스 해군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대한 제국을 방호하기 위하여 항상 한가했던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해양패권(Mastery of the seas) 경쟁을 도전받지는 않았다.<sup>300)</sup>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선박은 오로지 인간의 젓는 노의 힘 아니면 돛에 작용하는 바람의 힘만으로 선박을 움직였다. 그러한 범선 해군 시대로부터, 인간이 증기의 힘으로 선박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증기력 해군 시대까지 함정의 속력, 대포의 파괴력이나 사정거리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과 해군의 전략, 전술도 당연히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수 없다.

---

300) Stevens, William O. and Allan Westcott. A History of Sea Power. New York : Doubleday & Co. 1942 p.245

## 증기 기관과 스크류의 군함 도입

인간이 기계를 써서 선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1769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특허를 신청하면서 증기동력기관이 실용화 되고 19세기 초엽에 그것을 선박에 장치한 동력선을 개발하고 나서 부터이다. 그러나 기선이 범선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 후기에 들어서였다.

초창기의 증기추진 군함은 단순히 보조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한 범선에 지나지 않았으며, 행동반경도 매우 작았다. 그래서 영국 해군은 초기에는 증기군함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해군이 증기군함에 거부 반응을 나타낸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해군 전략가들은 증기군함은 외륜(外輪)이 선박 중앙부에 위치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해 버리므로 대포의 탑재수가 외륜의 길이와 면적만큼 감소되고, 또 외륜에 포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대포 한 방만 제대로 맞게 되면 기동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커다란 증기기관과 외륜(外輪)을 장착한 전함은 공격받기 십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외륜이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포를 장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 그럴 경우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현 측 사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기군함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바다를 제압해야하는 해군은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이 필요했다.

외륜 방식의 증기군함의 결함을 단번에 해결한 것은 스크루(screw) 채택이었다. 스크루의 채택은 1836년 스미스와 에릭슨(John Ericsson)이 영국에서 특허를 받으면서 크게 진전되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별개로 실용적인 스크루를 만들어 실용선에 장착하여 시운전에 성공하였으나 영국 해군은 바로 관심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해군의 스타턴(Robert F. Stockton) 대령은 스크루의 이점을 인정하

여 1837년 영국의 레어드 사에 스크루 추진의 예인선을 발주하여 1840년 템스 강에서 공개 시운전을 한 후 미국으로 회항하였다. 그리하여 에릭슨 자신도 스타턴의 권고에 의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여 스크루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군함건조에 나서게 되었다.

스크루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군함은 1842년 10월 필라델피아 해군 공창(海軍工廠)에서 기공되고 다음해 진수하여 프린스턴(Princeton) 호라고 명명되어 스타턴 대령이 초대 함장으로 임명되었다. 프린스턴 함은 배수량 954톤으로 에릭슨이 직접 설계한 출력 400마력 증기기관을 수면 하(水面 下)에 설치하였다. 스크루는 6개의 날개로 이루어져 13노트까지 낼 수 있었다. 세 개의 마스트와 수직형 연돌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경 12인치 장거리 포 2문과 42파운드 카로네이드 포 12문을 장착하였고, 운전 성적은 양호하였다.<sup>301)</sup>

이와 같이 1840년대에 스크루가 도입됨으로써 군함에 증기기관을 장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단점들이 극복되었다. 스크루는 대포를 장착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외륜보다도 훨씬 믿을 만했다. 사실 스크루는 물속에 잠겨 있어서 공격목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루를 장착한 증기선은 해군에게는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되자 거부반응을 보여 왔던 영국 해군조차도 나폴레옹 전쟁 때 참전했던 전함 가운데 일부를 스크루를 장착한 증기선으로 대체하였고, 1850년대 이후에는 새로 건조되는 전함에는 의무적으로 증기기관과 스크루를 장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증기추진 군함은 바람에 관계없이 기동이 자유로워졌고 전투의 시기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지만, 연료문제, 즉 석탄의 보급문제와 더불어 저탄기지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

301) Robertson, F. L. The Evolution of Naval Armament, Harold T. Story(U.K.), reprinted 1968(originally published 1921). pp.236

## 선회 포탑의 등장과 철제 군함의 등장

해군의 모습을 변모시켰던 또 다른 변화는 포대의 도입과 작열탄(灼熱彈)의 실용화였다. 19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군함에 탑재되었던 대포는 일반적으로 포구 앞에서 장전하는 포구장전식 활강포(砲口裝填式 滑腔砲)로서 포탄도 주철로 된 구형(球型)이었다. 그 당시 대포는 한발씩 포격하였는데, 단발 포격으로 대형 전열함을 침몰 시킨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트라팔가르 해전 때 수천 발의 포탄이 발사되었지만 한 척의 전함도 침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함포가 폐쇄기장전식 강선포(閉鎖機裝填式 膛線砲)로 개선되고 사정거리와 구경이 증대고 조준장치가 개선되고, 1880년대 선회 포탑이 도입됨으로써 지금까지의 함포보다는 훨씬 파괴력과 포의 유효 사격호가 넓어졌다. 또한 1830~1840년대에 와서 내부에 화약을 장전하여 파괴력을 크게 향상시킨 작열탄(灼熱彈)이 실용화되면서 목재 함선에 위협적인 무기로 등장하였다.

작열탄이 실전에서 효과를 발휘한 것은 1853년 11월에 있었던 크림미아(Crimea) 전쟁 중 노프만 해전에서였다. 포대에 68파운드 작열탄 대포를 장착한 전열함 6척으로 구성된 나히모프(Paul S. Nakhimov) 제독의 러시아 함대는 흑해 연안 터키 항만도시 시노프에 정박하고 있던 프리깃 함 7척, 소형함 5척으로 구성된 터키 함대를 공격하여 불과 6시간 전투 끝에 이들을 전멸시켰다.<sup>302)</sup> 러시아 함대와는 달리 터키 함대는 포대와 작열탄을 장착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말았다.

이 해전이 끝난 후 파괴력이 있는 포대와 작열탄의 실용화로 목조 함의 취약성이 크게 문제화되었다. 해군 이론가들은 포격에 명중될 때마다 목재로 된 선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전은 불과 반시간 이내에 결판이 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2) Padfield, P., *Guns at Sea*, Hugh Evelyn (U.K.), 1973, p.153

그러자 조선 업자들은 목재 선체를 두꺼운 철판으로 보강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철판으로 보강한 선박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858년 프랑스는 최초의 원양용 철갑선을 글로리 호(Glorie, 약 5,600톤, 12cm 철판으로 외판 보강, 13노트)를 건조하였으며, 이에 맞서 영국도 워리어(Warrior) 호를 건조함으로써 맞대응하였다. 워리어 호는 중무장을 갖추었고 두터운 철갑으로 선체를 보강하여 이후로 선체 전체를 철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선박이었다.

이와 같이 1850~1870년대는 목재 선체인 구식 함선의 현 측을 따라 철갑을 씌운 함선과 완전히 기계적 추진기로 항해하는 함선이 범선과 함께 해양을 누비고 항해하던 과도기였다.<sup>303)</sup> 그러나 19세기 후반 선체를 보강하기 위한 철선과 강선이 차례로 등장하는 그 무렵부터 목선 전함 시대는 종말을 고하기 시작했다.<sup>304)</sup>

과도기를 거치면서 함포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함포는 포구장전식 활강포에서 폐쇠기장전식 강선포로 개선되었다. 함선의 변화와 함께 포의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범선의 현 측포가 현 측 외륜 추진기 함선에서는 선수미포로 변경되었으며 스크루 추진기가 채택되면서 포의 위치는 다시 현 측으로 되돌아갔다. 급기야 선외포탑이 등장함에 따라 포에 유효사격호(Arcs of effective fire)가 훨씬 넓어졌다.

그러나 이 20년 동안에 포의 위력이 증대하면서, 함포에 대응할 두꺼운 장갑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포와 장갑의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되었다.

---

303) Giuseppe Fioravanzo. A History of Naval Tactical Thought(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79), p.106

304) 김재근, 『배의 역사』 서울: 정우사, 1985, p.184

## 장갑함의 탄생과 근대 대형 전함(Battle Ships)의 등장

19세기 근대 증기선 시대에 들어와서 함대전투의 주역은 중세 범선 시대의 전열함을 대신하여 장갑함(Armoclad)으로, 장갑함은 다시 전함(battle ship)으로 그 모습이 변모하였다.

장갑함은 크림리아 전쟁의 교훈에 의하여 선체 현 측을 두꺼운 철판-장갑(Armour)으로 피복하여, 적의 포탄이 함 내를 관통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군함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1858년 프랑스가 세계 최초의 장갑함 글로리아(Glorie) 호를 건조 했다는 뉴스가 영국에 전해지자, 프랑스 해군은 곧바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장갑함 워리어(Warrior) 호의 건조에 착수하여 1861년 10월에 완성하였다.

워리어 호는 배수량 9210톤, 선체는 철회로서 합계 92개의 방수구역으로 구분되었고 이중저갑판 구조로 되어 있다<sup>305)</sup>는 점이 글로리아 호에 비해 우월한 점이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제국은 장갑함 건조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장갑함 발달사는 대포와 장갑의 끝없는 싸움으로 진행되었다.

최초의 완전한 증기추진 철선 간의 전투는 유럽이 아닌 미국 남북전쟁<sup>306)</sup>에서 치러졌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진행 중이던 1862년 3월 9일 미국 동해안의 햄프턴 로드(Hampton Roads)에서 완전한 증기추진 철갑선 2척이 출현하여 장장 4시간에 걸쳐 일대일 교전을 벌였다. 이들이 바로 북군의 모니터(Monitor) 호와 남군의 메리맥(Merrimac) 호였으며 이들의 승부는 무승부로 끝났다. 승부가 있었다면, 그것은 포에 대한 장갑의 우세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갑함은 점점 더 큰 대포를 탑재하게 되었고

---

305) Parkes, O. British Battleships, "Warrior" 1860 to "Vanguard" 1950. A History of Design. Construction and Armament, Seeley Service (U.K.), 1957. p.16

306) 시민전쟁이라고도 함.

화력이 강한 중포탄으로부터 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두꺼운 장갑을 씌우게 되었다. 그 결과 장갑함은 점점 더 대형화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해군의 주역 함정은 장갑함에서 다시 전함(Battle ships)으로 그 위용이 변모되었다.

근대 전함의 원조는 1892년에 영국의 화이트 경(Sir William Henry White)이 1863~1913년 설계 건조한 로열 서버린(Royal Sovereign)급 바베트(barbette)<sup>307)</sup>형 전함으로 여겨지고 있다. 1880년대까지는 장갑함의 포탑이 낮은 선체에 설치되어 있어, 바다가 약간만 거칠어도 중포를 발사할 수 없었다. 이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바베트 함은 대포의 포신을 바베트 위로 돌출해서 높게 고정하고, 포신을 제외한 바베트의 대부분은 선체의 내부에 묻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체의 건현이 높아져 거친 바다에서 항해가 가능해졌고, 중포를 발사할 수 있었다. 이후 바베트는 개선을 거듭하여 바베트 위에 있는 구조물 특히, 포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꺼운 장갑으로 완전히 덮어씌운(hood와 shield) 포탑(turret)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무거운 포탑을 설치하는 것은 함정 중심(重心)의 상승을 야기하여 군함 전체가 대형화되게 되었다.

로열 서버린 전함은 배수량 14,150톤, 속력 18노트, 주포 13.5인치 4문을 2문씩 2기의 전·후부 바베트형 포대 위에 설치하고 함의 전·후부에 각각 1기씩 배치하고 있다. 장갑으로는 강철과 연철을 겹친 복합장갑(compound armour)을 사용하고 가장 두꺼운 곳은 18인치(457mm)이며, 1892~1894년에 동형함 6척이 건조되었다.<sup>308)</sup> 또 상갑판 현 측부에는 구경 6인치(152mm) 속사포가 케이스메이트(casemate)<sup>309)</sup> 안에 장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급속하게 대두된 어뢰정에 대비하기

307) 바베트란 대포를 조작하는 제반장치가 있는 공간을 둘러싸는 장갑을 말한다.

308) John Leather, World Warships in Review 1860/1906(London : Macdonald and Jane's, 1976), pp.65~67

309) 장갑으로 방어된 포곽

위한 병기였다<sup>310</sup>).

로알 서버린 호의 이러한 배치는 그 후 수십 년에 걸쳐서 세계 장갑함의 표준형이 되었다. 러일 전쟁에서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삼립(三笠) 일본 전함과 수보로프(Suvoroff) 러시아 전함 등이 해전의 주력으로 활약하였다.

한편 중세 범선 시대의 프리깃(Frigates) 또는 코르벳(Corvettes)이 수행하던 초계활동을 기계적 추진 시대에서도 수행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동성과 적절한 공격력을 갖춘 함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870년대부터 방호 순양함(Protected cruisers) 정찰 순양함(Scouts cruises) 또는 경순양함(Light cruises) 등 각종 순양함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통상 해운에 방호와 공격, 정찰, 초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00년경에 장갑 순양함(Armored cruisers)이 등장하여 전투함대에 합류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자 바로 동일 규모의 중포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적재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것은 일제 사격(salvo)의 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일제사격이란 함 전체 대포 발사를 통일 지휘하여 동일 구경 포를 동시에 발사하는 방법이다. 일제 사격된 포탄은 어느 일정한 범위 안에 적합이 들어가게 되면 그 중의 몇 발인가가 명중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전함의 주포 4문보다는 그 두 배나, 그 이상 되는 포문수가 바람직하였다. 이렇게 해서 단일 종류의 중포를 다수 탑재한 전함을 건조한다는 아이디어가 생겨났으며, 이를 가장 먼저 실현한 것은 일제사격 방법을 다른 나라보다 일찍 채택한 프랑스 해군에 의해서였다.

1904년 12월 프랑스 해군에서는 당시 피셔(John A. Fisher) 해군 대장의 강력한 주도에 의하여 다수의 해군 장교와 조선 기술자를 망

---

310) Parkes, O. British Battleships, "Warrior" 1860 to "Vanguard" 1950. A History of Design. Construction and Armament, Seeley Service(U.K.), 1957. pp.354~363



라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수 중포 탑재의 전함과 장갑 순양함에 대하여 검토시켰다.<sup>311)</sup> 이 위원회의 안에 의하여 건조된 것이 전함 드레드노트(Dreadnought)와 순양전함 인서블(Invincible)급이다.

통칭 ‘노급(弩級)’전함이라고 불리우는 드레드노트 호는 배수량 1만7,900톤, 주포 45구경 12인치 포 10문, 바베트 및 수선부 장갑의 두께 11인치(279mm)로 하여 증기터빈을 채용한 세계 최초의 전함으로서, 전함으로서의 미증유의 속도인 21노트라는 고속으로 항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인서블 호는 전함보다는 방어력을 약하게 한 대신에 속력을 빠르게 한 군함이었다. 이로써 순양전함(battle-cruiser)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군함이 탄생하였다. 배수량 1만 7250톤, 주포 45구경 12인치 포 8문, 장갑은 7인치, 속력은 25노트였다. 당시의 어떤 순양함보다도 고속이었고, 전함과 동급의 공격력과 순양함을 능가하는 고속력을 연계시킨 이 함 종은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드레드노트와 인서블 호의 등장은 당시 존재하고 있던 세계의 모든 전함과 장갑 순양함을 일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각국 해군을 새로운 건함 경쟁의 출발선에 세워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미국과 독일 해군 등 세계의 강대국들은 드레드노트와 동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군함의 건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1860년대 프랑스 해군의 듀피 드 롬(Dupuy de Lome) 공작 국장은 세계 최초의 증기 프리깃 함 글로리아 호를 건조하면서 “목조 전열함만으로 구성된 함대를 단 한 척의 장갑함이 상대해도 그것은 양떼 속에 사자를 풀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듯이<sup>312)</sup>, 장갑함의 탄

311) Parkes, O. British Battleships, “Warrior” 1860 to “Vanguard” 1950. A History of Design. Construction and Armament, Seeley Service(U.K.), 1957. pp.468~476

312) Brassey, T., The British Navy. vol. 1. Longmans Green(U.K.), 1882, pp.5~6

생은 군함 발달사상 최대사건이라고 해도 좋을 것인바, 이는 20세기 후반에 비유한다면 원자력 잠수함의 등장에 필적한다. 종래의 주력함 이던 대형 목조 선체의 전열함은 그 가치가 하루아침에 저하되고 각국 해군의 주력으로 장갑함의 수량만이 그 강약을 가름하는 지표가 되었다. 각국의 주력함은 보다 위력 있는 대포를 탑재하고 보다 두꺼운 장갑으로 방어되었다. 보다 강력한 장갑함 만들기에 국력의 에너지를 투입하여, 이것이 후년의 대함거포주의(大艦巨砲主義)라고 불리는 군함 설계상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게 되었다.

#### 어뢰 병기의 발달과 어뢰정, 구축함의 출현

함정의 증기 추진장치, 두꺼운 장갑, 위력이 있는 함포의 탑재 등 변혁시기를 전후하여, 적함을 격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체의 수면 하에 폭발물로 구멍을 내서 여기로부터 해수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격침시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1860년대에 함정의 방호문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각종 수중 무기가 실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실용화된 수중 무기는 기뢰(Mines)였다. 기뢰는 미국 독립 전쟁에서 최초로 사용된 후 크림리아 전쟁(1854~1856)과 미국 남북 전쟁(1861~1865)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실용적인 무기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개량된 기뢰는 러일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대규모로 사용되었다.

보다 실속 있는 수중 무기는 자력추진 어뢰(Torpedo)였다. 어뢰는 186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루피스(Luppis) 중령과 영국의 기술자 화이트헤드(Robert Whitehead)에 의하여 발명된 후 곧 유럽 각국 해군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어뢰를 적함에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운반하는 함정이 필요하였다. 적의 항만이나 외해에서 적의 주력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특히 야간에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된 소형이며 고

속인 어뢰정(Torpedo boat)이 출현하였다.

1893년에 어뢰정 구축함(Torpedo boat destroyer)인 하복(Havock)호가 영국에서 건조되었다. 이후 간략하게 구축함이라고(Destroyer)라고 불리는 어뢰정 구축함은 어뢰정의 공격으로부터 주력함을 방호하기 위하여 주력함을 호위하도록 설계된 함정으로서 어뢰정보다는 크고 고속이며 대 어뢰정포를 장비하였다. 구축함에게는 적의 어뢰정을 격퇴하는 임무이외에 적의 주력함을 어뢰로 공격하는 임무가 추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시에 구축함은 새로운 위협인 잠수함을 격퇴하기 위하여 수중청음기(Hydrophone)와 폭뢰(Depth charge)를 장비하였다.

#### 잠수함의 탄생과 발달

바다 속을 자유롭게 항행한다는 것은 하늘을 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오래된 꿈이었다. 아주 먼 옛날의 전설을 제외한다면, 15~16세기가 되면서부터 실제로 실물이나 모형의 잠수함을 고안해서 제작하는 인물이 다수 등장하였다. 그러나 잠수함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는 그저 잠수함을 제작하여 바다 속을 보고 싶다는 단순한 발상에 그쳐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발견되지 않고 적함에 접근하여 적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군사적인 발상이 농후하였다. 잠항상태에서 항행한 세계 최초의 잠수함은 미국인 부쉬넬(David Bushnell)이 1776년에 제작한 터틀(turtle)이라고 부른 소형 함정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터틀 호는 1인승으로 발라스트 탱크(ballast tank)와 납덩이를 이용하여 잠항하고, 수동의 스크루로 움직일 수 있었다. 터틀 호를 전투에 적용하는 방식은 터틀 호로 폭탄을 싣고 가서 적함의 선전에 부착하여 시한장치로 이것을 폭발한다는 아이디어였다. 이 터틀 호는 실제로 미국 독립 전쟁에서 사용하여 봉쇄 중인 영국 군함을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후 1800년에 로버트 폴톤이 나폴레옹

을 위하여 제작한 노틸러스(Nautilus) 호, 1850년 독일인 빌헬름 바우어(Wilhelm Bauer)가 제작한 마린 호, 미국 남북 전쟁에서 남군이 건조한 데이비드형 잠수함 등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런 잠수함들은 실용적이지 못했다.

잠수함의 실용화를 방해한 최대의 장벽은 수중에서 함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원동력 개발과 함이 전진함과 동시에 잠항이 가능케 하는 설비, 그리고 전투용 함정인 이상, 이에 적합한 공격용 병기의 장비 등이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9세기 말에 잠수함 발라스트 탱크와 수평타를 선체에 설치하여 수평타의 움직임에 따라 함이 전진함과 동시에 잠항이 가능해졌다. 수중동력 문제는 1880년에 프랑스 화학자 포르(Faure)가 현재의 구조에 가까운 납축전지를 만들어 일정한 전압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해결되었다.<sup>313)</sup> 그런가 하면 잠수함에 장비하는 병기는 1880년 화이트헤드(Whitehead)가 발명한 어뢰가 실용화되어 이것이 잠수함의 주요 병기가 되었다.

실용적인 공격용 잠수함을 갖고자 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던 프랑스와 미국 해군은 1890년대 거의 같은 시기에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잠수함 설계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증기기관 또는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갖추어 수상과 수중의 동력사용을 달리하고 어뢰병기를 기본으로 하는 잠수함의 형태가 거의 정착된 후년의 잠수함 기본원리에 가까운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후년의 잠수함에 큰 영향을 준 것은 프랑스의 로비프형과 미국의 홀랜드형이었다. 프랑스의 막심로비프(Maxim Laubeuf)와 미국의 홀랜드(John P. Holland)는 자국 해군이 막대한 현상금을 건 잠수함 설계 공모에 1등으로 입선한 인물이었다.

---

313) Hovgaard, W. Modern History of Warships, Conway Maritime Press Reprinted 1971(originally published 1920, U.S. Naval Institute, p.283

로비프의 설계에 의한 최초의 시제함(試製艦)은 날발(Naval) 호였다. 날발 호는 배수량 수상 117톤, 수중 202톤이며, 수상에선 250마력의 석유연료 보일러와 팽창식(膨脹式)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속력 12노트, 수중에선 80마력의 전동기를 구동시켜 속력 8노트로 항행이 가능했으며, 항속거리는 25마일이었다. 어뢰 4기를 함외 발사관에 장착하여 함 내 조작으로 발사하도록 되어 있다. 날발 호는 1899년 진수하여 다음해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실용적인 잠수함이 실증되었다.<sup>314)</sup>

미국인 존 홀랜드(John P. Holland)는 1877년 1인승 잠수함을 만든 이래 개량을 계속하면서 시험제작을 반복해 왔다. 1893년 미국 해군 병기국에서 20만 불의 현상금을 걸고 잠수함의 설계를 공모하였는데 여기에 입선한 것이 홀랜드의 7번째 시제함이었다.

그러나 1897년에 완성된 플런저(Plunger) 호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홀랜드는 자비로 배수량 64톤의 가솔린 기관과 50마력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홀랜드 호로 명명하였다. 이 홀랜드 호를 1899년 미국 해군이 받아들임으로써 1900년 이후 A형이라 불리는 배수량 122톤의 홀랜드형 잠수함이 미국 해군의 정식 잠수함으로 건조되었다.<sup>315)</sup>

그 후 홀랜드형은 프랑스 해군과 일본 해군에서도 채용하여 자국 잠수함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90년경에 실용적 잠수함의 원형이 거의 완성되었다.

190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6개국 해군이 잠수함을 보유하고, 취

---

314) Rossel H.E. Type of Naval Ship, Historical Transactions 1893~1943.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U.S.A.), 1945, p.258

315) Rossel H.E. Type of Naval Ship, Historical Transactions 1893~1943.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U.S.A.), 1945, p.284  
Hovgaard, W. Modern History of Warships, Conway Maritime Press U.K., Reprinted 1971(originally published 1920, U. S. Naval Institute, pp.290~293

역 중인 잠수함은 10척, 건조 중인 잠수함은 11척이나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잠수함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선발 주자인 프랑스·미국·이탈리아에 더하여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등이 잠수함을 건조해 나갔다. 이들 국가들은 홀랜드와 로브프형 등을 모델로 하여 독자적인 형을 개발하게 된다. 그리하여 1900년에는 불과 100톤 정도 크기의 잠수정이 주력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대양 항해가 가능한 수백 톤급으로 발전하였다. 주기관도 1910년 전후부터 가솔린 기관에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디젤기관으로 점차 대체되어 갔다.

이들 잠수함은 수상에서는 대부분 디젤기관을 이후 반세기 동안이나 사용하여 항해하였으며, 필요시 또는 적 함정을 공격할 때만 축전지 동력을 이용하여 잠항하였다. 수중속력 수 노트로 전지의 방전을 최소로 억제하면서도 하루 정도의 동력 유지가 한계라는 빈약한 수중성능을 견뎌야했다.

당시 잠수함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각국 모두가 확정된 방침은 없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은 군함공격, 통상 파괴전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 장갑과 포의 대결

해양력의 관점에서 이 기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혁명에 따른 해양도구의 일대 변혁기였다. 따라서 해군의 관심사는 함선과 무기의 변혁에 따른 전술의 변화였다. 기계적 추진함정을 전투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꾸준히 연구 검토되었다. 특히 종렬진 대 횡렬진의 전술 논쟁이 야기되었으나 실전의 사례가 없어 검증되지는 못하였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1850~1870년대 비교적 기민하게 기동할 수 있게 된 함선들이 하나같이 고대 노선 시대처럼 선수에 총각장치를

채택한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일이었다. 아마도 포탄이 대형화되고 파괴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조준방법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명중률이 낮았던 점과 중포화로 발사 간격이 길어진 점, 장갑이 채용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께를 더해갔기 때문에 이를 관통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갑의 효과는 커서 명중한 포탄 대부분이 장갑의 외측에서 작렬함으로써 적함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줄 수가 없었다. 대포의 대형화도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나, 장갑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졌으므로 당시 함포로서는 장갑이 우세한 적함을 격침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대포를 대신하여 적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병기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충각(衝角, ram)이었다. 자함을 적함의 옆구리에 충돌시키는 충각에 의하여 상대함의 수면 하에 파공을 내서 침수 침몰시킨다는 발상은, 주로 고대 노선 시대에 이용했던 다분히 원시적인 전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충각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해졌다. 충각공격을 받는 측도 필사적으로 이를 회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에 충각공격은 무수하게 이루어졌으나 성공한 것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그 후 함포의 사정과 구경이 증대하고 조준장치가 개선됨에 따라 충각의 중요성이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sup>316)</sup> 따라서 이 시기에 해군들이 채택한 전술을 보면 장갑이 우세하여 대포의 효과가 줄어들 경우에는, 충각장치로 돌격하여 적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충각에 유리한 횡렬진 또는 췌기진의 전투진형을 채택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함포의 사거리와 파괴력, 사격의 정확도가 높아져 충각의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종렬진이 채택되는 등 해군의 전술진형은 장갑과 포대와 함포의 위력에 의해서 경쟁하듯이 변화되었다.

---

316) Guiseppe Fioravanzo. A History of Naval Tactical Thought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79), pp.106~107

## 통신 · 신호의 기술혁신

19세기 초엽에 사용된 통신 · 신호의 대부분은 시각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해상 상의 함정 상호 간에는 기류신호가, 육상에서는 세마포어(semaphore)<sup>317)</sup> 신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1793년 프랑스 해군이 세마포어 신호를 처음 고안하여 시작한 후 1796년에 영국 해군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은 육상에 신호기를 갖춘 신호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간격으로 설치하여 신속하게 통신문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

프랑스는 먼저 이 신호소를 파리-릴 간에 설치하였고, 이어서 파리의 중앙정부와 브레스트의 해군기지 사이에 설치하여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케 했다.<sup>318)</sup> 영국에서는 프랑스보다 늦은 1796년, 런던의 해군본부와 도버 해협 연안에 있는 딜 사이에 처음으로 15개의 신호소를 설치하였는데 통신 전달과 확인에 불과 2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 연말에는 포츠머스, 1806년에는 플리머스까지 연장되었다. 1816년에는 주간에 한해서는 주요 해군기지와 런던의 해군본부 사이에 즉시 의사전달이 가능하였다.<sup>319)</sup> 1866년에 함상에 세마포어 수신기가 설치되었으며, 꾸준히 개선되어 현대 해군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한국 해군도 진해에 해군 신호소를 설치하여 수년 전까지 운용해왔다.

1844년 미국인 모르스(Samuel Morse)가 전신의 실용화에 성공한 후, 1866년에 북대서양 횡단 해저전선이 완성되어 런던-뉴욕 간에도 즉시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계 각지의 정보가 단시간 지구 구석구석으로 전파되

---

317) 양팔 또는 手旗를 이용하여 알파벳을 나타내는 수기 신호방법

318) Leerburger, B.C.communications(Encyclopedia International 5), Grolier(U.S.A.), 1963

319) Kemp, P.(ed), The Oxford Companion to Skips & the Seas, Oxford Univ, Press; U.K. 1976, p.770



어 각국 정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로 알 수 있고,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선박과 선박 간, 선박과 육지 간에 자유스런 정보 전달이 가능해진 것은 1896년 이탈리아인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가 무선 전신을 발명하고 난 이후였다. 즉시 실용화되지는 않았으나, 영국에 가서 특허를 받은 후 프랑스 해군의 지원 하에 계속 발전시켰고, 1899년 7~8월 프랑스 해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함대연습을 실시할 때 처음으로 무선전신을 사용하여 60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교신에 성공했다.<sup>320)</sup> 그러나 한 함정 대 한 함정 간의 교신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다수의 함정이 동시에 전파를 발사할 때 오는 혼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꺼리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 해군이 비롯한 각국 해군은 마르코니 회사와 계약하여 무선 전신은 해군에서 필수불가결의 장비가 되었다.

## 2. 근대 증기선 시대의 해군 전략과 전술

동북아시아에 대한 포함외교(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의 강화

19세기는 서구 열강의 세력이 동양으로 옮겨가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였다. 서구 열강은 동북아시아 제국에 대하여 그들의 해군력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상투적인 포함외교를 강화하였는데, 포함외교의 목적은 문호 개방과 중간기지 획득에 있었다. 아편 전쟁(1840~1842)과 애로우(Arrow) 전쟁(1856~1860) 등은 서구열강이 포함을 앞세운 중국의 반 식민지화 전쟁이었다. 페리 제독에 의한 일본의 개국(1854), 조선의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그리고 영국

---

320) Thursfield, L. S. The Manoeuvres of 1899, The Naval Annual 1900, pp.101~135

함대의 거문도 점령(1885)은 포함외교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 해군의 함대전략

러일 전쟁(1904~1905)에서 일본 해군은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대마해전에서 결전(decisive battle)전략을 채택하여 러시아 함대를 패배시켰다. 결전전력은 우세한 함대가 열세한 함대에 대하여 가용한 세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멸시킴으로써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이다.

청일 전쟁과 미국-스페인 전쟁 및 러일 전쟁에서 청국, 스페인과 러시아 함대는 요새함대(要塞艦隊, Fortress fleet)전략을 채택하고 상대방 함대의 공격에 대응하였다. 요새함대전략이란 러시아에서 발상된 要塞至上<sup>321)</sup>의 대륙적 전략사상이며, 원천적으로 수세적 사상이다.<sup>322)</sup> 이 전략은 적의 해상공격으로부터 요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대가 해상 결전을 피하고 요새의 비호 아래 있다가 유리한 시기에 적 함대를 격파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함대는 요새를 보호하는 이외에는 존재의 의의가 없으며, 연안 방어의 기능을 전적으로 요새에 의존한다. 이후 주요 해전에서 살펴보겠지만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나타난 결과는 요새함대전략을 채택했던 함대의 패배로 끝났다.

#### 새로운 전술진형

1860년대 이후 증기력에 의한 기계적 추진 함정의 출현과 무기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진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처음부터 두 가지 진형이 연구되었는데, 한 가지는 총각의 운용에 적합한 진형이며, 또 한 가지는 현 측에 설치된 포의 운용에 적합한 진형이었다.

---

321) A. T. Mahan, *Naval Strategy*(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1), p.385

322) Giuseppe Fiorvanzo, *A History of Naval Tactical Thought*(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79), pp.106~107

최선의 진형이란 자신의 무기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최소한으로 노출되게 할 수 있는 진형이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진형은 횡렬진의 변형으로서 썰기진(Wedge formation)이었다. 이 진형은 선두함을 증각하려고 기도하는 적 함정들이 아군의 후속 함들에 의해서 그들의 현 측을 노출시키게 하고, 그들 자신이 증각을 당하도록 위협하기 때문에 횡렬진보다 유리하였다.

두 번째 진형은 적과 접촉하였을 때 적의 종렬진과 평행하게 전개하는 종렬진이었다. 이 진형은 우군 상호간에 방해 없이 동시에 가용한 전 무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진형이다. 그러나 우군 함정의 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진형 내에서 각 함정의 위치가 자신의 최대 유효사격호(Arcs of most effective fire)안에 적이 위치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적의 급소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전함정은 적과의 거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적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함정은 적함이 무기의 사정권 밖에 있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거리는 가능한 적의 민감한 급소, 적 진형의 선두를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선두는 가장 유력한 함정으로 구성되며, 선두함에는 통상 함대 사령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제독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두함은 기동시에 기준이 되는 향도함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기에 선두함이 치명타를 입으면 가장 유력한 전투함이 전투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지휘 기능이 마비되고 진형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자기 진형의 중심과 적 진형 선두의 중심이 연결되는 선과 수직이 되는 동일한 거리선상에 함정을 배치함으로써 효과적인 전투능력을 발휘하는 강행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전술적 상황이 'T 위치' 또는 'T자 썩우기'이다. 1904년 8월 10일 러일 전쟁 시 '황해해전'에서 일본 함대의 이 'T 위치'로 인

해 러시아 여순 함대의 기함이며 선두함인 전함 자러비치(Czarevitch)가 일본 함대의 집중포격으로 손상을 입고 사령관인 비트게프트(Vilgelm K. Vitgeft) 제독이 전사하였다. 이후 러시아 함대 전투진형은 혼란에 빠져들고 패배하였다. 그 다음해 1905년 5월 27일 ‘대마해전’에서도 일본 함대는 이 ‘T자 씌우기’ 전술로 러시아 발트 함대를 격멸하였다.

### 3. 리사 해전(Battle of Lissa, 1866. 7. 20)

#### 장갑함의 우위 확립

리사 해전은 장갑함끼리의 대전에서 충각공격의 유효성을 증명해준 해전이다. 리사 해전은 1866년 7월20일 아드리아 해 달마치아 연안의 작은 섬인 리사 섬 앞 해역에서 오스트리아·이탈리아 간에 이루어진 해전이다. 이 해전은 1859년 장갑함이 탄생한 후 있었던 최초의 대규모 함대 결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해군 전술이나 군함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해전이다.

1866년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벌어진 보·오전쟁(普奧戰爭)에서 이탈리아는 베네치아를 수복하기 위해 프러시아 편에 가담하여 오스트리아를 공격하였다. 전쟁 말기인 7월20일에 이탈리아는 아드리아 해(The Adriatic)의 제해권 장악을 위하여 중요한 리사도(島, Lissa Island)를 공격하였다. 장갑함 12척을 주력으로 하는 페르사노(Count Carlo di Persano) 제독의 이탈리아 함대가 리사도를 점령하기 위해 2일간의 포격을 가한 후 상륙작전에 돌입하려는 시점에 테케토프(Wilhelm von Tegettoff) 제독이 지휘하는 장갑함 7척의 오스트리아 함대가 도착과 동시에 돌진해 들어옴으로써 리사 해전이 시작되었다.

이 해전에서 비교적 대형 장갑함과 대형 목조함을 보유하고 상대적

으로 함포에서 우세한 이탈리아 함대가 종렬진으로 함포전을 기도한 데 반하여, 장갑과 포에서 열세한 오스트리아 함대는 3개 분대로 썬기진(Wedge-shaped formation, V자형)을 형성하고 이탈리아 함대의 종렬진 중앙부에 돌입하여 충각공격전술을 반복적으로 감행하였다. 해전의 결과는 페르사노 제독의 이해할 수 없는 지휘로 인하여 지휘계통이 혼란에 빠진 이탈리아 함대의 패배로 끝났다.

해전의 하이라이트(highlight)는 테게토프의 기함 페르디난트 마르크스(Ferdinant Max) 호가 이탈리아 장갑함 레디탈리아(Re d'Italia) 호의 좌현 기관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충각하여 순식간에 레디탈리아 호가 좌현으로 기울어 침몰하는 장면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목조 전열함 카이저(Kaiser) 호도 이탈리아 장갑함 레 디 포르토갈로(Re di Portogallo) 호의 충각에 성공하였으나, 오히려 스스로의 함수가 대파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포르토갈로 호의 현 측 포대에서 정면포격을 받아서 큰 손해를 입었다.

그 외에 이탈리아 장갑함 팔레스트로(Palestro) 호가 함미 비장갑부에 포탄 한발이 명중되어 함 내부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탄약고로 인화되면서 폭발과 함께 침몰되었다. 일몰과 함께 이탈리아 함대는 오스트리아 함대의 격멸도, 리사 섬의 공략도 모두 포기하고 퇴각하고 말았다.<sup>323)</sup>

리사 해전에서 포화에 의해 격침된 함은 이탈리아 함대의 팔레스트로 호 한 척이었다. 팔레스트로 호를 포함하여 현 측의 장갑관을 안쪽에서 바치고 있는 두꺼운 목관을 관통당한 함은 한 척도 없었다. 화재의 대부분은 장갑이 없는 부분을 관통하거나 포문으로 들어온 포탄이 폭발하여 일어났다. 이는 각함이 명중탄을 맞으면서도 사상자가 의외로 적었던 것에서도 명백하다.

---

323) Wilson, H. W. Ironclads in Action, A Sketch of Naval Warfare from 1855 to 1895, vol. 1, Sampson Low (U.K.), 1896, pp.211~251

이 해전에서 오스트리아 측은 사망 38명, 부상자 138명의 손실을 보았으나, 그 중에서 장갑함의 손실은 사망자가 겨우 3명, 부상자 30명에 불과했다. 이탈리아 측은 사망자 620명, 부상자 40명으로, 침몰한 두 척의 장갑함과 운명을 같이 한 사상이 대부분이고, 기타 장갑함에서는 사망자 5명, 부상자 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하여 오스트리아 목조 전열함 카이저 호는 사망자 24명, 부상자 75명의 손실을 보았고, 함 자체도 큰 손상을 입었다. 이는 포르토갈로 호를 먼저 충격하였으나 오히려 자함이 손상을 입은 데다, 집중 포격된 포탄이 목재로 된 현 측을 간단히 관통하여 내부에서 폭발하였기 때문이다. 이 해전의 교훈으로 비장갑함은 장갑함에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후 각국의 목재 전열함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또한 장갑에 대하여 포탄은 무력하였으나 충각공격(衝角攻撃)은 유효한 전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즉 충각만이 장갑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사고가 확정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충각돌격을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것 또한 명백해졌다. 리사 해전에서는 각함이 여러 차례 충각 돌격을 실시하였으나 완전히 성공한 것은 레 디탈리아 호를 충각돌격에 의하여 격침한 것이 유일했다. 사실 함대가 전투진형을 유지하면서 이 전법을 구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어느 한 척이 충각에 성공하거나, 상대함이 적의 돌격을 회피하거나 하면, 충각전술을 구사하는 함대의 진형은 흐트러지고 만다. 종렬진형처럼 일시불란한 지휘나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각함은 기함의 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위치하여, 각함이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충각공격은 무수하게 이루어졌으나 성공한 것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어쨌든 간에 리사 해전에서 충각의 유효성이 입증되어, 충각공격 전술은 그 후 4반세기에 걸쳐 장갑함의 중요한 전법으로 각국 해군

관계자들에게 의식되었다. 만약 충각공격이 주된 공격법이라면, 함대의 전투진형은 종렬진이 아니라 횡렬진이나 췌기진(V자 진형)이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적 함대를 향하여 다수의 중포를 퍼부으면서 적함의 종렬진에 직각으로 돌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근대 증기함 시대 종렬진과 횡렬진의 우세 논쟁에서 충각에 유리한 횡렬진의 우위가 실증되는 듯하였다.

#### 4. 청일 전쟁과 압록강 해전

##### 전쟁의 배경

1854년 미국 페리(Matthew C. Perry) 제독 포함외교에 의하여 개국을 한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신을 거치면서 재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현대식 육군과 해군을 창설하여 국력을 신장해 나갔다. 1875년 일본은 조선을 개국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운양호 사건을 일으켜 1876년 병자수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 시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문호를 개방한 조선은 통상이익 못지않게 정치적 세력의 부식을 노리는 일본의 야심과 부동향을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맞물려 청·일·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었다.

1894년에 조선에서 동학혁명이 발생하자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天津條約)에 근거하여 6월 9일 청군 3,000명이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동시에 일본군도 거류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7,000명의 병력을 인천을 통해 상륙시켰다. 동학혁명이 진압된 이후에 청은 일본에게 동시 철병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 기회에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철병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의 내정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청은 그와 같은 제안이 외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일부러 충돌을 야기해 자국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

고자 기도했던 일본은 회담이 결렬되자 7월 29일 성환(成歡)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을 공격하여 패주시켰다.

이 성환 전투를 계기로 8월 1일에 청일 양국은 동시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청과 일본 양측 모두 한반도에서 지상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한반도로 수송할 필요가 있었다. 왜가 부산과 인천을 통하여 신속하게 병력을 수송하자, 육로로 우회하여 병력을 수송하려던 청은 해상을 통하여 병력을 수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의 서해 즉 황해의 제해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압록강 해전

압록강 해전은 청일 전쟁 중에 양측의 주력함대가 공해상에서 전개한 유일한 해전이다<sup>324)</sup>

이 해전은 9월 16일 정여창(丁汝昌) 제독이 지휘하는 북양 함대가 5,000명의 병력을 압록강 부근에 상륙시킨 후, 수송 선단을 여순항으로 귀항시키기 위해 잠시 압록강 외해에 정박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해전이다. 그 다음 날 이토(伊東祐亨)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 연합 함대가 압록강 하구 외해에서 정여창 제독이 지휘하는 청 함대를 조우하여 압록강 해전(Battle of Yalu, 1894. 9. 17)이 발생하였다.

무장과 장갑이 우세한 청 함대는 그들이 자랑하는 7,500톤급 독일제 장갑전함(주포 305mm, 4문, 속력 14.5노트) 정원(定遠)과 진원(鎮遠)을 중심으로 2,900톤급의 순양함 2척, 2,300톤급 순양함 2척, 그리고 1,000톤 내지 2,000톤급의 방호 순양함 6척, 어뢰정 3척으로 편성되었다. 이중 10척만이 해전에 참가하였다.

일본 함대는 4,300톤급의 장갑함 3척(속력 18노트)과 4,200톤급 속

---

324) 7월 25일 인천 풍도 앞 해상에서 있었던 풍도 해전은 선전포고가 있기 전, 일본 함대가 열세한 청군 함정 2척에 대하여 일방적 공격으로 패주시킨 해전이였다. 풍도 해전에서 후일 러일 전쟁 시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이 된 도고대령이 나니오 함장으로 활약했다.



사포 순양함 1척, 3,700톤급 방호 순양함 나니오 함 등 3척, 그리고 2,400톤급 방호 순양함 2척이 참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무장과 장갑이 우세한 청 함대는 횡렬진을 형성하고 충격을 기도하였다. 반면에 속력이 우세한 일본 함대는 종렬진으로 속사포 포격전을 전개하였다.

정여창 제독은 예하 10척을 단횡렬진과 췌기진으로 전개하여 리사해전에서 테게토프와 같이 지휘에 대한 분권적 방법을 적용하려 했다. 전투가 개시될 때 함대의 움직임을 지휘하는 것을 계획하는 대신에, 그는 함장들에게 사령관의 움직임을 보고 그대로 따를 것을 지시하였다. 교리와 관련하여 정여창의 의도는 단순하였는데, 함정들의 함수를 일본 함대에게 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두 척의 가장 강력한 전함인 정원과 진원함은 각각의 4문의 12인치 크루프(krupp.) 포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 들은 포탑이 비스듬히 장착되어 4문의 포가 전방이나 후방을 향해 동시에 발사될 수 있었으나, 현측 방향으로는 사격이 불가능 했다.<sup>325)</sup> 정여창은 주력 전함 2척을 중앙에 위치케 하고 그 좌·우현에 각각 4척씩 나머지 함정을 배치하였다. 이는 함정의 동질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형이었다.

반면 이토 제독은 예하 세력을 2개 전대로 편성하여 단종렬진을 형성하였다. 즉 전위에는 차석 지휘관인 쓰보이 제독이 지휘하는 쾌속 순양함 4척으로 구성된 유격전대가 배치되었으며, 후위에는 이토 제독이 지휘하는 나머지 순양함 3척과 보다 저속인 장갑함 3척으로 구성된 주력전대가 배치되었다.

청 함대는 6~7노트로 전진하면서 일본 함대를 정함수에 유지하기 위하여 조금씩 변침하였다. 이러한 기동은 충각과 두 전함의 305mm

---

325) S. C. M.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Robison, *History of Naval Tactics*, 74L, Evans and Peattie, *Kaigun*, 39.

주포<sup>326</sup>)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였지만, 전투는 정여창이 계획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정여창의 함정들은 12시 50분경에 5,000~6,000야드 거리에서 먼저 교전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사수들은 거의 명중을 시키지 못하였다. 정여창은 그의 기함 정원함이 모든 4문의 함포로 일제 사격을 가할 때 충격이 발생하여 상부 구조물이 뒤틀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교전이 시작되고 약 20분이 지났을 때, 정여창은 자신들이 쏜 포의 충격으로 갑판에 떨어져 의식을 잃었고, 그가 서 있던 지휘함교(flying bridge)가 무너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다. 한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처럼, 그 후 중국 함대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다.<sup>327)</sup>

한편 일본 함대가 청 함대의 V자형 진형의 끝점을 가로질러 좌현으로 기동하자, 중국의 함정들은 그들의 함수를 정면에 유지하려고 우현으로 변침하였다. 그렇게 되자 V자형 진형이 흐트러지게 되었다. V자형의 가장자리를 따라가고 있던 함정들이 이제 기함을 이끄는 형태가 되어 버렸고 사령관의 기동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 연합 함대는 변침을 하여 이전의 침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동시에 쓰보이 전대가 좌회전하고 이토 본대가 우회전하여 청 함대를 완전히 포위하여, 정여창 함대는 이제 두 일본 전대의 화력 사이에 걸려들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함대에게 T자 썩우기를 허용하는 셈이 되었다.<sup>328)</sup>

12시 55분에는 거리 3,000미터에서 일본 함대가 속사포로 맹렬한 사격을 가하면서 공격을 가하자 청 함대는 우익 2척, 좌익 1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동을 상실되면서 진형이 둘로 분리되었다. 혼란 속에서 두 명의 청국 함장들은 전투에서 이탈하여 도망쳤고<sup>329)</sup>, 또

326) 4문을 동시에 사격하려면 함수 방향만 가능하였다.

327)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180

328) 이 T자 전법은 후일 러일 전쟁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329) 그들은 후에 참수당하였다.

다른 1척의 함정은 좌초되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청국은 순양함 5척의 함정과 1,000여 명의 병력을 잃었다. 7,400톤급 정원과 진원을 포함 7척이 기지인 여순항으로 퇴각한 반면, 일본 측은 3척만 수리할 정도의 가벼운 손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압록강 해전의 승리로 제해권을 장악한 이토 함대는 여세를 몰아 청의 함대가 퇴피한 여순항을 공격하기 위하여 일본 지상군을 요동반도로 수송하였다. 그러나 청 함대는 여순항이 공격받기 직전에 산둥半島의 위해위(威海衛)로 탈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의 북양 함대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결전 이전에 북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위해위 군항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sup>330)</sup>

1895년 1월 일본군은 위해위 배후에 상륙하여 수륙으로 위해위를 압박하였는데, 특히 이토 함대는 위해위를 봉쇄하고 어뢰정 15척이 항내에 잠입, 세계 해전사에서 처음으로 야간 어뢰정공격을 감행하여, 청의 기함인 정원함을 향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청국 함대 3척을 격침시키는 등 청 함대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2월 12일 정영창 제독은 무용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군에 항복문서를 전달하고, 자신은 음독자살하였다. 이리하여 청국의 북양 함대는 완전 궤멸되었으며, 일본 해군은 황해와 발해만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해전의 전술적 결과는 28년 전에 벌어졌던 리사 해전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나타났다. 일본 함대의 승리로 종렬진 대 횡렬진의 전술논쟁은 종렬진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일본 함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렬진을 흐트리지 않고, 사령관의 통일된 지휘 하에서 행동하였기 때

330)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201

문이다. 단종렬진은 아주 간단한 진형으로서 전투로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도 진형을 유지할 수 있고 화력 집중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속력이 빠른 일본 함대는 항상 전투의 주도권을 가지고 청국 함대의 진형을 혼란시켜 전과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해서 중구경 속사포의 유효성이 높게 평가되고, 단종렬진의 우위가 인정되어 리사 해전방식의 충각전법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청일 전쟁의 압록강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충각공격보다는 포술에 의존하고 교리와 주도권에 기반을 둔 종렬진이 전투계획의 핵심<sup>331)</sup>이 되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이 해전에서 전함은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강력했지만, 순양함을 제압하는 데에는 속력이 느렸다. 따라서 이 해전 이후 각국 함대는 전함, 고속 장갑순양함 그리고 소형 순양함으로 각각 군함을 분리해서 함대를 편성하거나 진형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해전은 장거리 2,000야드와 3,000야드 사이에서 싸운 최초의 교전으로써, 해전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려준 사건이었다. 함포에서 발사된 포탄들이 모두 장갑을 관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함정의 외부 장갑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 해전은 장갑함의 강력한 방어력과 우세한 함포화력(Fire-Power)의 가치를 동시에 과시해 주었다. 동양 제일의 견고한 군함으로 지칭되던 청국의 장갑함 정원과 진원함은 각각 200발을 넘는 명중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투항해에는 지장이 없이 전장을 이탈할 수가 있었다. 아무리 중구경 포탄이 명중되어도 두께 30cm를 넘는 장갑을 뚫을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장갑함을 격파하는 방법은 이 압록강 해전에서도 확립되지 못하고 포탄 대 장갑의 경쟁에서는 계속해서 장갑이 우위를 점하여 그 대결은 20세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휘·통제에 대한 정여창 제독의 방법은 실패하였는데, 이

---

331) Evans and Peattie, Kaigun, pp.50~51

는 주로 그의 교리가 적절하지 못했고, 부하들의 전문성과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일본은 이토 사령관이 두 예하전대의 움직임을 통해, 사전 조율된 교리에 의거 한 전투진형에서 전투를 개시하다가 후에 분리되는, 기동전술을 실시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또 일본은 속도와 화력에 의존함과 동시에 언제나 적 진형의 취약한 끝을 노려 공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전투기동은 압록강 해전에서 전승 지휘관 중 하나였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10년 후 러일 전쟁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형태였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요동 반도, 팽호 열도와 대만을 획득하였으며, 청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로서 일본은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대륙침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5. 러일 전쟁(1904. 2. 10~1905. 9. 5)<sup>332)</sup>

- 대함거포주의(大艦巨砲主義)의 대두

시대 배경

러일 전쟁은 러시아가 부동항을 획득하기 위해 추진한 남진정책과 일본이 추진한 대륙정책이 한반도와 만주의 분할을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다. 이 전쟁의 전장(戰場)은 제3국인 조선과 청나라 영토인 만주 그리고 그 주변 해역이었다. 이 전쟁에서 해전이 승패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청일 전쟁의 결과 청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下關

---

332)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으로 노일(露日) 전쟁이라고도 불림. 이후에 러일 전쟁으로 부르겠음

條約 1895. 4. 17)에 따라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요동 반도와 대만을 할양받고 청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일부 열강들이 의구심을 갖게 됨으로써 3국 간섭(1895. 4. 23)이 제기되었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주도하여,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일본에 대하여 요동 반도의 반환을 종용하였다.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할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부득이 3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요동 반도를 반환했다. 이 대가로 러시아는 러·청 비밀동맹을 체결함과 아울러 만주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1898년 여순과 대련을 25년간 초차하여, 군항으로 개발하면서 만주를 세력권화하려 하였다.

한편 청일 전쟁 후 유럽 열강의 간섭에 직면하여 위기감이 고조된 청나라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표본으로 입헌군주제의 수립을 겨냥한 변법자강(變法自疆)<sup>333</sup> 운동을 실시하여 개혁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 개혁 운동은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의 쿠데타<sup>334</sup>로 불과 3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다. 개혁 운동의 실패로 어려운 백성들의 생활이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열강의 침투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급격한 유럽 세력의 진출은 보수적인 중국 민중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중국 곳곳에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산둥지방에서 세력을 확대한 의화단(義和團)은 기독교 배척과 부청멸양(扶清滅洋)<sup>335</sup>을 내세우며 북상하였다. 처음에는 미국, 독일 등 열강의 요구에 청나라는 원세개를 보내 의화단을 공격하였으나, 번번이 패하였다. 그러나 서태후는 의화단 진압에 열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1900년에는 의화단을 북경에 불러 들여 열강에 선전 포고를 하였다. 열강은 약 4만 7천 명으로 이루어진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8개국 연합군<sup>336</sup>을 파견하여 북경을 점령하였다. 서

333) 낡은 법을 고쳐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자는 청나라 식자들이 부르짖던 개혁 운동의 표어.

334) 무술정변

335) 청나라를 돕고 유럽인들을 격퇴한다.

태후는 급히 서안으로 피난을 갔고, 북경은 연합군의 약탈과 방화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1901년 9월 청나라는 8개국 연합군과 ‘북경 의정서’를 맺고 북경의 요소요소에 연합국 군대의 주둔 권한과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의화단의 활동이 동북 지방(만주)에까지 파급되었다면서 만주 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남하시켜 만주를 무력 점령하고, 의화단 사건이 끝난 뒤에도 철수하지 않고 동북 지방의 지배를 계속하면서 조선에까지 세력을 뻗쳐 나갔다.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경계한 미국, 영국 및 일본은 러시아에 대하여 만주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러시아는 1차로 일부만 철군하였을 뿐 대부분의 군대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러시아가 조선, 발해, 서해 해역으로 계속 진출하자 영일 동맹론과 러일 협상론으로 일본 내 대응 방안이 갈렸으나, 결국 1902년 12월 1일 영국과 영일 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하였다. 이 동맹은 청에 대한 영국의 이권을 보장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영일 동맹으로 국제적 입지가 강화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예상하고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와 병행하여 1902년 쇠약해진 대한 제국이 러시아와 비밀조약을 맺었다는 보도에 놀란 일본은 조선 반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해 준다면 남만주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인정하되, 기회 균등차원에서 만주에서의 일본 상권 진출을 허용하라는 조건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1904년 2월 5일 협상을 질질 끌던 러시아는 만주에서 일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의 39도 선 이북을 중립 지대로 설정함 및 한국 영토의 이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1904년 2월 6일 양국은 서로 국교를 단절하였다. 러시아는 조

---

336) 이 중 일본군이 2만 2천 명

그만 섬나라 일본이 대 제국 러시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국교가 단절된 지나할 만에 일본은 러시아에 대하여 전쟁을 선택하고, 2월 10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 러시아와 일본의 지상전

당시 러시아 육군은 총 70개 사단 그리고 일본은 12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였다. 그러나 당장 전투에 동원할 수 있는 러시아 극동군의 병력은 13만 5천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만주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러시아 극동군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제한적인 보급과 병력 보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총병력 60만이 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이 중 15만은 즉시 러시아와의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다.<sup>337)</sup>

당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일본 함대와 비교하여 다소 열세였지만, 주력함은 거의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여순과 블라디보스토크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력인 러시아의 발트 함대와 흑해 함대는 지구 멀리 저편에 있었고 그나마 흑해 함대는 국제협정으로 인해 터키의 다다넬스 해협을 통과할 수 없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육·해군은 기습을 선택했다.

일본은 1904년 2월 10일에 러시아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이에 앞서 1904년 2월 8일 일본 해군은 인천항을 빠져나오려던 두 척의 순양함 바리아그 호와 코리츠 호를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 스스로 자폭토록 하였고, 다음날 여순항을 기습 공격하여 러시아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파괴하고 항구봉쇄에 성공하였다. 그 역시 기습작전이었다<sup>338)</sup>

---

337) 실제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총 85만의 병력을 동원했다.



러·일 간의 지상전은 주로 남만주에서 진행되었고, 해전은 한반도의 동·서·남해에서 전개되었다. 개전 후 여순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함대에 대한 일본 해군의 공세가 진행되는 동안, 제해권을 바탕으로 일본 육군이 한국과 만주에 상륙하였다. 3월 중순에 진남포에 상륙한 일본 제1군이 4월에 한국 점령을 완료하고 5월 초에 만주로 진격하였다. 일본 제2군도 5월 초에 요동 반도에 무혈 상륙한 다음 러시아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북진하였다.

그러나 개전 초 기전을 잡았지만 일본 육군의 만주 공략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요새화된 만주의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는 데 막대한 희생이 치러야 했고 전쟁 개시 반년 만에 비축한 포탄을 거의 소진하여 영국·독일에 긴급 재 주문을 해야만 했다. 그 결과 연말 무렵에 이르러서는 전쟁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1904년 7월 31일부터 일본 육군은 여순항 탈취를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여순항을 공격하던 일본 육군은 무모한 돌격으로 막대한 사상자를 냈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총 공격에 투입된 13만 5천 명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5만 9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포위된 러시아군은 쇠약해졌고, 1905년 1월1일 여순의 러시아군은 일본군에게 항복했다.

여순항 공방전이 계속되는 동안 일본 육군은 요양 전투(遼陽戰鬪)<sup>339)</sup>, 사하 전투(沙河戰鬪)<sup>340)</sup>에서 격전 끝에 러시아군을 격퇴하였다. 개전 1년째인 1905년 3월 10일에 러시아 육군 37만 명과 일본 육군 25만 명이 봉천(奉天)에서 충돌하여 '봉천회전(奉天回戰) 또는 봉천 전투(奉天戰鬪)'라고 명명된 최대의 격전이 벌어졌는데 7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군이 악전고투 끝에 승리하기는 했으나, 보충병력과

338) 위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되는 신문 'Examiner'의 러일 전쟁 종군기자 Jack London(1876~1916)의, 러일 전쟁의 종군기 첫머리 기사임.

339) 1904. 8. 30~9. 4

340) 1904. 10. 10~16

보급의 한계로 패주하는 러시아군을 추격할 수가 없었다. 당시 일본 육군 참모 총장 야마가타는 ‘러시아군은 본국에 강력한 병력이 남아 있으나 이미 일본 육군은 모든 병력을 소진했다’라는 의견서를 내각에 제출, 서둘러 전쟁의 종전을 재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에 러시아는 봉천 전투 이후에도 만주에 대병력을 집결시켜 일본과 재차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 해군이 제해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육군이 여순항의 포위된 요새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러시아는 발트 함대에 희망을 걸었다. 러시아 황제의 해군 대신은 전진계획(戰前計劃), 평가, 전쟁연습을 통해 일본과 치르는 전쟁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하나는 제해권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초기에 태평양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해군의 우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여순항의 전대를 지원하기 위해 발트 해에 있는 강력한 파견 함대를 보내는 것이었고, 그 원정을 위한 준비는 1904년 봄에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순 함락 두 달 전인 1904년 10월에 극동 러시아군을 구원하고 동북아에서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예전함과 순양함으로 편성된 발트 함대를 출항시켰다. 그러나 로제스트벤스키(Rozhdestvensky) 해군 중장의 제2태평양 전대가 힘들고 위험한 항해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수개월이 지나 버렸고, 그 무렵 황해 전투에서 그가 지원하기로 한 여순전대는 이미 패배해버렸다. 어쨌든 이제 러일 전쟁의 승패는 해상에서의 승부에 따라 결정될 운명이 되었다.

#### 양국의 해군 참가 세력과 작전계획

전쟁에 앞서 러시아와 일본은 군함 구입을 둘러싸고 첨예한 경쟁을 하였는데, 이 경쟁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승리하였다.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에서 건조하고 있던 7,800톤급 장갑순양함 2척을 일본이 재

빨리 구입하여 일본으로 가져오려고 하자, 러시아는 전함 오스리아비아(Osliabya)를 보내 닛신(日進)과 카스가(春日)로 명명된 이들 장갑순양함 2척을 격파시키려고 하였다. 그 정보를 탐지한 영국이 전함 킹 알프레드(King Alfred)를 보내 호송하게 하는 한편, 영국과 이탈리아의 승조원을 신형 전함에 승선시켜 항해를 전담케 함으로써 무사히 일본으로 입항시켰다. 또 영국에서 건조 중이던 칠레 국적의 12,000톤급 전함 2척을 러시아가 구입해 가려 하자, 러시아의 구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영국이 먼저 이들을 매입하여, 다시 일본에 매도하였다.<sup>341)</sup>

<표 2> 경쟁과정에서 양국의 해군력 비교

함 형	일 본	러시아 태평양 함대
전 함	6	7
장갑순양함	6	4
순 양 함	10	10
구 축 함	19	25
어 퇴 정	30	15
총 톤 수	26만 톤	19만 1천 톤

일본이 구입한 전함은 1892년 영국에서 건조된 Royal Sovereign 급(배수량 14,150톤, 주포 13.5인치, 장갑 18인치, 속력 17노트)을 표본으로 하여 건조된 전함으로 수천 미터의 사정거리를 갖는 구경 12인치의 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들 전함은 러일 전쟁 시에 해전의 주력함으로 크게 활약했다.

이러한 해군력 경쟁과정에서 양국의 해군력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sup>342)</sup>

341) 한국 해군대학, 『세계해전사(世界海戰史)』, 해군대학 전술학처, 1998, p.144

342) 한국 해군대학, 『세계해전사(世界海戰史)』, 해군대학 전술학처, 1998, p.145

양측의 전력을 비교해 볼 때, 개전 초에는 일본이 유리하고 장기전에 돌입하면 발트 함대의 지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 해군은 1903년 12월 상비함대로 제1, 제2, 제3함대를 편성하고 제1 및 제2함대로 연합 함대를 편성하였다. 연합 함대 사령관에는 도쿄(東郷平入郎) 해군대장이 보임되었다. 1904년 3월에 제3함대도 연합 함대에 편입되었다. 제1함대의 주력인 제1전대 전함 6척과 제2함대의 주력인 제2전대 장갑순양함 6척으로 소위 일본 해군의 66전대를 형성하였다. 이탈리아에서 건조하여 도입한 장갑순양함 닛신과 카스가가 2척은 개전 후인 1904년 2월 16일 일본에 도착하여 4월에 연합 함대에 편입되었다. 이 두 신형 순양함은 5월 15일 전함 2척이 기뢰에 의해 침몰하자 적시에 그 공백을 메웠다.

러시아 해군은 발트 함대, 흑해 함대, 태평양 함대로 분할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일본 함대와 비교하여 다소 열세였지만 주력함은 거의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는 발트 함대에 전함 11척, 장갑순양함 12척을 포함하여 총 28만 톤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태평양 함대를 증강할 수 있었다. 개전 시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여순에 전함 7척, 블라디보스토크에 장갑순양함 4척과 이천에 순양함 1척과 포함 1척이 분산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분산이 결국 러시아 해군의 전략적 과오가 되었다.

일본군의 작전계획은 제1기 작전에서 압록강 이남에서 작전하며, 제2기 작전에서 만주로 작전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 해군 전략은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격파하여 제해권을 확보하고 육군부대의 원활한 상륙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육군의 작전계획은 일본군을 견제하면서 유럽에서 증원군이 도착하면 결전하겠다는 것이었다.<sup>343)</sup> 불행하게도 만주의 철도가 단선

이였기 때문에 육군 증강병력은 축차적으로 진행되어 필요할 때 병력을 증강할 수 없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전략은 일본 육군의 상륙이 불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발트 함대가 도착한 후 일본 해군을 격파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 전투지역인 한반도와 만주에 병력을 수송하려면 제해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것도 발트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격파해야만 했다.

#### 일본 함대의 여순항 봉쇄

1904년 2월 4일 일본 어전회의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일본 연합 함대는 2월 6일 오전에 사세보 항을 출항하였다. 연합 함대 중 인천항에 있는 러시아 함정의 처리와 인천에 상륙하려는 일본 육군의 호송 임무는 제4전대가 담당했다. 일본군 제4전대는 장갑순양함 1척, 순양함 5척과 2개 어뢰정대로 구성되었다. 제4전대는 수송선 3척에 육군병력 2,200명이 승선한 수송선단을 호송하여 인천에 도착했다. 당시 인천항에는 러시아 순양함 바리아그(Variag)와 코리에츠(Korietz)가 정박하고 있었다. 일본의 제4전대 사령관 우리오는 러시아 함정을 외해에서 격파하기로 하고 러시아 순양함 두 척에 대해 인천항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2월 19일 12시 20분 바리아그가 인천항을 출항하자 외해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본 순양함들이 선제 발포를 가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바리아그(Variag)는 다시 인천항 내로 돌아왔다. 그러나 러시아 순양함 두 척은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폭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러시아 여순 함대의 격멸 또는 완전한 해상봉쇄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1898년 청국으로부터 여순항을 조차한 이후 그곳을 러시아 태평양

---

343) 고옥철부(古屋哲夫), 『일로전쟁』, 동경, 중앙공론사, 1973, p.147

함대의 동계 정박지로 정하고 군항사령부와 정비시설 그리고 외곽포대와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요새화했다. 2월 8일 여순항 외해에 도착한 일본 함대 사령관은 예하 3개 구축함분대로 하여금 여순항을 야간 기습하게 했다. 당시 러시아 전함 7척과 순양함 9척은 여순항 외해에 정박하고 있었다. 9일 자정을 지나 감행된 일본 구축함분대의 야간 기습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일본 구축함분대는 18발의 어뢰를 발사했지만 피격된 러시아 전함 자리비치(Czarevitch)와 레트비잔(Retvizan) 그리고 순양함 1척에 겨우 2개월 정도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주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양국이 국교를 단절하고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여순항 러시아 함대의 야간 경계태세는 철저하지 못했다. 여순항의 주요 간부들은 함대 사령관 스타르크(Stark) 중장 부인이 주체하는 무도회에 초청되어 갔다. 단지 구축함 2척이 여순항 밖에서 해상경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발포금지 명령에 따라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일본 함대는 야간기습 이후 계속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 방법은 주간포격-항구 폐쇄-기뢰봉쇄-함대봉쇄 그리고 지상군에 의한 배후공격으로 이어졌다.

지상군에 의한 배후 공격의 목적은 일본 육군이 요동 반도에 상륙하여 여순항을 압박하면 지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 여순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으며, 여순 함대가 출항하면 일본 함대가 해상에서 러시아의 여순 함대를 격멸하겠다는 전술이었다. 일본 함대의 입장에서는 발트 함대가 극동에 도착하기 전에 여순 함대를 필히 격멸시켜야 했다.

#### 황해 해전 · 울산 근해 해전

1904년 8월 10일 산둥 반도 북방 해역에서 전개된 황해 해전은 여순항을 탈출하려는 러시아 여순 함대와 이를 차단 격파하려는 일본 연합

함대 사이의 해전이다. 그리고 8월 14일 전개된 울산 근해 해전은 여순 함대의 탈출을 지원하려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장갑순양전대와 이것을 차단하려는 일본 장갑순양함대가 교전한 해전이었다.

새로 부임한 비트게프트(V.K. Witjeft) 여순 함대 사령관은 8월 7일 니콜라이 황제로부터 전 함대를 인솔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려는 칙령을 받았다. 그 명령에 따라 비트게프트는 함대를 이끌고 여순항을 출항하려고 했다. 순양함 1척과 구축함 8척이 먼저 출항하고 그 뒤를 따라 전함 6척과 순양함 3척이 출항했다. 러시아 함대가 여순항을 출항하고 있다는 보고에 접한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 도고 제독은 즉시 예하 함대의 집결을 명령했다.

당시 집결된 세력은 전함 4척, 장갑순양함 2척, 순양함 8척과 구축함 18척 그리고 어뢰정 30척이었다. 일본 함대는 정오경에 남진하는 여순 함대에게 원거리 포격을 가하면서 추격전을 전개했다. 러시아 함대는 회피기동을 하면서 일본 함대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 약 1시간가량의 교전 끝에 러시아의 여순 함대는 일본 함대의 사정권에서 이탈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함 레트비잔(Retvizan)이 선체 수면하 손상으로 인해 함대 전체의 속도가 14노트에서 12노트로 감속하게 되었다.

기동력이 좋은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여 오후 4시 20분경 거리 7,000m에서 포격을 재개했다. 이 포격으로 러시아의 기함 자러비치(Czarevitch)의 함교에 포탄 2발이 명중되어 사령관 이하 참모 전원이 사망하였고 타수마저 사망하여 여순 함대는 지휘공백으로 인해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여순항 입항에 성공한 것은 전함 5척과 순양함 1척 그리고 구축함 3척이었으며, 기함 자러비치(Czarevitch)는 순양함 1척, 구축함 3척과 함께 교주만(膠州灣)으로 피신했으나 일본 함대에게 피랍되어 무장해제를 당하고, 순양함 1척과 구축함 1척은 상해에서 그리

고 또 다른 순양함 1척은 사이공에서 무장해제를 당했다. 반면 일본 함대는 기함 미카사(三笠)가 러시아 함대로부터 피격되어 승조원 50여명이 사상된 것을 제외하고 큰 피해가 없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에 기지를 둔 러시아 함대는 대한 해협까지 함대를 출동시켜 일본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교란하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함대를 견제하는 임무는 카마무라 중장이 지휘하는 제2전대였다. 여순 함대의 탈출과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남하를 대비하여 대한 해협을 경비하고 있던 카마무라 전대가 남하하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발견한 것은 8월 14일이었다. 카마무라 전대는 러시아 함대의 8,000m까지 접근하여 포격을 개시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장갑순양함 3척이 피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1척은 침몰하고 2척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도주했다.

일본 함대는 여순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군 단독작전이 아니라 육군과 합동작전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육군이 155일 동안 여순항 배후를 공격한 결과 12월 5일 여순항을 제압할 수 있는 203 고지<sup>344</sup>)를 탈취했다. 일본 육군은 이곳에서 항내의 러시아 함정에게 포격을 가했다. 결국 러시아 함정은 일본 육군의 지상포에 의해 격침되거나 자폭하고 말았다.<sup>345)</sup>

#### 발트 함대의 원정항해

러시아의 극동 함대에 관한 소식을 접한 러시아 정부는 대경실색했다. 그들은 러시아 해군의 주력인 발트 함대를 동양으로 출동시키기로 했다. 로제스트벤스키(Zinovi P. Rozhdestvenski) 중장의 지휘 아래 1904년 10월 15일 발트 해의 리바우 항을 출항하여 극동 해역을 향해 18,000마일의 항해를 시작했다. 발트 함대의 전력은 신형 전함 4

---

344) 미령산

345) 고옥철부(古屋哲夫), 『일로전쟁』, 동경, 중앙공론사, 1973, p.151



척을 포함해 전함 8척, 구형 장갑 순양함 3척, 순양함 6척, 구축함 7척과 보조함 9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트 해와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는 발트 함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리소와 석탄기지가 없었다. 따라서 원정 함대인 발트 함대의 함정수리와 보급은 큰 문젯거리였다. 이 문제는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중립국 특히 프랑스의 보호령에 있는 항구의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발트 함대와 계약을 맺은 독일 선박회사의 석탄보급에 의존하며 항해를 했다.

또한 발트 함대에게 다음과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되었다. 1904년 10월 21일 발트 함대는 북해의 도거뱅크(Dogger Bank) 근해에서 영국 어선을 일본 어뢰정으로 오인하여 300발 이상의 포탄을 퍼부어 1척을 격침시키고 수척을 대파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격분한 영국 함대는 발트 함대에 대하여 시위기동, 봉쇄위협을 피하고 발트 함대에 관한 정보를 일본에게 전달해 주는 등 원양항해를 방해했다. 동년 11월 4일 발트 함대는 전력을 분산 기동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에즈 운하의 통과문제 때문이었는데 수에즈 운하는 수심과 운하 폭이 좁아 대형 함정이 통과할 수 없었다.

탕헤르에 도착한 로제스트벤스키는 소형 함정은 수에즈 운하로 통과하게 하고 대형 함정들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도록 했다. 분리되었던 함대는 1905년 1월 9일 마다가스칼의 노시베 港에서 결합하였다. 이때 여순항의 패전소식이 재래식 전신 및 무선전신으로 발트 함대에 전해졌다.

이 당시 재래식 전신 및 무선 전신은 매우 미흡한 성능이었지만 전신선은 러시아 함대나 일본 함대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신선은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나 도쿄에 신호를 보내 대장정에 오른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보고하였다. 로제스트벤스키가 태평양에 도달하자 도쿄의 함정에 있는 무선 전신기뿐만 아니라 러시아 함대의 전신기도 중요하게 되었다. 극동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의 전신통신은 황제와 그의 해군 대신에게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계속 알려주었다. 러시아 황제의 해군 대신들은 함대가 석탄 및 식량, 청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항구에서 머무를 때마다 로제스트벤스키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1905년 7월 로제스트벤스키는 그의 함대를 파국으로 몰게 되는 여순항의 함락소식을 전신을 통해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항해를 해야 했다. 이 항구는 일본이 초계하는 좁은 해역을 통해서 만이 도달할 수 있었다.

이 항해의 마지막 단계는 1905년 4월 러시아 함대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해안의 캄란(Camranh) 灣에 정박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 로제스트벤스키가 도착했다는 보고는 빠르게 도쿄에 도착하였다. 발트 함대가 캄란 만에 입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은 프랑스 정부에게 발트 함대를 퇴거시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본의 외교관들이 프랑스의 비중립적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도고 제독은 함대의 전투태세를 갖추면서 러시아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달하기 위해 지나야 하는 해협을 감시하고 있던 정찰전대에게 무선전신으로 경계경보를 내렸다. 이 전쟁이 시작될 무렵 양측은 그들의 일부 함정에 무선전신 송·수신기를 장착시켰었다. 러시아의 전신기는 비록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후에 형편없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sup>346)</sup>

한편 입항이 지연되자 로제스트벤스키는 그곳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반퐁(Van Fong)으로 함정을 옮겼다. 5월 9일 반퐁 항에서 네보가토프(Nebogatov) 전대와 합류했다. 네보가토프 전대는 구형 전함 1척, 장갑해방함 3척, 순양함 1척이었는데 이 당시 함정들은 모두 남아 속도가 느렸다. 함정이 총 53척으로 증강된 발트 함대는 마지막

346) Julian S. Corbett, *Maritime Operations in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2 vol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4), 2: pp.185~186.

전투준비를 갖춘 후 5월 14일 베트남 해역을 출항해 북상하기 시작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일본이 발신하고 있는 무선 통신을 도청하였다. 도청된 무선통신으로 그는 7척의 일본 초계함들이 대마 해협을 방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로제스트벤스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해하기 위해서는 대한 해협항로, 쓰가르 해협항로, 소야 해협항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런데 대한 해협은 일본 함대가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았으며, 쓰가르 해협과 소야 해협은 좁은 해협, 심한 안개 그리고 기뢰부설 등 항해 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00마일 이상 항해거리가 더 요구되었고 다른 항로 역시 일본이 초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정확히 추정하였다. 로제스트벤스키는 이러한 조건을 검토한 후 최단 항로인 대한 해협 동쪽 수로를 통과하기로 하고 일본군이 소홀한 틈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필요시에는 전투를 감행하여 항로를 돌파하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발트 함대는 5월 23일 상해 근해에서 석탄보급선으로부터 마지막 석탄을 보급 받았다. 각 함정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여분의 석탄을 갑판에도 쌓았다. 발트 함대는 야간 어뢰공격을 우려해 주간에 대마도를 통과하기 결심하고 순항속도를 8노트로 감속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북상하는 로제스트벤스키는 3가지 목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일본 함대와 교전, 둘째, 발트 함대의 블라디보스토크 입항, 셋째,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차단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제한된 시설을 감안한 보조함선의 동행이었다. 그는 전투와 항해 그리고 선단 방호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만 했다.

이것에 비해 일본 함대의 목표는 오로지 발트 함대의 격파뿐이었다. 일본 연합 함대는 발트 함대와 교전을 위한 정비와 훈련을 마치고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일본 함대는 1905년 2월 21일 한국 진해만에 입항했다. 그들이 진해만에 입항한 것은 지리적으로 발트 함

대를 포착하기 쉬운 곳이며 묘박지<sup>347</sup>)로 적합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연합 함대는 발트 함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진해만을 근거지로 하여 전 함대가 맹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합 함대는 함포사격, 어뢰발사, 접적이동, 야간전투 등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사격훈련과 구축함 및 어뢰정의 야간공격 훈련을 중요시하였다. 일본 함대는 5월 19일 이후 대한 해협 남서해역에 경비정 70여 척을 배치시켜 발트 함대의 접근을 기다렸다.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 도고는 ‘싸우고 나서 승리를 구한다라기 보다 ‘항상 이기게 해놓고 나서 싸운다(勝兵先勝 而後救戰 敗兵先戰 而後救勝)’라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의 철학을 평소에 참모들에게 강조하여, 함대 작전 참모인 아가야마 사네유키(秋山眞之) 중령의 제안에 따라 발트 함대를 접촉하면 점차 북상하면서 주간 4회 전투와 야간 3회 전투로 발트 함대를 격멸시킨다는 ‘7단계 전법’을 계획하였다. 또한 그는 ‘T 자 기동’이라는 전법을 활용하여 함대결전에서 함포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술을 개발하여 숙달토록 하였다.

러시아 함대가 대마해협에 들어서자, 일본 초계함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무선전신을 통하여 도고에게 경고를 하였다.<sup>348</sup>)도고는 초계함들로부터 적 함대의 위치, 침로, 속력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고 받고 적군을 차단하기에 유리한 위치로 자신들의 함정들을 기동시켰다. 이와 같은 무선전신기의 작전적 사용은 해전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었다. 즉, 해군이 하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었다.

1905년 5월 27일 7시경 진해만을 출항하면서 도고는 대본영에 전투 상황 보고를 타전하였는데, “적 함대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접하여 즉시 출동, 이를 격멸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맑으나 파도는

347)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원활한 조선과 하역을 행할 수 있는 수역을 박지 또는 묘지라 함.

348) Corbett, Russo-Japanese War, 2: pp.216, 231, 219, 220, 223, 237

높다(本日天氣晴朗波高.)”라는 내용이다. 당시 전문 내용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면, 일기가 청명하니 적 함대를 놓칠 위험은 없으며, 파도가 높으니 사격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합 함대가 발트 함대를 격멸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본영 전쟁지휘부를 안심시킨 내용으로 해석된다.

13시 55분 일본 연합 함대는 멀리 남쪽에서 종렬진으로 북상중인 러시아 함대를 발견하고, 도고는 모든 함정들에게 무선전신기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그의 전투 신호기 ‘Z’기를 올려 트라팔가르 해전이 있는 후 한 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넬슨이 사용한 것과 같은 신호를 보냈다. “일본 제국의 흥망이 이 일전에 달려 있으니, 제군들은 분투노력하라.”<sup>349)</sup>

이로써 러일 전쟁의 대미를 장식한 연합 함대와 발트 함대 간 결전은 대마 해협으로부터 울릉도에 이르는 해상에서 30시간 동안 벌어지게 된다.

#### 대마도 근해 해전

대마 해협으로 향하고 있는 러시아 발트 함대의 함정 수는 총 38척이었다. 그중 전투함이 29척이었고, 특수 임무를 맡은 보조선 7척, 병원선이 2척이었다. 발트 함대의 주력함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sup>350)</sup>

제1전투분대 : 지휘관 = 로제스트벤스키

전함 수바로프(Suvarov) : 13,516톤, 18노트, 12인치 포 4문, 6인치 포 12문.

전함 알렉산더3(Alexander3) : 13,516톤, 18노트, 12인치 포 4문, 6인치 포 12문.

전함 보로디노(Borodino) : 13,516톤, 18노트, 12인치 포 4문, 6인치

349) Corbett, Russo-Japanese War, 2: p.239

350) 이정수, 『대해전』, 정음사, 1986, p.160

포 12문.

전함 오렐(Orel) : 13,516톤, 18노트, 12인치 포 4문, 6인치 포 12문.

제2전투분대 : 지휘관 = 포커삼

전함 오스로아비아(Osliabia) : 12,674톤, 18노트, 10인치 포 4문, 6인치 포 11문.

전함 시쏘이벨리키(Sissoi Veliki) : 10,400톤, 16노트, 12치 포 4문, 6인치 포 6문.

전함 나바린(Navarin) : 10,206톤, 16노트, 12인치 포 4문, 6인치 포 8문.

장갑순양함 나키모프(Nakimov) : 8,524톤, 속력 17노트, 8인치 포 8문, 6인치 포 10문.

제3전투분대 : 지휘관 네보가토프

전함 니콜라이1(Nicholai 1) : 9,672톤, 15노트, 12인치 포 2문, 9인치 포 4문, 6인치 포 8문.

장갑해방함 우샤코프(Ushakov) 외 2척 : 4,600톤, 15노트, 10인치 포 4문, 6인치 포 10문.

일본의 연합 함대는 2전투분대로 나뉘었다. 일본의 주력 전투함정의 재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전투분대 : 지휘관 도고 헤이하지로

전함 미까사 : 15,362톤, 18노트, 12인치 포 4문, 6인치 포 14문.

전함 시끼시마 : 15,088톤, 18노트, 12인치 포 4문, 6인치 포 14문.

전함 후지 : 12,649톤, 18노트, 12인치 포 4문, 6인치 포 10문.

전함 아사히 : 12,507톤, 18노트, 12인치 포 4문, 6인치 포 14문.

장갑 순양함 가즈카 : 7,700톤, 20노트, 10인치 포 1문, 8인치 포 2문, 6인치 포 14문.

장갑순양함 닛 싱 : 7,700톤, 20노트, 8인치 포 4문, 6인치 포 14문.

제2전투분대 : 지휘관 가마무라

장갑순양함 이즈모 9,906톤, 12노트, 8인치 포 4문, 6인치 포 14문.

장갑순양함 아즈마 9,465톤, 20노트, 8인치 포 4문, 6인치 포 12문.

장갑순양함 아사마 9,855톤, 22노트, 8인치 포 4문, 6인치 포 12문.

장갑순양함 야구모 9,800톤, 22노트, 8인치 포 4문, 6인치 포 12문.

장갑순양함 도끼와 9,855톤, 22노트, 8인치 포 4문, 6인치 포 14문.

장갑순양함 이와테 9,900톤, 21노트, 8인치 포 4문, 6인치 포 14문.

러시아 함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는 일본 함대 사령관 도고보다 한살 아래인 58세였다. 로제스트벤스키는 키가 남달리 커서 구부정한 체격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구레나룻 수염으로 위엄이 돋보였고 귀는 손바닥만큼이나 커 보여 인상적이라고들 한다. 그가 발트 함대를 지휘한 것은 1904년 5월부터였다. 그의 성격은 사소한 일에 집착하여 자신의 소신이나 생각을 가까운 참모들에게 마저 말하지 않는 습성이 있었다.

일본 함대 사령관 도고는 1903년 10월부터 연합 함대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악운에 강한 사나이’라고 평했다. 몸집은 장대하지 않았지만 말수가 적고 차분하며 대담한 성품을 지녔다. 그는 하급 지휘관의 재량권을 존중했지만 훈련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특히 함포 사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함대를 지휘했다.

1905년 5월 27일 4시 45분 ‘러시아 함대 접촉’이라는 전보가 기함 미까사(三笠)에 날아왔다. 대마 해협 남쪽 먼 곳에서 초계 중이던 시나노마루(信濃丸)로부터 발신된 것이었다. 그때 도고 사령관은 진해만의 기함 미까사 함교에 앉아 싸늘한 바닷바람을 쐬고 있었다. 전보를 받아본 도고는 ‘전 함대 출동’ 명령을 내렸다. 조용하던 진해만은

일본 함정의 닛 감는 소리로 소란해졌다. 6시 30분 닛을 올린 기함 미까사가 진해만으로부터 가덕수로를 빠져나가자 예하 함정들도 편대를 구성하면서 뒤따르기 시작했다. 해상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나 강한 남서풍이 불어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일본의 순양함 분대는 이미 멀리 떠나 활동 중이었지만, 연합 함대 주력을 따라나선 구축함들은 함교까지 파도를 뒤집어쓰며 기함을 뒤따르고 있었다. 대마 해협에 이른 일본의 연합 함대 주력은 대마도를 오른쪽으로 두고 남진항로를 잡았다. 그들은 먼 수평선으로 러시아 함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하고 있었다.

오후 1시 45분경, 드디어 수평선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마스트 무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고의 주력 함정들은 2분대 종렬진을 형성하고 남서쪽으로 향진하고 있었다. 전투 깃발을 올린 발트 함대가 북동방향으로 향진해 오고 있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함대 편진의 최전방 제1분대를 단종진으로 배치하고 그의 기함을 선도 제1번 함으로 하여 북상할 것을 명령했다. 왼편 조금 떨어진 곳에 제2분대와 제3분대도 역시 종렬진으로 향진하고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순양함 2척을 앞세운 제1 구축함전대가 향진했다. 뒤쪽으로 순양함분대와 제2구축함전대, 그리고 보조함전대가 1열종대로 뒤따르고 있었다.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의 거리는 1분에 약 900야드씩 좁혀지고 있었다. 도고가 승함해 있는 기함 미까사 마스트에는 ‘Z’를 표시하는 기류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 뜻은 ‘황국의 승패는 이 일전에 달려 있음. 각자 일층 분발 노력할 것’이었다. 도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쌍안경으로 적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sup>351)</sup>

두 함대 사이의 거리는 15,000야드로 급속히 좁혀졌다. 오후 2시가 되면서 12인치 주포의 유효 사정거리가 되는 순간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 도고는 오른손을 들어 왼쪽으로 큰 원을 그렸다. 왼편으로 90

351) 고옥철부(古屋哲夫), 『일로전쟁』, 동경, 중앙공론사, 1973, p.146



도 선수를 돌리라는 명령이었다. 기함 미까사가 등근 항적을 그으면서 회전하자 제2번함 이하가가 뒤따르자 나머지 함정들도 차례대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것은 포문을 열기 전 북동진하는 발트 함대의 전방을 가로지르기 위한 기동으로 ‘T’자 전법을 구사하기 위한 의도였다. ‘T’자 전법은 종렬진으로 항진하는 적 함대에 대하여 아군 함정이 현 측으로 적을 바라보면 앞뒤에 있는 주포를 모두 사용하여 일시에 적에게 집중포화를 가할 수 있는 전법이었다.

러시아 함대도 전투준비를 서둘렀다. 특히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는 사력을 다해 결전할 태세였다. 단지 걱정인 것은 제2전투분대를 지휘해온 포커삼이 지병으로 고생하다 이틀 전 사망한 것이었다. 함대 장병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포커삼이 승함했던 오스리아비아 마스트에 사령기를 계속 계양하게 해 대부분의 장병들은 포커삼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2시 8분 상대거리가 7,000야드 정도가 되자 발트 함대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2분이 지나자 일본 연합 함대 주포가 화염을 뿜었다. 주포의 발사 개시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함정들이 일제히 화포를 발사했다. 기함 미까사 주위에 높다란 물기둥들이 솟구쳤다. 그 와중에서 함대 사령관 도고는 발트 함대 제1분대와 제2분대의 선도기함 수바로프와 오스리아비아에게 화력을 집중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15노트의 속력으로 11노트로 달리는 발트 함대의 전방을 가로지르는 기동항해를 구사했다. ‘T’자의 머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술기동이었다. 그것은 러시아 함대가 종렬진으로 항진하기 때문에 함수포 하나만 사용할 수 있을 때 횡렬로 배치된 일본 함정들은 모든 포를 일시에 적함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유지하기 위한 기동전술이었다. 포탄을 주고받으며 회피하려는 자와 그 앞을 가로막으며 화포를 발사하려는 자들의 필사적인 싸움이었다. 포화를 교환한지 10분이 지날 무렵, 일본 함대의 기함 미까사의 우현 상갑판에 발트 함대

의 12인치 포탄이 명중되어 순식간에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일본 함대의 후미를 따르고 있던 일본 장갑순양함 아마사도 발트 함대의 12인치 포에 명중되어 타기가 부서지고 선실로 물이 차올라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진지 20분이 지나자 일본 화포의 집중공격을 받은 발트 함대의 제1분대 기함 수바로프 호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고 있었다. 또한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제2분대 기함 오스리아비아는 일본 함대의 집중공격을 받으면서도 일본 함대를 향해 대응사격을 계속했지만 일본 함정에서 발사한 포탄이 선수 흘수선을 명중하자 큰 구멍이 생겼다. 삼시간에 물이 침수되자 오스리아비아 호는 균형을 잃고 함수가 물에 잠기더니 좌현으로 뒤집히며 침몰했다. 이로 인해 승조원 600여 명과 전투 전에 지병으로 숨진 포커삼 제2분대 사령관도 함께 침몰하게 되었다. 이제 전함 알렉산더 3세가 발트 함대의 기함이며 지휘함의 역할을 맡아 복진을 재촉하게 되었다.

해상은 포연으로 덮여 방향마저 분간하기 힘들었다. 일본 함대는 유리한 T자 전법을 유지하기 위해 기동하다가 적 함대로부터 5마일 이상 벗어나게 되어 발트 함대를 놓치게 되었다. 일본 연합 함대는 수색전을 전개하여 동북방향으로 향진하는 발트 함대를 발견하게 되었다. 도고는 중상을 입고 느린 속도로 복상하는 러시아 함정을 찾아 어뢰로 공격하라는 명령했다.

발트 함대의 기함 수바로프는 일본의 함포를 맞아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즉 기관은 거의 멈출 상태였고 포도 6인치 포 1문만이 사용가능했다. 또한 침수도 심각했다. 러시아 구축함 부이니 호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를 옮겨 신기 위해 수바로프 호로 접근했다. 그러나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는 “우리는 폐하의 명령을 받고 이 함정에 승함했다. 본 함의 최후도 지켜보지 않고 배를

떠날 수 없는 일이다. 수바로프 호가 만일 침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의 운명을 가족과 나라에 전해주기 바란다. 러시아 만세!”라고 말하면서 배를 옮겨 타는 것을 거절했다. 부이니 함정의 장병들은 로제스트벤스키를 옮겨 실은 후 수바로프 호를 향해 어뢰 2발을 발사했다. 발트 함대의 기함 수바로프 호는 이렇게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sup>352)</sup>

오후 5시 55분 일본 연합 함대는 러시아 함대를 다시 발견했다. 일본 함대는 속도를 높여 러시아 함대에게 접근했다. 양 함대의 포격전이 재현되었다. 발트 함대의 선도 위치를 잡고 있던 알렉산더 3세 호는 일본 함대의 포격으로 함수가 파괴되고 침수가 심해졌다. 오후 6시 40분 전함 알렉산더3세도 승조원 830명과 함께 침몰하게 되었다. 다시 지휘함이 된 발트 함대의 전함 브로디노도 일본 전함 후지의 12인치 포에 탄약고가 명중되어 침몰하게 되었다. 이제 발트 함대의 전열은 지리멸렬한 상태가 되었다. 어둠이 짙어지자 제3전투 분대장인 네보가토프가 발트 함대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신호를 발신하고 생존해 있는 함정들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북쪽으로 항진을 재촉했다. 달아나는 러시아 함대는 세 그룹을 이루고 있었다. 전방 그룹은 전함 오렐에 승함해 있는 네보가토프가 선두에서 지휘했고, 멀리 왼편에는 순양함과 보조함들이 한 그룹을 형성했고, 후방에 전함 2척과 장갑순양함 1척이 거리를 유지하며 항진하고 있었다.

주력전투함들의 주간전투를 보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던 일본 구축함전대와 어뢰정전대에게 ‘야간을 이용하여 적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라’라는 도고 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21척의 구축함과 37척의 어뢰정이 달아나는 발트 함대 산하의 군함을 찾아 공격을 개시한 시간은 오후 8시 15분이었다. 그러나 전대 지휘관과 함장들의 주도권에 의존한 야간 어뢰공격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87발의 어뢰가 발사되었

352) 이정수, 『대해전』, 정음사, 1986, p.169

으나 그 중 단 4발만이 목표물에 명중되었다.<sup>353)</sup>

그나마 어뢰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발트 함대 후미에 있던 전함 나바린 호가 생존함을 확인하기 위해 탐조등을 켜자, 그때 일본의 어뢰정이 기다리거나 한 것처럼 불빛을 이용해 어뢰 4발을 발사했다. 나바린 호는 어뢰 4발을 맞고 순식간에 격침되었다. 또 다른 전함 시쏘이 벨리키도 함미에 어뢰 1발을 맞고 밤새 침수 구멍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밀려드는 수압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침이 되자 침몰하고 말았다. 장갑순양함 나키모프는 함수에 어뢰를 맞고 대마도 쪽으로 표류하다 자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함대의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28일 아침이 밝았다. 도고 함대의 주력함들은 전날 격전 해역에서 140마일 가량 북쪽으로 올라가 적함을 찾고 있었다. 오전 5시 20분경 북상하는 러시아 함대를 수평선 해무 속에서 발견했다. 도고가 승함해 있는 마까사로부터 남쪽 50마일 해상에서 초계활동을 하던 제5분대 소속의 순양함이 북쪽으로 도주하는 발트 함대 함정들을 발견했다는 보고였다. 도고는 1분대와 2분대의 함정을 이끌고 차단침로를 잡으면서 동쪽으로 기동했다. 오전 9시 30분 도고 함대가 접촉한 발트 함대는 네보가토프가 거느린 마지막 2척의 전함 니콜라이 1세와 오렐 호 그리고 3척의 순양함이었다. 러시아 함대의 도주를 막으려고 일본의 연합 함대는 포위작전을 전개했다. 유효 사정권에 들어오자 일본 장갑순양함 가즈카 호가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네보가토프로부터 응사가 없었다. 이상한 현상이었다. 그때 쌍안경으로 적함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도고의 참모 이끼야마 중령이 “적이 백기를 마스트에 게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까지 일본 함정들은 적함을 향해 계속 포화를 퍼붓고 있었다. 네보가토프 호의 마스트에 일본기가 게양되었다. 그제야 일본 함정들의 포화가 멈췄다.

---

353) Corbett, Russo-Japanese War, 2 : p.310

두 함대가 대치하고 있던 해상은 이내 조용해졌다. 일본 함대의 기함 미까사에서 아끼야마 참모가 어뢰정을 타고 니콜라이 1세함에 올라가 네보가토프를 만났다. 적 함대 사령관을 생포하여 오기 위한 것이었다. 네보가토프는 러시아 함을 떠나면서 부하들에게 침통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60을 넘긴 사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여 충살을 당한들 그것이 문제이겠는가? 그러나 여러분은 젊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러시아 해군이 잃었던 영광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조국의 부름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곳에는 2,400명의 목숨이 있다. 그 생명들은 나 한 사람의 목숨보다 훨씬 소중하다.” 그는 행복의 징표로 그가 휴대하던 장검을 도고에게 건네주기 위해 일본 함대의 기함 미까사로 옮겨 났다.

나머지 흩어진 발트 함대의 함정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장갑해방함 우샤코프는 가미무라가 지휘하는 제2전투분대 산하 이와데와 야구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일본 함정으로부터 집중포격을 받고 오후 6시 40분경 침몰되었다. 또한 발트 함대의 구축함 4척도 일본 함대의 사정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포격을 받고 침몰하였으며 보조함정 4척도 침몰되었다.

한편 발트 함대 사령관 로제트벤스키는 구축함 부이니에서 구축함 비도비(Biedovy)로 다시 옮겨 났지만, 일본 구축함 2척에게 포위되었다. 결국 2척의 발트 함대 구축함들은 일본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하였으며, 사령관 로제트벤스키와 장병들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대마 해협으로 진입했던 러시아 발트 함대의 함정 38척 가운데 블라디보스토크로 달아난 함정은 순양함 1척과 구축함 2척뿐이었다. 기동편대 후방에서 항해하다 회항도 주한 순양함 3척은 6월 초순 필리핀 마닐라 항에 들어갔으며, 기타 보조선박 몇 척이 상하이 등지로 도주하였다.

대마 해전은 고전적인 섬멸전이었다. 로제트벤스키는 8척의 전함

모두와 장갑순양함 3척 등 38척의 함정 중 29척을 잃었다. 항복 노획한 것은 전함 2척을 포함해 도합 7척이나 되었다. 이 해전에서 러시아 발트 함대 장병 5,000여 명이 전사했으며, 지휘관 로제스트벤스키와 네보가토프를 위시해 러시아 장병 6,106명이 포로가 되었다. 그해 반해 일본 함대의 피해는 어뢰정 3척의 침몰과 사상자 700명 정도였다. 도고의 승리는 나일 강과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이 거둔 승리보다 더 완벽했으며, 훨씬 결정적이었다. 대마 해전은 결과적으로 극동에서 러시아의 패배를 거의 확실하게 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우세한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 후 3개월이 못되어 러일 전쟁은 끝이 났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러일 전쟁은 전쟁당사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전쟁에 패한 러시아는 만주에서 철수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위가 인정되었으며, 여순항과 요동 반도 그리고 사할린 남부가 일본에 양도되었다. 이런 결과로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좌절되었다. 반면 일본은 세계열강에 합류되었다. 국제적 지위가 높아진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주요 해군국가로 부상했다.

대마도 해전 이후 대구경포를 장착한 대형 전투함만이 해전에서 승리하고 해양을 제패할 수 있다는 대함거포주의 전략사상이 대두하면서 화력을 집중한 주력함(capital ship)이 등장하였는데 그동안의 단일함의 다중다포주의에서 탈피하여 대구경의 단일한 종류의 포를 다수 탑재한 쏠 거포함(All-big-gun-ship)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차 대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노급전함(弩級戰艦)과 전투순양함이었다. 그리고 진형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어뢰정과 구축함도 야간 전투수단으로 함대에서 구성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러일전쟁 결과로 각광을 받게 된 거함거포주의와 마한의 함대 결전

사상이 열강의 해군력 강화에 큰 영향을 마쳤다.

거함거포주의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한 함대 결전사상은 양자 세계대전 당시 열강해군의 함대편제와 진형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본 해군의 전략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발트 함대의 격파라는 해전 승리에 고무된 일본 해군은 그 이후 함포교전의 주체가 된 전함중심의 함대를 건설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과 함대결전만을 고집한 해전을 벌였다.

한편 요새함대전략을 취한 러시아의 여순 함대가 패배함에 따라 주요 해군에서 요새함대전략사상이 퇴조하게 되었다. 대마도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마도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한 배경에는 일본 외교력의 승리다. 특히 영국의 지원이 큰 몫을 하였다. 노일 전쟁에 앞서 일본은 1902년 영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동·서에서 견제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은 일본이 주력함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였고, 러시아의 주력함 구입을 견제하였다. 발트 함대가 북해를 출항하자마자 일어난 영국 어선에 대한 발포, 즉 도거뱅크사건은 영국 해군이 발트 함대에 대한 감시와 간섭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발트 함대에 관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영국이 외교적 압력을 통해 발트 함대 중립항구 입항과 군수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발트 함대의 원양항해로 사기저하와 전투력 소모를 불러일으켰다.

둘째, 지휘관 지휘역량이 탁월했다.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 도고는 청일 전쟁 당시 순양함 나니와(浪速) 함장으로 참전했고, 풍도 해전에서 청국의 고승 호를 격침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는 청일 전쟁 후 8년간이나 함대와 주요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가미무라와 같은 노련한 지휘관과 아끼야마 사네유키 중령 같은 명석한 참모를

예하에 두고 있었다. 도고는 대마도 해전에서 ‘T’자 진형을 감행하여 초전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작전은 면밀한 계획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도고는 넬슨 이후 다른 여러 지휘관들보다 분권적 지휘·통제 방법을 신봉하여 그는 넬슨이 부하들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상세한 전투계획을 모든 예하 지휘관과 함장을 위해 준비하였다. 도고가 전투 직전에 무선통신기 사용을 중지시킨 것은 새로운 전시기가 유요한 장비임에는 틀림없으나, 고장과 전파방해에 너무 취약하고 다루기 힘들며, 깨지기 쉬웠다는 점을 알고, 사전에 상세한 전투계획을 작성하여 전투에 임하였던 것이다. 그의 전투계획은 함대를 종렬진으로 정렬시켜 전투에 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분대는 예하 지휘관들이 이끄는 종렬 형태로 독립적으로 기동하여, 적 함대의 일부를 상대로 집중공격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전투 중 일본의 분대 사령관들은 많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도고는 “함대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령관들은 각각의 지휘영역에서 전술과 무기 및 어뢰의 사용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sup>354)</sup>라고 지시할 정도로 예하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었다.

셋째, 일본의 전투함의 성능과 전술적 전투편성이 러시아보다 우수했다. 일본 해군이 보유한 전함과 장갑순양함은 영국에서 직접 건조하거나 기술을 도입, 건조하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최신예 함정이었다. 함포 성능에 있어서는 포탄에 사용되었던 화약의 폭발력이 러시아에 비해 두 배 정도로 강하였고, ‘T’자 기동을 바탕으로 한 사격술 연마와 향상은 발트 함대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또한 일본 함대는 동형함으로 전투분대가 편성되어 우수한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러시아 해군은 함형과 성능, 무장과 속

---

354) Corbett, Russo-Japanese War, 1: pp.474~491, 503~524. Evans and Peattied, Kaigun, pp.74~79



도가 상이한 함정으로 전투분대를 혼성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넷째, 일본 해군은 우수한 함포 사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황해 해전과 대마도 해전에서 승패를 결정한 것은 대구경 함포였다. 대구경포함 보유에 있어서 일본 함정은 러시아 함정에 비해 열세했다. 그러나 사격능력은 일본 해군이 압도적으로 우수했다. 일본해군의 함포 사격 적중률은 러시아 함대에 비해 3배나 우수했다.

반면 러시아 함대의 패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국내 정치적 불안 및 전세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다. 제정 러시아 말기의 정치적 불안은 발트 함대의 출항을 지연시킴으로써 통합적인 전투력 발휘를 불가능하게 했고 외교력 부재는 함대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다. 여순 함대의 상황이 급박해진 가운데 태평양 해역을 향한 발트 함대의 출항이 7월로 예정되었지만, 중앙정부의 무능력, 정치 불안 등으로 발트 함대의 출항이 계속 지연되었고, 후속 부대도 발트 함대가 향해 도중 후속부대가 뒤늦게 출항하여 이들과 합류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반면 이 기간을 이용해 일본 함대는 충분한 정비와 훈련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여순항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새로운 타개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판단은 결국 제정 러시아의 말로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결단력 부족이다. 발트 대 함대를 이끌고 7개월 이상 18,000마일을 항해한 용기와 인내력은 대단하였지만, 관료적이고 전투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예하 참모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장기간 항해로 인해 전투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사기저하는 물론 치명적인 전투력 손실을 가져왔고 여순항이 함락되었다는 본국으로부터의 소식은 전투의지와 결전에서 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본 함대와의 결전, 블라디보

스토크 도착, 선단의 방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등의 지휘관으로서 전투감각이 결여된 지휘역량을 보였던 것이다.

둘째, 전투태세가 미흡했다. 발트 함대는 당시 세계 3위의 해군력을 보유한 러시아의 주력함대였지만 장기간의 항해로 인한 전투력 및 사기저하와 함대 결전에 대비한 전투계획 미수립 등 전비태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다 발트 함대의 함정들은 5월 23일 마지막 석탄보급 시 약 1,000마일의 항정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함정들은 3,000마일분의 석탄을 실었다. 그것은 열악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군수조건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석탄의 과적은 함정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전투 시 석탄 먼지가 시야를 가렸을 뿐만 아니라 화재원인이 되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개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투태세를 유지하지 않았다. 여순 함대는 무방비와 다름없는 상태에서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 여순 함대는 전면 점등하고 있었으며, 어뢰 방어망도 없이 외항에 정박해 있었으며, 간부의 무도회 참석, 함정 장병들의 상륙, 부적절한 집속보고와 조치 등의 예에서 볼 때 전투태세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러일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력을 통한 안보 동맹의 필요성이다. 일본은 영·일 동맹의 성립으로 동아시아에서 그들의 입장을 공고히 했으며, 삼국 간섭 때 겪은 외교적 고립의 서러움에서 구원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던 세계의 리더국으로 러일 전쟁 당시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발트 함대에게 쓸데없는 전투력 손실을 강요하여 지치게 만든 든든한 동맹국이였다.

둘째, 위기에 처하여서도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결단력이다. 우리는 대마도 해전을 지휘한 두 지휘관의 전쟁 지도력을 보

면서 지휘관의 결단력이 전투의 승패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과감한 권한 위임 등은 전장에서 상호 간의 신뢰 형성과 사기 앙양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해전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함정 세력의 집중이 승리의 요체가 되었다. 러시아의 패전 요인 중 가장 분명한 것은 발트 함대와 태평양 함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여순, 블라디보스토크, 인천으로 분할되어 있음으로써 일본 함대에게 각개격파를 당했고, 급기야 뒤늦게 도착한 발트 함대마저 궤멸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해전 시 함정 세력의 집중이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훈련은 승리의 첩경이다. 일본 연합 함대는 발트 함대의 격멸이라는 확고한 목표아래 진해만에서 장기간 체계화된 훈련(사격, 기동, 야간공격 등)을 실시하여 함정과 승조원을 우수한 전투력으로 결속시켰다. 그 결과 러시아 함대를 격파한 것이다.

대마도 해전은 일본 연합 함대의 대 승첩으로 끝났다. 일본은 이날의 감격을 간직하기 위해 5월 27일을 해군 기념일로 정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총력전으로 전개되어, 경제기반이 약한 두 나라는 곧 곤궁에 처하였다. 일본은 전비의 60%에 이르는 12억 엔을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빌려 어렵게 전쟁을 계속했다.

한편 러시아도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1905년 1월 러시아 수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피의 일요일 사건’<sup>355)</sup>을 계기로 전국 규모의 파업과 농민 운동이 확대되어 세계 최초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

---

355) 황제가 거처하는 동궁을 향해 청원 행진하던 14만 명의 노동자에게 군대가 발포하여 2,000명 이상이 사상한 사건.

사회전반이 소요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러한 내부 사정으로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태에서 5월 말 대마도 해전에서 발트 함대가 결정적으로 패배하자, 러시아는 강화조약체결로 방향을 바꾸었다.

러일 전쟁을 조정하여 세력의 균형을 꺾하는 것이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문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우위성을 인정하고, 요동 반도 남부의 조차권, 사할린의 남부를 일본에 할양, 동만주 철도 등 전승국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그 뒤 일본은 1910년 한일 합방조약을 맺고 대한 제국<sup>356)</sup>을 합병했다. 그 결과 일본의 대륙침략 야욕은 더욱 기세를 올리게 되었다.

---

356) 1897년에 조선은 대한 제국으로 국호를 변경.

## 제5장

### 제1차 세계대전과 거함거포巨艦巨砲 시대



## 1. 제1차 세계대전

### 전쟁발발의 배경

제1차 세계대전 대해서는 동맹체제, 영·독 간의 해군 군비경쟁, 독일의 패권 의도, 불가피한 자본주의 경쟁 등이 전쟁발발 원인이라는 각각의 주장이 논쟁을 거듭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굳이 한마디로 이 전쟁을 요약하라 한다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세계질서의 재편을 원하는 독일과 이미 세계 속에 방대한 이권을 가지고 독일의 진출을 저지하려 한 영국·프랑스의 전쟁이라 할 수 있겠다.

전쟁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의 페르디난드(Franz Ferdinand) 황태자 부부가 한 세르비아인 대학생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이었다. 이후 오스트리아의 요구를 세르비아가 거부함으로써 결국 전쟁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 및 독일의 동맹제국과 세르비아,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연합국이 맞붙으면서 1914년 8월에 연속적인 선전포고가 잇따르게 되었다. 1914년 11월 오토만 터키 제국이 동맹제국에 가담하였고, 1915년에는 불가리아가 가담하였다. 1915년 5월 ‘3국 동맹’의 일원이었던 이탈리아가 런던 밀약으로, 1916년 루마니아가, 그리고 1917년 미국이 동맹국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동맹국인 독일·오스트리아·오토만 터키·불가리아 4개국과 연합국 27개국이 싸운 공전의 대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유럽 세력 균형체제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으로 생존 또는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었다.

신흥공업국 독일의 이름난 재상(宰相)인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1866년 향후 7주 전쟁이라 명명된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에서 1871년간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독일통일의 과업을 달성한 후, 독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의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비스마르크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1882년의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 삼국동맹(Triple Alliance), 1887년 독일과 러시아의 재보장조약(Reassurance Treaty)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1890년에 비스마르크를 실각시키고 직접 외교정책을 지휘하게 된 빌헬름 2세(Wilhelm II)가 비스마르크와는 달리 적극적인 세계정책과 이를 위한 군비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유럽의 긴장이 격화되었다. 특히, 베를린(Berlin), 비잔티움(Byzantium), 바그다드(Bagdad)의 세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부설하고 바그다드 외항인 바스라에 항만시설을 갖추어 북대서양과 페르시아 만을 최단거리로 잇는 것이 목표인 독일의 3B정책과 케이프타운(Cape Town), 카이로(Cairo), 캘커타(Calcutta)를 연결하여 인도양을 내해로 확보하려는 영국의 3C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독일의 신속한 경제 성장과 식민지 획득정책은 필연적으로 발전된 해군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영국 해군력이 독일에 의해 도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해권의 위협을 느낀 영국은 발칸 반도에서 세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와 손잡고 중동과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독일의 야심을 꺾고자 했다.

당시 구(舊)오토만 제국령(帝國領)인 발칸 반도에서는 슬라브인들이 민족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여 발칸 반도를 슬라브 민족이 탈환하지는 범(汎)슬라브주의를 제창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슬라브 민족이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자국 내에 슬라브주의 민족 운동이 파급될 것을 두려워하여 독일을 방패삼아 범(汎)게르만주의를 내걸고 발칸반도에서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양 세력이 맞부딪힌 곳은 1878년 베를린 회의에서 오스트리아가 행정권을 획득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였다. 이 지역에는 슬라브 계



통인 세르비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1914년 6월28일 오스트리아 육군 훈련을 시찰하기 위해 보스니아의 주도(州都)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드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비밀결사인 ‘검은 손’의 사주를 받은 열아홉 살의 세르비아인 대학생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의 화약고’는 단숨에 폭발했다. 한 달 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을 기화로 동맹국과 연합군이 잇따라 전쟁을 벌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상전에서 단기 결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독일은 전쟁이 시작되자 전 육군참모총장 슐리펜(Schlieffen)이 내놓은 도상계획에 따라 동원체제가 느린 러시아가 체제를 정비하기 전에 프랑스를 항복시킨 다음 군대를 동쪽으로 되돌려 러시아를 친다는 작전을 세웠다. 그 첫 번째 시도로 독일은 191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프랑스에 대해 42일 만에 승리를 획득할 목적으로 상당히 수정된 슐리펜 계획을 집행했다. 그러나 벨기에군의 심한 저항으로 프랑스 공격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독일의 우측은 포위망에 의해 위협받았고, 영국 원정군에 의해 형성된 돌파선에 의해 위협을 받으면서, 독일의 작전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었다. 프랑스의 서부전선은 레마르크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9월 5일에서 6일까지 단기 결전에서 승리를 위한 독일의 시도가 실패하였다.

1914년 9월 첫 주말 슐리펜 계획이 실패하면서 독일은 플랜더스(Flanders)에 있는 연합군을 우회 포위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려 시도하였다. 안트워프(Antwerp)의 포위망에서 탈출한 벨기에 육군, 앤세(Ainse) 강에서 차출되어 이프레스(Ypres) 주변에 투입되었던 영국 원정군 그리고 후퇴하는 벨기에군에 대한 독일의 강습을 차단하는데 기여한 영국 해군 덕분에 이 두 번째의 절박한 도발은 11월 말

실패로 돌아갔다.

1914년 10월 터키가 동맹구축에 가담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와 이집트의 방어 뿐 만아니라 발칸 제국의 동요를 막고 교착상태에 빠진 서부전선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1915년 2월부터 영국과 프랑스 함대는 먼저 갈리폴리(Gallipoli) 반도의 터키군 포대를 포격하고 다르다넬스 해협(The Dardanelles)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터키군의 기뢰원과 기뢰원을 보호하는 해안포대 및 방어군의 저항으로 인하여 연합군 함대의 공격은 무위로 끝났다. 이후 연합군은 1915년 4월에 갈리폴리 반도에 대한 합동작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합군의 상륙작전은 탑재와 수송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계획보다 6주일이나 지체되었으며, 상륙군은 터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결국 1916년 1월 연합군이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다르다넬스·갈리폴리 전투는 연합군의 실패로 끝났다. 다르다넬스·갈리폴리 전투는 실패로 끝났지만, 터키군 30만 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착시키는 전략적 소득을 얻어냈다.

1915년 독일 육군 총장 몰트케의 후임인 폴켄하인(Falkenhayn) 장군은 프랑스와 벨기에를 다시 공격하는 것보다 러시아 군을 파괴하는 것이 독일이 감당 할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해 러시아를 공격하였다. 그의 훌륭한 판단 덕분에, 초기 동부전선에서 독일은 최소한의 피해로 러시아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점령지를 급속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예상외로 동원체제를 빨리 정비하자 독일의 작전은 차질을 빚기 시작 했으며, 전선은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끝내 러시아를 점령하지 못했다.

1916년 베르딩(Verdun)에서 폴켄하인 장군은 서부전선의 교착상태를 타파하고 프랑스를 자신들이 제안한 평화협정에 순순히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프랑스 육군에게 전의를 상실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

를 입히려고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1916년 2월부터 6월에 걸쳐 독일은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베르됭(Verdum)에 총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페탱(P. Petain) 장군 지휘 하에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독일군의 공격을 물리쳤다. 프랑스 육군에게 542,000명의 인명손실을 안겨준 베르됭 전투는 독일이 의도했던 프랑스군의 군사적 소모는 달성했지만, 자신들 역시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전술적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본래 소모전은 필연적으로 쌍방 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연합군은 지속적으로 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독일은 연합군의 대륙봉쇄로 추가적인 병력모집 등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상황이어서, 연합군 프랑스가 감당한 542,000명의 인명피해보다 숫자적으로는 10만 명이나 적었지만, 독일은 자국군 434,000명의 인명피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 해 1917년 초 프랑스와 영국은 솜므(Somme)에 최초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27개 사단의 대규모 병력으로 24시간 내 전격전을 감행하여 독일전선을 석권하겠다는 프랑스의 니베이어(Nivelle) 장군의 약속과는 다르게, 많은 병력만 헛되이 소모되었다. 그 결과 서부전선은 다시 참호전의 교착상태로 되돌아갔다.

1917년 2월 독일은 서부전선의 교착상태를 유리한 여건을 획득하기 위하여 해군에게 눈을 돌렸다. 그때까지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패하였고, 베르됭과 솜므 소모전을 치르며 패배라 할 수 있는, 건딜 수 없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서부전선을 따라 소위 힌덴부르크 라인(Hindenburg Line)을 구축하여 요새체제로 방어전술을 구축하였다. 독일은 유틀란트 해전(Battle OF Jutland)<sup>357)</sup> 이후 그들이 자랑하는 대양함대의 사용을 포기하고, 대신 연합군 측의 주축이었던 영국을 패배시키기 위해 1917년 2월에 교전국이나 중립국의 선박을 불문하고 무차별 공격을 가한다는 U-보트를<sup>358)</sup> 사용한 무제한 잠수함전을

---

357) 1916년 5월 31일 유틀란트 반도에 연한 북해에서 일어난 영국과 독일 간의 전투.

선언하면서 5개월간의 잠수함 전쟁에 뛰어들었다. 연합국 측의 해상 선박에 대한 무제한 통상파괴전을 통해 독일은 매달 60만 톤의 연합국 또는 연합국 측에 협조하는 중립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sup>359)</sup>

그러나 1917년 5월 10일 뒤늦게나마 도입된 선박호송 체계의 운용으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도 1917년 여름까지 전략적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사실 영국 해군은 1914년부터 1917년 초까지 중세 범선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선박 보호 기술이었던 선단 호송은, 근대 증기선 시대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규모가 커진 호송선단이 오히려 하나의 좋은 표적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sup>360)</sup> 그러나 실제로는 선단 호송은 그 넓은 바다에서 표적을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비록 선단이 상당히 밀도 있는 표적이긴 했지만 바다라는 광활한 공간에서 아무리 큰 호송선단이라도 그것은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선단 호송이 실시되기 전보다 실시된 후에 U-보트는 훨씬 적은 수의 표적만을 발견하였다. 당시 영국 해군은 U-보트에 대항하기에는 장비가 빈약했다. U-보트도 선단의 출발과 항로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던 상태였다. 1917년에 와서 연합국은 수중청음기(水中聽音器, Hydrophones)와 폭뢰(Depth charge) 등의 대잠 탐지와 공격 장비를 개발하고 대잠전을 수행하였다. 또 연합국 측에서는 독일 U-보트의 대서양 진출을 봉쇄하기 위하여 도버 해협(Strait of Dover)에 기뢰원과 북해에 기뢰장벽을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기뢰원은 U-보트를 완전히 봉쇄할

---

358) 독일 해군이 운용한 잠수함. 독일어 Unterseeboot의 약자.

359) 연합국에 대한 독일의 통상파괴전은 전쟁 초기에는 주로 해외에 파견된 수상함으로 통상파괴전을 수행하였으나, 수상함(水上艦)들이 영국 해군에 의하여 차례로 격파 당하자, 잠수함(U-Boat)에 의한 통상파괴전에 주력하였다. 특히 유타란트 해전 이후 잠수함 공격을 강화하였다.

360) John Terraine, *Business in Great Waters: The U-Boat Wars, 1916~1846* (London: L대 Cooper, 1989). p.55

수는 없었으나, U-보트의 작전을 제한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60만 톤이나 되는 연합국 선박의 파괴라는 독일의 목표처럼 실제로 5개월간 침몰된 선박 톤수는 1917년 2월 464,599톤, 3월 507,001톤, 4월 834,569톤, 5월 549,987톤, 6월 631,895톤<sup>361)</sup>나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U-보트도 202척이나 희생되었다.

1917년 3월에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전선에서 이탈하였다. 그 후 동년 10월 러시아는 페테르부르크에 정착하고 있는 순양함 오로라 호에서 동궁에 발사한 함포공격의 신호로 불과 5시간 만에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다. 1917년 4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영국의 호화여객선 루시타니아 호가 격침되었을 때 많은 미국인이 희생되어 미국의 여론이 악화되었다. 급기야 중립을 지켜오던 미국은 이를 구실로 연합국에 가담하여 참전하게 되었다. 미국의 참전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였으며, 세계대전의 추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국병력과 전쟁물자가 북대서양에 도착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실시된 U-보트에 의한 통상파괴전과 해상봉쇄가 실패했음을 인식한 루덴도르프는 1917년 가을, 서부전선에서 ‘도박사의 마지막 승부수’라 이름 붙인 마지막 대공세를 시도하기 위하여, 동부전선에서 42개 사단을 뽑아 프랑스로 이동시켰다. 독일은 1918년 3월 21일 62개 강습사단으로 영국 원정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표적으로 삼아 춘계 대공세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최초에 대규모 영토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1918년 여름 및 가을까지 연합국 측은 능률적인 군사방식과 병력 및 물자에서의 우위를 통해 승리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었다.

---

361) John Terraine, *Business in Great Waters: The U-Boat Wars, 1916~1846*, (London: L대 Cooper, 1989), pp.85~92

1918년이 되자,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국들은 전선에서 물러났다.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이 일어나 독일 제국은 무너지고 신정부는 마침내 전쟁을 종결했다. 결국 전쟁은 무기와 식량의 대보급지인 미국이 연합군에 가담함으로써 승패가 결정되었다. 경제의 기반이 낮은 신흥 독일은 대규모 소모전에 의한 중압을 견딜 수 없었다.

한편 일본은 영일 동맹에 따라 1914년 8월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산둥 반도와 태평양 제도 등에서 독일의 권익을 빼앗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들였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대규모화하여 시민들까지 끌어들이는 총력 소모전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전투와 파괴가 행해졌다. 국가의 총력을 퍼부어 수행하는 전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였다. 전쟁의 서전인 마른 전투에서 탄약 소비량은 러일 전쟁의 전체 소비량에 필적할 정도였으며, 1916년의 베르됭 전투에서 3개월 동안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쏜 포탄이 2,700발이었고 양군의 사상자가 각각 50만 명이나 되었다. 특히 이 전투에서 독가스, 탱크, 비행기 등의 신무기가 등장하였다. 또 동원병력은 연합국이 4,835만 명, 동맹국이 2,516만 명이었으며, 전사자와 부상자는 각각 약1,000만 명과 2,000만 명, 직접 전비는 2,000억 달러에 달했다.

결국 총력전을 펼쳤던 유럽은 모두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반대로 방대한 군수품과 식량을 공급한 미국은 세계 제일의 채권국이 되었으며, 세계 강국으로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수천 년에 걸쳐 이룩한 인류문화유산이 파괴되는 엄청난 역기능이 발생했지만, 합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나폴레옹 시대만 해도 해군 함정은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바람의 힘으로 전진하는 정도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야금기술, 화학기술, 기계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함정은 새로운 변화를 이룩했다. 증기기관에 이어 증기터빈을 장착하여 바람

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또 스크루가 개발되어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강철 제조기술의 발달로 나무를 대신해 강철로 선체를 제작하여 방어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후장식 대포기술의 발달로 선체에 고정된 포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투 양상도 백병전에서 대구경 함포전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함포전에서 유리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함종이 나타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는 당시 세계를 ‘팍스 브리타니카’ 아래 두고 있던 영국의 힘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승리와 더불어 ‘팍스 브리타니카’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영국이 거대한 해군력을 가지고 세계의 해양을 지배하여 그 밑에서 세계 평화를 보증한다는 ‘세계’가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 경쟁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20년 전부터 영국의 해군력은 독일 해군의 추격과 도전을 받고 있었다. 해외 식민지를 통치하고 해상무역을 유지하는 것이 영국의 흥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한 영국의 노력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렬했다. 국가의 안위를 해군력에 의존했던 영국은 독일과 해군 함정 건조 경쟁을 벌이게 되자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2국(國) 표준주의(Two-Power Standard) 대신에 1국 2배주의(Two Keels to One Standard)를 채택하고 획기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였다.

여기서 잠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열강 해군은 자국의 함대건설에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전략을 채택하였는데,<sup>362)</sup>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

362) Mahan, Naval Administration and Warfare(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8), p.54

영국이 함대건설을 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채택한 2국 표준주의란 2개의 대양에 각기 강한 적의 함대를 갖게 되면 그 각각의 적보다 우세한 2개의 함대를 보유한다는 전략이다. 즉, 영국의 한 함대는 그 전투력에 있어서 영국 해군 다음인 제2위의 외국함대보다 우세해야 하며, 또 하나의 함대는 제3위의 외국함대보다 우세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00년대 초에 영국은 본국 해역에서 독일 함대보다 우세한 하나의 함대와 지중해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함대보다 우세한 하나의 함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63)</sup>

전통적으로 2국 표준주의를 채택해 왔던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앞서 독일과의 치열한 건함 경쟁과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하여 2국 표준주의에 의존하기에는 위험하고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1국 2배주의(Two-Keels-to-One Standard)<sup>364)</sup>의 채택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 영국은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함정에서 대독일 60% 우위를 추진하였다.<sup>365)</sup> 그런데 독일이 해군력을 여러 차례 보완하면서 영국의 해군력을 위협하게 되자 영국은 본토방위의 절박감 속에서 1912~1913년에 노급(弩級)전함에서 대독일 60% 우위를 유지하고 다른 모든 함정에서 대독일 2배 주의를 채택하였다.<sup>366)</sup>

한편으로 1900년대 초기에 미국은 1국(國) 표준주의(One-Power Standard)를 채택하였다. 1국 표준주의란 미국이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모두 강적을 갖게 된다면, 어느 한쪽의 적보다 우세한 함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67)</sup> 즉, 미국의 해군력은 어떠한 국가의 해군

363) Mahan, Naval Administration and Warfare(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8), pp.54~55

364) 가장 강력한 나라의 함대를 기준으로 그 나라 함대의 두 배수를 보유한다는 주의

365) Arther J. Marder, From The Dreadnought to Scapa Flow. Vol.I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p.183~184

366) Arther J. Marder, From The Dreadnought to Scapa Flow. Vol.I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283



력보다 열세해서는 안 되며,<sup>367)</sup> 2개의 해양에 각각 적을 가지면 함대를 분할하여 대응치 말고 강한 쪽의 적부터 격파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그리하여 열강해군은 각각 고유의 전투함대를 건설하였는데, 1914년 영국은 대함대(Grand Fleet), 독일은 대양 함대(High Sea Fleet) 그리고 일본은 연합 함대(Combined Fleet)를 건설하였다. 미국은 1907년에 전함 16척으로 대 백색 함대(Great White Fleet)를 편성하여 세계 일주를 실시함으로써 해군 강국이 되었음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영국은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대양 함대건설의 추이를 주시했다. 그리고 더욱 강한 함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다. 영국 해군력을 증강시키는데 공헌한 사람은 피셔(J. Fisher) 제독이었다. 그는 군함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노급 전함이라고 불리진 드레드노트(dreadnought) 호를 최초로 건조케 했으며 이전의 장갑 순양함을 도태시키고 신형 순양전함을 출현하게 했다.<sup>369)</sup> 그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수상기와 비행선 그리고 잠수함의 역할을 강조하는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1906년 영국은 처음으로 노급전함을 건조함으로써 그때까지 해전의 주력이었던 전함들을 일시에 2급전함으로 격하시켰으며, 전투진형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영국과 독일이 견함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된 영국의 노급전함(Dreadnought)과 인빈서블(Invincible)급의 전투순양함(Battle Cruiser)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러일 전쟁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까지 가장 획기적인 함정으로 받아들여졌다. 1905년 10월

367) Mahan, Armaments and Arbitration(New York : Kennikat Press, 1973), p.180

368) Mahan, Naval Administration and Warfare(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08), pp.54~55

369) James L. George, *History of Warships*, p.162.

과 1906년에 영국이 건조 진수한 노급전함은 모두 거포함으로 함 전체를 철갑으로 무장하고, 배수량 21,845톤, 7,500마력의 증기터빈추진 엔진을 장착하여 전함의 속력이라기보다는 순양함 속력에 가까운 21.5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었고, 무장은 명중률이 향상된 12인치 포 10문을 함수와 함미 포좌에 장비한 획기적인 전함으로, 그 이전의 구식 전함(Pre-Dreadnought)을 모두 2급전함으로 전락시켰다. 영국의 노급전함이 취역하자 서구 열강들은 군함건조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국이 노급전함과 함께 신형군함으로 취역시킨 것은 3척의 순양전함이었다. 1908년 영국에서 건조된 최초의 Invincible급 전투순양전함(Battle Cruiser)은 적 함대를 보호하는 경계 함정을 공격하는 함정으로, 배수량 17,250톤, 속도 26노트, 주포로 12인치 포 8문을 탑재하였다. 이 순양전함들은 재래식 순양함을 화포와 장갑으로 제압하고, 전함에 대해서는 속도로 제압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 영국 해군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순양전함 10척을 더 건조하고 있었다.

한편 독일은 1879년 이래 극단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여 공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의 대외교역량은 미국과 프랑스를 능가하게 되었고 상선 보유 척수도 1910년에 이르면서 영국 다음가는 규모가 되었다. 이후 20세기 초가 되면 영국을 능가할 만큼 공업대국이 되며 그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영국 상품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독일의 현상유지정책으로 그런대로 유럽의 세력 균형 유지는 성공하였지만, 비스마르크의 퇴진과 빌헬름 2세의 친정으로 영·독 간의 대립은 두드러지게 되었다. 빌헬름 2세는 ‘신항로 정책’을 추진해 해외식민지를 획득하려고 했다. 신항로 정책은 강력한 함대건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빌헬름 2세는 그동안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제해권, 식민지 지배, 세계시장의 확보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세계 정책의 목표로 삼았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마한(Alfred T. Mahan)의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 심취한 빌헬름 2세는 스스로 독일 해군 협회의 총재가 되어 해군력 건설에 앞장을 서게 되며, 티르피츠(Alfred von Tirpitz) 제독을 해군상(海軍相)에 기용하여 해군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하였다. 독일의 대양 함대건설의 주역인 티르피츠(A. Tirpitz) 제독은 1892년 독일 해군 최고사령부 참모장으로 발탁되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897년 해군장관을 거쳐 해군원수가 된 인물이다. 정치적 수완이 비상하고 행정역량이 뛰어난 티르피츠 제독은 해군력이 경제력 및 정치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sup>370)</sup> 어떤 강대국 함대와 경쟁하더라도 능히 당해낼 수 있는 강력한 대양 함대(High Sea Fleet)를 건설하여, 영국과 대등한 해군력을 갖고자 원하였다.<sup>371)</sup>

그리하여 독일은 1898년에 독일 해군법, 그리고 1900년에 제2차 해군법을 제정하고 영국과의 해군경쟁에 불을 댕겼던 것이다. 티르피츠는 1898년 신형 주력전함의 대량 건조를 내용으로 하는 해군조례(German Naval Bill)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냈으며, 2년 후인 1900년에는 1898년 계획의 2배가 넘는 해군 증강계획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후 양국은 치열한 건함경쟁을 벌이면서 대립하게 되었다.

그는 또 낡은 군함을 과감히 도태시키는 한편 신예함으로 대체(代替) 증강하는 조치를 1904년, 1906년 건함계획을 통해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는 1906년 5월 퇴직 압력을 받기도 했으나, 영국의 전력 증강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위험이론(Risk Theory)’의 일부분이라

---

370) Ivo Nikolai Lamvi, *The Navy and German Power Politics, 1862~1914*(Boston : Allen & Unwin 1984), p.139

371) Ivo Nikolai Lamvi, *The Navy and German Power Politics, 1862~1914*(Boston : Allen & Unwin, 1984), p.156

고 역설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였다. 1900년에 티르피츠가 발표한 위험이론의 요지는 영국이 비록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을 공격함에 있어서 재삼 위협을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독일이 강력한 함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sup>372)</sup>이었다.

영국과 독일의 해군 군비경쟁은 1908년과 1912년에도 계속되었다. 티르피츠는 영국 해군의 건함 동향을 살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신예 노급전함의 건조를 서둘렀고, 영국이 신형 순양전함을 개발하자 독일도 맞대응에 착수하여 1909년 최초의 폰 데르 탄(Von der Tann)으로 명명된 순양전함을 건조 완료했고, 1914년까지 순양전함 8척의 진수를 완료했다. 또 영국이 함포의 구경을 12인치에서 13.5인치, 15인치로 향상시키면, 독일도 곧바로 11인치에서 12인치, 그 이후 15인치로 향상된 함포를 장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4년 말까지 독일은 영국의 동급 전함에 비해 크기와 무장이 열세였다. 반면에 독일의 노급전함은 질적으로 영국 전함들이 갖추지 못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흡수선을 따라 설치된 그들의 장갑벨트(Armoured Belt)는 동시대의 영국 함정보다 1 내지 2인치가 더 두꺼웠고 빔(beam)은 더 넓게 제작되었다. 이로 인해 더 안정적인 포대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점은 속력과 타격력, 그리고 방어시설 면에서 노급전함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다. 반면에 영국의 전투순양함은 장갑시설은 부족했고 구형 전함들은 약한 장갑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격실 분할이 충분하지 못했다. 독일은 함정 내부에 영국의 노급전함보다 더욱 정교하게 수밀격실을 제작했다. 내부 수밀격실은 전투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독일 해군은 전투경험을 통하여 탄약고 피격 시 내부 침수로 인하여 침몰할 수 있다는 노급전함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실

---

372) Ivo Nikolai Lamwi, *The Navy and German Power Politics, 1862~1914*(Boston : Allen & Unwin, 1984), pp.143~147

제로 1912년 빙하와 충돌하여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 호는 모양만 방수선(防水船)이었고, 내부의 격벽이 주갑판(主甲板)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입된 물이 각 구역으로 이동하여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이 결함은 유틀란트 해전에서 영국 함정들이 엄청난 물질적, 인적 손실을 가져다 준 원인이 되었다.<sup>373)</sup>

티르피츠는 영국과의 건함경쟁(建艦競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해군력 강화를 대중 운동으로 이끌어 나갔다. 국민여론을 모으고 건함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해군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빌헬름 2세를 총재로 추대한 협회는 강대한 독일 대양 함대건설을 촉진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사교 그룹을 형성했다. 출세를 위해 사교계의 명사가 되려면 해군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야만 할 정도로 협회는 대중적이었다. 협회의 본부가 있는 키일(Kiel)에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생 바다와 군함을 구경하지 못한 내륙 지역의 대학교수와 초·중등 학교 교사를 초청했다. 그들을 군함에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며 각종 이벤트 사업을 펼쳤다. 다분히 전투적 기질이 농후한 독일 국민은 정부가 후원하는 대양 함대건설에 갈채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독일 국민에게는 안타깝게도, 해군력 건설을 위해 정부와 민간인의 후원, 조세와 차관으로 많은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함대를 능가하거나 동등한 위치까지는 끌어올릴 수 없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지속되었던 유럽의 평화가 깨졌던 1914년 7월에 영국 해군은 20척의 노급전함과 41척의 구형 노급전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2척의 노급전함과 1척의 전투순양함을 건조 중이었다. 반면에 독일의 대양 함대는 13척의 노급전함과 5척의 순양함 그

373) 독일 함정들은 도거뱅크 해전의 교훈으로 장갑의 두께를 8~11인치로 하여 피해를 감소하고 침몰을 줄일 수 있었다. 반면 영국 함정들은 포탄 명중 시 탄약고 폭발로 함정이 침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리고 22척의 구형 노급전함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7척의 노급전함과 3척의 순양함을 건조 중에 있었다. 새롭게 시작된 신형 전투함의 건조경쟁은 양국해군의 세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은 대략 7:4 정도로 영국이 우세하였다.

### 해군의 전략과 해전양상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독일이 해군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국은 독일 함대의 대서양 진출을 억제하고 독일의 해외통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졌던 반면, 독일은 발틱 해와 북해의 연안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기뢰, 잠수함, 항공기 등 현대적 무기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재래식 근접봉쇄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졌다.

영국은 제해권 확보로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적의 주변을 강습하여 적의 취약점을 탐지하며, 상륙돌격으로 적의 군사력을 약하게 만들고, 또한 적 세력을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로 유인하여 깨뜨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랑스 해군은 전 세계에 산재된 9개 함대를 도버(Dover), 지브롤터(Gibraltar), 수에즈(Suez), 희망봉(Cape of Good Hope), 싱가포르(Singapore) 등 주요 길목 중심의 5개 함대로 합병 축소하고, 본토 함대(Home Fleet)에 전 영국 해군력의 3분의 2를 집결시켜 가장 강력한 함대로 만든 후 북해에 배치, 독일의 대양 함대를 감시하며, 도전 시 격멸시키는 임무를 젤리코 제독에게 부여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영국 함대 사령관 젤리코 제독은 상반된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즉, 독일 함대를 격파해야 한다는 것과 대함대는 영국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태보다 차후의 큰 사태에 대비하여 세

력을 보존해야 한다는 임무였다. 그리하여 영국의 대함대 사령관 젤리코(Sir John Jellicoe) 제독은 과거 영국 해군의 전통과는 달리 ‘모험금지정책(No risk policy)’을 취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함대는 영국은 물론 연합국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유일의 요소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sup>374)</sup>했던 것이다.

한편, 독일의 대양 함대는 영국의 대함대에 비하여 8대 5로 열세하였기 때문에, 현존 함대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발트 해와 북해에서 해양통제권을 유지하고 독일의 북방 해역을 방호하는 한편, 잠수함을 이용한 통상파괴전을 수행하면서 지상전의 승리에 기대를 걸고 함대를 보존하여 강화협상을 유리하게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독일의 대양 함대 사령관 셰르(Reinhardt Scheer) 제독은 ‘함대 세력의 비율로 보아 우리 함대가 집중된 적을 찾아 결전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다. 집중된 우리 함대가 적의 주력함대에서 분리된 세력을 찾아 전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75)</sup>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양측 함대 사령관의 신중한 함대운용은 제1차 대전의 해전의 양상을 서로 상대방 전투부대의 일부를 유인하고 역유인하거나 또는 매복과 역 매복전전략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대양 함대는 영국 대함대의 한 부분을 포위하거나 기뢰를 부설해 놓은 해역 또는 U-보트가 진을 치고 있는 해역으로 유인하려 하였고, 영국의 대함대는 독일의 대양 함대로 하여금 전투에 나오도록 유인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전략은 최소한 1918년 1월까지 유지되었다.

독일과 영국이 맞붙은 순양함과 구축함부대의 전투에 전투순양함이 참가한 1914년 8월 28일의 헬리골랜드 바이트 해전(Battle of Heli-

---

374) Stevens, William O. and Allan Westcott. A History of Sea Power. NewYork : Doubleday & Co. 1942, p.349

375) Stevens, William O. and Allan Westcott. A History of Sea Power. NewYork : Doubleday & Co. 1942, p.352

goland Bight)과 1915년 1월 24일에 있었던 전투순양함부대의 도거뱅크 해전(Battle of Dogger Bank), 이어서 1916년 영국의 봉쇄를 풀고 발트 해와 북해의 제해권을 유지하기위해 영국의 대함대와 독일의 대양 함대가 총력을 투입하여 덴마크의 유틀란트 반도 근해에서 치열하게 버린 유틀란트 해전은 모두 유인과 역(逆) 유인, 또는 매복(埋伏)과 역(逆) 매복전의 결과로 나타난 해전이였다.

유틀란트 해전에서 독일 함대는 몇 차례의 위기를 간신히 극복하고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오히려 영국 대함대의 위세에 물려 그 이후에는 영국과의 충돌 의욕을 상실하였다. 독일은 유틀란트 해전 이후 잠수함 공격으로 전환, 통상과괴전을 강화하였는데, 1917년 2월에는 교전국이나 중립국의 선박을 불문하고 무차별 공격을 가한다는 무제한 잠수함전을 선언하였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전은 중립을 지켜오던 미국의 여론을 자극하였으며, 급기야 미국은 1917년 4월에 연합국에 가담하여 참전하게 되었다. 미국의 참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추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반면에 영국 함대는 상대적으로 전투 손실이 많았지만, 유틀란트 해전에서 전략적 승리를 거두어 더욱 대륙봉쇄를 강화할 수 있었고 독일을 패배의 길로 몰고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틀란트 해전 이후에 독일 함대의 주력함들이 해상에서의 결전을 회피함으로써, 영국은 독일의 해양력을 북해와 발트 해에 가두어 놓고, 대륙봉쇄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대륙봉쇄는 지상전 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되었다.

여기서는 1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되었던 유틀란트 이전의 해전과 유틀란트 해전을 살펴보기로 하자.



## 2. 유틀란트 이전의 해전

### 헬리골랜드 바이트 해전(Battle of Heligoland Bight)

독일 해군은 영국의 대함대가 전쟁 발발 시 결정적인 함대 결전을 시도하기 위해 출항할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 영국 함대는 그러한 전투를 위한 물리적 준비를 확실히 했다. 즉, 사라예보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군사동원을 실시했고 스피트헤드(Spithead)에서 출정식을 준비했다. 위기가 더욱 고조되자, 영국은 노급전함 24척, 구형 노급전함 35척, 소형 함정 123척을 대비시켜 출항준비를 완료했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전장에 최신전함과 전투순양함을 배치했다.

헬리골랜드 바이트 해전은 북해에서의 해전 후 최초 수상전으로 매복과 대매복전으로 전개되었다. 독일 해군은 매일 오후 북해 쪽 독일 연안 출구에 있는 헬리골랜드 바이트 근해로 야간 경비 차 출동하는 구축함들을 경순양함들이 호송하고 다음날 새벽에 헬리골랜드 북서쪽 20마일 지점에서 상봉하여 모함으로 인솔하는 규칙적인 행동을 해왔다. 이를 알아챈 영국 잠수함 사령관 케이(Roger Keyes) 준장은 폰 잉게놀(von Ingenohl) 항구에서 정기적으로 정찰중인 구축함 한 척을 기습하기 위해 헬리골랜드 바이트로 출격할 기회를 달라고 해군성에 요청했다.

케이스 제독의 계획은 자신의 잠수함을 미끼로 하여 독일 함정을 헬리골랜드 서쪽 해역으로 유인할 때, 북쪽 해상에 매복 중이던 강력한 순양함이 전격적으로 휩쓸고 내려와 후방을 차단함으로써 적함을 격멸시키자는 계획이었다. 케이스 제독의 계획은 해군성에서 받아들여졌으며, 1914년 8월 28일 작전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영국 측의 참가전력은 유인 세력으로 케이스 제독이 지휘하는 잠수함, 지원 세력으로 트라이비트(Richard Trywhitt) 준장이 지휘하는 2척의 경순양함과 33척의 구축함, 증강 세력으로 해군성에서 급파한

굳이나프(William R. Goodenough) 준장이 지휘하는 경순양함 6척과 비티(Sir David Beatty) 중장이 지휘하는 전투순양함 5척 등 4개의 부대로 편성하였다.

독일 측도 케이스 제독의 계획을 눈치 채고는 대 매복계획을 세워 대비하였다. 독일 해군은 구축함 19척과 경순양함 2척으로 유인하고, 동쪽과 남쪽 방향의 육지 쪽에 매복 세력으로 경순양함 4척을 배치하였으며, 50마일 떨어진 주다(Jade)에는 전투순양함이 지원 세력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1914년 8월 28일 새벽 영국 잠수함 3척이 헬리골랜드 서쪽에서 부상하여 미끼로서의 행동을 하였다. 이때 독일 구축함 마인츠(Mainz) 함이 식별확인 차 나왔을 때 북쪽에 매복하고 있던 트라이비트 제독의 함정들이 휩쓸고 내려와 독일 구축함을 추격하였다. 그러자 헬리골랜드 뒤쪽에서 독일 경순양함 2척이 급히 돌진하여 왔다. 이에 대응한 영국 함정들은 독일 순양함 한 척을 공격하여 대파시켜 도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쪽으로 유인한 독일 구축함 마인츠 함도 화염에 쌓여 감속하도록 만들었다. 그러자 구축함을 구조하기 위하여 매복해 있던 독일의 순양함 4척이 달려와서 굳이나프 전대와 교전이 벌어졌다. 케이스 제독은 자신을 호위 중이던 비티의 전투순양함 3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투에 가세한 비티 제독의 전투순양함 3척은 폭발적인 장거리일제 사격으로 3척의 독일 순양함을 격침시켰다. 생존한 독일 순양함은 심하게 난타당하여 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전장으로 출동한 독일의 전투순양함에 이끌려 주다 만으로 돌아 갈수 있었다. 그 후 케이스 제독은 침몰하는 독일 구축함 마인츠(Mainz) 함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독일 대양 함대의 ‘영웅적인 희생’을 보게 된다. 이 장엄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부상자를 열성적으로 이동하던 한 젊은 독일 장교가 함미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인츠 함이 전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케이스는 ‘젊

은 장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하고 생각하면서, “너는 훌륭한 일을 수행했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빨리 배에 뛰어 오르라.”라고 소리 쳤다. 그리고 케이스는 그의 손을 잡아 도와주려 했지만 청년은 힘이 아직 침몰하지 않았는데 힘을 버리는 것과 케이스의 호의를 수치스럽게 생각 했다. 그는 똑바로 서서 경례를 하고는 “고맙지만 됐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독일인 젊은 장교는 결국 해상으로 추락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최초의 수상전에서 영국은 독일 경순양함 3척과 구축함 1척을 격침시켰으며, 700명의 전사자와 포로 400여 명의 전과를 얻었다. 한편, 영국 측은 경미한 함정 손상과 35명의 인원 손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독일 카이저 황제는 패전의 소식에 충격을 받고 이후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코로넬 해전과 포클랜드 해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전부터 독일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일본은 영·일 동맹을 근거로 하여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캐롤라인, 마샬, 마리아나 군도 등을 관장하는 독일의 태평양 전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위협을 받은 독일 태평양 함대 사령관 스페(Graf von Spee) 제독은 장갑순양함 2척 등 5척의 순양함을 인솔하여 남미 대륙 서해안을 회항하면서 통상과괴전을 수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한편 남대서양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 순양전대 사령관 크레독(Sir Christopher Cradock) 소장은 순양함 4척, 구식 전함 1척 등 5척의 예하 함정들을 인솔하여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진입하여 북쪽 진로를 취하면서 독일의 스페 전대를 탐색하고 있었다.

10월말 경 칠레 외항에 도착한 스페 제독은 이미 영국 순양함전대가 남미 대륙 서부 해안에 도착하여 작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

다. 영국 함정과 결전을 결심한 스페 제독은 이 해역에 독일 함정이 1척만 활동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방어순양함 Leipzig 함의 무선 침묵을 해제하였다.

주포의 열세를 우려한 영국 해군성에서는 크레독 제독에게 속력이 느린 구식 전함 Canopus가 빠진 상태에서는 교전하지 말 것을 경고 하였으나 크레독 제독은 독일 순양함 Leipzig에서 발신하는 위장전파를 따라 빠른 속도로 복상하였다.

1914년 11월1일 아침 독일 상선이 스페 제독에게 영국 경순양함 Glasgow가 남쪽에 있는 코로넬 외해에 투묘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다. 스페 제독은 그 해역으로 급히 항진 하였고, 같은 시각 영국 크레독 제독도 복상하고 있었다. 저녁놀이 질 무렵, 상호거리가 11,370야드에서 스페 제독은 사격개시를 명령하였다. 사격을 개시한지 5분 이내에 우수한 독일의 함포 요원들은 크레독 제독의 기함인 Good Hope의 전부 포대와 조함실에 30발의 포탄을 명중시켰고, 크레독 제독의 기함은 탄약고가 폭발하여 최후를 맞이했다. 그 외에 장갑순양함 1척도 선체에 맹렬한 화재가 발생하여 전열에서 이탈하였다가 21시경에 격침되었다. 이러한 사이에 경순양함 1척과 보조 순양함은 서쪽으로 도주하였다. 결국 영국은 장갑순양함 2척이 격침되었으며, 독일은 포탄 6발을 맞았으나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그러자 처칠과 10월 29일 해군장관으로 복귀한 피셔 제독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스테디 제독의 본토 함대 소속 2척의 전투순양함 인빈시블 호와 인플렉시블 호를 포클랜드 해역으로 급파하였다. 스테디 제독은 12월 7일 포클랜드에 도착하였으며, 이미 현지에 집결한 6척의 순양함과 합류하였다.

1914년 12월 8일 독일의 전대사령관 스페 제독은 경솔하게도 영국의 순양함들이 석탄을 적재하기 위하여 정박하고 있는 포클랜드 섬

에 접근하였다. 스페 제독은 순양함 2척을 포클랜드 스텐리 항으로 접근시켜 항내를 정찰하고 함포사격으로 무선 전신국을 파괴하고 영국 총독을 체포하여 석탄을 탈취할 의도였다. 그러나 07시 50분경 무선 전신국 신호탑에서 2척의 독일 순양함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스테디에게 보고 하였으나, 즉각 출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관부에서는 증기압을 올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09시 20분경 독일 순양함이 항구 입구로 접근하여 영국 전투순양함의 삼각 마스트와 비상경보 등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황급히 침로를 바꾸어 15마일 떨어진 기함위치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뒤를 따라 출항한 영국의 순양함들은 우세한 속력으로 거리를 좁혀 우왕좌왕하고 있는 독일 함정들에게 중형 포탄으로 일제사격을 실시했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스페 제독은 그의 예하 소형 순양함 3척을 도망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력함을 희생하기로 하고 분산 도주를 지시하였다. 17시 30분경 수많은 포탄을 맞은 장갑순양함 그나이제나우(Gneisenau)의 속력이 5노트로 떨어지자 함장은 자침용(自沈用) 해수변을 열 것을 명령하고 스스로 침몰하고 말았다. 그 외에 도주하는 독일 경순양함 3척도 영국 순양함에 의해서 격침되었고, 도주에 성공한 드레스덴(Dresden) 호도 4개월 후에 영국 순양함 글래스고(Glasgow)에 발견되어 격침되었다. 이 해전을 통하여 영국 해군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일제사격을 가하여 함정 5척 중 4척을 격침시켰고, 가벼운 전투 손상밖에 입지 않았다. 반면 독일 해군은 거의 모든 함정이 격침당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영국 해군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독일 장병은 그들의 함정과 함께 ‘영웅적 희생’의 모습을 보이면서 남대서양 속으로 장엄하게 침몰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이 포클랜드 해전에서 명쾌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북해의 봉쇄선 외곽에서 활동하던 중요한 독일 해군의 수상 세력은 제거되었다.

### 도거뱅크 해전(Dogger Bank Action)

코로넬과 포클랜드에서 해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해에서는 영국과 독일 해군은 기습과 매복, 대 매복전이 반복되고 있었다. 헬리골랜드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 영국 해군은 9월부터 12월까지 북해에서 독일 해군의 활약으로 구형 순양함 3척, 최신형 노급전함 2척이 기뢰와 U-보트에 의해서 치욕적이고 값비싼 함정 손실을 당함으로써 물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독일 해군은 약자의 위치에서도 훌륭하게 책임을 다 했다. 특히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무장한 독일 해군은 1914년 겨울 영국의 동해안 요크셔 해안 도시들에게 두 번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인원 사살 100명, 부상 500명의 전과를 올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신력을 증명하였다.

독일 함대의 기습작전이 계속되자, 영국 해군은 다음해 1월, 정보에 따라 비티 제독의 전투순양함들이 출항하여 헬리골랜드 마이트 서쪽을 탐색하였는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대신 도거뱅크로 알려진 북해의 천수심 해역에서 독일의 기습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영국은 독일의 기습을 저지할 수 있는 3개의 암호서를 획득하였는데, 하나는 태평양에서 독일 화물선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상선과 소형함, 제펠린(Zeppelin) 비행선, U-보트 등에 사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해의 난파선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외교용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발트 해에서 잠수사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침몰한 독일 경순양함이 수중에 투하한 암호서와 북해의 군사좌표가 선명하게 기재된 해도를, 잠수사가 인양하여 영국에 넘겨준 것이었다. 프랑스 해군은 독일 측이 암호문서의 변경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로 독일 대양 함대의 작전에 관한 유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 해군 제독들은 수수께끼 같은 암호 시

스탐이 영국 해군에 의해 이미 간파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선소의 스파이나 도거뱅크(Dogger Bank)의<sup>376)</sup> 출구에 있는 중립국의 낚시 배가 영국의 비밀 스파이 선박이었을 것이라는 보다 일반적이며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었다.

1915년 1월 23일 독일의 잉게놀 제독은 독일 제1호위함대 지휘관인 히페르(Franz Hipper) 소장에게 출항을 지시하였다. 히페르의 주 세력은 3척의 전투순양함과 1척의 장갑순양함이며, 6척의 경순양함과 1개 분대의 구축함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질 임무는 첫째, 도거뱅크에서 영국 정찰함정을 기습해 소탕하는 것이고, 둘째, 로이스에 위치한 영국순양함 기지 접근 수로인 포스(Forth) 하구(河口)에 기뢰를 부설하여 영국 함정에 타격을 가하고 첩보활동을 방지함으로써 실리를 취하는 것이었다.

1월 23일 오후 암호가 해독되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한 독일의 히페르 부대가 주다 만을 출항한지 15분 후에 영국의 비티 제독은 예하 5척의 전투순양함과 경순양함분대 및 구축함분대를 지휘하여 포스 항(港)을 출항하였다. 독일의 암호를 해독한 영국은 히페르보다 속력과 무장면에서도 우세한 전투순양함 5척을 사전에 증강 배치하였고, 3척의 경순양함과 35척의 구축함의 지원을 받았으며, 스코틀랜드에서 온 구형 노급전함과 순양함들은 원거리를 담당하게 되어 영국의 대함대는 이미 최후 결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티의 순양함들은 1월 24일 아침 일찍 히페르를 발견하였고 이를 차단하였다. 히페르는 즉시 기수를 돌려 모항으로 회항하려고 했지만, 영국의 전투순양함들은 우수한 속력으로 히페르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약 2만 야드의 전례 없는 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하여 명중시켰다.

얼마 후 비티 제독의 잘못된 전투지시로 독일 함대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티 제독의 ‘각 함은 상대 번호 함과 교전할 것

---

376) 영국과 덴마크 사이에 있는 세계적인 어장.

(Engage your opposite number)’이라는 명령에 따라 영국 전투순양함들은 표적을 변경하였다. 4척의 독일 함정에 5척의 영국 함정이 교전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명령은 약간의 혼돈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의 2번 함인 몰트케(Moltke)는 영국 함정의 포탄에 맞지 않게 되었다. 사실 이 명령은 독일 함대의 선두에 위치한 쉬들리쓰 함과 두 번째 함인 몰트케 함에 화력을 집중하라는 명령이었다. 결국 속력이 느리면서 독일 전열의 제일 후미에 위치하여 영국의 포화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블룬서(Bluncher) 함은 포탄을 맞고 화재가 발생하여 진형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독일의 순양함들은 전포를 영국의 기함인 라이온(Lion)에 집중시켰다. 비티가 승함하고 있는 라이온 함은 여러 차례의 명중탄에 속력이 떨어지고 심하게 파손되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함정 수는 4대 4로 동일해졌다.

이렇게 되자 비티 제독은 뉴질랜드 함에 승조하고 있는 무어(Moore) 소장에게 지휘권을 인계하면서 ‘적 후미를 공격하라(Attack the enemy rear)’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티의 의도는 적에 대한 총공격을 하라는 신호였는데, 그러나 무어 소장은 이 지시를 독일의 최후방에 있는 블룬서 함을 총공격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전 세력을 이끌고 이미 불타고 있는 블룬서 함에 포격을 집중시켰다. 블룬서 함은 완전히 연기로 뒤덮여지고 화재와 폭발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대응 사격을 했다. 12시경 블룬서 함은 전복되어 침몰하였다. 생존자는 1,200명 중 234명뿐이었다. 남아 있던 히페르의 전투순양함 3척은 많은 손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었다. 무어 제독은 라이온 함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블룬서 함이 침몰하였기 때문에 히페르 함대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영국은 대승의 결정적인 호기를 놓쳤다.

독일 황제는 도거뱅크 해전의 결과에 진노하여 즉석에서 잉게놀 제



독을 해임시키고 신중론을 건의하는 폴(Hugo von Pohl) 제독을 후임에 임명하였다. 또 지상전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독일의 대양 함대의 세력을 유지하려던 계획도 금지시켰다. 대신 무제한 통상과괴전을 위해 잠수함 세력 증강에 집중하게 하였다. 일 년이 넘게 독일 함대는 북부 독일항(港)에서 움직이지 않는 정책을 폈다. 간간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발트 해에 나가는 했지만 영국 해군과 맞서는 위협은 초래하지 않았다. 1916년 3월 5일까지 증강된 모습의 독일 함대는 북해에 나타나지 않았다.

### 3. 영국 대함대와 독일 대양 함대의 격돌

#### - 유틀란트 해전(Battle of Jutland)

##### 해전의 배경

유틀란트 해전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영국의 대함대(Grand Fleet)와 독일의 대양 함대(High Sea Fleet)가 총력을 투입하여 맞대결 한 최대 규모의 해상격돌이었다. 이 격전은 1916년 5월 31일 오후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에 끝났다. 격전이 벌어진 해역이 덴마크의 유틀란트 반도의 서쪽 해상이었으므로 유틀란트 해전이라고 부른다.

제1차 대전은 주로 지금의 폴란드와 러시아 서부인 플랑드르와 프랑스 북부에서 참호전을 전개하는 육전으로 치러졌지만, 바다에서의 영국 해군도 북해와 발트 해에 이르는 대륙봉쇄와 연합국의 지원을 시행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다. 즉,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참전한 영국 함대는 비록 독일의 잠수함과 기뢰공격에 고전하였지만, 독일 대양 함대도 대부분 항구에 봉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영국과 독일 양측의 해전은 상대방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북해에서 소규모 해전을 치르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유인과 역유인 그리

고 매복전과 대 매복전으로 치러진 헬리골랜드 바이트 해전과 도거뱅크 해전에서 패한 독일은, 일 년이 넘게, 함대의 지휘권이 잉게놀(Ingenohl)에서 폴(Pohl)로, 폴에서 쉘르로 바뀌는 동안, 북부 독일 항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1916년 1월 건강이 나빠 퇴임한 폴 제독의 후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쉘르(Reinhardt Scheer) 중장이 독일의 대양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쉘르는 1916년 5월 한 달 동안 적의 전함과 순양함을 잠수함에 의해 기뢰 부설 구역으로 유인하여 아군의 희생을 감소시키면서 적의 주력함과 전위 함정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작전계획의 요지는 ‘첫째, 함정수를 영국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국 함대를 기습 공격한다. 둘째, 영국 본토의 해군기지와 도버 해협 일대에 기뢰를 부설하여 영국 함정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키고 집중된 함대를 분리시켜 유인 차단 섬멸한다’라는 것이었다.

쉘르는 이 대담한 작전계획의 성공과 상대방의 실수가 있다면 북해의 제해권 장악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은 불리해지는 전쟁 국면을 호전시키고 영국의 해상 봉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전 수상함을 유틀란트 지역에 집결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함대를 이용한 결정적인 전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1916년 5월 31일 이른 아침 영국의 피해보다 자신들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히페르 전대에 출항 명령을 시달하게 된다.

한편 영국의 젤리코 제독은 분리된 세력 간의 교전보다는 함대 간의 결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젤리코는 함정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주간 함포 교전으로 적을 격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1916년 5월 31일 새벽 독일의 대양 함대는 노르웨이 기습전을 위해 주다 만을 출항했다. 항만을 빠져나온 선두부대는 히페르(Hipp.er) 제

독이 지휘하는 전투순양함 5척이 단종진을 형성하고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전방에는 경순양함과 구축함이 호를 만들며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히페르가 외해로 나와 북쪽으로 침로를 유지했을 때, 웨르가 직접 지휘하는 대양 함대 주력부대가 뒤 따랐다. 주력부대는 16척의 노급전함과 6척의 구식 전함이 단종진을 형성하고 경순양함과 구축함이 경계진을 형성하며 정찰하는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영국의 대양 함대는 이미 기지를 출항해 외해에 있었다. 영국 해군은 무선 정보와 암호 해독으로 독일 함대의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31일 젤리코 제독이 지휘하는 주력부대는 노르웨이 해안에서 90마일 떨어진 곳에 나가 있었다. 이 주력부대는 노급전함 24척으로 횡렬진 6개를 형성하고 있었고 경순양함과 구축함들이 전방 정탐 위치에 포진해 있었다.

개전 초기에는 양측이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전투에 참가한 양측 함대 세력은 <표 3>과 같다.

양국 함대의 참가 세력을 전력 면에서 간단히 비교해 보면 노급전함과 전투순양함에 있어서 37대21로 영국 측이 주력함의 우세를 보인다. 또 화력에 있어서도 구경 12에서 15인치 주포 344문을 비치한 영국 측이 독일 측의 구경 11에서 12인치 주포 244문에 대하여 월등히 강력하였다.

<표 3> 전투에 참전한 영국과 독일의 함대 세력

함 형	영 국	독 일
<주력 함대>	Jellico	Scheer
노급전함	24	16
구식 전함	0	6
전투순양함	3	0
장갑순양함	8	0

경순양함	12	6
구축함	52	31
<정찰부대>	Beatty	Hipper
노급전함	4	0
전투순양함	6	5
경순양함	14	5
구축함	27	30
총 계	150	99

### 해전의 경과

해군 역사가들은 통상적으로 유틀란트 해전을 남쪽으로 향하던 영국 함대와 북쪽으로 향하던 독일 함대 간의 교전단계를 기준으로 전투순양함 교전단계(Battle of Cruiser Action), 북쪽으로 도주하는 단계(Run to the North), 두 차례에 걸친 주력함 교전단계(Main Fleet Action), 다수의 경함정 간 충돌을 포함한 야간 교전단계(The Night Action)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의 히페르 전투순양함들은 1516년 5월 31일 아침 북해항을 출항했으며, 웨르 전함들도 2시 30분 출항했다. 주력함대는 8척의 노급전함을 보유한 2개의 전투전대와 5척의 전투순양함으로 구성된 제1정찰전대로 구성되었다. 노급전함 전대의 가장 빠른 속력은 가장 느린 함인 포센(Posen), 라인랜드(Rheinland), 나소(Nassau), 웨스트폴렌(Westfalen)의 속력에 맞춰진 20노트였으나,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포함한 제2전대 소속 6척의 구형 노급전함 때문에 18노트로 더 감소되었다. 반면 제1차 정찰대는 최고 속력이 26노트였으며, 적 함대 정찰 및 주력함대가 나타나면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웨르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함정 수와 무기의 약점이 전쟁의 승패에 작용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결전은 계획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

국 기지 근해에 U-보트를 전개시켜 대함대를 공격하고, 주력부대로부터 분리된 전대에 대해서도 공격을 실시하여 좀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했다.

독일의 대양 함대는 발트 해 입구를 향해 북쪽으로 항해했으며 그들의 출격소식이 남쪽에 집결해 있던 영국의 대함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출격소식은 웨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영국의 대함대에게 전달되었다. 영국 해군은 U-보트가 출항했을 때 독일 해군의 암호 불안정으로 5월 16일이 되어서야 독일 함대의 출항의도를 간파했다. 특히 5월 30일 독일 대양 함대의 집결 명령 암호를 영국이 해독함으로써 독일 함대가 출항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영국의 젤리코 제독은 탐색 작전계획을 공격 작전명령으로 전환했다. 독일의 히페르가 슈트 항을 떠나기 2시간 전에 영국의 전투순양함대는 스카파 플로어를 떠나 독일의 대양 함대를 접촉하기 위해 유틀란트 서쪽 해역 근해로 향했다. 비티의 순양함대는 당시 가장 속력이 빨랐던 라이온, 타이거, 프린세스 로얄, 뉴질랜드, 퀸 메리, 인디패티커블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속전함 바함(Barham), 벨리언트(Valliant), 워스피트(Warshipite) 그리고 말라야(Malaya)를 보유한 제5전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퀸 메리는 15인치 포의 중무장과 25노트의 속력을 보유하고 있어 독일 함대에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퀸 메리는 다른 전함보다 우수했으며, 고속 전투순양함과 거의 동일한 속도를 내고 있었으며, 항공기를 보유함으로써 더욱 안전했다.

#### 전투순양함 교전단계(Battle of Cruiser Action)

젤리코의 전함이 그랬듯이 전투순양함대는 독일 웨르 함대의 U-보트 정찰대에 발견되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으며 대양 함대 출항에 관한 많은 획득된 정보는 그들에게 안정성을 확보해 주었다. 그러나 영

국 해군은 정보 당국에서 전달해 준 암호 해독 전보를 잘못 이해하였다. 젤리코 제독은 독일 대양 함대가 출항한 지 9시간이 경과했지만 독일 해군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영국의 비티와 독일 히페르의 전투순양함대는 상호 접근에 관한 정보 없이 충돌 침로로 접근하고 있었다.

5월 31일 오후 2시 양측은 스카게라크(Skagerrak)의 남쪽 90마일 지점에서 50마일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양국의 소형 함선들은 멀리 보이는 상대방 함정을 중립국 상선으로 생각하고 탐색단계로 전환했다. 탐색결과 ‘중립국 상선이 아니다. 적의 순양함 2척이다’라는 전보를 영국 갈라티(Galatea) 함에서 발신하자, 영국의 순양함 세력은 침로를 변경하여 독일 순양함 쪽으로 향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는 통신 수단이 기류뿐이었으나 유타란트 해전에는 무선통신이 추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비티의 고속 전함은 독일 함대 방향으로 전진하라는 신호를 간파하지 못했고 젤리코 함대와 상봉하기로 되어 있는 북쪽 방향으로 향진하는 데 골몰했다. 그 결과 비티의 장갑순양함들은 독일 히페르 함정 방향으로 유인되는 결과가 되었다. 오후 3시 45분 비티 함대는 젤리코 함대의 지원 없이 독일 함대와 결전하게 되었다.

영국 비티 함대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히페르는 그의 함대 후방 40마일에서 따라오고 있는 웨르 함대에게 ‘우리 함대 후방에 근접하여 대기하십시오’라는 전보를 보냈다. 히페르는 몇 분 후 ‘사격준비’ 신호를 했다. 독일의 전투순양함들은 탄착지점을 관측하고 수정하여 포격을 실시할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영국 비티 함대의 거리 측정관은 양 진영 간의 거리를 과대 계산했고<sup>377)</sup>, 주력 함정을 지휘하고 있는 젤리코 사령관에게 사격 여

---

377) 바다에서 거리측정은 독일이 더 우수했다. 그것은 독일의 광학장치 기술이 더 우수했기 때문이다.

부를 묻는 무선송신을 발송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응답이 없었다. 영국 함대가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독일 함대에서 포격이 가해졌다. 비티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사격 명령을 하달했다. 독일이 함포 사격을 실시한 지 5분 후의 일이었다.

독일의 선제공격을 받은 영국 함정들이 응사를 시작했지만 오후 4시 영국의 전투순양함 라이언은 독일의 포격에 포탑이 명중되었고 탄약고가 폭발하여 심한 손상을 입었다. 라이언 함에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자 비티는 라이언 함을 전투진형에서 제외시켜 화재를 진압하도록 했다. 그러나 라이언은 이미 전투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러는 사이 독일의 순양함 폰-데르-탄과 영국의 순양함 인디패티커블 간에 포격이 교환되었다. 독일 함에서 발사한 포탄이 영국의 순양함 인디패티커블의 중갑판을 관통했고, 또 다른 포탄이 포대를 명중시켰다. 중갑판을 관통한 폭탄이 내부폭발을 일으키자 인디패티커블은 곧바로 침몰하였다.

이제 함정 척수는 양국 간 동일해졌다. 비티는 그의 소형 함정들에게 전투진형의 거리를 15,000야드로 넓히라고 명령했다. 독일 전투순양함 부포와 교전했던 경순양함 및 구축함들은 히페르의 중형 함정 세력에게 어뢰공격을 시도했다. 당시 어뢰공격은 전세가 불리할 때 시간을 벌고 주력함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전개하는 전투방법의 하나였다. 독일 측에서도 구축함 15척이 달려 나와 구축함끼리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독일의 함정들도 영국 함정을 향해 12인치 포로 일제사격을 가해왔다. 그 공격에 퀸 메리가 명중되어 두 번에 걸친 내부 폭발을 일으킨 후 침몰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비티 함대의 월등한 화력이 독일 히페르 함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잘 조준된 일제사격은 매 20초 간격으로 발사되었고 일부는 독일 함정을 명중시켰다. 영국 측은 독일의 제1정찰 함대를 파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도주단계(Run to the North),

오후 4시 30분경 비티는 전방에서 정찰활동을 하던 경순양함으로부터 ‘적 함대 발견, 방위 동남쪽, 침로 북쪽’이라는 전보를 수신했다. 영국의 포격전에 밀리기 시작한 독일 함정들은 석탄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엔진을 높여 전속으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것은 전투순양함 쉬들리쓰가 영국의 포격으로 침몰했기 때문이었다.

독일 해군은 비록 북쪽으로 퇴각하고 있었지만 남쪽으로 향할 때 영국 함대로부터 받았던 만큼의 손실을 되갚으려 했다. 히페르 부대는 웨르 부대의 전방에서 다시 변침하여 이반 토마스의 전함을 포격하고자 접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위치에서 이반 토마스의 함정들은 히페르의 전투순양함과 웨르의 전함으로부터 포격을 받게 되었다. 통신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통보받은 켈리코 부대는 비티와 상봉하기 위하여 달려갔다. 17시 42분 켈리코의 정찰순양함이 정면에서 영국 전투순양함을 발견했다고 보고해 왔다.

양 함대 간의 예 비교전이 있었던 18시경 양 전투함대는 상호 사정거리 내로 진입했고, 순양함과 경순양함으로 구성된 경계진 간의 교전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독일은 영국 전투순양함의 공격에 치명적인 피해를 당했으며, 세 척의 순양함 즉 위즈바덴(Wiesbaden), 필라우(Pillau),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이 손상되었다.

영국의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영국 구축함 차르크가 침몰되고, 유틀란트 해전의 영웅 잭 콘웰(Jack Cornewell)이 순양함 체스터에서 전사했으며 장갑순양함 워리어와 디펜스가 포탄을 맞고 나파되었다.

주력함 교전단계(Main Fleet Action)

켈리코는 독일 대양 함대가 스카게라크(Skagerrak) 해협으로 도망쳐 킬(Kiel) 운하를 통해 기지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예하 28척의 전함을 단종렬진으로 형성하여 웨르 함대의 전방에 벽처럼 전개



할 계획을 세웠다.

18시 1분 켈리코 사령관은 예하 함정들에게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오른쪽에 있는 독일 함대와 평행하도록 종렬진을 형성하라고 명령했다. 6개의 종렬진이 약 15분간 지속되었다. 종렬진 형성은 켈리코 시야를 벗어나 형성되었는데, 그러한 영국의 함 행동을 독일 함대가 보고 있었다. 구름과 안개가 영국 함대를 은폐시켜 주었지만, 전대에서 분리되어 항해하던 세 척의 독일 전투순양함들이 갑자기 나타나 영국 함정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향도함(嚮導艦)인 인빈시블에게 사격이 집중되었고 포탄은 계속 명중되었다. 18시 33분 인빈시블은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침몰되었다.

켈리코는 주간 중에 정확도가 높은 포를 사용하여 트라팔가르 해전에서처럼 적을 차단하고 전멸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북해의 안개 낀 상태에서 켈리코는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왔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격의 적기를 놓쳤다. 뒤늦게 켈리코는 사격을 개시했다. 아마도 켈리코는 영국 선두함정의 포 사정거리가 약 12,000야드였고, 전통적인 전술에 따라 독일 진형에 'T'자로 가로 지르면서 포격을 가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뒤늦게 사격을 개시한 켈리코의 전함들은 웨르의 선두 전함 쾨닉 호 등 2척에게 각각 2발의 포탄을 명중시켰다. 공격과 응사의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영국 측의 관측자들은 적함들이 명중되어 침몰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상호 교전 속에 독일 전함과 전투순양함은 전체 22발이 명중되었으나 침몰된 함정은 없었다. 반면 독일은 영국의 제5전대 함정에 33발을 명중시켰다. 하지만 켈리코의 진형은 그때까지 적을 접촉하지 못했다. 이후 켈리코는 전속력으로 항해를 실시하여 거리를 좁힘으로써 독일 함대와 그들의 모기지 사이로 진입하여 웨르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10분 후 켈리코와 교전이 이루어지자, 위협을 직감한 웨르는 18시 35분 사전에 연습된 '전투회전(battle turn, 일제회전)'을 실시하여 교전 반대방향으로 변침

하였다.

독일 함대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포화가 멈춘 상태에서 영국의 전열 함은 함께 변침하여 추적을 했어야 하며, 우세한 화력으로 재빨리 전투를 끝내어야 했다. 그러나 켈리코는 우발사태에 대하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적의 뒤를 쫓아가지 않았다. 켈리코는 웨르가 남쪽으로 변침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위험구역을 벗어나기 위해 영국 해안 방향인 서쪽으로 변침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얼마 동안 동남쪽으로 항로를 취하다가 남쪽으로 변침하여 웨르 함대가 기지인 슈다 만으로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웨르는 18시 45분부터 18시 55분까지 실제로 서쪽으로 항해를 했으나, 영국 함대의 후미방향을 가로질러 회피하기로 결심하고 18시 55분에 역침로인 전투회전을 실시하여 침로를 동쪽으로 취하였다. 그의 의도는 유틀란트 해안에 도달한 후 독일 영해 내 모항으로 가는 뒤편에 기뢰를 부설하여 영국 함대의 접근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시간상으로 너무 빨랐다. 웨르는 영국 함대의 전진 속력을 잘못 판단하여 영국 함대의 후미를 가로지르려 했으나 곧바로 양국 함대가 만나게 되었다. 웨르는 그의 함정들이 영국 전함의 사정권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력함 간의 두 번째 교전이 실시되었다. 이번에는 독일 함대가 불리해졌다. 독일 함정이 쏜 포탄은 두 발만이 영국 함정에 명중되었지만 영국의 포탄 27발이 독일의 전투순양함을 명중시켰다. 웨르는 교전을 시작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교전을 끝내는 조치를 취했다. 첫 번째 사격이 19시 10분에 실시되었고, 19시 18분에 그는 전투진형에 대해 '전투회전' 신호를 다시 보냈다. 동시에 그는 전투순양함에게는 적을 향해 돌입하도록 지시했고, 경순양함과 어뢰정에게는 어뢰공격을 지시했다. 그러나 켈리코 제독은 독일 함대에서 어뢰를 발사하자 선회를 명령을 했고 영국 함정들은 급격 회동을 하여 21발의 독일 어뢰는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젤리코가 다시 추격하려 했지만 웨르는 이미 10에서 11마일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웨르는 영국 함대를 동쪽 약간 뒤쪽에 두고 모항이 있는 남쪽을 향해 항해했다.

#### 야간 교전단계(The Night Action)

날이 빠르게 어두워지면서 전투의 마지막 국면인 야간전투가 시작되었다. 독일 대양 함대 사령관 웨르는 자신들의 현 전투 위치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자신들의 위치가 모항의 봉쇄망 외곽에 있다면 영국의 대함대는 세력을 전부 동원하여 독일 함대를 격멸하려고 할 것으로 판단했다. 웨르는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모항으로 돌아가는 최단거리의 항로를 선택하기로 했다. 웨르는 손상당한 전투순양함들을 함대 후미로 배치 한 후, 다소의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모항이 있는 남동쪽으로 변침을 하여, 젤리코 전투진형의 전위부대 앞쪽으로 향진했다.

5월 31일 22시 15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독일의 전함과 순양함들은 근거리 사격을 실시하면서 영국의 약한 세력의 포위망을 통과하려 하였다. 웨르는 구형 노급전함 1척, 경순양함 2척을 희생시키는 대신 영국의 장갑순양함 1척과 구축함 5척을 침몰시키면서 영국 함대의 후미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의 구형 노급전함들은 절망적이었지만 히페르의 전투순양함이 퇴각할 수 있도록 용감하게 교전하였으며, 전투를 중지시키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새벽 2시 30분 영국의 젤리코 사령관은 독일 함대가 도주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독일 기뢰원(機雷原)을 횡단 항해하는 모험을 할 수 없어 함대를 북쪽으로 돌렸다. 6월 1일 3시 30분 남쪽으로 침로를 유지하면서 독일 함대는 유틀란트 해안과 기뢰부설 구역에 안전하게 진입하였다.

이로써 해전은 중지되었다. 유틀란트 해전에서 영국은 전투순양함

3척, 장갑순양함 3척, 구축함 8척과 6,999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한편 독일은 구식 노급전함 1척, 전투순양함 1척, 경순양함 4척, 구축함 5척이 침몰되었으며 2,921명의 인명이 손실되었다.

#### 이후 독일 해군

유틀란트 해전은 영국의 대함대와 독일의 대양 함대가 총 출동하여 교전한 최대 규모의 수상교전이었으며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해전이였다. 영국 해군의 전통은 적을 전멸시키는 전술을 구사해 왔으나 유틀란트 해전에서는 오히려 영국의 피해가 많았다는 점으로 인해 영국민은 심한 실망감을 느꼈고, 켈리코 사령관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켈리코 제독은 영국 함정 세력의 보존과 독일 함정의 격파라는 이중의 부담 때문에 신중한 부대 전개를 전개했다. 그 결과 전투시기 지연과 승리 기회 상실이라는 전술적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한편 독일 함대는 피해가 영국보다 적다는 점에서 유틀란트 해전을 승리라고 자평했다. 실제로 전술적인 면에서는 독일이 승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함대가 영국의 주력함대보다 열세이기는 했지만 독일 함대는 영국 함대에 자신들이 입은 타격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렇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유틀란트 해전에서는 영국 측이 승리하였다. 독일 해군은 남은 전쟁 기간 동안 영국 함대와 접전을 치르는 것을 피하고 항구에 묶여 남은 세력을 보존하기에 급급했다. 영국이 북해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종전을 촉진시켰다. 왜냐하면 북해를 통해 영국은 원거리 해안을 봉쇄할 수 있었고, 독일에게 군수품이 운송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 함대는 영국의 해상봉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자, 대형 전함을 확보하여 영국 함대와 결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선 파괴자로 명성을 날린 잠수함을 이용한 통상파괴전으로 전세를 만회하려 하였

다. 독일 해군성에서는 비활동적인 함대 인원을 차출하여 활약이 많은 잠수함부대로 근무를 전환시켰다. 이에 불만을 갖게 된 수상함 요원들은 빈번한 폭동을 일으켜 독일 방위력 약화에 한 요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독일도 미국이 참전할 것을 염려하여 잠수함 작전을 매우 주의 깊게 추진하였다. 1914년 10월까지의 영국 상선을 공격하지 않았다. 독일 잠수함은 주로 전함만을 공격하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처음에는 공격 대상이 된 상선에게 공격 사실을 통보하고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격을 감행한 후에는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잠수함 작전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15년 초였으며, 유타란트 해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은 영국에 대한 전면 공격을 선언하고, 상선도 사전 통보 없이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을 위시한 중립국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자 독일은 정책을 바꾸어 부상해 있는 동안에 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1916년 말이 되면서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보급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협을 감수하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감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독일로서는 마지막 수였고, 1917년 한 달 동안 연합국 측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제한 통상파괴전은 오히려 중립을 지키던 미국을 참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의 전쟁 지원 및 협조로 전쟁의 양상은 급변했다. 그리고 쏘나 등 대잠장비의 발달, 호송 선단 제도의 확립, 항공기의 해상정찰 강화 등으로 독일 U-보트에 의한 통상파괴전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연합군 측의 해상보급로도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었다.

1918년 중엽이 되면서 독일의 잠수함은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고 종전은 이제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잠수함 작전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 잠수함은 5,234척, 1,200만 톤에 달하는 상선을 침몰시켰다. 이에 비해 독일 측 상선들은 불과 187척이 침몰하였다. 게다가 전함 10척을 포함하여 50여 척에 가까운 함정을 어뢰공격으로 격침시켰다. 당시의 전황을 결정지었던 것은 강력한 전함이라기보다는 잠수함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해군 지도자들은 많지 않았다.

결국 영국과 미국의 대륙붕쇄와 연합국들에 대한 미국의 전쟁 지원 및 협조로 독일의 경제가 마비되고, 독일 내부의 혁명으로 들어선 신정부가 연합국과 강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수천 년에 걸쳐 이룩한 인류문화유산이 파괴된 제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제6장  
제2차 세계대전





## 1.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

### 발발 원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0년 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은 참전국이 60개국이며 전장이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남태평양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이었다.

전쟁의 원인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구축된 패전국 독일에겐 지나치게 가혹한 베르사유 체제와 그나마 회복되어 가던 독일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세계 경제 공황이었다. 독일 국민들은 무력한 독일 의회 대신, 베르사유 조약 파기,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대독일의 거설, 유대인 배척, 반(反) 공산주의를 제창한 히틀러의 나치스에 독일 경제 재건의 기대를 걸었다.

정권을 잡은 히틀러의 나치스는 계획경제(4개년 계획)를 도입하고 공공투자를 실시하여 경제재건을 궤도에 올리는 한편, 1935년에 생존권을 주장하며 독일의 ‘재 군비 선언(再軍備宣言)’을 천명했다.

또한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하여 독일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군사력을 배경으로 국외의 독일인 통합에 나섰다. 히틀러의 나치스는 ‘예전의 대(大) 독일을 부활시키자’라는 독일인 통치의 슬로건을 걸고 1938년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다음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 수데텐란드(Sudetenland)<sup>378</sup>의 할양을 요구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거절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작은 나라를 희생하여 나치스의 창끝을 소련으로 향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1938년 9월에 열린 뮌헨 회의<sup>379</sup>에서 소위 ‘유화정책’으로 나치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수데텐란드 분할을 승인받은 나치스는 1939년 5월 프라하에 진주했다.

---

378) 주민의 20%가 독일인

379)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세계적인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이 약화된 점이나 뮌헨 회담에서 나타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에 교만해진 나치스 독일은 그 후 폴란드로 화살을 돌렸다. 나치스는 독일을 둘로 분단하는 ‘폴란드 회랑(回廊)’의 할양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스탈린 독재 하에 있던 소련과는 폴란드 분할을 서로 인정하는 비밀조항을 둔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었다.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은 다음 달엔 독일군이, 이어서 소련군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마니아, 그리스, 폴란드 등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던 영국은 1939년 9월 3일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1939년 9월 2차 대전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전격전으로,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던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북부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로 진격하여,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뵙케르크 해안 지역으로 몰아내 완전 포위하였다. 독일군은 1940년 4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였으며, 1940년 6월 프랑스가 항복을 선언하자, 나치 독일은 파리를 점령하였다. 영국군은 독일군에 밀려 뵙케르크에서 영국 본토로 철수하는데 겨우 성공했다.

상황이 독일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1939년 독일과 구축 동맹을 맺고 참전을 단행했다. 그리고 중일 전쟁으로 막다른 곳에 몰린 아시아의 일본도 독일·이탈리아와 공동보조를 취해 미국과의 전쟁에서 서로 협력하자는 독·일·이 3국 동맹을 체결했다. 이로써 제1차 대전 시 옛 동맹은 깨지고, 새로운 동맹이 효과 있는 연합으로서 공고화되었다.

이렇게 되자, 미·영 등 서방 측 연합은 상당히 상이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유럽에서의 전쟁과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특성은 아주 달랐다. 미·영과 독일의 전쟁은 아주 대륙적

인 요새에 대한 점령작전이었고, 일본과의 전쟁은 아주 해양적인 요새에 대한 점령작전이었다. 공통적인 것은 대양을 초월하는 미 군사력 투사의 중요성이었다. 연합국에 의해 수행된 두 가지 점령작전 모두 해양에 의존하였으며, 대륙규모의 기반을 가진 미국의 해양력에 의해 대량으로, 특히 태평양의 경우에는 극히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제2차 대전은 서로 연관된 3개의 주요 전쟁으로 구성된다. 이 중 두 개는 유럽에서 하나는 태평양에서 치러진 전쟁이었다. 유럽 전쟁을 살펴보면 다른 중요한 전쟁도 많았지만, 크게 봐서 독일에 대한 미영 전쟁과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독일의 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거의 전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치른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태평양에서 치러진 해양 전쟁이었다.

#### 대전 경과

핵심적으로 말해서, 제2차 세계대전은 급상승하는 독일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 치러진 세력 균형 전쟁의 제2 라운드였다. 그러나 이것은 육지에서 주도적인 국가와 바다에서 주도적인 연합국이, 육상과 공중, 그리고 바다에서 주도적인 연합국의 항공력을 포함하여 싸운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근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전쟁은 나치 독일에 의해 구축된 대륙요새에 대항하여 바다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의한 대규모 포위작전이었다. 독일군이 동부 유럽의 거대한 점령지에서 주로 파멸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틀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포위작전을 전개한 연합군의 해양력이 유럽의 대륙과 공중에서 승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히틀러는 1939년 5월 23일 유럽에서 전쟁을 계획하면서, 몇 가지를 심사숙고한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우선 히틀러는 영국과의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견했었다. 그는 당시 다음과 같이 심사숙고 했다.

“만약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성공적으로 점령되고, 또 프랑스가 패배하면 영국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은 확보된 것이다. 그러면 영국은 공군에 의해서 서부 프랑스에서 봉쇄될 수 있으며, U-보트로써 독일 해군은 그 봉쇄를 확산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은 대륙에서 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시간은 영국편이 아니다. 독일은 육지에서 죽도록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전략이 제1차 대전의 결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80)</sup>

그의 전략적 생각은 옳았다. 그래서 히틀러는 1940년 여름, 영국군의 치욕적인 뉝케르크 철수와 프랑스의 전면붕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침공에 사활을 걸지 않았고, 영국과 영국 주변에서의 전투수행에 있어서 그 당시 대폭 증강된 독일 군사력을 집중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영국에 대항하여 바다에서의 전쟁으로 승리를 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 예로 1940년 히틀러는 지브롤터(Gibraltar)와 몰타(Malta) 등 영국의 생명선에 대해 육지에서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집중하는 방안도 거부하였다.<sup>381)</sup> 그 대신 그는 항공력이 추가된 독일 육군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5개월<sup>382)</sup> 내, 한 번의 전투로 소련을 패배시키려고 마음먹고, 소련 침공을 선택했으며, 또 어찌면 뢰더(Raeder) 제독이 이끄는 독일 해군의 능력을 확신하여, 해상 및 수중 통상파괴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신속하게 그의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41년 11월 히틀러는 소련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진짜 훌륭한 지상군을 전폭적으로 투입하면 소련을 3개월 이내에 이길 수 있다고

380) F. H. Hinsley, *Hitler's Strate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p.37 재인용

381) Gerhard Schreiber, "The Mediterranean in Hitler's Strategy in 1940. 'Programme' and Military Planning." Wilhelem Deist, ed. *The German Military in the Age of Total War* (Dover, N. H. : Berg Publishers, 1985). pp.240~281

382) 원래 1941년 5~10월

판단하고, 전격적으로 300만의 정예 지상군병력<sup>383</sup>)과 2,740대의 항공기<sup>384</sup>), 3,580대의 전차를 투입하여 소련과의 전쟁을 일으켰다. 히틀러는 전선을 동서로 나누는 바람에 지구전에 빠졌던 제1차 세계대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독·소전이 시작되자, 미국과 영국 양국은 즉각 소련을 지원하고 나섰다. 미국, 영국, 소련 3국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결속을 강화했다. 그러자 1941년 12월 11일 독일 정부가 미국에 대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 정부는 개전 훨씬 이전부터 대량의 무기를 영국에 대여하며, 간접적으로 독일에 대한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표면상 중립국인 미국을 적성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수함에 의한 통상과괴전도 아주 제한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노골적으로 소련에 무기를 공여하고 재정적인 물자지원을 실시하자, 독일은 미국에 대하여 선전포고와 함께 미국과 중립국 상선 등 영국과 소련을 지원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무제한 통상과괴전을 명령하였다.

한편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한 소련은 놀라움과 분노에 휩싸였고, 스탈린은 슬라브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대독항전 전선에 모두가 참전하자고 촉구했다. 소련은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온 독일군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1942년 초 모스크바 40km 부근에서 독일군의 진공을 막아내고 전선을 유지했다. 영국-러시아 연합 및 바다를 통한 대량 무기 공여, 군수물자의 즉각적 지원이 소련에 큰 힘이 되었다. 물량 면이나 정보와 선전 면에서 더 우수했던 연합국측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면서 1942년 하반기가 되자 전세는 크게 바뀌었다.

독일군 정예부대 대부분이 동부전선에 쫓겨 묶이게 되자, 히틀러가

---

383) 독일군의 75%

384) 공군의 61%

전쟁을 시작하기 전 1939년 5월 23일 심사숙고했던 전쟁계획과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되었고, 그가 가장 우려했던 1차 대전과 같은 양상이 되어 버렸다. 동부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서부전선은 미·영의 대륙봉쇄와 미국의 해상을 통한 대량지원으로 군사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었다. 이제 미국과 영국은 소련이라는 연합국과 함께 독일을 동·서에서 동시에 압박해 나갈 수 있었다. 독일은 미·영·소의 대연합과 그들의 대전략의 모든 도구에 의해서 차츰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아시아에서 중일 전쟁의 장기화에 고민하던 일본은 독일군의 힘을 과대평가하여 독일과 손을 잡고 아시아에서 신질서를 피하고자 했다. 물론 일본이 독일과의 손을 잡은 그 이면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항해 시행한 주요물자 특히, 유류의 대일본 금수조치, 미국 내 일본자산 동결, 중국 정부에 대한 군사 무기 등 대량 물자지원 조치 등의 이유가 있었다. 또한 일본은 부족한 군사물자를 동남아시아의 천연 자원, 유전, 고무, 주석 등을 획득하여 보충하기 위해 1941년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켰다.

1941년 2월 8일 일본 태평양의 미국 거점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은 연결되었고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진주만 기습과 동시에 일본은 천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말레이, 필리핀, 자바, 수마트라, 미얀마의 광대한 영역을 점령했다.

미국 함대는 진주만 공격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곧 복구하였다. 1942년 중반이 되면서 미국 해군은 일본 해군에 대항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해전은 코랄해(Coral Sea) 해전이었다. 이 해전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은 뉴기니를 침입하여 호주에 압박해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일본 함대를 패퇴시켰다. 그 다음 해전은 태평양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섬

인 미드웨이(Midway)에서 치러졌다. 일본은 미드웨이를 정찰기지로 활용하려고 생각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양측은 미드웨이 해전에 총력을 쏟아 부었다. 양측 모두 전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상대를 괴멸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왜냐하면 해군력을 통해서만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을 괴멸시키고 승리했다.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의 전황을 뒤바꿔 놓았으며, 이후 미국과 연합국은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1942년 8월 7일 과달카날 해전 및 솔로몬 군도 해전(Battle of Eastern Solomons, 1942년 8월 23~25일) 산타크루즈 제도 해전(Battle of Santa Cruz Island, 1942년 10월 26일)에서 입은 일본의 전력 손실은 일본이 비교적 전쟁 초기에 전략 및 작전적 주도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전쟁 방식은 일본 본토를 전략적으로 폭격하기 위한 도서의 항공기지를 확보하고자 선택된 상륙작전의 연속이었다. 태평양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타라와(Tarawa) 상륙작전(1943년 11월 20일)을 필두로 이오지마(Iwo Jima) 상륙작전(1945년 2월 19일)과 오키나와(Okinawa) 상륙작전(1945년 4월 1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미군은 징검다리 식(Leaf-frogging) 전진전략을 채택하여 해상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향해 서서히 압박해 갔던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 해군은 마지막 남은 해양통제권 경쟁을 둘러싸고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주축이 되어 필리핀해 해전(Battle of Philippine Sea, 1944년 6월 19~20일) 및 레이테만 해전(Battle of Leyte Gulf, 1944년 10월 24~26일)을 치렀으며, 이 모두 상륙작전과 관련되었다. 미국은 이오지마를 거쳐 1945년 오키나와에 상륙했다.

한편 유럽 동부전선에서는 1943년 1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의 정예군 30만 명이 괴멸한 이후 소련군은 각지에서 독일군을 격파하고 동유럽을 제압해 나갔다. 그해 5월에는 아프리카전선에서 이탈리아군이 영국군에 패했고, 미·영군이 이탈리아 남부에 상륙하여 북상하자, 무소리니는 실각과 동시에 도주 중에 이탈리아 저항군에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이탈리아는 9월에 연합국에게 항복했다.

연합군은 유럽 대륙의 지상전에서 반격을 가하기 위하여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시칠리아 상륙작전(1943년 7월 10일), 노르망디 상륙작전(1944년 6월 6일), 남부 프랑스의 상륙작전(1944년 8월 15일)은 연합국이 대독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공군의 엄호를 받는 4,000척의 선박과 700척의 전함을 이끌고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32만 명의 병사와 2만 대의 차량을 상륙시켰다. 1944년 8월에는 파리가 해방되었으며, 동시에 공격을 받은 독일은 붕괴의 길로 미끄러져 갔다. 1945년 5월 베를린이 소련군에 의해 함락되자,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유럽에서의 긴 전쟁은 끝을 맺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은 유럽 전쟁이 끝난 후 3개월 더 계속되었다. 일본의 여러 도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한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12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달아 원폭탄을 투하했다. 소련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일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제2차 세계대전은 5,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비참한 전쟁이었다.



### 3. 대서양 해전

영국과 독일의 해상력 경쟁

1940년 대륙에서의 참패 이후 영국은 해군력과 항공력이 침공을 억제하여 줌으로써 전쟁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영국은 뵐케르크 철수 후 1년 만에 참패로부터 회복하였고, 침공이 불가능하도록 잘 무장되었다.

프랑스 해군은 제2차 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독일에 대한 봉쇄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독일의 대양 함대보다 대체적으로 우세하였기 때문에 영국 해군은 북해를 포함한 대서양에서 연합국의 해상교통로가 개방되어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영국은, 1942년 일부 지역에서의<sup>385)</sup> 한때를 제외하곤 연합군이 필요한 군사임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제해권을 잃은 적이 결코 없었다. 그리고 대륙으로 재상륙하기 위해 영국에서 행해졌던 전술과 기술적 기량을 바탕으로 한 미국 군사력 증강과 조선소의 건설은 영국의 해상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반면에 함대 세력이 열세한 독일 해군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연안 방어와 현존함대전략이었다. 해군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했던 독일은 강력한 영국 함대와의 해상 결전을 회피하고, 제1차 세계대전 시와 마찬가지로 대 연합국 통상과괴전에 주력하였다. 특히 1942년 동부 전선과 서부 유럽, 그리고 지중해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히틀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세계 최강의 전함 비스마르크를 건조하여 항공기, 잠수함과 함께 무제한 통상과괴전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독일은 U-보트 잠수함과 가용한 수상함정, 항공기를 동원하여 통상과괴

---

385) 지브롤터에서 북 러시아,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몰타까지의 선단 호송이 위협받았었다.

전을 감행 영국을 고사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 수상함의 통상파괴

독일 해군의 대양 함대는 영국 해군과의 해상 결전을 가급적 회피하고 가용한 세력을 동원하여 통상파괴전에 주력하였다. 독일은 개전 후 1개월쯤 지나서 출항한 포켓 전함(Pocket Battleship) 도이치란드와 그라프 슈페(Graf Spee) 함으로 통상파괴전을 수행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1940년에는 위장상선을 출동시켜 화물선을 약탈하면서 대양을 누볐다. 1940년 10월부터 41년 4월까지 북대서양 선단을 파괴하기 위하여 배치된 웨어(Scheer) 제독은 총 10만 톤에 달하는 11척의 선박을 침몰시켰으며, 1941년에 히페르 등 3척의 전투순양함들은 대서양에서 두 달간 작전을 하면서 14만 톤의 상선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독일 해군사령관 괴데 제독은 수상함(水上艦)이 통상파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용기를 얻어 1941년 5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전함 비스마르크(Bismarck)를 통상파괴 임무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중순 그동안 영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전함 비스마르크가 신조함인 중순양함 프린츠오이겐(Prinz Eugen) 호와 함께, 대서양의 영국 통상을 일소할 목적으로, 노르웨이 남쪽 베르겐 항을 출항한다는 정보를 접하자, 영국 해군성은 영국 본토 사령관인 토베이(J. Tovey) 제독에게 지브롤터를 포함해 전 해역에 산재된 영국 함대 중 가동할 수 있는 함정들을 총 동원하여 아이슬란드와 페로 제도(諸島) 사이, 덴마크 해협과 덴마크 해협으로부터 남서쪽 60마일 지점에 배치함으로써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아이슬란드 북쪽에서 발견되어 영국 진 해군에게 추격을 받게 된 전함 비스마르크는 최초 해전에서 전투순양함 후드(Hood) 호를 세 번에 걸친 일제사격으로 완전 침몰시켰으며, 전함 Prince of Wales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호도 Prince of Wales의 포탄에 현 측이 명중되어 파손된 구멍에서 견잡을 수 없이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전함 비스마르크가 이때 가까운 노르웨이 항구로 귀항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항해를 하면서 작전을 하자, 프랑스 해군은 전 함대와 항공기를 동원하여 추격을 시작했다. 이윽고 영국 항공모함 아크 로열(Ark Royal) 호에서 발진한 15대의 함재기에 의해서 비스마르크 호가 발견되었고, 뇌격기 편대는 어뢰공격을 가해, 3번째 공격에서 타기(舵器)와 프로펠러를 명중시켜 전함 비스마르크를 항해불능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이튿날 아침, 영국의 대형함들이 항해불능에 빠진 비스마르크 호 근처에 총집결하여 무차별 포격과 어뢰공격을 가했다. 비스마르크 호도 포탄이 떨어져 포가 침묵할 때까지 응사하였다. 포탄이 떨어진 후에도 비스마르크 호는 여전히 침몰하지 않았다. 10시 15분 토베이 제독은 연료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전투중지를 명하고 귀항토록 하였다. 비스마르크 호에게 최후를 고하게 한 것은 침몰 30분전에 도착한 순양함 Dorset Shire였다. 이 함정은 늦게 서야 도착했기 때문에 어뢰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비스마르크 호는 우현에 2발, 좌현에 1발의 어뢰를 맞고, 4분 후 왼쪽으로 기울면서 대서양으로 침몰하였다.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던 전함 비스마르크의 최후였다. 이렇게 되자, 독일은 수상함에 의한 통상파괴전을 중단하고, 잠수함에 의한 파괴전에 주력하게 되었다.

### 잠수함의 통상파괴

독일이 영국을 지원하는 연합국상선들에 대해 잠수함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영국은 1차 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아마도 영국은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체결된 수많은 해군협정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영국 해군성 내에서도 호송 선단 체계를 도입하고 음향탐지 장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잠수함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군다나 영국 해군은 전함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따라서 호송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소형선을 많이 건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독일이 잠수함 56척으로 2차 대전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의 상선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전쟁 초기 히틀러는 영국 및 프랑스가 정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립국, 특히 미국이 적성국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수함의 운용을 제한하였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무제한 통상과괴전이 국제적 비난을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9년 9월 3일 영국이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후, 최초로 U-보트가 격침한 함선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해 중이던 여객선 아테니아(Athenia) 호였다. U-30 함장 램프(Lemp)에 의해 아일랜드 근해에서 침몰된 정기선 아테니아 호에는 미국인 316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램프 소령은 이 배를 순양함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변명했지만, 미국 내 여론은 악화되었다. 또한 영국은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전을 개시했다고 판단하고 15노트 이하의 상선들에 대한 호송 선단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1939년 말까지 프랑스 해군은 거의 5,800척의 선박을 호송했으며, 이중에서 12척의 손실만 발생했다. 그러나 단독 항해 선박은 102척이나 격침되었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히틀러의 제한된 잠수함 작전에 의해 주로 단독 항해 선박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전포고 2주 후인 9월14일 영국의 항공모함 아크 로열호가 대잠초계 중 독일 잠수함 U-39의 어뢰공격으로부터 간신히 회피한 일이 있었고, 3일 후에는 항공모함 Courageous가 격침되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선단 호송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상선 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1939년 가을에 U-보트에 의한 가장 극적인 공격은 프린 소령의 U-47이 영국 북쪽에 있는 스카파 플로(Scapa Flow)에 침입하여 전함 로얄 오크(Royal Oak)를 격침시킨 사건이다. 그런 가운데 독소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공개적으로 소련을 포함한 연합국에 전쟁물자를 대량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독일은 미국에 선전 포고를 함과 동시에 1939년 11월 17일부터는 중립국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무제한 U-보트 작전을 선언하였다.

독일 함대의 칼 되니츠(Karl Dönitz, 1891~1980) 제독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통상파괴전의 경험을 토대로 U-보트의 전략적 운용인 격침톤수전(擊沈噸數戰, Tonnage Warfare) 이론과 이리떼 공격(Wolf-pack Attack) 전술을 발전시켰다. 격침 톤 수전이란 영국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독일은 영국이 대체할 수 있는 상선보다 많은 상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U-보트 손실로 최대한의 상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U-보트의 전술적 운용이 이리떼 공격전술이었다. 이리떼 공격전술은 다수의 U-보트로 집단공격을 가하여 선단의 방어를 압도한다는 것이었다.

1941년 되니츠는 100척의 U-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리떼 공격으로 8개월간 상선 400척을 격침시켜 영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독일이 프랑스와 노르웨이에 잠수함 기지를 확보한 이후에는 독일의 무제한 통상파괴전에 의하여 영국은 크게 고전하고 굴복 직전의 위기까지 겪었다. 윈스톤 처칠이 회고록에서 ‘전쟁 기간 중 나를 진정으로 두렵게 했던 유일한 것은 U-보트였다’라고 할 정도로, 독일 잠수함은 큰 활약을 보였다.

1942년 전반기 6개월 동안에 미국 연안에서 U-보트가 격침시킨 선박은 585척 308만 톤에 달했다. 그러자 미국은 미국 연안에 대한 선단 호송을 강화하였고, 되니츠는 연합군 공중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동서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선단의 중간 위치인 ‘검은 함정 구역’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1942년 하반기 6개월 동안 U-보트는 565척, 246만 톤에 달하는 선박을 격침시키는 대단한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로는 우선 잠수함 척수가 대폭 증가했고 독일 잠수함이 적 수상함의 레이다파를 먼저 잡을 수 있는 수신기를 부착하였으며, 또한 소나 빔을 기만할 수 있는 기만기(欺瞞機)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42년 2월 1일부터 독일이 암호 체계를 변경했으며, 이후 10개월 간 영국은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없었던, 반면에 독일은 연합국 선단의 전과를 추적하여 공격에 이용하고 있었다.

1943년부터는 연합국의 선단 호송 강화와 대잠전 능력의 향상으로 독일과 연합군 모두에게 상호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연합국은 3월 1일부터 영국과 캐나다가 북대서양 호송을 통제하고 미국이 중부 대서양 호송을 통제,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합국은 허프더프(HF/DF) 전과탐지기를 개발하여 해안 및 호송함정에 설치함으로써 U-보트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게 되었으며, B-24 장거리 폭격기를 뉴펀들랜드, 아이슬란드, 북아일랜드에 배치하여 북대서양의 ‘검은 함정구역’을 축소시켜 나갔다. 따라서 북대서양에서 항공기에 의해 격침된 U-보트의 척수도 증가되어 나갔다.

1943년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개된 51척의 U-보트와 연합국 호송선단의 대서양 혈투는 앞에서 언급한 연합군의 대잠전 노력으로 U-보트의 참패로 끝났다. 즉 U-보트는 상선 12척을 침몰시킨 반면 7척의 U-보트가 손실되었다. 따라서 되니츠가 시도한 격침톤수전은 점차 성공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었다.

1943년 5월 되니츠는 북대서양에서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그의 U-보트들을 넓은 중부 대서양으로 이동시켰다. 그러자 중부 대서양의 선단 호송의 책임을 맡은 미국은 대잠전을 전담하는 제10함대를 창

설하여 본격적으로 U-보트의 탐색 및 격파에 주력하였다. 특히 ‘젖소(Milch Cow)’라 불리는 1,700톤급 유조 잠수함의 탐색 및 격파에 주력하였다. 8월 중순까지 미국은 8척의 유조 잠수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독일은 중부 대서양에 대한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 연합국 공군 폭격기들은 독일 U-보트의 3분의 2 이상이 기항하는 프랑스 비스케이(Biscay) 만 기지로 출입항하는 잠수함에 대한 집중적인 공습을 감행하여 1943년 연말까지 32척의 U-보트가 수장되었다.

그 후 호위 항공모함의 출현으로 ‘검은 함정구역’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또한 해공(海空) 협동 대잠 작전으로 잠수함이 주야(晝夜)간 부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서양 횡단 선박은 전체 구간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으로 U-보트는 프랑스 항구를 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본토 항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대서양 해전 후반기에 선단 호송 제도가 U-보트의 공세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육상기지 항공기와 해상기지 항공기의 근접 엄호가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레이더를 장비한 항공기의 근접 엄호는 선단을 공격하기 위한 U-보트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특히 미국 해군은 대잠전을 전담하기 위하여 6내지 8척의 구축함 또는 호위 구축함(Destroy escorts)으로 구성된 대잠 지원전대(Anti Submarine Support Groups)와 호위 항공모함과 구축함으로 구성된 대잠 공격전대(Hunter Killer Groups)를 운용함으로써 U-보트의 공세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

되니츠 제독은 이러한 어려움을 새로운 무기와 기술로 극복하고자 했다. 독일이 음향유도어뢰를 발명하자, 이에 대응해 영국은 조음기(Foxer)를 만들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은 스노켈(Snorkel)과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디젤엔진을 가동하는 Walter급 잠수함을 개발했으나, 너무 늦게 개발함으로써 전쟁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격침된 연합군의 상선은 23,351,000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2,775척 14,573,000톤이 U-보트에 의하여 격침되었다. 그러나 대잠 무기가 개량됨에 따라 독일의 되니츠 휘하 U-보트와 부하들의 손실도 연합국 손실에 못지않게 커졌다. U-보트는 모두 785척이 격침되었다.<sup>386)</sup> 손실된 U-보트의 거의 모든 승조원은 U-보트와 함께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되었다. U-보트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되니츠의 두 아들도 있었다. 되니츠 제독과 승조원들의 결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3년 말이 되면서 대서양에서의 전황은 연합군 우세로 거의 결정되어져 가고 있었다.

#### 4. 태평양 전쟁

##### 일본의 해군력 증강

1904년 노일 전쟁의 대미를 장식한 대마도 해전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공식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02년 이후 일본의 해군력은 영국이나 독일보다 열세였지만, 러시아 해군을 제압함으로써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대등한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강력한 해군력은 극동 지역에서 일본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자국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려는 미국과 확실한 경쟁관계를 이루게 하였다.<sup>387)</sup>

1905년 이후 부터 일본은 해군력을 더욱 증강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연합국으로 독일과 싸웠으며, 동시에 극동과 중국 본토의 독일 점령지뿐

---

386) 김중기, “잠수함전사”, 『해양연구논총』 제6집(해군해양연구소,1991). p.256

387)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p.277



만 아니라 마셜 군도, 캐롤라인 군도, 마리아나 군도를 모두 수중에 넣었다. 사실 이 군도들은 섬의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는 별로 없었지만, 하와이와 필리핀 및 중국 본토의 중간에 위치해 군사 전략적인 가치는 매우 높았다. 일본은 이러한 주요거점을 장악함으로써 미국의 서태평양과 필리핀, 인도차이나 진출과 영국, 프랑스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호주 진출을 차단하는 한편,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두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1931년까지 일본은 중국의 주요 자원 생산지와 만주를 경유하는 철도를 확보하여 아시아의 주도 세력으로 발판을 굳혔으며, 6년이 지난 뒤에는 분열되고 나약해진 중국을 물리치고 양쯔강과 황하 이남까지 장악함으로써 아시아의 유일한 지배국임을 자임하게 되었다.

일본은 독일이 유럽에서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기 전인 1936년 이미 전함 10척, 항모 10척, 잠수함 40척, 그리고 많은 척수의 현대식 구축함 및 순양함과 500대의 함재기를 포함한 약 1,500대의 해군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특히 어뢰는 전 세계의 어뢰들 중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 일본군의 훈련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1904년부터 1905년에 있었던 만주사변을 통해 서방 국가들은 일본의 전투력을 충분히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해군 장병들은 휴식을 최소화하고 전쟁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 일본의 해군 전투력은 미국의 전투력을 앞서고 있었다.

1936년 도쿄에서 과격파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일본 정부 내의 온건파 지도자를 모두 제거하고 호전적인 군사 지도자들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특히 강경파 육군 지도부에 의해 수상으로 취임하게 된 코노에도 자신은 온건파였지만 그를 둘러싼 강경파 군인들에 의해 지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일본은 1937년 7월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이 되자 전쟁은 전면전으로 확산되었으며, 12월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황하와 양쯔강 이남까지 점령하였다.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경학살과 같은 잔학성을 드러냈으며, 미 해군의 포함을 격침시킴으로써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만주 지방의 전투에서 소련의 국경을 위협함으로써 소련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본이 이렇게 무모한 정책을 감행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 주축국(이탈리아, 독일)과 일본이 연합전선 구축하였다는 사실과 둘째,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열망 때문이었다.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비시(Vichy) 정부는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군사행동 권한을 일본에게 양도했다.

#### 미국의 태평양 진출과 해군력 증강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세계 제일의 해군력을 보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981년 5월, 영국에 과건되어 있던 미 해군 심스(William Sims)제독은 “미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태평양에서는 지배적 우세 해군력을, 대서양에서는 방어적 우세 해군력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 영토와 교통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21척의 전함, 10척의 순양함과 다수의 초계함,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sup>388)</sup>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해군 강화정책에 적극적이었지만, 후임 하이딩 대통령은 승전 연합국 간의 무기 경쟁을 피하길 원하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1921년 워싱턴 해군조약이 체결되어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함선 보유량을 제한하였다. 미국은 해군력 증강을 원했지만 불경기로 인해 군함건조가 원활하지 못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전부터 컬러플랜(Coloplan, US color-coded War Plan)<sup>389)</sup>을 수립했

---

388)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p.285

389) 1920년 미국이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전쟁계획이다. 그 내용은 국내, 카리브

는데, 그 중에는 오렌지 계획이라고 하여 일본과의 전쟁계획도 포함 되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본은 독일로부터 마리아나 군도, 마셜 및 캐롤라인 제도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서쪽으로 팽창하는 데 전략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무려 127회에 걸쳐 일본과 모의전쟁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1930년 후반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태평양상의 섬들을 돌파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940년 11월 미 해군참모총장 스타크(Harold Stark) 제독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해군 전략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1) 미국 영토 보호 (2) 태평양 지역에서 총력전 승리 (3)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동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두 곳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 확보 (4) 대서양 지역에서 전쟁을 승리하는 동안 태평양 지역의 방어태세를 유지할 해군 전력 규모 등에 관한 것이었다.<sup>390)</sup> 미국은 20년간 일본의 팽창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을 일본에 넘겨주게 되었고 필리핀과 태평양 상의 미국 섬들마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은 1941년 3월 영국과 전략회의를 갖고 유럽과 대서양 지구를 미국의 핵심방어 지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 대해 미국은 연합국의 말레이 반도 방어를 지원하고 적도 남쪽의 서측 해역에 대해서는 연합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며 장차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마셜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를 탈환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의 해군전력을 비교하면 전함은 각각 10척이었으며, 중순양함 미국 17척 일본 16척, 경순양함 미국 27척 일본 11척, 구축함 미국 93척 일본 111척, 잠수함 미국 76척 일본 64

---

연안국, 중앙아메리카 국가와 러시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필리핀, 중국 사태로 인한 일본과의 전쟁 등이다.

390)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p.287

척으로 미세하나마 미국이 우세했지만, 항모에서는 미국 4척, 일본 10척으로 일본이 월등히 우세했다.

### 다가오는 전쟁

1940년 9월 27일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더불어 3국 조약을 체결한 것은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은 전쟁을 감수하더라도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섞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940년 7월 미국은 일본에 대한 화학, 금속물질과 비행기 부품, 연료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하고 9월에는 고철품목을 금수조치에 추가했다. 미국이 취한 금수조치 품목은 일본이 전량 수입하는 원자재로 일본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또한 1941년 7월 26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의 일본인 자산에 대한 동결을 선포했다. 가장 절실했던 원유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과 협상으로 금수조치 해제를 기도하는 한편 민수용으로 원유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일본 군부는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수조치로 일본의 원유 보유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전쟁을 반대하던 코노에 수상과 군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코노에 수상이 물러나고 육군대장 도조가 수상으로 취임했다. 육군대장에 취임한 테라우치와 아마모토 해군대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쟁 수행계획을 수립해 수상의 재가를 받았다.<sup>391)</sup>

---

391)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p.289

- (1) 필리핀의 루손, 괌, 말레이 반도, 홍콩, 북 보루네로 동시 상륙한다.
- (2) 진주만으로 항모전투단을 투입하여 기습 공격을 단행한다.
- (3) 마닐라, 민다나오, 웨이크 섬, 비스마르크 제도, 방콕,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신속하게 세력을 전개한다.
- (4) 동인도 제도를 확보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계속한다.

#### 일본 함대 진주만으로 향하다

일본군 군령지휘부인大本營(大本營)은 이미 1940년 말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에 대한 전쟁지도대강(戰爭指導大綱)과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듬해 8월에 완성했다. 즉 미국과 영국 및 네덜란드의 세력을 아시아로부터 축출하고, 중국 문제를 일단락지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형성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미얀마) 방면으로 진출할 제반 준비를 실시하고 있었다.

일본은 연합 함대 사령관 해군대장 야마모토 이소로꾸(山本五十六) 제독의 착상과 집요한 고집 속에 항공모함을 이용하여 하와이에 대한 대담한 공습작전을 전개하여 초전에 미국의 주력함대를 파괴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미국과 싸우기에 역부족을 느끼고 있던 일본 해군은 미국과의 전쟁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1939년 8월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후에 하와이 공습을 계획한 야마모토 제독도, 미국의 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그를 미국과의 전쟁으로 몰아갔으며, 초전에 승리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작성하게 하였다. 해군 항공대의 경력을 지니고 있었고 급진하는 항공 전술의 발달에 남달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던 야마모토 제독은, 1940년 5월 연합 함대의 기동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 처음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기동 연습에서 그는 공중 투하 어뢰공격의 성과에 크게 고무되었

다. 하와이를 기습 공격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그의 동료들은 한결같이 잠수함과 수상함정의 공격 방식에 집착했지만 그는 항공기 공습으로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전에 미 주력함대를 파괴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마모토 제독은 1940년 11월 이탈리아 타란토 해군기지에 대한 영국군의 성공적 기습작전을 진주만 공격의 모델로 삼고자 했다. 그는 영국군이 공중에서 투하하는 어뢰(魚雷)를 개량함으로써, 수심이 얇은 타란토에서도 사용하여 성과를 거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진주만 공격에 앞서 어뢰에 날개를 부착하여 공중 투하 때에도 어뢰가 수심 10m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개량했다. 당시 진주만의 수심은 12m였다.

1941년 초 아마모토 제독은 그의 심복 오니시 소장을 불러 하와이 진주만 공격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해군 항공대는 수역이 협소하고 항만 배후 산의 경사가 급한 하와이의 오후하 섬과 유사한 가고시마 항 부근에서 급강하 공중 폭격에 관한 집중 훈련을 5개월간 실시하였다. 군 내부에서 진주만 공격이 지나치게 투기적이라 실패하면 전체 전쟁 국면을 그르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아마모토 제독은 진주만 공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1월 3일 진주만 공격이 확정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남방작전의 승패는 상륙작전의 성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미국 태평양 함대가 서쪽으로 진출할 경우 일본은 남방작전에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전 도중에 요격 태세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모항인 진주만에 치명적인 선제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모토 제독의 소신이였다.

11월 7일 아마모토 제독은 진주만 공격부대에 대한 작전을 나구모(南雲忠一)<sup>392</sup> 중장에게 일임했다. 항공모함 아까기(赤城)를 기함으로

---

392) 나구모는 1887년 생으로 에다지마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술학교와 수뢰

한 진주만 공격부대는 11월 22일까지 쿠릴열도 안에 있는 에토로프 섬의 탄칸 만에 집결했다. 진주만 공격부대에 대한 야마모토의 출동 명령은 11월 25일에 하달되었다. 나구모 제독부대는 11월 26일 6시경 출항하여 3,000마일의 먼 항로를 극도의 기밀유지와 경계 속에 전진하였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위한 세력은 항공모함 6척<sup>393</sup>과 전함 6척,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11척, 유조선 8척 및 잠수함 3척으로 구성되었으며, 항공기는 전투기, 수평 폭격기, 급강하 폭격기, 뇌격기 등 432대가 동원되었다. 또한 나구모의 제1 항공함대보다 먼저 잠수함 27척으로 구성된 선견부대가 은밀히 하와이로 향했다.

예상한 대로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결렬되자, 12월 1일 일본 정부는 전 각료가 참석한 어전회의에서 개전을 결의했다. 기밀유지를 위해 북방항로로 향하던 나구모 제독에게 ‘개전일이 12월 8일로 결정되었으니, 예정대로 공격을 결행하라’라는 비밀전보가 도착했다. 12월 3일 미드웨이 섬 북동쪽 900마일 지점에 도착한 공격부대는 남동으로 변침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모든 함선에 해상급유가 실시되었다. 나구모 제독의 함대는 속도를 24노트로 높여 진주만을 향해 항해하기 시작했다.

#### 잠자는 미국 함대

일본이 극비리에 진주만 기습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미국은 방어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본래 미 태평양 함대는 미국 본토 서해안의 샌디에이고에 진주해 있다가,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1940년 5월 하와이 진주만으로 이동했다. 일본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지

---

학교를 거쳐 해군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는 주로 어뢰를 전문으로 하는 야전부대의 전대사령관을 역임하고 해군대학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항공함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완고하면서도 소심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393) 각각의 이름을 한문 그대로 읽으면 적성(赤城), 가가(加架), 비룡(飛龍), 창룡(蒼龍), 상학(翔鶴), 서학(瑞鶴)이었다.

를 전방으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방어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함대 사령관 리처드슨(James O. Richardson) 제독은 기지를 샌디에이고로 복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함대 사령관을 킴멜(Husband E. Kimmel) 제독으로 교체하였다.

1941년 11월로 들어서면서 일본 항공모함 사이에 무선 교신이 중단되었다. 그것은 일본의 공격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11월 24일 미 해군참모총장 스타크(Harold R. Stark) 제독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 함대와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진주만에 있던 현지 지휘관들은 별로 긴장하지 않았다. 진주만은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의 주공격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피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하와이 주둔 육군사령관 쇼트(Walter C. Short) 중장은 현지 주민의 폭동과 파업 사태에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단지 도상 연습과 연구 보고서에서만 일본이 사전 경고 없이 진주만을 공습할 것이라고 예측했을 뿐이다.<sup>394)</sup>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개시할 당시 하와이에 주둔한 미군병력은 쇼트 중장 휘하에 5만 9천 명의 지상군과 킴멜 제독 휘하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태평양 함대병력으로 전함 8척,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6척, 구축함 29척, 잠수함 5척, 포함 1척, 기뢰부설함 9척, 소해함 10척, 보조함 24척 등 총 94척이었다. 태평양 함대 소속 항공모함은 모두 3척이었으나, 공습 당시에는 한 척도 진주만에 정박해 있지 않았다. 엔터프라이스(Enterprise)는 웨이크 섬에, 렉싱턴(Lexington)은 미드웨이 섬에 각각 항공기를 수송하기 위하여 항진 중이었고, 사라토가(Saratoga)는 샌디에이고에 수리차 입항해 있었다. 또한 하와이에 전개된 미국 항공기는 227대이며, 그중 전투기는 152대였다.

---

394)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288



##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7일 일요일에 이루어졌다.

공습 당일 진주만 북쪽 230마일 해역에 도착한 나구모 제독은 항공기 발진을 명령했다. 후치타 중령이 지휘하는 공격 제1과 180대가 진주만을 향해 남쪽으로 날아갔다. 한 시간 후 제2과 167대가 출격했다.

진주만의 정적을 깨고 미국 병사에게 긴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일본의 항공기 공습이 아니라 일본 잠수함이었다. 11월 일본 쿠레(呉)와 요코스카(横須賀) 항을 출발한 27척의 잠수함 선전부대는 12월 5일 하와이 근해에 도착했다. 이 잠수함부대는 2개의 어뢰를 장착한 소형 특수 잠항정 5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잠수함 특공대였다. 12월 6일 밤 특수 잠항정 5척은 모(母) 잠수함에서 발진해 진주만 항내로 향했다. 그러나 이 잠항정들은 소해정 콘돌 호에게 발각되어 콘돌 호의 긴급보고를 받은 호위구축함 워드(Ward) 호에 의해 격침되었다. 워드 호의 잠수정 격침 관련 보고를 김멜(H.E. Kimmel) 제독이 받아본 것은 일본 항공기 공습 20분 전이었다.

7시경 진주만 북쪽 50km 지점에 있는 오파나 레이더 초소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레이더를 끄려던 레이더병이 스크린에 나타난 북방 130마일 지점의 항공기 대 편대를 발견했다. 레이더병이 공습경보센터에 전화 보고를 한 것은 7시 20분경이었다. 공습경보센터 당직 장교는 전쟁 경험이 없는 중위였다. 그는 전화를 건 레이더병에게 “걱정할 것 없다. 잊어버려.”라고 했다. 당시 당직 장교는 레이더에 나타난 항공기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도착할 예정인 B-17 12대라고 생각했다.

일요일 8시 예배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진주만 항내 함정 승무원들은 아침식사를 하거나 당직 교대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진주만 상공에 나타난 일본 항공기들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기 시작했다. 편대장인 후치타의 공격 신호에 따라 250kg

폭탄을 적재한 폭격기들은 오후 섬의 비행장에 폭격을 가해 불바다를 이루어 미국 항공기의 이륙을 봉쇄했다. 어뢰를 장착한 뇌격기 40대는 미국 전함을 집중 공격했다. 1과의 공격이 끝나자 2과의 공격이 계속되었다.

1시간 50분간 계속된 일본 항공기의 공습으로 미국의 전함 오크라호마, 캘리포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애리조나 호와 기뢰부설함 오그라라, 표적함 유타 호가 침몰했으며, 전함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메릴랜드, 그리고 경순양함 3척 구축함 3척, 수상기 모함 1척 공작함 1척이 손상을 입었다. 피해는 함정만이 아니었다. 진주만의 해군 지원창, 기지, 포드섬의 해군기지, 카네오의 해군초계기지, 인근의 육군, 해병대 비행장이 파괴되고 미육군 항공기 143대 중 56대가 파괴되었고 해병대는 49대 중 23대, 해군은 36대 중 27대의 비행기를 잃었다. 그리고 2,500여 명의 전사자와 1,38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후 태평양 해전의 주역이 된 미국 항공모함 3척이 살아남았다는 점이었다.

일본군의 손실은 항공기 29대, 소형 잠항정 5척, 대형 잠수함 1척 등 아마모도 제독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손상을 입었다. 공격대상 후치다는 항공모함 3척과 연료저장시설을 파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구모 대장에게 작전 경과보고와 함께 한차례 더 공격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훗날 전쟁사적 논쟁을 가져왔듯이 나구모 제독은 재차 공격을 거절하고 귀환 길에 올랐다.

일본 해군의 진주만 기습은 일본 대사의 업무차질로 개선 통보 전에 일방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한 오류가 있었지만, 치밀한 사전계획과 훈련, 항모 조종사들의 우수성으로 일본이 대승리를 거둔 반면, 미국은 국가 지도부의 방임(放任), 현장 야전 지휘부의 경계태세 소홀, 보고 체계의 문제점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술적으로 볼 때, 진주만 기습은 성공한 기습으로 세계 해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 미드웨이(Midway) 해전의 배경

일본이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작전 대 성공으로 미태평양 함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후, 일본 사령부인大本영 내에서는 제2단계작전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해군측은 태평양 방어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와 사모아를 향한 계속 진격을 주장한 반면, 아시아 대륙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육군은 이러한 해군 측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일본군의 전략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大本영은 육·해군의 요구를 조정한 다음, 지금까지의 점령지를 확실히 장악하면서 동시에 외곽요지에 대한 중점적 공략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뉴기니 동남쪽 항구인 모레스비(Port Moresby)와 솔로몬 제도 남부에 있는 툴라기(Tulagi) 섬을 새 목표로 정하고, 더 나아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뉴 칼레도니아(New Caledonia), 피지(Fiji) 및 사모아(Samoa) 섬을 공략 목표로 설정하였다.大本영의 이러한 방침은 방어 태세를 강화하여 적 함대 주력이 접근하여 공격해 오면 이를 맞아 격멸시키자는 계획이었다.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 야마모토는大本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미 태평양 함대의 잔여 세력, 그중 특히 항공모함부대를 격멸시켜야만 일본이 점령지에 대한 권리 주장을 확실히 하고, 향후 평화협상도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야마모토는 결전 장소로서 미드웨이(Midway) 섬을 제의했다. 하와이 서북서 1,150마일 지점에 위치한 미드웨이는 이 당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이곳의 미 해군 전초기지에서 이룩한 정찰기는 하와이로 접근하려는 일본군의 동태를 조기에 경보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하와이의 관문(關門)이나 다름없는 이 섬을 결코 잃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점을 노리고 미드웨이를 공격하면 미 태평양 함대가 유인될 것이고,

그때 미 해군을 괴멸(壞滅)시키겠다는 것이 야마모토의 속셈이었다.

두리틀(James Doolittle) 항공대의 일본 본토공격과

일본의 공세 방향 전환

일본군 수뇌에서 전략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미드웨이 공략으로 종결된 것은 4월 18일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이날 두리틀 대령이 지휘한 16대의 B-25 폭격기 편대가 도쿄에 공습을 가했다. 이 공습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으나, 일본은 매우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으로 인하여 군 수뇌부에서 야마모토계획에 대한 모든 반대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도쿄 공습은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진주만 분노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보복적 성격을 띠었다. 미국은 진주만의 치욕을 갚고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똑똑히 느끼게 해줄 방법’을 찾고 있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육군·해군참모총장이 모여 해결책을 강구하던 중 미 육군 참모 총장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본토가 미국 태평양 기지의 항속거리를 훨씬 넘는 곳에 있었고, 항공모함을 일본 가까이 접근시킨 후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방법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항공모함을 치명적 위협에 빠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수뇌부는 이 위험한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항공모함 호넷 호 비행갑판에 B-25 중거리 폭격기 16대를 싣고 제임스 두리틀(James Doolittle) 대령 지휘 하에 4월 2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났다.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 (1) 항공모함 호넷(Honnet) 호가 일본 500마일로 접근하면 항공기가 발진한다.
- (2) 일본 공습을 마친 항공기는 중국으로 날아가 장제스(장개석)를 돕는다.

4월 18일 항공모함 호넷 호가 미드웨이와 알류산 열도 북부를 연결하는 정도로 접근해서 도쿄에서 650마일 떨어진 곳에 이르자 B-25 폭격기가 발진했다. 발진한 미국 폭격기들은 도쿄와 다른 3곳에 포탄을 투하한 후 4대는 중국, 1대는 소련으로 날아갔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포기하고 중국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렸다. 승무원 80명 중 71명이 살아 미국으로 돌아갔다. 둘리틀의 일본 본토 공습작전은 무모한 작전이었지만 미국에게는 전쟁 승리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고, 일본에게는 그들의 수도가 언제든지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했다. 일본 군부에서는 보다 공세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그 결과,大本영은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야마모토 제독은 태평양 전국(戰局)의 국면(局面)을 결정짓는 열쇠가 미국 태평양 함대, 특히 항공모함을 기축으로 한 기동 함대의 섬멸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국력과 잠재적 군사능력을 비교하여 되도록이면 조기 결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일본의 작전계획

일본은 미드웨이 공략계획을 ‘MⅡ 작전’이라고 정했다. 일본이 미드웨이 작전을 전개하려 한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미드웨이를 공격하여 일본항공기지를 확보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해 미국의 기동함대를 분쇄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하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반드시 반격해 올 것이므로, 그때 일본 연합 함대 전체의 전투력을 투입하여 미국의 기동함대를 분쇄한다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야마모토 제독은 미드웨이 공격 예정일을 1942년 6월 6일로 결정했다. 그리고 각 부대에 다음과 같은 임무 및 행동을 지시했다.<sup>395)</sup>

395)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p.300

- (1) 나가모 제독 휘하의 항공모함 4척, 고속전함 2척, 중순양함 1척, 구축함 12척은 5월 27일 히로시마를 출항하여 6월 4일 미드웨이 근해에 도착하라. 그런 후 공습을 감행하여 미국의 미드웨이 항공병력을 제압하고 동시에 반격해 오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포착 격멸하라.
- (2) 미드웨이 점령대는 해군 육전대 2개 대대와 육군 이찌기 지대장이 지휘하는 육군 1개 연대로 편성하여 수송함 12척에 분승하라. 5월 28일 사이판을 출발하여 미드웨이로 상륙하라.
- (3) 다나카 제독이 지휘하는 제2 수뢰전대의 경순양함 1척과 구축함 11척, 후지다 제독 휘하의 제11항공전대는 미드웨이 점령대가 상륙할 수 있도록 해상 호위를 담당하라.
- (4) 제2함대 사령관 곤도 중장이 지휘하는 공략부대는 고속전함 2척, 중순양함 4척, 항공모함 1척을 동원하여 상륙전대를 엄호하라.
- (5) 기타 연합 함대는 미국 태평양 함대가 출격할 경우 그들을 포착 섬멸하라.

일본의 미드웨이 공략부대를 도표화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일본의 미드웨이 공략부대

부 대	지 휘 관	세 력
주력부대	야마모토 대장	1CVL, 4BB, 1CL, 9DD, 1수상기모함 (16)
경비부대	다카스 중장	4BB, 2CL, 12DD (18)
기동부대	나가모 중장	4CV, 2BB, 2CA, 1CL, 12DD (21)
공략부대	곤도 중장	1CVL, 2BB, 8CA, 2CL, (13)
북방부대	호소가야 중장	1CV, 1CVL, 3CA, 5CL, 3DD, 6SS (19)
선견부대	코마즈 중장	18SS (18)

## 미국의 작전계획

진주만 기습 이후 수세에 몰린 미 해군은 일본해군 주력이 태평양 어디에선가 적극적인 작전으로 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1942년 봄부터 일본 함정 간에 교신되는 무전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어느 곳으로 침략해 올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태평양 함대 정보 과장 레이튼(Edwin T. Layton) 중령과 미 해군 특수 정보부서 책임자 로슈포드(Joseph J. Rochefort) 소령은 일본군 교신에서 입수한 일본 암호 전문 가운데 반복해서 사용되는 AF라는 문자가 그들의 공격목표라고 추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AF가 미드웨이섬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미드웨이의 조수기가 고장 났다’는 평문 무선 보고를 시험 삼아 보내보았다. 이를 후 그들은 웨이크 섬에 있는 일본 도청기지가 ‘AF에 조수기가 고장 나 청수가 부족하다’라는 전보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일본의 공격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킴멜 제독 후임으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된 니미츠(Chester W. Nimitz) 제독은 암호 해독을 통해 일본의 공격목표, 부대 편성, 접근 방향, 공격 일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거의 파악하고 있었다. 니미츠 제독은 우선 순양함 5척, 구축함 14척, 잠수함 6척, 해상초계정, 공중 정찰기, 그리고 공중 공격기를 데오발드(R. A. Theobald) 소장의 지휘 하에 알류산 열도 방어에 투입했다. 니미츠 제독은 최악의 경우 얼어붙은 알류산 섬 키스카(Kiska), 아투(Attu) 등은 포기하더라도, 미드웨이 만은 일본군에 빼앗길 수 없다는 신념하에 모든 전력을 미드웨이 방어에 집중 투입하여 대항 수단을 강구하는 데 열중하였다.

니미츠 제독은 미드웨이 현지로 날아가 현지 실정을 파악한 후, 미드웨이 수비병력과 장비를 증강했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지뢰와 기뢰를 부설하고 공습해 오는 일본 항공기를 떨어뜨릴 대공포를 보강했다. 적의 행동을 살필 정찰기와 공습대를 맞아 싸울 전투기, 그리

고 일본 함대를 공격할 폭격기와 뇌격기 등 121대의 항공기를 배치했다. 그러나 태평양 함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니미즈 제독의 당면 과제는 해상부대의 집결이었다. 그는 우세한 일본 함대를 맞아 싸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전의 주력을 항공모함에 의존하기로 결심했다. 5월 8일에 벌어진 산호해(珊瑚海) 해전(Battle of Coral)에서 항공모함 렉싱턴(Lexington)을 잃었고 요크타운(Yorktown)마저 대파된 현재의 상황에서 니미즈가 참전시킬 수 있는 항공모함은 호멧(Homet)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두 척 뿐이었다. 지난 1월 일본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파손된 항공모함 사라토가(Saratoga)는 샌디에이고에서 수리 중에 있었다.

니미즈 제독은 남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호멧 호와 엔터프라이즈 호를 급히 하와이로 오도록 명령했다. 5월 26일 하와이 진주만에 도착한 두 척의 항공모함은 이틀간 출항준비를 한 후 5월 28일 중순양함 5척, 경순양함 1척, 그리고 구축함 9척과 함께 미드웨이로 향했다. 그들을 제16 기동함대라 명하고 지휘권은 스프루앙스(R. A. Spruance) 소장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샌디에이고에서 수리를 마친 요크타운 호는 5월 27일 진주만에 도착했다. 요크타운 호를 포함하여 중순양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된 이 함대는 제17 기동함대라고 하였으며 지휘관은 플레처(F. J. Fletcher) 소장이었다. 그리고 잉글리시(R. H. English) 소장이 지휘하는 19척의 잠수함부대도 16, 17 기동함대와 함께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도표화하면 <표 5>와 같다.

미드웨이를 공격하기 위한 일본의 야마모토 주력부대는 나구모의 기동부대 후방 600마일에서 동진하고 있었다. 기상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렸다. 기상 관계로 기류나 발광 신호를 할 수 없자, 약한 전파를 사용한 무선통신으로 변칙을 명령하며 전진했다. 기함 야마모토의



전과도청 팀에서도 미국 잠수함이 발신하는 전파와 하와이 방면에서 발신되는 전파를 도청 분석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의 정찰 비행정들도 나구모 기동부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6월 2일 미드웨이 섬 북동쪽 325마일 지점에서 미국의 제16, 17 기동함대가 상봉하였을 때, 일본 나구모 기동함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표 5>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국가	항공모함	수상기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항공기	경항모
일본	5	3	12	24	56	24	246	3
미국	3			13	28	25	344	

6월 4일 4시 30분 미드웨이 전방 240마일 지점에서 나구모 제독은 제1차 공격대를 출격시켰다. 아까기, 카가, 히류, 소오류 4척의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한 제1차 공격대는 수평폭격기 36대, 강하폭격기 36대 그리고 엄호전투기 36대, 합계 108대를 도모나가(友永) 대위가 지휘하였다. 나구모 제독은 미국 함대 출현에 대비하여 순양함 수상기 7대를 출격시켰다. 한편 미드웨이를 떠난 미국 초계기가 일본 폭격대를 발견한 것은 나구모 제독의 제1차 공격대가 발진하기 15분 전인 5시 45분이었다. 곧이어 미드웨이 기지에 있던 항공기는 모두 이륙하여 폭격기들은 일본 항공모함을 향했으며, 전투기들은 일본기와 공중전을 전개했다. 미드웨이 30마일 전방 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숫자와 기량에서 우세한 일본 공격대가 미국 항공기를 제압하고 미드웨이 공습을 감행했다.

그러나 일본의 공습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드웨이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 일본의 1차 공습부대가 미드웨이를 폭격하는 동안 미드

웨이의 미군 폭격기들도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7시 정각 B-26 4대와 TBF 6대가 폭탄과 어뢰를 적재한 채 일본 항공모함에게 돌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공 포화, 항모의 회피기동, 그리고 일본 전투기의 응전으로 미군 항공기들은 한발의 어뢰도 명중시키지 못한 채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고 귀환했다. 미국은 해병대 폭격기, B-17 폭격기를 계속 발진시켜 일본 항모를 공격하도록 했으나 모두 전과를 이룩하지 못하고 귀환했다.

일본은 1차 공격대가 발진할 때 함께 출격한 정찰기로부터 미국 함대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나구모 제독은 부근 해역에는 미국 기동부대가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뇌격기에 장착한 어뢰를 육상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했다. 4척의 항공모함은 일제히 폭탄 교체작업으로 분주하였다. 그럴 때 순양함 도네 호의 정찰기로부터 ‘미국 함정으로 보이는 함정 10척 발견, 미드웨이로부터 거리 240마일, 침로 150도, 속력 20노트’라는 보고가 접수되었다. 확인 결과 기동함대는 미국 항공모함부대였다. 나구모 제독은 미드웨이 공격보다 미국 기동함대와 결전이 더 급박하다고 판단했다. 나구모 제독은 거의 육상용 폭탄을 장착한 뇌격기에게 다시 어뢰를 장착하도록 명령했다. 폭탄 교체 작업으로 분주해진 일본 항공모함에 미드웨이를 폭격하고 돌아오는 1차 공격 항공기가 내리기 시작하자 활주로는 이수라장이 되었다.

미국의 제16 기동함대 사령관 스프루앙스 제독은 나구모 함대의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그의 관할 아래 있는 뇌격기의 전투행동권인 175마일 이내로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함대를 나구모 제독의 함대 쪽으로 접근시켰다. 그는 미드웨이를 공습한 일본군의 제1차 공격대가 모함으로 귀환하여 연료와 탄약을 보급 받는 기회를 이용하여 공격할 계획이었다. 항공모함 호넷과 엔터프라이즈로부터 폭격기 68대, 뇌격기 29대, 전투기 20대를 6시 56분에 발진시켰다. 항공모함 요크

타운에 탑재된 강하 폭격기 17대, 뇌격기 12대, 전투기 6대도 8시 30분에 발진했다. 예상 해역에서 일본 기동함대를 발견하지 못한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들이 기수를 북쪽으로 돌려 비행하던 10시경 비로소 그들은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공격한 일본 항공모함은 아까기와 카가였다.

또한 요크타운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은 일본 항공모함 소오류에게 집중폭격을 가했고, 폭탄은 갑판에 명중되었다. 때마침 연료를 가득 채우고 폭탄이나 어뢰를 장착한 채 발진 차례를 기다리던 비행기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였다. 무적을 자랑하던 일본 제1 기동함대의 항공모함 4척 중 3척이 불과 10여 분 사이에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까기는 통신 불능상태가 되어 기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기동함대에서는 순양함 도네에 승선한 부사령관 아베 소장이 지휘권을 대행하였다. 그리고 항공작전은 항공모함 히류에 탑승한 야마구찌 소장이 수행하게 되었다. 10시 40분 야마구찌 소장은 생존한 항공모함 히류에 대기 중인 폭격기 18대와 전투기 6대를 발진시켜 미 항공모함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에 3발의 폭탄을 명중시켰다. 이 피격으로 요크타운 호는 타기가 고장 났으며 비행갑판에 큰 구멍이 나는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요크타운의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보수작업을 벌여, 약 2시간 30분 후 요크타운 호는 20노트의 속도로 항진하면서 비행갑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야마구찌 제독은 남아 있는 전 항공기로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나구모 부대의 최후 공격대는 뇌격기 10대와 전투기 6대였다. 그들은 응급수리를 끝내고 항진 중인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집중 공격하여 어뢰 3발을 명중시켰다. 요크타운은 항모의 기능을 상실하고 전열을 이탈하게 되었다.

요크타운이 일본 항공기의 공습을 받고 있을 때 미국 정찰기들은 마지막 남은 일본 항공모함 히류를 발견했다.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 24대와 호넷의 폭격기 16대가 출격하여 4발의 폭탄을 명중시켰다. 화재와 자체 폭탄의 폭발로 히류는 전투 불능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1 기동함대의 항공모함 4척 모두 전투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미드웨이 해전의 승패가 결정되었다.

피격된 일본 항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4발의 폭탄이 명중된 일본 항모 카가는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장병을 퇴함시킨 후 함장과 함께 침몰되었다. 3발의 폭탄이 명중된 소오류는 미 잠수함 노틸라스가 발사한 어뢰 3발을 추가로 맞고 침몰되었다. 나구모의 기함인 아카기는 침몰될 위기에 직면하자 승조원이 퇴함한 후 동료 구축함이 발사한 어뢰를 맞고 침몰하였다. 최후로 4발의 폭탄을 맞은 히류도 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승조원이 구축함으로 이송된 후 동료 구축함의 어뢰로 안락사 했다. 이때 아마구찌 사령관도 함장과 더불어 히류와 운명을 함께 했다.

3척의 미국 항공모함 중 유일하게 손상을 입은 요크타운도 끈질긴 보수작업으로 기능을 되찾을 즈음 일본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 4발을 맞고 침몰하였다.

미드웨이 해전을 치르고 난 양측의 전과와 피해를 살펴보면, 미국은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척, 그리고 항공기 150대를 잃고 307명의 전사자를 낸데 비해, 일본은 항공모함 4척과 중순양함 1척 그리고 항모 탑재 항공기 253대를 잃고 유능한 조종사 비롯한 3,500여 명의 전사자를 냈다. 이것은 일본 함대가 16세기 말 충무공 이순신 제독에게 대패한 이래로 처음 경험하는 결정적인 패배였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미드웨이 해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대 항공전으로 대결했다는 특

정이 있다. 또한 일본이 진주만 공습 이래 함대 세력의 우세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왔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수세에 몰렸던 미 해군이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전세가 이렇게 역전된 요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지장비(Sensors), 무기 및 전술은 각각 별개의 것이지만,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한다.<sup>396)</sup> 이 세 가지의 결합은 효과적인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함대가 작전하는 광활한 해역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함대의 고속 기동능력은 각급 지휘관들에게 지휘·통제·통신 및 정보, 즉 C3I 문제가 전투의 승패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호전(Signal Warfare)과 암호 분석(Cryptanalysis)이 해전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해군은 일본 해군의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일본군의 기습적인 작전을 인지하고 공격목표, 부대편성, 접근 방향과 공격일시 등을 파악해 냈다. 이것을 근거로 미 태평양 사령부는 미드웨이의 방어력을 보강하고 남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항공모함 3척을 긴급 소환하여 전쟁에 대비했으며, 마침내 해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둘째, 니미츠 제독은 해전의 주역인 항공모함과 항공기를 미드웨이 에 집중하도록 조치했다. 미국과 일본 간의 전체 함대 규모는 미국이 열세였으나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항공기 숫자는 일본 264대에 비해 미국은 355대로 우위를 보였다.

셋째, 조기경보가 승리의 한 요인이었다. 암호분석으로 일본의 미드웨이 침공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미국은 정찰기를 미드웨이에 전진

---

396) Wayne P. Hughes, Fleet Tactics : Theory and Practice(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6), p.111

배치하여 일본 함대의 침공 예상 방향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6월 3일 미 정찰기가 나구모 기동부대를 발견하여 보고함으로써 미국 기동함대는 유리한 위치에 대기하며 교전준비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전술적 조기경보로는 대공 레이더를 장비한 미국 측이 일본 공습부대의 내습을 사전에 인지하고 요격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사전 준비체제를 갖추었다. 항공모함 함상에서도 항공기 급유와 폭탄 장착을 완료하고 적이 오기 전에 항공기를 이륙시킴으로써 피폭 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넷째, 미국 항공기들은 일본 항공모함의 취약 순간을 이용하여 공격을 실시했다. 미 항공기들이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한 순간은 일본의 1차 미드웨이 공격대가 폭격을 마치고 착함하여 폭탄 재장착과 급유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따라서 미국의 폭탄이 일본 항공모함을 명중시켰을 때 화재가 발생하고 폭탄들이 연달아 폭발함으로써 순식간에 일본 항공모함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섯째, 군수지원 및 함정수리 능력이다. 남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들은 긴급 소집되어 진주만에 입항한지 2, 3일 만에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출전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이 패배한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무리한 2단계 작전계획의 추진이다. 개전 후 제1단계 작전을 조기에 완료하고 기고만장해진 일본은 최초 계획보다 확장된 제2단계 작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확장된 제2단계 작전은 일본의 보급선 신장(伸長)과 세력의 분산이라는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잘못된 세력의 분산 운용이다. 일본은 미드웨이 공략과 알류산 열도 공략을 동시에 추진할 당시 항모 5척, 경(輕) 항모 3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드웨이와 알류산 열도 공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항공모함은 4척뿐이었다. 또

한 야마모도가 지휘하는 전함 중심의 주력부대는 400마일 후방에 위치하는 등 10개의 기동함대 중 실제 전투에 참전한 함대는 3개 함대에 불과했다.

셋째, 기동부대 사령관 나구모 제독의 오판이다. 나구모 제독은 6월 4일 새벽 미드웨이 공격대를 발진시킬 때, 미국이 일본의 계획을 모르고 있으며 미드웨이 근해에는 미 항모부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하루 전에 미드웨이에서 이륙한 미국 정찰기가 나구모 부대를 발견하여 보고하였으며, 나구모 부대에서도 미군 정찰기를 확인 했다. 또한 나구모는 부대의 변침 지시를 위한 전파발사를 했는데 이 전파는 600마일 후방의 야마모도 기함에서도 감청이 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구모는 미국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오판한 것이다.

넷째, 전투 정찰의 실패이다. 일본의 작전계획에는 미드웨이 공격 5일 전까지 일본 잠수함들이 하와이와 미드웨이 사이에 배치되어 미국 기동함대의 출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일본 잠수함이 전개된 것은 6월 5일이었다. 이때는 미국 기동함대가 일본 잠수함의 전개선을 이미 통과한 후였다. 또한 6월 4일 나구모 제독이 실시한 정찰에 있어서도 미 기동부대가 위치한 구역을 정찰하게 된 항공기의 출발지연으로 미 기동함대를 조기에 접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항공기들이 어뢰와 폭탄을 교체하는 도중 피격을 당하는 이중 혼란을 초래케 했다.

다섯째, 일본 요격기 운영의 실패이다. 요격기의 임무는 폭탄과 어뢰로 무장하고 공격해 오는 적기를 방어하는 것이다. 미국 항모에서 출격한 공격대 중 먼저 도착한 뇌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일본 요격기가 고도를 수면까지 낮추어 뇌격기의 요격에는 성공했으나, 고공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뒤에 도착한 미국의 폭격기들이 고공에서 자유롭게 일본 항모를 공격할 수 있었다.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일대 전기를 가져왔다. 진주만 공

습 이래 함대 우세를 유지하던 일본이 이 해전으로 말미암아 퇴주하기 시작했다. 반면 수세에 몰려 있던 미국 해군이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드웨이 해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대 항공작전이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해전의 주역으로 믿어 온 전함은 대포 한 방 제대로 쏘아볼 기회조차 없었다. 해전의 주역이 전함에서 항공모함과 함재기로 변화된 것이다. 특히 잠수함 및 항공기 시대에 들어와서 전투는 입체공간인 3차원에서 진행되었고,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경우 양진형의 거리는 수백 마일에 달하게 되었다.<sup>397)</sup> 항공모함이 추축이 된 미드웨이 해전은 항모 기동부대에 맞는 항모전진형의 틀이 갖추어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항공모함 기동부대에서는 주력인 항공모함이 수상, 수중 및 공중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로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구성된 경계진에 의하여 방호되었다. 대잠수함 방어를 위해서는 곡선 경계진(Bent-line screen)이 유리하였으나, 항공모함의 경계진은 원형 경계진(Circular screen)이 최선의 진형이었다. 원형 경계진은 비행작전 시 어느 방향으로든 침로변경이 용이하고 균등한 방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었다. 각개 항공모함이 단일 경계진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여러 척의 항공모함이 하나의 경계진에 의하여 방호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계진 함정의 척수 그리고 공격화력과 방어화력의 집중과 분산이라는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sup>398)</sup>

결론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은 지금까지의 해전사상 유례가 없는 태평양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믿기 어려운 승리’였으며 항모와 항공기가 미래 해양지배의 필수전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드웨이 해전이야말로 근대 역사를 전환시킨 주요 해전이다.

---

397) Fioravanzo, Guisepp.e. A History of Naval Tactical Thought.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79.

398) Wayne P. Hughes, Fleet Tactics : Theory and Practice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6), pp.89~92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 3년 동안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원을 희생한 대가로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을 하나씩 되찾았다. 또한 미국 잠수함은 일본의 상선에 치명타를 가하여 일본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일본은 영국과 같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전시에는 물자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 했다. 영국이 독일의 잠수함에 고전했던 것처럼, 일본은 미국의 잠수함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미국은 1945년 3월부터 실시된 기아(飢餓)작전에서 약 12,000개의 기뢰를 일본 주변 해역에 부설하여 상선 670척 약 140만 톤을 격침하거나 대파시킴으로써 일본의 모든 해상교통을 마비시켰다. 일본은 개전 시에 600만 톤이었던 상선대를 거의 상실하여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500톤 이상 상선 2,534척, 톤수로는 약 8,897,000톤을 격침하였는데, 그 가운데 1,152척 약 4,861,000톤이 미국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통상파괴전으로 말미암아 전쟁 말기에 가서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었고 산업이 거의 마비되는 파멸의 궁지에 몰렸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은 만약 전쟁이 1946년까지 계속되었다면 적어도 7백만 명의 국민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sup>399)</sup>

그러나 전쟁을 끝낸 것은 일본의 목을 서서히 조여 들어갔던 잠수함이나, 일본 본토로 육박해 들어가고 있던 미 육군, 혹은 해병대가 아니었다. 전쟁을 끝낸 것은 장거리 폭격기였다. 1945년 8월 6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결국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다. 이는 핵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해전의 성격은 다시 한 번 혁명적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

399) Robert Goraski, World WarII Almanac(NewYork : Bonanza Books, 1981), p.417



제7장  
현대 전쟁



## 1. 핵무기의 출현과 새로운 전략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단 1개의 폭탄으로 약 13만 명이라는 엄청난 살상력을 가져오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인류 최대의 비극인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핵무기의 등장과 사용은 지금까지의 전쟁의 양상과 전략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하였다. 브로디(Bernard Brodie)는 히로시마 원폭투하 사건을 듣고 ‘이제까지 전략에 대해 그가 써놓았던 모든 것이 구시대적(舊時代的)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라고 탄식한 것으로 알려 졌다.<sup>400)</sup> 그러나 이로부터 45년 후 ‘Sea Power in the Machine Age’와 ‘A Layman’s Guide to Naval Strategy’<sup>401)</sup>를 쓴 학자들에게 이 같은 판단은 오류가 있었거나 기껏해야 절반만 맞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 핵 강국 또는 핵 초강대국 간의 전쟁은 다시는 1945년과 똑같은 전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건 안 되건 간에, 핵보유 강대국 간의 전쟁은 핵전쟁 또는 핵 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냉전 시대 미·소등 핵보유 강대국들은 소규모 분쟁이 대규모 핵전쟁으로 자동 확산되는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이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 미국과 나토는 유럽에 대한 소련의 재래식 공격 첫날부터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핵심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3년 소련이 수소탄의 실험을 마침으로써 미국의 핵무기 독점 시대는 끝이 났고, 소련이 핵보유 강대국가로 등장하였다.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들어선 이후 미국과 나토

400) Greg Herken, *Counsels of War*(New York: Alfred A. Knoph, 1985)

401) Bernard Brodie, *Sea Power in the Machine Age*(Princeton, N. 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1) 및 ‘A Layman’s Guide to Naval Strategy’ (Princeton, N. J.:Princeton University Press,1942)

그리고 소련은 핵을 사용한 강대국 간의 전쟁은 단기간의 격렬한 대량보복으로 상호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즉, 핵무기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전투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대량 보복의 핵전쟁은, 결국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게 되었다. 전쟁 당사국은 핵을 이용하여 쌍방 교전국의 사회 전반을 모두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어느 측도 핵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자명했다. 따라서 상호 파멸이라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속에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였다. 즉, 핵 보유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을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 필요하도록 하였으며, 상대 핵무기에 대한 적극적 대비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미국은 적으로부터 설령 1차 핵공격을 받더라도, 생존한 단 몇 척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SSBN, SSN)에 장착된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Sea Launch Ballistic Missile)로 제2 타격을 가하여, 상대를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mutual mass destruction) 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핵무기 사용을 단념케 하여, 핵전쟁을 미리 억제케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대량 보복 전략이 국지 방위에 무용하다는 약점이 노출됨에 따라 전면적인 핵전쟁과 제한전쟁 등 모든 형의 전쟁에 대응한다는 신축반응(flexible response)전략이 1960년대에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핵무기는 전쟁의 확대를 방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도구로써, 자기보존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전쟁은 핵전력(核戰力)의 존재 하에 비핵전쟁(非核戰爭), 즉 재래식 제한전쟁(制限戰爭)으로 한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들어서서도 전략 핵무기 개발과 발

전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특히 미 해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증가되고, 함대 대공 방어력이 향상되었으며, 그리고 소위 ‘스타워즈(star wars)’로 통하는 우주에서의 미사일공격과 방어 시스템의 개발 등이 국가정책으로 발표되면서 미국과 소련 두 국가는 더욱 핵무기 개발과 발전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 해군은 우세한 잠수함 기술과 인적 전술 기량 그리고 함대 대공 방어에 힘입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소련 영해나 연안 지역에서 해전을 수행함으로써 대서양에서의 미래 전투를 원천에서부터 승리하도록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공세적인 해양전략 개념은 북해와 대서양의 해상교통로를 무력화하려는 소련의 해상, 해중, 또는 공중기도를 수동적으로 방호하기보다는, 보다 북쪽인 소련 영해나 연안 지역에서 해전 및 공중전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방호하겠다는 개념이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련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함대에 대한 이론적인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 전략 핵 균형이 확전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소련에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념적인 구상이었다.

소련 역시 핵무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쟁이 발생할 시 소련 해군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가 증가한 SSBN 세력을 증강, 연안에 배치하고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으로 접근하는 해상교통로에서 적극적인 해전을 통해 확고부동한 해양 통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냉전 후반에 미·소 양 진영은 장기적인 전쟁을 위해 진지한 방어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 악화로 구소련의 붕괴되자, 미·소 간의 전쟁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미·소 간의 세계적인 무력 분쟁이 오래 동안 혹은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탈냉전 이후에도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위협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

어나고 있다. 민족, 종교, 자원 등이 얽혀지면서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 전쟁의 양상은 감시 및 통신위성 등을 동원한 고도의 정보력과 정밀 타격력에 의한 네트워크 중심전이나 전자정보전에 입각한 전쟁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구(舊)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 군사 장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는 석유·천연가스 수출과 무기 판매를 연계해 들어오는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를 증강해 군사적 자신감을 되찾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확증생존전략(MAS)에 의한 미사일 방어(MD)체제에 대응해 상호확증 파괴전략(MAD)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인 ICBM 및 SLBM을 개발 증강 배치하고, 유럽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의 보유 상한선을 정해 초과 부분은 폐기하기로 한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 이행을 중단함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경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방패를 뚫는 창을 러시아가 개발하고, 미국은 또다시 러시아의 창을 무력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 새로운 과학기술의 진보와 해군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나타난 과학기술의 진보는 당연히 해군력의 발전과 그 운용에 있어서 급속한 진보와 질적 변혁을 불러왔다. 과학기술의 진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사실상 무진장이라 할 수 있는 핵에너지 사용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핵추진 체계의 도입은 무한정이라고 할 만큼 함정의 항속거리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함정의 공간과 인력 그리고 연료비를 절약하게 하는 이



점을 안겨주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기동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전투 시의 기동 속도도 크게 증가했으며, 장기간 잠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은 항공모함 등 수상함과 상선 해운의 방어에 있어서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sup>402)</sup> 또 미국은 전략폭격기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보다 은밀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SSN)에 탑재, 실전용으로 배치함에 따라 강력한 공격과 방어능력을 갖추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 전쟁에서 획기적인 추진체계를 장치한 고속함정이 등장하였다. 현재 각국에서는 쌍동선(SWATH, Small-Water-plane-Area Twin-Hull), 활주형선(PAR-WIG, Power-Augmented Wing-In-Ground-effect), 표면 효과선(SES, Surface-Effect Ship), 공기부양정(ACV, Air Cushion Vehicle) 및 수중익선(hydrofoil) 등의 고속 추진장치 함정이 연구, 개발 또는 실용단계에 있다.<sup>403)</sup> 특히 공기부양선은 상륙정 또는 소(小)해정으로 그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이러한 함정은 소형인 점과, 내해성, 건조비 등으로 인하여 연안용 함정으로만 건조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대형화된다면 주요 전투함정의 지위를 갖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고속함정의 등장은 또한 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967년 10월 21일 포트사이드(Port Said) 근해에서 이스라엘의 구축함 Eilat(1,710톤)가 이집트 해군의 코마(Komar)급 유도탄정에서 발사한 소련제 스틱스(Styx) 대함유도탄에 명중되어 격침된 사건은 사상 최초로 유도탄에 의하여 전투함이 격침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후에 유도탄은 제4차 중동 전쟁

---

402) Till, Modern Sea Power(London : Brassey's, 1987), p.31

403) Till, Modern Sea Power(London : Brassey's, 1987), p.33

(1973), 포클랜드 전쟁(1982) 및 걸프 전쟁(1991)에서 수행된 해군전에서 매우 유용하고 위협적인 무기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유도탄은 사정거리, 정확도 및 살상력에서 함포, 어뢰, 폭탄 등 종래의 해군 무기를 능가했던 것이다.

대함(對艦)유도탄의 탑재는 원래 소형 고속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엘리엇(Eilat)의 격침은 이미 100년 전에 신흥학과(Jeune Ecole)가 예측했던 대로 대형함에 대하여 소형함이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sup>404)</sup> 그리하여 고속유도탄정이 현대적 함정에서 하나의 타격 세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1960~1970년대에 노르웨이, 서독, 덴마크,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유도탄정 건조에 착수하였다. 그 후 유도탄의 사정과 정확도가 증가하였고, 유도탄의 전투 효율성 증대와 함께 유도탄 운반체도 점차 대형화 및 다양화되었다. 이제 유도탄은 함정의 무기 체계에서 선두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였다.<sup>405)</sup>

스틱스(SS-N-2 Styx, 사정 25nm), 엑조세(Exocet, 23~40nm), 사이렌(SS-N-9 Siren, 60nm) 또는 하푼(Harpoon, 70nm)과 같은 비교적 단거리 대함유도탄(Anti-ship missile)도 표적함의 방어 체계 밖에서 발사된다. 보다 장사정의 순항유도탄(Cruise missile)에 속하는 토마호크(Tomahawk, TASM, 250nm), SS-N-19 대함유도탄(Shipwreck, 2,243nm) 등은 표적함의 방어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대함유도탄의 발사체(Platform)는 고속정으로부터 대형 순양함에 이르는 각종 수신전투함, 잠수함, 헬리콥터를 포함한 항공기 그리고 육상기지 발사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함유도탄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먼저 그 발사체를 격파하는 것이

---

404) Till, Geoffery. Maritime Strategy and Nuclear Ag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 p.176

405) Gorshkov, Sergei G. Red Star Rising at Sea.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78, pp.205~206

다. 걸프 전쟁 시에 연합군 해군에게는 이라크가 보유한 각종 대함유도탄, 즉 미라주(Mirage) 기, 슈퍼 웨르롱(Super Frelon) 헬리콥터, 유도탄 고속정에서 발사되는 엑조세(Exocet)와 오사(Osa)급 유도탄정의 스틱스(Styx) 그리고 실크웜(Silkworm) 지대함 유도탄이 큰 위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사체들은 조기에 무력화되어 연합군 함정에 게 아무런 위해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먼저 궁수를 쏘는 것이 화살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이치와 같다.<sup>406)</sup>

방어함정은 접근해 오는 유도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자대항책(ECM, Electronic Countermeasures)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4차 중동 전쟁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채프(Chaff) 탄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방어함정은 기동으로 레이더 피면율(皮面律)을 최소화하거나 연안, 협만 또는 섬에 접근하여 유도탄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함정은 대함유도탄의 위협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형화, 고속화, 기동성 강화 및 분산이 유리하지만, 한편으로는 점(點) 방어(Point defense) 또는 구역방어(Area defense)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항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형화 및 집결이 유리할 수 있다. 전투함정은 보편적으로 점(點) 방어를 위하여 근접 무기 체계(CIWS, Close-In-Weapon-System)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공 및 대유도탄 방어를 위한 최첨단 체계로서는 Aegis 체계가 등장하였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탐지, 감시 및 통신장비의 혁신적인 발달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자시대(Electronic age)에 들어와 수상, 수중 및 공중의 각종 탐지 및 감시 체계가 혁신적으로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양은 너무나 광대한 곳이다. 인공 위성을 비롯한 감시 장비의 다양한 발달로 말미암아 기만은 어려운 것처럼 보여 지지만, 전자 시대에 있어서도 허위 신호의 조작으로 인하여 기만의 가능성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sup>407)</sup> 더욱이 무기의 사정이

406) 김종기, “걸프전쟁 분석”, 『해양연구논총』제9집(1992), p.166

증가된 만큼 조기경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였다고 보겠다. 현대전이 ‘먼저보고 먼저 쓰기’ 경쟁인 조기경보전, 전자전 및 유도탄전의 양상이 되었다는 것은 제4차 중동전쟁, 포클랜드 전쟁 및 걸프 전쟁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다.

현대적 함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 위치한 부대의 통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통신 체계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함대는 다양한 부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과 수중,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적인 부대의 통제를 보장하는 통신이 필요한 것이다.<sup>408)</sup> 오늘날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예하부대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시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인지도 모른다. 현대전의 양상이 복잡하고 함대의 구성요소가 다양한 만큼, 지휘, 통제·통신 및 정보(C3I)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함대의 건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전투함의 공격 및 방어능력의 적절한 결합을 결정하고 무장, 자동화, 항해속력, 항속거리, 독립작전 능력 그리고 승조원의 주거환경 등과 같은 요소들을 결정하는 데 노력이 집중된다. 잠수함의 경우에는 여기에 부가하여 잠함심도, 소음, 유리한 속력 등이 결정된다. 함정의 배수톤수는 합당한 제한범위 내에서 이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인 소망과 함께 건조 목적에 부합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의 능력구비와 같은 기본적인 논점이 고려되어 결정된다.<sup>409)</sup>

오늘날 해군 공격 무기의 사정과 정확도 그리고 파괴력이 증가하는 데 비하여 표적의 대상인 함정은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

---

407) Till, Geoffery. Maritime Strategy and Nuclear Ag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 p.179

408) Gorshkov, Sergei G. Red Star Rising at Sea.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78, p.209

409) Gorshkov, Sergei G. Red Star Rising at Sea.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78, p.186

한 경향은 대형 표적으로 노출될 때의 불리함보다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함정을 다기능화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상전투함의 대유도탄 방어에 있어서 개별함으로서는 점 방어를, 다수함으로서는 구역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배려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전투함이란 적보다 해상에 오래 생존해 있음으로 해서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수상전투함에선 구축함보다 한 수준 낮은 호위함에 이르기까지 헬리콥터의 탑재가 보편화되고 있다.

함재 헬리콥터가 수직상륙작전, 대기퇴진 및 대잠전에서 유용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함재 헬리콥터는 조기경보, 수상함전 및 대잠전에서 능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해군전에서 헬리콥터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걸프 전쟁은 연합군 해군이 헬리콥터를 포함한 구축함/호위함의 다양한 공격의 해상 전격전 양상을 잘 보여 주었다.

잠수함도 정속화, 대형화, 고속화 그리고 핵 추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 역시 잠수함의 장점인 은밀성, 기동성, 항속거리를 증대시키고 다양한 공격 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 보겠다. 특히, 중류급 해군인 인도가 최근에 핵잠수함(SSN)을 획득하였고, 캐나다, 브라질 해군이 핵잠수함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핵잠수함의 보유국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일부 선진국 해군은 스텔스 함정(Stealth ship)의 건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 해군은 이미 스텔스 함정의 원형을 건조하였고, 1993년에 수상전투함의 스텔스화 계획인 해양음영(Sea Shadow)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은 그프루언스(Spruance DD-963)급 구축함과 올리브 해자드 페리(Oliver Hazard Perry FFG-7)급 호위함의 레이더 피면율(Radar cross section)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은 함정의 외형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부구조에 레이더파 흡수자재(RAM, Radar-Absorbing Material)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레이더파 흡수자재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및 프랑스 해군의 일부 함정에서 이미 사용되어 레이더 피면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스라엘 해군의 엘리트(Eilat Sa'as V)급 고속정은 특수한 외형인 레이더 저피면율 설계를 채택하였고 동시에 레이더파 흡수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410)</sup>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스웨덴 해군은 12년 동안에 모두 28척의 스텔스 함정을 건조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스텔스 함대를 갖게 되었다. 스텔스 함정은 재래식 함정에 비하여 원거리에서 탐지되는 것을 피하고 적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함정을 위한 또 다른 전술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술연구에서는 공격전술은 물론이고 점증되는 항공기와 레이저 유도폭탄(LGB, Laser-Guided Bombs)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sup>411)</sup>

## 2. 현대전과 해양력

핵시대에 들어와서 항공력의 발달은 해양력의 유용성을 저하시켰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도 해양력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기여하였다. 1945년 이래 현대 전쟁과 관련하여 해양력이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극적이고 중요한 전략적 배경이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해양력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입한 모든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만약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

---

410) Norman Friedman, "Stealth Applied" Proceedings(July 1993), p.86

411) Jane's Defence Weekly(4 Sep. 1993), p.10

있더라면 미국은 캐나다 남부나 멕시코 북부보다 더 벗어난 곳에서는 전쟁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에서 미국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상군과 우방국에 대한 군수지원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미국이 강력한 해양국가가 아니라면 세계적인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없이 미 군사력은 해양 건너 필요한 곳에 투사될 수 없다. 항공력과 우주 능력으로도 많은 것들이 수행될 수 있지만 지속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비(非)도발적인 전방배치를 수행하거나 대량물자의 수송을 위해서 해양력을 대체할 만한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우세한 해양력을 위한 대체물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력은 승리의 산과였으며 수세기에 걸쳐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가능케 하는 변수였다. 사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을 제외하고 심지어 핵무기에 의존하였던 동·서 냉전 기간 중에서 해양력의 성과는 전략이 기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었다.

특히 제1·2차 대전 시 우세한 해양력에 의해 승리가 가능하였다는 똑같은 진리는 1991년 UN의 대 이라크 전쟁에도 적용되었다. 미 항공모함과 연합군 해군의 해상 전개, 해상 봉쇄작전, 해상 수송작전, 항공전 및 해상전, 상륙전, 기뢰전 등의 수행은 1·2차 세계대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었다.

걸프전에서 승리는 1990년대 들어와서도 해양력의 전략적 기능이 중착점에 와있지 않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더욱 각인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1991년 걸프전에서 과시되었듯이 미 해군은 항공모함과 재래식으로 무장된 순항 유도탄에 가공할만한 항공력을 통합하여 전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거기다

가 미 해군은 우주 체계를 수용하는 과정에 착수하였다. 우주 체계 수용의 전략적 이점은 2002년 이후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핵 시대에 와서 우세한 해양력이 전략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위협을 받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재래식 해군력과 공중 및 우주군사력을 통합하여 미 해군을 선례가 없을 정도로 어떤 해군들보다도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통합된 해양력은 그들이 수행한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였다.

어디를 보든, 또 어떻게 보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해양력이 보유한 고도의 기능은 확실하다.

탈냉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는 새로운 위협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과 중동국가의 전쟁, 포클랜드 전쟁, 이라크와의 전쟁 그리고 9·11 테러 이후의 세계는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Global war on terror)’에 빠져 있다.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이 좋은 예가 된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 주었듯이, 미국 해군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입한 모든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특히 9·11이후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국 해군은 강력한 해양력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고, 세계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장에서는 과학기술의 진보로 변화된 전쟁 양상을 보여준 제4차 중동 전쟁, 포클랜드 전쟁, 걸프 전쟁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보겠다.



### 3. 제4차 중동 전쟁

- 10월 전쟁

#### 전쟁의 배경

아랍과 이스라엘은 한 전쟁이 끝나면 곧 다음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그들의 역사는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졌다. 1967년 6일 전쟁으로 알려진 제3차 중동 전쟁(1967년 6월 5~10일)에서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상실하고 참담한 패배를 한 아랍 측은 실추된 아랍의 자존심과 명예를 어찌한 방법으로든지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나세르(Gamal Abd al Nasser) 대통령은 아랍 세계를 단결시키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재건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소규모 도전을 계속하였다.

1967년 7월 이집트의 소규모 특공대 공격으로 시작된 소규모 도전은 포격전, 게릴라의 침투공격, 항공전 등 1970년 8월까지 도전과 보복으로 이어진 전면적인 소모전쟁으로 계속되었다. 소모전쟁으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스라엘은 1969년 후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공군으로 이집트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고 특공대로 이집트의 전초기지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세작전은 소련의 군사원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집트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소모전쟁이 정규전쟁 못지않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면전쟁을 원치 않는 소련과 미국의 설득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970년 8월 8일 정전협정에 동의하였다.

이 소모전쟁 기간에 루마니(Rumani) 해전과 포트사이드(Port Side) 해전이 발생하였다. 1967년 7월 12일 이스라엘의 구축함 엘리엇(Eliat)과 어뢰정 2척이 시나이 반도 서쪽에 위치한 루마니 해안에서 이집트의 소련제 어뢰정 편대를 조우하여 2척을 격침시켰다.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이집트 해군은 10월 21일 포트사이드 해안에서 이스라엘 해군 기함인 엘리엇(Eliat)을 소련제 스틱스(Styx) 미사일로 공격하였다. 이날 17시 32분에 포트사이드 외해에서 초계 중이던 엘리엇(Eliat)은 포트사이드 항내에 있던 코마(Komar)급 유도탄정에서 발사된 스틱스(Styx) 2발에 명중되어 기동력을 상실하였고 약 2시간 후에 세 번째 미사일에 명중되어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이 포트사이드 해전은 해전사상 최초로 미사일에 의하여 전투함이 격침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해전이였다.

1970년 9월 나세르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임 대통령에 취임한 비교적 온건한 사다트(Anwar Sadat)는 선지(失地)<sup>412</sup>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평화적인 외교적 방법을 시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이해 대립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상 고착 노력에 따라 결국 점령지로부터 이스라엘군을 외교적으로 철수시키고자 했던 사다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973년 3월에 사다트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다트는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연합작전으로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여,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괴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어 6일 전쟁에서 잃어버린 시나이와 골란 고원을 회복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웠다.

이집트는 6일 전쟁의 교훈과 이스라엘의 능력에 대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전쟁준비를 하였다. 우선 대대적으로 군을 개혁하여, 장교와 사병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장병의 사기 양양과 더불어 전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수단인 항공기와 기갑부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SAM) 체계와 대전차 화기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도하할 수 있는 신형부교와 이스라엘이 운하 동쪽에 쌓아놓은 모래방벽<sup>413</sup>을 뚫을

---

412) 시나이 반도, 골란 고원, 예루살렘

413) 바레브(Bar Lev) 방어선

수 있는 고압력 펌프를 도입하여 연습과 훈련을 반복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6일 전쟁에서 확보한 시나이 반도의 바레브 방어선과 요새화된 골란 고원을 믿고 아랍 측의 전쟁준비와 위협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세 차례의 큰 승리로 인한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벨도 없는 아랍군’이 먼저 공격할 리 없고, 공격해 오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아랍인에 대한 멸시에서 비롯된 자만적인 분위기였다.

제4차 중동 전쟁인 10월 전쟁(October War/Yom Kipp.ur War)은 10월 6일 14시 정각에 아랍 측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군부, 특히 지상군은 우선 기습을 당한 사실에 놀랐고, 그 다음은 아랍군의 진격속도와 전투능력에 당황했다. 마지노선이라고 자랑하던 바레브 방어선과 골란 고원이 이집트와 시리아군에 의하여 여지없이 무너진 데 대하여 이스라엘 지상군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저력이 있었다. 초전에 패배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먼저 골란 고원 전역에 집중, 시리아와 치열한 항공전과 기갑전을 전개하여 방어에 성공한 뒤, 14일 시나이 반도에서 사상 최대의 전차전을 전개하여 이집트군의 공세를 일단 저지하였다. 골란 고원의 전선이 안정되어 수에즈 전역에 주력을 할 수 있게 되자, 10월 16일 수에즈 운하를 도하하여 역습을 개시하였고, 이집트군의 제3군이 완전히 고립되었다. 전세가 불리해진 시리아는 10월 22일에, 이집트는 10월 24일에 유엔의 정전 결의에 동의하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 해전의 경과

전쟁 초기에 방심과 자만심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상군과 달리, 10월 전쟁은 해전의 측면에서 볼 때, 해전 사상 최초로 유도탄정사이의 미사일 교전이 전개되었다는 점과 해전의 결과가 일방적이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0월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에서는 ‘이스라엘 고위층은 아랍군과 이스라엘 해군에 의하여 기습을 받았다’<sup>414)</sup>라는 익살스런 논평이 나왔다. 이러한 논평은 아랍군의 기습이 효과적이었다는 것과 열세였던 이스라엘 해군이 예기치 않았던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집트 해군은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으로부터 유도탄 고속함정을 원조받아 꾸준히 해군력을 건설하여 전쟁 개시 전에 이스라엘 해군력보다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 해군은 1967년 10월 이스라엘 구축함 엘리엇(Eliat)을 스틱스(Styx)로 격침시킨 포트사이드 해전의 결과에 도취되어, 자만심 속에 그들에게 적합한 전략과 독자적인 전술 개발에 무관심했고 훈련도 소홀히 했다.

한편 이스라엘 해군은 엘리엇(Eliat)의 피격을 거울삼아 예상되는 장차전에 적합한 해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이스라엘 해군은 대양작전이 아닌 연안작전을 전제로 경제적이며 기동편성에 융통성을 갖는 소형 전투함을 개발하고, 이들 함정에 최대한의 화력을 장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스라엘 해군은 1969년 12척의 자르(Saar)급 유도탄정의 선체를 프랑스에 발주하여 구입하였고, 여기에 그들이 개발한 가브리엘(Gabriel) 미사일을 장착하였다. 그리고 자르(Saar)급 보다 화력이 두 배나 강하고 비교적 넓은 지중해와 홍해에서 작전이 가능한 레셰프(Reshef)급 함정을 건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브리엘(Gabriel)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긴 스틱스(Styx) 미사일에 대한 대항책을 강구, 스틱스(Styx)의 공격에 대한 회피 기동훈련과 대유도탄 사격훈련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집트 해군의 작전개념은 전략적 수준에서 지중해 연안과 홍해 방면의 이스라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고, 전술적 수준에서 육군을 지원

---

414) Shlomo Erell, "Israeli Saar FPBs Combat Test in Yom Kippur War" Proceeding(Sep.1974), p.115

하는 작전에 집중한다는 것이었다.<sup>415)</sup> 그리하여 지중해 방면에서 시리아 해군이 이스라엘 해군을 견제하는 동안 이집트 해군은 이스라엘 연안을 따라 공격하기로 하고, 이스라엘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잠수함과 구축함을 지중해에 전개하였다. 그리고 홍해 방면에서 이스라엘의 석유항로를 차단하고 지상군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함 2척과 잠수함 2척을 홍해에 전개하였으며, 수에즈 만 입구에 기뢰를 부설하였다. 동시에 홍해에 전개된 유도탄정과 어뢰정으로 샤름 엘 셰이크(Sharm El Sheike)를 봉쇄하여 아카바(Aqaba) 만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석유항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스라엘 해군의 작전개념은 적극적인 공세작전으로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해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아랍 측 해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적을 발견하는 대로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해군은 유도탄고속정전대를 제1방어선으로 배치하여 적이 이스라엘 연안에 접근하기 전에 적의 수역 또는 항구에서 적의 해군을 공격하여 적의 공격의도를 분쇄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뢰정과 고속 경비정으로 제2방어선을 형성하여 제1방어선을 돌파한 적의 상륙돌격, 특공대 습격 또는 포격으로부터 자국의 연안을 방어하고자 계획하였다.<sup>416)</sup>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이스라엘 해군은 지중해 방면에서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먼저 시리아 해군을 격파한 후, 이집트 해군을 격파하기로 하였다.

#### 라타키아 해전(Battle of Latakia)

라타키아 해전은 시리아 연안의 라타키아 항구 근해에서 이스라엘 해군과 시리아 해군 사이에 전개된 해전으로 사상 최초로 유도탄함

415) Asharf M. Refaat, "How the Egyptian Navy Fought the October War" Proceedings(March 1995), p.96

416) Martin J. Miller, Jr. "The Israeli Navy; 26 Years of None-Peace" Proceedings(Feb, 1975), pp.51~52

정 간의 해전이였다. 이스라엘 해군은 아랍 측이 기도한 봉쇄작전을 분쇄하고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시리아 해군을 격파하고자 출동하였다. 레세프(Reshef)급 1척과 자르(Saar)급 4척 함께 5척의 유도탄정으로 편성된 이스라엘 전대는 개전 당일인 10월 6일 시리아 연안을 향해 출동하였다.

라타키아 연안으로 접근하던 이스라엘 전대는 초계 중이던 시리아 어뢰정 1척을 발견하고 이를 포격으로 격침시켰다. 시리아 해군은 이스라엘 해군을 유인하여, 매복작전으로 유도탄공격을 가할 참이었다. 이스라엘 전대는 23시 30분경에 거리 37,500m에 위치한 시리아의 유도탄정으로부터 5발의 스틱스(Styx)공격과 6분 후 제2차로 5발의 스틱스(Styx)공격을 받았으나 피해가 없었다. 양측은 유도탄과 포사격을 주고받는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스라엘 전대의 기함 레세프(Reshef)는 거리 20,000m에서 최초로 접촉한 시리아 소해정 1척에 가브리엘(Gabriel) 3발을 발사해 명중시켰다. 이스라엘 전대의 나머지 함정들이 시리아 유도탄정을 향해 고속으로 분산 접근하면서 양측은 미사일공격을 주고받았다. 이 해전에서 이스라엘 해군은 피해가 전혀 없었던 반면에, 시리아 해군은 이스라엘 가브리엘(Gabriel) 유도탄에 오사(Osa) 1척, 코마(Komar) 1척, 소해정 1척이 격침되었다.

#### 다미엠테-발라틴(Damiette -Balatin) 해전

10월 8일 야간에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 다미엠테-발라틴 사이의 연안에서 발생한 이 해전에서는 이스라엘 유도탄정 6척과 이집트의 오사(Osa) 4척이 참가한 해전으로, 이 해전은 해전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전자전(電子戰)이 등장하여 전자전의 우열이 전투의 승패를 입증해 준 해전이였다.

이집트 연안을 초계 중인 이스라엘 전대는 전자전지원책(電子戰支援策, ESM)으로 이집트 오사(Osa)를 탐지하면서 접근하였다. 00시

12분에서 00시 15분 사이에 이집트 오사(Osa) 편대는 접근하는 이스라엘 전대가 50,000m에 이르자, 스틱스(Styx) 12발을 일제히 발사하고 즉시 반대 방향으로 퇴피하였다. 이스라엘 전대는 스틱스(Styx)공격을 받자 분산 기동하면서 채프(Chaff) 탄을 발사하며 전자전지원책(ECM)을 실시하였다. 고속으로 접근한 이스라엘 전대는 사정권에 도달하자 가브리엘(Gabriel)을 발사하였다. 이 결과 이집트의 오사(Osa) 3척이 격침되었고 1척은 도주하다가 연안에 좌초되어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해전이었다.

10월 전쟁은 사상 최초로 유도탄정 사이의 미사일 교전이 전개된 해상전투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특히 유도탄과 전자전 해전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해전이었다.

10월 전쟁에서 아랍 측 해군은 외형상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한 공헌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열세한 이스라엘 해군에게 시리아 해군은 격파당하고 이집트 해군은 무력화되고 말았다. 따라서 아랍 측 해군은 이렇다 할 공세작전을 한 번도 수행해 보지 못하고 항내에 퇴피하여 소극적인 방어만 수행하였던 것이다. 아랍 측 해군은 이 해전에서 유도탄정 12척을 포함하여 모두 39척의 함정을 상실하였다.<sup>417)</sup>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 해군은 적극적인 공세작전을 전개하여 단 1척의 함정 손실도 없이 지중해와 홍해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해군은 아랍 측의 해상침공이나 특공작전을 저지하여 자국의 연안방어임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국의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해군은 시리아와 이집트의 연안을 공격하여 주요 군사시설 및 산업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었고, 아랍 측으로 하여금 부득이 자국의 지상군을

---

417) Ze'ev Almgog, "Israel's Navy Beat the Odds" Proceedings(March 1997), pp.107~108

연안방어에 투입케 함으로써 지상군 분산을 강요해, 이스라엘 지상군이 반격과 역습의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유리한 조건하에서 전쟁을 종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수행된 해전을 통해서 장차 해전의 양상과 그에 관한 주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전쟁의 준비와 수행에 있어서 과거 전쟁의 경험과 교훈은 매우 유용하다. 10월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아랍 측에서는 지상군의 경우에, 이스라엘 측은 해군의 경우에 지난 6일 전쟁의 교훈과 경험이 크게 활용되었으며 유용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스라엘 해군은 작전해역의 특성과 전략 개념에 맞게 연안용 해군으로 소형 고속함정에 유도탄 등 최대의 화력을 결합시켜 경제성과 기동성 및 융통성 있는 함대를 구성함으로써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해군은 끊임없는 전술 교리의 연구 개발로 아랍이 보유한 스틱스(Styx) 미사일 대항책을 준비, 완전 무력화시킴으로써 시종 유도탄전으로 전개된 해상전투에서 결정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제4차 중동 전쟁에서 보듯이 미래의 해전은 본격적으로 전자전 시대에 돌입하였고 ‘먼저 보고 먼저 쏘기’의 경쟁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첨단장비의 확보와 운용능력의 향상은 각국 해군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함정 승조원의 전투의지와 기량은 전투력의 필수적 요소이다. 비록 현대 전쟁이 ‘단추 전쟁(Push Button War)’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첨단 과학 무기를 다루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의 의지와 전투기량은 어느 요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4차 중동 전쟁이 또 한 번 보여 주고 있다.



## 4. 포클랜드 전쟁(Falkland Islands War)

### 전쟁의 배경

영국으로부터 7,000해리, 아르헨티나로부터 동쪽으로 400해리에 위치한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sup>418</sup>)는 1592년 영국인 데이비스에 의하여 발견된 이래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나중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아르헨티나 사이에 영유권 분쟁 대상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불법적 점령’을 주장하고 영국은 ‘최초 발견 이래 합법적 지배’를 주장하면서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어 온 곳이었다.

아르헨티나는 1930년대부터 군사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다. 1981년에 12월에 집권한 갈티에르(Leopoldo Galtier) 장군은 독재와 무능으로 인해 반정부 시위 등 정치적 혼란과 국내불안에 부딪혔고, 강제 시위 탄압으로 군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나빠지자, 군부는 여론을 돌리는 탈출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갈티에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를 무력으로 공격함으로써 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국민통합을 시도해 보려고 했다.

영국은 1980년 당시 보수당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총리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경제는 쇠퇴국면에 있었고 실업율도 높았다. 영국은 바야흐로 2등 국가로 전락하는 중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포클랜드까지 해군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 점령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 설사 전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훨씬 유리할 것이며, 시간을 끌면 베트남 전쟁처럼 영국 국내 여론이 나빠져 영국이 전쟁을 중단할 것으로 예측했다. 말하자면 아

---

418) 스페인어로는 Islas Malvinas

르헨티나 대통령 갈티에르가 모험을 건 것은 그의 남성 우월 주의적 사고방식과 오만에 기인했다. 그는 포클랜드를 무력으로 점령하더라도 대처(Margaret Thatcher) 여성 수상이 이끄는 영국정부가 허락하기 때문에 7,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포클랜드를 재탈환 하려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1947년 미 대륙 국가들끼리 체결한 리오 조약<sup>419</sup>)으로 미국은 아르헨티나를 돕지는 않더라도 중재를 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군부는 믿었다.

1982년 4월1일 아르헨티나는 영국에게 국교단교를 통보하고 특공대와 해병대를 주축으로 2개 기동부대를 출동시켜 4월2일 포클랜드 제도와 4월 3일 포클랜드 제도 동남동 780마일에 위치한 사우드 조지아(South Georgia)를 각각 점령하였다.

그러나 대처 수상은 아르헨티나의 과소평가와는 달리 강력한 반응을 나타냈다. 4월 3일 영국의 대처 수상은 의회에서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의 영토이며, 정부 목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제도에 대한 영국의 행정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sup>420</sup>)라고 천명하였으며, 영국의 대규모 해군 기동부대(task force)가 남대서양을 향해 출동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과거 어느 남자 수상 못지않은 결단으로 즉각 군사행동 개시를 지시했다. 영국 의회가 자신의 사임을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금은 힘을 모으고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여 포클랜드 전쟁의序幕이 올랐다.

#### 참가 세력 및 작전계획

4월 5일 영국은 우드워드(John F. Woodward) 해군 소장의 지휘하에 항공모함 2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5척, 전투함 26척 등 총 43척의 함

---

419) 외부의 침입이 있을 경우 서로 협력한다는 미 대륙 국가들 간의 조약.

420) Bruce W. Watson and Peter M. Dunn, Military Lessons of Falkland Islands War(Boulder; Westview Press, 1984), p.139

정파, 헤리어 전투기 38대, 헬기 150대,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 8천 명을 기동부대로 편성하여 축차적으로 남대서양을 향해 출동하였다.

영국 해군 기동부대는 군사적 목표를 포클랜드 제도의 군사적 탈환에 두고 계절적으로 겨울인 6월이 닥쳐오기 전에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단기 속전속결전략(短期 速戰速決 戰略)을 수립하였다. 우선 영국 해군은 포클랜드 섬 주위에 200해리를 봉쇄구역으로 선언하고, 핵추진 잠수함으로 아르헨티나 해군의 해상작전을 봉쇄하고 항공모함의 엄호 아래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수행한다는 3단계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영국 기동부대의 포클랜드의 재탈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항모 1척과 잠수함 4척 전투함 33척, 쉬페르-에탕다르(Super-Étandard) 전투기 5대, 미라주-III(Mirage-III) 전투기 40대, 지상군 12,500명을 동원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해군과 공군력을 총 동원하다시피 했다. 아르헨티나군은 원거리 해역에서 작전하는 영국 기동부대의 군수문제와 동계작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위하여 장기 지구전전략(長期 持久戰 戰略)을 채택하였다. 또한 비행장 활주로를 확장하고 방어병력을 증강하여 영국군의 전력을 소모시키며 상륙을 저지하려는 하였다.

### 전쟁의 경과

4월 21일 영국은 기동부대 도착에 앞서 먼저 해군 및 공정대 특수부대에서 차출한 정찰대를 사우스조지아 섬에 상륙시켜 정찰임무를 수행한 후, 4월 25일 75명의 영국 해병대와 특수부대 요원이 영국 구축함과 호위함의 함포사격지원을 받으면서 사우스조지아를 공격하여 아르헨티나 수비대의 항복을 받았다.

4월 29일 영국 기동부대가 포클랜드 해역에 도착하자,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주변 200해리 해역을 봉쇄구역 선포하고, 이 해역에 들어오는 영국 함정과 항공기를 적성으로 간주하여 공격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4월 30일 영국은 포클랜드 주변 200해리 해역을 전면봉쇄구역(TEZ, Total Exclusion Zone)으로 선포하고, 영국 기동부대는 5월 1일부터 남대서양의 공중우세와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하였다.

5월 1일 공중급유를 받은 영국의 Vulcan 폭격기의 포트 스탠리 비행장 폭격으로 시작된 포클랜드 전쟁은 이후 상호 치열한 항공기의 대규모 공습전과 지상, 항공기, 함정 상호 간 미사일 공격, 양측 잠수함의 수상함에 대한 어뢰공격, 함포사격 등 예상 외로 격렬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상호 많은 피해를 입혔다. 특히 5월 2일 아르헨티나 해군은 항공모함 베인테싱고 데 마요(Veintecinco De Mayo)를 포함한 1개 전대,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General Belgrano)를 포함한 1개 전대, 그리고 구축함과 호위함으로 구성된 2개 전대, 도합 4개 기동전대를 편성하여 200해리 봉쇄구역 외곽에서 현시(顯示, presence)하고 있었는데, 그중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General Belgrano)가 포클랜드 남서 약 225해리 해상에서 영국의 핵잠수함 SSN Conqueror가 발사한 MK-8 어뢰 2발에 명중되어 침몰하였다.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General Belgrano)가 침몰하자 아르헨티나의 나머지 기동부대는 자국의 연안 해역으로 철수하여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도중에 양국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영국은 기동부대 전방에서 레이더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영국 구축함 셰필드(Sheffield)와 코벤트리(Conventry)가 아르헨티나의 슈퍼에탕다르(Super Etendard) 기에서 발사한 엑조세(Exocet) AM-39 미사일과 공중폭격으로 피격 침몰하였다. 한편 영국은 최종인 목표인 포트 스탠리에 직접 상륙작전을 전개할 시, 양측 간 수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포트 스탠리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수비대가 없는 반대편 산 카를로스 항에 상륙하여 섬을 횡단하는 작전을 전개하

였다. 이 상륙작전은 아르헨티나군의 허를 찌른 작전이었으며, 영국 상륙 공정부대는 주간 공격을 가급적 피하고, 주로 야간에 기습을 감행하는 용감한 전투방식으로 아르헨티나군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60%가 신병으로 구성된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수비군은 전투경험이 없으며 훈련마저 부족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의식이 희박해져 쉽게 전투를 포기하고 항복해 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다 아르헨티나 군 내부에서 전장 공포 심리까지 퍼져 나가자 것 잡을 수없이 무너져 버렸다. 6월 8일 영국군 공정대가 구스그린과 다윈(Darwin)을 점령하였고, 6월 12일 영국군이 포트 스탠리를 공격하자, 아르헨티나군은 6월 14일 08시 59분에 정식으로 항복하였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측은 전사 255명의 인명 피해를 보았고, 함정 6척이 침몰되고 18척이 손상을 입었는데, 항공기 폭탄에 21척, 엑조세(Exocet) 미사일에 의하여 3척이 피해를 입었다. 항공기는 전폭기 10대, 헬기 등 기타 항공기 27대가 지상포화 및 사고로 손실되었다. 반면 아르헨티나 측에서는 전사 690명, 포로11,845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였고, 함정 침몰 6척 손상 2척이었으며, 전폭기 66대 와 헬기 등 기타 51대가 미사일과 함포 및 기관포에 의하여 격파되었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포클랜드 전쟁은 처음부터 ‘오만에 의한 전쟁’이었으며, ‘실속이 없는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예상 밖으로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아르헨티나에게는 잃은 것만 있는 전쟁이었으며, 영국에게는 상처뿐인 영광만을 남긴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가 제한된 전쟁이었으며, 양국 본토로부터 격리된 지역에서 수행된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전형적인 제한전쟁이었다.

그러나 포클랜드 전쟁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영국 지원이다. 미국은 사이드 와인드 공대공미사일

‘L’형을 영국군에게 공급했고 전쟁 비용을 지원했으며, 특히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으로 파악한 아르헨티나 함정 배치를 영국 해군에 제공했다. 국제무대에서도 미국은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을 침략자로 규정하도록 여론을 주도했다. 둘째는 프랑스에서 생산된 엑조세(Exocet) 미사일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영국 구축함 셰필드 함을 격침시킬 수 있었고, 국제 무기시장에서 엑조세(Exocet) 미사일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또 프랑스제 전투기 쉬페르 에탕다르(Super Etendard)도 훌륭한 폭격기임이 증명되었다.

프랑스 해군이 해상봉쇄 200해리를 선포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폭격기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자 지상에서 발견하여 다시 지상의 비행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르헨티나의 폭격기들은 결정적인 방해를 받았다. 또 아르헨티나 해군이 함정 수는 많았지만 항모를 비롯한 실제 대부분의 함정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건조된 노후한 함정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프랑스에서 도입한 마하 2의 미라주와 쉬페르 에탕다르(Super Etendard)의 활약과 엑조세(Exocet) 미사일의 위력으로 어느 정도 영국군에 저항 할 수 있었지만, 초음속 전투기들이 이착륙 할 수 있는 시설이 항모에는 갖추어지지 않아 항모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프랑스 무기회사의 비협조로 엑조세(Exocet) 미사일을 쉬페르 에탕다르(Super Etendard) 전투기에 장착할 수 없었던 점도 패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아르헨티나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인 베인테싱고 데 마요(Veintecino de Mayo)는 영국의 200해리의 봉쇄구역 선포로 포클랜드와 너무 멀리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모에서 함재기들을 발진 시키지 못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 영국은 항모 2척에서 발진한 해리어 전투기들이 아르헨티나 폭격기들이 공격을 해 오기 이전에 번번이 이들을 격퇴시켜 버리곤 했다. 만약에 아르헨티

나 해군이 포클랜드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더라면 영국 해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군전 측면에서 볼 때 포클랜드 전쟁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첫째, 주요 해군국가의 전투함에 유도탄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로 해군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항공공격이 이루어졌다. 셋째, 해전에서 핵추진공격 잠수함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넷째, 전투에서 수직이착륙기(V/STOL)가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포클랜드 해전은 복잡한 현대 전쟁에서 합동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전승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포클랜드 제도를 재탈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뛰어난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 주었으며 외교적, 경제적 및 군사적 요소를 잘 조정하였고,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휘체제와 지휘권을 간섭하여 작전수행에 혼란을 주는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해·공군 그리고 동원 선박과 민간인 참전자들을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단일 지휘체제 아래 합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전시에 성공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육·해·공군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훈련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 군의 균형전력의 발전 및 유지가 긴요함을 보여 주었다. 육군이나 공군이 아무리 강해도 국외에서는 전쟁 수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전투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 바로 포클랜드 해전이였다.

포클랜드 전쟁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전형적인 제한전쟁이었고, 양국에 상처뿐인 영광을 남긴 전쟁이였다. 영국은 사상자 452명과 항공기 25대, 함정 13척을 잃었다. 대략적인 추산으로 15억 달러의 손실로 평가되었다. 아르헨티나는 630명의 사상자, 항공기 94대, 함정 11척을 잃었다. 당시 GNP 600달러의 아르헨티나로서는 국력을 총동원

하다시피 한 전쟁이었다. 영국의 경제적 파급도 컸지만 아르헨티나는 전쟁 후 악성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1990년에 와서야 겨우 전쟁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전쟁 도발과 전쟁 패배로 아르헨티나 군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결국 정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해야만 했다. 반면 영국의 대처 수상은 집권 기반을 견고히 했고, 또한 전쟁의 승리로 영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유엔과 미국의 분쟁 해결 능력이 의욕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 도중에 일관되게 영국을 지지함으로써 남미 제국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주기구(OAS) 회원국들은 전쟁 도중 아르헨티나를 지지했고, 포클랜드 섬을 아르헨티나에 이양하라고 영국에 요구했지만, 이러한 선언적 지지는 실질적인 무력과 미국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이 보여준 전쟁준비와 수행과정은 현대전에서도 해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전쟁이었다. 세계 각국은 포클랜드 전쟁을 교훈으로 현대전에서의 전투양상과 방향을 도출하는데 분주했다. 특히 미국은 이 전쟁을 교훈삼아 이후 치러진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 5. 걸프 전쟁(Gulf War)<sup>421)</sup>

### 전쟁의 배경

걸프 전쟁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199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3개국 다국적군이

---

421) 걸프 만과 페르시아 만은 같은 의미이다. 아랍 국가들은 페르시아 만이라 부르지만 걸프 전쟁 때 미국의 언론들이 걸프 만으로 부른 이후 걸프 만으로 통한다.



이라크 군대와 대치하면서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무대로 전개된 전쟁을 말한다. 전쟁 장소가 비슷하여 종종 이라크 전쟁과 혼동되지만, 9·11 테러 이후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2002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19세기 중엽까지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오토만 터키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19세기 말에 오토만 제국이 쇠퇴한 이후로 영국이 이 지역에 진출하였다. 이라크는 1932년에 그리고 쿠웨이트는 1961년에 각각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오토만 터키 시대에 이라크의 남부 바스라 주(Al-Basrah)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1973년에 페르시아 만 출구에 위치한 부비얀(Bubiyan) 섬과 와르바(Warbar) 섬의 조차(租借)를 요구하였고, 1981년에 다시 부비얀 섬의 조차(租借)를 요구한 바 있었다.

13억 인구를 가진 이슬람권에서 이란과 함께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인구 2,500만 명의 이라크는 지루하고 성과 없는 이란과의 전쟁<sup>422)</sup>을 수행하느라 외채가 8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전후 복구와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쿠웨이트가 부비얀 섬과 와르바 섬의 조차(租借)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전비 부채 150~200억 달러의 탕감을 거부하였고, 또한 이라크에서 요구한 OPEC 유가의 대폭 인상과 원유의 감산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에 더하여,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국경 지대의 루메일라(Al-Rumaylah) 유전에서 연간 24억 달러 상당의 원유를 불법 채유(採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양국의 회담이 1990년 8월 1일에 결렬되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쿠웨이트의 아미르

---

422) 이란이라크 전쟁, 1980~1988년

(Amir) 국왕이 이라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쿠웨이트가 원유시장에 물량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국제 유가를 하락시켜, 이라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이유를 내세워, 쿠웨이트 공격을 명령하였다. 이로써 걸프 전쟁이 시작되었다.

1990년 8월 2일 현지시각으로 01시 정각, 공화국수비대(Republican Guard) 3개 사단을 주축으로 한 이라크군이, 방위력이 허약한 쿠웨이트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였다. 이라크군은 이 날 19시 정각에 쿠웨이트의 주요 도시를 완전 장악하였으며, 8월 3일 주간에 이라크군은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국경선 부근의 진지까지 탈취하였다. 8월 8일에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행정구역으로 병합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쿠웨이트에 진주한 이라크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침공이었다. 미군이 최초로 배치되기 하루 전인 8월 6일에 이라크군 11개 사단이 쿠웨이트에 배치되었거나 배치되고 있었는데, 이는 2,000대가 넘는 전차의 지원을 받는 20만의 병력으로 쿠웨이트 점령에 필요한 병력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기에도 충분한 병력이었다.

8월 2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위협이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걸프 전쟁을 ‘독재 국가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아랍 세력을 포함한 전 세계를 설득하여, ‘사담 후세인을 응징하자’는 구호 아래 많은 국가들을 집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문제를 UN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석유를 점령하려는 자원 전쟁이 아닌 ‘공정한 세계 질서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쟁’으로 보이도록 여론을 유도했다.

8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고 이라크군의 즉시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제660호를 채택하였다.

미국은 결의가 있는 즉시, 자국 내 이라크와 쿠웨이트 자산을 동결하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산 석유의 수입을 금지시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영토를 통과하는 이라크의 송유관을 폐쇄하도록 조치하였다.

8월 5일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쿠웨이트로부터 모든 이라크군의 즉각적이며 완전한 그리고 무조건적 철수. 둘째, 쿠웨이트의 합법적 정부 회복. 셋째,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 만 지역에서의 안보와 안정. 넷째, 해외 미국인 생명의 안전과 보호였다.<sup>423)</sup>

국제사회의 이러한 외교적 및 경제적 반응은 8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經濟制裁)를 결의함으로써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 사막의 방패작전(Operation Desert Shield)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군대를 철수시켜’라는 유엔 결의안을 거부하고 유엔이 제시한 철수시한을 넘기자, 미국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강제로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였다. 미국은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해 3단계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는 중앙사령부(Central Command, CENTCOM)가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라크의 침공에 대응하여 외교적 수단과 유엔을 통한 통상금지 등의 압력을 가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중앙사령부가 후일에 무력으로 이라크군을 축출하는 군사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이었다.

#### 군사력 증강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사막의 방패작전(Desert Shield)’으로 명명되

---

423) Department of Defence,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April 1992), p.22

있는데, 이 작전 기간 미국의 군사적 목표는 첫째, 사담 후세인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걸프 지역의 방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둘째, 만일 억제가 실패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셋째, 군사적으로 강력한 다국적군을 편성하여 이를 통합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넷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규정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는<sup>424)</sup> 것으로, 그 목적은 장차 이라크의 침공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위하기 위하여 다국적군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에는 미군 43만 명을 포함해, 33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 68만 명이 참가 했다. 다국적군은 페르시아 만 일대에 집결했다. 이라크는 50만 명의 정규군과 5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고, 정예부대인 공화군수비대 병력 15만 명을 이라크 남부 지역과 쿠웨이트 지역에 배치하여 다국적군과 대치했다.

미국은 중앙사령관에는 슈워츠코프(H. Norman Schwarzkopf) 육군 대장을 다국적군과 협의 하에 임명하였으며, 중앙사령부가 쿠웨이트 전쟁을 위한 다국적군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또 슈와츠코프 장군은 특수통합 사령관으로서 예하의 육·해·공군·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을 지휘하여 실질적인 작전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걸프 만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을 당시 미국은 걸프 만 지역에 순양함 1척, 구축함 1척, 호위함 5척으로 구성된 중동 합동 기동부대가 있었을 뿐, 군사기지는 물론 지상군과 육상기지, 공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미국은 인도양에서 항해하고 있던 미 7함대 소속의 인디펜던스(Independence) 항모전투단을 오만 만(灣)으로 급파하였고, 지중해에서 작전하고 있던 아인스하워(Eisenhower) 항모전투단을 이라크 서부를 강습할 수 있는 동부 지중해로 이동시킨 다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8월 8일 홍해로 진입시켰다. 이로써, 인디펜던스와 아인스

424) Department of Defence,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April 1992), p.40

하위 두 항모전투단은 사우디-쿠웨이트 국경선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었다. 이는 위기 발생 지역에, 어떠한 지상군이나 육상기지, 공군부대의 전개에 앞서, 해군력 배치가 가장 먼저 완료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어서 8월 7일 사라토가(Saratoga CV-60) 항모전투단과 전함 위스콘신(Wisconsin BB-64)을 주축으로 한 수상전투단(Surface Action Group)이 미국을 출항하여 홍해를 향해 항진하였으며, 같은 날 미 공군 F-15 및 F-16 대대와 함께 제82공수사단의 일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출발하였다. 동시에 영국, 프랑스가 육·해·공군을 파견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이집트와 시리아 등 여러 아랍국가들도 실질적인 군사력을 전개하였으며, 기타 국가들도 소규모 부대를 파견하였다.

8월 15일에 네 번째 항공모함인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CV-67) 항모전투단이 일본을 출항하여 걸프 해역으로 향하였다. 9월 말에 미드웨이(Midway CV-41) 항모전투단이 일본을 출항하여 아라비아 해로 향했으며, 추가로 전함 미주리(Missouri BB-63)가 페르시아 만에 전개되었다.

1990년 11월 8일 미국 부시 대통령의 걸프 만 현지 미국 군사력을 추가 증강한다는 발표가 있는 후, 레인저(Ranger CV-61)와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CVN-71) 그리고 아메리카(America CV-66) 항모전투단이 추가로 걸프 해역을 향해 출동하였다. 1991년 1월 15일까지 걸프 해역과 홍해에 전개된 미국의 함대는 6개 항모전투단<sup>425)</sup>, 2개 전함 수상전투단, 그리고 이들을 호위하는 상당한 수의 순양함과 구축함, 13척의 잠수함 그리고 4개 상륙 기동전단이 포함되었다. 1개 항모전투단이 통상 1척의 항공모함과 12척 정도의 호위함(순양함, 구축함, 초계함), 그리고 1척의 지원함으로 구성되는 것을

---

425) Independence와 Eisenhower 항모전투단은 교대 후 귀환하였다.

감안한다면, 당시 미국이 동원한 해군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로 막강한 규모였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소련,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스,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이 전투함정을 걸  
프해역에 파견하여, 유엔이 결의한 대(對) 이라크 경제제재와 통상금  
지에 동참하였다.

#### 해상봉쇄작전(海上封鎖作戰)

미국과 영국은 우세한 해군전력을 이용하여 이라크에 즉각적 타격  
을 주기 위해, 많은 함정을 걸프 해역으로 이동시켜 해상봉쇄작전을  
시행하였다. 이 작전의 주요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을 통하는 이라크 석유의 해상 수송을 금지해, 이라크의 주요 수입원  
인 석유 수출을 봉쇄하고, 이라크로 전쟁물자가 반입되는 것을 철저  
히 차단하는 데 있었다. 해상봉쇄작전은 경제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  
으로 군사작전 다음 가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며, 적용대상 국가의 피  
를 말리는 고사작전(枯死作戰)이다.

이러한 해상봉쇄를 통한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  
조하였고, 유엔도 8월 6일에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이라크 무역금지  
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군 세력에 의한 ‘한정적’인  
무력행사를 허용하였다. 이리하여 미국 해군함정에 의한 검문  
(interception)을 시작으로 다른 연합국 해군함정도 곧 봉쇄작전에 합  
류하였다.

이라크는 통상금지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9월 1일 후세인은 식  
량 배급제를 결정하였으며, 14일에는 이를 한층 강화하였다. 후세인  
은 봉쇄를 돌파해 선박을 보내는 개발도상국에게 석유를 무료로 제  
공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제안에 응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또  
정유에 필요한 화학제의 부족으로 가솔린의 배급 제도도 연이어 발

표하였다.

이라크는 당연히 통상금지에 저항하였다. 후세인은 의약품이 없어 이라크의 아동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다국적군을 비난하였다. 후세인의 명령에 따라 일부 선박은 정선 명령에 불응했으며, 몇몇 호전적인 이라크 선장은 소화전으로 상선 갑판을 짓게 하여 헬리콥터 승선 검문반의 착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 일부 상선은 국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표지를 바꾸거나, 라디오 통신검문에서 가짜 배이름을 사용하거나 금제품을 은닉시키는 등 기만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1990년 8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4개국 165척 이상의 다국적군 해군함정이 총 9,000척 이상의 선박을 검문하여 이 중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이라크로 물자를 수송해 가는 60척 이상의 상선에 게 항로를 변경하도록 조치하였다.

#### 해상수송작전

미국이 쿠웨이트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수물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미국은 단기간에 유례없는 공중과 해상수송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방대한 수송작전의 책임은 미국 수송사령부(TRANSCOM, Transportation Command)에게 있었다. 미 공군대장이 지휘하는 미국 수송사령부는 육·해·공군이 관할하는 각 군별 군사수송사령부를 작전통제하고 있었다. 이들 3개 사령부는 각 군의 전투부대와 이들을 위한 장비, 부속품, 보급품, 그리고 연료를 공중과 해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군 관할의 군사해상수송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MSC)는 세계적인 해상수송기구로, 위기나 전쟁이 닥치면, 미군을 해외에 전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해상수송을 담당하는데, 전체 수송화물의 95%와 연료 99%를 담당한다. 걸프전 당시 MSC는 즉

시 운용 가능한 수송선 24척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중 5만 5천 톤급 고속 해상수송선 8척은 미국 동해안을 출항하여 27노트의 속력으로 8,700마일을 항해하여 2주 만에 군사장비와 물자를 걸프 해안으로 수송했다.

또한 해군력으로 방대한 전쟁물자를 모두 수송할 수는 없어서, 민간 상선의 용선(傭船)이 불가피하였다. 미국은 미국 선적 10척, 타국<sup>426)</sup> 선적 35척의 상선과 용선 계약을 맺어 미군 화물을 실어 수송했다. 실제로 제1단계 해상수송작전에 동원된 173척 가운데 49척이 외국 국적의 상선이었으며, 이들 외국 상선이 전체 화물의 15%를 수송하였다. 1990년 11월 미군의 증강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제2단계 해상수송작전이 실시되었다. 이번에는 220척의 함선이 동원되어 사상 최대 수송작전을 전개하였다. 외국 상선의 화물 수송량은 전체의 22%로 증가했다.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에 MSC는 340만 톤의 화물과 680만 톤의 연료를 수송함으로써 전략적 해상 수송능력을 과시하였다. 이 기간에 2,000대의 탱크, 2,200대의 장갑차, 1,000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차량과 중장비가 해상을 통해서 수송되었으며, 전체 화물의 95%가 해상으로 수송되었다.

공군도 일정 부분 수송을 담당했다. 공군 관할의 군사공수사령부(MAC)는 주로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전시수송을 담당하여, 예비 장비와 해병공수여단을 포함한 지원 인원을 수송하는 수송기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공중을 이용한 수송은 수송량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의 차량 및 군수물자의 수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해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해상수송을 위해서라도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대국이나 약소국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

426) 총 11개국



### 사막의 폭풍작전(Operation Desert Storm)

1991년 1월 15일은 유엔이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 철수기한으로 정한 날이었다. 이날이 지나가도 이라크 군대가 철수하지 않자, 모든 것이 준비된 미국과 다국적군은 드디어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작전’을 개시하였다.

‘사막의 폭풍작전’은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이 기간에 중앙사령부의 군사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이라크의 정치·군사 지휘부와 C2 공격, 둘째, 공중우세의 획득과 유지, 셋째, 이라크의 보급선 차단, 넷째, 밝혀진 화생방(化生放) 무기의 생산, 저장 및 운반능력 파괴, 다섯째, 쿠웨이트 내의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격파, 여섯째, 쿠웨이트의 해방이었다.<sup>427)</sup>

1월 17일 대공습으로 시작하여 2월 28일까지 6주 동안 작전은 제1단계 약 1,000시간의 공중폭격과 제2단계 약 100시간의 지상전으로 펼쳐졌다.

### 항공전

1991년 1월 17일 01시 정각에 다국적군은 ‘사막의 폭풍작전’이란 작전명 하에서 대공습을 단행하였다. 대규모 공습은 이라크의 방공 체계, 공군 및 스커드(Scud) 미사일을 공격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차후 공격작전을 위한 제공권을 획득하고, 이라크군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펜서(Su-23 Fencer) 기에 의한 화학 무기 공격을 예방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국적군은 1월 17일 01시 정각에서 02시 정각 사이 페르시아 만, 홍해 및 지중해에 결집한 미국, 프랑스, 영국 함모들에서 최신식 무기

---

427) Department of Defence,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April 1992), pp.96~97

인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Tomahawk Land -Attack Missile, TLAM) 100기 이상을 이라크의 주요 시설과 표적을 향해 발사함으로써 공격을 선도했다. 이어서 미 공군 F-117 스텔스 폭격기를 포함한 수백 대의 다국적군 폭격기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파상공격이 시작하였다. 이 날의 공중공격은 이라크 방공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 중, 순양함 9척, 구축함 5척, 전함 2척, 잠수함 2척 등 미국 해군함정 18척에서 모두 288기의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의 표적은 핵무기 및 화학 무기 시설, 지대공 미사일(SAM)기지, 지휘 및 통제 시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지휘소였다.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의 표적 가운데 85%가 명중되었는데, 이로써 순항미사일의 높은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한편 1월 17일 01시 20분을 전후하여 페르시아 만의 레인지와 미드웨이, 홍해에 배치된 아메리카, 루즈벨트, 케네디 및 사라토가 등 6척의 항공모함에서 EA-6B 대전자기(對戰子機)와 A-6E 공격기가 총 228소티(sorties)를 출격해, 전파방해(jamming) 또는 방어제압(defense suppression)항공기를 이용한 전자방해책(ECM)을 실행함으로써, 이라크의 조기경보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후 다국적군의 항공기들은 이라크의 지휘통제소, Scud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핵·화학·생물 무기 시설 등을 마음 놓고 안전하게 폭격할 수 있었다.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해군과 해병대 소속 1,000대 이상의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가 6척의 항공모함과 2척의 대형 상륙강습함(上陸強襲艦, LPH), 지상기지에서 출격하여, 미 공군과 육군 그리고 다국적군 항공기와 함께 이라크의 미사일 기지, 지휘통제소, 통신시설, 발전소, 비행장, 활주로, 격납고, 생화학 무기 공장, 교량, 그밖에 주요 군사거점을 매일 수천 번씩 폭격하였다. 미국 해군과 해병대 항공기는 전체

다국적군 항공기의 비행임무 113,803소티 가운데 28,328소티를 출격하여 25%의 임무수행 비율을 보였다. 이는 세계 전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인 것이다. 이 폭격으로 이라크 전투력은 지상전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50% 이상 감소되었다. 초기 걸프 전쟁은 공중전이 주였으며, 해군과 공군 지상군의 연합작전이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홍해와 페르시아 만에 전개된 항공모함은 그 위치상 항공전에서 또 다른 이점을 갖게 되었다. 홍해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는 이라크의 남부에 밀집된 대공 미사일 지대를 통과하지 않고 이라크 서부의 주요 항공 기지와, 쿠웨이트와 이라크 남부의 중심지인 바스라(Basra)의 표적에 도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화국수비대에 대한 공격에서 높은 출격률을 가질 수 있었고, 급유기의 지원을 받아 장시간 비행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 해상전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할 당시 쿠웨이트 해군의 일부 함정은 탈출하였으나 유도탄정 8척과 소형 경비정 15척을 포함한 대부분의 함정은 이라크군에 나포되어 이라크 해군에 의하여 운용되었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또 쿠웨이트의 해군력을 장악하여 호위함4척, 초계함 6척 및 5,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다 오사급 유도탄고속정 7척과 고속어뢰정 6척, 경비정 17척을 운용하고 있었다. 주요 해군기지는 바스라와 움카스르(Umm Qasr)인데, 바스라 항(港)은 준설이 필요하여 개전 당시에는 폐쇄되어 있었다.

개전 당시 이라크 해군력은 다국적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다국적군의 해군작전을 방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협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이라크 해군은 자국의 오사급 유도탄 고속정을 비롯하여 구 쿠웨이트 유도탄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항공기와 헬리콥터로 운반이 가능한 다수의 엑조세(Exocet) 대함 유도탄<sup>428)</sup>과 여러 종류의 공대함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라크군은 중국제 Silkworm 지대함 유도탄 발사대를 해안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라크군은 수백 개의 기뢰를 이라크와 쿠웨이트 인근 해역에 부설해 놓고 있었다. 특히 이라크 해군이 보유한 유도탄 고속정들이 자살공격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막상 해상전이 시작되자, 이라크 해군의 자살공격은 없었다.

이라크 해군에 대한 연합국 해군의 공격은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미국 함정에서 출격한 A-6E 폭격기와 영국 전투함의 공대함 유도탄 시 스쿠아(Sea Scua) 탑재 링스(Lynx) 헬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 날 미국 해군의 A-6E 4대가 이라크 소해함 1척과 경비정 3척을 공격하여 격침시키거나 대파시켰다. 1월 23일과 24일에도 미국 해군의 A-6E 와 F/A-18 가 이라크 유조함, 경비함, 호버크라프트, 기뢰부설함과 움카스르 해군기지를 공격하여 이라크 함정 4척을 명중시켰다. 또 소해함 1척이 사우디아라비아 함정에서 발사한 Harpoon 대함미사일에 명중되어 침몰하였다. 특히 1월 24일 미국의 함재 헬기를 탑재한 호위함 Curts(FFG-38)가 육군 무장 헬리콥터, 그리고 해군 SEAL 팀과 함께 약 6시간의 교전 끝에 쿠웨이트 연안의 쿠라 섬(Qurah Island)을 점령하고 이라크군 29명을 생포하였다. 이 섬의 점령은 최초로 쿠웨이트의 실지를 수복했다는 점과 북부 페르시아 만에 설치된 이라크의 관측소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1월 30일 부비안(Bubian Island) 섬과 샤프알아랍(Shatt-al- Arab) 수로 근해에서 해상전이 발생하였는데, 이 해상전은 이라크군의 제 5 기계화사단의 일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연안도시 카프지(Khafji)를 공격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약 20척의 이라크 해상부대가 출항하

---

428) 포클랜드 해전에서 위력을 보였던 프랑스제 대함유도탄

면서 일어났다. 이라크 해상부대를 레이더로 접촉한 영국 호위함 Brazan과 포클랜드 해전에 참가한 구축함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발진한 링스(Lynx) 헬리콥터가 시 스쿠아(Sea Scua) 미사일로 이라크 경비정을 공격하였다. 이라크가 보유한 일부 우수한 고속정은 보유하고 있던 사격통제 레이더를 이용하여 헬기를 조준, 공격할 수 있었는데, 고속정의 진동으로 인해 정확히 조준하는 데 실패하였고, 영국 헬기들은 공격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반면 헬기 유도탄은 소형이었기 때문에 수상함정을 격침시키기 보다는 손상을 주어 기동에 장애를 주었고 이어 폭격기들이 기동력을 상실한 고속정들에게 폭탄을 투여하여 이들을 격침시킬 수 있었다. 링스 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씨 킹(Sea King) 등 헬리콥터와 A-6E 공격기 그리고 영국의 재규어(Jaguar) 전투기가 가세하였으며, 이 결과 17척의 이라크 경비정 가운데 4척이 침몰하고 12척이 손상당했다. 그리하여 개전부터 이날까지 이라크 함정 60척이 격침되었거나 대포되었다.

그 다음날 이라크군 연대 규모 전투단을 수송하는 선단이 출현하였는데, 영국의 호위함에 발견되어 링스 헬리콥터와 A-6E 공격기 그리고 재규어 전투기로부터 시 스쿠아(Sea Scua) 미사일과 로켓, 폭탄 및 기관포 공격을 받고, 선단 중 유도탄 고속정 2척과 상륙함 3척이 격침되었다. 2월 2일 이후에도 거의 매일 이라크 해군과 해군기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다. 특히 2월 3일에는 전함 미주리(Missouri)가, 2월 6일에는 전함 위스콘신(Wisconsin)이 쿠웨이트 연안에 접근하여 해병대와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16인치 함포로 포격을 개시하였다. 이들 전함은 최초로 무인 공중항공기를 실전에 사용하여, 표적에 대한 탄착관측을 실시하면서 포격하였고 차후의 상륙돌격 교두고 확보를 위한 해상시위를 계속하였다.

다국적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종전 시 이라크 해군은, 개전 시 보유하고 있던 호위함 5척, 오사(Osa)급 유도탄고속정 7척을 포함한 79척

대부분이 격침되거나 대파되었고, 생존한 함정은 불과 몇 척에 지나지 않았다. 생존한 함정 중 오사 1척과 Spasilac급 구조함 1척은 이란의 반다르호메이니 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여 졌다. 수척의 하천 경비정이 생존하였으며, 주크(Zhuk)급 경비정 1척이 쿠웨이트에 나포되었다.

### 상륙전

1990년 8월 8일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의 파병을 결정하였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고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상군은 해양사전배치선(MPS)에 장비를 탑재시켜둔 해병대였다. 8월 14일 제7해병대 원정여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공수되었으며, 이후 하와이 등지에서 여러 해병부대가 축차적으로 중동 지역에 증강 배치되었다.

상륙전 부대는 페르시아 만에 도착한 후 31척의 상륙함정에 17,000명의 미 해병대가 탑승한 상륙 기동부대로 편성되었다.

한편, 사담 후세인은 다국적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국경선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 것은 물론 미국 해병대의 상륙돌격에 대비하여 쿠웨이트 해안을 따라 보병,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배치하고 강력한 방어 진지와 포대를 구축하였으며, 해안 지대에 수많은 지뢰와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라크는 다국적군 해군작전을 방해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기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와츠코프 장군은 초기 지상군 공격에 상륙작전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상륙 기동부대에게는 상륙돌격의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그는 ‘쿠웨이트에 대한 상륙돌격이나, 적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는 위협행위도 사막의 폭풍작전 전체 작전계획의 일부분이다’<sup>429)</sup>라고 언급하였다. 상륙 기동부대

는 상륙전 연습 이외에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에 다섯 차례의 소규모 상륙작전과 양동 기만작전을 쿠웨이트 해안과 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해안에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상륙기동부대는 비록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쿠웨이트 해안에 상륙작전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라크로 하여금 다국적군의 주공격이 해상으로부터 직접 쿠웨이트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처럼 기만하였다. 그 결과 상륙기동부대는 최소한 7개 사단 8만 명의 이라크군을 쿠웨이트 해안에 고착시킴으로써 내륙작전에 전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사막의 폭풍작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후세인은 미 해병대 위치를 중시하고 다국적군이 쿠웨이트 남쪽에서부터 상륙작전을 시도하리라고 믿었다.

2월 24일 ‘사막의 칼 작전(Desert Sabre)’으로 명명된 지상전이 시작되었다. 기만작전에 따라 지상군의 공세작전은 미국의 2개 해병대 사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및 기타 아랍군이 쿠웨이트 국경선을 돌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서쪽 사막 지역에서는 기갑부대와 공수부대에 의한 기습 공격으로 순식간에 남부 이라크군 보급선과 퇴로를 끊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지상전의 주공격은 미국 제Ⅶ군단에 의하여 실시되었는데 24일 오후에 미국 제1보병사단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간의 국경선을 돌파하였다

결프 전쟁에서 전쟁 기간 내내 상륙작전의 가능성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슈와츠코프 장군도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륙작전은 기만작전으로 끝났지만, 해상의 상륙 기동부대는 다국적군의 지상군이 이라크군의 서쪽으로 대우회기동(long left hook)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429) Department of Defence,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April 1992), p.229

## 기뢰전

미국은 1990년 8월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할 당시에 이라크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400기의 대함유도탄이 해군에 최대의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이라크가 보유한 상당한 수의 기뢰가 더 큰 위협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략적 관점에서 페르시아 만은 기뢰 부설 해역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페르시아 만은 연안 해저로 되어 있으며 기뢰전에 적당한 수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해역은 대형 선박의 빈번한 통상로로써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라크 전쟁 이래 기뢰 부설작전의 대상 해역이 되었다.

이라크가 부설한 기뢰의 대부분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이 사용한 접촉기뢰(contactmine)였으나, 이탈리아와 소련에서 공급받은 첨단 기술의 자기 및 음향감응 기뢰(magnetic and acoustic influence mine)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라크는 다국적군의 상륙 돌격으로부터 해양 측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말부터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수백 대의 헬리콥터, 소수의 소련제 TU 폭격기와 3척의 상륙함(LSM), 2척의 소해함(MSO), 3척의 소해정(MSI) 등 다수의 기뢰부설 능력을 가진 함정을 동원하여 매일 밤 북부 페르시아 만에 나타나 평균 40에서 80여 개의 기뢰를 부설한 후 낮에는 잠적하였다. 휴전 이후 이라크는 모두 1,167개의 기뢰를 부설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라크는 다국적군 함정에게 손상을 가하거나 적어도 다국적군의 해군작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부 기뢰를 해류를 따라 페르시아 만에 표류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막의 폭풍작전’이 시작된 후 다국적군 대(對) 기뢰전(MCM, Mine Counter-measures) 세력의 기본 임무는 해군 함포 지원과 상륙작전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쿠웨이트 해안에 이르는 통로를 개척하



는 것이었다.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에 미국, 영국, 벨기에, 및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의 소해함과 기뢰 탐색함 16척, 소해 헬리콥터, 상당한 수의 수중 파괴반(UDT) 그리고 수척의 모함과 지원함이 대 기뢰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소해작전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이라크의 소형 수상함정과 특히 Silkworm을 이용한 공중 또는 해상의 공격으로부터 소해세력을 엄호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수상전투함이 지원을 제공하였다.

걸프전에서 다국적군 해군함정의 피해는 유일하게 기뢰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1991년 2월 18일 04시 35분에 북부 페르시아 만에서 기뢰작전을 지휘하던 18,000톤급의 상륙강습함(強襲艦) 트리폴리(Tripoli LPH-10)가 약 300파운드 장약의 계류 기뢰에 접촉되어 4명의 부상자와 함수 우현 흡수선 10피트 아래에 16x20피트 크기의 대형 과공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트리폴리는 기동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헬리콥터 소해작전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트리폴리가 기뢰에 접촉한 불과 3시간도 안 된 07시 17분에 9,600톤급 이지스(Aegis) 순양함 프린스톤(Princeton CG-59)이 2발의 감응기뢰에 의하여 심한 손상을 입었다. 당시 프린스톤은 대 기뢰전 세력을 위한 엄호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기뢰는 함미에서, 두 번째 기뢰는 2~3초 후에 우현 함수 300야드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프린스톤은 동력의 반을 상실하였으나, 미사일 체계와 포대의 작동은 유지할 수 있었다.

1991년 2월 28일 교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대 기뢰전 세력이 작전에 함께 합류하여, 기뢰 제거 및 소해작전은 1991년 9월 10일경에 종료되었다.

이라크가 부설한 기뢰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것이 많았고, 기뢰원도 가해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설치되었지만, 기뢰로 인하여 2척의 대형 전투함이 손상을 당했다. 이

라크의 기뢰 위협은 걸프 전쟁 기간에 다국적군의 거의 모든 해군작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국적군의 상륙작전이 실시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 지상전

다국적군은 2월 24일에 지상전을 전개하여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 군대를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인 이라크는 42개 사단 중 41개 사단이 무력화되었고 15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패퇴했다. 지상전을 개시한지 100시간 만인 2월 28일 전쟁은 끝이 났다. 다국적군은 125명의 사망자를 냈다.

### 해전의 의의와 교훈

걸프 전쟁에서 다국적군의 승리는 충분한 준비로 이루어낸 것이었다. 졸속하게 싸움에 빠져들지 않고 확실하게 전투력의 우세를 확보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한 것이 주효했다.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는 원리가 잘 적용된 대표적 전쟁 이었다

걸프 전쟁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다. 우선 국가 수뇌부의 전쟁 지도력, 현지 전투 지휘관들의 탁월한 전략·전술, 다국적군의 첨단 무기 그리고 이들 첨단 무기를 다루는 숙련된 인원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제병의 협동·합동·연합작전이 전반적으로 성공리에 수행되었다. 반면 이라크가 패배한 이유는 우선 해상봉쇄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라크는 지상전 중심의 장기전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사실 해군봉쇄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는 점은 패전이 이미 예상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걸프 해전은 지금까지의 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노선 시대와 범선 시대의 여러 해전, 제1, 2차 세

계대전 시의 해전, 그리고 현대에 와서 있었던 포클랜드 해전에서도 해군들은 해상에서 말 그대로 한판 붙었고, 그 승패에 따라 전쟁 전체의 승리 패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걸프 해전에서는 이라크 해군력과 다국적군 해군력이 직접 부딪히는 전투는 너무나 미미하고 일방적이었던 데서 이제 해군의 전쟁 기여는 한정적이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다국적군 해군은 공군과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전개된 항공모함과 해병대부대의 활약, 해상봉쇄작전, 군수물자 95%의 해상 수송작전, 상륙 양동작전에서 볼 수 있듯이 해군의 역할은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걸프 전쟁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주요 지역분쟁이었으며, 이 전쟁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의 승리는 전략, 첨단기술, 인적요소의 운용, 그리고 국제협력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으며, 향후의 전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걸프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교훈은 전자기술을 구사한 지휘, 통신, 정보기술의 우열이 승패의 결정적 요소였다는 점이다. 또한 첨단 무기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는데, 야간 투시장비, 무장 헬기, 전파방해기를 비롯한 18종 이상의 각종 첨단장비가 사용되어 전투의 승리에 기여했다. 특히 미 해군이 사용한 토마호크(Tomahawk) 함재 순항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길며 명중 정확도가 높을뿐더러, 타격력이 강하고 한정된 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앞으로도 각종 지역분쟁에서 많은 수요와 역할이 더욱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2002, 2003년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는 더욱 첨단화된 무기와 장비가 걸프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사용되었다.

또 다른 교훈은 평시 해군력 현시(海軍力 顯示, naval presence)가 위기 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인도양과 지중해에서 평시 현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국의 항공모함 Independence와

Eisenhower는 위기가 발생하자 즉각 걸프 만으로 이동하여 지상군부대나 공군부대가 전개되기 3일전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간의 국경선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였다. 이들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초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라크의 군사적 압력을 견제하는 방패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평시 해군력 현시는 위기 발생 시에 국가의 의지를 과시하는 신속한 위기관리 수단으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해양이 개재된 전쟁에서 해양통제권의 확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임이 증명되었다.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다국적군의 해양통제권은 전혀 도전을 받지 않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칫 과소평가되기 쉽지만, 다국적군의 해상봉쇄작전, 해상수송 그리고 전술항공, 함포사격, 상륙작전 등 해양으로부터의 군사력투사가 전적으로 해양통제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되짚어 본다면 결코 해양통제권 확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로, 해양통제권 확보는커녕 경쟁조차도 시도하지 못했던 이라크가 해양으로부터의 포위와 군사력투사에 대하여 자국의 측면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전쟁에서 힘도 못쓰고 패하였던 것을 보아도 해양통제권 확보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해상봉쇄작전이 제1, 2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현대전에서도 적국의 전쟁 수행능력에 타격을 주는 유력한 수단임을 증명하였다. 해전에서 해상봉쇄는 고전적으로 적국의 함대를 봉쇄하는 함대봉쇄와 적국의 통상을 금지시키는 경제봉쇄로 구별된다. 걸프 전쟁에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경제제재라는 측면에서 다국적군에 의한 대 이라크 경제봉쇄 형태의 해상봉쇄작전이 수행되었다. 걸프 전쟁에서 해상봉쇄작전은 이라크의 전쟁 수행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위력을 보여 주었으며, 연합·합동작전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전시 해상수송능력과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미 해군은 다국적군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라크의 해상교통로를 완전 봉쇄하여 석유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이라크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로 반입되는 군수물자를 차단함으로써 이라크의 전쟁 수행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걸프 전쟁에서 다국적군의 지상군부대와 공군부대는 해상으로 수송되는 방대한 군수물자의 지원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상륙전은 여전히 유용함을 보여 주었다. 걸프 전쟁에서 31척의 상륙함과 17,000명의 해병대가 북부 페르시아 만에 전개되었지만, 실제 상륙돌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포사격과 대기뢰작전 그리고 몇 차례 공개적으로 수행된 상륙전 연습에 의한 상륙전의 위협은 이라크로 하여금 다국적군의 상륙전 가능성에 확신을 갖게 하고 이라크의 많은 세력을 분산케 함으로써 전략적 기만전술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현대전에서 상륙전은 결코 진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의 강력한 수단으로써 가치를 유지한다고 보겠다.

현대전에서도 기뢰(Mines)는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무기임이 증명되었는데, 기뢰는 그 크기가 작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며 항공기, 수상함정 그리고 잠수함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은밀히 부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뢰는 이를 제거하는 데 몇 배의 노력을 강요하며, 전략적 및 전술적 그리고 심리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기뢰는 적대국의 해군작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며 통상 해운을 방해할 수 있는, 비교적 낮은 비용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인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 무기라 할 수 있겠다. 걸프 전쟁은 이러한 기뢰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쟁에서 기뢰전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대 기뢰전 능력의 확보는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교훈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1950년 한국 전쟁에서 원산만 상륙작전이 북한군에 의해 부설된 기뢰 때문에 실패한 경험에서 얻어진 교훈이기도 하였다. 기뢰는 낮은 기술의 해군 무기에 속하지만 일단 부설되고 나면 이의 제거가 결코 쉽지 않아서, 1991년 3월 교전행위가 끝난 후에도 제거작업이 계속되어 그해 9월 10일 경에야 종료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기뢰전의 유용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반도는 주변 해역이 기뢰부설에 적절한 수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해상수송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 해군의 대 기뢰전 능력의 확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진다.

또한 걸프 전쟁은 먼저보고 먼저 쏘기 경쟁인 조기경보전(早期警報戰), 유도탄전(誘導彈戰) 및 전자전(電子戰)에 의한 고도의 과학전(科學戰), 신속한 접근, 집중 및 분산을 요구하는 고도의 기동전(機動戰), 수상전투함과 항공기·헬리콥터 결합의 해상전격전(海上電擊戰), 적국의 공중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야간전투능력(夜間戰鬥能力)의 극대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작전에서 해군력의 역할 증대 등 향후 새로운 전쟁 국면과 전투양상을 보여 주었다.

끝으로 걸프전 이후 미국 해군의 전략이 그간의 주된 초점이었던 먼 바다에서의 단순한 해양통제에서 연안과 내륙에 대한 전력투사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우세한 해양력을 먼 바다로부터 (from the sea) 시작해서, 연안은 물론 더 깊숙한 내륙에까지 투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략적 의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우세한 해군력으로 연안에 대해 해안포격, 대지미사일공격, 전술항공기에 의한 공격 그리고 상륙작전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전략을 보여 주었다.

해양력과 해양통제권의 확보는 국가전략을 수행하는 불가결한 요소

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요건임을 잘 보여준 걸프 전쟁은  
향후 한국 국가정책 방향과 우수한 해군력 건설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하겠다.

제2부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개척인물



## 제1장

해양개척의 선구자, 해상왕 장보고<sup>430)</sup>

---

430) 790~841년



## 1. 개요

9세기 초엽 신라 사회는 민생의 피폐와 사회적 혼란으로 기층사회(基層社會)로부터 중앙권력에 이르기까지 점차 갈등이 증폭되면서 통합력이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폭압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唐)이나 일본으로 이주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보고 역시 처음에는 모두 그렇듯이 당(唐)으로 떠난 미천한 신분의 해도인(海島人) 출신 이주민의 한 사람이었다. 810년경 당(唐)에 들어간 그는 강소성(江蘇省) 서주시(徐州市) 무령군절도사의 군사(무령군武寧軍)에 입대하여 출세의 기반을 닦았다. 장보고는 반당(反唐)의 변진(藩鎮) 세력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 30대 젊은 나이에 군중소장(軍中小將)이라는 군직을 받아 출세가도를 달렸지만, 그곳에 영구히 안착하지 않고 828년에 신라로 귀국했다.

장보고가 귀국했을 때의 신라 사회는 당(唐)에서 일어난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 느슨해진 해상 치안의 틈을 엿본 해적선이 서해상에 창궐함으로써 해적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게다가 문왕 때에 와서 국력을 크게 확장한 발해가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쪽 변경을 위협했고, 일본과는 오래 전부터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보고는 ‘청해진대사(淸海鎮大使)’로서 해상에 출몰하는 해적을 소탕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와 당(唐) 그리고 일본을 잇는 삼각무역을 개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당(唐)의 수도인 장안에 이르는 해상 교통권을 장악하면서, 당(唐)을 통해서 연결된 중동과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국제교역의 세계를 주도한 걸출한 해양개척자였다.

## 2. 시대 상황

장보고가 황해를 장악하고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해상 왕국을 건설할 당시, 신라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9세기 초반 하더라도 신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했으나, 중앙집권체제가 점차 붕괴되면서 귀족연합정권이 들어섰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도 서서히 이완되었다.<sup>431)</sup>

신라는 통일 후 무열왕계의 전제왕권이 확립되어 경덕왕 때까지 유지되다가, 이후 점차 왕권이 흔들리게 되었는데, 경덕왕의 한화정책(漢化政策)을 통한 전제왕권의 추구가 귀족 세력의 전면적인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위기는 해공왕 재위 16년 동안 줄곧 계속된 정치적 반란으로 이어졌고, 이른바 왕당파와 귀족 세력 간의 지난한 권력투쟁을 초래하였다.<sup>432)</sup>

정치적인 권력투쟁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력에서 밀려난 무열계의 저항이었다. 예를 들면, 김주원의 아들인 김헌창(金憲昌)과 손자 범문(梵文)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고 대대적인 저항을 했다. 그들의 거사는 김헌창의 부친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원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 반란에는 지방의 여러 군현(郡縣)도 가세하였다.<sup>433)</sup> 김헌창의 반란은 겨우 진압되었으나, 이때부터 지방에 대한 신라 정부 통제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3년 후에 일어난 범문의 반란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었다.

결국, 신라의 국내 정치적 혼란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와 맞물리면

431) 권덕영(權惠永), 『장보고약전(張保臯略傳)』, 『경북사학(慶北史學)』, 제25집, 2002, p.30

432) 문안식(文安植),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상왕국 건설』, 『동국사학(東國史學)』 제39집, 2003, pp.55~58

433) 『삼국사기(三國史記)』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조

서 사회 전체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고 있었다. 그 와중에 백성들에 대한 부역과 조세의 징수는 한층 강화되었고, 국가 권력과 민중 세력 간의 마찰도 점차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다. 게다가 유례없는 기근이 자주 발생하여 지방 사회가 몹시 피해를 겪었다. 흉수와 가뭄이 계속되어 백성들은 굶주렸고, 민심이 흉흉해져 도적들이 사방에서 날뛰었으나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농민 안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민생은 파탄이 나고 백성들은 살길을 찾아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삼국사기』에 의하면,<sup>434)</sup> 헌덕왕 6년(814) 5월에 나라의 서쪽 지방에 큰 흉수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듬해 8월에는 서쪽 변방 주(州)와 군(郡)에 큰 기근이 들어서 도적들이 별떼처럼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헌덕왕 8년(816)에도 농사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고, 이듬해에는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겨울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으며, 헌덕왕 11년(819) 3월에는 초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헌덕왕 代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기근을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sup>435)</sup>

<표 6> 신라 헌덕왕대의 자연재해 및 기근

회수	연도	내 용
1	헌덕 6년(814)	5월, 나라의 서쪽에서 흉수가 발생
2	헌덕 7년(815)	5월, 눈이 내림. 8월 그믐경 일식이 발생. 서쪽 변방에서 기아 발생, 도적이 봉기하여 출병하여 토벌함

434) 『삼국사기(三國史記)』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6년 5월 및 7년 8월조, 8년 정월조, 9년 10월조, 11년 3월조.

435) 高慶錫, 『淸海鎮 張保臯勢力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p.49. 고경석은 원성왕 2년(786)년으로부터 시작하여 흥덕왕 2년(827)에 이르기까지 원성왕대 8회, 애장왕대 1회, 그리고 헌덕왕대 7회와 흥덕왕대 1회에 걸친 자연재해를 대표화했으나 여기에서는 헌덕왕대에 일어난 것만을 취했다.

3	헌덕 8년(816)	1월, 민간에 기아 발생으로 결식자 170명 중국 이주
4	헌덕 9년(817)	5월, 비가 오지 않아 산천이 메말랐고, 7월에 비가 내렸으며, 10월에 사람들이 굶어죽음
5	헌덕 12년(820)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고, 겨울에 기아가 발생
6	헌덕 13년(821)	봄에 백성들이 아사하고, 자식들을 팔아넘김
7	헌덕 15년(823)	7월, 눈이 내림

이렇듯 백성들은 자신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자 그들 스스로 자활의 길을 찾아 해외로 이주했다. 816년 신라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신라 사람 170명이 한꺼번에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 절강(浙江) 동쪽 지방으로 건너갔으며,<sup>436)</sup> 해외 이주는 일본으로도 이어졌다. 811년부터 824년까지 13회에 걸쳐 모두 826명 신라인의 일본으로 건너갔다.<sup>437)</sup> 그들은 식량을 구걸하거나 표류하다가 일본에 다다랐던 것이다.

이렇듯 장보고가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의 신라는 경제적 피폐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비록 국가의 구휼사업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헌덕왕 때 신라의 사회 경제적 기반은 이미 붕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민생의 과탄을 치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장보고는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기에 불안정한 생활에 예외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역시 자활의 길을 찾아 나선 못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타계를 위하여 당(唐)으로 눈길을 돌렸고, 그것이 인생을 바꿔 놓았다.

한편, 장보고가 선택한 당(唐)은 당시 중국의 어떤 역대 왕조보다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나라였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절단과 무역상인 그리고 유학생과 구법승들이 당(唐)으로 모여 들었다. 당(唐) 왕조

436) 『삼국사기(三國史記)』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8년조; 『구당서(舊唐書)』권199, 신라전; 『唐會要』권95, 신라전.

437) 高慶錫, 『淸海鎮 張保阜勢力 研究』, p.34; 佐伯有清, 『朝鮮系氏族とその 後裔たち』, 『古代史の謎を探』, 讀書新聞社, 1973, pp.197~198

는 그들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 문화, 경제활동을 보장했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능력에 따라 입신출세(立身出世)의 길을 열어 주었다.<sup>438)</sup> 따라서 당시 당(唐)은 주변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땅이었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자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였다.

### 3. 장보고와 해상 세력의 후예들

장보고가 당(唐)에서 무령군 소장(武寧軍 小將)이라는 군직과 재당신라인(在唐新羅人)으로서 축적한 부귀를 포기하고 돌연 신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한 학계의 해답은 ‘신라노 약매방지(新羅奴 掠賣防止)’와 ‘무령군 감원조치(武寧軍 減員措置)’다.<sup>439)</sup> 당시 신라 정부는 당(唐)에서 숙위(宿衛)<sup>440)</sup>하고 있던 왕자 김장렴(金長廉)을 통해 중국의 ‘신라노 약매방지’를 요청한 바 있고,<sup>441)</sup> 신라 사신 김주필(金柱弼)이 당(唐) 황제에게 장표문(壯表文)을 올려 신라 노예의 귀국 선편을 요청하기도 했다.<sup>442)</sup> 당(唐) 조정도 신라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러 차례 ‘신라 노예’ 매매 금지를 금지하고, 신라 노비를 귀국시키라는 칙령까지 하달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라노 약매’는 나·당(羅·唐) 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였다.<sup>443)</sup> 장보고와 함께 당(唐)으로

438) Susan Whitfield, 김석희 역, 『실크로드이야기(Life along the Silk Road)』(도서출판 이산, 2003, 초판 3쇄)에 의하면, 8~10세기간 250여 년의 세월에 걸쳐 실크로드 연변의 다양한 군상의 생활상이 묘사되고 있다. 그 중에 상인 나나 이반다크(730~751)의 이야기는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당의 장안까지 연결된 국제무역의 양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439) 이기동, 「장보고와 그의 해상왕국」, 『장보고의 신연구』(완도문화원, 1992), p.97

440) 머물러 지킴

441) 『冊府元龜』卷42, 帝王部仁慈門 元和 11年.

442) 『唐會要』卷86, 奴婢 太和2年 10月.

443) 『舊唐書』卷16, 穆宗本紀 長慶3年 丁月 丁巳朔.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된 정년(鄭年)이 퇴직 후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장보고에게 의탁해 온 사실은 당(唐)이 이사도의 난 진압 후 무령군을 감원했던 것도 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나 장보고의 귀국 목적은 단순한 노비 약탈 매매 방지와 구직에 있지 않았다. 그가 확고한 재당신라인(在唐新羅人)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점을 연계해 보면, 안으로는 남서 해안의 군소 해상 세력을 장악하고, 밖으로는 당과 일본 그리고 청해진을 연결하는 삼각무역을 통해 국제 해상무역을 확보하고자 했던 진심어린 소망이 진정한 귀국 목적이었을 것이다.<sup>444)</sup>

한편, 신라 입장에서든 당시 남서해안에 자생하는 반(反) 신라 해상 세력의 대두를 통제할 친(親) 신라 해상 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김현창의 반란 진압과정에서 239명의 수괴들이 처형되기는 했지만 그를 추종하던 농민들은 정부의 무력 진압을 피해 서해연안으로 피신한 상태인데다, 연이은 가뭄과 황충(蝗蟲)의 폐는 정부의 안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란의 소지로 남아 있었다.<sup>445)</sup> 이러한 상황에서 장보고의 삼각무역 구상과 신라 정부의 서남해 연해민(沿海民) 안주(安住)라는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신라 정부는 장보고에게 1만 명의 병력을 주어 청해진 설치를 허락한 것이다.<sup>446)</sup>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장보고가 본국에 돌아와 대왕을 뵈고 아뢰었다. ‘당(唐)을 널리 돌아다녀 보니,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저에게 청해를 지켜 도적으로 하여금 사람을 잡아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청해는 신라의 바닷길의 요충지로 지금은 완도라 부른다. 대왕은 장보고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지키게 했다.”

444) 최근영,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세력연구』, 신서원, 1990, p.131

445)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10. 元聖王條.

446) 『三國史記』 권44, 列傳4 張保臯 鄭年.



<표 7> 신라에서 설치한 해상군진

진명	설치연대	진장의 칭호	위치	설치목적
패강진	782년	두상대감 (급식, 사중아찬)	평산	발해·말갈 방비
대곡진	782년	위와 같음	평산	위와 같음
시미지진	822년 이전	미상	미상	김현창 반군 진압
청해진	828년	대사	완도	신라약매 방지
당성진	829년	미상	남양	해적 소탕
혈구진	844년	진두	강화도	해적 소탕
북진	884년 이전	미상	안변	여진 방어

청해진이 해상의 요충지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한·중·일 삼각무역을 구상하고 있는 장보고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장보고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준 것은 연해민 안주를 희망한 신라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청해진을 설치한 것을 전후하여 신라 정부는 서남해안에 4개의 군진(軍鎭)을 설치했다. 이를 도표화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듯이 신라 정부가 서남해안에 설치한 진(鎭)은 외적 침입 방비나 반군 진압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진은 군사적 필요에서 설치된 것이지만 청해진만은 해적 소탕과 변민의 생활 안정이라는 치안적 기능이 강했다. 또한 다른 진의 장(將)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진골 관료의 권위를 갖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군을 지휘하는 것이어서 진장(鎭將)이 직접 별도의 군사비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sup>447)</sup>

그러나 장보고의 청해진은 창설 군진인데다 1만여 초병 생활비를 장보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신라 정부가 주었다는 1

447) 장학근, 『張保皋 해상세력과 고려건국의 연계성』, 『STRATEGY21』Vol.4-2, 통권8호, 2001, pp.165~166

만여 명의 병사는 정규군의 통솔권을 장보고에게 이양한 것이 아니라 완도 지역의 변민(邊民)<sup>448)</sup>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만 허가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sup>449)</sup> 당시 신라 조정은 자위 군사력을 유지할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규군 1만 명과 유지 재원을 장보고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sup>450)</sup>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유리(遊離)된 변민(邊民)들을 모집하여 군사적 성격이 강한 해상무역 선단을 조직·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유리된 변민을 해상 선단에 흡수하는 것만으로도 노예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상선단을 조직할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장보고의 입장에서 상선단 운영비가 바로 청해진의 군사 운영비였다. 따라서 그의 구상인 국제삼각무역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때마침 장보고에게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다.

#### 청해진, 해양 진출의 전초기지

장보고가 해양 진출의 전초기지로써 청해진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 때문이었다. 첫째, 경쟁국인 발해의 해상무역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당(唐)은 발해와 신라에게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는 당(唐) 주변국이 연합하여 상국(上國)인 당(唐)의 기존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외교정책이었다. 그런데 733년 발해(渤海)와 말갈(靺鞨)이 당(唐)의 북방 야인정책에 불만을 품고 연합군을 형성, 산둥반도의 등주(登州)를 침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당(唐)의 야인정책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당(唐)은 발해에 대한 응징 조치를 취하려 했다.

---

448) 변방에 사는 백성

449)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1948), p.22쪽.

450) 이기동, 『장보고와 그의 해상왕국』, p.100

그러나 당(唐)은 자신의 군사력만으로 발해를 응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이용하여 신라에게 지원군 파견을 강권(強勸)하였다. 이 같은 당(唐)의 입장은 그들이 당하게 될 발해와 말갈의 원한과 보복을 신라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계책이었다. 당(唐)의 지원군 파견 압력에 따라 신라의 성덕왕은 태복원외경(太僕員外卿) 김사란(金思蘭)에게 신라군을 지휘하여 당(唐)을 돕도록 했다.<sup>451)</sup> 지원군 파견으로 신라와 발해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지만 당(唐)의 해상통제로 발해의 해상무역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에 신라는 항해무역의 경쟁국 발해를 탈락시켜 독점권을 획득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819년 당(唐)의 평로치청절도사(平盧淄靑節度使) 이사도의 반란이 일어나자, 당(唐)은 또 다시 신라에게 원군을 요청했다. 헌덕왕은 순천군(順天軍) 장군 김웅원(金雄元)에게 3만의 군대를 지휘하여 당을 돕도록 했다.<sup>452)</sup> 당시 장보고가 소속되어 있던 무령군은 이사도 반란 진압의 선봉군 임무를 맡았다. 신라 정부의 두 차례 원군 파견과 재당 신라인들의 지원은, 당(唐) 정부가 신라 정부에게 대동강 이남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가시적 혜택을 가져왔으며, 아울러 항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의 경쟁 관계에서 신라가 발해를 압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

둘째, 일본에서는 752년을 기점으로 사무역(私貿易)이 관무역(官貿易)을 압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청해진의 성장과 맞물려졌다. 당시 일본의 대외교역은 국가적인 빈례(賓禮)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대외교역이 천황의 권위를 높이고 천황 중심의 국가적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었기에, 국서의 주상(奏上)과 신물(信物)의 공상(貢上)

451)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10. 聖德王條.

452)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10. 憲德王條.

을 신하들이 도열한 후 천황이 행차하면서 행해졌다. 따라서 일본 사신이나 외국 사신에 의해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빈례로 행해졌고, 관료 기구를 통하여 귀족들에게 재분배되었다.<sup>453)</sup> 사실상 관(官)이 주도하는 무역(貿易)으로 일반 백성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전무했다.

일본 일반 백성들은 해적(왜구)의 약탈물로 부족한 생필품의 일부를 보충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자국 변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안 방비를 강화하게 되자 왜구의 활동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일본 일반 백성들은 절대 부족한 생필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역(私貿易)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8세기 말 신라의 난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신라의 우수한 조선술이 일본에 전수되자 일본의 사무역(私貿易)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sup>454)</sup>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와 외국 사절이 행한 무역을 경사무역(京師貿易) 혹은 평안경무역(平安京貿易)이라고 부른 반면, 지방관과 외국 상인 간에 행한 무역은 민간무역 혹은 대재부무역(大宰府貿易)이라고 불렀다. 일본에서의 사무역(私貿易)은 장보고의 해상교역권 확대와 판매물량 대량화·다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신라 후기에는 왕실, 귀족, 사원이 광대한 전장(田莊)과 노예를 확보하면서 농업뿐만 아니라 가내수공업을 실시하여 잉여생산물이 발생했다. 전장(田莊) 확대로 몰락한 농민들은 잉여생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에 투신했다. 특히, 9세기 초 신라의 관상(官商)체제가 붕괴되는 대신 사상(私商)이 발전하여 대내외 교역활동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농민들에게 교역은 속부지술(速富之術)로 인식될 정도였다.<sup>455)</sup>

453) 李成市, 김창석 역,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pp.117~137

454) 당시 신라의 조선술에 대해서는 김재근, 『장보고 시대의 무역선과 그 항로』, 『장보고의 신연구』(완도문화원, 1992)를 참조.

455) 김창석, 『삼국 및 통일신라의 상업과 유통』(서울대학교사학위논문, 2001), p.151

이렇게 조성된 한·중·일의 국제무역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장보고는 청해진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신라가 당(唐)에 조공한 물품으로는 말·가루금(부금, 麩金)·은·우황·인삼·비단(大花魚牙錦, 小花魚牙錦)·모시(백첩, 白氎布 또는 저삼단, 紵衫段)·모전(毛氈, 머리털)·금차두(金釵頭, 금비녀)·오색기대(五色綈帶, 허리띠)·반흉(班胸), 각종 쇠선자(鑲鑿子, 청동·금·은 등으로 만든 가구 장식용 문양)·영자(鈴子, 장식용 방울)·미통(尾筒, 문방구·귀속속을 넣을 수 있는 통)·모피(毛皮)·칠기류(漆器類) 등이 있었다. 이에 반해 당(唐)이 신라에 회사한 품목은 비단과 금은으로 만든 그릇이었다.<sup>456)</sup>

한편, 일본 귀족들이 신라 상인을 통해 구입 신청한 물품은 거울·화로·향로 등의 당(唐)의 기물과 향료·약물·안료 등 동남아나 서역의 물품, 저울·인삼·송자(갓)·모전 등의 신라 물품이었다. 아마 장보고의 해상교역도 이러한 범위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의 해상교역이 여타의 해상들과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한국과 일본에 중국의 청자를 보급하거나 선종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청자는 철분이 1~3% 정도 들어있는 장식질(長石質)의 유약을 입혀 1,250~1,300℃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자기를 말한다. 중국의 경우 회유토기의 시원은 은대까지 소급되지만, 육조대에 태토와 유약의 질적 발전을 거쳐 당대에 세련미를 나타내게 되었다.<sup>457)</sup>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연유계(鉛釉系)의 연유(緣釉)·갈유(褐釉) 토기와 회유(灰釉) 토기가 생산되어 자기로 이행되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신라에 청자가 급속히 보급된 것은 차와 선종의 확대 보급이었다. 차는 선덕왕대에 보급되었지만 828년 대렴(大廉)이 당에서 가져온 새로운 종자를 지리산에 파종함으로써 전국으로 보급되었다.<sup>458)</sup> 차가 보급됨으로써 다주(茶酒)와 다구(茶具)가 등장했는데, 이

456) 『三國史記』권10, 신라본기10. 景文王條

457) 정양모, 『한국의 도자기』, 문화출판사, 1991, pp.178~179.

는 불교의 헌다공양(獻茶供養)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차를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양질의 다기가 필요했다. 각 사원에서는 헌다공양의 다기로 월주요(越州窯)에서 만든 청자다기를 요구했다. 장보고는 무역품 중 다량의 청자다기를 구입하여 사원과 귀족들에게 공급하였다. 점차 수요가 급증하자 장보고는 국산 청자 생산을 시도하였다.

전남 강진군 대구면과 칠양면,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전북 진안군 성수면 도동리와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원홍리와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평남 강서군 잉치면 이리 등 서남 해안에 초기 청자 가마가 발견되고 있다. 이곳 주변에서 수습된 대접의 형태와 굽의 모양이 ‘햇무리(日暈文)굽’계 청자로 중국 절강성 월주요에서 생산된 청자 대접과 유사하다.<sup>459)</sup> 중국 청자의 ‘햇무리굽’ 형식은 월주요 청자의 주요한 특징으로, 8세기 중엽에 시작되어 9세기 전반에 성행하였고, 9세기 후반에 윤형저(輪形底)로 쇠퇴하여 10세기 이후에는 그 형태가 완전 소멸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8세기 후반~9세기에 걸쳐 ‘햇무리굽’의 청자·백자 대접을 수입했고, 9세기 후반에는 연유와 회유 ‘햇무리굽’ 대접을 자체 제작한 사실을 고려하면 한반도에는 그 이전에 만당 도자기와 그 기술이 장보고가 개척한 해로를 통해 한반도 서남 해안에 유입되었다고 하겠다.<sup>460)</sup>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청자가 생산되게 된 계기가 바로 장보고 세력에 의한 청자 제작과 교역이라고 학계는 추측하고 있다. 초기 청자가마로 판명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요지는 청해진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특히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에는 현재 67개의 요지가 남아 있고 그 중 ‘햇무리굽’ 대접으로 대표되는 초기 청자요지가 절반 이상이다.<sup>461)</sup> 청해진이 장보고 해상 선단의 모항이었고, 중국의

458) 『三國史記』권10, 신라본기10. 興德王條.

459) 정양모, 『한국의 도자기』, pp.180~181.

460) 장학근, 『張保皋 해상세력과 고려건국의 연계성』, p.170.

461) 윤용이, 『한국도요사연구』, 문예출판사, 1993, pp.293~294.

절강성 명주(明州)가 대당무역의 주요 근거지이며 월주요 청자의 적출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보고는 청자의 상품성에 착안했음이 분명하다. 그가 당 나라의 청자 장인을 청해진에 유치하여 인근에서 청자를 제작한 흔적이 바로 위에 보이는 청자요지들인 것이다.

일본에서 출토된 월주요계 도자기는 정제품(精製品)과 조제품(粗製品)으로 양분된다. 그중 초기 무역도자기가 많이 출토된 대재부(大宰府) 유적의 경우 절반 이상이 조제품이다.<sup>462)</sup> 제청자의 선호, 그리고 일반 농어민의 생활용 자기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제품은 신라와 일본 귀족에게, 조제품은 한·일 농어민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8세기 후반부터 청자가 교역품으로 등장하는데, 당의 월주요 청자도 9세기 전반 장보고의 통제 하에 신라와 일본으로 수출된 것이 분명하다. 월주요 청자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자 청자의 상품성을 간파한 장보고는 강진 지역에서 월주요계 청자를 자체 생산하여 수요에 충당했던 것이다.<sup>463)</sup> 당시 청자 공급량은 한일 양국 귀족과 서민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장보고 해상 선단이 청자 판매로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 같은 해상무역에 의한 부는 청해진 군비가 되었다.

장보고의 막대한 재원으로 강화된 청해진은 정객들의 망명지가 되었고,<sup>464)</sup> 군사력은 국왕을 교체할 정도로 막강한 수준이었다. 장보고 세력이 몰락한 후에도 도자기 생산 기반은 고려로 이어져 양질의 청자가 개경의 왕실, 중앙관청, 귀족에게 공급되었다. 해상무역과 도자기로 연계된 청해진과 패강진의 관계는 훗날 왕건의 고려 건국에 인적·재정적·군사적 바탕이 되었다.

장보고의 해상교역이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한 또 다른 기능은 선종

462) 龜井明德, 『アジアなかの日本史』III, 大東出版社, 1992, pp.424.

463) 김창석, 『삼국 및 통일신라의 상업과 유통』, p.162.

464) 『三國史記』권10, 신라본기10. 희강왕 민에왕조.

의 전파이다. 신라 후반 대는 빈번한 왕위쟁탈전으로 진골왕족의 권위가 실추되었고, 왕권 유지의 이념이었던 화엄사상도 퇴색하기에 이르렀다. 신라 민(民)은 새로운 사회와 지도이념을 갈망하고 있었다. 때마침 당나라에는 “불입문자 직지인심(不入文字 直指人心)”의 종지(宗旨)를 내건 선종(禪宗)이 유행하고 있었다. 단지 수행방법에 점수(漸修)를 중시하는 선풍이 동도낙양(東都洛陽)을 중심으로 유행했고 돈오(頓悟)<sup>465</sup>를 중시하는 또 다른 선풍이 광동성 조계산 보림사를 중심으로 성행했지만, 심오한 교리보다 실천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 종지는 같았다. 편의상 전자를 북선종(北禪宗)이라 하고, 후자를 남선종(南禪宗)이라 구분했던 것이다.

신라에서는 최고 집권층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육두품(六頭品) 이하 승려들이 바다를 건너 선종(禪宗)사상을 체득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돈오를 중시하는 남선종에서 선사(僧師)의 자격인 인가(印可)를 받고 귀국했으나 중앙의 왕권다툼에 염증을 느낀 선사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유력자들에게 혁신적 정치이념을 제공하였다. 이들 선사들은 제자들이 수양 정도를 소의경전(所依經典)에 두지 않고 견성오도(見性悟道)로 불심을 전수하여 인가함으로써 일문을 개설했다. 9세기 초에 이르면 신라에는 구산선문(九山禪門)이 개창되어 새로운 형태의 불교가 부흥을 이루었다.

장보고의 불심 정도와 선종 부흥의 기여도를 밝힐 만한 자료는 없다. 단지 원인(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따르면 장보고의 재당무역 기지인 산동반도 등주에 있는 신라사원(赤山院)이 장보고의 시주로 건립되었고,<sup>466</sup> 法華院은 會昌法難 때 전부 파괴되었다. 그러나 장보고의 해상활동 시기에 재당신라인과 해상세력의 지원을 받아 많은 고승들이 당나라에 유학하였던 것을 고려하

465) 불교에서 사용된 용어로 깨달음이라는 뜻

466)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839년 6월 7일.



면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신라해상세력이 선종 부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해로를 이용한 선승들은 도의선사(道義禪師), 보조선사(普照禪師), 홍척선사(洪陟禪師), 적인선사(寂忍禪師) 등을 비롯하여 사굴산문의 효시인 범일(梵日), 성주산문의 효시인 무염(無染), 사자산문의 효시인 도윤(道允) 등으로, 모두 장보고가 확보하고 제공한 해로와 선편을 이용하여 유학하고 귀국하였다. 이들은 몰락한 농민들에게 확대되는 말세의식을 용화세계(龍華世界)의 대망론으로 승화시키고, 다 같이 살고 있는 장소에도 길함을 좇고 흉함을 내치는 차이가 있다는 풍수사상, 지상에서 선한 삶과 염불하는 생활을 하면 도술천 왕생이 가능하다는 미륵신앙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실의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제공하는 이념이 되었다.<sup>467)</sup>

#### 청해진과 패강진(貝江鎭)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강화도 부근 패강 지역 왕건(王建)의 선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왕건의 선조는 당(唐)무역으로 패강 지방 해상세력가로 성장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장보고 관할 산동 반도의 해상무역단 중에 왕청(王淸)·왕가창(王可昌)·왕종(王宗) 등 왕씨 성을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왕건의 선조로 추측되는 인물들이다.

왕건의 선조와 관련된 설화 중 ‘강충의 서강(예성강 입구) 영안촌 부자 집 딸과 결혼’, ‘보육의 평나군 북갑으로 이주’, ‘은혜의 꿈을 꾸 후 두 딸의 출산’, ‘딸 진의와 당(唐) 숙종황제의 패강서포 인연’ 등의 설화는 왕건 선조의 해상무역 관련성을 설명해주고 있다.<sup>468)</sup> 왕건의

467) 추만호, 『신라말 사상계의 동향』,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한국고대사 연구회 편, 1994), pp.40~73

468) 『高麗史』世系 참조.

선조와 장보고의 해상무역단이 교분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청해진이 혁파된 이후에도 왕건 선조는 각 처로 산개된 장보고의 해상무역단원과 동지적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해상무역의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신라인들의 노예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청해진이 국제무역으로 신라와 일본에 부족한 물품을 보급하고 청자라는 신상품을 개발했으며, 선종 수학과 전례에 편의를 제공하여 신라 백성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활동에 기여하고 있던 장보고가 정변에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장보고는 해상교역으로 축적한 부로 청해진 군진 운영과 상당수준의 군사력 유지가 가능했으며, 김우징 등 왕위계승에서 탈락한 진골 귀족들이 청해진으로 피난 와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신라 중앙정치에 개입하게 되어 민애왕(閔哀王)을 퇴위시키고 신무왕(神武王)을 옹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공로로 장보고는 감의군사(感義軍使)가 되었으며, 신무왕이 갑자기 병사하자 그의 아들 경웅(慶鷹)이 왕위에 올랐다. 문성왕이 된 경웅은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려 장보고에게 진해장군(鎭海將軍)이란 직함을 내렸다.

“일찍이 ‘청해진 대사 공복은 일찍 군사로써 아버님을 도와 선 왕조의 큰 도적을 멸했으니 그 공적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하고, 진해장군으로 삼고 겸하여 예복을 내렸다.”<sup>469)</sup>

문성왕이 왕위에 오르는 데 일등공신인 장보고에게 내린 보답은 그가 망명 중 장보고에게 한 약속, 즉 장보고 딸과 맺은 혼인의 이행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국왕의 배필은 반드시 진골이어야 한다’는 신라의 관례였다. 장보고의 신분은 진골과는 정반대인 미천한 신분인 해도인(海島人)이었다. 문성왕은 신라의 관례를 지키면서 장보고와의

469)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11. 文聖王 원년.

약속을 이행하는 묘안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장보고를 진해 장군에 임명하여 그의 신분을 진골로 격상시킨 것이다. 공로자의 직급을 승진시키는 것은 왕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었으므로 이의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신들은 왕이 장보고의 딸과 결혼 하는 것에 강한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이는 진골만이 부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는 신라 귀족들의 경직성이었다. 진골귀족들은 비록 국왕이 인정한 신분격상이라 할지라도 장보고를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진골반열로 인정할 수 없었다.

문성왕 자신도 이 관념의 범주를 넘고 싶지 않았다. 문성왕의 입장에서서는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장보고의 세력보다, 측근에서 자신을 호위하고 통치체제를 비호할 세력이 더 필요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에 일길찬 홍필(弘弼)의 반란사건이 있었고, 그 주모자가 섬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sup>470)</sup> 홍필이 “섬으로 들어가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신라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청해진으로 은신, 장보고의 비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문성왕을 추대하는 데 핵심 세력이며 한때 청해진에 은신한 바 있었던 김양(金陽)의 반대가 가장 극심하였다. 그는 문성왕 정부의 경제와 군사를 책임지고 있는 소판 겸 창부령(蘇判兼倉部令)과 시중 겸 병부령(侍中兼兵部令)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갖고 있었다.<sup>471)</sup>

김양은 “장보고는 섬사람인데 그 딸을 어찌 왕실의 배우자로 삼겠느냐?”는 논리를 전개하여 진골귀족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문성왕의 결혼의지를 강력히 봉쇄하였다. 이에 대해 문성왕은 의리보다 실리를 선택했다. 그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한편, 장보고에게 반란의 혐의를 씌워 그를 제거함으로써 군사적 도전의 소지를 없애려 했

470)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11. 文聖王 3년.

471) 『三國史記』 권44, 열전4 金陽.

다. 그것이 바로 염장을 시켜 장보고를 암살한 사건이었다. 장보고가 암살된 직후 부장 이창진을 중심으로 장보고 암살에 대한 불만 표시가 있기는 했다. 그것은 장보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항거한 것이고, 나아가 청해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염장과와 장보고 잔여 세력 간의 대결이었다.<sup>472)</sup>

신라 정부의 강력한 청해진 혁파정책으로 851년 청해진 주민들은 내륙 곡창 지대인 벽골군(碧骨郡)<sup>473)</sup>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러나 뱃사람인 청해진 사람들은 농업에 적응하지 못한 채 나누·진도·영암 일대와 강화만·이산만, 멀리는 예성강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 청해진의 혁파로 제해권이 상실되자 국익에 결정적 손실이 나타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문성왕은 855년 정월 사신(使臣)을 보내 연해민을 선무하는 조치를 취했다.<sup>474)</sup>

한편, 적인선사 혜철(慧徹), 철감선사 도윤(道允), 보조선사 체징(體澄) 같은 선사들이 장보고의 피살 소식을 듣고 청해진 부근으로 모여 들었다. 그들은 선문을 만들 수 있게 해 준 장보고의 유업을 기리고 장보고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잔존 해상 세력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청해진 근처에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이들 선사들은 모두 당나라를 내왕하면서 장보고와 청해진 선단의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선사들이 청해진 주변으로 모여들자 유학승들과 함께 당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신라 관료가 되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김영(金穎)은 서해안 일대의 군사를 지휘하는 수변부 사마(守邊部司馬)로, 김원(金蓮)은 영암 현령으로, 김언경(金彦卿)은 장흥 부사로 부

472) 『續日本後記』권11, 仁明天皇 承和 9년 정월.

473) 지금의 김제

474) 『三國史記』권11, 신라본기11. 文聖王 13년.

임해왔다. 이들 유학 관료들은 모두 장보고 해상 선단의 도움을 받아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자들이었다.<sup>475)</sup>

신라 조정이 이들 유학관료를 청해진 근교로 보낸 것은 당(唐)과의 외교와 청해진 세력과의 원만한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유학생 출신의 관리들은 청해진 부근의 부임지가 신분 제도의 틀에 묶여 무기력해진 신라 조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상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들 선사들과 유학 관료들은 새롭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다니는 잔존 해상 세력들을 상대하며 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고 있었다.

#### 청해진의 후예, 고려 건국의 초석

신라 후대에 등장한 지방 세력가(地方 勢力家) 중에서 주목되는 집단이 해상 세력이었다. 당시 패자 중에서 일찍부터 국가를 세워 왕을 칭한 궁예와 견훤은 모두 중국과 해상교역에 편리한 포구를 그들의 세력 범주에 장악하고 있었다. 둘 모두 세력 접경 지대에서 육전을 전개해 영토를 넓히는 한편, 서남 해안에서 해전을 전개하여 교역에 유리한 제해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중국 항로와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궁예가 견훤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있었고, 수륙전의 명장인 왕건을 휘하에 두고 있었다.

왕건 가(家)는 대대로 예성강 지역을 근거로 대중국 국제무역과 청해진을 비롯한 서남해안의 각 포구를 연결한 해상무역에서 부를 축적한 지방 세력이었다.<sup>476)</sup> 그러나 왕건 가(家)에는 축적한 부를 독자적으로 보호할 군사력이 없었다. 그 결과, 궁예의 군사력이 송악에 미치자 왕건의 부친 왕룡(王隆)은 막대한 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궁예에게 귀순했다. 궁예 역시 왕건 가(家)를 자신의 휘하에 두어 예성강

475) 장학근, 『張保阜 해상세력과 고려건국의 연계성』, p.176

476) 신호철,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1996, pp.65~70

일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송악 일원을 장악한 궁예는 후백제와 신라가 지금의 합천인 대야성에서 공방전을 전개하는 틈을 타서 신라의 북쪽 국경을 잠식하고, 왕건으로 하여금 후백제 배후인 나주(羅州) 일대를 공략하게 했다. 왕건의 나주경략(羅州經略)은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왕건은 903년 수군을 지휘하여 후백제 영토인 금성군(錦城郡)과 부근 10여 현을 공격해서 차지하였다. 왕건이 나주를 공격해서 차지한 이래, 나주는 5~6년을 제외하고 거의 30여 년간이나 왕건의 영향 하에 있었다.<sup>477)</sup> 나주는 사실 견훤 세력의 발원지였다. 견훤은 군사력 5천과 나주 주민들의 호응을 기반으로 그곳에 국가를 세울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광주 서남 주현을 공격하여 군사 5천 명을 얻었지만 나주에 도읍하지 못하고 전주로 옮겨 도읍을 정한 후 후백제 건국을 선포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견훤이 세력 발원지에 도읍을 정하지 못하고 전주로 옮겨가 후백제를 건국한 것은 나주 일원의 주민과 견훤 세력이 동화할 수 없는 요인이 내재해 있었다고 여겨진다. 동화할 수 없는 요인이란 바로 견훤의 출신과 세력 성장의 배경에 기인한 것이었다.

견훤은 본래 신라 상주 가은현 지방의 농촌 출신이었다. 그는 신라 군졸로서 서남해 방어임무에 공을 세워 비장(裨將)이 된 뒤,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신라에 반기를 들고 거병하였다.<sup>478)</sup>

그곳이 바로 나주였던 것인데, 나주는 영암과 지금의 진주인 강주, 청해진으로 연결되는 해상 세력의 근거지로, 청해진이 혁파된 이후 신흥 군소 해상 세력이 기반을 잡고 있었던 곳이다. 이들은 견훤이 반(反) 신라·백제부흥의 기치를 내세울 때는 호응을 했지만, 견훤의 군사력이 그곳에 정착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착취하거나 통제하는 것

477) 『三國遺事』堅萱 참조.

478) 『三國史記』권50, 열전 堅萱.

은 원치 않았다. 즉 나주의 해상 세력과 견훤의 군진 세력 간에 나타난 이질감은 견훤의 군진화(軍鎭化) 정착에 반발하면서, 왕건의 보호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주의 주민들은 장보고 시대부터 대중국 해상무역을 통해 왕건 가(家)와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sup>479)</sup> 곧 왕건의 가(家)는 장보고의 해상교역단의 일원으로 국제무역과 국내무역에 종사하여 예성강 지역 제일의 부상이 되었다. 청해진이 철폐된 후 벽골굴으로 강제 이주된 해상들이 농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신라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은 연해 지방으로 되돌아갔다. 그중 가장 많은 주민이 나주와 영암 지방으로 이주했으며, 그 일부는 태안반도와 예성강으로 가서 해상무역에 종사했던 것이다.<sup>480)</sup>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항해의 위험에서 서로 돕는 관계를 오랜 기간 지속했다. 이 관계는 누대(累代)의 동지적 우호관계였다. 이를 간파한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우고 칭왕(稱王)을 선언한 지 불과 3년 만에 왕건으로 하여금 나주를 경략(經略)하게 한 것이다. 나주를 공격하여 차지한 왕건은 백제 지명인 금성(錦城)을 나주(羅州)로 고치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켜 후고구려의 군사기지로 삼았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왕건 선대(先代)로부터 맺어온 나주와 송악의 누대적(累代的) 우호관계의 결과였다. 왕건과 견훤의 나주 경략전(經略戰)에서 나주의 주민들이 왕건을 선호한 것은 왕건을 ‘청해진의 영광을 재건’할 동지로 이해했던 것이다.<sup>481)</sup> 반면, 그들에게 견훤은 초기 무진주에서 5천의 군사를 규합하여 신라로부터 독립했으나 자신들의 해상이익을 약탈해 갈 이주민이었다. 그 결과, 나주 일원의

479)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3. 산동반도 지역의 신라 무역상인 가운데 王講·王可昌·王宗 등 왕씨 성을 가진 자들이 많았음은 왕건의 선대와 장보고가 서로 관련성이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480) 최완수, 『당 유학생 출신이 빛낸 신라 탐비미술』(『신동아』8월호, 2001) 참조.

481) 신호철,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pp.126~127

주민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봉착한 나머지 견훤은 세력 발원지를 버리고 전주에서 도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482)</sup>

둘째, 견훤이 동북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배후 견제 세력으로써, 나주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왕건이 적극적으로 나주 일대의 해상 세력을 포섭하였다. 당시 수많은 지방 세력들은 변화하는 군사력의 추이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연계시켜 배반과 호응을 되풀이하였다. 왕건은 나주 일대를 견훤의 배후 견제지로 계속 활용하고 동지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나주 제일의 유력자 오다련(吳多憐)의 딸과 혼인을 하였고 후에 나주, 영암, 승주 지역의 유력자 딸과도 결혼하여 부인이 무려 4명이나 되었다.<sup>483)</sup> 나주 일대의 해상 세력과 근친(近親)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주가 스스로 서남해에서와 복속(服屬)했다.”라고 할 정도로 왕건을 지지하고 후원했음을 알 수 있다. 왕건이 왕위에 추대되는 기간에 나주가 일시 견훤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지만 유금필의 탈환전으로 다시 왕건의 지배로 되돌아온 배경에는 이러한 근친적 결속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나주는 신검의 반란으로 금산사에 유폐된 견훤의 탈출로와 해상귀순 출발지로 이용됨으로써 항상 왕건을 지지한 지역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나주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통제하고 수탈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력과 제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동지적 관계인 해상 세력과의 연대로서 왕건을 동지나 친척으로 이해했다.<sup>484)</sup> 또한 영암 출신 유학자 최지몽(崔知夢)과 선승 도선(道詵)이 왕건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당진 출신의 박술희(朴述熙)와 복지겸(卜智謙) 등이 왕건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한 것은 그들이 모두 칭해진 시대부터 해상무역에 종사했던 해상의 후손들이며 왕건 가(家)와 오랜 기간 교분을 맺

482) 신호철,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p.51

483) 『高麗史』권88, 열전 后妃條 참조.

484) 장학근, 『張保阜 해상세력과 고려건국의 연계성』, p.182



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왕건은 서남 해안 일대, 특히 영산강 하류의 목포(나주)·영암 등지의 지방 세력과 결합하여 전공을 세운 기반을 갖고 중앙정계로 진출해 후에 고려를 건국했다. 청해진의 해상 세력, 특히 장보고의 해상 무역의 외증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선종과 미륵신앙 등은 고려를 개창하는 이념적·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특히, 선종은 그 기본이 수심(修心)과 실천(實踐)으로서 대중들에게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그 종법사상(宗法思想)은 분열된 후삼국을 고려(高麗)라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는 이념으로 승화되었다.<sup>485)</sup>

왕건이 각별히 숭앙했던 선사들을 보면, 선각대사(先覺大師) 형미(迥微, 무주 강진), 동리산파(桐裏山派)의 종주 윤다(允多, 나주), 하진대사(河眞大師) 경보(慶甫, 영암), 법경대사(法鏡大師) 현휘(玄暉, 남원) 등은 백제 출신이며,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당에서 수도한 후 귀국한 선사들의 범손들이었다. 그리고 왕건의 관리들 중에 최지몽(영암), 박영규(영암), 김길(광산), 신승겸(영암) 등은 장보고 시대 해상 세력의 후예들이다. 이들 백제계 선사들과 관리들이 고려 건국 시기에 왕건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후삼국의 통일과 새 시대의 정책 구현에 그들의 힘과 지혜가 반영되었으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이 점이 바로 청해진의 해상 세력과 고려건국이 연계를 찾는 실마리가 된다고 하겠다.

왕건은 송약의 해상 세력이라는 점, 서남해 해상 세력의 후원으로 나주를 정략했다는 점, 북진정책이 고려 건국의 동인이었다는 점, 선종의 내세관이 고려건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려 건국 후 그가 보답해야 할 인사들이 많았다. 그러나 왕건의 인사정책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민족 단일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라 귀족을 우대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승계했고, 적국의 수

485) 이하 장학근, 『張保臯 해상세력과 고려건국의 연계성』, pp.191~192

과 견훤을 상부로 받들었으며, 발해 유민의 귀순을 환영했다. 이와 같은 고려의 통합적 면모는 청해진 시대 장보고의 도움으로 융성하게 된 선종의 이념을 후삼국 통일과 고려건국 이념으로 승화시켜 민족을 융합시킨 지혜의 소산이었다.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7~10세기 기간 한국-중국-일본, 이른바 ‘동아시아 3국’이 보여준 역동성과 활동성이다. 동아시아 3국의 역동성과 활동성이란 3국 간의 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고 활발해졌음을 뜻하는 것으로, 역내의 ‘국제적 교류’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교류가 본격화된 시기에는, 국제적 역동성을 역사 발전의 동력으로 적절하게 유도하고 관리하는 지도자의 선택과 능력, 그리고 이를 대중적 에너지와 결집시키는 일체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당시 9세기경의 동아시아 3국이 유사한 조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과 규모면에서 서로 유관한 체제 변혁을 시도하였음에도, 역사적 발현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장보고의 역사에서는 그 같은 역사적 조건이 대체로 중앙 통제력의 약화와 지방 토호의 할거라는 역학 관계 속에 나타난 역동적 에너지였다.<sup>486)</sup> 다시 말하면, 중앙권력과 지방 권력의 정치적인 공존과 상호 협력 및 그에 따른 역동성의 발현이야말로 장보고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인 것이다. 장보고의 해상무역 체계가 신라 조정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장보고 제거와 청해진의 몰락으로 귀결됨으로써 중앙권력과 지방 세력의 군진 세력 간의 공존이 깨지고 중앙 권력인 신라 정국은 패망의 위기를 자초하였고, 군진 세력을 비롯한 지방 세력은 장차 고려 건국의 주체로서 차별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었다. 즉 청해진의 폐쇄 이후, 장보고의 후예들은 다시 나주·영암 일대의 해상 세력으로 재활했는데, 그들은 왕건의 선대인 예성의 부

486) (재)해상왕장보고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http://www.changpogo.or.kr>) 참조.

상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왕건은 견훤 세력의 발원지인 나주와 그 일대의 해상 세력과 자신의 선대 간의 누대적 우호관계에 힘입어 견훤을 따돌리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다. 특히, 해상무역과 도자기로 연계된 청해진과 패강진의 관계는 고려 왕조의 중요한 인적·재정적·군사적 골간이 되었다.

흔히 동서고금의 역사는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사를 제패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는 장보고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점으로, 사실상 신라의 내부적 갈등과 사회적 한계가 ‘청해진’이라는 창구를 통해 대외적인 관점에서 활로를 찾고, 다시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이자 토대가 되었음은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그러한 에너지가 새로운 왕조, 새로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재적 에너지의 외부로의 투사, 새로운 창조를 향한 개척 정신과 승화 그리고 그 계승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개척이 장보고와 청해진의 역사가 주는 역사적 교훈의 함의라고 하겠다.



## 제2장

### 무역항로 개척자, 정화(487)

---

487) 정화(鄭和, Zheng He, 1371~1435)는 1371년(홍무 4)에 곤양(현재의 윈난성 진닝)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원나라 시대에 서역에서 윈난으로 이주해 온 이슬람 교도였는데, 1399~1402년에 걸친 ‘정난의 변’에 종군하면서 발탁되었다. 그는 약 30년에 걸쳐 7차례의 남해(南海)원정을 지휘했다. 그가 항해한 항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동해에 이르는 30여 국에 걸친 대역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원정은 중국의 지속적인 해양력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명 조정의 의해서 중단되었고, 그의 대원정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았다



## 1. 개요

중국 명(明) 초에 있었던 정화의 원정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드문 대항해로 시기적으로 서양의 지리상 발견보다 앞선 일이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명의 통치자는 성조(成祖) 영락제인데, 그의 등극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정난의 변’에 종군하면서 세운 공으로, 환관인 정화는 일약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 영락제는 내치(內治)에도 뛰어났지만 외정(外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정화의 대원정 계획은 영락제(永樂帝)<sup>488</sup>의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었다. 정화의 해상원정을 둘러싼 동기는, 『명사(明史)』에 실린 한 토막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조는 해제가 해외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그를 뒤쫓고자 했으며, 또한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위용을 떨쳐 중국의 부강을 보여 주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영락제의 정치적 동기에 힘입어 정화의 해상항로를 이용한 원정은 실현될 수 있었다. 황제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남해 방면에 대한 경략의 성격을 가진 정화의 대원정은 영락제의 손자인 선덕제(宣德帝)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후 7회에 걸쳐 이루어진 대역정(大歷程)이었다. 정화가 대원정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단지 종군의 공덕분만은 아닐 것이다. 그가 곤양 출신의 이슬람교도라는 점과 실제로 원정 지역이 이슬람교 나라가 많았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약 3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정화의 남방 아시아 30여 국 원정은 수십 척의 대선에다 2만여 명의 대원이 참가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원정이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원정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그 원정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불명확한 원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화의 원정은 규모나 항해의

---

488) 재위 1360~1424

장정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지리상의 발견 당시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원정대들이 보여준 항해보다 거의 1세기 전에 인도양을 넘어 대서양에까지 항해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더불어, 정화 원정이 중국 국내의 사회 경제와 당시의 국제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원정의 수행자들이 남긴 기록으로 인해 중국에 동남아시아에 관한 지식의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화교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급증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정화 원정은 한편으로 당시의 조정으로부터도 화려한 행렬과 기담 이외에는 대체로 비생산적이고, 값비싼 모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환관들의 활동 자체가 문인 관리 중심이었던 명사회와 합치되기 어려운 정서상의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원정으로 인한 조공무역에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1405년 시작된 정화의 원정은 1433년 이후에는 중단되고 폐기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지속된 해외원정 항해가 지니고 있었던 의미와 가치, 기술적인 잠재력을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지 못한 채, 고립적이고 단순한 공적(功績) 차원에 머물게 하고 말았다.

원정에 대한 중국인들의 입장은 비록 원정 주체와의 신분 차이나 정서적 요인에 의해 소극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근본적으로 조정의 해외원정으로 성립한 조공무역에 대한 입장과 의식으로 원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공무역은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에 있어서 관리의 엄격한 감독 하에 실시한다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개방에 역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수세기 동안 국제무역의 수준을 현저하게 퇴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정화의 원정으로 명의 조공무역이 한때 왕성했다고 하지만, 중국의 해외무역과 상업적 발달에 대한 생명력 있는 계기가 되지 못했다. 라이샤위는 이 점을 들어 명의 정부가 반상업주의적 전통 속에 갇혀 있었고, 정화 역시 환관이자 지



휘관으로서 상업적 동기를 결여한 채 전시성 원정으로 그 가치를 제한하고 말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명은 제도적으로 해양과 멀리 떨어진 북중국의 평원에서 시작한 환경에 머물러 국가의 세수를 농업에서 구하고 있었고, 사실상 고전적인 상업 경시의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 2. 시대 상황

홍무 31년에 태조가 죽고 명(明)에서는 태자의 조몰(早沒)로 인하여 혜제(惠帝)가 후사를 이었으나 어린 까닭에 황실 내부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해,<sup>489)</sup> 혜제를 중심으로 한 황권 정통과와 유력한 번왕들 간의 세력 다툼이 벌어졌다. 이러한 분쟁은 태조가 제왕분봉책<sup>490)</sup>을 실시한 의도에서 아주 빛나간 현상이었다. 번왕 가운데서도 넷째인 주채(朱棣)가 연왕(燕王)으로서 10만여 군대를 거느릴 뿐만 아니라 보초(寶鈔)<sup>491)</sup>를 사사로이 주조하여 중앙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줄 만큼 세력이 강대하였다.

한편, 혜제를 보필하는 병부상서 제태(齊泰), 태상경 황자징(黃子澄) 등 황권 정통과가 번왕의 세력을 꺾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자, 번왕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연왕은 시시각각 박두하는 위협에 직면해 1399년 드디어 병을 일으켜 정난군(靖難軍)이라고 하였다. 소위 혜제의 측간을 제거한다는 명분이었다.

이렇게 연왕이 정난군을 일으킨 것을 ‘정난의 변(1399~1402)’이라

---

489) 이하 曹永祿, 『明代の 政治的 變遷』(東洋史學會 編, 『概觀 東洋史』, 지식산업사, 1983), pp.211~212

490) 전국의 요지를 분봉(分封)하여 왕부(王府)를 만들고 이를 자신의 아들들(24명)에게 나누어준 것이다.

491) 명나라의 지폐

고 하는데, 이는 결국 명의 성조 영락제가 혜제(惠帝)로부터 제위를 빼앗은 사건이다. 일찍이 명의 태조는 천하를 통일하고서 제실의 안전을 기하고자 창업공신들을 점차 제거하고 황자들을 전국의 요소에 봉건(封建)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 집권을 피하기 위해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권은 주지 않은 채 세록(歲祿)만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조의 사후에 황태손으로서 제위에 오른 혜제가 제왕의 세력 삭감을 피하자 빼이핑(北平)에 있던 연왕(燕王)이 그 기도를 눈치 채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먼저 정난군은 정통과 계통의 번왕을 처서 병력을 벌고 이어 남경(南京)에서 파견된 이경룡군(李景隆軍)을 북평(北平) 부근에서 맞아 격파하였다. 이에 사세의 불리함을 깨달은 혜제는 제태와 황자 정의를 직을 파하고 화해를 구했으나 연왕은 듣지를 않았다. 계속 남진하여 회수(淮水) 유역에 당도한 연왕은 환관의 내용으로 남경의 허실을 탐지한 후 1402년 양자강을 건너 수도를 함락하고 즉위하여 연호를 영락이라 하였다. 이로써 반란은 4년에 걸친 내전 끝에 연왕의 승리로 끝났다.

정난의 변을 계기로 영락제로 등극한 성조에 의해서 명의 기틀은 크게 강화되었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남경이 자신의 세력 기반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북방 변방의 방어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북경(北京)을 새 도읍지로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1420년(영락 18년) 새 궁전이 완성되자 남경은 유도로 남기고 예정대로 북경 천도를 단행하였다.

성조는 황위 쟁탈전 경험에 비추어서 군주 독재를 한층 강화 발전시켜 나갔다. 삭번책(削藩策)<sup>492</sup>에 위협을 느끼고 거병한 자신이 황제의 위에 오르자 스스로 삭번책을 써서 황제권을 공고히 한 것이다. 또한 환관의 문자 습득을 금지하도록 한 조훈(祖訓)에도 불구하고 정난의 변에 환관의 도움을 입은 것을 기연으로 그들을 출사(出使), 감

---

492) 변방 권력의 약화를 통해 중앙권력을 강화함.

군(監軍)에 중용하였다. 금의위(錦衣衛)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창(東廠)을 설립하여 환관으로 하여금 역모·요인·악덕을 수색 취조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치에 못지않게 영락제는 외정에 위업을 남겼는데, 수차례에 걸친 몽고 정벌을 감행하고, 나아가 환관 정화(鄭和)의 여러 차례 남해원정을 통해 30여국의 조공을 받았다. 그의 남방정책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먼저 귀주(貴州)를 영토화하고 안남(安南)을 병합, 일시적으로는 버마에도 세력을 신장하였다. 원대 이래 명초에도 진씨(陳氏)가 안남왕에 봉해져 귀복하고 있었으나, 곧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조는 속국의 내란 평정이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 이를 평정하고 교지포정사사(交趾布政使司)를 두어 중국의 일부로서 통치하였다. 그 후 반란이 일어나서 명의 직접 통치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독립한 대월국(大越國)을 단지 조공국으로 두고 있었다.<sup>493)</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정화의 원정이 이루어졌다.

### 3. 무역항로 개척

정화는 중국 명나라의 환관으로서 남해원정을 지휘한 지휘관이었다. 곤양(昆陽, 雲南省 晉寧縣) 사람으로 본래 성은 마(馬)씨였다. 그는 이슬람교도로서 하지(哈只, Hajji)의 둘째 아들이었다. 1382년 운남이 명군에게 복속되자 처음에는 종실의 연왕(燕王)을 환관으로서 섬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왕이 정난(靖難)의 변(變)을 일으켜 영락제(永樂帝)로서 등위하자 종군의 공을 인정받아 환관의 장관인 내관태감(內官太監)에 기용되었

493) 金漢植, 『明的對外關係』(東洋史學會 編, 『概觀 東洋史』, 지식산업사, 1983), p.230

고, 1404년 정(鄭)씨의 성을 수여받았다. 세상에서는 그를 삼보태감(三保太監) 또는 삼보태감(三寶太監)이라고 했다. 삼보(三保)란 환관의 통칭으로 그로부터 유래한 호칭이었다. 영락제가 몰(沒)한 후, 선덕(宣德, 1426~1435) 초까지 남경(南京) 수비의 부대장(1425~1434)을 역임했는데, 그의 이름이 불후의 명성으로 남게 된 것은 남해원정 때문이었다. 『명사(明史)』에서는 정화의 해상원정에 대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화는 운남인으로 세상에서 삼보태감이란 자로 불리었다. 처음에는 변방에서 연왕(燕王)을 섬겼으며, 병을 일으켜 공을 세워 태감으로 계속 발탁되었다. 성조는 혜제가 해외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그를 뒤쫓고자 했으며 또한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위용을 펼쳐 중국의 부강을 보여 주고자 했다.<sup>494)</sup>

영락제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남해방면의 경략도 도모했는데, 그의 손자인 선덕제(宣德帝)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화는 모두 7회에 걸쳐 대 선단을 거느리고 동남아시아, 인도 남해안, 서남아시아 등 여러 지방을 원정했고, 함대의 일부는 아프리카까지 항해하였다.

원정에 대한 기록은 출항의 일시가 불확실한 것이 적지 않으나 그가 명을 받고, 또 다시 돌아온 해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되고 있다.<sup>495)</sup> 제1회의 원정은 1405~1407년(영락 3~5년)에 실시되었는데, 『명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494) 『明史』卷304, 列傳 192, 宦官1, 鄭和條. “鄭和, 雲南人, 世所謂三保太監者也. 初事燕王於藩邸, 從起兵有功, 累擢太監. 成祖疑惠帝亡海外, 欲蹤跡之, 且欲耀兵異域, 示中國富強.”

495) 정화의 원정대 기록은 자료마다 시기나 장소, 특히 참가 함대수가 다른 자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アジア歴史事典』(平凡社, 1967, 4版), pp.427~428 Edwin O. Reischauer et al., 전해중·고병익 역, 『동양문화사(A History of East Asian Civilization: East Asian - The Great Tradition)』(상), 을유문화사, 1964, pp.404~405 참조로 정리하였다.

영락 3년 6월 정화와 그 무리인 왕경홍 등이 서쪽 바다를 두루 다녀오도록 하였다. 장수와 병사들 27,800여 명에게 금폐를 내려 선박을 만들게 했다. 그 길이가 44장, 폭은 18장의 크기로 된 것이 62척이었다. 소주 지역의 유가하로부터 배를 띄워 복건성에 이르렀고, 다시 복건성 오희문에서 배를 띄워 처음으로 점성에 도달하였다. 이후 여러 번국을 두루 다니면서 천자의 칙유를 알렸고, 그 지역의 군장들에게 이를 알려 복종하지 않으면 무력으로써 위협하였다.<sup>496)</sup>

영락 5년 9월에 정화 등은 귀국했는데 여러 나라 사신들도 정화를 따라 황제를 알현하였다. 정화가 포로인 파렌반의 추장을 바치자 영락제는 크게 기뻐하며 상을 내렸다. 파렌반이란 곳은 삼불제국이었고 그 추장 진조희는 무역선을 약탈했기 때문에 정화는 조서를 가지고 가져가자 항복하고 몰래 반격을 꾀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정화가 그들을 대패시키고 조희를 사로잡아 포로로 바친 것이고, 이를 도성에서 죽였다.<sup>497)</sup>

제1차 해외원정 시 동원된 함대는 62척의 선박에 27,800명의 병력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들은 소주 지역에서 출발하여 복건성을 거쳐 지금의 베트남 중부인 점성(占城)과 자바(瓜哇)로부터 파렌반(舊港) 등 수마트라 각지, 말라카 등은 물론 세일론(錫蘭), 인도 서안의 켈커타(古里)에 이르는 지역까지 도착하여 진국(鎮國) 비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귀로에 자바에서는 마자파빋트 왕국의 왕위 계승 전쟁에 관계하고 파렌반에서는 화교의 쟁란에 개입하였다. 정화가 파렌반 추장을 사로잡아 귀국 후에 거짓 항복한 죄를 물어 처형한 것은 매

496) 『明史』卷304, 列傳 192, 宦官1, 鄭和條 “永樂三年六月命和及其僉王景弘等通使西洋。將士卒二萬七千八百餘人, 多齎金幣。造大船, 修四十四丈, 廣十八丈者六十二。自蘇州劉家河泛海至福建, 復自福建五虎門揚帆, 首達占城, 以次徧歷諸番國, 宣天子詔, 因給賜其君長, 不服則以武懾之。”

497) 『明史』卷304, 列傳 192, 宦官1, 鄭和條 “五年九月, 和等還, 諸國使者隨和朝見, 和獻所俘舊港酋長。帝大悅, 爵賞有差。舊港者, 故三佛齊國也, 其酋陳祖義, 剽掠商旅。和使使招諭, 祖義詐降, 而潛謀邀劫。和大敗其衆, 擒祖義, 獻俘, 戮於都市。”

우 흥미로운 기사임에 틀림없다. 정화의 원정이 정치적인 성격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 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제2차 원정은 1407~1409년(영락 5~7년)에 실시되었으며 역시 인도가 항해지이였으며, 켈카타, 코친(柯枝)을 항해했고, 세일론의 갈레(Galle)에 비문을 세웠다. 이때 세운 비문은 중국어, 타밀어, 페르시아어로 삼체비문(三體碑文)이라고 불린다. 『명사』에서는 2차 원정의 둘째 해와 관련된 다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영락 6년 9월 다시 세일론으로 갔다. 국왕이 정화를 유인하여 나라 안으로 끌어들여 금품을 수색하고 병을 일으켜 정화의 선박을 공격하였다. 정화가 적의 대부분이 이미 출병하여 나라 안이 텅 비어 있음을 엿보고, 모두 2천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이끌고 돌연 그 성을 공략하고 국왕과 그 처자 및 관속들을 생포하였다. 정화의 선박을 공격하던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되돌아와서 구하고자 했으나 정화의 군대가 이를 대파시켰다. 영락 9년 6월, 포로를 조정에 바쳤다. 황제는 사면하고 죽이지 않았으며, 풀어서 돌려보냈다. 이때 교지(交趾)가 이미 파멸되어 군현의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더욱 두려워하며 복속된 자들이 날로 많아졌다.<sup>498)</sup>

제3차 원정은 1409~1411년(영락 7~9년)으로 남인도까지 다다랐는데 그 사이에 타이(暹羅)·자바의 강압에 고통을 당하 말라카를 보호하고 그곳에 진국(鎮國) 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세일론에서는 국왕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된, 『명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영락 10년 12월에 황제는 정화 등을 사신으로 임명하여 소문답자

---

498) 『明史』卷304, 列傳 192, 宦官1, 鄭和條. “六年九月 再往錫蘭山. 國王亞烈苦奈兒誘和至國中, 索金幣, 發兵劫和舟. 和胡賊大衆既出, 國內虛, 率所統二千餘人, 出不意攻破其城, 生擒亞烈苦奈兒及其妻子官屬. 劫和舟者聞之, 還自救, 官軍復大破之. 九年六月獻俘於朝. 帝赦不誅, 釋歸國. 是時, 交趾已破滅, 郡縣其地, 諸邦益震讙, 來者日多.”

(蘇門答刺)로 가게 했는데, 그곳의 왕자 소간자(蘇幹刺)라는 자가 왕을 주살하고 스스로 참칭을 도모하면서 정화의 방문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은 것에 화를 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정화의 함대를 공격하였다. 정화는 힘껏 싸워 그를 포획하여 남발리(喃渤利)로 추방하고, 더불어 그 처자를 포로로 삼아 영락 13년 귀국하였다. 황제는 기뻐하며 제장들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sup>499)</sup>

한편, 제4차 원정은 1413~1415년(영락 11~13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본대가 켈커타로부터 페르시아 만의 호르무즈(Hormus)까지 원정했다. 그리고 동시에 별대가 수마트라에서 멀리 아프리카 동안, 아라비아 방면으로 진출했다. 동자바에서는 내란에 개입하였다.

제5차 원정은 1417~1419년(영락 15~17년)으로 본대는 호르무즈까지 항해하였으나, 별대는 아라비아, 아프리카 동안까지 항해하여 1420년에 귀국했는데, 당시의 항해가 가장 먼 지역까지를 원정한 것이었다.

제6차 원정은 1421~1422년(영락 19~20년)인데, 정화의 본대는 수마트라까지 항해하다가 귀항했고, 별대는 이때도 아프리카 동안, 페르시아 만까지 항해하였다.

제7차 원정은 1431~1433년(선덕 6~8년)으로 2만 7,500명의 병력을 싣고 출항하여 자바, 파렌반, 말레카 등을 거쳐 인도 남안으로부터 호르무즈까지 항해했는데, 한편에서 별대가 켈커타로부터 나뉘어 메카까지 항행하다가 귀로에 아덴 등을 경유하여 본대와 합류했다. 7척의 함대가 아프리카 대륙의 동안에 도달했고, 7명이 메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6회와 7회의 기간 사이인 1424년(영락 22년)에도 파렌반까지 소규모의 출사를 명받기도 했다.

---

499) 『明史』卷304, 列傳 192, 宦官1, 鄭和條. “十年十一月復命和等往使, 至蘇門答刺. 其前僞王子蘇幹刺者, 方謀弑主自立, 怒和賜不及己, 率兵邀擊官軍. 和力戰, 追擒之喃渤利, 並俘其妻子, 以二十三年七月還朝. 帝大喜, 賞諸將士有差.”

<표 8 > 정화 함대의 7차 해외원정(1405~1433)

회수	원정연도	참가 함대수	탑승인원(명)	함대 유형
1	1405~07년	317	27,870	62 boachun
2	1407~09년	249	?	?
3	1409~11년	48	30,000	?
4	1413~15년	637	28,560	?
5	?	?	?	?
6	1421~22년	41	?	?
7	1431~33년	100	27,550	?

이러한 7차례에 걸친 정화의 해외원정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sup>500)</sup>

정화가 출사한 원인에 대해서는 대개 다음과 같았다.<sup>501)</sup>

첫째, 성조는 해제가 죽지 않고 해상으로 숨어들지 않았는지 의심하여 이들을 파견하여 찾아보도록 하고, 둘째, 원이 망한 후 티무르(Timur, 帖木兒) 제국이 강성하여 명의 서북변경에 큰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태조 때에 해외로 사신을 보내 여러 나라들과 연락한 바도 있어, 성조는 마침내 이를 국책으로 정하고 사신을 보내 해상연맹을 조직함으로써 티무르 제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셋째, 조공무역을 발전시켜 금수(錦繡)·자(瓷)·칠기(漆器) 등

500) 金一相, 『韓國 海洋力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학위논문, 1994, p.84 재인용(Bruce Swanson, Eighth Voyage of the Dragon,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2, p.33). Bruce Swanson이 작성한 정화의 해외원정에 관한 통계는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단일한 체계하에서 한 사람에게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제시한다. 아울러 김일상의 자료 또한 번역상으로 ‘참가 함대수’와 ‘함대 유형’, 그리고 ‘boachun’ 등의 용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용된 것이지만, 필자는 여기에 자료 소개 차원에서 인용했다.

501) 金漢植, 『명의 對外關係』, p.230



으로 남양의 향료와 보화를 바꾸며, 넷째, 원정대를 해외 여러 나라에 보내 중국의 부강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화는 영락제의 신임을 받았으며, 식견이나 인물됨만으로도 대사업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적임자였지만, 원정 지역에 이슬람교 나라가 많았다는 것도 그가 선택된 이유 중 한 가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약 30년간 남방 아시아 30여 국에 걸쳐 추진한 정화의 원정은 수십 척의 대선을 거느리고, 2만여 명의 이르는 대원을 탑승시킨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활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의 항해 전에 있었던 남아시아 최대의 사건이었다.<sup>502)</sup>

그 결과, 정화의 명성은 동남아시아에 전해져 타이, 삼, 자바, 수마트라 등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가 남긴 유적으로는 자바의 사라만(Salaman) 중국인 시가에 있는 대각사(大覺寺)에 정화의 상이 안치되어 있고, 또 사라만 근교의 시몬칸(Simoncan)에도 삼보사(三寶寺)가 건립되어 있다.<sup>503)</sup> 정화의 원정은 명 조정의 천하통일 직후 국위 선양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지만, 명 왕실에 의한 해상무역의 실시에도 큰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하면, 원정의 각지로부터 조공사절이 진귀한 특산물을 대량으로 들어와 그것에 대한 명 조정의 상사가 행해졌는데, 이로써 조공의 형식을 빌려, 왕실주도의 관(官)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실, 정화 함대는 규모면에 있어서나 항해의 장정으로 볼 때 일찍

---

502) 이하 和田久徳, 『アジア歴史事典』(平凡社, 1967, 4版), 428쪽. 和田久徳이 주로 사용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朱俛, 『鄭和』, 1956; 徐玉虎, 『鄭和評傳』, 1958; 山本達朗, 『鄭和の西征』, 『東學報』, pp.21~23·4; 石田幹之助, 『南海に關する支那史料』, 1945; P. Pelliot, Les grands voyages maritime chinois au début du XV<sup>e</sup> siècle TP 30; do., Notes additionnelles sur Tcheng Hou et ses voyages, TP 31; do., Encore à propos des voyages de Tcheng Hou, TP 32; J. J. L. Duyvendak, The True Dates of the Chinese Maritime Expeditions in the Early Fifteenth Century, TP 34; 鄭鶴聲, 『鄭和遺事彙編』, 1948.

503) 李炯錫, 『東洋興亡史(下)』, 寶晉齋, 1991, p.29

이 없었던 해상원정이었다. 이들은 포르투갈 함대가 1498년에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에 도달한 것보다 거의 1세기 전에, 그리고 에스파냐 함대가 1588년에 영국을 돌아온 항해에 의해 서양역사를 만든 것보다 1세기 반전에 인도양을 넘어 대서양으로 항해했던 것이다.

정화의 항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 아시아 연해항로에 필요한 항해기술의 발전 때문이었다.<sup>504)</sup> 이 시대의 중국의 항해 선박들은 그 크기가 상당했고 때로는 길이가 400척이 넘는 것이 있었고 4중 갑판과 방수선실을 가진 배로 건조되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발전시킨 세밀한 항해지침에 의해 항해하였다. 나침반과 훈풍을 이용하여 약 6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었으며, 거리는 당직시간(當直時間)에 의해서 측정하였고, 아모이로부터 싱가포르 해협까지는 9천 리 또는 180당직시간으로 계산하였다. 일본으로부터 페르시아에 이르는 아시아 항로는 일반적으로 돌출지로부터 돌출지를 잇는 해안을 끼고 있었지만, 아랍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무역풍을 타고 아라비아로부터 직접 인도로 건너가는 항해에 익숙해 있었다.

미증유의 대사건인 정화 함대의 원정이 가져온 영향은 다방면에 걸친 것으로 중국 국내의 사회경제와 당시의 국제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에서는 원정 수행자의 저작, 즉 마환(馬歡)의 『영에승람(瀛涯勝覽)』, 비신(費信)의 『성차승람(星槎勝覽)』, 그리고 공진(鞏珍)의 『서양번국지(西洋番國志)』 등의 자료가 편찬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인의 동남아시아에 관한 지식이 급속하게 향상되었고, 친근 관계에 있었던 동남아시아에 화교가 급증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이로써 종래 조공하지 않던 일본·유구·영송 등도 입조했을 뿐만 아니라 성조 시대에는 국위가 크게 신장되어 명조의 판도가 최대에 이르는 극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성조 영락제의 대외정

---

504) Edwin O. Reischauer et al., 전해중·고병익 역, 『동양문화사(A History of East Asian Civilization: East Asian - The Great Tradition)』, pp.405~406

책은 비록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적극적인 해외 원정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경제적, 나아가 대외 관계상의 성과를 수반하면서 국운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및 교훈

일찍이 세계사에 없던 해상 원정대인 정화의 함대가 1433년 이후에 더 이상 원정을 하지 않고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해상 원정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이유만큼이나 복잡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1433년 이후에 그들의 중단에 대한 직접적이면 서도 명백한 원인 중의 하나는 몽고 원정과 북경 수도 건설 같은 명초에 있었던 대외 확장활동이 제국의 국고를 고갈시킴으로써 발생한 경비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sup>505)</sup>

정화의 함대는 조정으로부터 화려한 행렬과 기담 이외에는 대체로 비생산적인 값비싼 모험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궁정관리들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었고 환관들의 활동은 문인관리들에 의해서 불신되고 반대되었기 때문에 정화의 공적은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최소한의 주의밖에는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그 무역과 해외확장이라는 사실 자체는 놀라운 것이었고, 영락제 하에서 중국의 해양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405년 시작된 정화의 원정은 1433년 이후에는 중단되고 폐기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지속된 해외원정 항해가 지니고 있던 의미와 가치, 기술적인 잠재력을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지 못한 채, 고립적이고 단순한 공적(功績) 차원에 머물게 하고 말았다.

---

505) Edwin O. Reischauer et al., 전해중·고병익 역, 『동양문화사(A History of East Asian Civilization: East Asian - The Great Tradition)』, p.408

그러한 근본 원인은 어쩌면 해외원정으로 인해서 성립한 조공무역을 둘러싼 명의 입장, 즉 그들의 반상업주의(反商業主義)와 관련이 깊은 것 같다.

대체로 명의 조정에서는 외국인과의 접촉이나 공적인 업무수행은 관리의 엄격한 감독 하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에 역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sup>506)</sup> 이러한 방식은 결국 남부항구에서 수세기 동안 지속해온 국제무역이 현저하게 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원정대의 파견은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를 명에 조공하도록 함으로써 조공무역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조공과 상사(賞賜)를 기초로 하는 조공무역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손실을 초월한 거대했기 때문에 중국 측으로서는 손해가 많았다. 즉, 표면상이라 하더라도 중화사상(中華思想)으로 인한 덕을 흠모하여 온 만이(蠻夷)에 대해 은혜를 부여한다고 하는 물질적 손실을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원정대의 파견도 영락제(永樂帝) 시대 6회, 선덕제(宣德帝) 시대 1회, 총 7회로써 중지되고 이후 다시는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정화의 원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명의 조공무역이 왕성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명의 조정이 중국인에게 해외도항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무역에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일반의 해상 교통무역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자유로운 무역은 계속 불허되고 부자유한 조공무역만이 실시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명 정부의 태도를 라이샤워 교수는 반상업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정화는 확실히 유럽의 상선모험가들과 달리 단지 환관이자 지휘관으로서 상업적 동기를 결여한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권력과 승진이 황제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정으로 상업

---

506) 金漢植, 『명의 對外關係』, p.231

적 목적을 충족시키려 노력하거나, 여타의 발전적 전망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sup>507)</sup>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화의 상업적 무관심은 명의 조정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겠다. 명이 실행하던 조공 제도(朝貢制度)라는 것이 여전히 비한인(非漢人)들의 대중국무역의 중요한 매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국인들의 눈에는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제도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명과 후일의 청 정부는 무역세(貿易稅)가 아니라 지세(地稅)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세계를 석권해 가며 산업혁명의 길을 여는 상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인 추세와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결국, 명은 고대 중국 사회가 해양과 멀리 떨어져 북중국의 평원에서 시작한 제도적 환경에 머물렀고, 관료계급은 자신과 정부를 위하여 세금 징수원에게 농업을 장려하고 그 작물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을 지속했던 것이다.

정화의 원정이 중단된 또 다른 이유로는 사상적인 면에서 상인계급에 대한 경시와 신유교주의적 전통을 들 수 있다. 당시 명에는 농경 관료로 특징지어지는 초기 중국 사회 이래로 지속된, 상인계급에 대한 관념적인 경시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상인들을 관료 체계에 종속시키고 이용하고자하는 양상의 신유교주의적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유교주의적 전통은 고전적인 가치를 재흥시키고 보존하였음은 물론, 상인 경시풍조 또한 보존하였다. 이런 이유로 외국무역의 진흥이 관료가 아닌 환관에게 맡겨졌으나, 그것은 더욱 더 관료계급에 불쾌한 것이었다.

끝으로, 정화의 원정을 중단시킨 전략적인 문제는 몽고 견제였다. 몽고의 위협은 명으로 하여금 초원 지대에 존재하는 이른바 이적(夷

---

507) Edwin O. Reischauer et al., 전해중·고병익 역, 『동양문화사(A History of East Asian Civilization: East Asian - The Great Tradition)』, pp.408~410

狄)들의 통제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명의 조정이 중앙아시아의 변방 지대에 대한 우선권을 고려하는 한, 명의 해양 변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명은 해양력이나 외국무역으로는 몽고를 제어할 수 없었고, 몽고 제압을 위해선 오직 징병과 식량공급 그리고 육상수송만이 요구될 뿐이었다.

## 제3장

###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sup>508)</sup>

---

508) 1451~1506. 그는 지구의 구형설을 믿고 서쪽으로 돌아 동양에 이르려고 계획하였다.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의 원조로 대서양을 횡단하여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도착했고, 그가 평생토록 인도라고 생각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이 이룩한 결과의 위대함을 알지 못한 채 '모기제독'이라는 야유를 받으면서 실의와 가난 속에서 세상을 마쳤다.





## 1. 개요

위대한 모험가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그의 의지와 신념과 함께, 당시에 잘못 알려진 지식에 의한 우연성이 작용한 결과로, 콜럼버스 자신은 죽을 때까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사건이다.

15세기경 유럽인들의 동방에 대한 호기심은 선진의 조선술과 항해술에 힘입어 새로운 세계로의 탐험과 지리상의 발견으로 실현되었다. 제노아의 선원 출신인 콜럼버스는 일찍이 새로운 세계로의 탐험에 나선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목적에서 대서양 서쪽을 항해하기로 하고, 동방의 ‘인도’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에스파냐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얻어, 1492년 8월 3일 세 척의 배로 팔로스 항을 출발했다.

콜럼버스 일행은 1개월이 지나 카나리아 제도에 이르렀고, 41일째에는 지금의 바하마(Bahamas) 제도에, 그리고 계속된 항해에서 오늘날의 쿠바와 산토도밍고로 알려진 섬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네 번에 걸친 탐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한 신대륙이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란 사실을 몰랐다. 콜럼버스는 서쪽 항로를 경유하는 것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의 거리를 훨씬 짧게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사실, ‘옳았다’라기보다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발견을 낳은 동인(動因)이 되었다.<sup>509)</sup>

아메리카는 어마어마한 계산 착오의 결과로 발견된 것이었다. 만일 지구 둘레가 상상한 것보다 얼마나 긴지를 알았더라면, 콜럼버스는 감히 출항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콜럼버스가 당시 그 같은 계획을 세우면서 아시아까지의 거리가 당시 선박으로서 도저히 도달할

---

509) E. M. Burns et. al., 박상익 역, 『서양문명의 역사(Western Civilization)』II, 소나무, 1994, p.557

수 없는 거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기에 그 모험은 가능했다. 이사벨 여왕의 재정적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한 달 동안 항해한 끝에 1492년 지금의 바하마와 그 일대의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믿었다.

오늘날에는 아메리카 서반구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이 바이킹이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서기 1000년경에 대서양을 횡단하여 지금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그리고 아마도 뉴잉글랜드에까지 도달했을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다. 게다가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도 그가 찾아낸 새로운 땅이 아시아의 외곽 지역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킹의 신대륙 상륙은 수백 년 동안 망각되거나 무시되었다.

콜럼버스가 자신이 발견한 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죽은 후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온 다른 사람들은 곧 그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었다.<sup>510)</sup> 비록 콜럼버스는 1492년 항해를 마친 후 아시아의 향료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소량의 금을 가져오고, 장차 그 부족 전체를 노예로 삼게 될 원주민 몇 명을 데려왔다. 이것을 계기로 에스파냐 왕인 페르난도와 이사벨<sup>511)</sup>은 콜럼버스에 의한 세 차례의 항해를 더 후원했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항해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곧이어 섬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본토가 발견되었다.

콜럼버스의 탐험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계획을 통

---

510) E. M. Burns et. al., 박상익 역, 『서양문명의 역사(Western Civilization)』II, p.558

511) 카스티야의 여왕(재위 1474~1504).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와 결혼하여 공동 통치하여 에스파냐를 통일하였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원조한 일로 유명하다.

해서도 전혀 새로운 결과가 야기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사에서는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경우가 있다.<sup>512)</sup> 역사상에 존재하는 천재들의 우연한 실수가 오히려 새로운 가치와 발견으로 연결된 경우가 적지 않다.

## 2. 시대 상황

15세기로부터 16세기에 걸쳐 유럽인들은 ‘새로운 섬,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를 찾아 나서서 그것들을 발견했다.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하는 대항해 시대에 행해진 새로운 항로와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이 전 세계로 팽창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항로와 대륙을 찾아 나선 중요한 에너지원은 르네상스 3대 발견인 화학·나침반·인쇄술과 같은 과학기술이 뒷받침된 항해술의 발전 때문이었다.

이렇듯 유럽인들이 새로운 항로와 미지의 세계를 향해하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일찍이 지리상의 발견에 나선 나라는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다. 그들이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선 것은 새로운 땅과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인도항로의 발견자인 바스코 다 가마는 ‘그리스도교인과 향료’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sup>513)</sup> 오랜 세월 동안 적개심과 투쟁의 대상이 되어 온 이슬람 세력을 물리칠, 동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느 곳에

---

512) 흔히 역사적 설명은 인과관계(cause and effect)에 의한 필연적인 관계성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상 우연의 결과가 지배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페브르는 역사적 원인의 다양성을 뜻밖의 사고, 즉 우연(contingency), 필요(necessity), 그리고 착상(idea)으로 나눈 바 있다.

513) 이하 민석홍, 『서양사개론』, 삼영사, 1986, p.361

존재한다는 미지의 프레스터 존(Prester John)이 통치하는 강력한 그리스도교 국가를 발견하고, 이와 동맹을 맺는다면 이슬람을 물리치고 지중해를 통한 동방무역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동방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과 호기심은 13세기 몽고족의 원 나라 조정에 오래 머물다가 귀국한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의 『동방견문록』과 같은 여행기에 의해서 더욱 커졌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인들은 미지에 세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에 도전하는 모험정신이 유럽에 팽배해 있었다. 유럽인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실현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15~16세기에 진전된 기술적인 발전이 필수적이었다.

지리상의 발견에 직접 연관이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지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지식의 확대와 실제적인 항해문제에의 적용, 조선과 항해기술의 발달, 그리고 해전에서 이용된 화기의 발달 등이 주목된다.<sup>514)</sup>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개론(Almagest)』은 아랍인을 통하여 유럽에 전해지고 있었고, 15세기 초 추기경 다이이(Pierre d'Ailly)는 아랍과 유럽의 지리적 지식을 망라한 저서 『Imago Mundi』를 집필했다.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서려는 탐험가들에게 이는 큰 자극이 되었고, 다이이 추기경의 저서는 콜럼버스가 읽은 얼마 안 되는 책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항해자나 탐험가들에게 현실적인 해도(海圖)가 실제적으로 중요했는데, 13세기 이래 이탈리아와 카탈로니아의 항구에는 전문적인 수로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해도가 작성되었다. 게다가 천문학 등 모든 지식이 총동원되면서, 추측항법(推測航法)으로 육지를 멀리 떠난 원양항해가 가능해졌다. 그 이후 추측항법의 위험성을 보완하는 데 나침반이 이용되었고, 15세기에 들어와서 발달한 조선술로

---

514) 민석홍, 『서양사개론』, pp.362~364

인하여, 대포를 장비한 대형 선박에 의한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집권적인 통일국가의 형성은 지리상의 발견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항로의 탐색과 발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원자였다. 번영을 자랑하던 베네치아나, 지중해 무역과 북해무역으로 혜택을 받던 영국이나 프랑스에게는 새로운 항로가 절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포르투갈이나 이와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에스파냐는 지중해무역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고, 이슬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항로의 발견으로 초래될 경제적 이득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 3. 탐험활동

15세기 당시 카나리아 제도가 오랜 분쟁을 끝내고 에스파냐의 소유로 낙찰되고, 마테이라, 아조레스, 베르데 제도와 같은 지역이 포르투갈령으로서 식민정책이 행해지며 설탕과 포도주의 산지로서 개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번영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 가공의 섬 아틀란티스(Atlantis)를 발견하는 것이 대다수 모험가들의 꿈이었다.<sup>515)</sup> 그러나 콜럼버스의 생각은 당시 모험가들의 입장과 달랐다. 제노아의 선원 출신인 콜럼버스는 보다 현실적인 생각에서 대서양의 서항(西航)을 고려하고 있었다.<sup>516)</sup>

515) 민석홍, 『서양사개론』, p.368. 콜럼버스의 출생년에 대해서 Crane Brinton은 『A History of Civilization』에서 1451~1506년으로 보았다.

516) 현존하는 기록에 의하면 1492년 아시아로 항해를 떠난 항해사의 이름이 콜럼버스가 아니었고, Colón 혹은 Colomo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Columbus라는 영어 이름이 영어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6세기 Richard Eden이 Sebastian Münster의 『Cosmographiae universalis』(1550)을 번역한 1533년이었다(임용목, 『콜럼버스와 아메리카』, 『人文學志』 제25집, p.206).

이탈리아 출신인 그는 원래 독학을 한 사람으로 많은 책은 읽지 않았으나 다이어 추기경의 지리서를 읽고 피렌체의 지리학자인 토스카넬리(Toscanelli)와의 서신교환을 통해 지구가 구형이며, 인도로 가기 위하여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것보다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하는 것이 훨씬 가깝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는 콜럼버스만의 잘못은 아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보다 앞서 비교적 정확하게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보다 4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 작게 계산했다. 그리고 아무도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광대한 대륙과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대서양 서쪽을 평균 3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경우, 인도가 약 1개월의 항해 거리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토스카넬리는 1474년 플로렌스에서, 그리고 베하임은 콜럼버스가 항해한 그해에 뉘른베르크에서 지도를 발간했다. 이 지도에서는 지구를 구형으로 표시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들어 있지 않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은 실제의 넓이보다 훨씬 작게 생각되어 연결된 것으로 표시했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대서양 서쪽을 항해한다는 생각은 해양항해술의 발달과 더불어 뚜렷한 가능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놀랍기는 했으나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sup>517)</sup>

콜럼버스가 그의 원정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혁신적인 인물이 필요했다. 그가 처음에 계획을 포르투갈에 제시했을 때 이미 바르톨로뮤 디아스(Bartholomeu Dias, 1450?~1500)에 의해 인도항로의 발견이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한 포르투갈은 새로운 모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경쟁적인 입장에 있던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가까스로 얻게 된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3일

517) Crane Brinton et. al., 양병우 외 역, 『세계문화사(A History of Civilization)』 (中), 을유문화사, 1963, p.212

세 척의 배를 가지고 팔로스 항구를 떠났다.

당시 에스파냐 정부는 이베리아 반도 내에 남은 마지막 회교국가인 그라나다를 구축하고 분열되어 있는 에스파냐 지역을 통합하는 데 바빠 포르투갈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던 지난날과는 달랐다. 페르난도와 이사벨이 혼인함으로써 아라공과 카스티라가 통합되었고, 이를 계기로 새 항로 개척에서 앞서 있었던 포르투갈을 쫓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에스파냐는 서쪽으로 항해해 더 짧은 기간 안에 인도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시도해 보도록 콜럼버스를 후원하게 된 것이다.

그는 한 달 가량 걸려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하고, 거기를 출발한 지 41일 만에 지금의 바하마(Bahamas) 제도 중의 어느 섬에 도착하여 이를 산살바도르(San Salvador)<sup>518)</sup>라고 이름 지었다. 그는 인도의 어느 곳, 적어도 그보다 훨씬 동쪽에 있다는 지팡고 근처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그 일대를 탐험했다.<sup>519)</sup> 그는 팔로스를 떠나 10월 12일 바하마 제도에서 육지를 발견했고, 항해를 계속한 끝에 오늘날의 쿠바와 산토도밍고로 알려진 큰 섬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1차 항해에서 귀국한 후, 1493년 두 번째 항해 때는 17척의 배와 약 1,500명의 식민지 개척자를 거느리고 카리브 해를 자세하게 탐험하여, 아메리카 대륙에서 에스파냐 제국의 초석을 놓았다. 1498년에서 1500년에 걸친 세 번째 항해 때 그는 남미의 오리노코 항구에 도달했으나 그가 거느리고 간 식민지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왕의 대관 보바딜라에 의하여 포박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보바딜라는 왕을 대신하여 인도 제도의 관리를 접수하였다. 콜럼버스는 에스파냐로 돌아와서 석방되었으며, 1502년부터 1504년까지 네 번째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신대륙의 본토인

---

518) ‘성스러운 구세주’라는 의미

519) 민석홍, 『서양사개론』, p.369

혼두라스에 도달하였다.<sup>520)</sup>

그는 첫 번째 항해 후 3회에 걸친 항해에서 향료와 황금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인도 근처에 도착한 것으로 믿었으나 재정의 부담만 늘어나는 데 지친 에스파냐 왕실의 후원도 끊어졌다. 죽기까지 콜럼버스는 자신이 인도가 아닌, 신대륙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모기제독(Admiral of Mosquitoes)’이라는 야유를 받으면서 실의와 가난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콜럼버스의 수차례에 걸친 항해에 관한 소식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해져 유럽에 퍼졌다. 그러나 당시 인쇄술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당시의 학자들은 낯선 땅에 관해서보다 새로운 인쇄술에 의한 그리스의 사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포르투갈은 물론 각국 정부는 그들의 발견을 가능한 한 비밀에 부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던 진실은 1500년경에 신대륙이 발견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콜럼버스가 우연히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이탈리아 출신의 지리학자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 1451~1512)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521)</sup>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콜럼버스의 뒤를 이어 행한 탐험에 관해서 상세하게 보고했다. 베스푸치가 행한 것으로 주장한 미국 동남부로부터 남미 끝까지의 모든 발견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았으나 여하튼 그의 서한은 독일의 이론적인 지리학자 마르틴 발트제물러(Martin Waldseemüller)의 주의를 끌었고, 발트제물러는 1507년에 발간한 지도에 신대륙의 남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육지를 그려 넣고, 베스푸치의 성을 라틴화한 것을 채용하여 아메리카

520) Crane Brinton et. al., 양병우 외 역, 『세계문화사(A History of Civilization)』 (中), p.213.

521) E. M. Burns et. al., 박상익 역, 『서양문명의 역사(Western Civilization)』 II, p.339



라고 불렀다. 이 지도는 필사되어 널리 퍼졌고, 발트제물러는 1531년에 새로운 지도를 발간할 때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떼버렸다. 그 대신 ‘미지의 땅’(Terra Incognita)이라고 기입했는데, 결국 그는 두 개의 신대륙, 즉 남미와 북미의 명명자가 되었다.<sup>522)</sup>

한편, 콜럼버스가 첫 번째 항해에서 돌아온 후 에스파냐의 요청도 있고, 포르투갈과의 분쟁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교황 알렉산더 2세는 베르데 제도 서방 약 500km 해상에 상상적인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후 발견되는 육지를 경계선의 서쪽은 에스파냐령, 동쪽은 포르투갈령으로 한다고 정했다. 포르투갈은 이에 반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지만 경계선을 1,300km 가량 더 서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청했다. 인도 근처에 도착했다는 콜럼버스의 보고를 믿고 있던 에스파냐도 이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1494년 양국 간에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 조약이 체결되었는데,<sup>523)</sup> 바로 이 무심한 상상적인 경계선의 변경으로 후에 브라질(Brazil)이 포르투갈 영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sup>524)</sup>

콜럼버스의 항해는 인도로 가는 서방항로의 탐험을 크게 자극했다. 영국에 살고 있던 베네치아 출신의 존 카보트(John Cabot)는 1496년 헨리 7세의 후원을 얻어 지금의 캐나다 동해안에 도달했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렌체 출신의 아메리고 베스푸치도 여러 번 신대륙으로 건너가 중남미 쪽을 탐험한 끝에 그곳이 종전에 유럽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대륙(New World)이라는 의견을 발표하고 아메리

---

522) Crane Brinton et. al., 양병우 외 역, 『세계문화사(A History of Civilization)』 (中), pp.213~214

523) 1494년 7월 7일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간에 체결된 토르데시야스 조약은 당시 새로 발견된 육지를 아조레스 군도의 서방 370리그 지점을 남북으로 가르는 선에 따라 분할하는 양국 간의 합의였다. 이 조약에 따라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영토가 되었으며, 이 분할선이 세계를 돌아 태평양을 절단함으로써 마젤란이 발견한 섬들의 일부는 에스파냐 소속이 되었다.

524) 민석홍, 『서양사개론』, pp.369~371

카라고 했던 것이다. 그 후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히스파니올라(Hispaniola)<sup>525</sup>)에 살던 에스파냐의 모험가 발보아(V. N. de Balboa)는 황금을 찾고자 파나마 지협을 횡단하여 처음으로 태평양을 바라보게 되었다.

발보아의 발견은 신대륙의 폭이 의외로 좁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에 따라 서방항로를 이용한 인도로의 탐험이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후술할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Ferdinand Magellan, 1480?~1531)이 출현하였다. 다시 말하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지리상의 발견은 한층 가열되어 추진되었던 셈이다. 신대륙 입장에서 본다면, 16세기 초 20년간이 순수한 탐험가의 시대였다면, 그 다음의 30년(1520~1550)은 에스파냐의 직업적인 정복자의 시대로 이어졌다.

#### 4. 결론 및 교훈

콜럼버스는 위대한 모험가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는 잘못 알려진 지식에 토대를 두고 신대륙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당시까지 알고 있던 인류의 지리상의 지식을 새롭게 진전시켰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포르투갈이 주도하던 식민지 경쟁이 에스파냐로 확대되어 가던 ‘지리상의 발견기’에 에스파냐 정부의 후원을 받고 카나리아 제도와 오늘날의 쿠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도 인도라고만 알았던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콜럼버스 자신은 정작 항해의 결실을 누리지 못했다. 그는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하에, ‘모기제독’이라는 야유를 받으며 실의와

---

525) 지금의 아이티

가난 속에서 죽을 때까지, 인도 근처에 도착한 것으로 믿으며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한 위대한 업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생의 최후를 마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첫 번째 항해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실제로 지리상의 발견을 둘러싼 유럽의 해외경영사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종래 포르투갈 중심의 지리상 발견기에서 에스파냐가 본격적으로 해외경영에 뛰어들게 되는 시기로 이양되었으며, 1494년 양국 간에 토르데시야스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장차 남미의 대륙을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령으로 양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콜럼버스의 항해는 인도로 가는 서방항로에 대한 탐험을 크게 자극하여 계속되는 모험가들을 출현시켰다. 베네치아 출신의 존 카보트(John Cabot)가 1496년 캐나다 동해안에 도달했고,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콜럼버스의 발견을 재확인했으며, 에스파냐의 모험가 발보아(V. N. de Balboa)가 파나마 지협을 횡단하여 최초로 태평양을 세상에 알렸다. 이로써 실제적인 세계의 모습이 점점 드러났고, 세계가 둥글다는 것이 탐험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1519년에서 1521년까지 4년에 걸쳐 마젤란에 의해 세계 일주가 완성됨으로써 인류는 세계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구가 구형이라는 사실을 실증했다.

15세기 후반 콜럼버스의 탐험은, 16세기 초반 20년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오늘날의 라틴 아메리카에 해당하는 지역의 해안을 상세하게 탐험하는 동력을 제공했다. 인도를 향한 꿈, 그것은 단순한 이웃의 발견이 아니라 이 대양 저편에 있는 또 다른 대양, 즉 태평양을 건너서 도달할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항로를 가로막는 거대한 육지가 존재하며 협소한 파나마 해협조차 운하 같은 것으로 당장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콜럼버스의 발견은 지리상 발견의 범위를 확대시

키면서, 지도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유럽과 세계 다른 지역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지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진원이 되었다. 그렇기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sup>526)</sup> 결과적으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지리상의 발견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의 물질생활의 풍요와 비약적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된 동력이었다. 종래 지중해무역으로 유럽인이 알고 있었던 동방의 물산이 대량으로 값싸게 들어오게 되었다.

신대륙의 발견에서 더욱 본격화된 지리상의 발견은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다음과 같은 말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유럽의 상업도시들은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 즉 대서양 연안 지대와 발트 해 및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을 위한 제조업자나 중개상인(carriers)의 지위를 버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수많은 유복한 개척자를 위한 제조업자가 되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서로 상이한 국민들의 중개상인 또는 어떤 면에서는 제조업자가 된 것이다. 유럽의 산업에는 두 개의 신세계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구세계보다도 훨씬 크고 광대하였다.”<sup>527)</sup>

끝으로 콜럼버스의 모험 뿐 아니라, 여타의 탐험들 모두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수반하였으며, 탐험을 수행하기 위한 용기와 신념, 결의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에서 지리상의 발견에 내재한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인간정신을 엿볼 수 있다.

---

526) 민석홍, 『서양사개론』, p.374;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Modern Library edition, p.590)

527)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Modern Library edition, p.591)

## 제4장

### 지구일주 항해, 마젤란<sup>528)</sup>

---

528) 포르투갈 출신의 탐험가. 자신의 조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당시 해외개척의 경쟁국이던 에스파냐로 가서 대원정의 꿈을 이루었다. 유럽인들에겐 새로운 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지중해와 중동 지방을 거쳐 가던 육상무역로 외에 새로운 동방항로에 대한 탐구가 한참이던 16세기 초, 그는 최초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세계 일주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증했다.



## 1. 개요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은 앞서 몇몇 위대한 개척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을 견지한 진정한 의미의 탐험가였다. 그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성장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항해와 모험가들의 삶에 동경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 만난 해양학자 베하임으로부터 바다에 대한 동경과 그것이 가져다줄 엄청난 부의 가능성을 알고 꿈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당시 포르투갈은 자신들이 개척한 동양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다. 포르투갈 본국 정부는 개척지의 통치자들이 동양에서 얻은 막대한 부를 배경으로 자신들과 맞서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관계에서 온갖 모함과 질시가 난무했다. 정의감에 불타는 마젤란 역시 그러한 상황의 희생자 중의 하나가 되고 만다.

그는 결국 조국 포르투갈을 떠나 에스파냐로 향했다. 그때 이름도 에스파냐식인 마가야네스(Fernando de Maallanes)로 바꾸었으며, 이 사벨 여왕의 사제인 후안 데 폰세카(Juan de Fonseca)와 크리스토팔 데 하로(Cristobal de Haro)의 지원을 받고, 평생을 기다려 온 원대한 도전을 위해 세빌리아를 출항했다.

마젤란의 원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원정대원 중 불만을 가진 자들에 의한 폭동에 직면해야 했고, 협상을 통한 설득과 재판을 거치면서 그들을 진압해야 했다. 그러나 마젤란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 그는 에스파냐 국왕의 명령으로 받고 서쪽에서 동양에 달하는 항로를 발견하고자 1519년 남아메리카 남단인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나갔고, 그 후에 오늘날 필리핀 군도에 이르렀다. 1521년 4월 26일, 그는 그곳에서 세부(Cebu)인들과 더불어, 필리핀 마크탄의 라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출발하여, 그 다음날 1,500명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으나 제압하지 못한

채 패되었다. 마젤란의 최후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최후의 원정대 사령관 델 카노가 마침내 1522년 9월 8일 빅토리아 호 선원 18명을 데리고 에스파냐에 귀환했다. 마젤란은 이역 멀리에서 죽었고, 다만 그의 뜻만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원정대원들에게 이어져 세계 일주의 성공이라는 역사로 남게 되었다.

## 2. 시대 상황

대항해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5~16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나라는 포르투갈이었다. 인류의 3대 발명, 즉 나침반, 인쇄술, 화약 등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조선술이나 항해술의 발달을 선도하면서 지리상의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 게다가 르네상스의 정신에 따른 인본주의의 확산은 유럽의 테두리 안에 묶여 있던 세계에 새로운 자각과 미지에 대한 동경을 촉진하며, 모험의 세계를 향한 도전을 미화했다.

당시 포르투갈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했던 원인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나 정치적 안정과 사회·경제적 필요성 그리고 그들의 탁월한 과학적 기술과 종교적 심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 앞서 지리적 발견기 혹은 팽창의 시대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모험가들의 용기와 도전이 지리상 발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대항해의 시대를 연 것은 항해왕자 엔리케(Henrique, Henry the Navigator, 1394~1460)였다.<sup>529)</sup> 그는 15세

---

529) 민석홍, 『서양사개론』, pp.365~366



기 초부터 주변에 유능한 선원만이 아니라 조선과 항해장비 제조기술자, 천문학자, 수리학자 등을 불러 아프리카 서해안을 남하하여 인도에 이르는 새로운 항로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엔리케 왕자는 1420년부터 규모는 크지 않으나 과학적이고 잘정책된 탐험대를 정기적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엔리케 왕자가 죽고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탐험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1480년대 조안 2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탐험은 재개되었으며, 1487년 바르톨로뮤 디아스(Bartholomeu Dias, 1450?~1500)가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심한 폭풍우 끝에 이곳을 발견했기 때문에 ‘폭풍우 갑(岬)(Cape of Storm)’이라고 이름 지었다. 디아스의 보고를 들은 국왕은 ‘희망봉(Cape of Good Hope)’이라고 명칭을 고쳤다.

반복된 탐험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탐험대들의 성과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인도로의 항해는 포르투갈과 같은 작은 나라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이었고, 복잡한 내부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1493년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아시아의 동단에 도달했다는 보고까지 들려왔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콜럼버스의 성취를 의심하면서, 1497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1469경~1524)로 하여금 4척의 배로 인도로 향하게 했다. 그의 항해는 적도의 무풍 지대를 피하여 육지로부터 떨어진 항해를 하여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동해안의 항구를 거쳐 1498년 인도의 캘리컷에 도달했다.

현지의 지배자가 별다른 호의를 보이지 않았고, 기득권을 가진 아랍상인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바스코 다 가마는 신행로 개척의 목표인 후추와 육계(肉桂) 등 향료를 입수하여 그 다음해인 1499년 리스본으로 돌아왔다. 그의 짐은 60배의 이익을 남겼으나, 그의 항해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3분의 1의 선원을 희생시켰다. 그가 해상에

서 보낸 시간만도 300일이 넘었다. 그러나 그의 항해는 얼마 후에 다른 유럽 열국이, 그들의 뒤를 따라, 아시아로 진출하고 침략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른바 서세동점(western impact)이 시작된 것이었다.<sup>530)</sup>

### 3. 활동준비

흔히 마젤란(Magellan)으로 통칭하는 페르낭 드 마갈랑이스(Fernā de Magalhães)는 1480년경 오늘날의 오뎨르뚜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친은 트라스 우스 몬트스의 소귀족인 피달구였다. 일찍이 부친을 여윈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빌라 레알(Vila Real) 인근에서 성장했다.<sup>531)</sup> 그는 한 신부님의 도움으로 당시 귀족가문의 자제들이 수학하는, 왕실에서 운영하는 리스본에 있는 시동학교에 입학했다. 마젤란은 그곳에서 포르투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에 관해서 공부했는데, 라틴어와 성경지식은 물론 항해왕자 엔리케(D Infante Henrique)의 생애와 그 주변의 바다 영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꿈을 키웠다.

당시 돈 조안 2세는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의 희망봉 발견과 더불어 인도로 가는 아프리카의 통로를 개척하는 데 진력하고 있었다. 그는 서쪽으로 항해하여 인도에 도착하겠다는 콜럼버스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후 에스파냐와의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 조약을 관철시켰다. 마젤란은 궁정생활을 하면서 항해

---

530) 서세동점(西勢東漸)이란 서양의 열강들이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의 결실로 이어진 경제적 동기로써 원료공급지와 시장개척을 찾아서 동아시아로 진출한 양상을 일컫는 것으로 점차 서양의 제국주의의 팽창과정으로 확대되었다.

531) 이하 본고 내용은 최영수, 『세계일주항해가 마젤란에 관한 연구』, 『중남미연구』 제24권 2호, 2006. 2, pp.259~270을 참조.

와 해상발견 그리고 그로 인한 에스파냐와의 갈등에 대해 자주 보고 들으면서 성장했다.

성년이 되어 그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서 유명한 독일인 해양학자인 마르틴 베하임(Martin Beheim)으로부터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한 이후 동아시아와의 향료교역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사실을 알고 꿈을 키워 나갔다.

마젤란은 나이 25세가 되던 해, 당시 바스코 다 가마의 항로 발견 이후 활발해진 항해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는 인도국(印度國)이라는 식민제국을 건설하는 원정대에 자원입대했다. 마젤란은 친구 세하웅과 함께 1505년 인도 초대 부왕으로 임명된 프란시스코 드 알메이다(Francisco de Almeida) 함대의 일원으로 고아(Goa)로 향했다. 1509년 이집트와 구제라티 연합군이 반격을 취했을 때 디우(Diu)의 해전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웠으며, 알메이다에 이어서 2대 총독으로 부임한 아폰소 드 알부게르끄 통치기인 1510년 고아(Goa)의 전투에 참여해서도 원정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당시 총독은 바다의 지배에만 만족하지 않고 육지에서도 정치적 주도권과 상권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는 ‘포르투갈의 동양지배를 위한 방위기점’을 조망할 줄 알았는데, 그의 관심은 표류하는 동양제국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가 될 만한 곳을 물색하는 일이었다. 포르투갈 함대의 입출항이 용이하고 지배 지역의 중심이 될 장소로 고아가 선정되었다. 역사적으로 알부게르끄 총독은 고아, 말라카 그리고 호르무즈를 정복한 방대한 군사전략을 통해 상업적 지배를 성취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sup>532)</sup>

그러나 마젤란은 1510년 생사를 같이 한 친구 세하웅과 작별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선단에 몸을 실었다. 알부게르끄 총독은 마젤란의

---

532) 이러한 알부게르끄에 대한 평가는 포르투갈의 역사가 쾨르티사웅(Jaime Cortis o)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많은 전공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1513년 그는 모로코의 아자모르(Azaamor) 공격전에 참여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곳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이후로 절름발이가 되었다.

마젤란은 북아프리카에서 전리품을 처리하는 장교인 짜드릴레이루 모르(Quadrilheiro mor)로 승진했지만 이 직책이 많은 사람의 질시를 받는 보직이었기 때문에 배임횡령 혐의에 연루되었다. 그는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행을 결심했으나 마누엘 왕은 그에게 냉정하게 원대 복귀하여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보직 없이 근무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그에 대한 혐의는 풀리고 횡령죄의 범인이 밝혀졌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그는 인도와 모로코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그것도 역시 거절당했다.

마젤란이 불행의 연속으로 고난 받고 있을 즈음, 마누엘 왕의 동양 제국 통치자들에 대한 불신은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 그의 불신은 동양제국 통치자들이 얻는 엄청난 수익 때문이었다. 동양제국 2대 총독 알부케르끄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고아와 말라카 그리고 호르무즈의 정복을 실현시킨 방대한 군사전략 면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적 지배까지도 성사시킨 그의 업적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음에도, 그는 1515년 적대자들의 모함으로 해임되었다. 마젤란 역시 이러한 상황의 희생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정의감에 불타고, 타협할 줄 모르는 그의 성격은 국왕에 대해서도 굽힘이 없었다.

그는 끊임없는 하소연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냉정하게 거절당하자 결국 조국을 떠날 결심을 하였다. 그때 좌절과 방황으로 세월을 보내던 그 앞에 향후 앞날을 예견해 줄 조언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루이 팔레이루(Ruy Faleiro)로 우주 형상지학에서 상당히 알

려져 있었지만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의 해양에 관한 지식수준은 최상급이었다. 마젤란과 그는 오랜 시간 자주 만나면서 지구의 크기나 둘레에 대해 토론했는데, 특히 토르데시야스 자오선에 대한 대화가 그들 간에 가장 관심 있는 대화의 내용이었다.

구형인 지구의 뒷면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실제로 항해를 행한다면 세계 일주 항해가 가능할 것이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사이에 맺어진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커다란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 4. 새로운 세계를 향해

1517년 10월 마젤란은 세비야를 향해 떠났다. 국경을 넘어서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에스파냐 식으로 마가야네스(Fernando de Maallanes)로 바꾸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카를로스 1세의 가신이 되어 에스파냐에 귀화했다. 그곳에서 리스본 체류 시 교류했던 루이 팔레이루와 다시 만났다. 그들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근거하여 몰루카스 군도가 포르투갈의 소유가 아니라 에스파냐에 권리가 있음을 확신했다.<sup>533)</sup>

그러나 에스파냐의 세비아로부터 안틸라스 제도(諸島)까지를 관장하는 통상원<sup>534)</sup>의 관리들 대부분은 포르투갈의 소유지를 통과하지 않고 그들을 향료 군도로 안내하겠다는 마젤란의 생각을 불신했다.

---

533) 이하 최영수, 「세계일주항해가 마젤란에 관한 연구」, pp.270~278 참조.

534) 통상원은 1434년 설립된 포르투갈 세우타 무역관의 변신인 인디아 무역관을 모델로 하고 있었는데, 이 기구는 초창기에는 단순한 교역 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식민지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에스파냐의 대서양횡단교역을 전담하는 독점적인 정체가 되었다. 통상원은 세비아에 설치되어있었고, 그 존재의 성격은 해외교역의 완벽한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후안 데 아란다(Juan de Aranda)만은 마젤란과 팔레이루를 신뢰했다. 아란다는 통상원 원장이며 부르고스의 주교였던 후안 데 폰세카(Juan de Fonseca)에게 간언했다. 그는 이사벨 여왕의 사제였고, 카스티야 자문 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으로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1493년 콜럼버스가 제1차 항해 후 귀환하자 여왕의 지시로 2차 항해의 준비와 발견된 땅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했으며 1524년 죽을 때까지 신대륙에 관한 사실상 국왕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마젤란을 지원한 또 한 사람은 크리스토팔 데 하로(Cristobal de Haro)였다. 그는 부르고스의 상인 가문 출신으로 후추교역에 종사했고, 특히 재정 지원에 있어 푸저가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동 마누엘이 독일의 투자가들과 직접 거래하며, 향료교역을 왕실 독점으로 행하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로는 포르투갈의 작은 원정대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1516년 에스파냐에 와서 폰세카와 제휴하였다.

1519년 9월 20일 드디어 마젤란은 5척의 카라벨 선에 동방무역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세빌리아를 출항했다.<sup>535)</sup>

한편, 포르투갈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마젤란의 항해를 방해하려는 공작을 시도했다. 특히, 1518년 10월 발생한 알바레스에 의한 마젤란 회유는 에스파냐인 들의 폭동을 수반한 것이었다. 그는 마젤란의 에스파냐 국왕에 대한 충성에 대해 카스티야인 들이 의심하도록 많은 일을 조작했으나, 명예를 숭상하는 마젤란의 확고한 태도는 카를로스 국왕에 대한 충성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결국, 에스파냐 정부에 봉사하던 포르투갈인 마젤란에게 아시아의 향료 제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발견하라는 왕의 명령서가 내려졌다.

함대는 브라질 해안 멀리 떨어진 대서양을 가로질러 남하하다가

---

535) 민석홍, 『서양사개론』, p.370

1520년 1월 라 플라타 강 하구를 답사하였다.<sup>536)</sup> 그들은 통로를 발견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으나 그것이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남미 대륙의 해안을 끼고 더 남쪽으로 항해하여 산 마티아스 만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곳도 그들을 동양으로 이끌어줄 통로는 아니었다. 그 후 원정대는 3월 31일 산 훌리안(San Julian) 항에 도착했다. 그곳은 남위 49도 20분에 위치한 곳으로 원정대가 겨울을 나기로 한 곳이었다. 추운 기후 속에서 식량 부족과 오랜 기다림은 선원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고, 불만이 고조된 사관들을 중심으로 폭동이 발생했다.

그들의 요구는 보다 높은 위도의 지역으로 올라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것이었다. 마젤란은 되돌아가자는 뱃사람들의 요구를 간신히 설득시켰다. 장교들의 폭동은 훨씬 더 심각했는데, 부활절 날 저녁 카르타헤나와 가스파르 데 케사다(Gaspar de Quesada)가 이끄는 모반자들은 산 안토니오호, 빅토리아 호 그리고 콘셉시온 호를 접수해 버렸다. 다음날 양측 사이에 협상이 벌어졌다. 마젤란은 협상 회의 시 측근들에게 무기를 감추고 빅토리아 호 선상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마젤란 측은 선상에서 선장 루이스 데 멘도사(Luis de Mendoza)를 몰래 은닉해 간 단도로 살해하고, 배를 다시 되찾았다. 이 순간 항구를 막고 있던 트리니다드 호와 산티아고 호가 합세했다. 저녁이 되자 산 안토니오 호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빅토리아 호의 재빠른 공격으로 폭도들은 진압되었다. 알바로 데 메스키차가 범정을 주도해 재판이 열렸고, 폭동의 주모자들 중 40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선원의 16분의 1이 포함된 재판에서는 케사다만이 참수되었고, 나머지는 멘도사처럼 능지처참되었다. 후안 데 카르타헤나는 왕실의 주요 책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처형은 면했으나, 얼마 후 또다시 폭동을 조장한 죄로 무인도에 버려졌다.

536) 이하 최영수, 『세계일주항해가 마젤란에 관한 연구』, pp.279~283을 참조.

8월 말 출항한 그들은 두 달간의 항해 끝에 10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온 리오 산타크루즈(Rio Santa Cruz)에 도착하여 목재, 물 그리고 물고기를 적재했다. 드디어 봄이 왔고, 주변이 온통 눈으로 뒤덮인 산들과 그 너머에 어떤 바다의 입구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해협이었다. 그들은 이곳에 안고스투라 데 라 에스페란사(Angostura de La Esperanza)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1520년 10월 21일의 일이었다. 그리고 11월 28일 마젤란 함대는 소망의 갑(Cabo Deseado)을 통과했다.

이렇게 마젤란은 후일 그의 이름을 달게 된 마젤란 해협<sup>537)</sup>을 발견하고 어지러운 안개에 덮인 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에 도달한 후, 상상할 수도 없는 곤란한 항해를 거치면서 태평양을 횡단했다. 그의 항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으며, 배가 난파하고 선원의 반란도 있었던 것이다.<sup>538)</sup>

특히, 그의 이름이 붙여진 마젤란 해협의 통과는 난항 중의 난항이었는데, 이를 간신히 극복하고 다시 대양으로 나왔을 때 바다는 의외로 평온하여 이를 태평양(Pacific Ocean)이라고 이름 지었다. 마젤란은 목표로 삼고 있는 몰루카 제도가 신대륙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태평양은 넓기 한이 없었다. 드넓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세 초기 항해자들에게 흔히 발병한 괴혈증(壞血症)<sup>539)</sup>만 하더라도 그의 부하들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질병이었다.<sup>540)</sup>

1521년 3월 6일 그들의 고달픈 여정이 끝나고<sup>541)</sup> 주민이 거주하는

537) 마젤란 해협(海峽)은 남아메리카 남단 끝 부분에 위치한 해협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한다. 그 이름은 포르투갈 출신의 모험가이자 항해가인 마젤란이 처음으로 이 해협을 건너 태평양으로 항해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538) 민석홍, 『서양사개론』, p.370

539) 비타민 C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540) Crane Brinton et. al., 양병우 외 역, 『세계문화사(A History of Civilization)』(中), p.215



3개의 섬을 발견했다. 괌(Guam), 로타(Rota), 사이판(Saipan)이었다. 그러나 유럽인들과 원주민들의 역사적인 최초의 접촉은 순탄하지 않았다. 마젤란은 신선한 음식과 필요한 보급품을 원했지만, 원주민들은 트리니다트 호의 고물에 올라와 작은 보트로 닳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갔다. 분노한 마젤란은 무장한 40명의 선원과 상륙하여 집을 불태우고 7명을 죽였다.

마젤란은 다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할 목적으로 몰루카스 군도의 북쪽으로 향했다. 그는 아시아의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 마젤란 일행은 한 무인도에 상륙하여 텐트를 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이틀 후 9명의 원주민들이 탄 카누 한 척이 다가왔다. 제독은 조용히 기다리도록 했다. 그들과의 만남은 우호적이었고, 그들에게 총을 제공하고 과일, 코코넛 그리고 야자즙과 당밀로 만든 아락주를 교환했다. 신선한 음식과 휴식으로 그들의 마음도 새로워졌다. 3월 28일 다른 작은 섬으로 이동했다. 거기서 그들은 대화가 소통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시아의 변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젤란 제독이 푸에르토 산 홀리안에서 폭동을 겪은 후 일 년이 지나고 맞이한 부활절 첫날 동양 땅에서 근엄한 미사가 거행되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섬 왕국 왕들이 참여하여 유럽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키스했다. 그들은 공손하고 예의바른 민족으로 이제 제독은 그들 새로운 친구와 함께 세부(Cebu)라는 섬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라자 후마본(Rajah Humabon)을 만나 그에게 전쟁이나 평화냐를 선택하도록 경고했다. 라자는 결국 대포에 겁을 먹고 평화를 택했다. 그는 스페인의 보호도 받아들이고, 막강한 이방인의 종교도 받아들였다. 4월 14일 그들 국왕 부부는 돈 카를로스(Don Carlos)와 도나 후아나(Dona Juana)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

541) 이하 최영수, 『세계일주항해가 마젤란에 관한 연구』, pp.284~287 참조.

세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전파한 것에 고무된 마젤란은 1521년 4월 26일 60명의 유럽인들과 후마본-돈 카를로스가 지휘하는 수백 명의 세부인들을 대동하고, 식민화에 저항함으로써 필리핀의 최초의 영웅이 된 마크탄(Mactan) 섬의 추장 라푸라푸(Lapu-lapu)를 굴복시키기 위해 출발했다. 다음 날 아침 49명의 에스파냐 선원들은 1,500명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으나 의외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적을 제압하지 못한 채 후퇴했다. 6~8명만이 도망쳐 나올 수 있었는데, 보트 안에서 발사한 대포도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마젤란은 여기에서 수많은 적들에게 압도되어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동료들은 마젤란의 시체를 찾기 위해 보석과 향료를 주겠다고 했지만, 마크탄의 군대는 마치 그의 시신을 트로피처럼 사수하며 결코 빼앗기지 않았다. 후일 본국에 귀환했을 때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 본 피가페타(Pigafetta)<sup>542</sup>)는 마젤란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선장이었다고 술회했다.

마젤란이라는 강철 같은 리더십의 소유자를 잃은 원정대의 허탈감은 말할 수 없었다. 원정대는 그들의 리더로 마젤란 제독의 충복인 후안 세라노와 포르투갈인 두아르뜨 바르보사를 선택했으나, 그들은 참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인물이었을 뿐 지휘자로서의 자질은 부족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어렵게 진행되었고, 두아르뜨 사령관의 편협한 행동이 죽은 마젤란의 하인 엔리케(Enrique)를 분노케 했다. 결국 그는 세부 섬의 라자에게 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고, 라자는 5월 1일 축하연을 베푼다는 이유로 그들을 초대하여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새로운 사령관 카르발류의 지휘 하에 함대는 향료 군도를 찾아 항해

---

542) 피가페타는 마젤란 제독의 원정대 중 마젤란이 죽은 후 5월 1일 라자가 베푼 축하연에 초대받았으나 전투에서의 부상으로 배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륙한 29명이 2명을 제외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면했으며, 그로 인해 당시의 상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를 계속했다. 이제 115명의 선원만이 남은 그들은 민다나오(Mindanao)로부터 팔라완(Palawan)으로 향했다. 이곳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르네오 해안을 따라 내려가 부유한 부르네이(Brenei)까지 안내해 줄 조타수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스파냐 함대와 원주민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서로 호의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상호 간에 의심을 품어 나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사소한 작은 충돌을 겪은 후 8월에 보르네오 북단의 한 섬에서 배를 수리하고자 머물렀다.

무능한 리더 카르발류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곤살로 고메스 데 에스피노사(Gonzalo Gomez Espinosa)가 총사령관직을 맡았고, 델 카노가 빅토리아 호의 지휘권을 양도받았다. 9월 27일 다시 항해를 개시한 함대는 술루(Sulu) 군도를 배회하다 민다나오 남부 해안 번두리를 돌아서, 마침내 향료 군도에 도착했다. 1521년 11월 8일 델 카노(Sebastian del Cano)가 남은 배 2척을 거느리고 몰루카의 티도어(Tidore) 섬에 닻을 내린 것이다.

델 카노는 1521년 12월 21일 티도어를 출항했다. 같은 해 2월에 빅토리아 호는 티무르로부터 인도양으로 접어들었다. 귀환하는 항해는 태평양에서처럼 고생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델 카노는 자신이 마젤란의 훌륭한 계승자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는 가득 실은 향료를 무사히 본국으로 가져가서 카를로스 국왕을 기쁘게 하고자 했다. 특히, 식량과 물 부족으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카보 베르데에 입항할 수밖에 없었지만 에스파냐인들은 아메리카에서 오는 척 꾸미고 진정한 항해결과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한 선원이 정향과 포도주를 교환하려다가 비밀이 새어나갔다. 포르투갈인들은 그들이 마젤란 함대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륙해 있던 에스파냐 선원들 일부를 체포해 버렸다.

1522년 9월 8일 빅토리아 호와 그의 선원 18명이 가까스로 포르투

갈인의 눈을 피해 희망봉을 거쳐 에스파냐로 돌아왔다.<sup>543)</sup>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가 성공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거대한 항해였으며, 이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구가 30년 전 콜럼버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sup>544)</sup>

에스파냐에 도착한 원정대원 18명과 4명의 말레이인들이 부두에 들어올 때 그들의 모습은 처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포를 쏘아 올릴 만큼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다. 피가페타는 바야돌리드로 가서 돈 카를로스 황제에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독 항해의 값진 기록인 그가 기술한 자필문서의 사본을 봉정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사이에 몰루카 제도를 둘러싼 분쟁을 야기 시켰으나, 1529년 사라고사(Saragossa) 조약으로 해결을 보았다. 에스파냐는 몰루카에 대한 권리를 포르투갈에게 팔아넘기고, 양국의 경계선을 임의로 몰루카 제도 동방 17도 선으로 정한 것이다. 이로써 탐험과 대항해의 첫 장은 끝나고, 유럽의 기타 국가들에 의한 새로운 진출과 팽창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역사상 탐험의 길에서 인류가 참된 용기와 굳은 결의로 온갖 난관과 한계를 극복하고 일구어 낸 진정한 인간승리의 결실이다. 당시 선원 피가페타가 마젤란의 원정에 관하여 적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다.<sup>545)</sup>

“1520년 11월 28일 수요일, 우리는 상기한 해협을 통과하고 태평양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태평양을 3개월과 20일 동안 항해했는데, 그 동안 식량이나 기타 필요한 것을 전연 보급 받을 수 없었다. 우리가

---

543) 당시 에스파냐의 카디즈에 도착한 18명은 1519년 출항한 5척의 배와 243명의 선원 중에 유일한 생존자들이었다.

544) 민석홍, 『서양사개론』, pp.370~371

545) Crane Brinton et. al., 양병우 외 역, 『세계문화사(A History of Civilization)』(中), pp.215~216

먹은 것이라고는 오직 부스러진 그리고 벌레가 득실거리는, 쥐가 먹다 남긴 자국에서 악취가 풍기는 오래된 비스케트뿐이었다. 우리가 마신 물은 노랗게 바랬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우리는 또한 범향(帆桁)이 색구(索具)를 끊지 않도록 주범향 밑에 놓였던 우피도 먹었다. 이 우피들은 햇빛과 비바람 때문에 아주 딱딱해져 4~5일 동안 바다에 담가 두었다가 약한 불에 잠깐 올려놓은 후에 먹었다. 우리는 또한 톱밥과 쥐도 먹었는데, 쥐 한 마리 값이 반 크라운이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마저 충분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곤란 외에도,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불행은 가장 나쁜 것이었는데, 그것은 선원의 대부분이 아래 위 할 것 없이 잇몸이 심하게 부어서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인데, 이러한 병에 걸린 자가 매우 많아서 우리 배에서만 19명이 사망하였다.”

## 5. 결론 및 교훈

마젤란의 원정결과, 향료군도에서 빅토리아 호가 유럽으로 가져온 정향을 비롯한 향료는 원정대 전체 지출액을 넘어서 상당한 이익을 남겨주었다. 델 카노는 명성과 명예를 한 몸에 안고 귀환했다. 그러나 마젤란은 자신의 조국에서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고, 명예 손상 또한 컸다. 에스파냐에서는 델카노의 증언에 의해 그의 공로가 크게 부인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의 집요한 노력과 불굴의 정신이 세계 일주의 항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도 인정되었다.<sup>546)</sup>

그러나 항해의 즉각적인 결과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간의 새로운 외교적 위기로 비화되었다. 마누엘 왕 사후 포르투갈의 국왕이 된 주

546) 이하 최영수, 『세계일주항해가 마젤란에 관한 연구』, pp.290~291을 참조.

양 3세는 빅토리아 호가 실어온 향료를 그에게 되돌려 주고, 항해에 참여한 선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에스파냐에 강력히 요구했다. 에스파냐가 포르투갈의 지배영역을 통과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해결책은 양국 군주가 각각 향료군도의 진정한 위치를 합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확인하는 길밖에 없었다. 동 카를로스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했다. 그것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에서 소홀하게 다룬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인데,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황이 조정자로서 제3의 선박을 파견할 수 있게 하자고 한 것이다. 양측은 배를 파견하지 않았으나, 비밀리에 몰루카스 행 항해를 준비하고 1524년 4~5월 전문가를 보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협상에서 포르투갈은 방어적인 입장이었다. 비록 그들의 입장이 보다 진실한 것이었지만 에스파냐는 밀리지 않았다. 그리고 토르데시야스 선의 안티메리디안(antimeridian)은 동경 134도 40분으로서 실제로 몰루카스 군도에서 동쪽으로 7도 더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에스파냐인들은 포르투갈인의 계산에 사소한 차이도 끈질기게 이용하고자 했다. 회의는 지연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포르투갈 협상단에게 점차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5년 이상을 끌어 온 협상은 1529년 타결되었다. 에스파냐는 몰루카스 군도(群島)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지만, 그 대가로 금 35만 두카두의 배상금을 받았다. 반면 포르투갈의 향료 독점사업은 보장되었고, 그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과 중국에까지 교역망(交易網)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마젤란의 항해는 그를 파견했던 에스파냐가 서쪽으로는 항해를 통해 도달하게 된 동아시아의 한 거점을 얻게 한 분명한 계기가 되었다.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의하여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영토가 될 수 있도록 대서양을 자른 선에 따라, 무역과 제국건설을 양분했는데, 이제 이 분할선이 세계를 돌아

태평양을 절단함으로써, 마젤란이 발견한 섬들이 일부는 에스파냐의 소속이 되었다. 에스파냐는 필리핀도 사실상 에스파냐 영역 밖에 있었지만 그 안에 속한 것처럼 취급하여, 멕시코로부터 필리핀까지를 식민(植民)했다.

신세계(新世界)에서 에스파냐는 육지도 개척하여 수천평방에 달하는 지역을 획득하였다. 해로에 의한 개척자의 뒤를 이은 것이 ‘콘퀴도르’였다. 그들의 절반은 개척자요, 그 절반은 병사와 행정가였다. 수많은 콘퀴도르 중에서 헤르난도 코르테스와 프란시스코 피자로의 두 사람이 역사에 특수한 영광으로 그 이름을 남겼다. 그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신세계의 유일한 두 문명 지역을 정복했다. 멕시코의 아스텍 제국은 1519년 코르테스에 의하여 정복되었고, 페루의 잉카 제국은 1531~1533년 사이에 피사로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신세계를 에스파냐에게 열어 준 사람들이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콜럼버스 이전의 문화는 그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거의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sup>547)</sup>

---

547) Crane Brinton et. al., 양병우 외 역, 『세계문화사(A History of Civilization)』 (中), pp.216~217